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78호 2022. 1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 례

특집 중국의 역사 정책과 동북아 역사문제 2
– 동북공정 20년 평가와 과제 –

우성민 | '동북공정' 전후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인식과 서술 변화에 대한 검토 7
손성욱 | 최근 중국학계의 전근대 종번과 변강 인식 문제 91
이승민 | 고려의 고구려 계승과 고려-요 '종번(宗藩)' 관계에 관한 중국학계의 인식 121
문상명 | 중국의 '창바이산문화론'과 백두산 전유화(專有化) 149

논문

정선화 | SNS 기록을 통해 본 대중의 가야 인식 –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213
박찬우 | 무령왕의 '갱위강국(更爲强國)' 표문과 영동대장군 259
이진한 | 송대 해상(海商) 관리와 송상(宋商)의 '고려 귀화설' 299
김영길 | 요금대(遼金代) 등자에 대한 단편적 고찰 339
김승욱 | 근현대 중국에서 민족 담론의 전개 – 다양한 지식 기반과 내적 긴장 383
윤경민 | 2002년 제1차 북일 정상회담에서의 협상전략 및 정치비용에 관한 연구 457

자료소개

김동일 | '제731부대 유적'의 고고학적 조사 성과와 그 의미 503

서평

이상훈 | 『녹둔도 공동조사 보고서』 – 미지의 섬, 녹둔도를 향한 첫걸음
(서울특별시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문예원, 2021) 537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55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Contents

Special Issue China's Policy on History and Northeast Asian Historical Issues, Vol. 2: Evaluation of Twenty Years of Northeast Project and Tasks Ahead

Woo Sungmin ▮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Perception and Description of Korean History in Chinese History Textbooks: Before and After the "Northeast Project" 7

Son Sungwook ▮ Chinese Academia's Conception of Pre-Modern *Zhongfan* and Border Areas 91

Lee Seungmin ▮ Chinese Academics Perception of Goryeo's Succession to Koguryeo and Goryeo-Liao's 'Zongfan' Relations 121

Moon Sangmyeoung ▮ China's 'Changbai Mountain Cultural Theory' and Occupying of Baekdu Mountain 149

Articles

Jeong Sunhwa ▮ The Public's Perception of Gaya through SNS Records: Focusing on Text Network Analysis 213

Park Chanu ▮ Biǎowén(表文) Related to "Becoming a Strong Country Again(更爲强國)" in King Muryeong's Period and "Great General Yeongdong(寧東大將軍)" 259

Lee Jinhan ▮ Maritime Management in the Song Dynasty Period and the 'Theory of Song Merchants Goryeo Naturalization' 299

Kim Younggil ▮ A Brief Consideration on the Stirrups of Liao and Jin Dynasty 339

Kim Seungwook ▮ The Development of Nation Discourse in Modern Chinese History: Various Knowledge Bases and Inner Tensions 383

Yoon Kyeongmin ▮ A Study on the Negotiation Strategy at the First North Korea-Japan Summit in 2002 and Political Costs 457

Introduction to Documents

Kim Dongil ▮ Archaeological Survey Results of 'Site of Unit 731' and Their Implications 503

Book Review

Yi Sanghun ▮ The Remains and Relics of the Archaeological Investigation of Nokdundo 53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특집

중국의 역사 정책과 동북아 역사문제 2
-동북공정 20년 평가와 과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2..78.001

‘동북공정’ 전후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인식과 서술 변화에 대한 검토

우성민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I. 머리말
II. ‘동북공정’과 중국 역사교과서의 상관관계
III. ‘동북공정’ 이전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관련 서술의 현황
IV. ‘동북공정’ 이후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관련 서술의 변화
V. ‘동북공정’ 경과 20년 시점에서 본 중국 역사교육의 현황과 전망
VI.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지난 2001년 2월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변강사지연구중심에서 출간한 『고대중국고구려역사총론(古代中國高句麗歷史叢論)』의 서문에 의하면 중국은 하나의 유구한 역사의 다민족 국가였고, 이는 각 형제민족이 공동으로 이루어온 것으로서 길고 긴 역사 속에서 역대왕조가 흥망성쇠하는 가운데 국경의 변천이 있었다고 강조하였다.[1] 중국의 변강사지를 연구하는 것은 역사의 경험과 교훈을 종합하여 국가영토주권을 보호하고 중국과 이웃 국가와의 관계를 처리하며 국내 각 민족의 단결을 강화시키고, 애국주의 교육을 진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어서 변강사지연구는 국가영토주권과 민족관계 등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 학계에서 금지시하고 매우 적은 사람이 학문으로 하여 장기간 정체되어 있었다가 흑룡강교육출판사의 대대적인 지원하에 본 총서를 출간하게 되었다고 부연하면서 조국의 통일을 위해, 변강문화의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공헌할 것이라고 하였다. 중국 변강의 연구범위는 역대 변강의 강역, 변강 민족, 변강 문화, 변강 외교, 변강해도, 변강고고, 변강역사지리와 근대 변계 변천 등이며 관련된 논저와 자료, 역저 등이 이 총서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였다.

주목할 것은 이 총서 서문의 집필이 1988년 12월이라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사지(邊疆史地) 연구중심이 주도한 '동북공정'은 2002년부터 공식적으로 추진한 것이지만 『변강사지총서』는 1980년대 말부터 관련 연구결과로서 나온 것이다.

『고대중국고구려역사총론』도 공식 출간은 2001년이지만 후기에 의하면

---

* 투고: 2022년 10월 16일, 심사 완료: 2022년 10월 31일, 게재 확정: 2022년 11월 14일

1 馬大正 · 楊保隆 · 李大龍 · 權赫秀 · 華立, 2001, 『古代中國高句麗歷史叢論』, 哈爾濱: 黑龍江教育出版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96년 하반기 중국사회과학원중 중점연구과제로서 정식 입안되었고 프로젝트팀의 성실한 연구를 통해 1997년 말에 초고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길림성의 고구려 유적지를 답사하였고 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 3성의 고구려사와 동북지방사 학자 간 학술적 교류가 있었으며 1998년 6월에 통화시에서 중국에서 최초로 고구려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해 12월 장춘에서 개최된 중국동북지방사학술토론회에서 본 원고의 프레임과 이론에 대한 의견을 정리했으며, 이 기초 위에 본 프로젝트팀이 수정하여 완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고대중국고구려역사총론』의 첫 부분인 '서언을 대신하여'를 집필한 중국사회과학원 학술위원회 위원이자 중국변강사지연구센터 학술위원회 주임인 마다정(馬大正)이 '고구려 역사 연구 중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약론'이라는 주제의 글을 발표하였는데, 중국의 역사교과서에서 고구려를 한국의 역사라고 서술한 내용을 비판하며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동북공정'과 중국 역사교과서는 '동북공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부터 출발점이 같다고 할 수 있다.

'동북공정'은 고구려사와 한국사의 관계를 부정하고, 고구려사를 중국의 동북지역사에 귀속시키고자 하여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동북공정'의 주장은 한국사 체계를 부인하는 것이자 한국인의 역사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인 고구려사를 비롯한 고조선과 발해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이었다.

중국의 한국사에 대한 인식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중국 역사교과서이다. 중국은 '동북공정'이 추진되기 이전에는 고구려사를 비롯한 한국사를 일정 부분 역사 교과서에 기술하고 있었지만 '동북공정'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중국의 역사인식이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양국 간의 역사 분쟁을 공식화시킨 것이다.[2]

---

2 동북아역사재단 교과서연구센터 편, 2021, 『중국 시진핑시대 교과서 국정화와 역사담론』, 동북아역사재단, 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에 한국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고구려연구재단이 2004년 3월에 설립되었고, 2004년 8월 한중 외교차관은 고구려사 왜곡 문제에 대한 구두양해에 합의하였다.

한중, 고구려사 왜곡 5개 항 구두양해를 보면 "중국 정부는 고구려사 문제가 양국 간 중대현안으로 대두된 데 유념하고, 역사문제로 한중 우호협력 관계의 손상 방지와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 발전에 노력하며, 고구려사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정치 문제화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동시에 "중국 측은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 측의 관심에 이해를 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감으로써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고","학술교류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해결한다"고 하였다.[3]

여기서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에 이해를 표명한다"는 4항은 중국 역사교과서를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왜곡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고구려사 문제를 더 이상 정치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4년 한중 구두 합의 이후, 중국 역사교과서의 고구려를 비롯한 한국사 왜곡 대응은 줄곧 국내 학계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이는 2001년 당시 일본 후소샤(扶桑社) 출판사에서 발간한 우익교과서 파동으로 일본 교과서를 둘러싼 한일 간 외교적 마찰을 빚으면서 국내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었던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교과서는 국가정체성과 미래 구상을 진단할 수 있는 매체가 될 뿐 아니라 사회적 주류의 이념을 반영하여 기술되므로, 주변국의 상호 이해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국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이다.[4]

---

3 이번 '양해'로 중국은 사실상 역사교과서 개정 같은 정부 차원의 왜곡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셈이다. 「韓-中 '고구려사 왜곡' 해결 5개항 구두합의」, 『동아일보』, 2004.8.24 기사 참조.

4 김유리, 2006, 「중국 교과서제도의 현황과 특징-역사교과서를 사례로」, 『중국의 역사교육과 교과서논집』 40, 동북아역사재단, 69~11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올해는 '동북공정' 발발 20년을 경과하는 해이자 한중수교 30주년이기도 하다. 한중수교 30주년을 계기로 30년간의 한중관계의 발전과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성과가 급증하였지만 한중 간의 화합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소로 역사문화의 갈등 요인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중국 역사교과서가 있는 것이다.

종래의 국내 학계에서는 중국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한국사 관련 내용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주목한 연구성과가 비교적 많이 발표되었다. 다만 '동북공정' 전후 시기별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서술 변화의 추이에 주목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동북공정' 발발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동북공정과 중국역사교과서의 상관 관계를 비롯하여 동북공정 전후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서술과 인식에 어떠한 변천 과정이 있었는지 재조명하고,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Ⅱ. '동북공정'과 중국 역사교과서의 상관관계

중국의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연구소는 지난 2002년 2월 '동북공정'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3월에 과제 모집을 공고하였고, 4월에 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어 2003년 8월, 2004년 7월 '동북공정' 전문가 위원회를 북경, 흑룡강, 요령에서 개최하고 당시 최종 95개 과제가 비준을 얻어 이른바 '동북공정' 과제를 공식 추진하였다.[5]

---

5 김현숙, 2022, 「한중 역사 갈등의 현황과 과제-동북공정을 넘어 미래로」, 『동북아역사논총』 77; 김지훈, 2020, 「2002년 전후 중국 동북공정의추진과정과 추진 주체」, 『백산학보』 117; 서길수, 2008, 「중화인민공화국 동북공정 5년의 성과와 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공정’ 과제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포함한 연구부문, 외국(주로 남북한, 러시아)의 관련 서적을 번역하는 부문, 관련 사료의 수집·정리 부분을 포함하였다. 기초연구는 고대 중국 변강이론 연구, 동북지방사 연구, 동북민족사 연구, 고조선·고구려·발해사 연구, 중조관계사 등 역사분쟁과 관련된 연구로 한국사 관련 과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응용연구는 한반도 정세변화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 등 기초연구를 토대로 현실의 국제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책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중국의 동북아 전략과 밀접하여 비공개로 진행하였다.

제1차년도에 해당하는 2002년 기초연구는 27과제였으며 그중 한국사 관련 과제 12개, 응용연구 8개, 번역 과제 14개, 당안관 자료 정리류 과제 4개 등 총 53건으로 파악된다. 제2차년도에 해당하는 2003년 기초연구는 36개, 번역 과제 5개, 당안관 자료 정리류 과제 3개로 비공개인 응용과제를 제외한 총 44건으로 파악된다. 제3차년도에 해당하는 2004년 기초연구는 6개로 당시 중국변강사지연구센터 홈페이지(www.chinaborderland.com)에 공지된 사항이다. 응용 연구는 공개되지 않았기에 상술한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연구소에서 국내 학계의 통계와 달리 최종 95개 과제라고 밝힌 것이다.

국내 학계에서 파악한 ‘동북공정’의 입안과제와 출간 제목 등을 중심으로 분류해보면 크게 고조선, 고구려, 발해, 간도, 민족, 백두산, 조공책봉, 한중관계, 중러관계, 동북지역 변강, 강역 등의 대주제로 나눌 수 있으며, 그중 변강과 강역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2년 입안 제목인 ‘국제법과 중북변경 쟁의문제’(2006년에 ‘강역 귀속 이론 문제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출간됨), ‘조선반도 현황연구’, ‘조선반도 시국과 대책연구(출간 제목, 입안 제목: 조선반도 현황연구)’, ‘중국과 조선의 속국관계와 변경 역사 연구’, ‘서방학자들의 변강이론문제에 대한 연구’, ‘중국

망」, 『고구려발해연구』 14, 4, 1~6쪽. 다만 이 글에서는 중국학계에서 공개한 과제 통계를 인용하였고, 그 통계 숫자가 국내 학계와 다른 이유를 설명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 변경역사 연구자료 정보(조·한·일 부분), '일본 외무성 "간도"문제 자료(일문)', '조선반도 통일문제에 관하여' 등 모두 북한 유사시 또는 남북 통일 시 한반도와의 국경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동북지역은 오늘날 중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중국의 영토이어야만 하는 중국식 논리에 기준하여 현재의 국경과 강역, 이를 소급한 과거 역사의 강역과 변천을 연구하여 역사학, 고고학, 민족학, 생물학, 문헌학, 지리학 등의 관점에서 중국의 귀속성을 확증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이는 동북공정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따르면 무수한 소수 민족의 역사가 중국사로 편입되는 것이다.[6]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의 전근대사와 현대사 역사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국가 이데올로기로서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일관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다민족 국가로서 민족 모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중국의 영토 위에서 존립한 역사상의 모든 국가가 중국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역사교육을 통해서 확인시키는 것이다.

'동북공정' 이후 2001년 과정표준과 비교했을 때 2011년 과정표준에서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따른 서술이 더욱 두드러지며, 분권적 요소, 민족 차별의 현실 등이 삭제되어 의도적인 역사의 가감 현상도 보인다.[7]

---

6 여호규, 「[시론] 더욱 교묘해진 중국의 한국사 왜곡」, 『중앙일보』, 2022.10.2.

7 중국의 이른바 '통일적다민족국가'는 현재 중국의 판도를 중국사의 외연으로 간주하고 그 영역 안에서 지금까지 전개된 역사 전체를 중국사로 파악려는 목적의식 아래 등장하였다. 이는 다원적 기원을 가진 여러 민족이 한족(漢族)을 중심으로 하나의 중화민족을 형성하였다는 이른바 '다원일체격국(多元一體格局)'론이 나온 이래 강화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기조를 역사교과서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교과서 편성 기준인 교육과정 지침에 입각한 것이다. 1956년에 발표된 '고급중학중국역사교학대강(高級中學中國歷史教學大綱)'에서 "우리나라는 통일적다민족적국가로 우리나라 역사는 각 민족 공동의 역사다"라고 한 이래로, 표현은 다소 변동이 있지만 통일적다민족국가 기조를 오히려 강화해오고 있다. 김종건, 2011, 「중국 역사교과서의 통일적다민족국가론 분석-근현대사 서술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11년 말, 중국 정부가 애국주의 정치교육으로서 역사교육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을 제정한 뒤 2017년 중등 역사교육과 관련하여 국정화 방안을 공식 발표한 후 중국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파악해 보면 공통적으로 영토교육을 강화하는 서술 특징이 확인된다. 모든 교과서의 역사지도에 동해, 발해, 황해, 남해를 표기했고, 역사적으로 중국 영해임을 강조했는데, 국가의 핵심 이익에 해당하는 '영토' 관련 역사적 근거를 가능한 한 확보하여 현재 영유권 분쟁지역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교육하려는 입장과 무관하지 않다.[8]

이렇게 볼 때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기저로 한 중국 역사교과서와 동북공정 입안 과제 중 강역, 변강, 국경 등 영토문제가 가장 비중이 크다는 사실은 상호 유기적 관계임을 시사한다.

'동북공정' 연구과제 입안 과정과 절차, 연구 분류 등에 대한 중국학계의 발표가 알려지면서 국내 학계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2007년 1월 '동북공정' 5년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에도 국내 학계는 '동북공정'제 1차년도에서 3차년도까지 '동북공정' 과제 선정 과정, 과제 내용, 신청 기관 등을 파악하여 발표하면서[9]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한국사 연구동향에 주목하였다.

최근 발간한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동향』에서 기본적으로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을 변함없이 견지하면서 보완·심화하는 단계로 가고 있고 동북공정 종료 후에도 양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10]

『중국 역사교과서의 통일적다민족국가론 분석』, 동북역사재단.

8 특히 왕조별 형세도(강역도)에서 남해 제도(諸島)에 대한 확대 지도를 삽입하는 반면 창해(漲海) 등 남해의 고지명을 표기했는데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경우만 보더라도 총 44회 삽입된 지도에서 영해를 표시하였다. 우성민, 2021, 「중국 신간 중학교 역사교과서 개편의 특징과 한국사 서술 검토」, 『중국 시진핑시대 교과서 국정화와 역사담론』, 동북아역사재단, 34쪽.

9 서길수, 2008, 앞의 글, 4, 1~6쪽.

10 최근 2007년에서 2015년까지 발표된 고구려 연구물들을 분석하여 출간한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동향』에서 고구려 연구를 진행하는 대학과 기관, 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와 같은 국내 학계의 관심의 고조에 따라 2002년 4월 선정된 '동북공정' 과제 기초연구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흑룡강통사(黑龍江通史)』가 16년이 지난 시점인 2017년 6월에 흑룡강인민출판사(黑龙江人民出版社)에서 출판된 것을[11]확인할 수 있었다.

『흑룡강통사(黑龍江通史)』가 16년이 지나서 출간된 이유는 연구 과제 책임자였던 전 중국사회과학원근대사연구소 부핑(步平) 소장이 작고한 개별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연구 책임자의 개인 사정 외에 여러 다양한 배경으로 인해 동북공정 항목 중에는 변형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2]

같은 맥락에서 2019년 12월에 중국사회과학출판사에서 출간된 『동북 고대 방국속국사연구(東北古代方國屬國史研究)총서』의 총서문에 보면 동북공정을 주도한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 마다정,[13] 리성[14] 등이 참여하고 있어 동북공정의 맥을 잇는 대표적인 연구결과물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총서

학과 대학 간 연계가 밀접하여 신진 연구자 양성에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점이 눈에 띈다고 지적하고 있듯이 한중 현안 관련 모든 분야가 전략적인 분업 시스템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현숙 외, 2017,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동향』, 역사공간.

11 步平, 2017, 『黑龍江通史』, 哈爾濱: 黑龙江人民出版社.

12 동북공정 입안과제 19번의 '장백산지구 역사·문화, 귀속문제 연구'의 경우 제목을 『장백산문화연구총서: 중국장백산문화』로 변경하여 2014년 길림출판그룹유한책임공사에서 출판하였다. 주목할 것은 연구책임자 동북사범대학 劉厚生이 2015년 4월 2일 『길림일보』를 통해 밝힌 출간 목적이다. 한국이 고토 회복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장백산이 고대로부터 중국의 영역이었음을 세계 만방에 알려 조국의 변경을 수호하기 위해 이 책을 출판한다고 밝힌 내용이다. 동북공정의 결과물이 어떻게 대중화되고 애국주의적 역사관이 반영되어 홍보되고 있는지 확인되는 실례라 할 수 있다.

13 마다정은 동북공정 입안과제인 '중국 동북변강의 역사 총론'의 연구책임자로 2003년 8월 중국 사회과학 출판사에서 『중국동북의 국경문제 연구(中国东北边疆研究)』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14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의 리셩(厲聲)은 청대, 민국시기 변무 및 외교, 조선의 이민 등을 다룬 동북변다룬 강당안선집(東北邊疆檔案選輯)을 일부 출판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4권 중 8권의 저자가 2002년 당시 동북공정 입안과제의 책임연구자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서문에서 1998년에 비록 중국 동북사 6권을 출간하여 중국 동북지역의 소수민족, 역사 문화를 다루면서 중원과 동북과의 관계를 분석한 적이 있었으나 동북에 많은 방국·속국과 관련된 사료가 너무 분산되어 있고 체계가 없어 당시 마다정이 제안하였다고 밝힌 것이다.

『동북 고대 방국속국사연구』 총서의 내용 또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등을 중원왕조의 번속체제 내에 위치하였던 중국 동북지방의 중요한 '지방민족정권'이라고 강조하며 번속국, 신속국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발해뿐 아니라 신라도 당의 번속국이라고 설명하거나, 고려의 경우 단순한 '종번관계'가 아니라 정치·경제적으로 원조에 완전히 예속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명조와 한반도의 '종번관계'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이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고대 한국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도외시하여 전근대 한중관계를 번속관계, 종번관계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번속'이론은 동북공정 2003년 입안과제 82번에 해당하는 『중국고대번속제도연구(中國古代藩屬制度研究)』에서 분석한 이론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2019년도부터 사용된 중국 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중외역사강요』에서 조선을 청의 번속국으로 표현하며 중국과 주변국 관계를 '종번관계'로 강조한 점이다.

이들은 동북공정과 중국 역사교과서의 역사인식의 맥이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시 상술한 마다정의 '고구려 역사 연구 중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약론'으로 돌아가면 이 역시 동북공정 입안 과제 12번에 해당한다. 그중 제 2장은 중국 역사교과서 중 고구려에 대한 표현법의 변화와 설명에 관한 내용인 것이다.

국내 학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북공정'의 기본 틀을 제공한 중국학자 마다정 스스로가 밝힌 내용인 만큼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15]

---

15 안희천, 2006, 「중국의 동북공정 교과서 왜곡 출발시점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교육』.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음은 중국 역사교과서와 '동북공정'의 상호 연계를 파악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역사교과서는 주로 국가교육 부문에서 인정한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대학에서 사용하는 역사 교재이다. 교육사업의 발전과 역사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것이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와 대학 역사교과서 중 고구려에 대한 표현법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50년대 중·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의 한반도 관련 단원에서 고구려를 고대 한국의 한 국가라고 서술하고, 중국 역사교과서에서 수와 당나라의 고구려에 대한 전쟁을 대외 침략전쟁이라고 하였다.

1980년대에 이르러, 1981년에 출판한 중·고등학교 『세계역사』 교과서 상책에는 여전히 고구려를 한반도 북부의 노예제국가로 보았다.

대학교 역사교재 중에는 세계중세사 부분이 가장 대표적이다. 1950년대 중기, 일부 『세계중세사』 가운데 기자조선, 위씨조선과 고구려를 모두 한반도의 고대 국가로 소개하였다. 일부 교재에서는 기자조선, 위씨조선과 고구려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1956년 고교출판사에서 출판한 『세계중세기사강의(世界中世紀史講義)』이다.

1960년대 교육부처에서 추천한 통편교재인 쩌우이량(周一良) 등이 책임 편찬한 『세계통사』 중세기 부분에 기자조선, 위씨조선과 고구려를 모두 한반도 고대국가로 인식했고, 고구려에 대한 소개가 좀더 상세하였다.

1978년 교육부처가 14개 단과대학 및 대학교와 공동 편찬한 『세계중세기사강의(世界中世紀史講義)』에는 고구려가 중국에서 생겨난 하나의 국경을 넘는 과경(跨境) 민족이라고 표현하였다.

1985년 인민교육출판사에서 출판한 쑨이쉬에(孫義學) 주편의 『세계중세기사』, 1990년 북경대학출판사에서 출판한 쭈환(朱寰) 주편의 『세계상고중고사』 같은 대학교재는 고구려에 대한 표현법에 매우 큰 변화가 생겼는데, 고구려를 집안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심으로 한 요동과 압록강 유역에 설립된 고대 정권이라 인식하였다.

1997년, 인민출판사에서는 여러 단과대학과 대학이 공동으로 통편교재인 『세계통사』 교재(6권)를 출판했는데, 기자조선,위씨조선, 고구려를 중국 북방의 책봉국과 소수민족 정권으로 처리하고, 수당의 고구려 정벌을 통일을 수호한 전쟁으로 인식하는 등 객관적으로 역사를 서술하였다.

우리나라 대학교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고구려에 대한 표현법은 매우 뚜렷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1950년대 고구려를 한반도의 고대국가로 보았는데, 이제는 중국 동북 역사상 소수민족정권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정치 분위기의 영향 때문이다. 1950년대 중국은 각 방면에서 모두 회복하고 발전하고 있었고 '항미원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중국과 북한 양국 인민의 우호와 단결은 하나의 정치적 흐름이 되어 연구논문이나 출판서적을 막론하고 모두 북중 우호를 중심에 두고 있었다.

둘째, 학술 연구 상황에서 볼 때, 중국학자들은 동북지역의 고대 봉건국가와 민족정권에 대한 연구가 없거나 부족하였고, 전문 연구 저작이 없었으며 논문 또한 많지 않았다. 교재를 편찬할 때 특히 세계사 교재를 편찬할 때 옛 소련의 『세계통사』와 일본의 『동양사대계』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았다.

셋째, 개혁개방 이래, 특히 최근 몇 년 중국 학자들은 동북지역의 고대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고구려 민족과 정권의 귀속문제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형성하였다. 일부 대학교와 중·고등학교 역사 교재는 이러한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각기 서로 다른 정도로 반영한 바, 표현법상 일부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1950년대부터 1970년까지 체계적인 역사교재가 없기 때문에 관련 역량을 조직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출판되고 사용했던 역사교과서에 대한 전면적인 검열을 진행하는 동시에 교재를 수정할 때 발행한 관련 문건들을 깨끗하게 정리할 것을 건의한다.

이는 역사교과서 중 고구려 표현법의 변화 과정에 대한 우리의 전면적인 이해를 한층 더 높일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상 마다정의 중국 역사교과서 중 고구려에 대한 표현법의 변화에 관한 관점을 정리해보면 몇 가지 주목할 특징이 확인된다.

첫째, 동북공정을 공식화하기 이전부터 역사교과서 수정을 전제로 하고 있었고, 거국적인 준비를 기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역사교과서가 개편되기까지 국가이념과 정책 배경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장기간을 거쳐 연구과정이 만들어지므로 교과서가 집필되어 발행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16] 결국에는 마다정의 상기 설명의 마지막 부분에서 역사교과서에 대한 전수 조사를 건의하여 향후 대대적인 수정을 예고하고 있다.

둘째, 1980년대까지 고구려를 한반도의 역사로 기술한 중국 역사교과서를 비판하고, 고구려를 중국 북방의 소수민족 정권으로 서술한 내용이 객관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이 국제전이 아니라 통일을 수호한 국내전이라는 역사 의식을 드러냈다.

다만 1981년에 출판한 『세계역사』 교과서 상책에 고구려를 '여전히' 한반도 북부의 노예제국가로 보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뿐만 아니라, 오늘날 중국 요녕, 길림, 흑룡강성의 일부를 영역으로 삼고 있었으므로 조선반도의 북부에만 국한시키고 있다는 점 또한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는 상술한 현재의 영토를 기준으로 역사의 범위를 설정하려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고구려를 한국사로 간주하지 않기 시작한 중국 역사교과서의 시작점으로 1978년 중국 교육부처가 14개 단과대학 및 대학교와 공동 편찬한 『세계중세기사 강의』부터 드러나고 있는데, 『세계중세기사 강의』의 주편인 쭈환(朱寰)은 '동북공정'의 고구려와 발해 관련 연구 및 둥북민족과 변강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한 동북사범대학교 출신이라는 점 또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마다정이 중국 역사교과서 중 고구려에 대한 표현법의 변화와 설명에 관한 전문을 게재한 『고대중국고구려역사 총론』도 공식 출간연도인 2001년은 중국

16 안희천, 2006, 위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정부에서 '동북공정'을 추진하기 이전이지만 『고대중국고구려역사총론』 후기에 서술한 바와 같이 1996년부터 고구려 연구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강조하며 정치와 학술관계, 정책과 연구의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였다. 중국학자들에게 애국주의 전통 정신에 입각하고 국가이익을 위하여 고구려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장려한 것이다.

마다정은 중국 역사교과서의 고구려에 대한 서술이 한국사에서 중국사로 변화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1950년대 북중 우호 관계를 고려하고 있었고, 학술적으로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등 배경만 열거하였다.

반면 중국이 '국가 이익'과 '국가영토주권'을 표방하면서 고구려 연구가 왜 긴박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기피하였다.

그러나 『고대중국고구려역사총론』에서는 북한과 한국 학계 및 '재야 학계'의 고구려 연구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는 가운데 고구려 연구가 왜 중요하고 긴박한지 보여주는 단서가 내포되어 있다.

북한의 고구려 유적, 유물의 고고학 방면의 연구성과와 고구려의 요동 회복과 영토 확장, 한국학계의 고구려 연구 '붐'과 북방정책, 재야사학의 만주벌판 수복 등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특히 1966년 중국이 문화대혁명의 동란에 처해 있던 때 북한이 단독으로 중국 동북지방의 유적 발굴 보고를 출판한 사건에 대해 중국학계는 유감을 표하며, 북한에서 1960년대 발굴된 60기의 고구려 시대 고분 벽화를 계기로 고구려가 고대 북한 역사의 정통이며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했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북한의 고구려 연구가 정치화되고 오도되었다고 비평하였다.

이는 중국이 '동북공정' 추진 이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중국 역사교과서에 '동북공정'의 역사인식을 반영하고자 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검토한 '동북공정' 추진 이전단계의 중국 역사교과서의 고구려 서술 관련 중국학계의 논의 과정과 동북공정과 중국 역사교과서의 상호 상관관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서술의 실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동북공정 입안과제와 관련하여 한중 역사 주요 현안으로 분류되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 근대 한중관계, '항미원조전쟁' 관련 서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쟁점별로 편폭의 차이가 크지만 전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통시적으로 다루는 차원에서 일부 고려와 조선 관련 서술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한 동북공정 입안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동북공정식 역사인식과 맥을 같이하는 '장성' 관련 서술의 변화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17]

Ⅲ. '동북공정' 이전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관련 서술의 현황

중국의 역사교육에 대한 국내 학계의 관심은 2000년대 이르러 중국 역대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 발행제도 등과 관련된 심도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특히, 동북공정이 국내 학계에 알려진 것을 계기로 관련 연구가 한층 더 활발해졌다.[18]

그동안 중국의 역사교과서에 서술된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 발해 등 동북지방을 배경으로 하는 한국고대사 관련 서술에 대한 분석과 비판적 연구가 상당히 많이 축적되었기에 이 장에서는 상세한 내용보다 전체 흐름 파악을 위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의 역사교육 교과과정은 1950년

17 중국의 동북공정이 공식화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내 학계의 관련 연구 성과를 정리한 '회고와 전망' 성격의 글이기에 기왕의 발표된 것과 중복된 내용이 있음을 밝힌다.

18 양승훈·박현숙, 2019, 「초급중학교 『중국역사』교과서(2016판)의 한국 고대사 서술 내용과 특징」, 『선사와 고대』 59호, 14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8월 교육부에서 『중학잠행교학계획(초안)』과 『중등학교잠행교력』을 반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어 1953년 3월 교육부에서 『중소학교학대강(초안)』을 반포하였고, 단일한 필수과목을 설치하여 전국에 통일적으로 시행하였다. 이 과정은 소련식 모델에 따르는 『역사교학대강(歷史教學大綱)』에 의해 편제되었다. 역사교학대강은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중국 교육부에서 작성한 교육 지침이라 할 수 있다. 1958년까지 교육부는 거의 매년 새로운 교학계획을 발표하였고, 문화대혁명이 종결된 후인 1978년 이래 외국의 교과과정 개혁을 참고하여 교육내용을 현대화시켰다. 1988년부터 교과서 발행제도가 우리의 국정제에 해당하는 통편제에서 검정제에 해당하는 심정제(審定制)로 바뀌고, 1990년대에 이르면서 미국의 역사교육과정을 모델로 한 「역사과정표준(歷史課程標準)」체제에 의한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탄생하게 되었다.[19]

중국의 교학대강체제부터 한국사를 다룬 서술은 크게 고조선, 고구려, 발해, 당과 신라의 교류와 명의 조선 원조 출병으로 기술되는 임진왜란, 한국전쟁 관련 서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고조선

동북공정 이전 중국 역사교과서 속의 고조선 관련 서술 내용은 주로 춘추전국시기의 전국칠웅 항목의 전국형세도와 진나라 강역과 서한강역을 표시하면서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진 이외의 지역에 조선, 흉노를 표기하는 가운데 포함되어 있거나 한나라와의 경제문화 교류에 집중하여 언급되고 있다.[20]

중국사의 입장에서 한군현 설치가 이루어졌던 한대를 고조선을 서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전국시대와 진, 한 대에 정국의 혼란을 피해 다수 중

19 과정교재연구소편, 2008, 「20세기 중국 중소학 과정표준·교학대강회편 역사권」, 동북아역사재단 자료집, 전북대학교 사회교육학부 김유리 교수의 해제에서 재인용.

20 조영래, 2010, 「중국 중등 역사교과서의 고조선과 장성에 관한 서술과 그 비판」, 『중국 역사교과서 검토회의 발표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8~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인들이 망명하였고 이 과정에서 연나라 사람 위람에 의한 위만조선이 건국되었다고 강조한 것이다. 자칫 위만조선 이전에는 한반도에 정치적인 실체가 없었다가 외부 요인에 의해 고조선이 형성되었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이 국내 학계의 공통적인 지적이다.[21]

고조선의 출발을 이와 같이 보았기에 그 문화도 결국은 중원문화라는 고급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면서 궁극적으로는 한국사가 위만조선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중국의 속국이자 아류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22]

이러한 역사인식은 현대 중국의 고조선 연구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일본의 제국주의의 사학과 유사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국내 학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북공정의 역사적 배경과 연동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의도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국 및 진한 강역을 보여주는 지도에는 전국 연장성의 동단이 청천강 하류, 진 장성의 동단이 대동강 하류, 서한의 최대 강역이 북으로는 제2송화강 유역, 동으로는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동해안, 남으로는 경기 북부와 강원도 춘천 일대로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전국 및 진한 시기 고조선은 청천강 이남의 평양 또는 대동강 하류 외곽의 평양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이들 교과서에 반영된 연·진·한 장성 동단은 담기양의 『중국역사지도집』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중국사회과학원에서 1982년에 공간한 것이지만 실제는 청말 중국 최초의 근대적 역사지도집인 역대여지도를 제작한 양수경 설을 참조한 것임을 알 수 있다.[23]

양수경은 『사기』, 『한서』 지리지, 『수경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진한의

---

21 오강원, 2006, 「중국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고조선 서술 분석과 비판」, 동북아역사재단 편,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고대사 서술문제』, 동북아역사재단, 47~48쪽.

22 오강원, 2006, 위의 글, 47~48쪽.

23 오강원, 2006, 위의 글, 28~2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경계를 대동강으로 비정하였지만 문제는 장성에 대해서 별다른 고증을 하지 않았음에도 중국 학계의 고조선 연구에 대단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24]

흥미로운 사실은 이 관점 역시 일본의 제국주의의 사학과 유사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일 갑오전쟁 이후 1896년 중국은 처음으로 일본에 유학생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는데 일본으로 유학 혹은 출사(出使)하는 청조(淸朝) 관원, 유학생들은 일본 학교에서 역사와 관련 과목을 이수할 경우 반드시 지나통사(支那通史)와 동양사요(東洋史要) 등 일문(日文) 교과서를 접해야 했기 때문에 자연히 일본의 문명사관(文明史觀)과 사학(史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귀국 후 중국의 근대사회사상, 정치, 교육, 문학, 언어 등 각 방면에서 영향을 주었다. 문명사관을 중국에 전했고, 또한 중국사학 발전에 기여하였는데, 양수경의 일본 출사와 그의 학문에 미친 영향에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애국주의사상을 가진 청말(淸末) 개혁가들이 외적의 침략을 방어하고, 변강을 공고히 함으로써 청제국을 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변경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하였고[25]이와 같은 내용은 고스란히 청말 중국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반영되었으며, 일부 관점은 동북공정의 논리와 동일한 내용으로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에서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민국 12년(1923)에 상해상무인서관(上海商务印書館)에서 간행한 여사면의 『자수적용(自修適用) 백화본국사(白話本國史)』에서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멸한 후 4군을 설치한 이후부터 조선반도의 북부가 중국의 판도에 들어왔다고 하여 당시 일본학계의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26]

이와 같은 배경하에 중국의 진나라 강역도에서 진의 영역이 한반도 서북부

---

24 오강원, 2006, 위의 글, 28~29쪽.

25 김정현, 2010, 「20세기 中國의 韓國史 서술과 日本의 植民史觀」, 『中國學報』 第六十一輯.

26 우성민, 2019, 「근현대 한중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고구려·발해 역사인식」, 임상선 편, 『한국고대사 계승 인식Ⅱ-근현대 편』, 동북아역사재단, 34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역까지 그려져 있거나, 양한시기 낙랑군이 중국문화를 전파하는 중국문화의 중심지라는 역사인식이 반영되었고 고조선에 대한 정체성은 희석되었다.

다음은 고조선에 이어 고구려와 발해에 대한 서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1956년의 『소학역사교학대강(초안)』과 1963년의 『전일제소학역사교학대강(초안)』에 의거한 한국사 관련 서술부터 소개하고자 한다.

2. 고구려 · 발해

1956년의 『소학역사교학대강(초안)』에 의하면 중국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라는 것을 알게 하고, 각 민족의 우호 협력이 중국 역사의 발전을 이룩해왔음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시기에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 역사교육 개설서를 통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56년 교학대강에 의거한 『중국역사』 제5장 수당 오대 부분에서 고구려에 대한 서술은 "수양제의 포학한 통치는 고구려를 침공하는 전쟁에서 사람들에게 심각한 재난을 안겨주었다"고 밝히고 있어 문헌 사료에 부합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발해 관련 서술의 경우, 1963년의 『전일제소학역사교학대강(초안)』에 의한 초급중학 2학년에서 중국고대사를 학습하는데, 이때 토번 · 회흘 · 남조에 이어 돌궐이 함께 다루어지고, 새로이 말갈이 포함되면서 발해가 말갈의 역사로서 다루어지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1961년 상경성과 육정산 고분군이 전국 중점문물보호단위에 포함되는 것을 통해 보았을 때, 당시 발해를 중국사로 다루려는 것이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이해된다.[27]

27 임상선, 2006, 「중국 역사 교과서의 발해사 내용 비판」, 『중국 역사 교과서의 한국 고대사 서술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16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 1956년 교학대강과 1963년 교학대강에 언급된 고구려와 발해[28]

		1956년 교학대강		1963년 교학대강	
		중국역사	세계역사	중국역사	세계역사
고구려	소학			제26과 와강군 고구려 침공	
	초중	5. 수당 오대 (1) 고구려 침공		제5편 봉건사회(3) 수, 당 제1장 수조 수양제의 고구려 침공	
	고중	5. 수당 오대 19과 수나라 – 고구려 침공전쟁 20과 당의 강성 시기 – 신라 원조로 통일 달성 고구려 멸망 (1) 고구려 침공			제4장 아시아 동부의 봉건 국가 제2절 한반도와 베트남 – 삼국정립과 신라의 한반도 통일
발해	소학				
	초중	5. 수당 오대 (1) 고구려 침공		제5편 봉건사회(3) 수, 당 제3장 당과 아시아 각국의 교류 제4장 돌궐, 토번, 회흘, 남소, 말갈 – 말갈 부분에서 발해 건립, 대당관계 명시	
	고중				

28 구난희, 2006, 「중국 역사교육에서의 '민족문제'와 고구려 · 발해 서술 변화에 대한 고찰」, 『중국의 역사교육과 교과서』, 고구려연구재단, 228쪽 표 1 활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56년 교학대강과 1963년 교학대강에 이어 발표된 1978년의 「전일제 10년제학교중학역사교학대강(시행초안)」에서는 수양제의 고구려에 대한 전쟁을 제6절 수의 통일과 수말 농민 전쟁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서술 구조는 동일하다. 그러나 발해 관련 서술은 '발해도독부의 설치' 등을 추가하면서 '말갈과 발해', '남조와 내지와의 관계'라는 소단원에서 발해 관련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발해를 말갈족이 세운 국가로 언급하며 '내지'와의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중국 경내에 존재한 소수민족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였다. 발해를 흑수도독부와 함께 발해도독부로 명시하는 가운데 당의 지방도독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어 발해사에 대한 중국사 편입이 단계별로 심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이어 1980년의 교학대강과 1986년의 교학대강부터 고구려와 발해 관련 서술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난다. 고구려의 경우, 1986년의 교학대강의 고중 중국역사에서 고구려 전쟁이 삭제되기 시작하였고, 세계역사에서 한반도라는 별도의 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중국과 주변 민족 간의 대립을 감추고, 분열보다는 통일과 융합이 강조되는 가운데 각 소수민족 정권에 대한 입장을 명시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내용편제로 볼 수 있다. 상술한 마다정의 중국역사 교과서상의 고구려 관련 표현법의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가 된다.

발해사의 경우 1980년의 「전일제10년제학교중학역사교학대강」에서 이전과 달리 당조의 강역 단원이 추가되었고, 1986년 「전일제중학역사교학대강」은 절 명칭이 '변강 각족의 발전'으로 바뀌는 변화가 나타났다.[29] 이어 '당과 아시아 각국의 관계'를 당조의 대외관계로 수정하고, 한반도의 관계를 왕래로 바꾸었다. 특히 당대 소수민족을 별도의 단원으로 이들의 역사를 중국사에 편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 역사상 소수민족이 건립한 왕조가 있었으나 '외래정권'이 아니라 당시 중국의 중앙정권이었고, 소수민족이 건립한 지방정권은 중국 국경 내의 지방정권이었다고 주장하였다.

29 임상선, 2006,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2〉 1980년 교학대강과 1986년 교학대강에 언급된 고구려와 발해[30]

		1980년 교학대강		1986년 교학대강	
		중국역사	세계역사	중국역사	세계역사
고구려	소학			제26과 와강군 고구려 침공	
	초중	제3편 봉건사회 제3장 봉건사회의 번영 제2절 수통 일과 수말 농민 전쟁 – 수양제의 대고구려 전쟁	제5장 아시아봉건국가 제1절 조선(한반도)	제5편 봉건사회(3) 수, 당 제1장 수조 수양제의 고구려 침공	
	고중	5. 수당, 오대 19과 수나라 – 고구려 침공 전쟁 20과 당의 강성시기 – 신라 원조로 통일 달성 고구려 멸망 (1) 고구려 침공			제4장 아시아 동부의 봉건국가 제2절 한반도와 베트남 – 삼국정립과 신라의 한반도 통일
발해	소학				
	초중	제3편 봉건사회 제3장 소수민족지구의 발전 – 흑수도독부와 발해도독부의 위치 – 당과 아시아 각국의 관계 – 당과 한반도의 관계	제5장 아시아 봉건국가 제 1절 한반도 – 신라의 통일과 봉건제도 발전 – 중국과 한반도의 문화 교류	제2장 당조 전기의 번성 제2절 변강 각족의 발전 – 발해도독부의 설치 – 당과 토번이 한 집안이 되다 제3절 당조의 대외관계 – 당과 한반도의 왕래	
	고중				

30 구난희, 2006, 앞의 글, 237쪽 표 2 활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편 1989년 6월 4일에 일어났던 천안문 사건 이후 중국 사회의 분열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한 민족 '통합'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되면서 애국주의 교육을 강조해왔다. 개혁개방의 실시 후 중국 청소년들이 서양에 대해 민족적 비하감을 지니게 되었음을 주목하고 당시 강택민 총서기는 주원인이 중국사에 대한 학생들의 무지라고 지적하면서 역사교육을 한층 더 강조하였다. 동시에 민족문제에 대한 기본시각으로 한족을 주체로 한 통일적 다민족국가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같은 맥락에서 고대의 민족전쟁은 '형제 민족 간의 모순'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논리에 대해 국내 학계는 역사상에 존재했던 민족 간의 대립, 각 왕조의 흥망을 통일적 다민족국가로서 중국 속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하였다.[31]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90년 교학대강부터 고구려 전쟁에 관한 사실은 대부분 생략되었는데, 이는 민족 간 대립이 교학대강의 민족문제 처리원칙과 배치되기 때문이라는 해석과 함께 상술한 마다정의 중국 역사교과서상의 고구려 관련 표현법의 변화와 그 맥을 같이한다.

발해사에 관한 서술은 종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당조의 변강 지역의 한 역사로 발해를 취급하고 발해도독부를 주요한 개념으로 전면에 등장시키고 있다. '수레도 책도 한 집안(車書本一家)'이라는 단원명에서 발해를 다루면서 송화강과 흑룡강 일대에 수당 시기에 속말의 말갈이 강대해졌다고 서술하고 당으로부터 '군왕'을 책봉받은 나라로 처리함으로써 중국사의 입장에서 서술하였다.

그럼에도 일부 교과서에는 여전히 고구려 관련 서술이 간략하게나마 언급되었고, 세계역사의 당과 아시아 각국의 경제문화 교류 부분에서 아시아 각국 중 가장 처음 소개된 국가는 한반도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1999년에 인민교육출판사에서 출판된 『중국역사(中国歷史)』(7학년 하책) 제5과 '당과 신라와의 우호관계'라는 소단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

31 구난희, 2006, 위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3〉 1990년 교학대강과 1996년 교학대강에 언급된 고구려와 발해[32]

		1990년 교학대강		1992년/1996 교학대강	
		중국역사	세계역사	중국역사	세계역사
고구려	초중	제3편 봉건사회 3 제3장 수조의 통일과 수말 농민 전쟁	제3장 서구 및 아시아의 봉건국가 제1절 조선(한반도) 국가의 건립 – 중한의 문화교류	13. 수조의 통일	4. 아시아 봉건국가 1. 조선(한반도)
	고중	13과 수조의 통치 14. 당조 전기의 번성	제5장 아시아의 봉건국가 제1절 조선(한반도) – 신라통일 조선	4. 봉건사회의 창성 번영–수당	
발해	초중	제3편 봉건사회 제3장 소수 민족지구의 발전 – 흑수도독부와 발해도독부의 위치 – 당과 토번이 한집안이 되다. 제3절 당조의 대외관계 – 당과 조선의 왕래		14. 당조 전기의 번성 3. 변강 각 민족의 발전과 당과의 관계 4. 당조시기 중외 경제문화 교류 – 당과 조선	
	고중	15. 당조 변강 각 족의 발전		4. 봉건사회의 창성 번영–수당	

수 왕조와 당 왕조의 초기에는 조선반도(이하 한반도로 표기)의 국가와 중국 사이에 모두 왕래가 있었다. 7세기 후반 신라와 당 왕조의 왕래는 빈번하였다. 당왕조의 외국 유학생 가운데 신라인이 가장 많았다. 신라 상인들의 발자취는 중원에서 절강에까지 이르렀다. 신라의 물산은 당 왕조의 수입 물품 가운데 수위였다. … 신라의 당 왕조 유학생은 귀국 후 당나라의 문화를 광범하게 전파시켰다. 그 가운데

32 구난희, 2006, 위의 글, 245쪽 표3 활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유명한 사람으로 최치원이 있는데 그는 소년시절에 당나라에 와서 18세에 진사가 되었다. 그의 시문(詩文)은 중국문인들에게 중시되었다. 한반도의 음악도 중국의 환영을 받았다. 고구려 음악은 수당 궁정에서 뿐 아니라, 널리 민간에서도 유행하였다. 당나라에서 신라로 파견된 사신은 항상 학문을 하는 사람 가운데 선발하였다. 당현종은 한 명의 학자를 신라에 사신으로 파견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 '신라는 군자의 나라라고 부르는데 글과 역사에 상당히 능통하여 중화와 유사하다. 그대의 학문으로 담론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서 그대를 파견하는 것이다.'[33]

신라에 대한 당 문화, 제도 등의 영향만 강조하지 않고, 신라 제품이 당의 수입품 가운데 수위(首位)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기록이나, 당시 고구려 음악이 당조 궁정에 연주되었다는 내용과 당에서 신라를 '군자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술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34] 특히 최치원의 시문이 중국 문인들에게 중시되었다고 밝힌 점과 당시 중국 역사교과서상 개인으로 가장 많은 분량이 서술되어 있었던 점 또한 중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01년부터 중국 교육부는 개혁개방 이후 달라진 시대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과정개혁 작업을 착수하였다. 같은 해 역사과정표준이 도입됨에 따라 중국 교육부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일제의무교육 역사과정표준을 발표하였다.

---

33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 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編著, 2001. 11, 『中國歷史』 第1版,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여기서는 금경숙, 2006, 「중국 중·고 역사교과서에 보이는 한국 고대사 관련 내용 검토」, 동북아역사재단 편,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고대사 서술문제』, 동북아역사재단, 86쪽의 번역문을 재인용하였다. 다만 김종건, 2010, 「중국 역사교과서상의 한국 관련 서술 내용 변화에 대한 검토-최근 초급중학『중국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69, 129~153쪽에도 동일한 내용이 1992년판 1999년 인쇄된 교과서로 비교 분석되어 있는데, 본문에서 1999년 이후 출판된 교과서에 삭제된 내용 중 보완하였다.

34 금경숙, 2006, 위의 글, 79~221쪽의 '당과 신라의 우호적 관계' 항목 관련 분석에서 한국사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에서 한 항목만 부각시키는 것도 심각한 문제점임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01년 전일제의무교육 역사과정표준의 서문에 의하면 21세기에 진입하면서 경제글로벌화가 빨라지고 세계의 각종 사상문화가 서로 격동하며 정치 다극화 추세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중화민족의 전통을 어떻게 지키고 발전시킬지, 학생의 애국주의를 어떻게 불러일으킬지가 역사교육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고 밝힌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정표준에 접어들어서는 종전에 그나마 교과서에서 간략하게나마 언급되고 있던 수양제의 고구려 침공 등의 사실도 모두 사라지고 만다. 인민교육출판사 및 이를 개발한 연변교육출판사 교과서에는 "수당시기에 우리나라 통일적 다민족국가는 전례없이 발전하였다. … 어떤 민족은 비록 지방정권을 수립하였지만 중원의 왕조와 줄곧 밀접한 관계를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서술만 남겼다.

이러한 조치는 『세계역사』 교과서까지 확대되었는데 국내 학계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세계역사』의 한국사 부분이 삭제되었다.

종전의 『세계역사』에서 수당시기 문명을 소개한 단원에 일반적으로 한반도 혹은 일본 등 국가 명칭을 표제에 사용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중외 우호왕래' 혹은 '중외 교류'의 단원명 아래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변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2001년부터 '과정표준'체제를 수용하면서 21세기 미래 시민에게 필요한 인문 소양 교육을 표방하였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주도하는 현대화 노선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였고, 역사교육 과정 역시 이념교육으로부터의 탈피를 표방하였지만, 실제로는 근대 이래 지속되어온 국가주의적 교육을 강화한 실상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35]

고구려·발해에 이어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주제도 한·중 간 쟁점이 되는 서술 내용 중에 활자 인쇄술 등을 비롯하여 다룰 필요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동북공정 전후 한국사 서술 변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드러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다음 장에서 후술하고자 한다.[36]

---

35 오병수, 2020, 「시진핑시대 중국의 역사정책과 자국사의 재구성-『역사: 중외역사 강요』 과목의 개설 배경과 이데올로기-」, 『역사교육』 15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조선(임진왜란)

다음은 조선시대와 관련된 서술 중 중국교과서에서 비교적 주요하게 다룬 주제로서 임진왜란에 관한 내용이다. 중국 교과서의 한국사 가운데 조선사에 관한 서술 내용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 건국과 조선 왕조의 대외 문화 교류에 관한 내용, 임진왜란 등으로 구분되어있는데,[37] 그중 임진왜란에 대한 서술은 원래 내용이 풍부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 교과서 서술 방향의 큰 변화로 삭제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된다.

1956년에 제1판이 인쇄된 인민교육출판사 고급중학과본 『중국역사』부터 명의 대외관계를 서술하면서 '왜구의 침략 원조전쟁(倭寇, 援朝戰爭)'이라는 항목에서 명과 조선이 일본의 침략이라는 위협 가운데 상당히 긴밀하게 단합하였음을 강조하였다. 1978·1980 전일제 십년제학교 중학교역사교학대강에 의한 인민교육출판사 초급중학과본 『중국역사』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었다.

1987년 제2판 인민교육출판사 초급중학과본 『중국역사』에서도 등자룡과 이순신이 연합하여 일본군에게 승리한 것을 강조하였다. 1993년 제1판 초급중학과본 『중국역사』 이후 '임진 위국전쟁'으로 명칭 바뀌었고, 1996년 상해교육출판사에서 출판한 『9년제 의무교육과본 역사』의 경우 '조선임진위국전쟁'이라고 하여 중국 측의 입장에서 칭한 '원조전쟁'과 달리 한국 측 입장에서 칭한 사례도 확인된다.[38]

그럼에도 임진왜란 관련 서술 기조는 모두 도요토미가 일본을 통일한 후, 조선을 발판으로 삼아 중국에 침입해 들어오려고 시도했다고 하며 이른바 중국과

---

36 중국 역사교과서의 고려 관련 서술 분석으로는 김장구, 2008, 「중국 역사교과서에 보이는 고려와 중세 북방유목민 서술의 분석과 검토」, 『중국과 타이완 홍콩·역사교과서 비교』, 동북아역사재단, 137~142쪽 참조.

37 송요후, 2008, 「중화권 교과서의 조선시대 서술 분석」, 『중국과 타이완 홍콩·역사교과서 비교』 동북아역사재단, 187쪽.

38 송요후, 2008, 위의 글, 212~21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조선의 '순망치한'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특히 '임진위국전쟁'의 승리는 명의 원군과 조선 군민이 일본 침략군의 침공을 좌절시켜 그들로 하여금 조선을 병탄하고 중국에 진공하려는 기도를 달성할 수 없게 한 것이라는 서술 속에는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풀이되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은 후술할 '항미 원조 전쟁'에서 중국군 참전의 배경, 중국 당국이 내세운 참전 명분이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39]

이상으로 전근대에 해당하는 한국사 관련 서술에 대해 다루었고, 이어 근대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4. 근대(마관조약)

중국 역사교과서의 중국 근대사 분야에서 한국과 관련된 주제로는 청일전쟁이 핵심 내용에 해당한다. 특히 청일전쟁 후 중일 간에 체결된 마관조약 속의 조선 문제에 대한 서술을 들 수 있다. 다만 일부 교과서에서 강화도조약을 포함하여 관련 내용을 언급한 사례도 확인되는데, 인민교육출판사 2001년판 『중국역사』 제2책의 제2절 '갑오중일전쟁, 일본이 발동한 침화(侵華)전쟁'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40]

> 일본 메이지 유신 이후, 자본주의가 신속하게 발전하였다. 일본통치자들은 자산계급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 조선과 중국을 중심으로 침략하는 이른바 "정한침화(征韓侵華)"의 대륙 정책을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침략 전쟁 발동을 준비하였다. 19세기 70년대 일본인은 우리나라 영토 타이완에 침입하였고, 청 정부 전쟁을 초래할까 두려워 무력으로 저항하지 않고, 타이완에서 일본군이 철수하는 것

39 송요후, 2008, 위의 글, 215쪽; 유용태, 2005, 「중화민족론과 동북지정학-'동북공정'의 논리적 근거」, 『동양사학연구』 제93집, 210~218쪽.

40 이는 1992년에 처음 출판한 『9년의무교육3년제초급중학교과서 중국역사』 제2책을 중심으로 수정한 판본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조건으로 백은 50만 냥을 배상하였다. 80년대 일본은 조선을 강박하여 '인천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에서의 군대주둔권을 획득하였다.

여기서 '인천조약'은 명칭상 인천조계조약(仁川租界條約)[41]과 유사하지만 내용상 1882년에 임오군란으로 빚어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제물포조약의 오류로도 볼 수 있다. 이는 후술할 제3장 동북공정 이후 한국사 관련 서술 내용의 변화에서 강화도조약의 오류인 '강화조약'을 다루면서 '조선은 중국의 번속국'이라고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갑오농민전쟁 시기 조선 정부의 요청으로 청나라에서 원군을 파견하였다고 하여 조선을 돕기 위해 참전하였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청일전쟁의 원인이 조선에 대한 청과 일본의 세력다툼이라는 실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42]

뒤이어 청일전쟁의 경과를 설명한 뒤 ''마관조약'의 체결과 그 영향'을 다루고 있는데 인민교육출판사 1994년판 『중국근현대사』의 서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895년 청 정부 대표 이홍장과 일본 정부 대표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마관에서 국권을 상실하는 『마관조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 정부는 조선의 "자주독립"을 승인한다. 요동반도, 타이완, 팽호열도 및 부속도서를 일본에 할양한다. 일본군에 백은 2억 냥의 비용을 배상한다. …[43]

청일전쟁과 관련한 중국 교과서의 서술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마관조약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조선이 자주국임을 규정한 부분을 생략한 점이다.

---

41 『舊韓國外交文書』 1, 日案 1, 고종 25년 5월 18일, 문서번호 1189 참조, https://db.history.go.k

42 김지훈, 2008, 「중국과 타이완 교과서 속의 현대 한국」, 『중국과 타이완 홍콩·역사교과서 비교』, 동북아역사재단, 288쪽.

43 人民教育出版社歷史室 編著, 1994, 『(全日制普通高級中學教科書)中國近代現代史』,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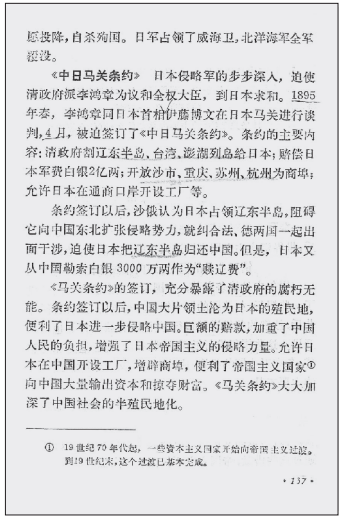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94년판 『중국근현대사』는 매우 보기 드문 사례로 많은 교과서에서 마관조약 제1조 조선의 독립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44]

예를 들면 인민교육출판사 1987년 제2판 초급중학과본 『중국역사』 제2책에서 '중일마관조약'이라는 소항목 아래 청 정부는 요동반도, 타이완, 팽호열도를 일본에 할양한다고 서술한 것이다. 상술한 조선의 "자주독립"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누락된 점은 중국과 한반도의 종속관계에 대한 중국의 역사인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4〉 인민교육출판사 초급중학과본 『중국역사』 제2책과 고급중학과본 『중국근현대사』상책의 마관조약 관련 서술 비교

단원	1987년판 초급중학과본 『중국역사』 제2책	1994년판 고급중학과본 『중국근현대사』 상책
Ⅱ-5. 갑오중일전쟁과 제국주의의 중국할거의 광기	• 137쪽 제1절. 중일전쟁 중일마관조약	• 49쪽 제1절. 중일전쟁 마관조약의 체결 및 그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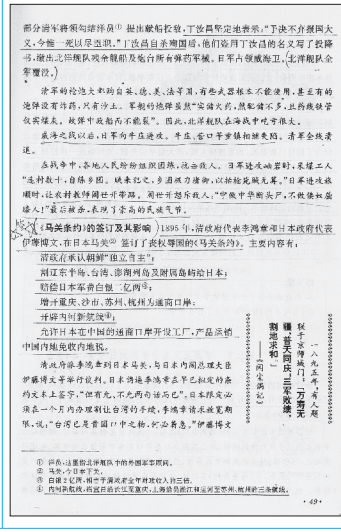
被迫投降，自杀殉国。日军占领了威海卫，北洋海军全军覆没。

《中日马关条约》 日本侵略军的步步深入，迫使清政府派李鸿章为议和全权大臣，到日本求和。1895年春，李鸿章同日本首相伊藤博文在日本马关进行谈判。4月，被迫签订了《中日马关条约》。条约的主要内容：清政府割辽东半岛，台湾、澎湖列岛给日本；赔偿日本军费白银2亿两；开放沙市、重庆、苏州、杭州为商埠；允许日本在通商口岸开设工厂等。

条约签订以后，沙俄认为日本占领辽东半岛，阻碍它向中国东北扩张侵略势力，就纠合法、德两国一起出面干涉，迫使日本把辽东半岛归还中国。但是，日本又从中国勒索白银3000万两作为"赎辽费"。

《马关条约》的签订，充分暴露了清政府的腐朽无能。条约签订以后，中国大片领土沦为日本的殖民地，便利了日本进一步侵略中国。巨额的赔款，加重了中国人民的负担，增强了日本帝国主义的侵略力量。允许日本在中国开设工厂，增辟商埠，便利了帝国主义国家向中国大量输出资本和掠夺财富。《马关条约》大大加深了中国社会的半殖民地化。

① 19世纪70年代起，一些资本主义国家开始向帝国主义过渡。到19世纪末，这个过渡已基本完成。



部分清军将领知难保台①提出献船投敌，丁汝昌坚定地表示："下决不介意国大义，今惟一死以尽臣职。"丁汝昌自杀殉国后，他们冒用丁汝昌的名义写了投降书，缴出北洋舰队现存舰船及枪台所有弹药军械。日军占领威海卫，北洋舰队全军覆没。）

清军的枪炮大都购自英、德、美、法等国，有些武器根本不能使用，甚至有的炮弹没有药，只有沙土。军舰的锅炉装置"宝塔式的，鼓轮转不多，此外机械管仪实属太，被弹中或船有不能驶"。因此，北洋舰队在海战中吃亏很大。

威海之战以后，日军向平壤进攻，平壤，鸭口等重镇相继失陷。清军全线溃退。

在战争中，各地人民纷纷组织团练，抗击敌人。日军进攻城营时，表现工人"连村数十，自练乡团。城未陷亡，乡团预为堵御，以拒敌兵骚扰其后"。日军进攻旅顺时，让农村教师周世平带路。周世平拒不带敌人，"宁做中华断头厂，不做倭奴偷生人！"最后被杀，表现了宁死不屈的民族气节。

《马关条约》的签订及其影响 1895年，清政府代表李鸿章和日本政府代表伊藤博文，在日本马关②签订了丧权辱国的《马关条约》。主要内容有：

清政府承认朝鲜"独立自主"；

割辽东半岛、台湾、澎湖列岛及附属岛屿给日本；

赔偿日本军费白银③2亿两；

增开重庆、沙市、苏州、杭州为通商口岸；

开辟内河航运权④；

允许日本在中国的通商口岸开设工厂，产品运销中国内地免收内地税。

清政府派李鸿章到日本马关，与日本内阁总理大臣伊藤博文等举行谈判，日本侵略李鸿章态度已经完全表现在一个月内办理割让台湾的手续，李鸿章请求缩短期限，说："台湾已是贵国[1]中之物，何必着急。"伊藤博文

① 指在山东作战的北洋舰队中的外国军事顾问。
② 马关，今日本下关。
③ 白银2亿两，相当于清政府全年财政收入的三倍。
④ 内河航权，指允许日本军舰沿长江驶入内地各地，并开辟沿江轮运至苏州、杭州的三条航线。

44 이은자, 2008, 「중국과 타이완 역사교과서의 중국 근대사 서술 내용 비교 분석」, 『중국과 타이완 홍콩 · 역사교과서 비교』, 동북아역사재단, 26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 현대(한국전쟁)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 현대사 관련 내용 가운데 가장 비중 있게 서술한 부분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45]이미 여러 차례 소개와 분석이 이루어졌다. 한국전쟁 참전이 미국의 한반도 침략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1950년대 중반까지의 중국 교과서는 미국의 지도 아래 이승만 정부가 "북침"한 것으로 서술하다가 1958년 이후부터 이승만정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 사례를 비롯하여 19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부터 1950년 조선내전이 발발했다는 내용을 추가한 변화까지 매우 상세하게 다루었다.[46]

특히 중국은 자신들이 미국과 싸워서 이겼다는 점을 강조하려 하기 때문에 한국이나 한국군의 존재를 부각시키지 않는 가운데, 미국이 한반도를 침략했고 북한의 요청으로 중국이 참전하여 이를 저지시켰기 때문에 한국전쟁에서 중국과 북한이 승리하였다고 주장하는 설명이 잘 드러나 있다.

이와 같은 서술 기조는 교과서마다 일관적으로 나타나는데 인민교육출판사 사례를 보면 〈표 5〉와 같다.

〈표 5〉 1995년 판 초급중학교과서 『중국역사』 제4책

제19과 인민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투쟁 〈항미원조〉 1950년, 조선내전이 폭발하였다. 미제국주의는 제멋대로 이른바 '연합국군'을 파견하여 북한을 침략했다. 그들은 38선을 넘어 중국변경까지 치고 들어왔고 엄중하게 우리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였다. 동시에 미제국주의가 파견한 해군 제7함대가 중국 타이완해협에 침입하여 인민해방군의 타이완해방을 저지하려고 하였고, 우리나라의 내정을 간섭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정부에 군대를 파병하여 원조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원조하며(항미원조), 집안을 지키고 나라를 보호하기(보가위국)위하여, 1950년 10월에 彭德懷를 사령관으로 하는 중국인민지원군은 북한에 나가 조선(북한)군민들과 함께 미국침략자를 반격하였다.

45 김지훈, 2008, 앞의 글, 276~279쪽.

46 김지훈, 2008, 위의 글, 28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0월 25일 밤, 중국인민지원군 한 연대가 북한 북부 양수동에서 적군을 만나 적군 한 개 대대를 소멸하여 출국 후 첫 승전보를 올렸다. 나중에 10월 25일은 지원군 출국작전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중국인민지원군은 북한의 軍民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면서 연속으로 5차례 대규모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1951년 6월 북중군민은 미국침략군을 "38선"부근까지 몰아내어,북한 북부 영토를 수복하였고, 북한의 국면은 호전되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면서 연속으로 5차례의 대규모 전투를 치러 미국침략자를 38선 부근으로 몰아냈다. 다음해, 북한과 중국 군민은 또한 상감령 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어 줄곧 전선을 38선 부근까지 안정시켰다.
1952년 10월, 미국침략군은 김화 전투를 일으켜, 중부전선전략의 요지인 오성산 진지를 탈환하고자 하였고, 북한 중국 부대를 압박하여 후퇴하게 하였으며 담판의 유리한 지위를 얻었다.
(중략)
국내 인민들은 용감하게 지원군에 참가하고자 신청하였고, 생산 절약운동을 하면서 비행기와 대포를 위해 모금하고, 북한의 전선을 지원하였다.
1953년 7월에 북한과 중국 인민군대는 용감하고 완강하게 반격하여 미국침략자들은 '조선정전협정'을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북한과 중국인민은 반침략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140~144)

과거 『중국근대현대사』에서 "북침"을 삭제하고, "조선내전이 폭발하였다"라고 서술하여 다소 개선된 측면도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과 '미군'이란 용어 대신 '미국침략자'와 '미국침략군'을 강조하였다. 또한 미국의 참전과 7함대의 대만해협 진주를 '중국 내정간섭'으로, 연합국 안전보장이사회의 연합국군 조직을 '조선전쟁 간섭'으로 서술하는 등 과장되고 왜곡된 표현이 확인되고, 전쟁을 겪은 참전 당사자로서의 한국에 대한 서술은 보이지 않는다.[47]

6. 장성(명 장성 동단 기점)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관련 내용 중 장성 동단 문제는 상술한 중국 역사교과서 속의 고조선 관련 서술 내용과도 일부 중첩된다. '전국형세도'의 연장성 동

47 김지훈, 2008, 위의 글, 283~28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단과 '진대 형세도'에서 진 장성 동단이 요동군을 지나 현재 한반도 평양의 대동강까지 이어진 것으로 표시하는 등의 문제는 상술한 고조선 관련 내용에서 다루었기에 여기서는 명대 장성 동단의 기점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중국은 지난 2009년 4월, 2년여의 측량조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졌다며 만리장성의 길이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2,500여km가 더 긴 8,851.8km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어 2012년 6월 5일 중국 국가문물국은 중국 '역대장성(歷代長城)'의 총 길이를 2만 1,196.18km로 확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 국가문물국과 국가측량국이 2005년부터 주관한 '장성보호공정'의 결과로 장성 유적이 성벽, 참호, 부속건물, 관보(關堡) 및 관련 시설을 포함하여 모두 4만 3,721곳에 달하며 이 유적과 관련 시설을 더한 것이 '역대장성'이라는 것이다.

현재 중국 영토범위 안에 있는 역대 왕조의 장성을 모두 포함시켜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한 중화민족 전체의 문화유산으로 해석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48] 그 영향으로 중국이 장성의 동단을 산해관으로 보던 종래의 입장을 수정하고, 국내외 학계에서 고구려 박작성 유적으로 비정하는 압록강 하구 단둥의 '호산산성'을 명 만리장성의 동단 기점이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국내 학계와 언론은 중국이 한국 고대사를 중국사에 편입하려는 동북공정 논리가 숨어 있다고 밝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장성 구간을 서쪽의 감숙성 자위관에서 시작하여 동쪽의 하북성 산해관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호산산성(虎山山城)'과 관련하여 중국학자들조차 장성처럼 견고한 벽돌식 장성은 압록강변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발표했음[49]에도 1990년대 이후 호화롭게 벽돌로 장식하여 현대판 장성을 신축한 것이다.

현재 만리장성의 동쪽 기점을 압록강변의 호산산성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명

48 홍승현·송진·최진열·허인욱·이성제, 2014, 『중국 역대 장성의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49 華夏子의 『明長城考實』(1988, 北京: 档案出版社)는 호산산성에서 '어떠한 장성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인정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 요동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한 요동변장(遼東邊墻)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국내 학계에서는 요동변장에 대해 명대에 만리장성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군사적 요지에 설치한 중요한 진이 9개 있었는데, 각각의 중진을 중심으로 연결된 벽돌성을 수축해가며 방어선을 형성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명대 요동변장도 압록강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동북지역에 대한 역사적 영토권 근거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한반도의 역사를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으로 한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고구려 발해 등 한국의 북방사는 물론이고 조선과 명나라,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놓여 있던 압록강과 두만강 대안 지역의 공한지를 명과 청의 강역으로 만드는 왜곡된 주장을 합리화시킨다고 강조하였다.[50]

이러한 맥락에서 명장성의 동단 기점으로 압록강 '호산장성'까지 연장한 중국학계의 새로운 해석이 중국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또한 동북공정 이전부터 어떠한 서술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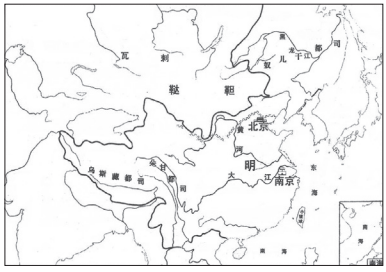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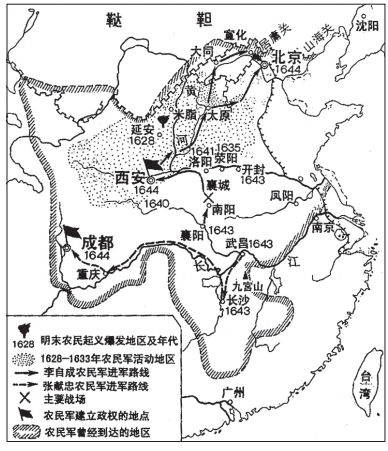
먼저 인민교육출판사 2001년판 중등직업학교 교과서 『중국역사』 제2책의 명대 전기강역을 표시한 지도의 범례에 장성을 표시하고 동단을 산해관으로 표시하였다. 비록 산해관이라는 지명을 표기하지 않았지만 장성 라인을 그리면서 당시 수도를 의미하는 경사(京師)를 표기하고 아래 북경을 부기한 곳에서 동쪽으로 발해만까지 연결하고 있어 산해관임을 간접적으로 명시한 셈이다. 이어 1643년 이자성의 북경 진군을 설명하면서 명말 농민전쟁 형세를 표현한 지도에서는 장성 동단을 표시하면서 산해관을 기입하였다. 사천교육출판사 2001년판 『중국역사』 제2책의 명대 장성 시의도의 경우 장성 동단을 산해관까지 표시한 반면 산해관부터 압록강까지 상술한 요동변장(遼東邊墻)으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명 장성 시의도의 요동변장 기점을 압록강 하구 단동의 호산산성에서 3km 떨어진 '구련성(九連城)'으로 명시하였다.

---

50 남의현, 2012, 「만리장성 동쪽 기점, 산해관인가, 압록강인가」, 동북아역사재단 편, 『중국의 역대 長城발표 관련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11~1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6〉 2001년판 중등직업학교 『중국역사』 제2책의 명 장성 동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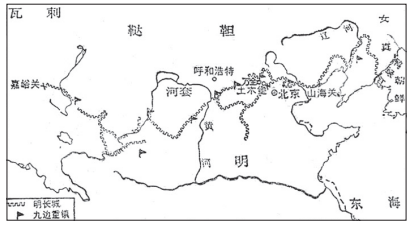
단원	2001년판 중등직업학교 『중국역사』 제2책	
제6장 명청시기 사회개황과 문화	• 명대 강역도 113쪽 	• 명말 농민전쟁 형세도 117쪽 

2001년판 중등직업학교 『중국역사』 제2책의 서문의 설명에 의하면 이 교과서는 1992년판의 기초 위에 수정한 것이고 모든 지도는 중국지도출판사에서 작업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검토한 위의 대상이 직업학교의 교재라는 점과 중국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인민교육출판사가 아닌 사천교육출판사라는 한계가 있지만 일단 동북공정 이전에 출판된 교과서 가운데 명 장성 동단을 산해관으로 표시한 사례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국 인민교육출판사의 1987년판 초급중학과본 『중국역사』 제2책의 제3편 봉건사회(후속)의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공고화에 봉건제도의 쇠락-명, 청(아편전쟁 이전) 부분의 제1장 제2절 명조의 대외관계에서 명대의 장성 지도에는 장성의 동단이 압록강까지 표시되어 있다. 또한 본문의 '오이랏과 타타르'라는 소항목에서도 북방의 변방을 공고히 하기 위해 명대 초기부터 명 정부는 거의 약 200여 년의 시간을 사용하여 북쪽 변방에 장성을 수축하였다고 설명하면서 명장성의 동쪽은 압록강부터, 서쪽은 가욕관까지라고 서술하였다. 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7〉 1987년판 『중국역사』 제2책의 명 장성 동단과 본문 설명

단원	오이랏과 타타르	명대의 장성
Ⅱ	• 50쪽 명대 장성 동단 설명 **瓦剌和鞑靼** 15世纪初，蒙古分裂为鞑靼（Dá dá）和瓦剌等部。鞑靼在东，瓦剌在西。后来，瓦剌强大起来，打败了鞑靼。 1449年，瓦剌首领也先带领大军南下。明英宗没有做充分的准备，轻信宦官的话，亲自带兵迎战。明军在土木堡被瓦剌骑兵包围。全军溃败，明英宗被俘。这就是历史上的"土木堡之变"。 消息传到北京，明英宗的弟弟继位，他就是明景帝。明景帝召集群臣商议战守大计。有人主张向南京逃跑。大臣于谦坚决主张保卫北京。明景帝支持于谦，命他负责守城。也先进犯北京。于谦亲自督战。守卫北京的明军英勇作战。各地援军越来越多。也先害怕归路被切断，仓皇撤退。北京保卫战胜利了。 后来，瓦剌衰落了，鞑靼强盛起来。鞑靼俺答汗时候，主动同明朝和好。边境上开设了互市，交换双方需要的物品。万全的市集，长达四五里，开设着各种店铺，商业极为繁盛。俺答汗修建了呼和浩特城。这个城很快发展成为蒙古地区和内地贸易的商业城市。 为了巩固北方的边防，从明朝初年起，明政府先后用了将近200年的时间，修筑了北边的长城。明长城东起鸭绿江，西到嘉峪关，气魄雄伟，蜿蜒1.3万多里，大部分至今仍基本完好，成为世界上的伟大工程之一。	• 51쪽 압록강까지 연결된 명장성 동단 

술한 명대 전기 강역도와 비교하기 위해 명대 장성을 표기한 지도와 본문 내용을 보면 〈표 7〉과 같다.

이는 적어도 장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장성의 동단이 압록강까지 연결되었다는 인식이 중국 역사교과서상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명 장성 지도 아래 명대가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국가가 발전하고 공고히 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명 정부가 변강 소수민족지역의 관할을 강화했다는 교과서 본문 내용은 동북공정의 핵심 논리와도 상통한다.

이를 통해 중국 측의 입장에서 중국 동북 변강지역의 영토와 역사를 중국사에 편입하기 위해 장성의 동단이 압록강까지 연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상술한 '장성보호공정' 이전부터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동북공정이 2002년 공식화되기 이전에 출간한 중국 역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교과서상의 한국사 관련 서술 내용을 검토하면서 중국 역사교과서에 고구려사가 어떻게 소략화되었는지, 발해사가 언제부터 중국사로 서술되고 심화되었는지를 포함하여 근현대까지 핵심 주제별로 그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은 '동북공정' 추진 이후의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관련 서술 내용의 변화에 주목하여 중국 역사교과서 속에 반영된 한국사 인식 변화의 추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Ⅳ. '동북공정' 이후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관련 서술의 변화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연구소에서 2002년 2월 '동북공정' 과제를 공식 추친한 사실과 함께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이 보도된 이래 국내 학계에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와 대학 교재까지 한국사 관련 서술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졌다.[51]

---

51 관련 연구로는 金志勳·鄭永順, 2004, 「최근 중국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한국사」, 『중국근현대사연구』 23;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6, 『중국 역사 교과서의 한국 고대사 서술문제』, 동북아역사재단; 안병우, 2006,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 전근대사 서술 추이」, 『白山學報』 75; 김지훈, 2007, 「한·중 역사갈등 줄이기-동북공정과 중국의 역사교과서-」, 『역사문제연구』 17 등이 있다. 권은주, 2020, 「『중외역사강요』의 한국고대사·동아시아사 서술 내용과 역사인식 분석」, 『동북아역사논총』 70 참조.
이 외에 중국의 교과서제도와 관련하여 김유리, 2018, 「국정제로 회귀한 중국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분석」, 『역사교육』 제148집에 의하면 1951년 이후 인민교육출판사가 연구편찬과 출판발행을 모두 전담하는 統編制(한국의 국정제)를 시행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1987년 국가교육위원회가 전국적으로 9년제 의무교육을 추진하면서 審定制(한국의 검정제)로 전환했으며, 교과서 편찬을 다양화하고 편찬과 심사를 분리하였다. 교과서제도가 심정제로 바뀌고 여러 개의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교과서가 다양화한 것이 지난 수십 년간 중소학 교재개혁의 주된 방향이었다. 초중 역사의 경우 6~9종의 다양한 심정본이 전국적으로 사용되어왔다고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종래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중국의 중등 역사교과서는 과정표준으로 바뀌면서 교과서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국 전근대사 관련 내용이 거의 사라졌고 근현대사 관련 내용도 크게 축소되었다.

이러한 한국 관련 내용의 감소는 중국의 실험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마찬가지로 편찬체제의 변화에 따른 분량 축소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2001년 이후 중국의 「교육과정 표준」은 역사학의 성과를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지만, "국가의 법률법규 및 방침 정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교육과정 표준」의 중심은 중화민족·중화문명이라는 원칙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52] 특히 "국제관계상 특별히 민감한 문제가 있으면 회피하거나 비교적 개괄적으로 서술할 수

면 인민교육출판사, 북경사범대학, 북경출판사, 하북사범대학, 사천교육대학, 화동사범대학, 악록서사, 지도출판사, 중화서국에서 출판한 9종의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있다. 그중 인민교육출판사의 경우 교육부가 집필진을 조직하여 교육부판 교과서라고 하고, 전국 채택률의 70%를 점유하므로 여기서는 인민교육출판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외에 연변교육출판사에서 조선어로 번역하여 출간하였고, 산동교육출판사(山東教育出版社)의 5·4제 중학교 교과서도 있지만 인민교육출판사의 6.3제 교과서와 내용상 차이가 없다. 발행한 역사교과서로는『의무교육과정 표준실험교과서 중국역사』7年級· 8年級上·下册 및『의무교육과정 표준실험교과서 세계역사』9年級 上·下册이 있다(김지훈, 2019,「국가의지(國家意志)와 역사교과서의 정치화-2018년 중국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현대사 서술-」,『역사교육연구』제33호, 89쪽 참조).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경우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이한 2019년 가을학기 시작에 맞춰 국정화한 일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인 신판 보통고중역사교재『중외역사강요(中外歷史綱要)』를 인민교육출판사에서 공식 출간하였다. 그 이전에는「역사과정표준」에 의거하여 인민교육출판사와 악록서사, 인민출판사, 대상출판사(북경사범대학출판사) 등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전국적으로 사용하였다(김지훈 외, 2010,『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황과 특징』, 동북아역사재단, 12쪽 참조). 발행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로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歷史. 必修』1, 2, 3과 선택과목으로 選修(1)『探索歷史的奥秘』,『探索歷史的奥秘』,『歷史上重大改革回眸』,『中外歷史人物評說』,『世界文化遺產薈萃』,『近代社會的民主思想與實踐』,『20世記的戰爭與和平』등이 있다. 우성민, 2022,「한중수교 30주년 시점에서 살펴본 중국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사 서술 현황과 시사점」,『한중수교 30주년, 한중교류의 도전과 과제』, 학고방에서 재인용.

52 김유리, 2006,「중국 교과서제도의 현황과 특징」, 권소연 외,『중국의 역사교육과 교과서』, 고구려연구재단, 10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있다"고 한 규정[53]을 따른 것이다. 환언하면 한국사 관련 서술이 삭제·축소된 데는 「교육과정 표준」에서의 회피가 작용하였다고 짐작할 수 있다.

동북공정 이후 고구려사 왜곡 문제를 둘러싸고 2004년 한중 간에 합의한 구두양해와 맞물려 중국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 관련 서술 내용은 중국역사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기술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한정된 한국 관련 서술 내용 속에도 동북공정 이전 단계의 교과서와 비교할 때 동북공정 속의 왜곡된 한국사 인식이 강조되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06년 3월 출판된 인민교육출판사의 고등학교 『역사』 선택 1에서는 19세기 후반의 조선을 "중국의 번속국에서 중일 양국의 공동보호국으로 변화시켰다"라고 표현하여 당시 조선의 자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은 19세기 후반에 노골화되었던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서술하지 않으면서 '번속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조선의 종속성만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 이후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서술 관련 수정과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동북공정 추진 이후 지금까지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회고해볼 때 중국 교과서는 시진핑 주석 집권 2기인 2017년을 기점으로 국정으로 전환되면서 한국사 관련 서술에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도 국내 학계에서 새로 개편된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서술 관련 특징과 동향, 의미와 문제점 등에 대한 일련의 연구성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 따라서 동북공정 추진 이후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서술 관련 변화 추이에 대하여 2002~2016년의 1단계와 2017년 이후의 2단계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상술한 고조선, 고구려, 발해, 근대 한중관계, '항미원조전쟁' 관련 주제를 순차적으로 대조하며 비교하고자 한다.

53 김유리, 2006, 위의 글, 10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고조선

동북공정을 추진한 핵심 인사인 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 왕루오린(王洛林)은 최근에 한국의 소수 연구 기구와 학자들이 중국과 조선 관계사 '연구'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혼란을 조장하고, 정치적 목적 아래 잘못된 논의들을 선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청동 단검이 출토된 지역은 모두 고대 조선의 영역이라고 호언한다고 주장하였다.[54]

이는 1960년대 이래 한국학계에서 비파형동검 출토지역을 고조선 강역으로 보는 관점에 대한 중국학계의 대응으로서 고조선 강역을 한반도 안으로 축소하고자 했던 전략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중국학계의 고조선에 대한 인식은 동북공정 이전에도 답습되었지만 적어도 중국 역사교과서 속에 고조선을 표기하였다.[55]

그러나 동북공정 이후 고조선과 관련한 기술은 점차 사라져 사천출판사와 악록서사 등에서 출판한 일부 교과서에서만 제한적으로 언급하였고, 2008년 인민교육출판사에서 출판한 교과서에는 고조선의 표기가 이전과 다르게 삭제되었다. 고조선과의 교류관계는 물론 낙랑군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고, 서한시대의 강역에도 지도상에 낙랑군만 표시했을 뿐,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을 모두 서한의 영역에 포함시켜 고조선의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56]

2006년 3월 출판된 『세계역사』 제2단원 '아시아와 유럽의 봉건사회'에서는 일본 봉건사회 특징과 아랍국가의 건립을 독립적으로 서술한 반면 한국에 대한

54 王洛林 저, 이영옥 역, 2004, 「동북변강 연구의 강화, 학과 건설의 촉진」, 『중국의 동북변강 연구』,高句麗연구재단, 17쪽; 조기임, 2008, 「東北工程과 1990년대 이후 중국 중등 역사교과서 한국사 관련 서술 변화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쪽에서 재인용.

55 김용수, 2009, 「한-중 역사 교과서의 서술 경향 분석-한국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 중국 인민교육출판사 7학년 중국역사 상, 하책의 전근대의 한-중 관계 서술을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2~33쪽.

56 김용수, 2009, 위의 글, 3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8〉 2006년판 중국 『세계역사』(9학년 상책)의 한국사 서술 내용

자유 열독 카드
고대 조선
조선반도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거주하고 있었다. 기원전후 조선반도 북부를 통치한 것은 고구려 노예제국가였으며, 후에 서남부와 동남부에 또 백제와 신라 두 노예제 국가가 연이어 나타났다. 676년 신라가 조선반도의 대부분 지역을 통일하였다. 10세기 때 왕건이 고려 왕조를 수립하였다. 14세기 말, 고려의 대장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수립하고 한성(현 서울)을 도읍으로 정하고 국호를 조선이라 개칭하였다.

서술은 일본을 소개하는 단원에서 〈표 8〉과 보조 학습항목에서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중국 역사교과서 속에서 고조선이 사라지는 실례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8〉에 제시한 교과서 서술에 의하면 삼국 이전에 존재한 고조선이 누락되어 있다. 한반도에 거주한 민족은 기왕의 2001년 12월 제1판 『세계역사』에서 '조선민족'이라고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2006년 발간본에는 '인류'로 수정하였다. 또한 고조선을 계승한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만 아니라, 오늘날 중국 요녕, 길림, 흑룡강성의 일부를 영역으로 삼고 있었음에도 조선반도의 북부에만 국한시키고 있다. 이는 '동북공정'의 핵심 이론인 통일적다민족국가이론을 반영한 기술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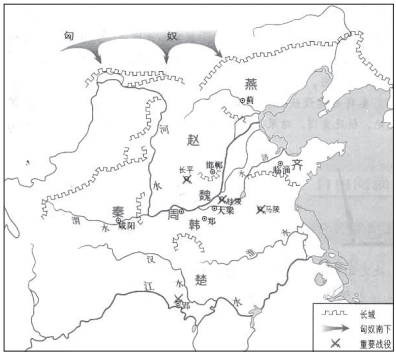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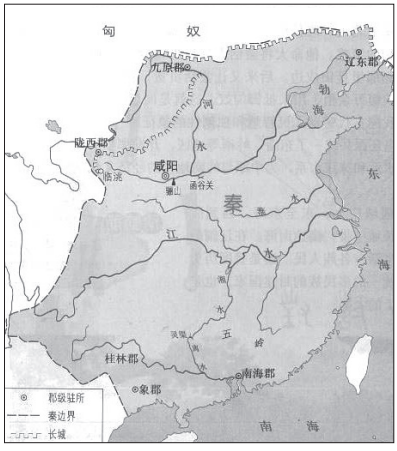
그나마 이와 같은 내용조차 동북공정 이후 한중관계가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모두 삭제되었다가 기왕의 자유 열독 카드 코너의 '일본의 무사와 무사도 정신'을 대신하여 '고대 조선' 항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 진한시기 강역과 관련한 장성에 관한 지도상의 표기에[57] 고조선의

57 戰國 시기 형세도를 포함하여 진한시기 장성은 고조선의 영역과 밀접한데, 이에 대해서는 공석구, 2014, 「『中國歷史地圖集』의 戰國時期 燕 長城 고찰」, 『백산학보』 99; 공석구, 2015, 「『中國歷史地圖集』의 평양지역까지 연결된 秦 長城에 대한 검토」, 『先史와 古代』 43; 공석구, 2017, 「청천강 유역까지 연결된 漢長城 東端 문제 고찰-『中國歷史地圖集』의 사례를 중심으로」, 『東北亞歷史論叢』 56에서 상세히 분석하였고, 연 장성, 진 장성, 한 장성의 동단이 압록강·청천강까지 이어져 있는 것은 학문적인 논리와 근거가 취약함을 밝혔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9〉 인민교육출판사 2006년판 『중국역사』(7학년 상책)의 전국시기 사회 변화

전국형세도(战国形势图)	진조형세도(秦朝形势图)
• 33쪽	• 60쪽
	

인식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내재해 있다. 특히 중국 교과서 속의 전국형세도와 진한강역도에서 언급되는 '정권부족계'라는 개념은 '이미 소멸한 민족의 역사도 포함한다'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논점을 대변한다. 장성이 한반도까지 연장되어 설치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조선이 중국 행정구획에 예속된 것으로 인식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58]

2. 고구려 · 발해

고구려의 경우 '동북공정' 이전 교과서에서는 수나라가 고구려와 세 차례 전쟁하였지만 모두 패배하였다고 서술하였다가 점차 사라지는 추세를 보이지만

58 조영래, 2010, 앞의 글, 2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공정’ 이후 교과서에서는 삭제되거나, 수양제가 고구려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발동한 사실만 간략하게 언급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고구려와의 전쟁이 수나라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수의 멸망 원인과 밀접한 사건임에도 수나라 멸망의 직접적 원인을 농민 봉기에서 찾고 있으며, 당시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중요한 사건인 당과 고구려의 전쟁도 다루지 않았다.[59] 이는 상술한 국제관계상 특별히 민감한 문제가 있으면 회피한다는 중국의 교육과정 표준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 『중국역사』(7학년 하책)에서 당과 신라의 관계를 서술하면서 고구려를 삭제한 사례도 확인된다.

〈표 10〉 2006년판 중국 『중국역사』(7학년 하책)의 고구려 삭제 사례

당과 신라의 관계
조선반도의 국가로, 수·당과 왕래가 빈번하였다. … 신라는 당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정치제도를 건립했고, 과거제를 채용하여 관리를 선발하였으며, 중국의 의학, 천문, 역산 등의 과학기술 성과를 받아들였다. 한반도(조선)의 음악도 중국에 전해졌는데, 당조궁정에 연주되었을 뿐 아니라, 널리 민간에서도 유행하였다. … (3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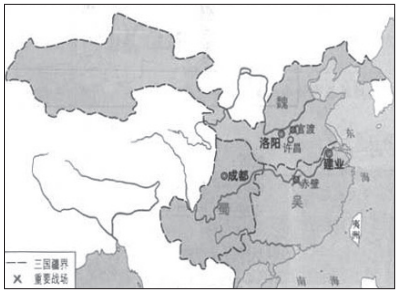
상술한 1999년에 출판된 『중국역사』(7학년 하책)의 제5과 ‘당과 신라의 우호관계’에서는 ‘한반도의 음악도 중국의 환영을 받았다. 고구려 음악은 수당 궁정에서뿐 아니라, 널리 민간에서도 유행하였다’고 서술하였는데, 여기서는 고구려를 삭제한 것이다.

수당대의 궁정 연회 음악인 칠부악(七部樂), 구부악(九部樂), 십부악(十部樂) 속에 고구려의 악무인 ‘고려기(高麗伎)’가 포함되어 있었고, 『신당서』 권21

59 정호섭, 2010, 「중국 교과서의 고구려와 중국 왕조와의 대외관계 서술과 그 비판」, 『중국 역사교과서 검토회의 발표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103쪽; 우성민, 2022, 앞의 글, 25~26쪽에서 재인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1〉 인민교육출판사 2006년판 『중국역사』(7학년 상책)의 서한강역도와 삼국정립형세도

서한강역도(战国形势图)	삼국정립형세도
	

「예악지(禮樂志)」에도 소개된 것이 역사적 사실이지만 동북공정 이후 민감한 문제를 기피하고자 하는 집필 방침이 적용된 것이다.

고구려와 관련된 서술을 모두 생략함으로써 논란을 일견 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 「서한강역도」와 「삼국정립형세도」와 같은 지도에서 중국 역사 영토 범위 안에 고구려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구려를 중국사로 보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60] 또한 서한의 강역도에서 장성의 동쪽 끝을 압록강 이남으로 한반도 중부까지 표시해놓은 문제점도 답습되었다.

이 외에 2001년 중국은 북한이 고구려 벽화를 UNESCO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한 것에 대응하여, 집안 환인지역의 고구려유적을 '고구려 수도와 국왕 귀족 묘장'이란 이름으로 세계문화유산을 신청했고, 2004년에 북한과 공동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인민교육출판사의 보통고중과정표준실험교과서 『역사, 선수 6 세계문화유산회췌(世界文化遺産會萃)』에서 '고구려 왕성, 왕릉 및 귀족묘장'으로 서술하고 중국의 세계문화유산으로만 소개하였다.[61]

60 권은주, 2020, 앞의 글, 17쪽.

61 人民教育出版社歷史室, 2009, 『歷史, 選修6, 世界文化遺産會萃』, 北京: 人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발해사 관련 서술의 경우, 2005년판 인민교육출판사 초급중학 『중국역사』(7학년 하책)에서 '당조의 민족관계'에서 토번·남조·회흘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으나, 말갈 혹은 발해에 대한 본문 내용이 없다. 다만 요(遼)의 건국을 설명하는 가운데, 야율아보기가 "말갈이 건립한 이래 요하 유역을 중심으로 삼았던 발해정권을 소멸시켰다"고 하며, 발해를 말갈이 건립하였고 요하 유역을 중심으로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62]

2004년판 중국지도출판에서 출판한 의무교육과정표준실험교과서 『중국역사』(7학년 하책)에서 "해동성국"이라는 주제 아래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 7세기 말, 말갈족의 한 갈래인 속말말갈이 각부를 통일하여, 지방정권을 건립하였는데, 수령은 대조영이다. 당은 그 영토에 하나의 州를 두어, 대조영을 발해군왕에 봉하였다. 이후로, 속말말갈 정권을 "발해"라 불렀다. 책봉을 받은 후, 발해정권의 면적은 부단히 확대되고, 인구는 300萬 내외에 달하였다. 境內에 거주하던 漢族과 허다한 기타 民族은 內地와 왕래가 빈번하고, 經濟文化가 발전하고 수준이 비교적 높아, 역사에서 "해동성국"이라 칭하였다.(30쪽)

발해는 속말말갈만이 아니라 고구려 유민이 참여하여 건국한 국가이므로, 당과의 교류는 '내지'가 아닌 국가 간의 교류로 봐야 하지만 '지방정권'이라고 서술하여 동북공정의 역사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사례라 할 수 있다.[63]

동북공정 이후에도 발해의 성립과정이나 대조영의 출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특징적인 것은 분량이 좀 더 늘어났다는 점이다.

또한 발해의 수도가 당의 수도 장안을 모방하여 건설하였고, 지방의 제도도

民教育出版社; 정호섭, 앞의 글, 103쪽; 우성민, 2022, 앞의 글, 25~26쪽에서 재인용.

62 임상선, 2006, 앞의 글.

63 김은국, 2007, 「중국의 동북공정 상에 보이는 발해사 서술」,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역시 당나라의 주(州), 군(郡), 현(縣)을 모방하였으며, 당나라의 '당삼채(唐三彩)'를 모방하여 '발해삼채(渤海三彩)'를 제작하였다고 서술하는 등 당나라가 발해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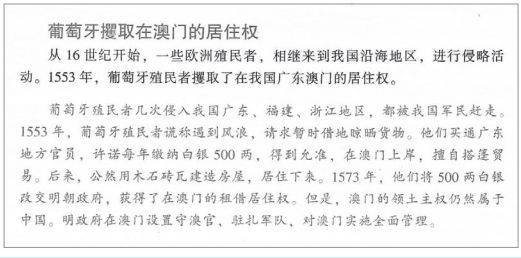
3. 조선(임진왜란)

동북공정 이후의 중국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사 관련 서술의 변화로 '임진왜란' 소제목 항목이 삭제되고 민족 영웅 척계광의 왜구격파에 대해 강조하거나 포르투갈이 마카오에서 거주권을 가로챘다는 내용이 대신하고 있다.[65]

종래의 중국의 역사교과서에서 한중 우호 역사상 빛나는 한 페이지로 장식한 사건으로 인식되었던 '임진왜란' 관련 서술이 2005년판 『중국역사』(7학년 하책)에서 삭제되었다. '임진왜란' 관련 대신 16세기부터 일부 유럽의 식민주의자들이 지속적으로 중국의 연해지역으로 와서 침략활동을 감행했는데, 1553년에 포르투갈 식민주의자들이 중국 광동 마카오의 거주권을 가로챘다는 내용을 새

〈표 12〉 2005년판 『중국역사』(7학년 하책) 제16과 중외 왕래와 충돌 관련 서술

2005년판
'마카오에서의 거주권을 가로챈 포르투갈'



葡萄牙攫取在澳门的居住权

从16世纪开始，一些欧洲殖民者，相继来到我国沿海地区，进行侵略活动。1553年，葡萄牙殖民者攫取了在我国广东澳门的居住权。

葡萄牙殖民者几次侵入我国广东、福建、浙江地区，都被我国军民赶走。1553年，葡萄牙殖民者谎称遇到风浪，请求暂时借地晾晒货物。他们买通广东地方官员，许诺每年缴纳白银500两，得到允准，在澳门上岸，擅自搭蓬贸易。后来，公然用木石砖瓦建造房屋，居住下来。1573年，他们将500两白银改交明朝政府，获得了在澳门的租借居住权。但是，澳门的领土主权仍然属于中国。明政府在澳门设置守澳官，驻扎军队，对澳门实施全面管理。

64 조기임, 2008, 앞의 글, 46쪽; 우성민, 2022, 앞의 글 재인용.

65 우성민, 2022, 위의 글 재인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롭게 추가하였다. 1553년(가정 32), 포르투갈인들이 은 500냥을 명조 정부에게 바치고 마카오에서의 조차거주권을 얻은 배경을 상세히 서술하였는데, 1999년 마카오의 중국 반환 이래 마카오의 영토주권이 중국에 속한 것을 밝히는 차원에서 더 중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4. 근대(마관조약)

제3장에서 2001년판 인민교육출판사의 『중국역사』 제2책 '갑오중일전쟁'에 대한 서술을 소개하면서 언급한 '인천조약'은 2006년 출판된 인민교육출판사의 보통고중과정표준실험교과서 『역사』 선택 1에서 '강화조약'으로 수정되고, '조선은 중국의 번속국'이라는 내용이 〈표 13〉과 같이 추가되었다.

〈표 13〉 2006년판 보통고중과정표준실험교과서 『역사』 선택 1의 강화도조약

1876년 조선을 강박하여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조선이 일본과 외교관계를 건립하였으며, 중국과 조선의 종속관계를 부정하고 … 훗날 일본은 또한 조선에서의 군대주둔권을 획득하여 조선은 중국의 번속국에서 중일양국의 공동보호국으로 변화되었다.

먼저 '강화조약'은 '강화도조약'의 오류임을 알 수 있으며, 당시 중국과 조선이 종속 혹은 번속 관계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조선은 중국의 번속국'이라고 소개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통해 현대 중국의 강역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던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의 주된 흐름인 번속이론에 해당한다.

번속이론은 종래 중국학계에서 언급되지 않던 새로운 이론으로 중국의 역대 왕조와 한반도에 나타났던 왕조들 간의 관계가 실질적인 지배와 복속의 종번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황쑹쥔의 『중국고대번속제도연구』는[66] 번속이론의 통사적 적용을 시도하였고,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보편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으로 존재한 이른바 '번속국'의 중국 왕조에 대한 종속성을 은연중에 강조하였다. 번속관계란 왕조 중앙의 책봉과 번속의 칭신납공을 기본적 성격으로 하며 또 번속을 "통일왕조 지방정권의 또 다른 류의 구성 형식"이라며, 중국 역대 통일왕조의 지방정권으로 규정한 것이다.[67]

궁극적으로 청조와 주변국의 관계를 당시 시대상황 속에서 맺어진 상호적인 것이 아니라, 중국의 입장에서 주변국을 관할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마관조약의 경우 2006년에 출판된 인민교육출판사의 『중국역사』(8학년 상책)의 제4과 갑오중일전쟁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표 14〉 2006년판 인민교육출판사의 『중국역사』(8학년 상책)의 제4과 갑오중일전쟁

1895년4월, 이홍장과 일본수상 이등박문은 중일 『마관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주권을 잃어 치욕적인 조약의 규정은: 청 정부는 요동반도, 타이완, 팽호열도를 일본에게 할양해야 한다.; 배상금으로 일본군에게 백은 2억 냥을 지불한다.; 일본이 중국에 공장을 건설하도록 허락한다.; 통상항구를 증설한다. 등이다. 마관조약은 중국의 반식지화 정도를 대대적으로 심화시켰다.

갑오중일전쟁의 결과로 중국이 일본의 지배, 분할을 받게 된 '주권을 잃은

66 黃松筠, 2008, 『中國古代藩屬制度研究』,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付百臣, 2008, 『中國歷代朝貢制度研究』,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67 황쑹쥔에 따르면 이러한 '지방정권'으로서 성격을 가진 번속의 명대 범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번'으로서의 동성번왕(同姓藩王)이고, 둘째는 '경내속국(境內屬國)'의 전통과 기미적 성격을 갖는 변강의 소수민족정권인 도사위소(都司衛所)와 토사(土司)이며, 셋째는 '경외속국(境外屬國)'인 조선·베트남·유구 등 조공국이다. 황쑹쥔은 ① 번속실체의 군사방어 직능의 증강, ② 중앙왕조의 번속실체에 대한 통제 증강, ③ 서남지구에서 토사의 보편적 설립과 토사 및 그 관원에 대한 통제 강화, ④ 티베트 지구에서 실행한 정교합일적 통치방식을 통한 명과 티베트의 종번관계의 강화, ⑤ 경외속국과 '후왕박래(厚往薄來)'와 중앙왕조의 속국 신민 이익 체휼정책 실행을 통한 경외속국과의 종번관계 강화 등 다섯 방면에서 명대에 중국 고대부터 이어진 번속제도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치욕적' 조약임을 강조하면서 조선을 둘러싼 중일 양국의 주도권 전쟁이라는 성격을 배제시켰다. 그 가운데 마관조약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마관조약의 제1조 조선이 자주국임을 규정한 부분은 생략하고 있다.[68] 갑오중일전쟁에 대한, 그 속의 한국에 대한 중국학계의 역사인식을 명확히 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5. 현대('항미원조전쟁')

한국사 관련 서술 가운데 한국전쟁 관련 내용은 중국의 이념과 전략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1950년 한국전쟁 참전이 미국의 한반도 침략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전쟁의 발발과 타이완 문제를 미국의 동아시아 침략이라고 하면서 연관시켜 설명하는 기조는 동북공정 이전 교과서와 동일하다.

다만 동북공정 이후 교과서에서는 미군과 함께 '미국침략자'를 재강조하였고, '혁명영웅주의'를 드러내며 북한군민과 함께 미국침략자에게 저항했던 중국인민지원군을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묘사하였다.

중국의 개입배경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중국의 개입명분을 북한의 파병요청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북한의 요청으로 '인민지원군'을 파견했다면 미군 역시 한국 정부의 지원요청으로 '한국전쟁'에 개입한 것임에도 미국 등 연합국의 '한국전쟁' 개입을 중국의 침략위협으로 간주하며 미군 등 국제연합군(UN군)을 '침략군'으로 서술하였다.

엄연히 한국 정부의 요청과 국제연합(UN)의 결의에 의한 합법적 파병이었고, 오히려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군이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미국의 참전을 중국 안전의 위협으로 서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 할 수 있다.

---

68 이은자, 2008, 앞의 글, 26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5〉 2004년 출판 중국 『중국역사』(8학년 하책)의 한국전쟁 서술

항미원조 보가위국
제1단원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공고 **제2과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 〈항미원조 보가위국〉 1950년 1950년 6월 조선내전이 발발했다. 미국은 제멋대로 군사를 파견하여 북한을 침략했다.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유엔군'은 38선을 넘어 중국변경의 압록강까지 치고 들어왔고 미군 비행기는 중국영공에 침입하여 중국 동북지역의 변경도시들을 폭격하였으며 미국 제7함대는 중국 타이완해협에 침입하여 인민해방군의 타이완해방을 저지하였다. 미국의 침략활동은 중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중국정부에 파병을 요청하였다. 항미원조와 보가위국을 위하여 1950년 10월 펑더화이를 사령으로 하는 중국인민지원군이 북한전선을 향해 북한군민과 함께 미국침략자에게 저항했다. 중국인민지원군이 북한으로 진군한 후, 25일 밤, 그 중 한 연대가 북한 북부에서 적군을 만나 적군 한 개 대대를 소멸하여 첫 승전보를 올렸다. 나중에 10월 25일은 지원군 출국작전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중국인민지원군은 북한의 軍民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면서 연속으로 5차례 대규모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미국침략군을 "38선"부근까지 몰아내었다. **전투영웅 황지광과 추사오원** 중국인민지원군은 적과 격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수많은 감동적인 영웅들을 배출했다. 황지광과 취사오원이 바로 그들 중 대표적인 인물이다. 황지광은 상감령 전투 중의 한 전투 영웅이다. 이 전투는 40여일 지속되었는데 적은 연이어 6만여 병력을 투입하면서 4제곱킬로미터의 우리군(중국군) 진지에 200만 개의 폭탄과 포탄을 쏟아부어 상감령은 초토화되었고 산정상의 높이는 2미터 깎여 나갔다. 지원군의 애국주의와 혁명영웅주의 정신을 발휘하여, 완강하게 전쟁을 지속하였다. 한 차례 전투에서 황지광은 자신의 몸으로 적의 기관총구를 막아 전우들이 진지를 탈환하게 하였고 자신은 장렬하게 희생되었다. 상감령 전투는 최후 승리를 거두었다. 1952년 10월 미국침략군이 상감령전투를 시작했다. 상감령은 오성산의 주요한 진지 오성산의 수호여부는 전체 중부전선의 안위와 직결되었다. (중략) 그런데 뜻밖에도 적의 포화에서 내뿜은 불이 추사오원의 몸으로 번졌다. 전투의 승리와 잠복부대의 안전을 위해 추사우원은 잠복기율을 엄수하여 큰 불에 삼켜버릴 때까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 장렬하게 희생되었다. **중국인민지원군은 항미원조전쟁에서 고도의 애국주의, 혁명영웅주의와 국제주의정신을 발휘하여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들"로 불렸다.** 이들이 조선군민들과 용맹스럽게 싸운 결과 1953년 7월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정전협정에 싸인을 하게 되었고 중조인민들은 반침략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 후 중국인민지원군은 여러 번 나뉘어서 개선 귀국하였다. (6~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또한 '항미원조'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면서 혁명영웅주의와 함께 국제주의 정신을 발휘한 것으로 미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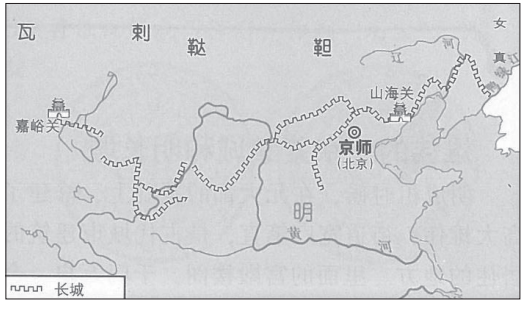
무엇보다 한국전쟁의 당사자를 '중국인민지원군'과 '미국침략군'으로 단순화함으로써 전쟁 당사자인 남·북한을 배제하였다는 점과 '항미원조'를 통해 궁극적으로 미국이 중국 주권을 침략한 행동임을 강조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과 한국군의 존재를 부각시키지 않고, 북한이 중국주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동북공정을 통해 한국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의도는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역사인식과 맞닿아 있다.

6. 장성

중국역사의 시간적·공간적 확장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장성의 확장이 포함될 것이다. 장성보호공정은 2005년부터 시작되어 동북공정의 공식 추진 일정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 교과서상의 장성 동단이 압록강까지 연결된 사례는 그 이전부터 확인되었다. 이는 동북공정 이후에 출간된 『중국역사』(7학년, 하책)에도 〈표 16〉과 같이 동일하게 반영되고 있다.

〈표 16〉 2006년판 『중국역사』(7학년, 하책) 장성 동단

명장성시의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만 출판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명대 장성을 산해관까지 표시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9년에는 중국 언론을 통해 지금까지 산해관(山海關)이 만리장성의 동쪽 기점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잘못된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그동안 산해관이 동단기점이 되었던 것은 청대 봉금정책의 결과로 한족들과 몽골족이 심양지역 동쪽으로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조변(柳條邊)을 설치하고 산해관을 엄격히 통제했기 때문에 산해관이 명대 장성의 동쪽 기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이번 조사작업은 고고학상 대단한 발견이라고 보도했고 앞으로는 교과서 등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교과서 변경 계획의 발표와 함께 2009년 악록서사에서 발행한 보통고중과정표준실험교과서 선택-세계문화유산회취(世界文化遺産荟萃) 및 2010년판 일부 역사교과서에서는 명대 장성을 압록강까지 연결하고 호산산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만리장성의 동단 연장 학설이 비록 중국학계 내에서도 정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교과서상에는 다소 무리하게 반영한 인상을 준다. 2010년판 악록서사의 역사선택 『중외역사인물평설(中外歷史人物評說)』의 청대 강역도에는 명대 장성을 산해관까지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중국 교과서 내에도 만리장성 동단 기술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69] 중국 교과서와 중국 박물관 패널 및 현용 중국지도 내에서도 만리장성 동단 기점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Oxford Comprehensive Atlas of The world 등 최근 발행된 주요 세계지도상에도 명대 장성은 산해관까지 표기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동북공정 추진 전후 중국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사 관련 서술 변화의 추이를 통해 동북공정 공식 추진 이전부터 고조선을 비롯하여 한국사의 공간적 영역을 한반도로 축소하고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으로 인식한 사례가 파악되며 동북공정 이후에는 이러한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이 더

69 우성민, 2012, 「중국 역사학계의 새로운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 『진단학보』 재인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강화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동북공정 추진 후 2017년 시진핑 집권 2기 교과서 국정 전환 이후의 중국 교과서 속의 한국사 관련 서술 변화의 추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개혁 개방이 지속되면서 기존의 국가 중심의 역사인식에 도전하는 일부의 움직임을 우려한 중국 교육부는 2011년 말, 중국 정부가 애국주의 정치 교육으로서 역사교육을 강조하는 교육 과정을 제정하였다.

이는 중국 지도부가 개혁개방 이후 중국 청소년들이 서양을 숭배하고 중국을 비하한다는 인식에서 기인하는데, 구체적으로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2006년 가을에 출판된 상하이지역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전쟁, 역대 왕조들, 공산주의 혁명보다 경제, 기술, 사회적 관습과 세계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한 사건과 연결된다.[70]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중국의 새 역사교과서가 달라졌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중국의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상하이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격렬하게 비판하였다. 그 결과 중국 정부는 상하이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화동사범대학에서 새로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편찬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역사교육 강화를 통해 민족적 자신감을 고양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는 2012년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래 지속적으로 답습되었다.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집권한 시진핑 주석이 교과서 편찬이 국가 권한임을 밝히며 국가교육제도와 국가교재위원회 신설을 요구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 주석 집권 당시 주변정세는 탈사회주의화, 소수민족 갈등, 빈부격차, 국제질서 변동 등 여러 문제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영토를 둘러싼 갈등과 역사 문제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

70 김지훈, 2019, 「중국 상하이 『역사』교과서 논쟁과 지식인-상하이 지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변화」, 『중국근현대사연구』 81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북공정 추진 후 2017년 시진핑 집권 2기, 곧 교과서 국정 전환 이후의 중국 교과서 속의 한국사 관련 서술 변화의 추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면 일본의 역사교과서 검정기준이 자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영토교육을 강화하였고, 베트남에서도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가운데 황사군도,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강한 영토수호 의지를 강조하였으며, 러시아에 이어 한국에서도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중국이 주변국의 역사영토교육 강화를 의식하고, 자국민 역사인식 고취와 역사교육을 재정비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71]

역사와 정치, 어문교과서 등을 국가의지를 반영한 단일교과서로 하자는 주장과 현행대로 여러 종류의 교과서를 출판하자는 몇 년 동안의 대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72]

결국 시진핑 주석 집권 2기가 시작되는 2017년 7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처음으로 국무원 산하 국가교재위원회를 설립하여 전국의 교과서 업무를 지도·관리한다는 중대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2011년 말, 중국 정부가 애국주의 정치교육으로서 역사교육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을 제정한 뒤 2017년 중등 역사교육과 관련하여 국정화 방안을 공식 발표한 후 새롭게 개발된 교재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등 역사교과서의 경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검정 통과한 『중국역사』(7·8학년, 상·하), 『세계역사』(9학년, 상·하) 9종의 새 교과서가 차례대로 출판되고 있었다. 그 사이에 국정제로 전환하면서 이 중 인민교육출판사가 출판한 교과서를 '통편교재'로 선정하여 2017년 가을(1학기) 중학교 신입생부터 단일교과서를 사용했으며, 2·3학년은 검정교과서를 계속 사용하였다. 그리고 2019년 가을학기부터는 전 학년 단일교과서를 사용면서, 실제적인 국정화를 완료하

71 이정빈, 2021, 「중국 개정 중등 역사교과서(2016~2018)의 한국고대사상」, 『중국 시진핑시대 교과서 국정화와 역사담론』, 동북아역사재단.

72 동북아역사재단 교과서연구센터 편, 2021, 앞의 책, 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였다. 반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처음부터 국정교과서인 '통편교재' 『중외역사강요』 등을 만들어 2019년 가을학기 베이징 등 6개 지구의 신입생부터 사용하게 했고, 2022년 전면 사용을 목표로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73]

새로 개편된 중국의 국정 역사교과서의 특징으로 영토주의 역사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일대일로 정책 등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가이드라인이 강하게 반영된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몽'을 실현하는 것과 국가 교육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 구현을 위해 국가의 의지를 강화하여 당의 교육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사 관련 서술 중 고조선 관련 내용부터 살펴보면 2017년판 『중국역사』 상권에서는 국정 전환 이전판(이하 구판)과 마찬가지로 전국(戰國)시기 형세도와 진(秦)왕조 강역도 속의 연·진 장성 동단이 한국학계의 고조선 영역 이해와 크게 어긋난다.[74]

구판과 동일하게 연·진 장성의 동단이 압록강·청천강까지 이어져 있는 한편 신판 교과서에서는 지도 범례에서 장성과 장새를 구분하였고, 전국시기, 진대 장성에서 요동과 한반도의 고조선에 해당하는 구역은 '장새'로 표시하고 있다. 이는 최근 중국 및 한국 학계의 연구성과를 반영한 결과로 중국의 '새로운 역사' 해석에 대한 학문적 근거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구려 관련 내용도 수·당의 고구려 공격이 삭제된 종래의 문제점이 수정되어 『중국역사』(7학년 하책) 1단원: 수당시대-번영과 개방의 사회의 수의 멸망 과정에서 '세 차례 요동을 정벌하였다'라고 기술하였다. 비록 수와 고구려 전쟁을 다시 복원시켰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만 수의 고구려 공격은 멸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음에도 '요동 정벌'로 적어 직접적인 표현을 기피했다는 한계가

73 동북아역사재단 교과서연구센터 편, 2021, 앞의 책, 7쪽.

74 教育部組織編纂 齐世荣 總主編, 2017, 『義務教育教科書 中國歷史 七學年 上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보인다.

한편, 발해에 대한 서술은 동북공정 전후 서술 경향은 변함이 없지만 신판 『중국역사』(7학년 하책)에는 발해 관련 내용을 전면 삭제했다가 2018년에 간행한 인쇄본에서 발해사 내용을 부분적으로 복원했으며, 내용도 여러 차례 수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판의 제4과 '당나라의 대외 문화 교류'가 아닌 신판의 제3과 '당 전성기의 기상'에서 발해를 서술함으로써 소수민족 정권으로 이해하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75]

본문에서는 당대(唐代) 한족과 북방소수 민족의 융합을 강조하면서 동북, 서북, 서남 등 지역의 소수민족이 세운 정권이 당(唐)왕조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고 서술함으로써 발해를 동북지역의 소수민족이 세운 정권으로 해석하였다. 특히 "발해국은 내지와의 무역 왕래가 빈번하였다" 등의 내용은 발해를 당에 대해 신속(臣屬)하는 지방정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판 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인 『중외역사강요』(상)에서도 발해사 관련 서술은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북의 말갈족 속말부가 강대해졌다. 당 현종이 그 수령 대조영을 발해군왕으로 책봉하였다. 당조 주변의 소수민족이 건립한 정권은 조국의 변강 지구의 개발에 적극적인 공헌을 하였다"라고 서술했는데 여기서 조국은 중국을 가리킨다.[76]

고조선, 고구려, 발해에 이어 시진핑 주석 집권 2기, 곧 상술한 2단계에서 확인되는 주요한 변화 중 하나로 고려시대 관련 서술에 관한 변화이다.

2020년에 출간한 『중외역사강요』(하) 제4과 '중고시기 아시아' 단원의 남아시아와 동아시아 국가 항목에서 고대 한국에 대해 소개하면서 10세기 초 신라인 왕건이 고려왕조를 세웠다고 특기하였다. 이것은 국내 학계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사에서의 고구려-고려 역사계승을 부정하는 동북공정식 표현

---

75 教育部組織編纂 齐世荣 總主編, 2016, 『義務教育教科書 中國歷史 七學年 下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5~26쪽; 教育部組織編纂 齐世荣 總主編, 2018, 『義務教育教科書 中國歷史 七學年 下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14쪽.

76 권은주, 2020, 앞의 글, 1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다. 동북공정 추진 이후 교과서에서도 보이지 않던 서술이 시진핑 주석 집권 2기 국정교과서에 다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외역사강요』와 달리 국정 전환 시점의 새로운 교과서 지침인 "중등직업학교 역사과정표준"(2020년판)이 반영되기 전 2020년 3월에 인쇄한 중등직업학교 『세계역사』에서 '고대 조선(한반도)'을 소개하면서 왕건에 대해 '918년 후고구려 대장 왕건(877~943)이 스스로 왕이 되어 국호를 고려라고 고쳤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신라인'과 '후고려인'의 대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고려가 당 제도를 모방하여 3성6부제를 세웠다는 서술에서도 중국 당 제도와 문화의 영향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고려왕조의 독자성을 부정하였다.[77] 또한 조선시대 임진왜란 관련 서술은 동북공정 추진 이후 삭제되었다가 다시 복원된 사례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78] 여전히 임진왜란에서 명나라 군의 역할을 과도하게 강조한 한계는 변함이 없다.

특히 근대 부분의 '마관조약' 관련 서술에는 중국 중심 동아시아 체제를 '종번(宗藩) 체제'로 규정하고 조선을 중국의 번속국으로 서술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2019년판 『중외역사강요』 상권 제5단원 "만청시기 내우외환과 구망도존(救亡圖存)" 제17과 "국가 구출의 출로 탐색과 열강침략의 악화"에서 명청 시기에 중국과 주변 여러 나라 사이에는 일종의 종번관계의 국가관계 체제가 형성되었다고 소개하면서 일련의 주변 국가는 명나라·청나라 조정을 향해 "납공칭신

77 권은주, 2020, 앞의 글, 22쪽.

78 사실 『중외역사강요』(상,하)의 한국사 관련 서술이 증가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4년 교재 검정심의를 마친 보통고중과정표준실험교과서 역사 필수 (구판, 2017년 인쇄본)의 한국사 서술은 3곳 정도로 한국사 관련 내용을 소략하였다. 예를 들면 갑오중일 전쟁의 배경이 된 1894년의 "조선 폭발 농민기의(동학농민운동)"(역사1 58쪽), "1953년 조선(한국)전쟁 정전"(역사1 110쪽) "명대 주산법이 조선,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세계로 전파"(역사 3 38쪽)등의 내용이 확인된다. 그러나 2017년 출간된 『중외역사강요』(상, 하)에서 구판 고등 중국 역사 필수에 비해 신라 관련 서술이 4회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우선 한중관계를 다룬 서술 내용이 늘었다는 면에서 볼 때는 긍정적인 변화로 후에 별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조공을 바치고 신하를 칭하는)"을 행했으며, 명청 황제의 책봉을 받았고, 명청 황제의 연호를 사용했다고 강조하였다.[79]

이어 '종주국'은 '번속국'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았다는데 이러한 관계는 무력을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조선, 류큐, 베트남, 미얀마 등 국가가 모두 중국과 이러한 관계를 형성했다고 설명하였다.[80]

이전의 검정제 교과서에는 등장하지 않던 전근대 중국의 대외관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종번관계'가 등장한 새로운 변화에 대해 국내 학계에서는 명청시대의 한중관계, 중월관계를 다원적 국제관계가 아닌 정치적인 지배-종속 관계로 인식하도록 부각시킨 점을 지적하였다.[81]

종주국은 서방국가가 식민지와 번속을 지칭하는 명칭이기에 종번관계로 전근대 중국의 대외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중국학계의 견해와 함께 학계 정설로 공인되지 못한 '종번관계'가 지닌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기도 하였다.[82]

비록 앞에서 살펴본 동북공정 전후 교과서와 달리 '마관조약' 내용 중 누락되었던 "중국은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확인한다"는 조항이 다시 복원되었지만 '마관조약'의 배경이 되는 갑오중일전쟁의 발발 과정에서 '일본이 중국의 대만과 번속국인 조선, 유구'를 일찍이 점령하고 싶어 하였다고 설명하여 조선이 '번속국'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번속국'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옌볜교육출판사가 『중외역사강요』 조선어 번역본을 내면서, '번속국'을 '종속국'으로 번역하였는데, 이에 대해 교과서 집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근대 중국과 주변의 관계가 근대 식민체제의 종속국과 속국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주목할 필

79 教育部組織編寫, 2020, 『中外歷史綱要』(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98쪽.

80 教育部組織編寫, 2020, 위의 책, 98쪽.

81 손성욱, 2021, 「『중외역사강요』의 전근대 대외관계 인식 '종번관계'를 중심으로」, 『중국 시진핑시대 교과서 국정화와 역사담론』, 376쪽.

82 손성욱, 2021, 위의 글, 37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요가 있다.[83]

이는 한국전쟁을 "항미원조전쟁"으로 규정하고 중국과 북한의 동맹관계를 강조하여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와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정 전환 후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 전쟁 관련 서술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와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판 제I단원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체제 강화의 단원 개요에서 중국공산당은 중국인민을 이끌어 항미원조전쟁을 진행하여 새로운 인민공화국을 굳건히 했음을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과정에서 항미원조전쟁이 필요했던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본문의 과외활동 항목에서는 1950년 미국이 중국 주권을 침범한 행동은 무엇인지 답하도록 유도하여 '항미원조'는 미국이 중국 주권을 침략한 행동으로 인식하도록 강조하였다. 또한 연합군의 인천상륙 이후 북진을 조선(북한) 침략전쟁으로 기술하여 전쟁의 책임이 미국과 연합군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한중 간 역사인식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서술이라 할 수 있다.[84]

『중외역사강요』의 편찬팀은 영웅인물의 교육적 기능을 중시하여 중국역사상 대표적인 영웅인물들을 교재 안에 녹여냈는데, 그 실례로 『중외역사강요(상)』에 약 70여 명, 30여 개의 영웅군을 다루었다고 소개하였다. 특히 '항미원조'의 영웅 양건쓰(楊根思), 황지광(黃繼光), 추사오윈(邱少雲) 등의 실례를 들었다.

『중외역사강요』의 또 다른 총주편인 장하이펑(張海鵬)도 새로운 역사교재의 중점학습 내용이 '국가통일과 국가주권, 안보의식 수호'임을 밝혔는데, 국토를 지키거나 영토를 확장시킨 위인들을 중시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궁극적으로 개편된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가 국가정체성 확립의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

83 손성욱, 2021, 위의 글, 386쪽.

84 오병수, 2020,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교육부가 사회주의 국가체제 유지를 위한 중요 수단으로 역사교과서를 제작했음을 보여 주는 단서이다. 이를 통해 결국 '항미원조'의 영웅이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체제 유지를 위한 중요 수단이 되고 있으며, '항미원조'를 국토 수호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중외역사강요(상)』의 제29과 '개혁개방 이후의 거대한 성취'의 소주제 '국제적 영향력의 부단한 확대'에서도 중국이 연합국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하나로서 세계의 평화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을 강조하면서 '조선반도' 핵문제를 가장 우선순위로 다루고 있다. 이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신형 국제관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며 중국 역할의 당위성을 확대할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85]

V. '동북공정' 경과 20년 시점에서 본 중국 역사교육의 현황과 전망[86]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한 지 20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중국 교육부는 지난 2월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당 중앙이 중국공산당 제2의 백년의 목표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중국특색의 고품질 교재 체계구축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초·중학교 의무교육에 대해 국정 교과서를 확대하고 국가 검정을 강화하여 국가 지정과목은 교육부 목록에 있는 교재만 사용하겠다는 당 중앙의 의지

85 우성민, 2020, 「『중외역사강요』 속의 중국식글로벌 가치관 '인류운명공동체'의 서술과 시사점」, 『동북아역사논총』 70, 135쪽.

86 이 글의 V장은 우성민, 2022, 「한중수교 30주년 시점에서 살펴본 중국 중고등학교 역사교육의 현황과 시사점」, 『한중수교 30주년, 한중교류의 도전과 과제』, 학고방, 216~232쪽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논지 전개상 재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를 반영한 것이다.

당의 교육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며, 교육개혁의 혁신을 심화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직업교육을 적극 발전시키며 교육강국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 양성'은 중국 교육부가 사회주의 국가체제 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역사교과서의 교과지침서인 『2017년 중국 고등학교 역사과정표준』의 핵심 지도 요령에 해당한다.

중국 공산당원이 미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중국 지도부의 역사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당 중앙이 당의 교육 방안을 완전히 관철시키기 위해 교과서는 국가의지를 체현하는 것이고 교과서 편찬이 국가의 권리라고 밝힌 이상 한중 간 역사인식의 차이와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주요 언론을 통해 인민민주는 사회주의의 생명이라고 보도하면서 미국식 민주주의의 한계와 폐단을 지적했는데, 미중 갈등 구도 속에 중국의 자신감을 드러내고 한편으로는 내부 결속용으로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2022년도 중국에서 시판하는 현행 역사교과서의 일부 서술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근대와 근대 부분은 지난 2017년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한 이후 발행된 교과서와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현재를 포함한 현대사 부분은 수정되었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중국역사 8학년 하책의 경우, 분량은 동일하지만 2021년 10월 당대회 등을 비롯하여 최신 중국공산당의 활동 내용이 본문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중국 역사교과서에는 중국 지도부의 정책방향이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중 갈등을 반영한 한국전쟁 관련 서술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2022년 시판 중인 중국역사 8학년 하책과 전년도에 사용한 2018년 2월 발행본과 비교하면서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새롭게 추가되고 수정한 내용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최근 중국이 이른바 '항미원조' 70주년을 맞이한 이래 '항미원조'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와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을 지속적으로 방영하였고, 이에 대해 국내외 언론에서 주요하게 다루면서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 역사교과서상의 서술 내용에 대한 관심이 더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2018년 인쇄본과 2022년 인쇄본의 관련 서술 내용을 비교하면 〈표 17〉과 같다.

〈표 17〉 2018년 인쇄본과 2022년 인쇄본 『중국역사』 하책의 한국 전쟁 관련 서술 비교

2018년 인쇄본	2022년 인쇄본
〈제1단원〉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공고 **제2과** 항미원조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미국은 제멋대로 군사를 파견하여 북한을 침략하였다.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유엔군'은 38선을 넘어 중국변경의 압록강가까지 치고 들어왔고 미군 비행기는 중국영공에 침입하여 중국 동북지역의 변경도시들을 폭격하였으며 미국 제7함대는 중국 타이완 해협에 침입하여 인민해방군의 타이완 해방을 저지하였다. 미국의 침략활동은 중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북한 정부는 중국 정부에 파병을 요청하였다. 항미원조와 보가위국을 위하여 1950년 10월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펑더화이를 사령으로 하는 중국인민지원군이 북한전선을 향해 북한 군민과 함께 미국 침략자에게 저항하였다.	〈제1단원〉 중화인민공화국의성립과 공고 **제2과** 항미원조 1950년 6월 25일 조선(한반도)내전이 발발하였다. 미국 정부는 무장으로 조선(한반도) 내전에 간섭할 것을 결정했고, 또한 제7함대를 파견하여 타이완 해협을 침입하였다. 1950년 10월 초, 미군은 중국 정부의 재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38선을 넘어 전쟁의 불길이 중조(북중)변경까지 미치게 되었다. 조선(북한)을 침입한 미군 비행기가 여러 차례 중국 동북지역의 변경도시들을 폭격하였으며,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엄중한 손실과 우리나라의 안전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였다. 1950년 10월 조선(북한) 당과 정부의 요구에 응하여 중국 당과 정부는 북한에 들어가 전투할 것을 결정하였다. 마오쩌둥은 펑더화이를 사령원 겸 정치위원으로 하는 중국인민지원군이 조선(북한)의 전쟁터를 향해 출동하였고, 항미원조(抗美援朝)와 보가위국(保家衛國)을 위하여 조선(북한)군민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여 싸웠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22년 인쇄본의 한국전쟁 관련한 가장 큰 변화로는 '미국이 제멋대로 군사를 파견하여 북한을 침략하였다'는 내용과 '중국인민지원군이 미국침략자에게 저항했다'는 등 미국의 침략을 강조한 서술을 삭제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수정한 것이다.

또한 사건 발단의 순서에 따라 좀 더 논리적으로 정리하면서 기왕의 '펑더화이를 사령으로' 부분을 '마오쩌둥은 펑더화이를 사령원 겸 정치위원으로 하는'으로 수정하는 등 좀 더 명확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황지광과 추사오윈 등 30여만 명의 영웅공신과 6,000여 명에 가까운 공신 그룹이 있다'고 하여 구체적인 숫자를 보완한 사례도 보인다.

이 외에 전투영웅 황지광과 추사오윈에 대해 소개한 부분에서는 최근 시진핑이 담화문에서 발표한 내용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칼은 적지만 기운이 넘친" 무리가 필사적으로 싸워 "칼은 많은데 기운이 적은" 무리를 이겼다는, 천지를 놀라게 하고 귀신도 울리는 웅장한 서사시를 창작하게 하였다고 서술하였는데 이는 마오쩌둥의 발언을 재인용한 것이다.

또한 최근 중국에서 가장 높은 흥행률을 기록한 한국전쟁을 철저히 중국 시각에서 그린 애국주의 영화 〈장진호〉의 대사를 인용한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최근 '항미원조' 관련 드라마를 통해 더 많은 젊은이가 국가가 필요로 할 때 마다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비장한 각오를 발표한 중국 언론 보도와 같은 맥락에서 연동되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 지원군 장병은 총칼이 숲을 이루고 탄알이 빗발치듯한 치열한 전투를 무릅쓰고 용감하게 적진으로 돌격하였고, 무차별 폭격을 견디면서 진지를 지켜냈으며 가슴으로 총구멍을 막아냈다. 몸으로 인간 사다리를 만들어 화약 포대를 두손으로 안고, 폭파통을 손을 쥐고 적군을 향해 돌진하였다.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면서 뒷걸음질 치지 않았고, 맹렬한 불에 몸이 타는데도 동요하지 않았으며, 용감하게 "필사적인 공중 육박전"을 하였다.
>
> (『중국역사』 8학년 하책, 2017년판, 2018년 2월 1쇄, 2022년 인쇄본, 1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러한 내용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전쟁이 미국과 맞서 조국과 인민을 지키기 위해 싸운 '정의의 전쟁'이자 '애국전쟁'이라는 인식이 기저에 강하게 깔려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쟁이 위대한 승리였음을 강조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서술되었다.

> 비할 바 없이 힘든 전투를 거쳐 1953년 7월 미국은 정전협정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북중군대는 이빨까지 무장한을 적을 물리쳤다. 미군을 상대로 승리할 수 밖에 없다는 신화를 타파하였다. 위대한 항미원조 전쟁은 제국주의 침략의 확장을 제어하였고 신중국의 안전을 수호하였으며, 중국인민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위하였다; 한반도의 정세를 안정시켰고,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보호하였으며, 우리나라(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크게 향상시켰다. 항미원조전쟁의 위대한 승리는 중국인민이 일어선 후 세계의 동방에 우뚝 솟아 있음을 보여주는 선언서였고,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였다.
> (『중국역사』 8학년 하책, 2017년판, 2018년 2월 1쇄, 2022년 인쇄본, 11쪽)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중국 '인민지원군'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 고도의 애국주의, 혁명영웅주의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미중 갈등 격화 속에 중국 측 입장을 반영한 한국전쟁을 중국인들의 단결을 촉구하기 위한 자극제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국의 전략 경쟁이 격해질수록 반미의식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한국전쟁이 향후 더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으로 중국의 동북공정이 공식화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회고와 전망'의 관점으로 국내 학계의 관련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서 '동북공정' 추진 전후 중국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사 관련 서술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종합해보면 중국은 '동북공정' 추진 이전부터 중국 역사교과서에 '동북공정'의 역사인식을 반영하고자 하였고, 동북공정 추진 이후 고조선과 고구려를 비롯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여 한국고대사의 공간적 영역을 한반도로 축소하고 발해를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 역사교과서 속의 한반도의 고대사가 거의 배제된 상황속에서도 고조선, 고구려, 발해사 왜곡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산해관으로 보던 종래의 입장을 수정하여 압록강까지 연장한 '장성' 동단 표기를 포함하여 근대 '마관조약'과 현대의 '항미원조' 전쟁 관련 서술에 이르기까지 중국 교과서 속의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이 더 강화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시진핑 주석 집권 2기 국정 전환 이후 출간한 『중외역사강요』에서는 명청 시기 한중관계를 '종번관계'로 규정하여 새롭게 추가하였는데, 중국과 조선의 종번관계, 역대 조공제도 등은 동북공정의 과제였다는 점에서 중국 교과서 속의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을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2022년은 동북공정 경과 20주년이자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볼 때 한중수교 이후 10주년, 20주년에 비해 근래 양국 관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훨씬 높아졌다.

이러한 실정은 중국의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이 역사교과서에도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양국 간의 역사 갈등이 지속, 확대되어온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반영한 중국의 국정교과서, 이른바 '통편 교재'는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와 중화민족 스타일을 강조하는 바, 중국 중심의 팽창주의가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Ⅵ. 맺음말

최근 중국사회과학망 보도에 의하면 길림대학과 길림성 사회과학원 주최로 『동북 고대 방국속국사연구(東北古代方國屬國史研究)총서』 발간 관련 학술 좌담회가 열렸다. '동북고대방국속국사연구'는 2010년도 국가사회과학기금의 중대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위탁 프로그램으로, 수석 전문가이자 길림대 전 상무부총장 빙정(邴正) 교수가 총주편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9월에 마무리되었고, 2019년 12월에 중국사회과학출판사에서 15권으로 구성된 총서를 출간하였다고 밝힌 것이다.

연구사업의 총고문은 중국 인민대학교의 저명한 청사 연구자로서 청사공정을 이끌어온 다이이(戴逸)로 동북 고대 방국속국사연구총서에 대해 "동북지방문화 건설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87]

『동북 고대 방국속국사연구총서』의 총서언에 보면 동북공정을 주도한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 지연구중심 마다정,[88] 리셩[89] 등이 참여하고 있어 동북공정의 맥을 잇는 대표적인 연구결과물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동북 고대 방국속국사연구총서』의 총서문을 집필한 빙정 또한 동북공정의 입안과제인 '동북변강의 다민족 문화교류와 융합'의 연구책임자로서 2009년에 그 결과를 길림인민출판사에서 출간하였다.

총서문에서 1998년에 중국 동북사 6권을 출간하여 중국 동북지역의 소수민족, 역사 문화를 다루면서 중원과 동북의 관계를 분석한 적이 있으나 동북에 많은 방국·속국과 관련된 사료가 너무 분산되어 있고 체계가 없어 당시 마다정이 제안하여 충분한 지지를 얻어 2010년 국가에 동북 고대 방국속국사 프로젝트를 신청했고 2010년 4월에 입항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특히 총서문의 마지막 부분에 '동북 열토에 이 총서를 헌정한다'는 비장한

87 苗威 외, 2020.11.3, 「『동북고대방국속국사연구총서』 출판 간행 및 학술 좌담회가 장춘에서 거행(『东北古代方国属国史研究丛书』出版发行暨学术座谈会在长春举行)」, 『中国社会科学网讯』.

88 마다정은 동북공정 입안과제인 '중국 동북변강의 역사 총론'의 연구책임자로 2003년 8월 중국 사회과학 출판사에서 『중국동북의 국경문제 연구(中国东北边疆研究)』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89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의 리셩(厲聲)은 청대, 민국시기 변무 및 외교, 조선의 이민등을 다룸. 동북변다룬 강당안선집(東北邊疆檔案選輯)을 일부 출판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각오를 담은 표현은 다이이(戴逸)가 총서(總序)에서 언급한 '중국 역사상 동북을 얻으면 천하를 얻은 것이고, 천하를 잃는다는 것은 바로 동북을 잃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서술을 연상시킨다.

'자고 이래로 동북은 중국의 영토'라고 하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유사 이래 동북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지역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웃 국가의 역사문화를 존중하는 전제하에 실사구시를 통해 역사의 진면목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고대 동북은 현대 동북과 다르다고 밝히고 있지만 종국에는 진나라 이후 동북에 출현한 지방정권, 민족정권은 중원왕조의 속국이라고 소개하며 동북 지방정권과 민족정권을 중원과 대다수 방국·속국 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고대사의 정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는 이 글에서 상술한 『고대중국고구려역사총론』에서 중국의 변강사지를 연구하는 것은 국가 영토 주권을 보호하고 국내 각 민족의 단결을 강화시키며, 애국주의 교육을 진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역설한 내용과 연동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역사교과서에서 고구려를 한국의 역사라고 서술한 내용을 비판하며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마다정이 『동북 고대 방국속국사연구총서』를 제안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방국·속국'이란 중국 고대 동북지역에 세운 나라를 하나의 왕권 통치 아래 있었던 지방정권이라고 해석한 개념이다. "부족 이상의 안정적·독립적 정치실체"를 방국으로 정의하고, 속국은 정치경제가 상대적으로 독립된 국가로 '부속국'이나 '번속국'으로 칭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동북공정'을 주도한 마다정이 중국 역사교과서에 '동북공정' 역사인식을 반영할 것을 제안한 점과 최근 중국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 이래 개편된 『중외역사강요』에 조선을 중국과의 '종번관계'로 설명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사실을 우연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마다정이 발표한 '중국 역사교과서 중 고구려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한 표현법의 변화'에 의하면 '동북공정'을 공식화하기 이전부터 역사교과서 수정을 전제로 하고 있었고, 거국적인 준비를 기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북공정'의 핵심 이론에 해당하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론'이 적용되어 1980년 교학대강부터 중국 역사교과서의 고구려 관련 서술이 소략화하며 수·당의 고구려 전쟁이 삭제된다. 발해사 관련 서술은 이보다 앞선 1963년 교학대강부터 중국사로 편입된 기술이 확인된다.

'동북공정'이 공식화되기 전부터 중국 역사교과서는 '동북공정'의 영향을 받았고, 2002년에 발발한 '동북공정'으로 인해 중국 역사교과서상 이른바 마다정의 고구려에 대한 표현법의 변화가 반영되었으며, 한국사 서술은 대폭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중국 세계역사의 동아시아 국가 관련 서술 중 가장 먼저 소개되었던 한반도 역사는 '동북공정' 이후에도 답습되어 '고대 일본' 역사의 보조 학습 항목에서 간략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초중 세계사 교재 『세계역사』의 동아시아 국가 관련 서술 중 가장 먼저 소개되었던 한반도 역사는 '동북공정' 이후 '고대 일본' 역사의 보조 학습 항목에서 간략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동북공정' 전후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관련 서술의 변화가 비교적 현저하게 드러나는 사례로 2000년에 발간된 중등직업학교 『세계역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일반 고등학교 교재는 아니지만 2020년 3월 25차 인쇄본으로 현행 교과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목록을 살펴보면 제1편 세계고대사의 제1장 '고대 아시아 아프리카 문명' 중 제3절 '고대 조선, 일본'이라는 단원에 독립적으로 서술하였다. 특히 일본 앞에 '조선(한반도)'을 먼저 서술하였다. '고대 조선' 항목 아래 집중적으로 소개 했을 뿐 아니라 '고대 일본' 항목 다음 '조선·일본의 문화와 대외문화 교류' 항목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다. 서술도 55줄 이상, 3페이지 분량에 해당할 만큼 적지 않다.

중국이 '동북공정' 추진 이후 중국 역사교과서에서 고구려의 영역을 한반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북부에만 국한시킨 서술과 달리 '기원 전후 고구려 왕국이 압록강 중류 일대에서 흥기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신라가 당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정치제도를 건립했다거나 중국의 의학, 천문, 과학기술을 받아들였다는 일방적인 중국 중심의 문화 전파와 중국의 영향력의 극대화에 서술 방향의 중점을 두지 않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외역사강요』에서 고려 태조 왕건을 고구려와 고려의 계승성을 부인하고자 의도적으로 신리인이라고 서술한 것과 달리 후고구려 대장이라 명시하였다.

특히 '조선·일본 문화와 대외 문화 교류' 항목에서는 삼국시대 천문대인 첨성대를 동방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 중의 하나로서 부각시켰고, 13세기 조선인은 금속활자 인쇄를 창조하여 세계문화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고 밝혔다. 15세기 조선에서 발명한 측우기는 서방에서 발명한 우량계보다 200년이 앞섰다고 소개하였다.

물론 '중한양국'은 자고 이래 문화 교류가 매우 빈번하여 유학, 불교, 도교가 중국으로부터 조선에 전래되었고, 조선의 전장제도, 학술문화, 풍속습관 모두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하는 종래의 일반 교과서의 서술 경향도 보이지만 오히려 한반도 문화도 중국으로 전해졌고 조선의 가무, 음악이 중국 인민의 사랑을 받았다고 서술한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한국사 관련 서술은 이례적인 것으로 '동북공정' 전후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관련 서술과 역사인식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상술한 『중외역사강요』 하권의 경우 '갑오중일전쟁'을 설명하면서 조선을 중국의 번속국으로 소개하고 각주에서 명·청 시기에 중국과 주변 여러 나라 사이에 형성된 종번관계에 대해 소개한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비록 지금까지는 『중외역사강요』와 중등직업학교 『중국역사』 및 『세계역사』 간의 한국사 관련 서술 내용에 대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조차 앞으로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교육부가 2020년 2월에 새로운 "중등직업학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상정치·어문·역사과정 표준(2020년판)"을 발행하면서 중등직업학교의 역사 과목이 처음으로 공공 기초필수과목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중국 교육부는 지난 2019년 10월 31일에 전국 대학, 초·중·고교 교재 조사 통계 작업에 관한 공지를 발표하였다. 각 출판 기관을 대상으로 2006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내에서 정식 출판된 현재 사용 중인 교재(본과, 대학원 교육에 사용되는 교재 포함)를 11월 30일까지 교재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게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과서의 국정화의 범위는 초·중·고교 교재로 이해하고 있는데, 상술한 '전국 대학, 초·중·고교 교재 조사 통계 작업'에 관한 공문에 의하면 전국 대학 교재도 실제 중국 당 중앙의 관리 대상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공문의 관련 세부 사항에서도 대학의 학부, 대학원 수업용 교재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진핑 집권 2기부터 의무교육 초·중 교과서를 위시로 고교에 이어 국정화의 대상이 전국 대학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마다정의 중국 역사교과서 고구려 표현법의 변화 관련 관점에서 언급한 교과서 전수 조사를 건의한 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현재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볼 때 한중수교 이후 10주년, 20주년에 비해 근래 양국 관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훨씬 높아졌다.

이러한 실정은 중국의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이 역사교과서에도 그대로 반영되면서 양국 간의 역사 갈등이 지속, 확대되어온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반영한 중국의 국정교과서, 이른바 '통편 교재'는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와 중화민족 스타일을 강조하므로 중국 중심의 팽창주의가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당 지도부가 인민에게 요구하는 애국주의를 사명으로 받아들일 중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차세대 리더가 되었을 때 동아시아 교류와 협력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학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자민족 중심주의, 패권주의 역사관이 이미 다른 차원으로 확대되었다.[90] 따라서 중국의 한국사 왜곡에 대응해 한국학계도 독자적인 연구이론을 개발하고 한국사 전체 흐름에 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 연구의 체계화가 제기된 것처럼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서술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인식과 서술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학계가 공동으로 연구하며 중국 역사 교육과 교과서의 새로운 시각과 변화에 대해 총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어 중국 역사교과서에 대해 한국학계의 관점뿐 아니라 동아시아사, 더 나아가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기 위해 중국 역사교과서상의 미국, 유럽, 일본, 베트남, 몽골 등 다른 국가에 대한 서술 변화와 인식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간 한중 간의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역사 갈등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중 역사학자 간 학술교류와 한중 역사교육자회의를 촉진시켜 역사 현안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다만 중국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사 서술의 소략화와 문제점에 대해 중국학계의 한국 역사 연구 성과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부재'도 제기되고 있으며, 중국학계의 한반도에 대한 역사인식과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서술이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으므로 한국학계의 연구성과가 전달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하고 학술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열린 시각에서 동아시아의 역사를 바라보는 올바른 역사관을 차세대에게 심어주고 한중 상호 이해를 위한 역사교과서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한중 역사교육학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할 것이다.

90 김현숙, 2022, 앞의 글, 2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교과서

課程教材研究所 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2001,『中國歷史』,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_____, 2005,『義務教育教科書 中國歷史 七學年 下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_____, 2006,『義務教育教科書 中國歷史 七學年 上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教育部組織編寫, 2019,『中外歷史綱要』(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_____, 2020,『中外歷史綱要』(下), 山東: 人民教育出版社.

教育部組織編纂 齊世榮 總主編, 2017,『義務教育教科書 中國歷史 七學年 上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_____, 2018a,『義務教育教科書 世界歷史 九學年 上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_____, 2018b,『義務教育教科書 中國歷史 七學年 下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_____, 2019,『義務教育教科書 中國歷史 八學年 上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人民教育出版社歷史室, 1999,『世界歷史』,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_____, 2009,『歷史, 選修6, 世界文化遺産會萃』,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

臧嵘·王宏志, 1987,『初級中學課本, 中國歷史』第1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2000,『九年義務教育全日制初級中學歷史教學大綱(試用修訂版)』,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단행본

과정교재연구소편, 2008,『20세기 중국 중소학 과정표준·교학대강회편 역사권』, 동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아역사재단.
권소연, 김유리 외, 2006, 『중국 역사교육과 교과서』, 동북아역사재단.
김종건 외, 2011, 『중국 역사교과서의 통일적다민족국가론 분석』, 동북역사재단.
김현숙 외 , 2017,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동향』, 역사공간.
동북아역사재단, 2010, 『중국 역사교과서 검토회의 발표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교과서연구센터 편, 2021, 『중국 시진핑시대 교과서 국정화와 역사담론』, 동북아역사재단.
송요후·임상선 외, 2008, 『중국과 타이완, 홍콩 역사교과서 비교』, 동북아역사재단.
오강원·임상선 외, 2006, 『중국 역사 교과서의 한국 고대사 서술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오병수, 2021, 『한중 역사교과서 대화: 근대의 서사와 이데올로기』, 동북아역사재단.
王洛林 저, 이영옥 역, 2004, 『중국의 동북변강 연구』, 고구려연구재단.

馬大正·楊保隆·李大龍·權赫秀·華立, 2001, 『古代中國高句麗歷史叢論』, 黑龍江教育出版社.
步平, 2017, 『黑龍江通史』,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付百臣, 2008, 『中國歷代朝貢制度研究』,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華夏子, 1988, 『明長城考實』, 北京: 档案出版社.
黃松筠, 2008, 『中國古代藩屬制度研究』,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논문

공석구, 2014, 「『中國歷史地圖集』의 戰國時期 燕 長城 고찰」, 『백산학보』 99.
_____, 2015, 「『中國歷史地圖集』의 평양지역까지 연결된 秦 長城에 대한 검토」, 『先史와 古代』 43.
_____, 2017, 「청천강 유역까지 연결된 漢長城 東端 문제 고찰-『中國歷史地圖集』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6.
권은주, 2020, 「『중외역사강요』의 한국 고대사·동아시아사 서술 내용과 역사인식 분석」, 『동북아역사논총』 70.
김용수, 2009, 「한중 역사 교과서의 서술경향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유리, 2008, 「중국고등학교 역사과정표준에 따른4종 판본 『역사』 실험교과서의 구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체계 분석」, 『역사교육논집』 40.
_____, 2018, 「국정제로 회귀한 중국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분석」, 『역사교육』 148.
김은국, 2007, 「중국의 동북공정 상에 보이는 발해사 서술」,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김정현, 2010, 「20세기 中國의 韓國史 서술과 日本의 植民史觀」, 『중국학보』 61.
김종건, 2010, 「중국 역사교과서상의 한국 관련 서술 내용 변화에 대한 검토-최근 초급중학 『중국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69.
김지훈, 2007, 「한·중 역사갈등 줄이기-동북공정과 중국의 역사교과서」, 『역사문제연구』 17.
_____, 2018, 「현대 중국의 한국전쟁 인식 변화-역사 교과서의 서술 변화를 중심으로-」, 『사림』 64.
_____, 2019, 「국가의지(國家意志)와 역사교과서의 정치화-2018년 중국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현대사 서술」, 『역사교육연구』 33.
_____, 2020, 「2002년 전후 중국 동북공정의추진과정과 추진 주체」, 『백산학보』 117.
김지훈·정영순, 2004, 「최근 중국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한국사-「역사교학대강」 교과서와 「역사과정표준」 교과서의 비교검토」, 『중국근현대사연구』 23.
김현숙, 2022, 「한중 역사 갈등의 현황과 과제-동북공정을 넘어 미래로」, 『동북아역사논총』 77.
박영철, 2002, 「중국역사교과서의 한국사서술」, 『역사교육』 84.
서길수, 2008, 「중화인민공화국 동북공정 5년의 성과와 전망」, 『고구려발해연구』 14.
손성욱, 2021, 「『중외역사강요』의 전근대 대외관계 인식-두 차례 등장한 '종번관계'를 중심으로-」, 『사림』.
안희천, 2006, 「중국의 동북공정 교과서 왜곡 출발시점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교육』.
양승훈·박현숙, 2019, 「초급중학교 『중국역사』 교과서(2016판)의 한국 고대사 서술 내용과 특징」, 『선사와 고대』 59호.
오병수, 2020, 「시진핑시대 중국의 역사정책과 자국사의 재구성-『역사 중외역사강요』 과목의 개설 배경과 이데올로기-」, 『역사교육』 156.
우성민, 2012, 「중국 역사학계의 새로운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 『진단학보』.
_____, 2021, 「中國 현행 中等職業學校와 普通高中 歷史教科書의 韓國史 관련 서술 비교」, 『중국사연구』 134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_____, 2022, 「'동북공정' 전후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인식과 서술 변화에 대한 검토」, 『중국의 역사 정책과 동북아 역사문제-동북공정 20년 평가와 과제』, 동북아역사재단.
유용태, 2005, 「중화민족론과 동북지정학-'동북공정'의 논리적근거」, 『동양사학연구』 제93집.
윤세병, 2017, 「중국의 역사교육과정의 현황: 2011·2017 과정표준을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 65.
이정빈, 2021, 「중국 개정 중등 역사교과서(2016~2018)의 한국고대사상」, 『중국 시진핑시대 교과서 국정화와 역사담론 』, 동북아역사재단.
임기환, 2006, 「동북아 역사분쟁,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 역사학계의 대응--고구려사 인식을 중심으로」, 『사림』 26권.
조기임, 2008, 「東北工程과 1990년대 이후 중국 중등 역사교과서 한국사 관련 서술 변화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기타 자료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 『舊韓國外交文書』 1, 日案 1, 고종 25년 5월 18일, 문서번호 1189, https://db.history.g
「『동북고대방국속국사연구총서』 출판 간행 및 학술 좌담회가 장춘에서 거행(『东北古代方国属国史研究丛书』出版发行暨学术座谈会在长春举行)」, 『中国社会科学网讯』, 2020.11.3.
여호규, 「[시론] 더욱 교묘해진 중국의 한국사 왜곡」, 『중앙일보』, 2022.10.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동북공정’ 전후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인식과 서술 변화에 대한 검토

우성민

이 글은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공식 추진한 지 20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동북공정과 중국 역사교과서의 상관 관계를 비롯하여 동북공정 전후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관련 서술과 인식에 어떠한 변화의 추이가 있었는지 재조명하고,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우선 동북공정을 주도한 마다정의 ‘중국 역사교과서 중 고구려에 대한 표현법의 변화’에 의하면 ‘동북공정’을 공식화하기 이전부터 역사교과서 수정을 전제로 하고 있었고, 거국적인 준비를 기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이 ‘동북공정’ 추진 이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중국 역사교과서에 ‘동북공정’의 역사인식을 반영하고자 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 기반하여 동북공정 입안과제 가운데 한중 역사 주요 현안으로 분류되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 근대 한중관계, ‘항미원조전쟁’ 관련 서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동북공정 입안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동북공정식 역사인식과 맥을 같이하는 ‘장성’ 관련 서술의 변화도 함께 다루었으며, 또한 전근대에서 현대에 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르기까지 통시적으로 다루는 차원에서 일부 고려와 조선 관련 서술 내용도 포함시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동북공정'의 핵심 이론에 해당하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론'이 적용되어 1980년 교학대강부터 중국 역사교과서의 고구려 관련 서술을 소략화하면서 수·당의 고구려 전쟁이 삭제되었고, 발해사 관련 서술은 이보다 앞선 1963년 교학대강부터 중국사로 편입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발해사의 경우 1980년의 교학대강부터 중국 국경 내의 지방정권이었다고 주장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고조선 관련 서술의 경우도 중국사의 입장에서 한군현 설치가 이루어졌던 한대를 고조선을 서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전국시대와 진, 한 대에 정국의 혼란을 피해 다수 중국인이 망명하였고 이 과정에서 연나라 사람에 의해 위만조선이 건국되었다고 강조하여 동북공정의 역사인식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임진왜란 관련 서술 기조 가운데 이른 바 중국과 조선의 '순망치한' 관계를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근대에 해당하는 청일전쟁의 마관조약의 경우 많은 교과서에서 마관조약 제1조 조선의 독립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특히 중국과 한반도의 종속관계에 대한 중국의 역사인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한국전쟁의 경우 미국이 한반도를 침략했고 북한의 요청으로 중국이 참전했다고 하여 중국의 참전 배경을 자국 입장에서 정당화하였다.

장성 표기와 관련하여 1982년판 중국 역사교과서에서 이미 장성의 동단이 압록강까지 표시되어 있는 명대의 장성 지도를 사용하였다.

위의 한중 역사 현안 쟁점별 서술 내용을 통해 동북공정 이전부터 중국 역사교과서에 동북공정의 역사인식이 반영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동북공정 추진 이래 동북공정 논란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된 이후 한중 고구려사 왜곡 5개 항 구두양해를 고려하여 한중 간 민감한 문제를 기피하고자 중국 교과서상 고구려와 관련된 내용이 축소되거나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쟁점별로 동일하게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구려뿐 아니라 한국 전근대사 관련 내용이 거의 사라졌고 근현대사 관련 내용도 크게 축소되었다. 청일전쟁 관련 부분도 크게 감소했고 세계근대현대사에서 다루었던 의병전쟁, 3·1운동 등과 관련된 내용도 모두 사라졌다.

궁극적으로는 한족 중심의 중화문명을 내세운 중화주의적 역사인식이 확대되면서, 비서구·약소국 중화문명 우위의 문화전파론적 시각이 유지되는 가운데, 비서구·약소국의 역사를 주변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동북공정 추진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1년 말 중국 정부는 중국의 개혁 개방이 지속되면서 기존의 국가 중심의 역사인식에 도전하는 일부의 움직임을 우려하여 애국주의 정치교육으로서 역사교육을 더욱 강조하였다.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집권한 시진핑 주석은 교과서 편찬이 국가 권한임을 밝히며 국가교재위원회 신설을 요구하였다.

이는 당시 주변정세로서 탈사회주의화, 소수민족 갈등, 빈부격차, 국제질서 변동과 아울러 동아시아의 영토를 둘러싼 갈등과 역사 문제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시진핑 주석 집권 2기가 시작되는 2017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처음으로 국가교재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중등 역사교육과 관련하여 국정화 방안을 공식 발표하였다.

새로 개편된 중국 역사교과서의 특징으로 영토주의 역사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일대일로 정책 등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가이드라인을 강하게 반영하였다.

고구려와 발해를 포함한 한국사 관련 서술은 여전히 '동북공정'식 역사 서술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중심 동아시아 체제를 "종번(宗藩) 체제"로 규정하고 조선을 중국의 번속국으로 서술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한국전쟁을 의미하는 '항미원조' 관련 서술 내용이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체제 유지를 위한 중요 수단이 되는 가운데 고도의 애국주의, 혁명영웅주의를 강조하는 데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미중 갈등 격화 속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국 측 입장을 반영한 한국전쟁을 중국인들의 단결을 촉구하기 위한 자극제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국의 전략 경쟁이 격해질수록 반미의식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한국전쟁이 향후 더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교롭게도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시점인 현재 한중수교 이후 10주년, 20주년에 비해 근래 양국 관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훨씬 높아졌다.

그 배경은 동북공정 전후 이러한 중국의 역사인식이 역사교과서에도 그대로 반영되면서 양국 간의 역사 갈등이 지속, 확대되어온 현실과 맞닿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북공정 전후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인식과 서술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학계가 공동으로 연구하며 교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동북공정, 중국, 역사교과서, 한국사 서술, 역사교육 변화, 한중관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Perception and Description of Korean History in Chinese History Textbooks: Before and After the "Northeast Project"

Woo Sungmin

Twenty years have passed since China officially implemented the "Northeast Project." This study revisits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Northeast Project and Chinese history textbooks, the changes in the description and perception of Korean history in the textbooks after the Northeast Project, their impact and implications on Korea-China relation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description of Koguryo in Chinese history textbooks," written by Ma Dazheng who led the Northeast Project, the revision of history textbook was presupposed and prepared on a national scale since even before the official launch of the project. This can serve as an important clue to reveal China's intention to incorporating the historical perception of the "Northeast Project" into Chinese history textbooks.

This study, based upon such awareness, discusses the descriptions about Gojoseon, Koguryo, Balhae, modern Korea-China relations, and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e Korean War.

This article also touches upon the changes in the description of the "Great Wall" which has the same context as the project's historical perception, although it is not part of the agenda of the Northeast Project. Furthermore, some descriptions of Goryeo and Joseon have also been included in the scope of this study in order to discuss the premodern and modern history diachronically.

The "unified multi-ethnic nation theory," which is the key of the "Northeast Project" was applied to China's history education, starting from the curriculum of 1980 to abbreviate the description of Koguryo and omit Sui and Tang's war against Koguryo. Balhae history was incorporated into Chinese history even earlier, starting from the 1963 curriculum. The Chinese curriculum in the 1980 educational program began stating that Balhae had been a local government located within the border of China. The historical perception of the Northeast Project can also be observed in the description of Gojoseon. The history textbooks see the Han period when the Four Commanderies of Han were installed as the key period to describe Gojoseon from the Chinese point of view. The textbooks emphasize that Wiman Joseon was founded while many Chinese people were seeking asylum from the political turmoil during the Warring States, Jin and Han periods.

The description of the Imjin War stre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Joseon and China, represented by the idiom, "without the lips, the teeth feel the cold." When it comes to the modern history, many textbooks do not mention Article 1 of the Shimonoseki Treaty which stipulates the independence of Joseon as part of their description about the Sino-Japanese War.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fact that the textbooks reflect China's historical perception regarding the subordinat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China. In the same context, the textbooks justify China'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from China's point of view by stating that the United States invaded the Korean Peninsula and started the Korean War, and North Korea requested China to enter the war.

Chinese history textbooks published in 1982 used the map of the Great Wall from the Ming Dynasty which marks the Amnok River as the eastern end of the Great Wall.

The descriptions of different historical issues between Korea and China show that Chinese history textbooks were already reflecting the historical perception of the Northeast Project even before its implementation.

As Korea-China relations were aggravated due to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Northeast Project, the descriptions about Koguryo in the Chinese textbooks have been abbreviated or removed to avoid conflict over sensitive issues in consideration of the oral agreement on five items regarding the distortion of Koguryo history. However, the historical perception of the Northeast Project still persists in the textbooks.

Descriptions of not only Koguryo but also the premodern history of Korea have mostly gone and the information about Korea's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has also been reduced to a great extent. The explanation about the Sino-Japanese War has been minimized as well. The textbooks no longer discuss the Righteous Army War and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which used to be taught as part of the world modern histor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China is expanding the Sino-centric view of history that puts forward the Chinese civilization centered around the Han Chinese while maintaining the perspective of cultural diffusionism where the Chinese civilization holds a dominant position and thus marginalizing the history of non-Western and small nations.

In late 2011 when ten years had pass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Northeast Project, the Chinese government was concerned about some movement that challenged its state-centric historical perception with the continuous reform and opening of the country and consequently began to emphasize history education as part of patriotic political education.

Xi Jinping who came to power during the 18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PC) in November 2012 requested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textbook committee, arguing that the publication of textbooks falls within the scope of government authority.

This was because territorial and historical issues in East Asia were intensifying in conjunction with postsocialism, conflict with minority groups,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and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In 2017, when Xi Jinping started his second term, National Textbook Committee was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found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China officially announced its plan to standardize history textbooks for middle school education.

The new edition of Chinese history textbooks strongly reflect the territorialist view of history, the unified multi-ethnic nation theory, One Belt One Road Policy, and other guidelines defined by the leadership of the CPC.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eir description about Korean history, including Koguryo and Balhae, still presents issues associated with the historical view of the "Northeast Project." In particular, the textbooks define the East Asian system as a "tributary system" and describe Joseon as a subordinate of China.

The description about "anti-America and pro-Joseon" efforts, meaning the Korean War, is an important tool to maintain the socialist system of China, being used to put emphasis on strong patriotism and revolutionary heroism. It shows that the country is utilizing its own story about the Korean War as a stimulant to urge Chinese people to stand in solidarity while its conflict with the US is intensifying.

It is predicted that the Korean War will gain more importance as a tool to encourage anti-US sentiment as the two countries' strategic competition aggravates further.

This year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China, but the two states' relationship is in a worse shape than what we had 10 and 20 years earlier.

China's view of history, demonstrated by the Northeast Project, is bluntly reflected in the Chinese history textbooks, contributing to the continuation and intensification of the historical conflict between the two nations.

Now, therefore, is the time for scholars in and outside of Korea to study, interact, and discuss with one another to find solutions to the issues surrounding the description and perception of Korean history in Chinese history textbooks.

Keywords: Northeast Project, China, history textbooks, description of Korean history, changes in history education, Korea-China relation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2..78.002

최근 중국학계의 전근대 종번과 변강 인식 문제

손성욱 | 선문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I. 머리말: '동북공정'의 마지막 결과물
II. 『고대 중조 종번관계와 중조 번계사 연구』와 번속이론
III. 종번의 문제
IV. 변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
V. 맺음말: "하나의 목소리"를 넘어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동북공정'의 마지막 결과물

2001년 "동북공정"이 시작된 후, 본 과제는 연구계획에 포함되었고 계획 승인 후 예산을 지원받았다. 나와 왕충스(王崇時) 교수가 과제를 맡았는데, 그는 선진에서 요·금·원 부분을 책임졌고, 나는 명·청 부분을 담당했다. 나는 이 프로젝트의 연구책임자이었기에 책이 출간될 때 내 이름이 앞에 나오기로 약속했다. 2003년 기한 내 과제를 완수해 전문가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으며, 출판을 위해 중국사회과학출판사(中國社會科學出版社)에 원고를 넘겼다. 책임편집자의 검토를 거쳤고, 2004년에 출판 예정이었다. (당시 인터넷에는 출판사에서 공지한 이 책의 출판 소식을 볼수 있었다.) 하루는 책임편집자가 책을 당분간 출판하지 않겠다고 전화로 알려왔다.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었다. (후일 듣기로는 "동북공정"이 시작된 후 한국 측 반응이 격렬해, 유관 부문에서 양국 관계를 고려해 당분간 출판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원고가 방치된 지 십여 년이 흘렀다. 다행히도 최근 몇 년 동안 중(中)·조(朝)관계사 연구를 지속해왔고, 책 내용은 대학원생의 세부 주제 수업에서 강의했으며, 강의의 필요로 인해 끊임없이 내용을 업데이트했다. 왕충스 교수가 맡았던 부분도 내가 여러 차례 수정했으며, 만약 수정에 있어 부적당한 부분이 있으면 전적으로 내 책임을 밝힌다.[1]

2021년 '동북변강역사여현장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2]의 '마지막' 결과물이 나왔다. 2002년 시작되어 2007년 공식적으로 끝났

---

* 투고: 2022년 10월 15일, 심사 완료: 2022년 11월 7일, 게재 확정: 2022년 11월 14일

1 刁書仁, 2021, 『古代中朝宗藩關係與中朝疆界歷史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395쪽.

2 '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을 약칭으로 표기할 시는 '동북공정'으로 표기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 동북공정 20년을 돌아보는 자리에서[3] '마지막' 결과물이라 하니 의아스러울 수도 있지만, 위에서 인용한 댜오수런(刁書仁)이 쓴 『고대 중조 종번관계와 중조 변계사 연구(古代中朝宗藩關係與中朝疆界歷史研究)』(北京大學出版社, 2021)의 후기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2003년 '동북공정'의 성과물로 중국사회과학출판사는 동북변강총서 6권을 출간했고,[4] 2006년 2차분 3권을 출간했다. 2차분의 첫 책은 번속이론의 틀을 마련한 리다롱(李大龍)의 『한당 번속체제 연구(漢唐藩屬體制研究)』로 5월에 출간되었다. 이어서 8월에 양쥔(楊軍)의 『고구려 민족과 국가의 형성 및 변천(高句麗民族與國家的形成和演變)』, 웨이궈중(魏國忠)의 『발해국사(渤海國史)』가 출간되었다. 한국은 바로 반응했다. 일각에서는 '제2차 동북공정 사태'라고 부를 정도로 큰 반발이 있었다.

2006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원자바오 중국 전 총리에게 "학술연구기관 차원이라고 하지만,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원 총리는 "관련 학술기관에는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 문제를 잘 다루도록 하라고 했으며,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5] 그 '조치'로 인해 2차분으로 나올 예정이었던 『고대 중조 종번관계와 중조 변계사 연구』 출간이 미뤄졌다.

『고대 중조 종번관계와 중조 변계사 연구』는 '동북공정'의 결과물로 완성되

3 이 글은 2022년 6월 17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중국 역사정책과 동북아역사문제: 동북공정 20년 평가와 과제'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이다.

4 耿鐵華, 2003, 『好太王碑一千五百八十年祭』,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張鳳鳴, 2003, 『中國東北與俄國(蘇聯)經濟關係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馬大正, 2003a, 『古代中國高句麗歷史續論』,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馬大正, 2003b, 『中國東北邊疆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王曉菊, 2003, 『俄國東部移民開發問題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李德山·欒凡, 2003, 『中國東北古民族發展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5 http://archives.knowhow.or.kr/rmh/chronologyList/20060911(검색일: 2022.6.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었다가, 한중관계를 고려한 중국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출간이 연기됐다. 10년이 지난 2016년 다오수런은 중국 '국가철학사회과학성과문고(國家哲學社會科學成果文庫)'[6] 사업을 신청해 선정되었으며, 2021년 책을 출간할 수 있었다. 책이 출간된 것은 개인적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후기'에서 볼 수 있듯 그는 양국 관계의 고려로 출간이 미루어졌다고 밝히며 간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은 '동북공정'의 역사 왜곡과 정치적 의도를 비판했지만, '동북공정'에 참여한 많은 중국학자는 한중 간 정치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학술 연구의 제약을 받았다고 느꼈다. 이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20~21일 열린 한국고대사학회의 하계세미나(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변강정책과 한국고대사 연구동향) 종합토론에서 중국사 연구자인 김지훈이 '동북공정' 연구자들의 불만을 잘 설명한 바 있다.

> 길림성 장춘시에서 개최되었던 '2009 동북변경 역사와 학술연토회' 여기서 학자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고구려와 발해 연구가 한국에서 관심을 가지는 정치적 문제가 되어서 2007년 이후에는 관련 저서를 출판할 수 없게 되었고 민감한 문제의 경우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어려워졌다는 식의 불만을 학자들이 표시했다.[7]

2006년 '동북공정' 결과물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항의는 '효과'가 있었고, 중국 정부는 한중관계를 고려해 참여연구자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동북공정'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강화하고 민족적 통합과 영토적 통합을 확고히 하여 변강의 안정을 도모하며 내외부의 위협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동북지역뿐만 아니라 이전에 동북보다 더 시급한 서남, 서

---

6 이 기금은 중국사회과학기금(中國家社科基金)을 받아 프로젝트를 마친 연구성과물에서 '양호'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결과물 중 신청을 받아 출판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7 임기환 외, 2012,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고대사』, 주류성, 44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북 지역에서도 변강 연구가 있었으며, 현재도 정부의 지원 속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8] 변강 연구는 국내외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지만, 그 경중을 따지자면 민족 통합과 국민 단결의 목적을 우선시하며, 국외 문제는 중국의 성장으로 대외 압박이 커지면서 발생했다. '동북공정'도 마찬가지다. 윤휘탁은 "동북공정을 태동하게 만든 주요한 원동력은 한반도 정세변화가 동북지역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 동북지구에서 새롭게 파생된 정치사회 현상 연구의 절박성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9]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중국 당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던 초기에 '연구의 절박성'을 인지했다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프로젝트가 이후 한중관계의 전개 속에서 절박성을 실감했던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대외 대응 논리로 '동북공정'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2006년 한국의 항의로 중국이 조치한 것이나, 2010년 중국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학부 주임 장윈링(張蘊嶺)이 문정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동북공정 문제가 이렇게 크게 비화될 줄 전혀 예상치 못했다"[10]고 한 발언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동북변강총서와 궤를 같이하는 『고대 중조 종번관계와 중조 변계사 연구』가 10년 만에 출간될 길이 열렸고, 2021년에 세상에 나왔다. 댜오수런은

8 중국에서는 2010년대에 들어서 변강 연구자를 중심으로 변강학을 학과체계로 구축하려는 모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馬大正, 2011, 「關於中國邊疆學構築的幾個問題」, 『東北史地』 2011-6; 馬大正, 2021, 「中國邊疆學構築再思考-"三大體系"建設之我見」, 『中國邊疆史地研究』 2021-3; 楊東 訪談 整理, 2021, 「中國邊疆研究的回顧與前瞻-馬大正先生訪談錄」, 『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 2021-1; 李大龍, 2020, 「試論中國邊疆學"三大體系"建設」, 『中國邊疆史地研究』 2020-2; 邢廣程, 2020, 「加快構建中國邊疆學」, 『中國社會科學報』 2020.8.24; 孫宏年, 2021, 「加快構建中國邊疆學"三大體系"」, 『中國社會科學報』 2021.2.1.

9 윤휘탁, 2008, 「'포스트(Post) 동북공정': 중국 東北邊疆戰略의 새로운 패러다임」, 『역사학보』 197, 104~105쪽.

10 문정인, 2010, 『중국의 내일을 묻다: 중국 최고 지성들과의 격정토론』, 삼성경제연구소, 23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책의 내용을 수정하고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지만, 핵심 논지는 변함이 없다. 고구려를 중국 소수민족 지방정권으로 규정하고, 한중 종번관계의 비강제성, 종번체제의 위계성, 근대 식민제도와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15년 전 이러한 주장은 한국의 반발을 가져왔고 중국 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정치적' 제스처를 취했지만, 보류됐던 『고대 중조 종번관계와 중조 변계사 연구』는 15년이 지나 나왔다. 15년의 간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학술 논의의 진전, 정치적 입장의 변화, 한중관계 등 대외인식의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댜오수런의 책을 기점으로 최근 중국학계의 전근대 종번, 변강, 국제관계 인식 논의를 '동북공정 20년 평가와 과제'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 15년의 간극이 지니는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Ⅱ. 『고대 중조 종번관계와 중조 변계사 연구』와 번속이론

『고대 중조 종번관계와 중조 변계사 연구』의 내용은 한국학계의 비판과 상관없이 동북변강총서의 역사 인식을 공유하며, 한중 종번관계의 변화와 영토상 경계의 변천을 다룬다. 우선 변경 문제에 관해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은 한반도 동북부에 자리한 나라로 각각 주(周)와 한(漢)의 책봉을 받은 제후국이었으며, 영토의 남쪽 경계는 현재 대동강 남쪽이고, 고구려는 중국 동북부 강역 내 지방정권으로 427년 평양 천도를 했지만, 정권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고 본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해 명대 양국 변경에서 명은 점점 축소됐고, 조선은 북쪽으로 크게 확장했으며, 명의 덕화(德化) 이후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압록강에서 두만강에 이르는 경계가 청에 계승되어 기본적으로 현재 양국의 국경을 형성했다고 설명한다. 댜오수런은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설정하여 고구려의 영토 확대를 중국 변경의 확장으로 간주하며, 명의 덕화로 이전보다 명의 영토는 축소되고 조선의 영토가 확장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변경의 변화는 당연히 국가 이익에 따른 충돌과 조정의 결과임에도 중화질서에 기대어 설명하며, 고구려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를 자국사로 편입시켜 중원왕조의 변경을 무리하게 확대했다.

고대 한중관계의 성격을 종번관계로 규정하며 세 가지 특징을 제시한다. 첫째, 한중 종번관계는 중국의 강압이 아닌 한국이 자발적으로 맺은 경우가 많았다. 고대 한국이 중국에 '칭신납공(稱臣納貢)'을 한 것은 3~4세기 신라와 백제이며, 주동적으로 중원 왕조에 '칭신납공'을 맺었다고 강조한다. 원대 양국 관계에 강제성이 있었지만, 이를 비정상 종번관계로 보고 그 시간도 짧았다고 설명한다. 둘째, 종번관계는 조공과 책봉으로 맺어졌고, 중원 왕조는 한반도 왕조의 내정을 기본적으로 간섭하지 않았다. 원대, 명초, 청초 간섭이 심화됐고 조공 부담을 가중시킨 적이 있지만, 유구한 한중관계에서 그 기간은 짧았으며 양국 관계의 주류가 아니었다고 강조한다. 셋째, 종번관계는 중국이 조선을 포함한 이웃 국가와 특정한 조건하에 형성된 독특한 국가관계이며, 이러한 체제 속에서 종주국과 번속국 사이에는 수많은 불평등한 요소가 있었으나, 근대 식민제도와는 크게 달랐다. 종주국의 대다수 통치자는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수탈하지도 않았다. '천하공주(天下公主)'로 주변국을 우대했고 주변국은 그 지위와 명분을 중시했다고 설명한다. 한중관계 역시 천하공주의 의식과 사대 관련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조공과 책봉을 매개로 이루어진 종번체제로 본다.[11]

댜오수런은 종번관계의 특징을 위계성, 번속국의 자발적 편입, 종주국의 번속국에 대한 비간섭으로 드러낸다. 이는 서구의 근대 식민체제와는 다른 독특한 제도이며, 강제성과 폭압성이 두드러진 시기가 있지만, 그 시기는 매우 짧으며 장구한 종번관계의 역사에서 특수한 시기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조공(朝貢), 봉공(封貢) 등 전근대 한중관계를 설명하는 여러 용어가 있음에도 종번이란 용어를 선택한 것은 번속국의 자주나 종주국의 비간섭을 강조하기보다 위계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강해 보인다. 물론 그는 명확하게 왜 종번이라는 용어를 채용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종번관계론은 주 왕실과 번속 간

11 刁書仁, 2021, 앞의 책, 379~38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관계에서 기원하여 대외관계로 보며 관계의 유구한 역사와 종속성을 강조하는데, 그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종(宗)은 중원왕조이며 번(藩)은 그와 관계를 맺는 주변 정치체가 되는데, 번을 어떻게 규정하고 범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성격이 달라진다. 그는 한반도 북부에 존재했던 기자조선은 주 왕실의 제후국이었고, 한의 제후국이었던 위만조선은 한 무제가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했기에 중국의 강역으로 보고, 그 강역 안에 세워진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이해한다. 반면, 신라와 백제는 중국 강역 밖에 있던 존재로, 중원왕조와 '주동'적으로 종번관계를 맺었으며, 갸오수런의 종번관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는 중국의 책봉과 번의 '칭신납공'이다.[12]

'칭신납공'을 강조하며 번을 설명하는 방식은 리다롱이 2003년 『고대 중국 고구려 역사 속론(古代中國高句麗歷史續論)』에서 제시한 번속이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동북공정'의 핵심 이론인 번속이론은 번(藩)이 "보통 상대적으로 강한 왕조, 특히 중원왕조와 거기서 분봉된 제후 왕, 기타 약소 정권, 변경 민족정권, 심지어는 변경 민족정권 밖에서 '칭신납공'하는 이웃 정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13]되었으며, 속은 "변경민족을 중원왕조 경내로 옮기기 위해 설치한 지방행정 제도인 속국을 가리키는 데 이용되었고 설명한다. 그 관할 경내에 있는 변경민족은 본래 민족 주체에서 떨어져 나와 중원왕조의 정식 행정제도 안으로 옮겨졌다"[14]고 설명하며, 중원왕조와 속국이 된 주변 정치체와의 관계도 이에 속한다. 리다롱의 번속이론은 한대부터 당대까지의 번속체제를 다룬 『한당 번속체제 연구(漢唐藩屬體制研究)』에서 더 체계적으로 다뤄졌다.[15] 선진 시기 오복제(五服制)를 바탕으로 형성된 천하관은 한대에 이어져 구주(九州), 해내(海

12 刁書仁, 2021, 앞의 책, 27~39쪽.

13 馬大正, 2003a, 앞의 책, 2쪽.

14 馬大正, 2003a, 위의 책, 3쪽.

15 李大龍, 2006, 『漢唐藩屬體制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리다롱의 번속이론 내용과 이에 대한 비판에 관해서는 이석현 외, 2010, 『중국 번속이론과 허상』, 동북아역사재단, 25~31, 100~106, 118~148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內), 해외(海外)라는 관념이 등장했고, 중국을 중심으로 위계적 층차가 구축되었다. 그는 중국에 칭신납공한 주변 세력을 번속의 범주에 넣는다.

리다롱은 조공, 책봉-조공, 종번으로 중국의 '천하질서'를 설명하는 것을 비판하며, 번속체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봉과 조공은 정책의 일종으로 중원과 주변의 관계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며, 종법제와 연관해 종번관계를 사용하지만, 종(宗)은 가족 관념으로 중국 역대왕조와 번속국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16] 하지만 번속이론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대한 이해로 중국 중심적 시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천하질서의 층차를 두어 번속을 구분하지만, 국제관계가 아닌 일국의 정치체제 측면에서만 접근하여 변경의 변천과 영토의 형성을 설명하는 문제가 있다.

번속이론처럼 일국체제로 접근하면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선명한 논리를 세울 수 있지만, 현대 국제관계와는 다를지라도 국가 대 국가의 교류 양상을 보이는 중원왕조와 한반도 왕조와의 관계를 통시적으로 일관되게 설명하기 어렵다. 중국 변강학의 일환으로 역사학 연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이 지점이다.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종번'을 통해 한중관계와 양국 강역 문제를 다루는 『고대 중조 종번관계와 중조 변계사 연구』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대외관계 및 대외질서가 서양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해도, 종번이나 번속 논리를 일국체제와 국제질서에 모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한쪽의 논리만을 취하고 강화할 수는 없다. 중국의 변강학적 접근은 국민과 민족의 통합, 변경 안정 도모라는 국내 문제이자, 변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국과의 지역 문제라면, 국제질서로의 설명은 세계질서의 패자로 중국은 서양과 달리 어떻게 중국적 세계질서를 운영해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16 李大龍, 2014, 「"藩屬體系"還是"朝貢體系"?-對唐朝前期"天下"制度的幾點認識」, 周平·李大龍 主編, 『中國的邊疆治理: 挑戰與創新』, 北京: 中央編譯出版社, 220~22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Ⅲ. 종번의 문제

종번은 중국의 전근대 대외질서를 설명하는 주류 학설의 용어가 아니었다. 20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종번은 주로 근대 전환기를 중국과 주변국의 관계 변화로 설명할 때 쓰였으며, 전근대 대외질서를 하나의 개념이나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많지 않았다. 다양한 용어는 1990년대 중국과 주변국 관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주로 한중관계와 베트남-중국 관계에 관한 연구성과가 많았다. 하지만 전근대 한중관계를 비롯해 중국과 주변국의 관계를 종번의 틀로 분석하는 것에 대해 중국의 대표적인 중외관계사 연구자인 천즈강(陳志剛), 천상성(陳尙勝), 리다롱 등의 비판이 있었다.[17]

그들의 비판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각각의 시대에 종번의 이해와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서주 시대 종법제에 기반한 종번으로 전근대 대외관계를 통시적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송대 이후 종번이란 용어의 사용 빈도가 많이 증가하지만 중국의 대외관계와 관련되어 쓰인 적이 없다. 명대 종번이라는 말이 빈번하게 사용되는데, 이는 대외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명 황실이라는 종실과 번왕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으로, 『종번조례(宗藩條禮)』와 『대명회전(大明會典)』 내 종번 관련 규정에는 조선에 관한 것이 없다. 청(淸)·조(朝) 관계는 다른 조공국과는 그 기원이 다르지만, 조선 역시 이번원이 아닌 예부에서 관련 사무를 담당했다.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확장으로 조선 문제가 불거지던 시기에도 청과 조선에서 양국 관계를 종번이라고 부른 적이 없으며 청은 조선에 대한 권리를 종주권이라고 칭하지 않았다. 종번은 종주국과 번속국의 첫 글자를 합쳐 만든 용어로 근대 서양 식민주의 관념을 내포하고 있다.

용어의 비역사성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연구자 중 종번 개념의 학술사적 맥

17 陳尙勝, 2008, 「中國傳統對外關係硏究芻議」, 『安徽史學』 2008-1, 24쪽; 陳志剛, 2010, 「關於封貢體系硏究的幾個理論問題」, 『淸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0-6; 李大龍, 2015, 『從"天下"到"中國": 多民族國家疆域理論解構』, 北京: 人民出版社, 191~19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락을 밝히고 쓰는 이가 거의 없다. 류칭타오(劉淸濤)는 '종번관계'는 '종주권'과 '종주국'이라는 용어가 유입된 이후 만들어진 용어이며, 종주권과 종주국은 일본이 번역한 용어를 20세기 초에 수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18] '종번관계'가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샤오쉰정(邵循正)의 『중법월남관계시말(中法越南關係始末)』이라고 설명한다. 즉, '종번관계/체제'는 최근에 제기된 이론도 아니며, 종주국과 번속을 뜻하는 '종번'은 역사성을 지닌 전근대 용어도 아니다.

종번관계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초 장팅푸(蔣廷黻)가 중국의 종주권과 전근대 대외관계의 성격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장팅푸의 논저에서 종번관계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32년 10월 톈진(天津) 『대공보(大公報)』 "문학부간(文學副刊)"에 발표한 「외교사와 외교사료(外交史及外交史料)」로 추정된다. 장팅푸는 1923년 미국에서 귀국 후 근대 중외관계 문제에 천착하기 시작했지만, 페이슨 트리트(Payson J. Treat)의 『중일외교관계, 1853-1895』[19]가 출간된 지 얼마 안 되어 종번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트리트와의 논쟁에서 이 용어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트리트는 1876년 〈강화도조약〉,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통해 청이 조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상실했다고 봤으나, 장팅푸는 조청 간 종번관계가 존재했다며 반박했다. 장팅푸는 대외적 언설로 '종주권'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며, 종번관계라는 용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했다.[20]

장팅푸의 연구는 그의 제자인 조청관계를 연구한 왕신중(王信忠), 중월관계

18 劉淸濤, 2017, 「"宗主權"與傳統藩屬體系的解體-從"宗藩關係"一詞的來源談起」, 『中國邊疆史地硏究』 2017-1.

19 Payson J. Treat, 1932,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1853-1895,*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 T. F. Tsiang, 1933, "Sino-Japanese Diplomatic Relations, 1870-1894," *Chinese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Review*, vol.17, no.1, Peking, Chinese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를 연구한 샤오쉰정에 영향을 끼쳤고,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중국 본토보다는 대만학계에서 전근대 한중관계를 설명하는 틀로 많이 쓰였다. 특히 장춘우(張存武)가 청과 조선 관계를 다루는 연구서의 제목을 『청한종번무역(淸韓宗藩貿易)』이라고 한 것도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준다.[21] 여기서 종번이라는 용어는 전해종이 조·청 관계를 의례적 관계로 보는 전형적 조공관계를 비판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장춘우는 청과 조선 관계가 의례적 성격을 띠지만 실질적으로 청이 간여할 수 있는 관계로 봤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 내 한중관계사 연구가 본격화되고, 대만의 연구를 참고하면서 '대륙'에서도 종번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중국의 대표적인 한중관계사 연구자인 쑨웨이궈(孫衛國)가 2002년에 발표하여 현재까지 많이 인용되고 있는 「사대주의와 조선왕조의 대명관계를 논함(論事大主義與朝鮮王朝對明關係)」이라는 글에서도 명·청 시대 한중관계를 종번관계로 지칭했다.[22] 이를 전후하여 한중관계와 베트남-중국 관계를 중심으로 종번관계, 종번체계, 종번체제 등의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래 전근대 중국 대외관계를 설명할 때 학자의 관점에 따라 조공체제, 봉공체제, 종속체제 등의 다양한 용어가 등장했으며, 종번관계/체제가 지배적인 학술 담론으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다. 특히 중국의 대형 역사 프로젝트인 청사공정의 방교지(邦交志) 편찬 총책임을 맡은 천샹성은 종번관계에 비판적이다. 책봉과 조공을 전근대 중국의 대외관계의 핵심으로 보며 이를 드러내는 봉공관계라는 용어를 제시한다.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근대 중국의 대외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종번(宗藩, zongfan)'이 화두다. 중국 고등학교 필수 과목 역사 교과서인 『중외

21 張存武, 1978, 『淸韓宗藩貿易』,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이 책은 김택중·안명자·박병석·손준식·김문이 한국어로 번역했는데, 원제와는 다소 결이 다른 『근대한중무역사』(교문사, 2001)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22 孫衛國, 2002, 「論事大主義與朝鮮王朝對明關係」, 『南開學報』 2002-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역사강요(中外歷史綱要)』에 종번관계라는 용어가 등장했다.[23] 교과서에서 종번관계는 서구 식민관계와 차별되는 전근대 중국의 대외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구사되고 있다.[24] 하지만 종번관계는 이전 역사교과서에 등장하지 않았던 개념이다. 최근 중국이 역사 교과서를 심의제에서 국정제로 전환하는 등 역사교육을 강화하면서 등장했다. 종번관계는 조공관계보다 위계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시진핑 정권의 대외정책과 맞물려 그 의도가 주목받고 있다.[25]

『중외역사강요』의 종번관계와 결이 다르지만, 구미학계에서도 쑹녠선(宋念申), 왕위안충(王元崇) 등 중국학자들을 중심으로 '조공관계/체제(tributary relations/system)'의 대안으로 '종번관계/체제'가 제시되고 있다.[26] 이들은 'tributary'는 경제적 측면만 강조하고 역사성이 부재한 용어로 오독의 소지가 적지 않다고 비판하며, 서주시대부터 이어진 '종번'을 'suzerain and vassal'로 번역하지 않고 그 중국어 병음인 'zongfan'을 사용한다. 현재 'zongfan'이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서양학자들의 논저에 레퍼런스로 등장하고 있다.[27] 문제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한중관계를 설명하는 데 사회학적·

---

23 『中外歷史綱要(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19, 25쪽; 『中外歷史綱要(下)』,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20, 98쪽.

24 손성욱, 2021, 「『중외역사강요』의 전근대 대외관계 인식-두 차례 등장한 '종번관계'를 중심으로-」, 『사림』 78, 438쪽.

25 권은주, 2020, 「『중외역사강요』의 한국고대사·동아시아사 서술 내용과 역사인식 분석」, 『동북아역사논총』 70, 22~24쪽.

26 Nianshen Song, 2012, "'Tributary' from a Multilateral and Multi-Layered Perspectiv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5, no. 2[宋念申, 2012, 「否思"朝貢體系"-多邊多層視角」, 『中國與世界』 第2輯]; Nianshen Song, 2019, "Power and Trade between Qing China and Chosŏn Korea,"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Asian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Yuanchong Wang, 2018, *Remaking the Chinese Empire: Manchu-Korean Relations, 1616-1911,*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7 Niall Duggan, 2014, "The Rise of China within Global Governance," in Bart Dessein eds., *Interpreting China as a Regional and Global Power: Nationalism and Historical Consciousness in World Politics,* Lond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철학적·우주론적 근거를 드러내는 '종번' 질서를 사용하고 종번이 지닌 학술사적 맥락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쑹녠선의 대표적 저작인 『두만강 국경 쟁탈전 1881-1919: 경계에서 본 동아시아 근대』에서 종번에 대한 개념 설명은 주석에서 『사원(辭源)』의 설명을 소개한 것이 전부인데, 다음과 같다.

> 『사원(辭源)』에 따르면, 종번은 '천자의 분봉을 받은 종실'을 의미한다. 조금 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종(宗)'은 권위의 서열이 연공(年功)과 혈통 접근성 순서에 따라 형성되는 가족 혈연에 기초한 위계적 서열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는 중앙정권(宗) 하위정권을 분봉하고, 동시에 그 지원과 보호를 받는(藩) 정치적 관계 영역으로 추상화하여 확대 적용되었다.[28]

설명이 너무 소략하다. 물론 쑹녠선은 「'Tributary' from a Multilateral and Multi-Layered Perspective」라는 논문에서 종번의 사회학적·철학적·우주론적 근거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고, 왕위안충도 『중화제국 다시 만들기(*Remaking the Chinese Empire: Manchu-Korean Relations, 1616-1911*)』에서 종번 개념에 대해 다루었다. 하지만 이전 학술논저에 대한 참고가 거의 없이 사료에 기대어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댜오수런이 말하는 종번과 어떻게 다르며, 번의 성격은 리다롱의 번속이론에서 말하는 번과 어떻게 다른지 구분이 모호하다. 다만

Palgrave Macmillan, p. 249; Hendrik Spruyt, 2020, *The World Imagined: Collective Beliefs and Political Order in the Sinocentric, Islamic and Southeast Asian International Societie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90~91; Tonio Andrade, 2021, *The Last Embassy: The Dutch Mission of 1795 and the Forgotten History of Western Encounters with China,*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394.

28 쑹녠선 저, 이지영·이원준 옮김, 2022, 『두만강 국경 쟁탈전 1881-1919: 경계에서 본 동아시아 근대』, 너머북스, 14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쑹녠선은 "왕조시대의 동아시아에서는 유교 이데올로기와 지정학적 구조로 하나의 역동적 지역이 형성되었고, 이 지역은 하나의 중심(주로 중국 중원지역의 정권)과 복수의 2차 중심(예를 들어, 일본, 베트남, 한국, 시암)으로 구성되었다"[29]고 설명하며 이 지역의 질서를 유연하고 다의적인 질서로 보는데, 이는 분명 리다롱, 댜오수런과 차이가 있다.

Ⅳ. 변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

쑹녠선은 『두만강 국경 쟁탈전 1881-1919: 경계에서 본 동아시아 근대』에서 근대이행기 두만강 일대에서 벌어진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경쟁을 다루면서 독점적 주권과 민족성을 강조하는 일국 중심의 민족주의 역사 서사를 벗어나, 지방, 지역, 세계의 층위에서 다양한 국가/비국가 세력의 경쟁을 추적하며, 근대 국민국가 건설 과정을 다뤘다. 그러면서 "국경에 관한 모든 역사적 서사는 국경을 넘나드는 관계들의 지속성과 상호작용성, 유동성, 상대성 등을 고려해야"[30]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은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대 한사군 설치로 중국 강역이 된 만주와 한반도 동북부 지역에 세워진 고구려나 발해를 중국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이라는 주장을 다시 생각하게 해준다. 물론 쑹녠선은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변경 문제를 다루는 '동북공정'식 설명과 연관 짓거나 구별하지도 않으며, 중국학계에 변경을 이해하는 여러 목소리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21년 12월 11~12일 칭화대학(淸華大學) 인문사회과학고등연구소 주최로 열린 "변강: 유동의 역사공간"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쑹녠선이 UMBC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County)에서 칭화대학으로 옮긴 후 처음으

29 쑹녠선 저, 이지영·이원준 옮김, 2022, 위의 책, 37쪽.
30 쑹녠선 저, 이지영·이원준 옮김, 2022, 위의 책, 38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 주관하여 개최한 회의로, “언어, 개념, 지식의 전달”, “경관, 의례, 정통”, “전쟁, 통치하의 시공간 재정립”, “유동의 시공과 사람” 등 4개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변강’은 하나의 ‘중심’에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라, 외부 세계와 긴밀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복잡성, 다층성, 다면성을 지니며, 현재 ‘중국’과 ‘중화민국’의 정체성은 장기간에 걸쳐 재정립되었다고 밝히고 있다.[31] 이러한 시각은 회의 주최자의 의도와 다를 수 있지만, 선명하고 단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성을 밝히는 작업은 해체론적 접근으로도 읽혀질 수 있다.

이 회의는 코로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되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주최 측에서 회의 후 내용을 요약해 올린 글을 통해 대략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종합토론에서 유의미한 내용이 다수 있어 중국 변강학 영역이 아닌 다른 분과 연구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32]

우선 좌장을 맡은 티베트 연구자인 선웨이롱(沈衛榮)은 어문학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전통적인 민족연구는 인류학과 사회학 연구에 밀려났고, 근년에 중국사회과학기금(中國社會科學基金) 심사 참여 경험을 보면 티베트 연구는 지역 안정, 경제발전, 환경 보호 등 인류학과 사회학 관련 주제가 대다수를 점하며, 이 밖에 민족 연구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은 민족 관계, 제도사, 중앙정부의 변강 통치 문제 등 현실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연구가 많다고 설명하면서 순수한 학술연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번 회의에 발표된 연구는 어떤 의미에서 진일보했다고 평하면서, 대다수가 사상사의 시각에서 ‘어떻게 변강을 볼 것인가’, ‘변강은 무엇인가’를 다루었다고 설명했다.

그의 언급을 좀 더 살펴보면, 오늘날 중국민족학 연구는 단기간에 현실정치의 필요에 효율적으로 응답하기 위해 민족 발전의 복잡한 맥락을 단순화하는 경

31 姜治齊 정리, 「“邊疆: 流動的歷史空間”會議綜述」, https://mp.weixin.qq.com/s/aKnhINha5MMnH4l-zxqIXg(검색일: 2022.6.8.).

32 이하 소개되는 沈衛榮, 赵鼎新, 汪晖, 李希光, 쑹녠선의 발언 내용 요지는 「活動回顧-邊疆: 流動的歷史空間」(姜治齊 정리, https://mp.weixin.qq.com/s/aKnhINha5MMnH4l-zxqIXg, 검색일: 2022.6.8.)를 참고한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우가 종종 있다. 중국민족학은 근대화의 산물로 내부 구조가 매우 복잡한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유동'은 매우 좋은 키워드이다. 전근대의 역사 속에서 "유동하는 변강"은 실재했던 공간이지만, 근대성과 국가 주권은 '변강'의 유동성을 차단한다. 근대 중국 변경을 조사한 근대 외국학자들의 영향으로 중국민족학 연구에는 오리엔탈리즘이 깊이 박혀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기반성이 부족하다. 오늘날 중국에서 '국족(國族)'의 구축이 일종의 상상의 공동체인가 아닌가의 논쟁과는 무관하게 70년 동안의 중국의 국민교육은 '변강'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었으며, 각 민족에 관한 지식과 역사적 경험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중국학자의 가치 지향은 어떤 성격을 지니며, '중화민족' 개념은 과도한 정치 민족주의화라는 서양의 비판에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 선웨이롱의 지적은 의미심장한데, 서구의 지식 담론에 대한 반성 없이, 그 위에 구축한 '국족'은 변경 지역 내 소수민족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의 지적을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한 중국의 고유한 이론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여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유법국가(儒法国家, Confucian-Legalist State)'[33]라는 개념으로 중국의 고유한 권력구조를 설명하여 크게 주목받는 저장대학(浙江大學)의 자오딩신(赵鼎新)은 선웨이롱처럼 서양의 민족국가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변경을 이해하는 방식의 결이 상당히 다르다. 그는 전근대 가장 강대했던 유목제국과 반유목제국 모두 중국 북방에서 출현했고 강대한 유목제국은 중국과 장기간 상호 작용했으며, 중화문명의 영향이 미치는 영역과 그 내부 간 통합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한다. 중국의 강력한 통합능력은 근대에 각 종족의 기원과 상관없이 모두를 국민으로 만들었고 스스로 '중국인'이라 칭하는 유일한 국가를 만들었다고 설명하면서 오늘날 소수민족의 정체성은 현대 중국의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지적한다. 선웨이롱은 근대 오리엔탈리즘에 영향을 받은 중국민족

33 Zhao Dingxin, 2015, *The Confucian-Legalist state: a new theory of Chinese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학이 변경의 고유성과 역사적 경험을 변질시키는 방향, 유동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갔다고 봤다면, 자오딩신은 '중국인'으로 통합되어 있어 도드라지지 않던 소수민족의 특성을 소수민족 정책이 발굴해 고유한 특징으로 '발명'했다면서, 유동성보다 통합에 방점을 둔다. 게다가 자오딩신은 중국의 현재 영토가 중국의 전부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일단 영토를 상실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양이 정의한 "민족국가"는 역사이자 과정으로 영원하리라 전망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민족국가의 틀에서 서양과 대화를 할지라도 자국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왕후이(汪晖)는 로컬리티와 국가, 주권의 관계를 강조한다. 이 회의에서 발표된 주제는 제국이든 민족국가든 모두 국가건설과 관련 있다고 지적한다. 자오딩신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고유한 발전을 강조하는데 중국을 서양의 국가, 주권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단일한 역사 맥락으로 중국의 통일을 얘기할 때 대일통(大一統) 틀로 설명한다. 하지만 대일통 학설과 서양의 주권 학설은 다르며, 두 지식의 역사상 분기와 통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문명과 국가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은 천하이며 문명이라 말하곤 하는데, 서양에서 이렇게 일컫는 것은 중국의 역사성과 주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왕후이는 '중국'은 당연히 하나의 문명이지만, 문명을 변경이나 주권 개념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한정할 경우 중국문명이나 유교문명이 조선, 베트남, 일본으로 확대되었다고 설명할 수 없으며, 중국문명의 다중구조와 기타 문명 간의 복잡한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트랜스시스템사회(跨體系社會, Trans-Systemic Society)'라는 개념을 창안해 포용적이고 안정적인 '중화질서론'을 강조해[34] 온 왕후이는 근대 국민국가의 틀로 중국문명을 가두려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신화사(新華社) 기자 출신으로 칭화대학 신문방송학 교수인 리시광(李希光)은 변경에 있어 매우 현실적 문제는 왜 중국은 주변 국가와 가까우나 친밀하지

34 왕후이 저, 송인재 역, 2011, 『아시아는 세계다』, 글항아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않은가라고 지적한다. 전근대 조공체제에서 중심과 매우 가까운 국가들이 오히려 지금은 미국과 더 긴밀하며, 조공체제의 중심-주변과 유사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학자나 엘리트 간의 토론도 중요하지만, 각국 국민의 상호 인식의 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쑹녠선은 본 회의의 키워드는 '유동'과 '공간'이라며, '정체성(identity)'은 만들어(建構)지는 것이라며, 변계(邊界)의 모호성과 유동성을 강조했다. 회의에서 다룬 아우렐 스타인(Marc Aurel Stein)과 오타니 고즈이(大谷光瑞)의 신장(新疆) 탐사 활동을 언급하며, 양자의 동기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오타니는 종교적 색채가 강했다. 불교 세계로 연결하는 서사 구축을 통해 서양의 기독교 서사에 대항하려고 했고, 연결된 서사는 제국주의 확장의 충동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오리엔탈리즘으로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타자화했고, 후일 이러한 아시아주의는 재난을 가져왔다고 설명한다. 오늘날 중국이 직면한 문제는 당시 일본이 직면했던 문제와 매우 유사한 점이 있는데, 당시 오타니 같은 일련의 학자는 중국에 반면교사의 가치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오늘날 중국학자들은 중국이 근대성에 의해 심각한 도전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장기적 시각으로 시대의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V. 맺음말: "하나의 목소리"를 넘어서

'동북공정'을 추동한 핵심 인물인 마다정(馬大正)은 2019년 출간한 『당대중국변강연구(1949~2019)[當代中國邊疆研究(1949~2019)]』 서문에서 중국변강 연구의 목적과 임무를 두 가지로 밝히고 있다. 첫째, 통일적 다민족의 중화인민공화국과 다원일체의 중화민족 형성, 발전, 그리고 양자 간의 상호 작용의 법칙을 연구해야 한다. 둘째, 중국 강역 발전의 역사와 현재 상황, 중국 변계 형성의 역사와 현재 상황,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건과 인물을 연구해야 하며, 중국 변강 연구를 풍부하고 다채롭게 해야 한다. 거시적이고 미시적으로, 화두가 되는 문

제와 "절학(絶學)"이 된 수많은 내용을 연구해야 한다. 중국 변강학의 구축을 모색하는 마지막 장인 18장에서는 변강연구 종사자의 역사적 책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현실을 직면하고,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연구 대상과 종속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시야와 세계의 시야를 갖춰야 한다. 넷째, 연구자는 본인 연구가 응당 자신의 현실(능력과 시간)에 부합해야 하고, 자신의 연구 특색과 중점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다정이 제시한 변강 연구의 목적, 임무, 책임에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 다방면에 걸쳐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통일적 다민족과 다원일체의 중화민족을 위협하는 해석의 여지나 사실을 발견할 때, 변강 연구자는 그가 제시한 책임과 임무를 다할 수 없게 된다. 국가의 통합과 단결을 위해 근대 민족주의 국가 형성에 중화민족을 내세우고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통해 주장하는 현재 중국에 중국사는 대일통의 역사이며, 이는 중국의 핵심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변강학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변강 역사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하더라도 '동북공정식' 역사관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고대 중조 종번관계와 중조 변계사 연구』 출간이 이를 잘 보여준다.

문제는 리다롱의 번속이론처럼 일국체제의 중심 변강 연구는 변강의 복잡한 맥락을 단순화하고,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사이다"라는 명제처럼 역사 발전을 단선적이고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며, 다양한 층위를 포용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러한 한계는 일대일로와 인류운명공동체를 내세우며 중국몽을 꿈꾸는 중국이 구상하는 미래 세계질서의 논리 구축에 일조하기 어렵다. 중국은 국민의 단결과 변강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세계의 리더를 꿈꾸기에 포용성과 개방성을 부각하며, 서구 시스템과는 다른 중국적 국제질서가 필요하다. 그동안 제시되었던 신조공질서론, 신천하질서론, 천하체계론 등은 전근대 중국의 국제질서에서 착상해 예치(禮治)에 기초한 다원적이고 포용적인 서양과는 차별화된 질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책봉-조공 체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현재 글로벌 히스토리(全球史)와 제국사 연구가 중국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유동적이고 다변적인 변경이 단선적으로 중국사로 수렴되는 중국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강학과는 거리가 있다.

이런 차이는 앞서 살펴본 "변강: 유동의 역사공간"이라는 칭화대학 회의가 잘 보여준다. 여기에 참여한 학자들은 중국변강학의 영역에 속하지 않은 학자들이다. 자오딩신처럼 중국변강학의 시각과 궤를 같이하는 학자도 있으나, 대다수는 변강의 다변성, 유동성, 복잡성, 역사성을 중시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서양 담론 체계를 극복해 중국의 주체적인 변강 담론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이 통일적 다민족론과 대일통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현실의 필요에 부응하는 변강학의 틀에서는 서양이 가져온 근대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

'동북공정'과 포스트 동북공정의 연구는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한국의 여러 연구자가 지속해서 관련 문제를 제기해왔다. 하지만 '동북' 문제에 과도하게 집중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들 연구성과는 대부분 동북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진행하고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변강학의 틀 안에서 연구를 심화시켜가고 있다. 그들이 의도했든 아니든 현실의 요구에 부응하며, 동북을 포함해 변강 연구는 크게 늘었다. 이들이 변강학의 시각에서 벗어나 논의를 확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게다가 변강연구는 각 변경의 연구자들에 의해 추동된다. 중국사회과학원에 중국변강연구소(中國邊疆研究所)라는 연구센터가 있고, 중국변강학 학과체계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 근 10년 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변강 연구는 변강에 머무르고 있다. 역사학계 전반에서 보면 '주류'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들의 연구를 지속해서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 역사학계의 주류 문제에 집중하여 학술적 논의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 "변강: 유동의 역사공간" 회의에 참석한 중국학계의 영향력 있는 선웨이룽, 왕후이, 리시광, 쑹녠선의 발언 속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방향이 있지 않을까.

중국 내 목소리가 단일하다고 가정하고 접근할 필요가 없다. 제한적일지라도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학술적 접점을 넓혀 논의를 풍부하게 만들어나가야 한다. 『고대 중조 종번관계와 중조 변계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가 2006년 출간 연기되었고, 이후 동북 변강에 대한 연구가 한동안 축소되었을 때, 중국의 관련 연구자들은 한국의 반발에 따른 '정치적' 문제로 자신들의 연구가 제약받았다고 생각했다. 2021년 출간된 이 책의 서문 마지막 문장은 이 책의 심사자가 쓴 것으로 "본서는 중요한 학술 가치가 있으며 현실 참고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 중국학계 내 하나의 목소리를 대표하며, 새로운 연구 수준을 보여주었다"이다.[35] 이 평가에 온전히 동조하기 어렵지만, 중국학계 전부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의 목소리'일 뿐이라고 심사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읽을 수도 있다. 우리가 그 '하나의 목소리'에 매몰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35 刁書仁, 2021, 앞의 책, 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단행본

문정인, 2010, 『중국의 내일을 묻다: 중국 최고 지성들과의 격정토론』, 삼성경제연구소.

쑹녠선 저, 이지영·이원준 옮김, 2022, 『두만강 국경 쟁탈전 1881-1919: 경계에서 본 동아시아 근대』, 너머북스.

왕후이 저, 송인재 역, 2011, 『아시아는 세계다』, 글항아리.

이석현 외, 2010, 『중국 번속이론과 허상』, 동북아역사재단.

임기환 외, 2012,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고대사』, 주류성.

耿鐵華, 2003, 『好太王碑一千五百八十年祭』,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李大龍, 2006, 『漢唐藩屬體制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_____, 2015, 『從"天下"到"中國": 多民族國家疆域理論解構』, 北京: 人民出版社.

李德山·欒凡, 2003, 『中國東北古民族發展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馬大正, 2003a, 『古代中國高句麗歷史續論』,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_____, 2003b, 『中國東北邊疆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王曉菊, 2003, 『俄國東部移民開發問題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張鳳鳴, 2003, 『中國東北與俄國(蘇聯)經濟關係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張存武, 1978, 『清韓宗藩貿易』,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刁書仁, 2021, 『古代中朝宗藩關係與中朝疆界歷史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Andrade, Tonio, 2021, *The Last Embassy: The Dutch Mission of 1795 and the Forgotten History of Western Encounters with China*,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Dingxin, Zhao, 2015, *The Confucian-Legalist state: a new theory of Chinese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McCordock, Robert Stanley, 1931, *British Far Eastern Policy, 1894-1900*,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pruyt, Hendrik, 2020, *The World Imagined: Collective Beliefs and Political Order in the Sinocentric, Islamic and Southeast Asian International Societie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Treat, Payson J., 1932,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1853-1895,*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Wang, Yuanchong, 2018, *Remaking the Chinese Empire: Manchu-Korean Relations, 1616-1911,*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논문

권은주, 2020, 「『중외역사강요』의 한국고대사·동아시아사 서술 내용과 역사인식 분석」, 『동북아역사논총』 70.

손성욱, 2021, 「『중외역사강요』의 전근대 대외관계 인식-두 차례 등장한 '종번관계'를 중심으로-」, 『사림』 78.

윤휘탁, 2008, 「'포스트(Post) 동북공정': 중국 東北邊疆戰略의 새로운 패러다임」, 『역사학보』 197.

李大龍, 2014, 「"藩屬體系"還是"朝貢體系"?-對唐朝前期"天下"制度的幾點認識」, 周平·李大龍 主編, 『中國的邊疆治理: 挑戰與創新』, 北京: 中央編譯出版社.

_____, 2020, 「試論中國邊疆學"三大體系"建設」, 『中國邊疆史地研究』 2020-2.

馬大正, 2011, 「關於中國邊疆學構築的幾個問題」, 『東北史地』 2011-6.

_____, 2021, 「中國邊疆學構築再思考-"三大體系"建設之我見」, 『中國邊疆史地研究』 2021-3.

孫宏年, 2021.2.1, 「加快構建中國邊疆學"三大體系"」, 『中國社會科學報』.

孫衛國, 2002, 「論事大主義與朝鮮王朝對明關係」, 『南開學報』 2002-4.

楊東 訪談 整理, 2021, 「中國邊疆研究的回顧與前瞻-馬大正先生訪談錄」, 『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 2021-1.

劉淸濤, 2017, 「"宗主權"與傳統藩屬體系的解體-從"宗藩關係"一詞的來源談起」, 『中國邊疆史地研究』 2017-1.

蔣廷黻, 1932, 「書籍評論-British Far Eastern Policy」, 『淸華大學學報』 1932-2.

陳尙勝, 2008, 「中國傳統對外關係研究芻議」, 『安徽史學』 2008-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陳志剛, 2010,「關於封貢體系研究的幾個理論問題」,『清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10-6.
邢廣程, 2020.8.24,「加快構建中國邊疆學」,『中國社會科學報』.

Duggan, Niall, 2014, "The Rise of China within Global Governance," in Bart Dessein eds., *Interpreting China as a Regional and Global Power: Nationalism and Historical Consciousness in World Politics*, London: Palgrave Macmillan.
Song, Nianshen, 2012, "'Tributary' from a Multilateral and Multi-Layered Perspectiv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5, no. 2.
_____, 2019, "Power and Trade between Qing China and Chosŏn Korea,"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Asian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Tsiang, T. F., 1932, "Book Reviews: British Far Eastern Policy, 1894-1900 by R. Stanley McCordock,"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 4, No. 2.
_____, 1933, "Sino-Japanese Diplomatic Relations, 1870-1894", *Chinese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7, no. 1, Peking, Chinese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기타 자료

姜治齊 정리,「"邊疆: 流動的歷史空間"會議綜述」, https://mp.weixin.qq.com/s/aKnhINha5MMnH4l-zxqIXg(검색일: 2022.6.8.).
_____ 정리,「活動回顧-邊疆: 流動的歷史空間」, https://mp.weixin.qq.com/s/aKnhINha5MMnH4l-zxqIXg(검색일: 2022.6.8.).
http://archives.knowhow.or.kr/rmh/chronologyList/20060911(검색일: 2022.6.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최근 중국학계의 전근대 종번과 변강 인식 문제

손성욱

2021년 동북공정의 '마지막' 결과물이 나왔다. 동북공정은 2007년 사업이 종료되었지만, 2006년 출간 예정이었던 댜오수런의 『고대 중조 종번관계와 중조 변계사 연구(古代中朝宗藩關係與中朝疆界歷史研究)』가 한중관계를 고려하여 출간이 연기되었고, 2021년이 되어서야 나온 것이다. 동북공정은 주지하다시피,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강화하고 민족 통합과 영토 통합을 확고히 하여 변강의 안정을 도모하고, 내외부의 위협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변강 문제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고대 중조 종번관계와 중조 변강사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전근대 한중관계를 동북공정 당시에는 주류 개념이 아니었던, '종번(宗藩)'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전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근대 중국의 대외관계를 설명하는 틀과 변강을 인식하는 시각으로 '종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종번관계'는 조공관계보다 위계성이 드러내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대외정책과 맞물려 논의의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중국학계의 목소리가 획일적인 것은 아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며, 쑹녠선 등 일군의 학자들은 "변강"은 하나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심”에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라, 변강과 변강, 변강과 외부 세계 간 복잡성, 다층성, 다면성이 긴밀하게 상호 작용한 것으로 역사 속 변강의 유동성을 강조한다. 이 글에서는 동북공정의 ‘마지막’ 결과물에서 시작해 ‘종번’까지 전근대 중국의 대외관계 이론 논의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동북공정’ 중심의 논의와는 결이 다른 중국 내 다양한 변강 논의를 통해 한중학계 건설적 토론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주제어: 종번, 변강, 동북공정, 고대 중조 종번관계와 중조 변계사 연구(古代中朝宗藩關係與中朝疆界歷史研究)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Chinese Academia's Conception of Pre-Modern *Zhongfan* and Border Areas

Son Sungwook

The "final" result of the Northeast Project came out in 2021. Although the Northeast Project ended in 2007, the publication of Zhao Shuren's *Suzerainty and Border Issues: A Study of China-Korea Relations in Ancient Times* (古代中朝宗藩關係與中朝疆界歷史研究), scheduled to be published in 2006, was postponed in consideration of Korea-China relations and was published only in 2021. As is well known, the Northeast Project was promoted to strengthen the "theory of the unificatory multi-ethnic state," solidify national integration and territorial integration, promote stability in border regions, and create a response logic to internal and external threats, and border area issues include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Worth noting about *Suzerainty and Border Issues: A Study of China-Korea Relations in Ancient Times* is that the pre-modern Korea-China relationship is viewed as "*zhongfan* (宗藩)," which was not a mainstream concept at the time of th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Northeast Project. Despite criticisms, it is noteworthy that "*zhongfan*" is being actively discussed in recent years as a framework for explaining pre-modern China's external relations and a standpoint for recognizing the border area. In particular, since the "*zhongfan* relationship" is more hierarchical than tributary relations, the discussion is drawing attention in connection with China's current foreign policy. However, views in Chinese academia are not uniform. There are many different voices, and a group of scholars, including Song, Nianshen, stresses that "border area" is not a concept that corresponds to a single "center," and emphasizes the fluidity of the border area in history where there was close interaction of between border areas, complexity between border areas and the external world. This article outlines the discussion of the theory of foreign relations in pre-modern China starting from the "final" result of the Northeast Project to "*zhongfan*," and seeks the possibility of constructive discussion in the Korean-Chinese academic community through various discussions on the border area in China, which are different from discussions centered on the "Northeast Project."

Keywords: Zhongfan; Border Areas; Northeast Project; Suzerainty and Border Issues: A Study of China-Korea Relations in Ancient Time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2..78.003

고려의 고구려 계승과 고려-요 '종번(宗藩)' 관계에 관한 중국학계의 인식

이승민 |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

I. 머리말
II. 고려의 고구려 계승과 압록강 영유권
III. 고려의 책봉국 변경과 '종번(宗藩)' 관계의 성격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역사는 어떻게 계승되는가? 역사의 계승과 계승 의식의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역사 논쟁의 핵심 질문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한 논쟁은 이미 역사적으로 993년 거란이 고려를 침입할 때부터 시작되었다. 거란은 자신들이 차지한 고구려의 강역을 고려가 침탈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고려를 침입한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에 고려는 자신이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고 거란의 주장을 반박하며 맞섰다. 이후 강화 회담의 결과로 고려는 압록강 이동 지역의 영유권을 확보하고 송에서 거란으로 책봉국을 변경했다. 이후 약 200여 년간 양국은 전쟁을 거치면서도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고려의 고구려 계승은 일찍이 한국 사학계에서 당연한 전제로 여겨졌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논증을 거치지 않았지만 이미 고려라는 국호가 이를 증명했다고 이해했고, 후삼국시기 신라·후백제·고려(후고구려-태봉)의 구도는 고대 삼국의 연장선 위에 이어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고려 중기 편찬된 『삼국사기』는 고려 왕조 이전 한반도의 고대 역사로서 고려의 정체성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므로 일찍부터 고려의 고구려 계승은 복잡한 논쟁이 이루어지는 주제라기보다 건국과 통일과정, 북방 영토 확장, 고구려 부흥 운동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1]

2000년대를 전후하여 중국학계는 '동북공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연구를 진행했고, 그 가운데 고려와 고구려의 계승

* 투고: 2022년 10월 17일, 심사 완료: 2022년 11월 7일, 게재 확정: 2022년 11월 14일

1 동북공정 이전 고려의 계승 의식을 다룬 연구는 다음과 같다. 하현강, 1975, 「고려시대의 역사계승 의식」, 『이화사학연구』 8; 朴漢卨, 1977, 「高麗王室의 起源 - 高麗의 高句麗繼承理念과 關聯하여 -」, 『사총』 21·22; 金光洙, 1988, 「高麗朝의 高句麗繼承意識과 古朝鮮 認識」, 『歷史敎育』 4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비판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고구려가 중국 왕조의 지방정권이자 중국 역사의 하나라는 동북공정의 주요한 주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인식을 가지고 이를 표방했던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반도에 위치한 고려를 중국 왕조로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고구려 멸망 이후 (통일신라)-고려-조선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역사의 흐름은 애초의 동북공정 논리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게다가 오대십국(五代十國)부터 송·요·금·원대까지의 정사(正史)에서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왕조로 설명되고 있다. 물론 고려 왕실 혈통이나 역사 배경에 대한 몰이해와 부정확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학계가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 역사의 하나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중국의 전통적인 역사 인식과 기록을 비판하고 부정해야 하는 작업, 즉 자기 역사 기록을 부정해야 하는 모순과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고구려 멸망 후 그 유산 역시 고려가 아닌 중국 왕조로 귀속되었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고려의 고구려 계승과 종번 관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이유이다.[2]

중국학계의 '동북공정'에 대응하여 한국학계에서도 고려의 고구려 계승 의식에 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3]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동북공정'이 고

---

2 고구려 역사 귀속문제를 다루면서 고려와의 관련성을 언급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耿铁华, 1993,「集安高句丽歷史与好太王碑」,『高句丽研究文集』, 延吉: 延边大学出版社; 劉子敏, 1999,「关于高句丽政权及其領域的歷史归属问题之我见」,『全国首届高句丽学术研讨会論文集』, 长春: 吉林省社会科学院高句丽研究中心; 孙泓, 1999,「高句丽民族的形成, 发展及衰亡」,『全国首届高句丽学术研讨会論文集』, 长春: 吉林省社会科学院高句丽研究中心; 张春霞, 1999,「高句丽国家的形成, 发展, 灭亡」,『全国首届高句丽学术研讨会論文集』, 长春: 吉林省社会科学院高句丽研究中心; 孫進己, 2004,「高句麗와 中·韓(韓國)의 關係 및 歸屬」,『高句麗研究』18.

3 안병우, 2004,「고구려와 고려의 역사적 계승 관계」,『한국 고대사 연구』33; 朴漢卨, 2004,「高麗의 高句麗 繼承意識」,『高句麗研究』18; 朴漢卨, 2007,「고려의 고구려 계승성」,『고구려발해연구』29; 崔圭成, 2004c,「중국의 東北工程의 실체와 高麗의 高句麗繼承意識」,『白山學報』70; 崔圭成, 2004b,「국호 高句麗·高麗에 대한 일고찰」,『북방사논총』1; 崔圭成, 2004a,「고려시기 사람들의 高麗의 高句麗繼承意識」,『북방사논총』2; 崔圭成, 2006,「高麗의 高句麗 繼承에 대한 東北亞사람들의 이해」,『북방사논총』9; 노명호, 2014,「고려의 건국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려와 고구려의 계승 문제에 관한 한국학계의 연구를 촉발시켰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고려의 고구려 계승에 대한 내용과 그 결과 이루어진 책봉 관계를 둘러싼 중국학계의 시각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거란의 1차 침입에 따른 서희와 소손녕(蕭遜寧)의 강화회담은 고구려 계승에 대한 당시의 관점을 보여준다. 당시 양측이 나눈 고구려 계승과 이후 맺어진 책봉 관계를 소위 '종번' 관계로 설명하는 중국학계의 연구를 살펴보자.

Ⅱ. 고려의 고구려 계승과 압록강 영유권

1. 압록강 지역의 영유권과 고구려 계승의 의제화

993년(요 통화 11, 고려 성종 12)은 고려와 요의 관계가 변화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시기이다. 8월 요의 동경유수 소손녕은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공격하여 봉산군을 점령했고, 고려도 군사를 안북부에 두며 대치했다. 고려가 요의 군대를 완전하게 밀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측은 모두 강화를 위한 회담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소손녕이 알린 요의 침입 이유와 요구 사항을 모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4]

고구려 계승 의식-'弓裔의 高麗'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68; 노명호, 2017, 「고려 성종대 歷史繼承意識의 전개 양상」, 『한국문화』 77; 윤경진, 2014, 「고려의 건국과 고구려 계승 의식-'弓裔의 高麗'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68; 윤경진, 2017, 「고려 성종대 歷史繼承意識의 전개 양상」, 『한국문화』 77; 윤경진, 2021, 「고려 예종대 西京 龍堰宮 경영과 역사계승 의식」, 『사림』 76; 신안식, 2018, 「고구려 계승, '高麗'의 境界인식」, 『한국중세사연구』 55; 정동훈, 2021, 「고려는 어쩌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인식됐을까」, 『역사와 현실』 121.

4 『高麗史』 94, 열전7, 서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① 요가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했는데, 지금 고려가 경계를 침탈했으니, 이를 토벌하는 것

②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난 국가이니 고구려의 땅은 모두 요의 소유

③ 요와 경계를 접하고 있으면서도 바다 건너 송에 사대하고 있는 것이 문제

④ 백성을 돌보지 않아서 하늘을 대신해 벌을 내리는 것

⑤ 고려는 할지(割地)하여 바치고 조빙(朝聘)할 것

⑥ 요가 사방을 통일했으니, 귀부할 것

이 중 ①~④는 침입의 이유이며, ⑤~⑥은 요구 사항이다. 요가 제시한 원인은 크게 고려의 강계 침탈에 대한 대응이라는 실제 영토 분쟁에 관한 현안과 '천벌(天罰)'이라는 명분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의 명분론은 백성을 돌보지 않은 고려를 하늘을 대신해 벌을 주겠다는 일종의 '천자국'으로서의 역할을 고려에게 제시한 것이지만, 사실상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실제 회담에서도 요에서 지적한 경계 침탈이 주된 의제가 되었다. 요가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난 국가이니, 고구려의 땅은 모두 요의 소유라는 근거를 대며 고려의 경계 침탈을 비난하면서 침입을 정당화했다. 이에 따라 고려가 땅을 할양하고, 송과의 관계를 단절하며 요에 귀부할 것을 요구했다.

기록만으로는 요가 주장하는 고구려 영토의 범위는 알기 어려우며, 고려가 침탈했다고 하는 경계도 확실하지 않다. 이 점은 현재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손녕은 고구려의 영토는 모두 요가 차지했으며, 고려가 요의 경계를 침탈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문제 삼은 고구려 영토의 범위를 제시하거나, 고려가 침입했다는 요의 경계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던 것 같다. 소손녕이 경계를 명확하게 제시했다면 고려 조정에서도 그 기준에서 논의가 진행되었을 텐데, 사실 고려 조정 안에서도 양국의 경계에 대한 견해가 분분했기 때문이다.

이때, 고려 조정 내에서는 항복하는 것으로 뜻을 모으고 있었으며, 다만 항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복의 조건을 어떻게 조율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그중 서경 이북의 땅을 주고 황주에서 절령까지를 경계로 하자는 주장이 나와 지지를 얻었다. 소위 할지론을 주장하는 관료들은 요가 주장한 고려의 북쪽 경계가 당과 신라 사이에서 합의했던 대동강 이남이라고 이해했다.[5] 그러나 서희가 파악한 요의 의도는 달랐다. 서희는 요가 광종 대 생여진이 살고 있던 지역을 빼앗아 가주(嘉州)와 송성(松城)을 축성한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고, 고구려 영토 전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성종은 서희의 손을 들어주며, 서희의 주도하에 강화 회담이 진행되었다.

서희가 고려 조정과 소손녕과의 강화회담에서 주장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고구려의 영토는 삼각산에서 거란 동경까지의 영역
② 거란은 광종 대 축성한 가주와 송성을 차지하기 위해 침입한 것
③ 고구려의 옛 땅을 운운하는 것은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
④ 고려는 고구려의 옛 땅에서 일어나 국호가 고려, 평양이 도읍, 압록강 내외도 우리 영토임
⑤ 현재 거란 동경~고려 안북부의 수백리 땅에 생여진이 훔쳐 살고 있는 것이 문제
⑥ 여진을 몰아내면 요에 조빙할 수 있음

①~③은 고려 조정, ④~⑥은 강화회담에서 이루어진 서희의 말이다. 서희는 요가 문제 삼은 경계 침입은 가주와 송성에 해당할 뿐 태조 대에 이루어진 청천강 이남 지역의 축성은 문제가 없다고 파악했다. 그리고 옛 고구려의 영토에

5 1차 침입 당시 고려 조정에서 주장된 할지론은 신라 영토를 준거로 고려의 영토를 설정하고자 하는 신라 출신 지배층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윤경진, 2017,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려, 여진, 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회담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서희의 외교 능력이 상대의 의도와 의제의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가 고구려의 옛 땅을 운운한 것은 실제 의도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가장 중심은 고려의 조빙이며, 영토 문제는 충분히 협상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서희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소손녕이 여진을 몰아내면 조빙하겠다는 고려의 의사를 황제에게 전달하자, 군사행동을 중지하라고 한 것은 이러한 요의 입장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양측은 압록강을 경계로 영유권을 확정하고, 여진을 몰아내는 데 합의했다. 고려는 송에서 요로 책봉국을 변경하여 조빙하는 대가로 압록강 동쪽 280리의 영유권을 확보했다.

이 사건에서 고구려 계승 의식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영토의 계승이며, 둘째, 국호와 도읍이다. 영토는 국가가 성립할 수 있는 기본 조건으로서 국가의 통치력과 군사력이 직접적으로 행사되는 강역이다. 그리고 국호와 도읍은 국가의 정치적 상징이며, 특히 국호는 건국할 때부터 표방하는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상이다.

소손녕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위의 정리한 내용이 전부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국가 계승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으로 영토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희도 마찬가지이다. 서희는 삼각산에서 요의 동경까지가 고구려의 땅이며, 이를 현재 고려, 여진, 요가 나눠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것이 요의 침입과 강화 회담의 실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이에 요에 조빙하는 것을 조건으로 압록강 이동의 영유권을 확보하고, 여진을 몰아내는 데 요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었다.

소손녕이 서희와 같은 생각을 가졌는지는 알기 어렵다. 다만, 『요사』 통화 11년에 고려가 "박양유를 보내 표문을 올리고 죄를 청하니 조서를 내려 여진에게서 취한 압록강 동쪽 수백 리를 하사하도록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고려사』 성종 13년(994) 4월에 박양유를 보냈다는 기록과는 1년의 시점 차이가 있지만, 일단 여기서 볼 수 있는 영토에 대한 인식은 "여진에게서 취한 압록강 동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쪽 수백 리"라는 표현이다. 요는 압록강 유역의 여진에게서 그 땅을 취해 고려에게 주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실 소손녕과 요의 조정은 송과의 대결 구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고려의 조빙을 받는 것이 중요했고, 고구려 계승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서희는 소손녕과의 강화회담을 통해 고려라는 국호, 도읍이라고 할 수 있는 서경을 내세워 소손녕의 합의를 끌어냈다. 현재는 고구려-후고구려-고려로 구분되는 역사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이 국가들의 정확한 국호는 모두 '고려'이다. 서희가 고구려를 계승했기에 국호가 고려이며, 서경에 도읍했다고 말한 것을 소손녕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고려가 압록강까지의 영토를 차지했으니 고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중국의 연구는 강화회담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이 사건은 고려와 요, 양측이 직접적으로 고구려 계승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사료이다. 따라서 현재 중국학계에서 고려의 고구려 계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희와 소손녕 회담에 관한 중국학계의 연구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흥미로운 점은 상당수의 연구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희와 소손녕의 언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보다 간략하게 언급한 연구가 많다. 마링(麻铃)은 1차 침입에 관해 설명하면서 994년(통화 12, 성종 13) 고려 사신 박양유가 봉표사죄한 것을 언급하고 "점거한 요의 땅(遼地)을 돌려주어 전쟁이 종결되었다"고 했다.[6] 이는 고려가 돌려준 요의 땅이 어디인지 설명하지 않으면서, 고려가 압록강 동쪽의 영유권을 확정한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다. 이것이 중국 연구자의 일반적인 이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견해도 논문으로 발표되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희가 소손녕이 역사에 대해 무지한 점을 이용해 회담의 결과를 유리

6 麻铃, 2004, 「辽, 金与高丽的战争」, 『东北史地』 2004-1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게 이끌었다고 본 연구도 있다.[7] 하지만 많은 연구가 당시 송과 요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고려정책을 이해한다. 첸준다(陈俊达)는 이때의 침입을 동아시아 정세와 함께 파악하고 있다. 그는 요가 고려를 침입한 이유 가운데 영토 문제보다 '천벌'이라는 명분론에 주목했다. 요가 고려로 침입한 이유는 동아시아에서 요의 위상을 높이고, 고려로 하여금 송과의 관계를 끊고 요와 책봉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였다.[8] 타오샤(陶莎)도 고려가 압록강 영유권을 확보한 배경으로 동아시아 정세를 들고 있다. 요가 당시 무력으로 고려를 승복시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국력을 소모하는 전쟁을 했을 것이고, 이 상황을 송과의 관계와 저울질해보았을 때 영토를 양보하고 고려와 송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양면책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했기 때문으로 설명하면서도 이것이 고려의 역사상의 계승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단언한다.[9]

다시 말하면 993년 서희와 소손녕의 회담에서 고구려 계승에 관한 조건은 영토의 범위, 국호, 도읍의 위치였다. 한국 연구자들이 서희의 고구려 계승 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발언을 인용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 반해 중국 연구에서는 발언 내용을 크게 다루지 않는다. 혹은 고려의 고구려 계승에 대한 인정과 영토 확보 혹은 고려의 외교적 승리라는 것을 거의 서술하지 않고, 당시의 국제정세를 바탕으로 요가 고려와 책봉 관계를 맺는 실리를 선택한 것이었다고 해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10세기부터 양국이 고구려 계승의 조건으로 거론한 영토, 국호, 도읍이 현재 연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되는지 살펴보자.

---

7 曹中屏, 2010,「高丽与辽王朝的领土争端与三十年战争」,『韩国研究』(10), 香港: 国际文化出版社(陶莎, 2016,「辽朝对高丽政策研究」, 吉林大学博士学位论文, 55쪽 재인용).

8 陈俊达, 2014,「辽对高丽的第一次征伐新探」,『邢台学院学报』29-3.

9 陶莎, 2016,「辽朝对高丽政策研究」, 吉林大学博士学位论文, 5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중국학계의 고구려 계승의 조건 – 영토와 상징

사실 중국학계에서는 고려의 고구려 계승은 동북공정의 주요 주제인 고구려 역사의 중국 귀속 문제에 비해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고려에 관한 다수의 연구는 요·금과 고려의 관계, '책봉'과 '조공' 문제, 송과의 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면서도 고구려와의 관련성을 하나의 주제로 다룬 경우는 드물다.

200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고구려 계승 문제에 대한 중국학계의 연구 경향은 어떤 면에서는 일관된 관점을 보여준다. 고구려 계승은 '고려'라는 국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의 토지와 인민에게 계승 여부가 있다고 보았다.

중국학계가 견지하고 있는 계승의 개념에 대해서는 손진지(孙进己)가 대표적으로 정리한 바 있다. "역사상에서의 귀속과 현실의 계승을 구분"하고 고구려를 계승한 것은 고려를 비롯한 기존의 고구려 강역에 포함된 모든 역사체라는 관점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역사를 계승하는 것은 "당시 역사 시기에 고구려가 누구에게 귀속"했는지를 보는 것이고, 현실의 계승은 "고구려의 토지와 인민을 어느 나라가 계승했는지"를 보는 것인데, 이는 "현재 국경"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0] 고구려를 공동으로 계승했다는 시각에서 고구려의 유산은 각각 그 영역에 따라 분할된다. 이에 고려는 "고구려 3분의 1의 토지와 4분의 1의 인민을 계승"했고, 요는 그 나머지를 계승했다는 계승 비율도 제시했다.

이러한 계산은 고구려 전체 영토와 인구에 대한 기준 없이 대략의 기록만으로 제시하는 것으로서, 결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주장에서 중국학계의 '계승' 조건이 영토와 인민에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영토와 인민의 계승을 강조하는 가운데 다른 조건을 제시한 연구가 눈에 띈다. 양바오롱(杨保隆)은 고려와 고구려의 계승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판했다.[11] 그의 연구는 현재까지 이 주제를 직접적이고 전체적으로 다룬 거의

10 孫進己, 2003,「고구려의 귀속문제에 관한 몇 가지 논쟁의 초점」,『高句麗研究』15; 孫進己, 2004,「高句麗와 中·韓(韓國)의 關係 및 歸屬」,『高句麗研究』1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유일한 경우이다. 여기에서는 고구려 계승에 관한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관점을 읽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주장하는 계승 조건은 왕실의 혈통과 영토의 범위, 국가체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중국 정사에서 고구려와 고려를 연속적으로 서술한 기록을 비판한다.

혈통에 대한 문제는 고구려 왕실과 왕건이 관계가 없다는 것이 내용의 요지이며, 나아가 왕건의 혈통이 고구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한의 낙랑군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중국계(漢族)일 가능성까지 제시했다.

영토 문제는 앞서 손진지가 말한 것처럼 중국학계에서 고구려의 역사 귀속 문제를 다룰 때도 중요시되는 내용이다. 고려의 계승과 관련해서는 고구려 멸망 이후에 고구려의 영역을 발해와 신라가 나눠 가지면서 그 후 약 200여 년 동안 신라가 한반도 남부를 차지했다는 것, 그래서 후고구려는 사실 신라 국경 지역에 위치한 '할거 정권'이었다고 했다.

국가체제는 앞의 조건들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었지만 논지는 영토 문제와 유사하게 전개된다. 일단 왕건이 건국한 뒤 관제(官制)를 정하면서 신라와 태봉의 것을 따랐다는 기록을 제시하며,[12] 고려가 신라와 태봉을 계승했음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사 『구오대사』부터 『송사』, 『요사』, 『금사』, 『원사』, 『명사』에 이르기까지 고려를 고구려의 후예로 서술한 기록에 대한 비판이다. 이는 역대 중국 왕조에서 기록한 한반도 역사에 대한 부정확한 내용임은 인정된다. 각 정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구오대사』부터 『명사』까지 고려를 설명하면서 그 유래를 '고구려'로 시작한다. 왕건이 고려의 대족(大族)이라거나,[13] 왕건이 고씨 왕위를 계승하였다는[14] 등의 내용이 있으며, 양바오룡은 이

11 杨保隆, 1999, 「论高句丽与王氏高丽无前后相承关系」, 『社会科学战线』 1999-01.

12 『高麗史』 卷77, 志31, 百官2, "太祖以泰封主任情改制 民不習知 悉從新羅 唯名義易知者 從泰封之制."

13 『新五代史』 卷74, 四夷附錄3, 高麗, "建 高麗大族也."

14 『宋史』 卷246, 外國3, 高麗, "長興中 權知國事王建承高氏之位."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면서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지 않았다는 왕실 혈통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고려의 왕실 혈통, 영토, 관제, 중국 정사의 내용을 부정하는 연구는 역설적으로 그동안 한국학계의 역사 연구 어디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긍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의 방향이 어긋난다. 왕건의 출자가 어느 계통인지에 대해서는 '고려세계'를 근거로 송악을 비롯한 옛 고구려 지역에서 살고 있는 민들에게 고구려계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할 뿐이며, 좀 더 나아가 고구려계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짐작한다.[15]

다시 말하면 혈통의 문제는 고려의 고구려 계승 의식에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이는 고려 건국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공공연하게 신라 왕실 출신이라는 것을 드러냈던 궁예가 고려(후고구려)를 칭했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이러한 의식을 반영한다. 이는 국가의 정체성이 왕의 혈통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리 잡은 영역으로부터 유래했기 때문이다. 이는 견훤이 백제와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의자왕의 원수를 갚겠다"라며 백제(후백제)를 칭한 것과 같은 의미이다.

고려는 국호, 영토인식, '고려세계'의 고구려인 인식, '동명왕' 제사와 이규보의 「동명왕편」 등 고구려 계승 의식이 유지되었다.[16] 동시에 '통일 신라'의 영역에서 건국된 것도, 국초에 신라 관제를 사용했다는 것도 기록으로 확인되며, 이 외에 고려 내에서 신라 계승 의식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 특히, 고구려 계승 의식과 관련하여 성종 12년 거란의 1차 침입에 대응한 고려 조정의 논의에서 신라 계승 의식을 가진 지배층들이 서경 이북의 땅을 주고 황주와 절령을 경계로 삼자는 주장을 주도했다는 견해도 있다.[17] 이와 함께 중국 정사의 내용 역

15 안병우, 2004, 앞의 글, 128쪽.

16 고려의 고구려 계승 의식은 각주 2) 참조. 현재 고구려 계승 의식과 신라 계승 의식, 삼한일통에 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7 윤경진, 2017, 앞의 글, 132~13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시 오류임을 인정하고 있다.[18]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계승의 조건을 내세운 영토와 인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으며, 고려의 고구려 계승을 부정하는 데에 집중했다는 특징이 있다. 오히려 중국학계에서 요가 고구려를 계승한 것을 논증하는 연구가 없었던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지 않았다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요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중국학계에서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이후 영토 계승에 관한 새로운 주장이 나왔으며, 서희가 내세웠던 국호와 도읍이라는 정치적 상징과 한국 연구자들이 고구려 계승 의식에서 무엇보다 중요시했던 역사 계승 의식에 관해서도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영토 계승의 측면에서 어떻게 요가 고구려 계승의 성격을 가지는지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이 연구들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지리지에서 요양 지역을 설명하는 기록이다. 장웨이공(姜维公)은 『요사』 지리지에서 고구려의 지명이 부정확하다고 지적하면서 지리지는 '거란'의 지역적 정통관이 작용한 것이므로, 이를 통해 요의 계승관념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동경요양부는) 본래 조선의 땅이다. 주 무왕이 기자를 옥중에서 풀어주었고, (그가) 조선으로 가자 그 땅에 책봉했다. … 당 고종이 고구려를 평정하고 안동도호부를 두었고, 후에 발해 대씨의 소유가 되었다"는 기사를 가지고 요양지역의 지리적 계승을 주장한다.[19] 즉, 기자 조선-(한4군)-고구려-발해-요가 순차적으로 요양의 땅을 이어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영토의 범위가 곧 계승성을 의미한다는 앞서 말한 계승의 조건으로서의 '영토'라는 같은 맥락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 관점을 『요사』 지리지를 이용해 기자 조선과 발해로 연결시키고, 이를

18 정동훈, 2021, 앞의 글.

19 姜维公, 2011, 「〈辽史·地理志〉东京辽阳府条记事谬误探源」, 『中国边疆史地研究』 2011-0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요가 계승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국호 문제를 보자. 국호는 국가의 상징 그 자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호를 '고려'라고 정한 순간부터 이미 고구려를 상징하는 정치 집단이 된다. 즉, 서희가 소손녕에게 말했듯이 '고려'라는 이름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요', '거란'의 국호와 관련한 계승성 연구도 진행되었다. 장웨이공은 요가 국호를 '거란'과 '요'로 여러 차례 반복했던 배경에는 요의 정통관(正統觀)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면서, 두 방면의 정통성을 언급한다.[20] 하나는 요양을 중심으로 한 동북 지역의 연원을 기자 조선으로 보고 요가 발해를 멸망시키면서 기자 조선의 정통성을 가져왔으며, 다른 한편으로 후진을 멸망시키면서 은상(殷商)의 계승자를 자처했다는 것이다. 요 태조 야율아보기를 지지하는 한족 사대부들은 북위와 같은 국가를 만들기로 상정했으나, 태조의 사망과 함께 무산되고, 요동 지역을 기반으로 정통성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구려의 광범위한 영토를 여러 종족이 나눠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요동 지역의 계승자로서 요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새로이 구축되고 있다. 기자 조선과 고구려, 발해의 중심 지역을 요동으로 설명하고 그 지역 패권과 정통성을 함께 묶어 요에게 주는 것이다. 이는 2000년대 초반까지의 영토와 인구의 산술적 계산으로 고려의 고구려 계승을 비판했던 것과는 다르다. '고려'라는 정치적 상징에 나타나는 고구려 계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요가 기자 조선-고구려-발해를 계승했다는 관점이다.

나아가 이러한 역사 계승을 보여주는 당대 역사서술에 대한 해석도 시도되고 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쓴 고려 중기 역사서이다. 김부식이 삼국으로 묶어 고구려의 역사를 편찬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역사는 고려에서 계승되었다.

이에 김부식과 『삼국사기』의 역사적 성격을 탐구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

20 姜维公·姜维东, 2014, 「"辽"国号新解」, 『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 2014-0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최근 중국학계의 연구에서는 김부식의 역사관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평한다. 가장 근저에는 김부식이 왕명에 따라 쓴 사서이므로 역사 계승 의식이 아닌 왕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21] 더불어 '삼국'을 조선 고대 삼국 중 하나로 본 것이 아니라, 당시 고려가 영위하던 지역 범위에 따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22] 이는 중국 연구자들이 현재 중국의 강역을 기준으로 역사의 계승 내지 귀속을 논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이해한 것이다. 그 가운데 주목한 부분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서 고구려는 한의 "현토·낙랑이며, 본래 조선의 땅으로 기자가 봉해진" 곳이라는 구절이다. 이를 중국 정통성과 연결시켜 고구려가 결국 중화민족의 하나이며, 중국 변방의 민족 정권이라는 주장으로 연결된다.[23]

이처럼 최근의 중국학계가 진행한 고려의 고구려 계승에 관한 연구는 그 계승을 부정하는 주장에서 그치지 않고, 서희 이래로 주장해왔던 국호 문제와 역사 서술까지 미치고 있다.

Ⅲ. 고려의 책봉국 변경과 '종번(宗藩)' 관계의 성격

고려와 요·금·원의 '종번' 관계는 당과 명·청 대와 같은 논리로 설명하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993년 요의 고려 침입과 강화 회담의 결과로 고려는 압록강 영유권을 확보하고 요는 고려와 책봉관계를 맺었다. 고려와 송은 이때 외교 교섭을 중단한 뒤, 1071년(문종 25) 사행을 재개한다. 송은 이른바 '연려제요(聯麗制遼)'라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려와 우호적인 자세를 취했으나, 고려는 송과

21 史长乐, 2007,「金富轼的三国鼎峙说」,『东北史地』2007-06.

22 苗威, 2004,「从金富轼的高句丽观看高句丽政权的性质及其历史归属」,『中国边疆史地研究』2004-04; 苗威, 2013,「关于金富轼历史观的探讨」,『朝鲜·韩国历史研究』2013-01.

23 苗威, 2004,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행을 재개했음에도 송의 책봉 제의를 거절하고[24] 요가 멸망할 때까지 사신 왕래를 지속하며 안정적 관계를 유지했다. 즉, 고려와 요의 책봉 관계는 고려가 송과 경제 문화적 교류를 재개하고 사신 왕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지속되었던 것이다.

10~12세기 동아시아 정세에 따라 중국학계의 관점도 이러한 역사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고려가 중원 왕조인 송과의 관계를 끊고, 요와 책봉 관계를 맺는 상황은 중국학계가 양국의 '종번'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복잡한 구조와 논리를 동원하게 만든다. 기존의 종번 관계를 다룬 연구를 보면 흥미롭게도 송·요·금과 고려의 관계는 당이나 명·청을 다루면서 부수적으로 언급되는 데 그친다. 번속 관계의 단계를 설명하는 데에서도 주 대의 형성단계에서 한 대의 확립단계, 당 대의 창신단계, 명 대의 강화단계, 청대의 확립단계로 정리하면서[25] 고려에 해당하는 송·요·금·원의 내용은 비어 있다. 다만, 고려가 원의 '경외속국'이었다는 설명이 이루어지지만[26] 이때에도 요·금은 거론되지 않는다.

고려와 요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동북공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모호하게 처리되는 면이 없지 않았다. 웨이즈지앙(魏志江)은 2000년대 이후 고려와 요가 맺은 조공체제의 불평등은 분명하지만 외교 의례에서 대등한 외교 자세를 취했으며, 고려는 신속국으로 칭번(稱藩), 납공(納貢)하긴 했지만 국가의 독립 지위를 잃지 않았다고 했다.[27] 그리고 이처럼 고려가 요를 금수의 나라라고 하

24 송은 예종 국상의 제전조위사로서 고려에 온 노윤적이 인종에게 대관 연간의 일을 거론하는데, 송 황제가 북조[요]와의 관계 때문에 고려 국왕을 책봉하지 못하고 조서만 보낸다고 말하면서 조서에 '권지고려국사'의 '권'을 없애 왕을 예우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송의 책봉을 받으라고 권유했다(『高麗史』 卷15, 世家 10, 인종 원년 6월 계묘). 그러나 고려는 이를 거절하고, 이후에도 송의 책봉을 받지 않는다.

25 이석현, 2010, 「중국의 번속제도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중국 번속이론과 허상』, 동북아역사재단, 36쪽.

26 이석현, 2010, 위의 글, 51쪽.

27 魏志江, 1997, 「论1020一1125年的辽丽关系」, 『南京大学学报』, 1997-01; 魏志江, 2006, 『中韩关系史研究』, 广州: 中山大学出版社, 32~3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면서도 요에게 봉표칭신(奉表稱臣)한 것은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중원 한족 왕조에 대한 전통적인 조공에서 중국 북방 소수민족 왕조에 대한 조공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했다.[28]

이러한 설명은 최근 연구에서는 변화를 보인다. 『중한관계사(中韩关系史)』(2014)에서 고려는 완전히 요의 속국이 되어 요의 정삭을 받들고 칭신·납공했다고 하며, 994년부터 약 50여 년 이후 1068년 고려와 송이 다시 교섭하기 전까지 요에 신복했으며, 고려가 저항하기는 했지만 요의 기미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했다.[29] 고려가 독립 지위를 유지하고 대등한 외교 자세를 취했다고 설명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고려와의 종번 관계가 한족 왕조에서 북방 소수민족 왕조로의 변화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것이 어떻게 종번 관계를 형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며 이전 연구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시도했다.

종번 관계는 주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국 왕조를 중심으로 주변국들이 중국에게 조공하는 '조공 체계'를 특징으로 하며, 여기에 화이 질서가 더해지는 것으로 본다. 즉, 종번 관계에 이념적 요소로 '화이 질서'를 투영하며, '종번' 체계는 책봉이라는 외형을 수용하면서 중국의 질서와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화(華)'와 '종(宗)'이 일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화'인 송이 중원에 있음에도 '종번' 관계의 대상인 고려가 원래 '이(夷)'인 거란·여진·몽골을 '종(宗)'으로 삼는 관계가 형성되면서 종번 관계와 화이 질서가 어긋나게 된다. 즉, 종번 관계에 책봉·조공의 형식 논리 외에도 화이 질서의 이념적 성격을 강하게 투영할수록 거란, 여진, 몽골이 세운 왕조와 고려의 관계를 송과 대비시켜 설명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다.

---

28 魏志江, 1996, 「论辽与高丽关系的分期及其发展」, 『扬州师院学报』 1996-01; 魏志江, 1997, 위의 글.

29 王小甫 等, 2014, 『中韩关系史』,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169~171쪽. 고려-요-송의 관계를 다루면서 고려와 송이 외교관계를 재개하는 1068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설명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웨이즈지앙과 판칭(潘清)은 10~14세기 중한 관계와 화이질서를 다룬 논문에서 종번관계는 화이변태라고 규정했다.[30] 중국에서는 천하일가(天下一家)를 중심으로 한 통일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외교 이념을 만들었고, 이는 유가의 예치주의에 따라 중국 제왕을 중심으로 번속의 조공을 바탕으로 한 천하 체계를 세웠다고 했다. 이 시기 종번 관계는 요·금·원의 북쪽 왕조가 화하 문명의 정통인 송을 제치고 중원에 입성하여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중심지가 되며, 고려와 종번 관계를 확립하면서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중심이 되는 '화이변태'의 구도를 만들게 되고, 이에 더 이상 화하 문명과 유가 이념으로 구축된 동아시아 화이질서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화이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화이 분별을 해야 했고 화와 이의 차이는 종족과 혈연 관계가 아니라 문화의 고하를 근거로 삼는 것이라고 했다.

고려와 요의 종번 관계를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 '중국 정통'이다. 요가 한족 왕조인 송과 비교하여 정통성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고려와 책봉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했다는 논리이다. 지앙롱(蒋戎)의 연구가 이러한 관점을 보여준다. 그는 요가 넓은 강역을 차지하며 세력이 강해진 것에 더하여 한제(漢制)를 확립하여 '중국'을 자처하고 '중국 정통'이 되고자 했는데, 이때 유가 문화의 영향으로 천자의 지존적 지위가 외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국내 통치의 합법성도 도전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송나라를 능가하는 위상과 도통적 동의를 얻고자 했으며, '의례지국(儀禮之國)'으로 중원을 받들어왔던 고려가 요를 '중국 정통'으로 인정하길 원했다는 것이다.[31] 이 연구에서는 요가 문화적으로 '화'를 추구하면서 '중국'이 되길 원했고, 여기에 고려가 가진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외교 관계가 필요했다는 것인데 이는 궁극적으로 요의 '중국 정통성' 확립에 고려와의 책봉이 필요한 요소였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

30 魏志江·潘清, 2015,「十至十四世纪的中韩关系形态与东亚世界-兼评费正清的"华夷秩序"论」,『南京社会科学』2015-02.

31 蒋戎, 2008,「辽朝与高丽朝贡关系浅析」,『东北史地』2008-0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와 같은 관점은 첸준다가 요의 1차 침입을 다루는 데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1차 침입의 이유 중 고구려에게 계승된 영토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 그보다 중요하게 본 것은 요가 '천벌'을 운운하면서 고려를 침입한 것이다. 요는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고려를 침입했으며, '문화 정체성' 위에 만들어진 고려와 송의 관계를 파탄시키기 위해 무력으로 고려가 요의 '중국 정통성'을 인정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고려가 '소수 민족'인 거란이 세운 왕조로부터 책봉을 받으면서 '중국 정통성'을 가진 '한족' 왕조와 '종번' 관계를 맺지 못한 상황에서 고려와 요 사이에 맺어진 책봉은 고려가 송이 가진 화풍(華風)을 품고 무력에 의해 굴복한 형식에 불과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32] 여기에서 '중국 정통성'은 곧 유교 문화를 핵심으로 하는 한족을 의미한다. 이것이 고려와 송 사이에 만들어진 문화 정체성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고려의 '종번' 관계가 가진 복합성이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요가 동쪽 변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는지에 대한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요는 고려의 '북진'을 억제하고, 고려를 복속시키기 위해 전쟁을 단행했으며, 동강(東疆)을 창구로 활용하여 경제적 왕래로 이익을 촉진시키는 등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변방을 강화하여 국경의 평화를 유지하고 안정시켰다.[33] 고려와 요의 평화적 관계에 조공을 비롯한 많은 통상 교역이 수반되었다는 연구도[34]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32 陈俊达, 2014,「辽对高丽的第一次征伐新探」,『邢台学院学报』29-3.

33 黄金辉·袁迪嘉, 2021,「辽丽关系视域下辽朝的东疆经略」,『东疆学刊』2021-01.

34 张鹏鹏, 2015,「论辽与高丽朝贡关系的形成-以辽圣宗时期为中心的考察」,『长春教育学院学报』2015-1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Ⅳ. 맺음말

지금까지 중국학계에서 이루어진 고려의 고구려 계승과 고려-요의 관계를 '종번'으로 규정하는 연구를 검토했다. 고려가 건국하고, 서경을 '경(京)'으로 삼아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한 것과 거란의 1차 침입에 대응하여 고구려 계승을 내세워 압록강 영유권을 확보한 것은 고려가 고구려의 정치적 상징과 영역을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과정이었다. 이는 동시에 고려가 후삼국의 하나로 출발하여 고구려의 역사를 점차 자기화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건국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고구려에 대한 정치적 계승 의식은 통일 신라에서 가져온 제도를 비롯한 여러 방면의 문화적 계승과 함께 고려의 역사 정체성을 구성했다.

중국학계에서 이루어진 고려의 고구려 계승, 고려-요 관계 연구는 2000년대를 전후한 시기의 연구 성과보다 확장된 모습을 보여준다. 최근의 중국 연구는 역사 계승의 조건에 대해 영토와 인구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요동 지역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설명하는 시도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기자 조선부터 한 4군,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역사를 강조하고 발해에서 연결되는 영역적 계승자로서, 그리고 나아가 역사의 계승자로서 요를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다만, 역사상에서 송과 요, 고려의 관계를 구조화하는 데에는 여전히 논리적·사료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요와 고려의 '종번'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 최근 연구는 요 왕조의 '중국'화, '중국의 정통'으로서의 요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족 왕조인 송이 가진 중국 전통의 '문화적 정체성'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고려가 요와의 전쟁 이후 송과 책봉 관계를 단절하고 요에게 책봉을 받게 되는 국제질서를 '화이' 관념에 담아 설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고려와 요의 '종번'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요가 유교 문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제도화했는지를 규명하고, 요동 지역의 연원으로 설정한 기자 조선, 곧 '은상(殷商)'의 일부를 끌어안은 중국의 계승자로서 요 왕조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는 경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계도 뚜렷하다. 송과 요의 상호 인식과 한족 왕조이자 '화'로서 요를 오랑캐로 인식한 송과의 관계를 요와 고려의 종번 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고구려 이후의 역사를 중국으로 귀속시키려는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학계에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분명한 대응 방안으로서 고려와 요의 관계, 고려의 역사의식과 관련한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면서 합리적인 이론과 사료를 통한 증명으로서 역사를 연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자료

『高麗史』, 『新五代史』, 『宋史』.

단행본

이석현 외, 2010, 『중국 번속 이론과 허상』, 동북아역사재단.

魏志江, 2006, 『中韩关系史研究』, 广州: 中山大学出版社.

劉子敏 外, 1999, 『全国首届高句丽学术研讨会論文集』, 长春: 吉林省社会科学院高句丽研究中心.

王小甫 等, 2014, 『中韩关系史』,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논문

耿铁华, 1993, 「集安高句丽歷史与好太王碑」『高句丽研究文集』 延吉: 延边大学出版社.

김순자, 2006, 「10-11세기 高麗와 遼의 영토 정책: 압록강선 확보 문제 중심으로」, 『北方史論叢』 11.

노명호, 2014, 「고려의 건국과 고구려 계승 의식-'弓裔의 高麗'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68.

_____,2017, 「고려 성종대 歷史繼承意識의 전개 양상」, 『한국문화』 77.

朴漢卨, 2004, 「高麗의 高句麗 繼承意識」, 『高句麗研究』 18.

_____, 2007, 「고려의 고구려 계승성」, 『고구려발해연구』 29.

孫進己, 2003, 「고구려의 귀속문제에 관한 몇 가지 논쟁의 초점」, 『高句麗研究』 15.

_____, 2004, 「高句麗와 中·韓(韓國)의 關係 및 歸屬」, 『高句麗研究』 18.

신안식, 2018, 「고구려 계승, '高麗'의 境界인식」, 『한국중세사연구』 55.

안병우, 2004, 「고구려와 고려의 역사적 계승 관계」, 『한국 고대사 연구』 33.

윤경진, 2014, 「고려의 건국과 고구려 계승 의식 -'弓裔의 高麗'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6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_____, 2017,「고려 성종대 歷史繼承意識의 전개 양상」,『한국문화』77.
_____, 2021,「고려 예종대 西京 龍堰宮 경영과 역사계승 의식」,『史林』76.
정동훈, 2021,「고려는 어쩌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인식됐을까」,『역사와 현실』121.
崔圭成, 2004a,「고려시기 사람들의 高麗의 高句麗繼承意識」,『북방사논총』2.
_____, 2004b,「국호 高句麗·高麗에 대한 일고찰」,『북방사논총』1.
_____, 2004c,「중국의 東北工程의 실체와 高麗의 高句麗繼承意識」,『白山學報』70.
_____, 2006,「高麗의 高句麗 繼承에 대한 東北亞사람들의 이해」,『북방사논총』9.
하현강, 1975,「고려시대의 역사계승 의식」,『이화사학연구』8.

姜维公, 2011,「〈辽史·地理志〉东京辽阳府条记事谬误探源」,『中国边疆史地研究』2011-02.
姜维公·姜维东, 2014,「"辽"国号新解」,『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2014-01.
陶莎, 2016,「辽朝对高丽政策研究」, 吉林大学博士学位论文.
麻铃, 2004,「辽, 金与高丽的战争」,『东北史地』2004-12.
苗威, 2004,「从金富轼的高句丽观看高句丽政权的性质及其历史归属」,『中国边疆史地研究』2004-12.
____, 2013,「关于金富轼历史观的探讨」,『朝鲜·韩国历史研究』2013-01.
史长乐, 2007,「金富轼的三国鼎峙说」,『东北史地』2007-06.
杨军, 2008,「东亚封贡体系确立的时间-以辽金与高丽的关系为中心」,『贵州社会科学』2008-05.
杨保隆, 1999,「论高句丽与王氏高丽无前后相承关系」,『社会科学战线』1999-01.
魏志江, 1996,「论辽与高丽关系的分期及其发展」,『扬州师院学报』1996-01.
_____, 1997,「论1020一1125年的辽丽关系」,『南京大学学报』1997-01.
魏志江·潘清, 2015,「十至十四世纪的中韩关系形态与东亚世界-兼评费正清的"华夷秩序"论」,『南京社会科学』2015-02.
李艺, 2015,「圣宗时期辽与高丽的战争」,『辽宁教育行政学院学报』2015-04.
张鹏鹏, 2015,「论辽与高丽朝贡关系的形成-以辽圣宗时期为中心的考察」,『长春教育学院学报』2015-16.
陈俊达, 2014,「辽对高丽的第一次征伐新探」,『邢台学院学报』29-3, 2014-0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_____, 2015, 「丽辽“关系分期”“朝贡分期”与“遣使分期”辨析-东亚封贡体系形成理论研究之一」, 『鸡西大学学报』 2015-03.
蒋戎, 2008, 「辽朝与高丽朝贡关系浅析」, 『东北史地』 2008-06.
黄金辉 · 袁迪嘉, 2021, 「辽丽关系视域下辽朝的东疆经略」, 『东疆学刊』 2021-0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고려의 고구려 계승과 고려–요 '종번(宗藩)' 관계에 관한 중국학계의 인식

이승민

고려의 고구려 계승은 일찍이 한국 사학계에서 당연한 전제로 여겨졌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논증을 거치지 않았지만 이미 고려라는 국호가 이를 증명했다고 이해했고, 후삼국시기 신라·후백제·고려(후고구려-태봉)의 구도는 고대 삼국의 연장선 위에 이어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려의 고구려 계승은 복잡한 논쟁이 이루어지는 주제라기보다 건국과 통일과정, 북방 영토 확장, 고구려 부흥 운동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2000년대를 전후하여 중국학계는 '동북공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연구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 고려와 고구려의 계승을 비판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고구려를 중국 왕조의 지방 정권이라고 주장하면서 발생하는 논리적 모순 가운데 하나가 '고려'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고구려 멸망 후 그 유산 역시 고려가 아닌 중국 왕조로 귀속되었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최근에는 고려의 고구려 계승과 종번 관계에 관한 연구가 새로운 이론으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전환하고 있다. 기자 조선부터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역사를 강조하고, 발해의 영역적 계승자로서, 나아가 역사의 계승자로서 요를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역사상에서 송과 요, 고려를 '종번' 관계로 구조화하는 데에는 여전히 논리적·사료적 한계가 있다. 한족 왕조인 송이 가진 중국 전통의 '문화적 정체성'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고려와 요가 맺은 책봉 관계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요가 유교 문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제도화했는지를 규명하고, 중국의 계승자로서 요 왕조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는 경향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고구려 이후의 역사를 중국으로 귀속시키려는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학계에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분명한 대응 방안으로서 고려와 요의 관계, 고려의 역사의식과 관련된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면서 합리적인 이론과 사료를 통한 증명으로서 역사를 연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고려, 고구려, 거란, 요, 계승, 서희, 종번 관계, 동북공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Chinese Academics Perception of Goryeo's Succession to Koguryeo and Goryeo-Liao's 'Zongfan' Relations

Lee Seungmin

Goryeo's succeeding to Koguryeo has been considered as a natural premise in the world of Korean history. Although there was no specific and detailed demonstration about this matter, it was understood that the country name Goryeo indicated the fact, and was thought that the structure of Shilla·Later Baekje·Goryeo(Later Koguryeo-Taebong) after the Later Three Kingdoms was on the extension line of ancient Three Kingdoms. Therefore, Goryeo's succeeding to Koguryeo was understood to be naturally reveal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and unification, northern territory expansion, and the revival movement of Koguryeo rather than the subject for complicated arguments.

Around 2000s, the academic world of China aggressively proceeded with studies to incorporate Koguryeo into the history of China through 'the Northeast Project', and thus, there were many studies that criticiz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Goryeo and Goryeo's succeeding to Koguryeo. One of logical contradictions of the claim that Koguryeo was a local regime of China is the existence of 'Goryeo'. Furthermore, there was a need for explanation that the heritage after the fall of Koguryeo belonged to China instead of Goryeo.

Recently, this is switched to an new theory about Goryeo's succeeding to Koguryeo and Suzerain-vassal relations. The theory emphasizes the history from Gija Joseon to Koguryeo and Balhae, and positions Liao Dynasty as the territorial successor of Balhae, and furthermore as the successor of history.

However, there's still logical·historical limitation in structuralizing Song, Liao and Goryeo as 'Suzerain-vassal relations'. That's because the Tributary Appointment relationship between Goryeo and Liao should be explained while the traditional Chinese 'historical identity' of Song, which is the Han race dynasty, should be highly appraised. In the process, How Liao accepted and institutionalized the Confucian culture is investigated, and research with tendency of emphasizing the historical meaning of Liao Dynasty as the successor of China is done. Nevertheless, it seems that there will be continuous efforts to include the history after Koguryeo in that of China. For this, the academic world of Korea should discover research subjects about the relation between Goryeo and Lio, and Goryeo's historical awareness as the most effective and definite countermeasure, and should continue researching history by proving through logical theories and historical materials while seeking new methodology.

Keywords: Goryeo, Koguryeo, Khitan, Liao, Succession, Seo-hui, Zongfan relation, Northeast Project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2..78.004

중국의 '창바이산문화론'과 백두산 전유화(專有化)

문상명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I. 머리말
II. '지린성 창바이산문화연구회' 조직과 『중국장백산문화(中國長白山文化)』 발간
III. '창바이산문화론'의 구성과 백두산 전유화(專有化)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중국의 역사학자 바이쇼우이(白寿彝, 1909~2000)는 『역사교학(歷史教學)』(1951년 창간)에 "중화인민공화국의 국토 범위(疆域)를 바탕으로 역사상의 중국 영토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회족(回族)인 그는 『광명일보(光明日报)』의 창업자이자 1980년대 『중국통사강요(中国通史綱要)』를 주필하여 현대 중국 역사학의 기초를 정립한 인물이다. 이후 1954년, 그의 논지는 중국 헌법에 "중화인민공화국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라는 조항을 삽입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이어 1980년대 말 타이완 민진당(民進堂)이 타이완 사람은 중국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중화민족다원일체격국(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 이론이 새롭게 주목을 받았다. 즉, 중화민족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분리될 수 없다는 큰 틀은 유지하되 소수민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 뒤 이 이론은 한국 고대사의 주 무대인 중국 동북지역에 적용되어 한국사를 왜곡하고 중국사로 포섭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즉, 동북지역은 중국 역대 왕조의 관할지로 고조선을 비롯한 고구려와 발해의 후손은 한족(漢族)으로 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중국 정부가 동북지역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한중 수교 이후인 1990년대 중후반 무렵부터였다.

1950년대 중국은 일제가 패망 이전에 구축한 만주국의 경제기반 위에서 소련의 '중공업 우선 성장전략'을 수용하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동북지역을 중화학 공업의 요충지로 개발하여 경제 발전을 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1960년대 초반 중소분쟁이 시작되자, 중국은 성장축을 동북지역에서 동부 연해 지역과 내륙 지방으로 이전하기 시작했고, 1978년 이후 덩샤오핑(鄧小平)이 집권하면서 이

* 투고: 2022년 10월 15일, 심사 완료: 2022년 11월 7일, 재심사 완료: 2022년 12월 1일, 게재 확정: 2022년 12월 1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더욱 심화하였다.[1]

이렇듯 중국은 개혁개방을 추진하며 경제건설 측면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역사와 문화 연구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동북지역의 경우에는 백두산 지역의 문화를 한족(漢族)의 문화로 흡수하는 것이었다. 이에 길림성 부성장(副省長) 왕지핑(王季平)은 백두산에 관한 종합적 연구서 『장백산지(長白山志)』[길림문화출판사(吉林文史出版社), 1989]를 처음으로 출간하였다.[2] 그 뒤 길림사범대학 고적연구소(古籍研究所) 주필 리슈티엔(李澍田)은 1986년부터 2013년까지 83권에 달하는 『장백총서(長白總書)』(길림문화출판사)를 편찬하였는데,[3] 그 가운데 1994년 12월에 『장백산문화논설(長白山文化論說)』이 간행되었다. 이때 '창바이산문화론(長白山文化論)'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고, 이는 2000년대 이후 중국 동북지역 초국경 경제협력구 지역 전략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국내에서 창바이산문화론에 대한 연구는 윤휘탁에 의해 선구적·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는 중국에서의 백두산 명칭의 변화와 고구려문화 및 창바이산문화의 귀속 원리, 중국의 '창바이산주인론'의 표상화 작업의 과정과 의미, '창바이산문화건설공정(長白山文化建設工程)'의 추진과 과정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다.[4] 조법종은 중국이 백두산 지역 내 우리 고대사 공간을 중국사 범주에 포함하고자 동북공정 논리와 연결하여 대중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하였다.[5] 이 외

---

1 권오국, 2011, 「중국의 대북 접경지역 개발전략이 갖는 지정학적 함의」, 『통일문제연구』 55, 234~236쪽.

2 王季平, 1989, 『長白山志』, 吉林文史出版社.

3 李澍田·任总 主编, 1986, 『長白丛书』, 吉林省古籍整理研究大型系列工程; 전체 83권의 목록은 논문 부록으로 첨부함.

4 윤휘탁, 2007, 「중국(中國)의 동북(東北) 문화강역(文化疆域) 인식(認識) 고찰(考察)-"장백산문화론(長白山文化論)"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55권, 285~313쪽; 윤휘탁, 2018, 「'滿洲(長白山) 主人論': '만주 및 백두산의 역사적 주체'에 대한 중국의 인식론」, 『숭실사학』 41권, 239~261쪽; 윤휘탁, 2019, 「중국에서의 '滿洲(長白山) 主人論'의 表象化 작업과 의미」, 『중국사연구』 119권, 213~244쪽.

5 조법종, 2006, 「中國의 '長白山文化'論과 高句麗」, 『白山學報』 76; 조법종, 2007, 「장백산문화론의 비판적 검토」, 『白山學報』 79; 조법종, 2014, 「중국 고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 창바이산문화론을 바탕에 둔 중국의 '백두산 공정'에 대한 연구도 있다.[6] 그런데 그동안의 연구는 창바이산문화론의 현재 전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 시작과 전개 과정, 그들의 연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이 글에서는 1980년대 말 '창바이산문화론'의 등장과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개 과정을 중국 동북지역 변강의 공간적 변화와 중국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창바이산문화론'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내다보고 우리의 백두산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지린성 창바이산문화연구회' 조직과 『중국장백산문화(中國長白山文化)』 발간

1. '지린성 창바이산문화연구회'의 조직과 활동

중국의 '창바이산문화'가 본격적으로 대두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1994년 8월 바이산시(白山市)위원회와 시 정부는 동북 3성의 백두산 전문가와 학자 30여 명을 참여시켜 '창바이산문화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창바이산문화의 특징을 규범화하고 그 함의를 정의하였으며 역사적 연원을 추적하고 창바이산문화와 중원문화의 내재적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창바이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와 경제적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7] 이를 엮어 출판한 것이 앞서 언급한 『장백총서』 중 하나인 『장백산문화논설』이다. 목차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려 세계유산의 현황과 활용」, 『고구려발해연구』 50, 9~36쪽.

6 윤휘탁, 2015, 「중국의 '백두산의 중국화' 전략」, 『동북아역사논총』 48, 197~254쪽; 문상명, 2022, 「중국의 '백두산공정'과 대응」, 『동북아역사논총』 76, 331~369쪽.

7 王素玲, 1994, 「"長白山文化研讨会"综述」, 『社会科学战线』.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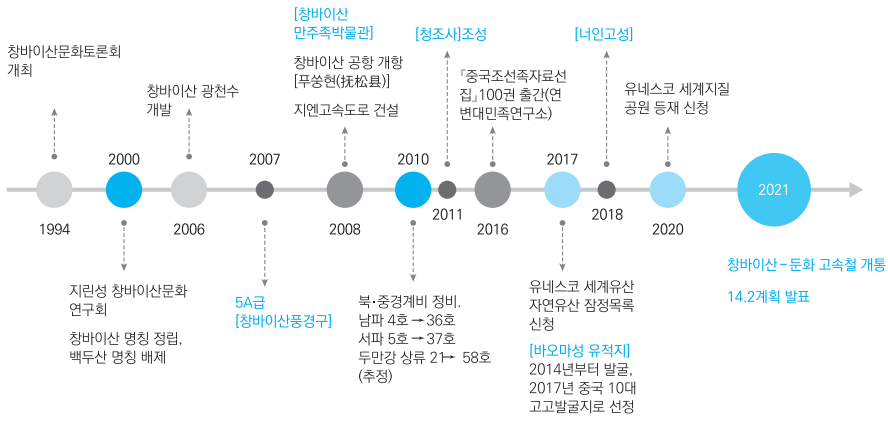


그림 1 창바이산문화론의 등장과 전개 과정

- 창바이산문화를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백산 지역의 경제와 사회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자(大力开发長白山文化促进白山地区经济和社会的全面发展)/蔡彰
- 창바이산문화 논함(论長白文化)/李澍田 · 曹万利
- 창바이산문화의 특징과 그 현대적 가치 재론(再论長白文化的特质及其现代价值)/李澍田 · 田毅鹏
- 창바이산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전략적 사고(長白山区域历史与文化的战略思考)/王禹浪 · 林工
- 창바이산의 최고(長白山之最)/张云樵 · 张莉
- 류젠펑과 창바이산(刘建封与長白山)/孙文采
- 홍루몽과 창바이산(红楼梦与長白山)/陈景河
- 산과 사람, 창바이산문화의 문제점(山和人 長白山文化一题)/王肯
- 창바이산 바위와 송화강의 기맥, 창바이산문화를 생각하다(長白山砬子根基, 松花江气脉来 長白山文化断想)/王兆一
- 창바이산 숭배와 민족 문화의 융합(長白山崇拜与民族文化融合)/汪玢玲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창바이산 만주족 고대문화 자원 개발의 기초 및 전망에 관한 연구(论开发長白山满族古文化资源的基础及前景)/富育光·王宏刚
- 창바이산, 만주족의 성산, 만주족의 조상 숭배와 샤머니즘 약술(長白山, 满族的圣山 满族的祖先崇拜与萨满信仰述略)/刘厚生·高云芳
- 만주족 향을 피우고 샤머니즘을 추는 만주족 신앙 예속 문화를 논함(满族烧香萨满跳神 浅谈满族信仰礼俗文化)/石光伟·侯雁飞
- 만주족 민속 중의 여성관 약론(略论满族民俗中的女性观)/吕冬雷
- 창바이산문화와 창바이산 문학(長白山文化与長白山文学)/王德忱
- 창바이산문화와 시, 왕융리의 '압록강 도보' 시폐 산론(長白山文化与诗 王永利"鸭绿江徒步行"诗钞散论)/路地
- 민담 속의 창바이산문화(瞎话不瞎 论民间故事中的長白山文化)/施立学
- 창바이산의 무용문화(论長白山的舞蹈文化)/于国华
- 해동청과 그 문화 현상(海东青及其文化现象)/于济源
- 창바이산 인삼문화 및 장백산 생태환경보전(長白山人参文化及長白山生态环境保护)/王德富
- 창바이산의 목조(長白山里的木帮)/曹保明
- 창바이산 베개에 대한 문헌 연구(長白山区枕头考论)/王纯信
- 창바이산 관광지 개발을 통한 창바이산의 경제·사회·문화의 조화로운 발전 촉진(开发長白山旅游区, 促进長白山 经济, 社会, 文化协调发展)/高连峻
- 독특한 특색을 지닌 창바이산문화를 점진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노력(努力探索逐步形成独具特色的長白山文化)/张世魁

이와 관련하여 중국공산당 바이산시위원회 당학교 이론연구실 주임 취쾌이(曲奎)는 '창바이산 지역의 유구한 문화를 알리고 창바이산 정신을 선양하며 창바이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창바이산문화' 개발의 함의라고 소개했다.[8]

8 曲奎, 1995,「试论長白山文化开发的战略意义」,『長白學干』.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를 통해 보면, '창바이산문화'는 백두산 개발을 위한 지역문화 연구의 차원에서 제기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창바이산문화'를 직접적으로 내세우기보다는 '단군과 고구려 시조가 다르며 고구려는 중원문화의 영향에 발전한 중국의 지방정부'라는 점을 강조하거나,[9] 이를 홍산문화와 연결하려는 연구가 주를 이뤘다.[10]

그 뒤 2000년 10월 29일 장춘에서 '지린성 창바이산문화연구회(長白山文化研究會)'[11]가 결성되면서 바이산시 시(市) 지역 차원에 국한하였던 '창바이산문화' 개념이 지린성 전체로 확대되었다. 이 단체는 '창바이산문화론'을 선전·확산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지린성 각지에 조직된 이들 연구회는 반관반민(半官半民)의 학회 조직으로 중공지린성위원회 선전부가 조직, 활동을 지원하고 통제, 지도하였다.

2001년 6월에 지린시에서 창바이산문화연구회 제1차 회원 대표 회의가 열렸다. 당시 중공지린성위원회 선전부 부부장인 장푸여우(張福有)가 초대 회장을 맡아 이를 주도하였다. 중공지린성위원회 선전부와 지린성인민정부는 '창바이산문화론'을 확산시키고자 지린성 각지에 학회 조직을 독려하고 활동 자금이나 연구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들은 백두산 연구를 통하여 '창바이산 문화권'이 중화 문화의 정수라는 것을 발굴함과 동시에 지린성의 대표적 문화상품으로 만들어 홍보하고자 했다.

2003년에는 창바이산문화연구회의 3년차 연구 성과를 모아 『장백산문화

---

9 李若遷, 1996, 「高句麗文化與中原文化淵源關係述略」, 『通化師院學報』; 李英·範犁, 1997, 「東明王史詩與高句麗傳說」, 『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 範犁, 1997, 「高句麗古墓的幾個問題」, 『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 劉子敏, 2000, 「走出高句丽历史研究的误区:试析古人在高句丽归属问题上的错误说法」, 『東疆學刊』.

10 郭大順, 1995, 「遼寧史前考古與遼河文明探源」, 『遼海文物學刊』; 劉子敏, 2004, 「紅山文化研究略論紅山文化研究略論紅山文化研究略論」, 『內蒙古師範』; 徐子峰, 2004, 「紅山文化與中華文明的起源試析」, 『昭烏達蒙族師專學報』.

11 현 주소: 吉林省吉林省長春市自由大路5399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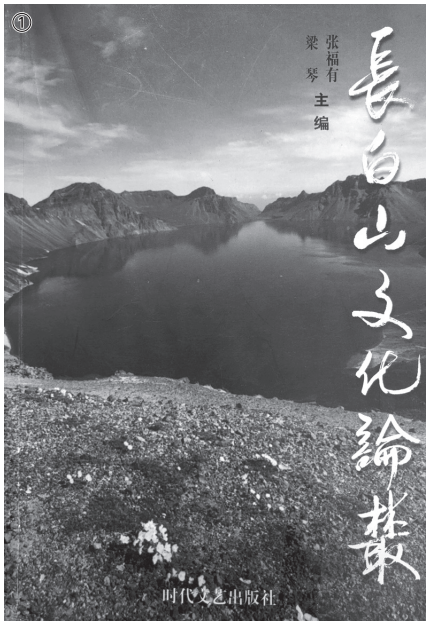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총(長白山文化論叢)』[시대문예출판사(時代文藝出版社)]을 발간하였다. 이는 크게 상·하편으로 나뉘는데, 상편은 '창바이산문화개설'이며, 하편은 '류젠펑의 백두산답사 94주년'을 기념하는 내용이다. 특히 『장백산강강지략(長白山江崗誌略)』(1908)을 저술한 류젠펑(刘建封, 1865~1952)의 증손인 류쯔리(刘自力)가 논문을 발표하고 백두산 답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후 2013년 말까지 연변조선족자치주·바이산시·퉁화시·지린시·안투현(安圖縣)·우송현(撫松縣) 등지에 창바이산문화연구회가 조직되었고, 백두산이 소재한 지린성의 관련 기관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国人民政治協商會議)·중국국가문물국(中國国家文物局)·중국국가여유국(中国國家旅遊局)·지린성사회과학원·공상연합기관·작가협회 등이 적극적으로 이를 후원, 참여하였다.

'지린성 창바이산문화연구회' 회원은 2022년 현재 300여 명 정도이다. 창립 이래 2001년 6월 창립 1차 회원대표회의, 2002년 7월 장춘(長春)과 안투현에서 제2차 길림성 창바이산문화 세미나와 류젠펑 백두산 답사 94주년 및 서거 5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길림성 정치협상회의 의장이며 당주서기인 장웨치(张岳琦)는 지린성 창바이산문화연구회의 주요 임무가 백두산문화 연구를 중심으로 학술 교류를 수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이후 학술회의, 답사, 연구서 출간 등을 통해 2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장백산문화논총』을 두 차례 간행하였다. 이와 함께 『장백산시사선(長白山诗词选)』, 『장백산시사사화(長白山诗词史话)』, 『장백산문화론설(長白山文化论说)』, 『중국고구려사(中国高句麗史)』, 『통화력대시사선주(通化歷代詩詞选注)』, 『고구려와당연구(高句麗瓦當研究)』, 『광편예술도감(筐编艺术图鉴)』, 『흑토지적고대문명(黑土地的古代文明)』, 『만족면구신발현(满族面具新发现)』, 『동해와집전(東海窩集傳)』, 『노장춘(老長春)』, 『장춘노자호(長春老字號)』, 『오납수기(烏拉手記)』, 『길채적고사(吉菜的故事)』, 『관동세시론(關东岁时論)』, 『홍호재송원급기타(洪皓在松原及其他)』 등의 책자도 간행되었다.

2008년 5월에는 류젠펑의 백두산 답사 100주년을 기념하여 그의 길을 따라 답사하여 『백년고여(百年苦旅)』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1908년 안도 제1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① 『장백산문화논총(長白山文化論叢)』 표지
② 류쯔리 부부의 백두산 답사
③ 류젠펑 답사 기념비

그림 2 『장백산문화논총』, 류젠펑의 백두산 답사 기념 사진(출처: 장백산문화논총)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현(知縣) 류젠펑은 청 정부로부터 변강을 조사하고 도시를 건설하라는 명을 받고 네 번이나 백두산에 올라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중 백두산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기간은 9개월이었다. 그는 백두산의 지리, 변방 현황을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설치·실변·보위 변방 등 구체적인 책략을 제기하기도 하였다.[12] 이어 2010년 6월에는 훈춘 방천에 '도문강출해복항이십주년기략(圖們江出海復航二十周年紀略)'이라 새긴 비석이 세워졌다. 류젠펑이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나가는 항로를 개척하고자[출해복항(出海復航)] 과학적 조사를 한 지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같이 '지린성 창바이산문화연구회'는 류젠펑이라는 인물과 그의 업적을 조명한 것은 그의 변경 연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류젠펑의 변강 조사 목적이 도시 건설이었던 것, 특히 동해 항로 개척에 관심을 보인 것은 현재 이 지역의 교통 인프라 구축의 상황을 고려하면 '창바이산문화연구'는 이 지역의 경제건설을 위한 기초 이론으로 작동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중공지린성위원회 선전부와 지린성문화청은 2010년에 제6차 '창바이산문화연토회'를 개최하고 지린성도서관 내에 '창바이서원(長白書院)'[13]을 개원하였다. '창바이서원'은 창바이산문화를 연구하고 백두산과 관련한 문헌 정리와 보호 등 비물질 문화유산의 창조와 발굴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즉, 백두산문화 연구를 전개하여 중국 특색을 가진 백두산 역사를 세우는 것, 백두산 문화 연구를 위한 정보 체계를 만드는 것,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백두산문화를 위주로 하는 사회 교육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홈페이지에는 별다른 활동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차후 실제 현지 답사를 통해 이 기관의 활동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12 『인민넷』(조문판), 2016.11.24, 『장백산강강지략』(백화문본) 출판 발행.

13 吉林省图书馆, https://www.jllib.com/cbsy/sygk/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長白书院 章程

第一章 总则

第一条 书院的名称是: 長白书院(以下简称书院).

第二条 书院的性质是: 自愿举办, 从事非营利性的民办非企业(法人)组织.

第三条 书院的宗旨是: 大力发展長白山文化事业, 推进長白山文化研究, 对有关長白山的文献进行整理和保护, 推动以長白山文化为核心的非物质文化遗产的抢救与挖掘.

第四条 书院的业务主管单位是: 中共吉林省委宣传部, 吉林省文化厅.

第五条 书院的住所地是: 吉林省图书馆.

第六条 本章程中的各项条款与法律, 法规, 规章不符的, 以法律, 法规, 规章的规定为准.

第二章 举办者, 开办资金和业务范围

第七条 书院的举办者是: 吉林省图书馆, 長白山文化研究会.

举办者享有下列权利:

(一) 了解书院经营状况和财务状况;

(二) 推荐理事;

(三) 有权查阅理事会会议记录和书院财务会计报告.

第八条 书院开办资金: 由书院举办者出资.

第九条 书院的业务范围:

(一) 开展長白山文化研究, 建立具有中国特色的長白山历史与文化研究体系.

(二) 建设長白山文化研究信息资源保障体系;

(三) 举办長白讲坛;

(四) 开展以長白山文化为主线的社会教育培训.

第三章 组织管理制度

第十条 书院设理事会, 其成员为7人.理事会是书院的决策机构.

理事由举办者, 职工代表及有关单位(业务主管单位)推选产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理事每届任期 3 年, 任期届满, 连选可以连任.

第十一条 理事会行使下列事项的决定权:

(一) 修改章程;

(二) 业务活动计划;

(三) 年度财务预算, 决算方案;

(四) 增加开办资金(注册资本), 筹集经费的方案;

(五) 书院的分立, 合并或终止;

(六) 聘任或者解聘院長和其提名聘任或者解聘副院長及财务负责人;

(七) 增补, 罢免理事;

(八) 内部机构的设置;

(九) 制定内部管理制度;

(十) 从业人员的工资报酬;

(十一) 决定其他有关书院的重大事项.

第十二条 理事会每年召开两次会议.有下列情形之一,应当召开理事会会议:

(一) 理事長认为必要时;

(二) 1/3以上理事联名提议时.

第十三条 理事会设理事長1名.理事長由理事会以全体理事的过半数选举产生或罢免.

第十四条 理事長不能行使职权时, 由理事長指定一名理事代其行使职权.

第十五条 召开理事会会议, 应于会议召开10日前将会议的时间, 地点, 内容等一并通知全体理事.理事因故不能出席, 可以书面委托其他理事代为出席理事会, 委托书必须载明授权范围.

第十六条 理事会会议应由1/2以上的理事出席方可举行.理事会会议实行1人1票制.理事会作出决议, 必须经全体理事的过半数通过.

下列重要事项的决议, 须经全体理事的2/3以上通过方为有效:

(一) 章程的修改;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二) 聘任和解聘院長;

(三) 制定书院发展规划;

(四) 审核预算, 决算;

(五) 决定书院的分立, 合并或终止等其他重要变更事项.

第十七条 理事会会议应当制作会议记录.形成决议的, 应当当场制作会议纪要, 并由出席会议的理事审阅, 签名.理事会决议违反法律, 法规或章程规定, 致使书院遭受损失的, 参与决议的理事应当承担责任.但经证明在表决时反对并记载于会议记录的, 该理事可免除责任.

理事会记录由理事長指定的人员存档保管.

第十八条 理事長行使下列职权:

(一) 召集和主持理事会会议;

(二) 检查理事会决议的实施情况;

(三) 法律, 法规和书院章程规定的其他职权.

第十九条 书院院長对理事会负责, 并行使下列职权:

(一) 主持书院的日常工作, 组织实施理事会的决议;

(二) 组织实施书院年度业务活动计划;

(三) 拟订书院内部机构设置的方案;

(四) 拟订书院内部管理制度;

(五) 提请聘任或解聘书院副职和财务总监;

(六) 聘任或解聘内设机构负责人;

(七) 行使理事会授予的其他职权.

院長列席理事会会议.

第四章 法定代表人

第二十条 书院的法定代表人为书院理事長.

第二十一条 有下列情形之一的, 不得担任书院的法定代表人:

(一) 无民事行为能力或者限制民事行为能力的;

(二) 正在被执行刑罚或者正在被执行刑事强制措施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三) 正在被公安机关或者国家安全机关通缉的;

(四) 因犯罪被判处刑罚, 执行期满未逾3年, 或者因犯罪被判处剥夺政治权利, 执行期满未逾5年的;

(五) 担任因违法被撤销登记的民办非企业单位的法定代表人, 自该单位被撤销登记之日起未逾3年的;

(六) 非中国内地居民的;

(七) 法律, 法规规定不得担任法定代表人的其他情形.

第五章 资产管理, 使用原则及劳动用工制度

第二十二条 书院经费来源:

(一) 开办资金;

(二) 政府资助;

(三) 在业务范围内开展服务活动的收入;

(四) 利息;

(五) 捐赠;

(六) 向举办者, 银行, 或其他企业, 团体借款;

(七) 举办者增资或吸收新的举办者;

(八) 其他合法收入.

第二十三条 经费必须用于章程规定的业务范围和事业的发展, 盈余不得分红.

第二十四条 执行国家规定的会计制度, 依法进行会计核算, 建立健全内部会计监督制度, 保证会计资料合法, 真实, 准确, 完整.

接受税务, 会计主管部门依法实施的税务监督和会计监督.

第二十五条 配备具有专业资格的会计人员.会计不得兼出纳.会计人员调动工作或离职时, 必须与接管人员办清交接手续.

第二十六条 书院领导班子换届或更换法定代表人之前必须进行财务审计.

第二十七条 书院劳动用工, 社会保险制度按国家法律, 法规及国务院劳动保障行政部门的有关规定执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第六章 章程的修改

第二十八条 本章程的修改，须经理事会表决通过后15日内，报业务主管单位审查同意，自业务主管单位审查同意之日起30日内，报登记管理机关核准.

第七章 终止和终止后资产处理

第二十九条 本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终止：

(一) 无法按照章程规定的宗旨继续开展活动的；

(二) 发生分立，合并的；

(三) 自行解散的.

第三十条 书院终止，应当在理事会表决通过后15日内，报业务主管单位审查同意.

第三十一条 书院办理注销登记前，应当在业务主管单位和有关机关的指导下成立清算组织，清理债权债务，处理剩余财产，完成清算工作.

剩余财产，应当按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处理.清算期间，不进行清算以外的活动.

第三十二条 书院自业务主管单位审查同意之日起，即为终止.

第八章 附则

第三十三条 本章程经年 月 日理事会表决通过.

第三十四条 本章程的解释权属书院理事会.

第三十五条 本章程自业务主管单位审查同意之日起生效.

그 뒤 또 다른 '창바이서원'이 2019년 10월 통화사범학원(通化師範學院, Tonghua Normal University) 내에도 설치되었다.[14] 통화사범대학 창바이서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대학+아카데미'의 융복합적인 교육을 목표로 하는

14 「通化师范学院長白书院成立」, 『길림일보』, 2022.10.21(https://baijiahao.baidu.com/s?id=1648052721742859441&wfr=spider&for=pc).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특화된 교육 시스템으로 구성되었다. 이곳은 창바이산문화 연구 센터, 고구려 문화 연구 센터, 궁술연습센터 등의 연구소로 구성하여 백두산, 고구려의 문화 유산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2. 창바이산문화연구회의 『중국장백산문화』 발간

창바이산문화연구회는 2003년에 『장백산문화논총』을 발간한 이후 2014년 부회장 류허우성(劉厚生)을 주편(主编)으로 『중국장백산문화』(길림출판사, 2014)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그간의 창바이산연구를 종합 정리하였다. 류허우성은 명청사·만족연구, 만족 샤먼문화를 중심으로 연구했으며 동북사범대학(東北師範大學)의 '동북민족여강역연구중심(東北民族與疆域研究中心)' 주임을 역임한 인물이다. 저자는 전 길림성위서기 왕윈쿤(王云坤), 요녕성박물관관장 왕미엔후(王綿厚), 태백산은 백두산이 아니라 묘향산이라는 논지의 『장백산여태백산고논(長白山與太伯山考論)』(만어연구, 2002)를 쓴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연구원 장삐뽀(張碧波) 등 60여 명의 동북지역 학자가 참여하였다. 요녕성박물관(遼寧省博物館), 요녕대학(遼寧大學), 흑룡강성사회과학원(黑龍江省社會科學院), 지린성민족연구소(吉林省民族研究所), 지린성예술연구소(吉林省藝術研究所), 지린성고고연구소(吉林省考古研究所), 연변대학(延邊大學), 동북사범대학(東北師範大學), 통화사범학원(通化師范學院), 장춘사범대학(長春師范大學) 등 동북지역의 중요한 학술기관의 교수와 연구자가 대거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통화사범학원의 교수 리위에잉(李樂營)이나 북화대학 역사문화학원 비물질문화유산 연구소의 따이커리앙(戴克良)은 류허우성의 제자로 이후 그의 창바이산문화론을 계승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출간 목적은 '역사를 기본으로 하며 논지를 개발하여 창바이산문화의 역사 형태와 현실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연구 대상은 지역의 문화를 포괄하여 역사적으로 잘못된 문화를 수정하는 것이었다. 특히 서문에서 "창바이산은 주나라 이래로 중국의 영토이다. 숙신족이 주인이며 예맥계 민족이 그 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화를 이어 근대 이후 한족이 중심이 되어 중화민족을 이루었다. 그런데 한국이 고토회복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에 창바이산문화를 세계만방에 알려 영토를 수호하고자 한다"며 그 뜻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주필인 류허우셩은 인터뷰를 통해 "창바이산문화의 정의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눌 수 있다. 좁은 의미로는 창바이산 배후 지역의 문화를 말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지린성, 랴오둥성, 헤룽지앙성, 무단장성을 포함하는 창바이산계의 지역문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연구하는 창바이산문화는 넓은 의미이다"[15]라고 하여 창바이산문화의 정의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는 국가의 주도로 계획, 추진되었기에 지린성지방지 자원개발입항항목(吉林省地方志 資源開發立項項目), 지린예술학원학술출판전항자금자조(吉林藝術學院學術出版專項資金資助), 통화사범학원학술전항자금자조(通化師範學院 學術專項資金 資助) 등 기관의 지원금으로 출판되었다. 이를 통해 보면, 책 출판은 한국을 의식하여 백두산문화를 동북지역의 상징으로 표방하고, 이 지역사와 현재에서 한국의 문화를 지우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한편 책의 서두에 창바이산문화를 상징하는 사진을 실어 그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백두산 천지, 고구려 왕릉, 백두산 지역에 거주하는 허저족(赫哲族)·만족·어룬춘족의 젊은 여성 사진, 인삼 씻는 모습, 압록강 뗏목 등을 실었다. 이를 보면, 조선족은 배제한 채 헤이룽강·우수리강(烏蘇江)·쑹화강 유역에서 생활해온 허저족과 어룬춘족을 백두산 문화권의 민족으로 설정하였다. 창바이산문화의 광의적 정의를 '동북삼성 창바이산계의 지역문화'라고 표방한 류허우셩의 논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런데 조선족을 뺀 것은 한국과의

15 「中国社会科学院」,『我眼中的長白山文化』"長白山文化的界定有广义和狭义之分, 狭义的長白山文化是指長白山腹地的文化; 广义的長白山文化是指以長白山为轴心, 包括它的外延部分, 可称作長白山山系区域文化, 包括吉林省, 辽东地区和黑龙江省的牡丹江地区.我们研究的長白山文化, 实际上指的是广义的長白山文化."(http://www.cssn.cn/mzx/shwh/201505/t20150512_1766855.shtml)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허저족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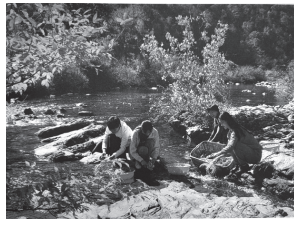
만족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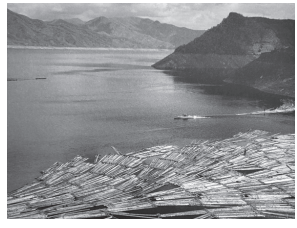
어룬춘족 여성



고구려왕릉



인삼 씻기



어룬춘족 여성

그림 3 『중국장백산문화(中國長白山文化)』의 앞부분 도판사진(출처: 『중국장백산문화』)

역사논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책의 내용은 '동북문화의 근원이자 중화민족의 성산인 창바이산'으로 시작해서 '창바이산 지역의 자연 생태 환경', '창바이산 지역의 역사유적과 고고문화', '창바이산 지역의 신앙문화와 민족습관', '창바이산 지역의 문화교육과 언어문자', '창바이산 지역의 시문예와 민간예술', '창바이산 지역의 풍경명승지와 관광문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북삼성 전체를 창바이산 지역으로 설정하고, 그 지역의 역사와 생활·교육·예술·문학·명승·관광 등 다양한 방면을 백과사전식으로 총망라하였다. 백두산문화는 곧 중국 동북삼성의 문화라는 점을 명문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최근 2022년에는 『중국장백산문화』의 부주편을 맡았던 요녕성박물관관장 왕미엔후(王綿厚)가 『장백산구계고고여민족요론(長白山區系考古與民族要論)』[16]이라는 책을 펴냈다. 그는 2018년부터 집필, 간행한 『중국장백산문화』의 고고편 집필을 기초로 국가사회과학기금 중대 프로젝트 『장백산구계고고여민족논강』을 담당하였다. 『장백산구계고고여민족요론』은 최초 계획의 축약본으로 주로 고고학에 초점을 두었는데, '장백산구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즉, 그는 '창바이산 권역'을 남계, 북계, 동계, 서계 등으로 나눠 각지의 고고학적 역사·문화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장백산구계'에 속하는 지역적 범위는 동북삼성을 아우르며 요동반도와 한반도의 북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창바이산이 중국 동북부 지역 내 역사·문화적 경관을 아우른다면, '창바이산문화론'은 백두산 산채를 기점으로 중국 동북부 지역 전체의 역사·문화를 포괄하고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북부로 확산하는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Ⅲ. '창바이산문화론'의 구성과 백두산 전유화(專有化)

'창바이산문화론'은 한문화(漢文化)를 주체로 하는 일체 다원의 복합문화로 창바이산문화를 규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는 만주족의 농경·수렵·유목 등이 결합한 물질문화·군정합일·상무숭실의 정치문화, 질박하고 자연스러우며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한 민속문화, 애니미즘과 다신 숭배의 샤머니즘 문화 등이 한문화와 결합하여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바이산문화의 기원 문제이다. 중국은 백두산 지역의 구석기 유적과 요하 유역의 '홍산문화(紅山文化)'를 창바이산문화의 기원으로 설정하여 창바이산문화가 중원문화의 기원이라는 가능성

16 王綿厚, 2022, 『長白山區系考古與民族要論』, 遼寧人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제기하고 있다. 둘째, 이 지역의 핵심 문화가 '한문화(漢文化)를 주체로 하는 일체다원화의 복합문화(中華民族多元一體文化)'라는 것이다. 한문화의 영향을 받아 성장한 다민족성을 강조하며, 동북지역의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한문화를 그 근원성에 두고 있다.

1. 창바이산문화의 기원

창바이산문화 연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홍산문화'였다. 이는 창바이산문화의 연원과 관련한 문제로 홍산문화의 대표적 유적지, 서요하 상류와 우하량 일대에서 제단·여신묘(女神墓)·적석총(積石塚)·옥 조각품 등의 유물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요서의 홍산문화를 황제~하·상족(商族) 시기의 유적으로 추측하는 동시에 한족 선조들이 이룬 가장 북쪽의 문명 발원지로 규정하려 한다. 또한 홍산문화가 하·상 문명의 형성과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것이다.[17]

이러한 시각은 홍산문화를 고상족[古商族(은인, 殷人)]이 세운 고국의 문화 유적으로 보고 건국의 주체를 고상족으로 추측하면서 동북의 최초 개발자를 은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 무왕이 소공을 북연에, 기자를 고조선에 왕으로 봉하기 이전부터 요하 유역에서 백두산 지역까지 상족이 거주하고 있었고, 기자의 동천과 연의 요동 5군(상곡, 어양, 우북평, 요서, 요동군) 설치가 이루어졌다며 이를 '창바이산문화'의 연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황제~하·상·주까지 중원 왕조가 동북을 관할했기에 창바이산문화를 최초로 개척한 주체가 연 왕조 혹은 기자 조선이라는 것이다.[18]

이와 달리 『산해경·대황북경(大荒北經)』의 신화("대황지중, 유산, 명왈불함, 유숙신지국")에 근거하여 숙신인이 처음으로 백두산 자락에 거주했고, 그 후 자

17 郭大順, 1995, 「遼寧史前考古與遼河文明探源」, 『遼海文物學刊』; 徐子峰, 2004b, 「紅山文化研究略論」, 『內蒙古師範大學學報』; 徐子峰, 2004a, 「紅山文化與中華文明的起源試析」, 『昭烏達蒙族師專學報』.

18 張碧波, 2006, 「朝鮮半島古文化淵源的考察」, 『東北史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손들이 읍루·물길·말갈·여진·만주족으로 번창하여 사방 수천 리의 백두산 지대를 개발·건설했으므로 '숙신인이 백두산 지구의 주인'이라는 주장도 있다.[19]

2. 한문화(漢文化)와 복합문화의 '창바이산문화론' 논리체계 확립

취쾌이는 창바이산문화를 정의하고 함축적 의미의 기초를 다진 인물이다. 그는 창바이산문화를 한문화를 주체로 하는 일체 다원의 복합문화로 규정하고, 농경·수렵·유목 등이 결합한 물질문화, 애니미즘과 다신 숭배의 샤머니즘 문화 등으로 규정하였다.[20] 이에 따르면, 창바이산문화론의 핵심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한문화를 근원으로 한다는 점이다. 즉, 창바이산문화의 본원성을 중원에 두고 다민족이 상호영향을 주고받아 성장하여 창바이산문화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동북지역 소수민족의 뿌리는 중원과 한족에 있다며, 종족적으로 동북지역의 만주족 문화를 강조하며 숙신계를 잇는 만주족의 문화는 한문화의 영향에 융합되어 탄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례로 만주족의 창바이산 봉선(封禪)은 만주족의 샤머니즘과 한족의 천명(天命)론이 결합한 결과물로 지역의 표상인 창바이산에 천제를 올린다는 융복합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간을 초월하여 물길(勿吉)의 창바이산 숭배사상, 여진족의 발상지 관념과 창바이 산신에 대한 제사로부터 이어진다는 논리이다.[21]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창바이산문화는 '길림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이자 중화민족다원일체문화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는 논지이다.

이러한 맥락과 함께 중국은 고구려 문화를 '창바이산문화' 연구 초기부터 강

19 刘厚生, 2006,「長白山考-关于長白山地区历史上的归属问题研究」,『中国历史地理研究』.

20 曲奎, 1995, 앞의 글.

21 李自然, 2000,「清代長白山封禅及其对满族社会文化的影响」,『內蒙古社會科學』; 汪亭存, 2009,「滿族長白山崇拜論析」,『民族文學研究』.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조해왔다. 동북지역은 만주족만의 역사적 공간이 아니었기에 고구려 민족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해야 하였다. 이에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연구원 장삐뽀를 중심으로 고구려는 중원문화의 영향으로 발전하고 상호영향을 주고받은 자신들의 지방정부라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논리를 개발해나가기 시작하였다.[22]

2000년대 들어 장삐뽀는 단군과 고구려의 시조가 다르며, 고구려는 한반도에서 성립했던 고려와 전혀 다른 왕조였다는 논지를 펼치고자 태백산을 거론하였다. 단군신화의 태백산은 한반도의 묘향산이고 백두산의 이칭인 태백산과는 전연 무관하다는 견해를 제기한 것이다. 창바이산과 그 지역 문화가 고대부터 중화민족의 소유였으며, 한반도의 소수민족은 창바이산과 관련이 없다는 얼토당토않은 우격다짐의 주장이다.[23] 이는 동북지역 소수민족의 문화가 상호 융합하여 탄생한 창바이산문화에서 한반도의 민족을 제외하려는 다분히 의도적인 주장이다.

창바이산문화론을 이끌어온 창바이산문화연구회 회장 장푸여우(張福有)는 고구려 문화와 발해 문화가 창바이산문화의 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24] 부회장으로 중국사회과학원 동북공정의 부주석을 맡았던 리우호성(刘厚生)은 장백산문화의 역사적 발전의 주체는 한족 문화라고 주장하였다.[25] 이를 통해 보면, 창바이산문화연구회가 창바이산문화론의 중심 이론을 만들어내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주장을 위한 논리 개발은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물리적으로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발해 상경용천부까지 이어지

---

22 張碧波, 1998, 「對古朝鮮文化的幾點思考」, 『內蒙古社會科學』; 李若遷, 1996, 「高句麗文化與中原文化淵源關係述略」, 『通化師院學報』; 李英·範犁, 1997, 앞의 글; 李殿福, 2001, 「高句丽民族的社会生活与习俗」, 『社會科學戰線』.

23 張碧波, 2002, 「長白山与太伯山考论」, 『滿語研究』.

24 张福有, 2004, 「高句丽, 渤海国与長白山文化」, 『長春师范学院学报』.

25 刘厚生, 2004, 「关于長白山文化若干问题的思考」, 『東北史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4 창바이산·발해문화권(문상명, 2022)

는 '창바이산 발해문화권'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2007년 중국 정부는 창바이산 풍경구(長白山景區)를 조성하여 백두산을 관광지로 본격적으로 조성하였으며, 2008년에 창바이산문화론을 홍보하기 위해 만주족의 역사, 생활 문화 등을 전시하는 장백산만족문화박물관을 세웠다. 2011년에는 둔화 류딩산 문화명승지(六鼎山 文化景區)에 발해 왕조가 탄생하고 청 황실의 발상지라는 장소의 의미를 부각하여 만주족 조상들을 모신 대규모 사당 청조사(清祖祠)를 세웠으며, 백두산에 제사를 지내기 위한 장소로 창바이산신사(長白山神祠)도 세웠다. 2014년부터는 이곳을 금나라 시기 '창바이산 신묘(長白山神庙)' 유적으로 선전하며 백두산 제사 처로 빠오마성 유적지(宝马城遗址)를 발굴하기 시작하였다. 2018년에는 중국의 유일한 여진족 고대 산림촌락으로 지린성 바이산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 국가 4A급 명승지 너인고성(讷殷古城)을 조성하였다. 이곳은 '만주족 청조 선조의 발상지(满清先祖发祥之地)'로서, 백두산을 중심으로 탄생한 여진족의 역사·종교·문화 등을 선전하고 홍보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듯 만주족의 거주지, 만주족의 창바이산 제사처, 만주족의 박물관 등 창바이산문화 공간을 형상화하였는데, 이는 위치적으로 백두산을 중심으로 서쪽의 바이산시, 북쪽으로는 상경용천부로 연결되어 있다.

2021년에는 '14.5'계획, 일명 '중국 국가문물국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존 12개의 유적을 삭제하고 빠오마성 유적을 추가하였으며, '세계유산등재 신청 예비 항목'에 '발해국 상경용천부 유적'을 언급하였다.[26] 이는 1951년 중국 국무원에서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로 공포된 '발해국 상경용천부 유적지 보호 총체 계획'에 따라 보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유적의 문화 가치에 대한 전체적인 보호 실현'을 사업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인근의 발해 유적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창바이산문화권까지 통합하여 중국 동북지역의 역사 문화 경관으로 개발하려는 의도이다. 즉, '발해문화권' 개발은 '창바이산문화론'과 맥을 같이하여 둔화에서 무단강(牡丹江)을 따라 장소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백두산과 발해 유적을 중국의 고대사에 편입하여 활용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27]

3. '창바이산문화론'의 확산과 '창바이산'의 전유화

2000년대 이후 중국은 백두산에 관한 역사적 귀속권을 강하게 주창하는 연구와 선전 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이는 '창바이산문화론'으로 집약되어 백두산이 중국만의 산이라는 귀속권 논리체계를 확립해나가는 과정의 하나가

26 문물보호(2021)29호: 중국 국가문물국 "대유적지 보호 및 이용 14.5 전문 항목 계획에 관한 통지「大遗址保护利用"十四五"专项规划」.

27 문상명, 2022, 앞의 글, 350~351쪽. 〈그림 4〉는 351쪽 그림을 참고한 것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되었다. 이러한 논리체계의 확립과 더불어 백두산의 관광지화와 지역경제 촉진화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중국 정부는 2007년 5월 백두산을 5A급[28]인 '창바이산풍경구(長白山风景区)'로 승격하였다. 규모는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구 안투현 이도백하진(二道白河镇) 남동쪽으로 면적이 52.42km²에 달한다. '창바이산 풍경구'는 산림과 야생 동식물 자연보호 지역으로 중국 최초로 UN '인간과 생태권' 보호망에 가입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백두산의 풍부한 산림과 생태, 지열과 온천, 빙설 기후 등을 바탕으로 스키와 문화·레저 관광을 구축하여 세계적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고자 접근성을 높였다.

이에 2008년 창바이산 공항을 개항하고 백두산과 동북지역의 주요 도시를 잇는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를 대대적으로 건설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급변하는 백두산 주변 환경 변화에 주목하여, 창바이산 공항 건설이 지린성 도로 교통량과 전체 교통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린성 도로망 개선을 위한 제안연구가 발표되기도 하였다.[29] 이에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2016년 11월 '선양(瀋陽)-자무쓰(佳木斯)'를 잇는 고속철도(沈佳高速铁路)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후 점차 구간별로 개통되었고 2021년 12월에 '창바이산-둔화' 구간이 공식 개통하였다. 그 결과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둔화-창바이산 고속철도(敦白高铁, Dunhua-Changbaishan High-speed Railway)를 이용한 총 이용객이 24만 7,000명에 달하여 하루에 2만 명 이상이 백두산을 관광하였다. 이러한 기반시설은 중국인의 장백산 관광 회복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한편, 이러한 교통 인프라는 안투현 얼따오바이허진(二道白河镇) 홍펀촌(红丰村)에 있는 14개 광천수 기업이 상하이, 광동, 강소 등의 성 및 도시에 광천수

28 국가 5A급 여유경구(旅游景區)는 국가관광경관지역품질평가위원회가 교통·유람·안전·보건·우편·통신·쇼핑·경영관리·자원 및 환경보호·관광자원·시장성·연 관광객 수 및 관광객 만족도 표본 등을 점수화하여 총점 1,000점 가운데 950점 이상 평가하여 명승지, 관광지로 지정받게 된 지역을 말한다.

29 王彦明, 2009, 「長白山机场建设对吉林省道路运输量影响研究」, 『吉林大學學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를 판매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였다. 총 6,649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총 28만 2,600톤의 광천수를 출하하였다.[30]

둔바이고속철도(敦白高铁)에 이어 시속 350km의 선양-창바이산을 잇는 선바이고속철도(沈白高速铁路, Shenyang-Changbaishan High-speed Railway)가 총 투자액 707억 위안을 들여 건설 중이다. 이는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31] 선바이고속철도는 선양의 선양베이잔(沈阳北站)에서 출발하여 우순베이잔(抚顺北站)-똥한지아잔(东韩家站越行站)-신빙잔(新宾站)-통화시잔(通化西站)-바이산동잔(白山东站)-완고우베이잔(湾沟北站)-송지앙허잔(松江河站)-창바이산잔(長白山站)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랴오닝성의 성도인 선양에서부터 노선이 연결된다는 점이다(그림 12). 베이징에서 선양까지 고속열차로 3시간, 비행기로 2시간 거리인 점을 고려할 때, 베이징에서 백두산까지 4~5시간이면 갈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중국 정부는 백두산과 연결하는 교통망을 항공,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으로 확충하여 백두산을 중심축으로 동북 3성의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그런데 이면에는 중국 정부가 백두산관광자원 개발을 촉진하여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 먼저 중국 정부는 백두산의 관광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32] 이에 창바이산을 브랜드화한 관광상품 개발과[33] 창바이산문화와 동북 경제 발전의 상관성에 주목하여 창바이산문화를 발전시켜 동북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려는 연구 등이 발표되었다.[34]

---

30 「"森林高铁"激活旅游资源 释放东北振兴新动能」, 『吉林省長白山保护开发区管理委员会』, 2022.8.15.

31 「沈白高铁最新进展!预计2025年底通车」, 『吉林省長白山保护开发区管理委员会』, 2022.8.8.

32 陈丽红, 2010, 「实施全区文化发展战略实现長白山文化大繁荣」, 『長白山管委会』.

33 刘成霞·张凤云, 2013, 「试论長白山文化统领旅游纪念品市场」, 『理必园地』; 季红颖, 2014, 「長白山品牌文化的核心价值及传播」, 『社会科学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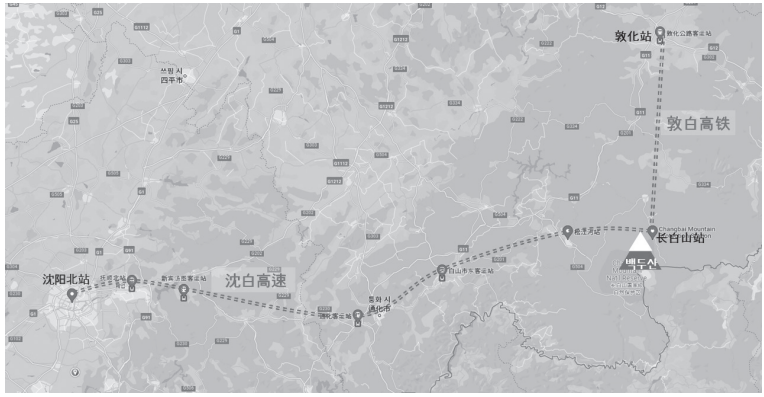


그림 5 둔바이고속철도와 션바이고속철도

이와 함께 중국은 2017년 2월 백두산을 '창바이산(長白山) 식생(植生) 수직 경관 및 화산 지모(地貌) 경관(Vertical Vegetation Landscape and Volcanic Landscape in Changbai Mountain)'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에 신청하였다. 이어 중국은 2020년에 'Mount Changbaishan'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신청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볼 때, 1994년 바이산시에서 제기된 '창바이산 문화' 연구는 당시 취쾌이가 발언한 것과 같이 동북지역 경제 발전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나아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서 동북지역 전략의 이론적 토대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대 후반부터는 창바이산문화 전파에 주목하여 미디어와 대중문화를 통한 전파와 확산에 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35]

---

34 唐利芹·劉珊珊, 2012,「長白山文化在東北地區經濟發展中的作用」,『人民論壇』; 赵静慧, 2012,「長白山文化在广场设计中的运用-以長白山保护开发区池北区長白山文化广场规划设计为例」,『人文论坛』; 唐利芹, 2013,「長白山文化与构建和谐的东北旅游经济运行机制」,『产业经济』.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Ⅳ. 맺음말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건설 측면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중국은 동북지역의 백두산의 역사와 문화에 주목하였다. 이에 1980년대 후반부터 백두산 관련 문헌을 수집, 정리하였고, 1990년대 중반 '지린성 창바이산문화연구회'가 조직되어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8년은 류젠펑이 백두산을 답사한 지 100년이 되는 해였는데, 창바이산문화연구회는 이를 기념하여 당시 답사를 재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백년고여』를 발간하였다. 류젠펑의 답사가 단순한 백두산 탐사뿐만 아니라 경계와 국경에 대한 시찰이었기에 창바이산문화연구회가 이에 주목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 푸단대학(复旦大学) 역사학과 부교수 마멍룽(馬孟龍)은 조선과 청의 국경을 조사하여, 1712년 백두산정계비를 세운 청 관리 무커딩(穆克登, 1664~1735)이 백두산에 오른 것은 정계 목적이 아닌 〈황여전람도〉를 제작하기 위한 것이었고, 정계비가 아닌 답사를 기리기 위해 세운 심시비(審視碑)라 주장하였다. 심지어 그는 비석이 세워졌던 곳은 백두산이 아닌 소백산이고, 토문강은 소백산에서 발원한다고 주장하였다.[36]

그런데 마멍룽이 제시한 〈그림 6〉을 보면 토문강은 소백산도 아닌 소백산 북서쪽 작은 산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 두만강과 합류한다. 한편, 장백산 동쪽으로 토문강색금(土門江色禽)이라는 또 다른 하천이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 두만강과 합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도에서 토문강색금은 토문강보다 북쪽의 지류이며 장백산에서 발원하고 있다. '토문색금(土門色禽)'은 토문강의 본래 만주어 명칭으로 '투먼서키연'이라 발음하며 모든 물의 근원(萬水之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1712년 세운 정계비의 '동위토문(東爲土門)'의 '토문'은

35 马晓虹, 2017, 「媒介与大众文化:長白山文化区域形象传播研究」, 『滿洲教育學報』.

36 馬孟龍, 2009, 「穆克登查邊與《皇輿全覽圖》編繪」, 『中國邊疆史研究』.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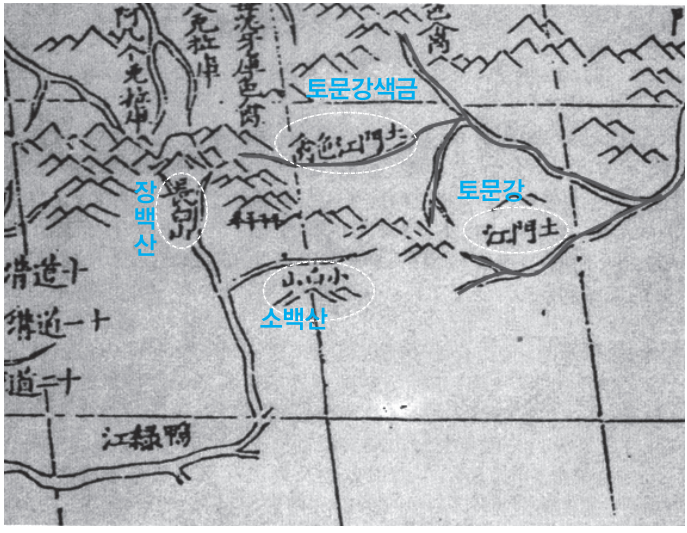


그림 6 〈성경전도(盛京全圖)〉 長白山 地區局部放大圖(馬孟龍, 2009)

위 지도 〈그림 6〉에서 '토문강색금'이다.

이처럼 중국에서 정계비를 부정하고 심지어 심시비가 소백산 부근에 설치되어 있다는 주장은 백두산 일대 국경 문제에 새로운 파문을 던지고 있다. 토문강을 두만강 상류의 지류 가운데 가장 남쪽에 있는 소백산에서 발원하는 홍단수(紅丹水)로 규정하려는 움직임도 이와 같은 논리이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백두산에서 남쪽으로 20km가량 떨어져 있는 소백산이 중국과 한반도의 국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창바이산문화론'은 중국의 소수민족과 변강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 있다. 중국의 변강은 지리적으로 국경을 접한 인접 지역이며 소수민족의 거주지로, 근대 중국의 위기와 갈등은 이 변강 지역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중 간의 갈등은 공간뿐만 아니라 역사적 의미의 변강에서 논란이 시작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백두산이 있다. '동북공정'과 '창바이산문화론'은 백두산 지역의 공간을 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탕으로 한 역사적 개념의 변강에 속한다. 표면적으로 동북공정은 2002년에 시작하여 2007년에 종료되었으나, 백두산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창바이산문화론'의 정립과 확산을 동북공정과 별개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재 '창바이산문화론'은 지린성을 넘어 중국 동북지역 전체 경제개발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토대로서 더욱 긴요한 동북문화의 상징이 되고 있다. 2015년에는 얼다오바이허진(二道白河鎭)에 장백산민속박물관(長白山民俗博物馆)을 건립하여 만주족의 생활 문화를 전시하고 홍보하였다. 백두산 부근에 거주했던 민족이 만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홍보하기 위한 시설물이다. 이는 2020년 10월 20일에 창바이산신묘유적연구소(長白山神庙遗址研究院)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기존에 전시해왔던 만주족의 민속문화·농사·어업·수렵·혼례·장례·결혼·무속문화 등의 풍습과 역사문화를 전시하고 있는 점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만주족의 애니미즘과 다신 숭배의 샤머니즘 문화 전시를 추가한 부분이 눈에 띈다. 일찍이 창바이산문화를 한문화를 주체로 하는 일체 다원의 복합문화로 규정하고, 농경·수렵·유목 등이 결합한 물질문화, 애니미즘과 다신 숭배의 샤머니즘 문화 등으로 규정한 취쾌이의 연구가 주목되는 부분이다.[37]

최근 2022년 9월 13일에는 지린성문물고고연구소, 지린성도서관, 지린성자연박물관, 지린성섭영가협회의 주관으로 지린성 도서관 내 고적박물관에서 '지린성 창바이산 문화전'을 개막하기도 하였다. 전시회에서는 역사적인 시대순으로 5개 영역으로 나누어 백두산의 역사문화를 전시하고 있으며, 문헌기록과 고고학의 실물유적을 통해 다채로운 백두산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 1년 동안 전시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38] 백두산과 만주족의 역사성을 강조해오던 중국이 백두산의 문화를 중국화하고 전유화하고자 이론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고 있는 생생한 현장이다.

중국은 동북지역 민족과 우리 한민족이 함께 공유해온 백두산의 역사와 문

37 曲奎, 1995, 앞의 글.

38 「"书载史, 物为证-吉林長白山文化展"开展」, 『吉林日报』, 2022.09.1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화까지 왜곡하는 '창바이산문화론'은 지양해야 한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형성해 온 백두산과 한민족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배제한다면, 중국의 문화적 패권주의라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백두산은 우리 한반도와 중국의 동북지역이 공유하고 있는 산이고 접경지대이며, 역사적으로 다양한 민족이 교류, 갈등, 공존하면서 새로운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냈다.

백두산에서 우리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가 배제되지 않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에 힘쓰고 이를 축적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시점에서 중국이 백두산을 전유화하여 독자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백두산을 등재하는 것을 저지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궁극적으로 중국과 함께 백두산을 세계유산에 공동등재할 수 있도록 북한과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 나아가 백두산을 남북 화해의 공간으로 승화시키고, 동북아 경제의 공동 발전을 위한 중심 허브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부록 1 『장백총서(長白丛书)』 목록

	서명	저자	연도	집수
1	东北农学研究	李澍田		研究系列; 2, 3, 10, 11
2	东疆文献汇编	李澍田 主編		초집
3	吉林纪略	李澍田 主編		5집, 研究系列18
4	吉林史志	李澍田 主編		1集, 2集, 4集
5	东北亚研究			研究系列; 6, 13, 17
6	清实录东北史料全輯	李澍田主编; 张璇如, 蒋秀松点校摘编		3집
7	东疆研究汇览			研究系列; 5, 12, 15
8	先清史料	刁书仁等点校		4집
9	吉林通志(清) 長顺修	長顺修; 李桂林纂; 吉林师范学院古籍研究所整理; 李澍田主点	1986.4	1집
10	海西女真史料	李澍田等选录	1986.5	2집
11	吉林地志; 鸡林旧闻录 . 吉林乡土志	魏声龢撰; [高阁元, 于泾, 邢国志标注] . [吉林省公署民生厅编]; [陈见微点校]	1986.6	1집
12	吉林外纪 . 吉林志略		1986.6	초집
13	松漠纪闻; 扈从东巡日录; 启东录; 皇华纪程; 边疆叛迹		1986.6	1집
14	延吉边务报告. 延吉厅领土问题之解决(清)	吴禄贞著; 朴庆辉标注 . 匡熙民著; 李东赫点校	1986.7	1집

	서명	저자	연도	집수
15	韩边外	李澍田 [ほか] 编	1987.6	1집
16	黑水先民传. 長白先民传(清) 黄维翰撰	徐翰逢, 张钧标注 . 郭殿忱, 陈见微编辑	1987.6	1집
17	長白汇征录. 長白山江岗志略(清) 张凤台编撰	黄甲元, 李若迁校注] . [(清) 刘建封撰]; [孙文采注	1987.8	1집
18	打牲乌拉志典全书; 打牲乌拉地方乡土志	金恩晖, 梁志忠校释	1988.5	2집
19	吉林志书 . 吉林分巡道造送会典馆清册	李澍田, 宋抵点校 . 曹殿举标点	1988.6	2집
20	香余诗钞. 吉林纪事诗[(清) 沈承瑞著], [(清) 沈兆禔著]	蒙秉书标注. 李亚超整理	1988.10	2집
21	成多禄集[成多禄著]	翟立伟, 成其昌编注	1988.11	2집
22	清实录东北史料全辑	李澍田主编; 张璇如, 蒋秀松点校摘编	1988.11	3집, 整理系列 1, 2, 3, 4, 5
23	永吉县志	徐鼐霖主修; 吉林师范学院古籍研究所整理; 李澍田等点校	1988.12	2집
24	東三省政略(清) 徐世昌等编纂	李澍田等点校; 吉林师范学院古籍研究所整理	1989.2	3집
25	宋小濂集[宋小濂著]	蒙秉书等编注	1989.3	2집
26	徐鼐霖集	王振中, 夏润生等编注	1989.6	2집
27	金碑汇释	陈相伟 [ほか] 校注	1989.7	2집
28	顾太清诗词; 桃花流水捕鱼人诗文	张钧, 孙屏	1989.7	2집
29	吉林农业档卷	马玉良, 王婉玉	1990.3	4집

	서명	저자	연도	집수
30	双城堡屯田纪略．东北屯垦史料[王履泰編輯]	陈见微整理．衣保中整理	1990.7	4집
31	东北农业近代化研究	衣保中	1990.7	研究系列 3
32	东北土地关系史研究	乌廷玉, 张云樵, 张占斌	1990.9	研究系列 2
33	东夏史料	赵鸣岐, 王慎荣	1990.12	4집
34	蒙荒案卷	张文喜等整理	1990.12	4집
35	珲春史志	安龙桢等整理	1990.12	4집
36	东疆史略	李健才, 衣保中编著	1990.12	研究系列 5
37	金史辑佚	傅朗云 编注	1990.12	4집
38	白山诗词	李雅超校注	1991.6	4집
39	朝鲜文献中的中国东北史料	王崇实等选编	1991.6	4집
40	吉林新志．吉林公署政书[刘爽著]	孟东风 [等] 整理．潘景隆等整理	1991.6	4집
41	珲春副都统衙门档案选编	吉林省档案馆, 吉林师范学院古籍研究所编	1991.8	5집
42	清实录中朝关系史料摘编, 宣和奉使高丽图经	云南社会科学院历史研究所摘编, 延边大学民族古籍研究所校核．(宋)徐兢撰; 朴庆辉标注	1991.8	5집
43	清实录中朝关系史料摘编．宣和奉使高丽图经	云南社会科学院历史研究所摘编; 延边大学民族古籍研究所校核．[(宋)徐兢撰]; [朴庆辉标注]	1991.8	5집
44	雷溪草堂诗集．松江修暇集．戊午客吉林诗．吉林杂咏．鸡塞集/[(清) 马長海撰]	[杨开丽校注]．[雷飞鹏等撰]; [蒙一丁校注]．[刘汝骥撰]; [李宏光注]．[黄兆枚撰]; [李宏光注]．[顾晋昌撰]; [李国芳注]	1991.8	5집

	서명	저자	연도	집수
45	清代东北参务; 清代吉林盐政	李澍田主编; 宋抵, 王秀华, 潘景隆等整理	1991.8	5집
46	满语文教程	刘厚生	1991.12	研究系列 9
47	中国东北通史	薛虹, 李澍田	1991.12	研究系列 1
48	美国与中国东北	王学良	1991.12	研究系列 6
49	吉林满俗研究 . 关东搜异录	尹郁山	1991.12	研究系列 7
50	乌拉史略	尹郁山, 政协永吉县文史委员会编	1991.12	研究系列 16
51	东北亚经济圈研究译丛	胡黎霞 [ほか] 编译	1992.3	研究系列 13
52	满族萨满跳神研究	石光伟, 刘厚生	1992.5	研究系列 8
53	东北岁时节俗研究, 东北农谚汇释	宋抵 著. 林仲凡汇释	1992.11	研究系列 10
54	清代宫廷萨满祭祀	刘厚生	1992.12	研究系列 14
55	东疆研究论集	刁书仁 等	1992.12	研究系列 12
56	清代满洲土地制度研究	乌廷玉 [ほか]	1992.12	研究系列 11
57	長白山区开发史稿	黄甲元	1992.12	研究系列 15
58	东北民俗资料荟萃	陈见微选编	1992.12	5집
59	东北旗地研究	刁书仁	1993.12	研究系列 22
60	刘大同集[刘大同 著]; 刘苹, 刘自力策划	安龙祯, 孟昭秋 整理	1993.12	5집
61	吉林纪略	杨立新 等 整理	1993.12	5集

	서명	저자	연도	집수
62	西团山文化研究	董学增	1993.12	研究系列 25
63	霍尔瓦特与中东铁路	吴文衔, 张秀兰	1993.12	研究系列 17
64	朝鲜三一运动史稿	杨昭全	1993.12	研究系列 20
65	旧满洲档研究	刘厚生	1993.12	研究系列 26
66	鲜卑新论; 女真新论	张博泉	1993.12	研究系列 19
67	中国东北农业史	衣保中	1993.12	研究系列 21
68	三不畏斋随笔	周克让	1993.12	研究系列 18
69	东北鼓吹乐研究	李来璋	1994.6	研究系列 29
70	箕子与朝鲜论集	张博泉	1994.12	研究系列 27
71	吉林近代史稿	孟东风	1994.12	研究系列 28
72	薛虹学术论集	薛虹	1994.12	研究系列 24
73	長白山文化论说	刁书仁, 衣兴国, 田毅鹏	1994.12	研究系列 27
74	近三百年东北土地开发史	刁书仁, 衣兴国	1994.12	研究系列 23
75	奉使辽金行程录	赵永春	1995.10	5集
76	廿六史中朝关系史料选编	刁书仁, 衣兴国	1995.12	整理系列
77	中朝关系史研究论文集	刁书仁, 衣兴国	1995.12	研究系列
78	涉外经济贸易: 清代民国吉林档案史料选编	吉林省档案馆	1995.12	整理系列

	서명	저자	연도	집수
79	东北史地考略	李健才	1995.12	研究系列/续集
80	明清东北史研究论集	刁书仁	1995.12	研究系列
81	中朝相邻地区朝鲜地理志资料选编	刁书仁 [ほか] 选编	1996.11	整理系列
82	东北地区燕秦汉長城和郡县城的调查研究	李健才, 刘素云	1997.5	研究系列
83	高句丽历史与文化研究	杨春吉, 耿铁华	1997.6	研究系列
84	西伯利亚民族学文集	林树山, 姚凤	1997.12	研究系列
85	清代东北民俗文化研究	陈见微	1999.12	研究系列
86	吉林省历史: 古代部分(从远古到1840年)	李健才, 刘素云	2003.10	研究系列
87	《同文汇考》中朝史料	赵兴元 [等	2003.12	整理系列

부록 2 '창바이산문화론' 관련 연구 논문 목록

연번	논문	주제		저자(소속)	연도	게재지	내용
1	试论長白山文化开发的战略意义	창바이산문화	창바이산문화의 함의	曲奎	1995	長白學刊	창바이산 지역의 유구한 문화를 알리고, 창바이산 정신을 선양하며 창바이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창바이산문화' 개발의 함의라고 소개
2	遼寧史前考古與遼河文明探源	홍산문화		郭大順	1995	遼海文物學刊	"랴오닝 선사고고학 및 요하문명탐사"로 홍산문화의 최신 고고학적 발견, 그 기원과 흐름 연구
3	高句麗文化與中原文化淵源關係述略	고구려문화	고구려는 중원문화의 영향으로 발전하고 중원문화에 영향을 준 중국의 지방정부임	李若遷	1996	通化師院學報	고구려의 문화가 경제 발전과 함께 발전하였다. 한자 사용, 중원의 고전 배우기, 학자에 대한 공물 추천, 조선에서 도입된 종교 수용이라는 점에서 고구려문화의 기원이 중국이다. 중원과 민족의 풍습 등 비옥한 중원 문화에 뿌리를 두었으며 고구려문화의 일부를 중원에 도입하여 중국문화의 번영을 도모하였다.
4	東明王史詩與高句麗傳說	고구려문화		李英·範犁	1997	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	
5	高句麗古墓的幾個問題	고구려문화		範犁	1997	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	
6	對古朝鮮文化的幾點思考	고구려 기원	단군과 고구려 시조가 다르며,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부임	張碧波	1998		고구려 민족의 기원 신화와 이른바 단군신화를 비교하는 것이다.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은 알에서 태어나 허보의 손자로 중국 문화계에 속하고, 단군은 신과 곰녀가 교미하여 태어난 두 신화의 다른 혈통이다. 고구려

연번	논문	주제		저자(소속)	연도	게재지	내용
							후손들의 왕들은 시조인 주몽만 숭배하고 주몽 위의 조상들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주몽이 단군 출신이라는 역사적 근거가 없고 고구려를 조선사 제도에 편입시키려는 잘못된 견해에 반박한다.
7	高句麗文化淵源考			張碧波	1998	北方文物	
8	清代統治者祭祀長白山的實質是封禪	창바이산 제사	청의 창바이산 제사는 국가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국가 의식임	李自然	1999	中央民族大學學報	창바이산에 제사를 지내는 청나라 통치자들의 활동 형태와 성격을 분석하였다. 이는 봉건 통치자들이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거행하는 국가 의식이었다.
10	走出高句丽历史研究的误区：试析古人在高句丽归属问题上的错误说法	고구려 기원	고구려는 한반도의 고려와 다른 것으로, 고구려는 중국의 중국 고대 지방 정부임.	劉子敏	2000	東疆學刊	고구려 민족은 고대 중국 소수민족이고, 고구려는 고대 중국 지방에 할거한 정권으로 이러한 인식은 중국 국내 학자들의 연구로 점점 더 확고히 되고 있다. 다만, 과거에는 고구려가 조선의 고대 국가이며, 심지어 한반도의 왕씨 고려가 고구려라는 혼동이 중국과 해외 학계에 퍼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부 혼돈의 기록 및 고대의 일부 잘못된 진술의 영향과 중요한 관계가 있다.
11	清代長白山封禪及其对满族社会文化的影响	창바이산 제사	청나라 창바이산 봉선은 한족 문화의 영향임	李自然	2000	內蒙古工業大學學報	청나라 창바이산 봉선(왕이 하늘과 땅에 왕의 즉위를 고하고, 천하의 태평함에 감사하는 의식)은 한족 문화의 영향을 받아들인 만주족 귀족들의 산물이다. 이러한 한족문화의 특성은 만주족의 민족의식, 조국 개념, 종교 개념 및 경제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연번	논문	주제		저자(소속)	연도	게재지	내용
12	高句丽民族的社会生活与习俗	고구려문화	고구려는 민족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지니고 있음	李殿福	2001	社會科學戰線	유구한 역사와 민족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지닌 고구려 민족은 의복, 음식, 주택, 교통, 혼례, 장례, 혼례, 노래와 춤, 여행, 사냥, 싸움, 귀신숭배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고구려 고대 벽화에 등장하는 고구려인들의 모습과 이미지, 고구려인들의 의복, 음식, 가옥 등의 형태를 통해 알 수 있다.
13	论長白山文化	창바이산문화	동북지방문화의 본질로써 창바이산문화의 중요성	李澍田, 衣保中 (北华大学原吉林师范学院)	2002		지역 문헌을 발굴·분류하고 지역문화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동북지방 문화의 함축성과 특징에 대한 이해가 점차 깊어졌다. 동북지방 문화의 명명, 함축, 특징에 대한 예비적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14	『中國高句麗史』序			徐德源	2002	吉林人民出版社	
15	加强長白山文化的开发与建设	창바이산문화	장복유 등 창바이산문화 연구자의 연구 찬탄	蒋力华 (中共白山市委吉林省教育厅)	2002		창바이산에 대한 저자의 관심은 세심한 구상과 창바이산문화의 발전과 건설에 대한 전향적 지향을 느낄 수 있다. 이는 현재 창바이산문화 연구에 일정한 영감과 지도적 의미가 있다.
16	長白山与太伯山考论	창바이산과 태백산	창바이산은 한반도와 무관, 단군신화의 태백산은 묘향산임	張碧波	2002	滿語研究	창바이산 이름의 유래와 중국 동북 민족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논문이다. 단군신화 속 동북족의 성산이자 왕의 고향이자 발상지인 태백산(묘향산)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창바이산과 그 지역문화가 고대부터 중화민족의 소유였으며 한반도의 소수민족이 창바이산과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묘향산은 단군신화의

연번	논문	주제		저자(소속)	연도	게재지	내용
							발상지이며 창바이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다. 역사적 고찰을 통해 영토의 정의, 민족의 소속, 문화권을 밝히고자 하였다.
17	话说長白山文化	창바이산문화	『诗经』, 『楚辞』에서 창바이산과 관련된 시를 모아 〈창바이산고전시집〉으로 집대성함.	张福有 (白山市委 白山市政协 吉林省文联 党组吉林省 委宣传部)	2002	东北史地	
18	長白山文化的界定及其他	창바이산문화		劉厚生	2003	中國邊疆史地研究	현재 중국 동북 지역의 학자들은 많은 이론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집단적 힘을 지닌 책을 집필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창바이산문화의 정의를 검토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19	试论長白山文化的特点	창바이산문화	창바이산은 동북지방 문화의 가장 중요한 하위문화 중 하나임.	李德山	2003	中國邊疆史地研究	창바이산은 중국 8대 명산 중 하나이자 5대 명승지 중 하나이며 천연자원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인적 문화 자원의 보고이며, 동북지방 문화의 가장 중요한 하위문화 중 하나이다. 창바이산은 예로부터 불함산, 도태산, 태백산 등으로 불렸으며, 금나라 때 여진족이 '창바이산'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20	長白山神话传说的文化解读	창바이산문화	창바이산 신화와 전설은 독창적 문학이지만 일종의 사회의 관념과 의식 형태의구현임	李昌善	2003	東疆學刊	창바이산은 '오산동제'의 명산이다. 그 신화와 전설은 독창적 문학이지만 일종의 사회 관념과 의식 형태의 체현이기도 하다. 또한 생활에서 기원하고 생활 문학보다 높은 문학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적으로 선진 문화의 구현이다.

연번	논문	주제		저자(소속)	연도	게재지	내용
21	長白山神话传说的文化解读	창바이산문화	창바이산 지역의 문화는 시기적으로 구별되며, 계속해서 중원의 문화를 포용하여 중국화하려는 역사적·문화적 동기가 명확함	喻權中	2003	學習與探索	창바이산 지역에서 발생한 중국 동북 고대 민족의 신화는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역사적 문화발전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앙 평원 문화의 심리적 경험과 발전 맥락에 적극적으로 통합하여 문화적 속성 측면에서 고대 동북 사람들의 중국화의 역사적·문화적 동기는 명확하다.
22	肅愼系長白山觀念透析			郝慶雲	2003	中國邊疆史地研究	
23	深化長白山文化研究	창바이산문화	창바이산문화는 동북 역사와 지리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이고, 중국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창바이산의 모든 민족이 사회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창출한 물질적 부와 정신적 부의 총체임	『東北史地』評論員	2004	東北史地	창바이산은 천연자원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문화자원의 보고이다. 창바이산문화 연구를 강화하는 것은 동북 역사와 지리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지역별로 문화의 종류를 구별하는 것은 문화를 분류하는 과학적 방법 중 하나이다. 문화사 연구에서는 유명한 산의 이름을 따서 문화를 명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화 이름은 그 특성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특성은 문화의 본질에 대한 계시이자 일반화이다. 창바이산은 동북아의 총사령관이며 지역 문화로 '창바이산문화'라는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동북지역 문화의 시작이다. 창바이산문화는 중국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창바이산의 모든 민족이 사회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창출한 물질적 부와 정신적 부의 총체이다.
24	長白山:中国古代民族人口交融的锋面地区	창바이산문화	창바이산 지역은 역사의 민족교류와 통합의 중요한 접촉 지역임. 여러 민족의 갈등과 교류, 통합 등이 일어나 역사적으로 발전함.	李樂營	2004	學習與探索	창바이산 지역은 역사의 민족교류와 통합의 중요한 접촉구이다. 화하, 예맥, 숙신, 동호족 계통의 충돌, 교류, 통합 등 동북 민족 활동의 중요한 무대였다. 다른 씨족 또는 씨족 내부의 혼합 과정과 사실 등은 명백한 역사적 연속성을 반영한다.

연번	논문	주제		저자(소속)	연도	게재지	내용
25	紅山文化研究略論	홍산문화	요하 유역에서 발달한 홍산문화	徐子峰	2004	內蒙古師範大學學報	홍산문화는 중국 신석기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고고학적 문화 중 하나이다. 1935년에 첫 번째 유적이 츠펑의 홍산 기슭에서 발견되었으며, 1954년에는 유명한 고고학자 인다(Yin Da)가 공식적으로 명명하였다. ① 홍산문화의 발견과 확인, ② 홍산문화의 기원, 특성 및 분포, ③ 홍산문화 단계와 유형, ④ 홍산 문화의 옥 유물, ⑤ 홍산문화 제단, 사원, 무덤 및 중국 문명의 기원이다. 이러한 연구는 어떤 측면에서는 충분하지 않지만, 일부 문제는 학문적 차이도 있다. 그러나 학계는 여전히 몇 가지 요점에 대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즉, 홍산문화는 신석기 시대 중국 북부에서 활력이 넘치고 발전 전망이 밝은 문화이며 홍산문화를 낳은 요하 유역은 중국 문명의 기원, 발상지 중 하나이다.
26	紅山文化與中華文明的起源試析	홍산문화	중국 북방 장성지대의 신석기시기 중요한 홍산문화	徐子峰	2004	昭烏達蒙族師專學報	홍산문화는 1935년에 발견되어 1954년 중국의 저명한 고고학자 尹达에 의해 공식 지정되었다. 이는 중국 북방 장성지대의 신석기 시기 중요한 문화이다. 홍산문화를 중국 문명의 기원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다. 중국 문명의 기원에서 홍산문화는 중요한 역사적 위치를 지닌다.
27	高句丽，渤海国与長白山文化	창바이산문화	창바이산문화는 동북문화의 상징이며, 고구려문화와 발해문화는 창바이산문화의 꽃임	张福有(吉林省社会科学院 吉林長春)	2004	長春 师范 学院学报	창바이산문화는 동북문화의 상징성을 갖는다. 과거 왕조의 문헌 기록과 유물, 각 왕조의 문인들이 창바이산문화를 빛나게 하였다. 고구려문화와 발해문화는 중국문화의 보고에 있는 멋진 꽃이며 창바이산문화는 본질적으로 기업가적 문화이며 창바이산문화의 생명력은 시대의 진보에 있다.

연번	논문	주제		저자(소속)	연도	게재지	내용
28	关于長白山文化若干问题的思考	창바이산문화	창바이산문화의 역사적 발전의 주체는 한족 문화임	刘厚生	2004	東北史地	창바이산문화는 창바이산 지역을 지리적 공간으로 하여 예맥, 숙신, 화하 등 민족의 문화를 바탕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다. 고유한 민족적 전통과 지역적 특성을 지닌 지역문화로 지속적으로 통합, 발전하는 데 한족문화가 주체가 되었다.
29	鸭绿江文化浅论	압록강문화	압록강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	郭爱东	2005	長白山日报	역사적으로 대천의 명하천은 모두 찬란한 문화를 낳고 양안의 백성을 길러냈다. 압록강은 중국 동북쪽에 있는 큰 강으로 수천 년 동안 압록강 양안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 유역에 속한 문화인 압록강문화를 만들어왔다.
30	论东北地区的山神信仰		동북산신은 역사적 "계층적" 구조를 가지며 여러 시대의 문화적 요소와 문화적 계층을 통합함	王玉光	2005	中央民族大學學報	동북 민족의 서식지인 산과 숲은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자원을 제공한다. 사람들의 생존과 번식, 의복, 음식, 주거, 교통은 항상 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산에 대한 의존이 신세계를 건설할 때 산신을 우두머리의 자리에 두고, 사람들의 삶은 전적으로 산신에게 달려 있다. 따라서 동북의 자연신 체계에서 산신은 인간의 물질적 생명에 가장 가까운 신이며, 동북의 세속적 삶의 주신이다. 초기 산신 개념은 산 자체를 신으로 삼았는데 이는 모호한 산신 개념이다. 고대인들의 산 신앙에서 직접 파생된 것으로 이미지와 신성의 관점에서 동북 산신은 다양화와 복합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물신의 진화법칙"-"인간신", 비주류인 산신의 형상은 한 시간, 한 장소에 한정되며 보편적인 형상은 없다. 동북 산신의 신은 하나의 신이 아니라 수렵신, 수호신, 조상신, 지휘신, 천신 등

연번	논문	주제		저자(소속)	연도	게재지	내용
							많은 신의 결합으로 민속문화의 유기적 일부로 산신 신앙은 세상에 존재하는 체계이며, 그에 상응하는 삶의 기능을 갖고 실현하고 있다. 동북 산신 신앙이 공간적·시간적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공적 구조에서 동북 산신을 고찰해야 한다. 산신, 의식 금기 및 산신 개념 시간 구조의 관점에서 중국 동북 산신에 대한 믿음은 역사적 "계층적" 구조를 가지며 여러 시대의 문화적 요소와 문화적 계층을 통합한다.
31	長白山文化与东北地区经济发展	창바이산문화와 동북 지역 경제	동북경제 발전 활성화를 위한 창바이산문화의 역할을 인식해야 함	曲岩	2006	長白学刊	동북 지역 경제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발전 과정에서 번영에서 쇠퇴하는 과정을 겪었으며 오늘날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배경으로 동북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동북 경제 활성화에 창바이산문화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32	長白山考－关于長白山地区历史上的归属问题研究	창바이산의 역사상 귀속문제	숙신인이 백두산 지구의 주인	刘厚生	2006	中国历史地理研究	
33	朝鲜半岛古文化渊源的考察	기자조선	한반도 북부 기자조선은 중국문명 전파의 증거임. 중국문명은 한반도의 고대문화에 큰 영향을 미침	張碧波	2006	東北史地	한반도 북부에 기자조선 체제가 수립된 것은 중국 동북 문명의 역사의 시발점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문명은 한반도의 고대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반도 고대 문명의 출현을 촉진하고 반도 문명의 역사 과정을 가속화하였다.

연번	논문	주제		저자(소속)	연도	게재지	내용
34	長白山区满族历史文化研究述评	창바이산 만주 역사 연구 동향	창바이산의 지역적 특성과 만주족의 민족적 특성을 결합한 미시적 연구 필요	劉彦臣 · 谷芃	2007	通化師范學院學報	1980년대 이후 창바이산의 만주 역사문화 분야 국내 학계의 업적을 고찰하였다. 창바이산은 만주족과 그 선조들의 발상지이자 거주지로서 학계에서 널리 주목을 받았고 창바이산의 만주 역사 및 문화 연구 분야에서 유익한 성과를 거두었다. 창바이산의 지역적 특성과 만주족의 민족적 특성을 결합한 미시적 연구가 필요하다.
35	長白山文化述要	창바이산문화	창바이산문화는 길림의 상징적 문화브랜드임	張福有	2007	長白學刊	창바이산문화는 광범한 문화이며 길림의 상징적 문화브랜드이다. 창바이산 아래에서 일련의 새로운 고고학적 발견은 창바이산문화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광범위하고 심오하며 중국문화의 원천 중 하나임을 증명한다. 창바이산의 시는 창바이산문화의 정수이며 시로 역사를 증명할 수 있다. 창바이산문화도 시대에 발맞추고 혁신을 거듭하여 길림성 지역 특색의 우수한 문화정신을 힘차게 계승하고 경제사회의 건전하고 빠른 발전을 위한 강력한 문화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36	長白山旅游区探险旅游开发研究	창바이산관광	창바이산 지역은 모험관광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개발해야 함	任明明	2008	西南大學學報	관광산업이 점차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사회적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람들의 문화적 취향의 점진적인 향상에 따라 단일 관광 수준에 기초한 관광상품은 더는 관광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대신 참여도와 경험도가 높은 심도 있는 관광상품으로 변모해야 한다. 모험 관광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하에 탄생, 발전하였다.
37	穆克登查邊與《皇輿全覽圖》編繪	정계비	정계비 부정, 토문강이 소백산에서 발원함	馬孟龍	2009	中國邊疆史研究	목극등은 정계가 아닌 〈황여전람도〉를 제작하기 위해 답사를 간 것으로 정계비는 심시비이다. 답사한 곳은 소백산으로 토문강은 소백산에서 발원한다.

연번	논문	주제		저자(소속)	연도	게재지	내용
38	"長白山"考辨	창바이산 명칭	태백산은 창바이산이 아니고, 불함산은 소금같이 희지만 짜지 않다는 의미	苗威	2009	中國邊疆史地研究	"창바이산"의 명칭을 분석한 것으로 불함산이 창바이산의 가장 오래된 명칭이며, 그 의미는 색깔이 소금과 같이 희지만 짜지 않다는 의미이다. 도태산, 태백산(太白山) 등은 창바이산의 다른 이름이며 개마대산과 단단대령은 창바이산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산맥이다. 『삼국사기』의 '태백산(太白山)'과 『삼국유사』의 '태백산(太伯山)'은 창바이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백두산'과 '창바이산'은 한국 문학에서 복잡한 의미를 가지지만, 중국의 창바이산을 언급할 때 둘의 차이는 없다.
39	开拓传承長白山文化的历史壮举	창바이산문화	창바이산문화연구회원의 창바이산 답사 의미는 창바이산문화를 개척하고 계승하기 위한 역사적 위업임	吳文昌	2009	東北史地	오늘 우리는 강의 원류에서 "고난 백년"의 출범식을 거행하였다. 유건봉의 창바이산 답사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창바이산의 문화 연구를 주도하는 장복유 동지가 길림성 창바이산문화연구회 동지들을 이끌고 100년 전 유건봉의 답사길을 따라 다시 답사하게 된 것은 매우 가치 있다.
40	纵论辽河文明与長白山文化和草原文化－中国文化"三大地域文化"论	동북공정	중국 창바이산문화(고고학)와 고구려 기원과 영토의 동북공정	王绵厚	2009		중국 동북부(중국 북부 포함) 지역 문화의 분포와 함축은 국내외 역사, 고고학 및 민족 문화사를 포함하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국경 주제이다. 2000년에 『东北古族古国文化研究』가 출판되었다.
41	長白山机场建设对吉林省道路运输量影响研究	창바이산 관광	창바이산 공항 건설이 길림성 도로 교통량과 교통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길림성 도로망 개선 방안 제시	王彦明	2009	吉林大學學報	창바이산 공항 건설이 길림성 도로 교통량과 교통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길림성 도로망 개선을 위한 제안과 앞으로 연구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였다.

연번	논문	주제		저자(소속)	연도	게재지	내용
42	滿族長白山崇拜論析	창바이산 제사	만주족이 창바이산 일대에서 대대로 번성했고 창바이산의 자연숭배는 국가 제사로 발전	汪亭存	2009	民族文學研究	만주족과 그들의 조상은 창바이산 일대에서 대대로 번성했고 창바이산의 자연숭배는 아주 일찍 시작되었다. 이러한 숭배는 만주족의 샤머니즘적 문화신앙에서 유래했으며 만주족의 역사적 발전을 동반하였다. 민간 제사는 국가 제사의 형태를 낳고 그 둘은 서로 얽혀 상호작용하며 창바이산 숭배의 무속 문화적 함축은 끊임없이 풍부해졌다.
43	实施全区文化发展战略实现長白山文化大繁荣	창바이산 관광	창바이산 관광 수입을 증가시키자	陈丽红(長白山管委会)	2009	改革与创新	대중의 문화적 요구가 더욱 향상되어 창바이산 문화산업의 위대한 발전을 위한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문화관광 산업 체인, 창바이산 문화관광을 강조하고, 창바이산 문화관광 종합 수입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44	長白山旅游產業集群形成與演化研究	창바이산 관광		高雪嬌	2010	東北師范大學學報	창바이산 관광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45	滿族文化研究的盛會“長白山與滿族文化研討會暨第二屆滿族文化研究 机構聯席會議”綜述	창바이산 학술회의	중국 창바이산 및 만주문화 세미나 및 제2차 만주 문화 연구 기관 공동 회의	呂萍	2010	滿族研究	2010년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장춘사범대학 만주문화연구소는 “중국 창바이산 및 만주 문화 세미나 및 제2차 만주문화 연구기관 공동회의”를 개최하였다. 대련대학, 내몽골민족대학, 흑룡강대학, 길림대학, 동북사범대학, 랴오닝성 민족연구소, 흑룡강성 민족연구소, 길림성 민족연구소, 길림성 민족간부학교, 길림성 사회학원 과학계, 길림사범대학, 장춘대학, 장춘사범대학 등 20개 대학 및 40개 이상의 과학 연구 기관에서 100명 이상의 전문가와 학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창바이산과 만주 문화에 대한 심층 토론을 진행하였다.

연번	논문	주제		저자(소속)	연도	게재지	내용
46	吉林打造長白山文化品牌		길림, 창바이산문화 브랜드 구축	常雅维	2010	中国文化报	
47	以長白山文化推動長吉圖開发	창바이산문화와 동북지역 경제	창바이산문화로 장길도의 발전 도모	張福有	2010	吉林日報	
48	大力推進長白山文化研究與建設	창바이산문화	창바이산문화 연구 건설을 적극 추진	張福有	2010	東北史地	
49	大力推进長白山文化研究与建设	창바이산 학술회의	제6회 길림성 창바이산문화 세미나 장춘에서 개최	张福有(中华诗词学会吉林省長白山文化研究会吉林省高句丽研究中心吉林省高句丽研究中心专家委员)	2010	長白山文化	2010년 7월 19일 창바이산관리위원회, 길림성 창바이산문화연구회, 길림성 도서관이 공동으로 제6회 길림성 창바이산문화 세미나를 장춘에서 개최하였다. 성당위원회 상무위원이자 선전부장인 荀凤栖는 수년에 걸쳐 길림성 건설 문화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도자, 전문가, 동지들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50	深化長白山文化的精神與內涵		창바이산문화의 정신과 함의	曹保明	2010	吉林日報	

연번	논문	주제		저자(소속)	연도	게재지	내용
51	試論長白山民間傳統文化的地域性特色	창바이산문화	창바이산 민속 전통문화의 지역적 특성	龔振東	2011	商業文化(下半月)	창바이산은 조국의 북동쪽 경계에 위치하며 중국과 한국의 경계산으로 창바이산의 이름은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시대의 변화, 창바이산의 독특한 지역성, 기이한 자연경관, 매혹적인 민담과 전설, 다민족 통합의 우수한 역사 문화 유산, 창바이산의 장기적인 발전과 건설의 과정에서 이곳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은 창바이산의 지역적 특색을 지닌 민족 민속 문화 예술을 창조하고 형성하였다.
52	论地域文化与东北旅游经济和谐机制的构建	창바이산문화와 동북 지역 경제	창바이산문화와 동북 관광 경제의 조화로운 운영 메커니즘 구축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	唐利芹(吉林师范大学大学外语部)	2011	吉林省教育学院学报	창바이산문화는 동북 3성 경제 발전과 활성화, 특히 동북 관광 경제의 운영 메커니즘 구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창바이산문화와 동북 관광 경제의 조화로운 운영 메커니즘 구축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지역문화를 논하였다.
53	長白山文化在東北地區經濟發展中的作用	창바이산문화와 동북 지역 경제	창바이산문화와 동북경제 발전의 변증법적 관계에 주목하고 문화발전으로 동북 지역 경제의 속도를 촉진해야 한다.	唐利芹·劉珊珊	2012	人民論壇	창바이산문화는 중국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며 역사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창바이산문화는 변화, 복잡성 및 다양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동북 경제 발전에서 동북 인민을 고무시켜 동북 경제의 활성화와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창바이산문화와 동북 경제 발전의 변증법적 관계에 주목하고 문화발전으로 동북 지역 경제의 속도를 촉진해야 한다.
54	長白山文化的新觀念和新戰略			余秋雨	2012	吉林日報	
55	長白山文化：代表吉林文化的標志性符號	창바이산문화와 동북 지역 경제	길림문화를 상징하는 의미로서 창바이산문화	張福有	2012	吉林日報	

연번	논문	주제		저자(소속)	연도	게재지	내용
56	長吉圖開发開放先導區要注重長白山文化建設	창바이산문화와 경제발전	창바이산 문화 건설은 창바이산의 개발 및 개방 시범구에서 주목해야 한다.	張福有	2012	協商新報	
57	長白山文化的几个基本问题	창바이산 명칭	창바이산 명칭 1000주년 기념 포럼	张福有	2012	吉林日报	이번 포럼이 창바이산 명칭 1000주년을 맞아 개최된 것은 우연의 일치로 큰 의미가 크다. 창바이산은 풍부한 제품을 가진 천연자원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풍부한 문화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58	漢文化是長白山文化的主體			田子馥	2012	吉林日報	
59	長白山文化在广场设计中的运用－以長白山保护开发区池北区長白山文化广场规划设计为例	창바이산문화와 동북 지역 경제		赵静慧(延吉市规划勘测设计院)	2012	人文论坛	도시 광장의 건설은 지역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하며 광장 계획의 초점은 창바이산문화를 반영하고 자연 생태 경관을 보호하여 인간 경관과 자연 경관이 통합되어야 한다. 계획 및 디자인은 "문화, 생태 및 사람"에 중점을 둔 디자인 규모를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생생한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광장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시의 특성을 강조해야 한다.
60	長白山文化与构建和谐的东北旅游经济运行机制	창바이산문화와 동북 지역 경제		唐利芹(延吉市规划勘测设计院, 吉林师范大学大学外语部)	2013	产业经济	동북 3성 경제 발전에서 창바이산문화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동북 지역 관광 경제의 조화로운 운영 메커니즘 구축에 영향을 미친다. 창바이산문화의 정의와 그 특징, 창바이산문화 탐색과 조화로운 건설 등의 측면이 있다.

연번	논문	주제		저자(소속)	연도	게재지	내용
61	试论長白山文化统领旅游纪念品市场	창바이산문화 관광상품 개발	창바이산 관광이 급증하는데, 관광시장은 준비가 안 됨	刘成霞张凤云(抚松县文化广电新闻出版局)	2013	理必园地	여러 역사적 이유로 창바이산 관광의 발전과 건설은 비교적 늦고 창바이산 관광 기념품 시장도 빈약하며 품종이 적고 품질이 낮으며, 장식 수준이 낮고 직원도 부족하다. 창바이산 관광이 급증함에 따라 창바이산 관광 기념품 시장을 확대하고 문화 콘텐츠를 주입하여 문화 취향을 개선하며 창바이산문화로 관광 기념품 시장을 이끌어야 한다.
62	長白山品牌文化的核心价值及传播	창바이산문화 관광상품 개발	창바이산 브랜드 문화의 핵심 가치와 전파	季红颖(北华大学经济管理学院讲师)	2014	社会科学版	창바이산문화는 길림성의 귀중한 문화자원이며 길림성의 브랜드 문화이다. 창바이산의 브랜드 문화를 적극적으로 퍼뜨리는 것은 길림성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길림성의 문화 사업과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창바이산 브랜드를 세계에 전파하는 데 의의가 있다. 창바이산 브랜드를 강화하고 문화유산이 있는 특색 있는 관광 기념품을 출시하고 대기반 시설 건설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63	论長白山文化对明初辽东文人诗歌题材之影响－以《辽东志》,《全辽志》所收录诗歌为例	창바이산 문학	명나라 초기에 요동의 문인들이 지은 시가에 나타난 창바이산문화	徐栋梁, 史 丽	2014	中北大学学报	명나라 영락 7년에 누에르간두(Nuergandu) 사령부가 동북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이래로 동북 지역은 중원문화에 점점 더 스며들었고 시 창작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다. 명나라 초기에 요동의 문인들이 지은 시는 지리적인 이유로 창바이산문화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중 『요동지』와 『관요지』에 수록된 시가 특히 대표적이다. 두 권의 책을 대상으로 창바이산문화가 당시 요동 지역 문인의 시 주제에 미친 영향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주로 경관을 중시하고 시사를 소홀히 하는 데 반영된다. 불교 사원을 강조하고 도교 사원을 무시하며 요동의 특성과 관습이 묘사되어 있다.
64	長白山文化内涵的价值探析	창바이산문화	창바이산문화는 “대공정”이다.	张晓晨(延边大学马克思主义学院)	2014	东北文化	

연번	논문	주제		저자(소속)	연도	게재지	내용
65	发展長白山文化旅游的思考	창바이산문화		朱先宁(吉林大学)	2014	석사논문	長白山 文化旅游 发展 思考
66	围绕長白山文化的设计教育思考	창바이산문화와 지역경제 발전	길림성은 창바이산문화의 중심지로 창바이산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고 길림성의 문화 소프트 파워 강화 필요	范凡(吉林艺术学院设计学院)	2015	教学心得	길림성은 창바이산문화의 중심지로 창바이산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고 길림성의 문화 소프트 파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라의 문화 창의 산업의 활발한 발전의 맥락에서 창바이산 문화산업의 발전은 창바이산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창바이산 문화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지역 디자인 교육의 새로운 아이디어의 논의가 필요하다.
67	媒介与大众文化:長白山文化区域形象传播研究	창바이산문화의 전파	미디어와 대중문화: 창바이산문화권의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马晓虹(东北师范大学)	2017	만주교육학원학보	창바이산문화는 중국문화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오랜 역사와 독특한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학자들의 관심과 연구 대상이었다. 21세기 초부터 창바이산 문화의 전승은 창바이산문화 연구의 새로운 분야가 되어 새로운 연구 분야를 형성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문화 연구, 문학의 관점과 연구 방법으로 창바이산의 문화 지역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을 현대에 적용하고자 한다.
68	長白山文化区域形象传播策略	창바이산문화의 전파		马晓虹, 陈昊(东北师范大学)	2017	만주교육학원학보	全平台媒介; 全媒体内容; 体验式营销; 長白山文化; 策略
69	長白山文化区域形象传播的未来研究方向	창바이산문화의 전파	창바이산 문화지구 이미지 보급의 향후 연구 방향	马晓虹, 朱洁蕾(东北师范大学)	2017	学习·解读	독특한 지역문화로서 창바이산문화가 인간 사회 문명의 전 과정에서 갖는 중요성과 가치가 크다. 따라서 창바이산문화의 지속적인 탐구, 심도 있는 해석 및 효과적인 보급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연번	논문	주제		저자(소속)	연도	게재지	내용
70	長白山文化的符号特征及传播价值	창바이산문화의 전파	창바이산문화의 상징적 특성과 보급 가치	朱洁蕾(东北师范大学)	2017		
71	关于長白山文化地位与媒介形象落差的思考	창바이산문화의 전파	창바이산의 문화적 위상과 미디어 이미지의 괴리에 대한 고찰	彭程,林海曦(吉林大学文学院)	2017	中国民族博览	창바이산은 중국 동북 지방의 명산으로 창바이산의 문화는 장기간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통합, 전진, 발전하여 지역 특색의 문화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문화 보급 과정에서 미디어의 낮은 관심과 단일 홍보 수단으로 인해 창바이산문화는 효율적으로 홍보되지 못하였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사용하여 창바이산의 문화 이미지에 대한 사고를 최적화하고 대책을 제시하여 창바이산의 문화 이미지 보급을 위한 더 나은 전략과 운영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창바이산 지역의 미디어 다양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72	吉林地域文化首次得到全景展现－大型丛书《文化吉林》隆重出版	창바이산문화	길림 지역 문화가 파노라마 뷰로 전시되었다. －대규모 시리즈 '문화 길림' 출판	吉林省社会科学院	2017	『东北史地』杂志社	창바이산 문화건설을 강화하기 위한 길림성당위원회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길림성 지역 역사 문화자원의 가치를 깊이 발굴, 활성화하고 창바이산문화로 대표되는 지역 특색 문화를 전시하고 홍보해야 한다.
73	休闲时代下的文化和旅游空间规划与产品转型研究－以長白山文化和旅游空间规划为例	창바이산문화 관광	문화 관광 공간 기획 및 제품 변형 연구－창바이산의 문화 및 관광 공간 계획	金云峰, 万亿, 杨丹(同济大学建筑与城市规划学院景观学系, 上海)	2019	中国城市林业	문화 관광 기획, 공간 배치 아이디어 및 관광상품 유형의 관광 개발 모드의 세 가지 측면에서 현재 관광 개발 및 문화 관광 계획을 분석하였다. 현재의 관광 개발과 문화 관광 계획에서 전통적 관광 양식과 생태학적 보호 간의 갈등, 산재된 레이아웃 유형의 수렴, 내부 경쟁의 통합 부족, 계절적 특성의 두드러진 영향 등 일련의 문제를 분석한다. 흐름, 개발 모드 및 공간 구조의 변형을 제안하였다.

연번	논문	주제		저자(소속)	연도	게재지	내용
74	長白山文化发展与当代传播路径研究	창바이산문화 관광	창바이산 문화발전과 현대적 소통의 길에 관한 연구	王欢(吉林工程技术师范学院传媒学院)	2019	과기전보	長白山文化, 历史发展, 传播价值, 传播路径
75	長白山文化在文创产品设计中的研发路径	창바이산 관광 제품	문화 및 창조 제품 디자인을 통한 창바이산 문화의 연구 및 개발 경로	商业文化(刘思宏)	2021		창바이산은 거의 4,000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 상징물로서 창바이산의 문화 창조적인 브랜드를 육성하고 길림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만들어 길림성의 지역 문화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문화 및 창의 제품 디자인에서 창바이산 지역 문화의 가치 포지셔닝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목표로 하는 혁신 및 발전 경로를 제안하고자 한다.
76	中华文化之生命智慧与長白山文化精神－第二届長白山文化论坛召开	창바이산 포럼	중국문화 생활 지혜와 창바이산 문화정신－제2회 창바이산문화포럼 개최	卢菡清(通化师范学院)	2021	통화사범대보도자료	
77	基于長白山植物元素的文化旅游创意产品设计研究与应用	창바이산 관광 제품	창바이산 식물원소 문화관광, 창의적인 제품 디자인 연구 및 응용	王华建, 邹克瑾(吉林工程技术师范学院)	2021	吉林工程技术师范学院学报	
78	以声音形式传播長白山传统文化故事策略研究	창바이산문화 전파	창바이산의 전통문화 이야기를 소리의 형태로 전파하는 전략 연구	陈坤, 温海涤(長春师范大学)	2021	Journal of News Research	
79	長白山科技与文化旅游融合发展的路径研究	창바이산 관광 개발	창바이산 과학기술과 문화관광의 통합발전 경로 연구	许骏, 潘欣, 魏阙(長春工程学院教授)	2021	东疆学刊[長白山文化研究]	

참고문헌

자료

「『장백산강강지략』(백화문본) 출판 발행」, 『인민넷』(조문판), 2016.11.24.

「중국 신압록강대교 정비 활발 … 완공 8년 만에 개통하나」, 『연합뉴스』, 2022.9.26.

「"书载史, 物为证-吉林長白山文化展"开展」, 『길림일보』, 2022.9.14.

「通化师范学院長白书院成立」, 『길림일보』, 2022.10.21.

『중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조성협력 및 활용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森林高铁"激活旅游资源 释放东北振兴新动能」, 『吉林省長白山保护开发区管理委员会』, 2022.8.15.

「沈白高铁最新进展!预计2025年底通车」, 『吉林省長白山保护开发区管理委员会』, 2022.8.8.

단행본

刘厚生 외, 2014, 『中國長白山文化』, 吉林省: 吉林出版社.

王季平, 1989, 『長白山志』, 吉林省: 吉林文史出版社.

王綿厚, 2022, 『長白山區系考古與民族要論』,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李澍田任 总主编, 1986, 『長白丛书』, 吉林省: 吉林省古籍整理研究大型系列工程.

张福有 외, 2003, 『長白山文化论丛』, 吉林省: 时代文艺出版社.

논문

문상명, 2022, 「중국의 '백두산공정'과 대응」, 『동북아역사논총』 제76호.

윤휘탁, 2007, 「중국(中國)의 동북(東北) 문화강역(文化疆域) 인식(認識) 고찰(考察)-"장백산문화론(長白山文化論)"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55권.

_____, 2015, 「중국의 '백두산의 중국화' 전략」, 『동북아역사논총』 48.

_____, 2018, 「'滿洲(長白山) 主人論': '만주 및 백두산의 역사적 주체'에 대한 중국의 인식론」, 『숭실사학』 41권.

_____, 2019, 「중국에서의 '滿洲(長白山) 主人論'의 表象化 작업과 의미」, 『중국사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구』 119권.
조법종, 2006, 「中國의 '長白山文化'論과 高句麗」, 『白山學報』 76.
_____, 2007, 「장백산문화론의 비판적 검토」, 『白山學報』 79.
_____, 2014, 「중국 고구려 세계유산의 현황과 활용」, 『고구려발해연구』 50.

季红颖, 2014, 「長白山品牌文化的核心价值及传播」, 『社会科学版』.
曲奎, 1995, 「试论長白山文化开发的战略意义」, 『長白學干』.
郭大順, 1995, 「遼寧史前考古與遼河文明探源」, 『遼海文物學刊』.
唐利芹, 2013, 「長白山文化与构建和谐的东北旅游经济运行机制」, 『产业经济 』.
唐利芹·劉珊珊, 2012, 「長白山文化在東北地區經濟發展中的作用」, 『人民論壇』.
馬孟龍, 2009, 「穆克登查邊與《皇輿全覽圖》編繪」, 『中國邊疆史研究』.
马晓虹, 2017, 「媒介与大众文化:長白山文化区域形象传播研究」, 『滿洲教育學報』.
範犁, 1997, 「高句麗古墓的幾個問題」, 『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
徐子峰, 2004a, 「紅山文化與中華文明的起源試析」, 『昭烏達蒙族師專學報』.
_____, 2004b, 「紅山文化研究略論」, 『內蒙古師範大學學報』.
王素玲, 1994, 「"長白山文化研讨会"综述」, 『社会科学战线』.
王彦明, 2009, 「長白山机场建设对吉林省道路运输量影响研究」, 『吉林大學學報』.
汪亭存, 2009, 「滿族長白山崇拜論析」, 『民族文學研究』.
刘成霞·张凤云, 2013, 「试论長白山文化统领旅游纪念品市场」, 『理必园地』.
劉子敏, 2000, 「走出高句丽历史研究的误区:试析古人在高句丽归属问题上的错误说法」, 『東疆學刊』.
_____, 2004, 「紅山文化研究略論紅山文化研究略論紅山文化研究略論」, 『內蒙古師範』.
刘厚生, 2004, 「关于長白山文化若干问题的思考」, 『東北史地』.
_____, 2006, 「長白山考-关于長白山地区历史上的归属问题研究」, 『中国历史地理研究』.
李若遷, 1996, 「高句麗文化與中原文化淵源關係述略」, 『通化師院學報』.
李英·範犁, 1997, 「東明王史詩與高句麗傳說」, 『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
李自然, 2000, 「清代長白山封禅及其对满族社会文化的影响」, 『內蒙古社會科學』.
李殿福, 2001, 「高句丽民族的社会生活与习俗」, 『社會科學戰線』.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張碧波, 1998,「對古朝鮮文化的幾點思考」,『內蒙古社會科學』.
_____, 2002,「長白山与太伯山考论」,『滿語研究』.
_____, 2006,「朝鮮半岛古文化渊源的考察」,『東北史地』.
张福有, 2004,「高句丽, 渤海国与長白山文化」,『長春师范学院学报』.
赵静慧, 2012,「長白山文化在广场设计中的运用-以長白山保护开发区池北区長白山文化广场规划设计为例」,『人文论坛』.
陈丽红, 2010,「实施全区文化发展战略实现長白山文化大繁荣」,『長白山管委会』.

기타 자료

吉林省图书馆, https://www.jllib.com/cbsy/sygk/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중국의 '창바이산문화론'과 백두산 전유화(專有化)

문상명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건설 측면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북 지역에서는 백두산의 역사와 문화에 주목하였다. 이에 1980년대 후반부터 백두산 관련 문헌을 수집, 정리하였고, 2000년대 '지린성 창바이산문화연구회'가 조직되어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연구회는 한문화를 주체로 하는 일체 다원의 복합문화로 '창바이산문화(長白山文化)'를 규정하고 백두산 관련 고고·민족·민속·문학 등의 자료를 집대성하였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논리 체계의 확립과 더불어 백두산의 관광지화와 동북 지역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중국 측의 '창바이산문화론'은 한민족(韓民族)이 오래도록 함께 공유해온 백두산의 역사와 문화를 자신들의 것으로 왜곡하고 전유(專有)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이는 또 다른 형태의 동북공정인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더불어 '백두산문화론'을 정립,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주제어: 백두산, 창바이산문화론(長白山文化論), 창바이산문화연구회, 『장백총서』, 『장백산문화논총』, 『중국장백산문화』, 지린성, 발해, 만주족, 창바이산, 문화공정, 고구려, 한문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China's 'Changbai Mountain Cultural Theory' and Occupying of Baekdu Mountain

Moon Sangmyeoung

After reform and opening up, China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ulture in terms of economic construction. The Northeast region paid attention to the history and culture of Mt. Baekdu. From the late 1980s, research began in earnest by collecting and organizing documents related to Mt. Baekdu. 'Changbai Mountain Culture' was defined as a complex culture of pluralism with the Korean culture as the main body. It has compiled archaeological, ethnic, folklore, and literature related to Mt. Baekdu, and has been active by organizing the 'Changbai Mountain Cultural Research Society of Jilin Province'.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such a logical system, the tourism of Mt. Baekdu and the promotion of the local economy are progressing simultaneously. However, the development of 'Changbai Mountain Cultural Theory' that distorts the history and culture of Mt. Baekdu, which the people of the northeast region and the Korean people hav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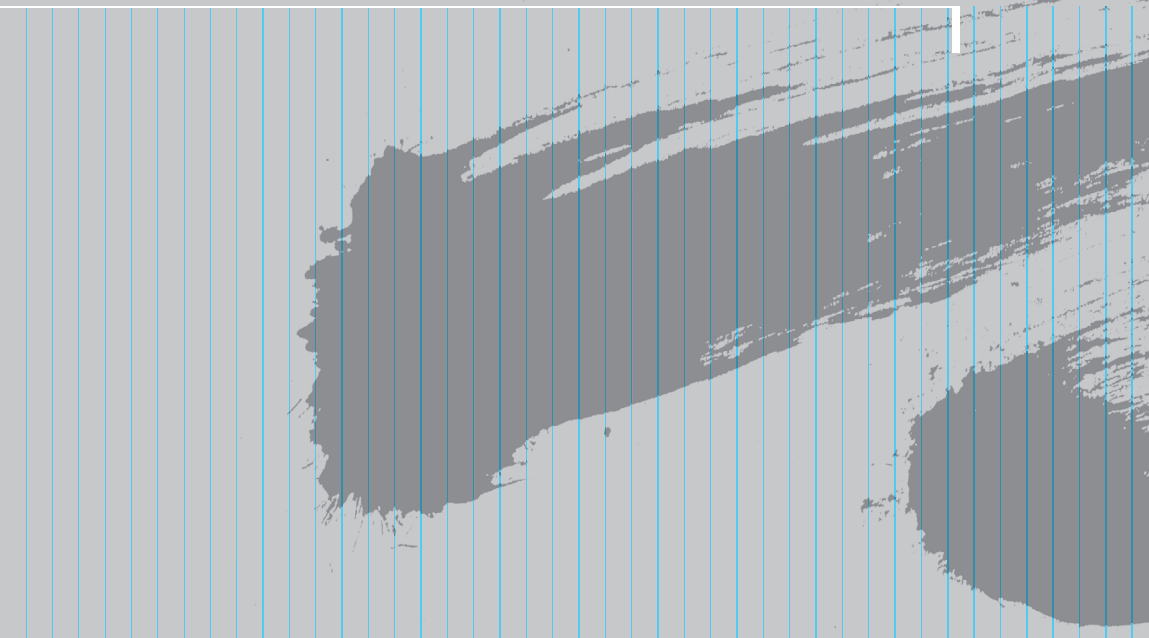
shared together, should be avoided.

Keywords: Baekdu Mountain, Changbai Mountain Culture Theory, Changbai Mountain Cultural Research Society, Jilin Province, Balhae, Changbai Mountai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2..78.005

SNS 기록을 통해 본 대중의 가야 인식

–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정선화 | 동국대학교 역사교육학 박사

I. 머리말
II. 이론적 배경
III. 네트워크 구조로 본 대중의 역사인식
IV. 키워드 출현 빈도에 따른 역사인식의 변화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역사 대중화’는 20세기 후반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역사가 전문역사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시대를 넘어 대중과 함께하는 역사로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교육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1]하거나 ‘역사 소비’와 ‘역사 대중화’[2]에 대한 시론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또한 ‘공공역사’[3]라는 용어가 국내 학술지에

---

* 투고: 2022년 10월 15일, 심사 완료: 2022년 11월 7일, 게재 확정: 2022년 11월 14일

1 金希敎, 2001, 「인문학의 위기와 대학역사 교양과목 개혁의 필요성」, 『역사교육』 80; 박순준, 2002,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역사교육-대학에서의 역사교육을 중심으로-」, 『역사와경계』 44; 박순준, 2006, 「대학 역사 지식의 생산과 소비 디지털 역사학을 향하여」, 『역사와경계』 59.

2 박종기 외, 1999, 「전문성 갖춘 대중역사서가 필요하다」, 『출판저널』 265; 오종록, 1998, 「역사 대중화에 대한 제언」, 『한국역사연구회회보』 31; 박순준, 2002,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역사교육-대학에서의 역사교육을 중심으로-」, 『역사와경계』 44; 박은봉, 2005, 「[역사의 현재성과 대중성 3] 역사의 대중화와 대중역사서」, 『내일을 여는 역사』 20; 신용균, 2005, 「[역사의 현재성과 대중성 4] 역사 교육의 현재」, 『내일을 여는 역사』 20; 최우철, 2005, 「[역사의 현재성과 대중성 5] 역사와 마주하는 대학생의 오늘」, 『내일을 여는 역사』 20; 하세봉, 2006, 「한국에서 동양사의 유통과 소비」, 『역사와경계』 59; 박순준 외, 2008, 「역사소비를 위한 역사교육의 프레임 전환」, 『역사와경계』 68; 백승종, 2010, 「성공적인 대중 역사서, 어떻게 쓸까?-하나의 역사적 성찰」, 『역사와현실』 76; 설혜심, 2014, 「여성과 소비의 역사」, 『여성과 역사』 20; 오항녕, 2016, 「역사 대중화와 역사학 역사의 향유와 모독 사이」, 『역사와현실』 100; 이동기, 2016, 「공공역사: 개념, 역사, 전망」, 『독일연구』 31; 조세열, 2016, 「다시 역사의 대중화를 생각하며」, 『내일을 여는 역사』 62; 최광식, 2016, 「한국고대사의 대중화와 대중문화화」, 『한국고대사연구』 84; 최희수, 2016, 「체험형 역사콘텐츠와 한국고대사: 역사적 상상력의 제고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84; 주성지, 2018, 「역사대중화와 디지털 역사자료-역사소비의 변곡-」, 『역사민속학』 55; 김정인, 2019, 「역사소비시대, 대중역사에서 시민역사로」, 『역사학보』 241; 최광식, 2019, 「나의 한국고대사 연구와 삶」, 『한국고대사연구』 9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처음 나타난 이후 2016년부터 역사학 및 역사교육학 분야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4] '공공역사'와의 개념적 유사성을 언급하며 동의어 혹은 대체 가능한 용어로서 '실용역사', '응용역사'[5]와 과거의 사실을 바탕으로 타자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공공성의 역사학'[6]과 '공식역사'[7]라는 개념도 등장하였다. 반면 역사 대중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8] 이처럼 역사는 교육현장에서부터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

3 1970년대 미국에서 최초로 사용된 '공공역사(public history)'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학술지의 각주(이동기, 2011, 「현대사박물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역사비평』 96, 275쪽)에 처음 등장하였다. 이후 2016년 학술지 본문에 본격적으로 소개(이동기, 2016, 「공공역사: 개념, 역사, 전망」, 『독일연구』 31, 130쪽)되었다.

4 이동기, 2016, 위의 글; 정대성, 2016, 「독일 68운동의 '공공역사' I : 대학생 베노 오네조르크 추모 조형물」, 『독일연구』 32; 김명희, 2018, 「두 전쟁박물관과 젠더 인지적 공공역사의 가능성: 이행기 정의의 코뮤니타스」, 『젠더와 문화』 11(2); 나인호, 2018, 「시민을 위한 역사교육으로서의 독일의 공공역사(Public history)」, 『역사교육논집』 69; 김기봉, 2021, 「4차 산업혁명 시대 역사교육의 목표와 방향」, 『역사교육』 159; 노명환, 2021, 「디지털 아카이브와 큐레이션에 기초한 디지털 역사학, 공공역사, 트랜스내셔널 역사: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에 기초한 세계의 평화·상생을 향하여」, 『역사문화연구』 79; 손석영, 2021, 「'공공역사'에 기초한 학교 역사교육으로의 변화 가능성 탐색」, 『역사와교육학회』 33; 이하나, 2021, 「공공역사 논의의 한국적 맥락과 공공역사가들」, 『역사비평』 136; 방지원, 2022, 「공공역사가로서의 역사교사를 말하다」, 『역사비평』 139; 허영란, 2022, 「공공역사로서의 구술사와 지역사」, 『역사비평』 139.

5 마르틴 뤼케·이름가르트 췬도르프 지음, 정용숙 옮김, 2020, 『공공역사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3~25쪽, 31쪽.

6 백영서, 2010, 「사회인문학의 지평을 열며-그 출발점인 '공공성의 역사학'-」, 『동방학지』 149, 13~21쪽.

7 조흡(Heup Cho), 2017, 「[영화이야기] 밀정과 대중역사」, 『대한토목학회지』 65(1), 74~75쪽.

8 박준성, 1991, 「대중역사교육의 전개와 과제」, 『역사와현실』 6; 권중달, 1998, 「한국에서 역사지식의 대중적 확산」, 『중앙사론』 10-11합집; 임지현, 1998, 「역사의 대중화, 대중의 역사학-시민사회의 역사학을 향하여」, 『중앙사론』 10-11합집; 오종록, 1999, 「역사학의 전문성과 대중성」, 『정신문화연구』 72; 장병인, 1999, 「대중역사에서 나타난 표절과 왜곡」, 『역사비평』 47; 이지애, 2001, 「역사의 대중화 역사교육의 대중화」, 『역사교육의 방향과 국사교육』, 윤세철 교수정년기념논총.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인터넷에는 대중에 의한 역사의 소비 흔적이 저장되어 있다. 예컨대 고대인의 삶을 읽을 수 있는 목간자료나 고문서 등은 당대인이 직접 제작한 것들이다. 이를 통해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역사는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9]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반 대중의 역사에 대한 관심은 그들이 직접 남긴 데이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2,057만 가구 중 2,056만 가구(99.9%)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며 만 6세 이상 인구의 95.8%가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웨어러블 기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 중 스마트폰 보유율은 95.7%로 가장 높다.[10]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이용 시간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장기화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소통 및 정서적 교류 활동으로 인스턴트 메신저(98.3%) 및 SNS 이용률(68.9%)도 증가 추세이다.[11]

SNS의 데이터 분석은 미리 설정한 표본 집단을 조사대상자로 삼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광범위한 일반인이 직접 기록하고 공개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대중의 관심과 인식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12] 대중은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중의 역사인식은 사회 속에서 형성되고 변

---

9 E. H. Carr 지음, 김택현 옮김, 1997, 『역사란 무엇인가』, 까치, 50쪽; 이선관, 1999, 「역사에서의 연속성」, 『현상학과 현대철학』 12, 21쪽; 이윤갑, 2007, 「한국 역사학의 새로운 길 찾기-민족주의 역사학의 전망-」, 『한국학논집』 35, 51쪽; 허승일, 2009, 『다시,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88쪽; 엄찬호, 2013, 「일본의 한국사 왜곡과 역사치유」, 『한일관계사연구』 44, 251쪽; 최광식, 2016, 「한국고대사의 대중화와 대중문화화」, 『한국고대사연구』 84, 6쪽.

10 문용식, 2022, 『2021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쪽, 55쪽.

11 문용식, 2022, 위의 책, 36쪽, 61쪽.

12 김주아 외, 2019,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영재교육에 대한 대중 인식 분석」, 『교육과학연구』 50(4); 김태현 외, 2019,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빅데이터 활용 특징적 요소 분석」, 『교육혁신연구』 29(2); 권은영, 2019,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본 대중의 '조기영어교육'에 관한 인식: 유튜브를 중심으로」, 『영어학』 19(4); 김소영 외, 2021, 「빅 데이터를 통한 고교학점제의 대중인식 분석」, 『교육방법연구』 33(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형되기도 한다.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개인이 지향하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이슈를 좇아 자신만의 기록을 남긴다. 개인이 공개한 기록은 타자에 의해 공유되면서 또 다른 기록으로 이어져 특정 집단의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하고 사회적 이슈를 형성하기도 한다. SNS에서 활동하는 대중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모임을 갖는 동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불특정 다수는 방대한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관심사를 텍스트로 쏟아낼 뿐이다.[13] 그러한 의미에서 SNS는 대중의 역사인식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 할 수 있다.[14] 이 글에서는 대중이 SNS에서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여 가야의 역사를 기록하고 공유하는지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단어와 단어 간 패턴과 핵심 키워드의 출현 빈도와 네트워크 구조를 정확한 통계 수치로 산출할 수 있는 기법이다.[15] 이 글은 SNS에 나타난 대중의 가야 관련 역사인식의 변화 과정을 키워드의 출현 빈도와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핵심 키워드의 출현 빈도가 높다는 것은 문서 내에서 차지하는 키워드의 위상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16]

분석 대상 데이터는 수집 가능한 범위 내에서 네이버의 블로그, 카페, 지식iN과 다음의 블로그, 카페에서 수집한 자료이다. 또한 인식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시기에 출현하기 시작한 '일본서기'이다. 둘째, '역사인식'이라는 키워드가 주변의 어떤 키워드와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역사인식'에 관한 데이터도

13 가브리엘 타르드 지음, 이상률 옮김, 2012, 『여론과 군중』, 지도리, 16~19쪽.

14 최광식, 2016, 앞의 책, 7쪽; 안병우, 2017, 「역사연구와 기록: 현대 역사학과 기록학의 지향과 과제」, 『역사학보』 234, 400쪽; 윤영진·황재진, 2021, 『가볍게 떠먹는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제이펍, 56쪽; 이정락 외, 2022, 『빅데이터와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영남대학교 출판부, 22쪽.

15 이정락 외, 2022, 위의 책, 68쪽.

16 허수, 2018, 「언어 네트워크 연구를 통해 본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역사인식-내재적 발전론의 의미구조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75(1), 13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수집·분석하였다. 셋째, 대중의 역사인식과 역사교과서에 담긴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분석도 병행하였다. 지식iN은 누구나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쌍방교류의 공간이다. 지식iN의 답변은 답변자의 전문가 지수, 지식수준에 따라 등급이 책정되며 답변의 채택과 추천 수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17] 이 서비스는 젊은층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 고객층도 두터운 편이다.[18] 대중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SNS 데이터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통계학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의 내면이나 인식 세계와 같은 질적 해석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19]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병행 검토하였다. '데이터는 스스로 말하고 있다'[20]라고 생각하지만 데이터가 스스로 명확한 의미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21] 양적·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역사교과서는 대중의 일원인 청소년들의 역사인식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비교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17 황주성 외, 2010, 「집단지성의 유형에 따른 참여자 특성분석: 위키백과와 지식iN에 대한 한미 비교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4), 270쪽.

18 강주연 외, 2019,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청소년상담1388' 빅데이터 분석:2011~2018 네이버 지식iN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7(2), 132쪽.

19 전재근, 2017, 『통계학, 빅데이터를 잡다』, 한국문학사, 46~53쪽.

20 토머스 대븐포트·김진호 지음, 김진호 옮김, 2013, 『말로만 말고 숫자를 대봐』, 엠지엠타북스, 221~223쪽; 매일경제기획팀·서울대 빅데이터센터 지음, 2014, 『빅데이터 세상』, 매일경제신문사, 45~48쪽.

21 김진호, 2016, 『빅데이터가 만드는 제4차 산업혁명』, 북카라반, 127~128쪽; 낸시 두아르테 지음, 권혜정 옮김, 윤영진 감수, 2021, 『데이터 스토리-데이터를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바꾸는 방법』, 한빛미디어, 4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Ⅱ. 이론적 배경

1. 선행 연구

먼저 역사학 분야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연구는 첫째,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 역사학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점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22] 특히 이상국은 한국사 연구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모색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제간 융합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23] 사료가 갖는 역사성에 대한 이해 없이 자의적으로 데이터를 가공함으로써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를 범하거나 과대 해석을 도출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역사학 이외의 학문분야에서 시도한 연구들 중 일부는 역사학적으로 검증하지 않은 채 수량 데이터로 전환한 후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나타나는 오류를 피하기 어려웠다. 전산화된 빅데이터를 양적 분석을 위해서는 한국사 자료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둘째,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직접 적용한 연구는 허수, 정선화, 서호준이 있다. 허수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역사인식을 분석하였다.[24] 제1차 교육과정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7종의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역사인식 용어' 16개에 관한 단어 빈도와 공기어(共起語)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역사교과서를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한 첫 사

22 이상동·박충식, 2020, 「From Data Agents: 한국 디지털 역사학의 현주소와 AI 시대의 역사학」, 『HOMO MIGRANS』 22, 178~187쪽; 구현주, 2021, 「개념사 연구에서 빅데이터 연구방법의 활용 가능성」, 『개념과소통』 27, 301~304쪽; 김기봉, 2021, 「AI 시대 역사학, 컴퓨터 역사학」, 『사림』 76, 18~22쪽.

23 이상국, 2016, 「'빅데이터' 분석 기반 한국사 연구의 현황과 가능성: 디지털 역사학의 시작」, 『응용통계연구』 29(6), 1007~1020쪽.

24 허수, 2018,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례인 만큼 역사교육학적 의미가 크다. 정선화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가야사 관련 서술 내용을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석하여 핵심 키워드의 출현 빈도를 중심으로 가야사 인식과 이미지텔링에 관해 연구하였다.[25] 서호준은 한국 고대사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 성과인 김철준(『동방학지』 6, 1963)부터 정동준(『역사학보』 243, 2019)까지의 논문 요지를 대상으로 1950년대부터 70년간의 연구 성과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내용을 제시하였다.[26]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의 대중화로 실증적 연구가 가능한 시대인 만큼 적극적인 활용으로 연구 방법의 다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SNS에 저장된 데이터는 학술논문지, 언론기사, 역사교과서와는 달리 사전에 없는 단어와 은어, 신조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솔루션에서 형태소/정제 분석이 끝난 후에도 후처리 과정에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소모된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사에 대한 패턴이나 인식을 키워드의 출현 빈도와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연구라고 판단된다.[27]

기존의 가야사 관련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활기를 띄기 시작한 데 반해 일본에서는 광개토왕비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더불어 자국의 고대사를 규명하기 위해 에도시기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28] 초창기 가야

---

25 鄭善花, 2022,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가야사 인식과 이미지텔링」, 『역사교육』 164.

26 서호준, 2021, 「빅데이터와 한국 고대사 연구경향」, 『대구사학』 144.

27 정의룡, 2018,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 2001년~2009년의 정권별 패턴을 중심으로」, 『문화기술의 융합』 4(1); 허수, 2018, 앞의 글; 문주영, 2019, 「SNS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비서'인식 연구」, 『비서·사무경영연구』 28(3); 한신 외, 「블록형 코딩프로그램을 활용한 지구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인식 및 과학적 태도 변화 연구」,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12(2).

28 이성시 지음·박경희 옮김, 2001, 『만들어진 고대-근대 국민 국가의 동아시아 이야기』, 삼인; 이영식, 2001, 「[사실, 이렇게 본다1] 임나일본부에 대한 연구의 역사」, 『내일을 여는 역사』 6; 김태식, 2004, 「고대 한일 관계사의 민감한 화두, 칠지도」, 『고대로부터의 통신』, 푸른역사; 延敏洙, 2005,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古代史 서술과 歷史認識」, 『한국사연구』 129; 鄭孝雲, 2007, 「「새역사교과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 관련 연구는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논쟁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연구 환경이 다소 열악하였다. 일본은 『일본서기(日本書紀)』 신공기(神功紀)의 '삼한정벌론'과 '남부경영론' 관련 기사를 내세워 한반도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역사적 근거로 삼고 있다. 이러한 서술의 토대는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가 제기한 '임나일본부설'이다. 오늘날 스에마쓰의 '임나일본부설'을 사실(史實)로 받아들이는 학자는 거의 없으며 극복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임나일본부설'은 일본 고등학교 『일본사(日本史)B』 교과서에서 '임나일본부설'을 뒷받침하는 사료로 활용되고 있다.[29] 또한 가야사 관련 사료의 절대적 부족은 가야사를 명징하게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상대적으로 『일본서기』에는 가야사 관련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 이와 같이 『일본서기』 또는 '임나일본부설'을 연상시키는 가야의 이미지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삼국에 비해 미숙하고 부족하여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나약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30] 하지만 현재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에 의해 『일

와 任那日本府」, 『일어일문학』 35; 남재우, 2011, 「식민사관에 의한 가야사연구와 그 극복」, 『한국고대사연구』 61; 백승옥, 2019, 「4~6세기 加耶의 對百濟·新羅 관계」, 『한국고대사연구』 94; 金善民, 2015, 「日本古代史研究의 研究動向과 課題-共存의 歷史學-」, 『동양사학연구』 133; 이노우에 나오키, 2015, 「일본학계에서의 광개토왕비 연구의 성과와 과제」, 『동북아역사논총』 49; 김기섭, 2018, 「일본 중등 역사교과서의 임나일본부설」, 『百濟文化』 58; 야마사키 마사토시, 2018, 「일본의 가야사 연구-임나일본부설을 중심으로-」, 『가야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I, 주류성; 전진국, 2019, 「「任那興亡史」의 논지와 학술적 영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64; 鄭善花, 2021b, 「『日本史B』교과서의 廣開土王碑 관련 서술과 역사인식」, 『역사교육』 159; 정효운, 2021, 「가야사의 듀얼리즘과 연구사의 스펙트럼」, 『한일관계사연구』 71; 전덕재, 2022, 「『삼국사기』 기록을 통해 본 가야 인식의 변천 고찰」, 『역사와경계』 123.

29 鄭善花, 2021b, 위의 글, 168~182쪽.

30 정선영 외, 2011, 중학교 『역사(상)』, 미래엔, 61쪽; 정선영 외, 중학교 『역사①』, 미래엔, 2014, 62쪽; 이문기 외, 2014, 중학교 『역사①』, 두산동아, 54쪽; 한철호 외, 2021,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 16쪽. 가야의 국가 이미지는 '삼국'과의 정치발달단계를 비교하는 것에 한정된 것이며 가야의 대외 관계나 주변국과의 교류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는 아니다. 따라서 특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록되어 있는 이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본서기』에 관한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지거나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면서 『일본서기』를 참고하는 연구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31]

2. 분석 방법

이 글에서 사용한 데이터 분석 도구는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매트릭스 분석(Matrix Analysis)이다. 이를 기반으로 바차트(Bar Chart), 엔그램(N-gram), 에고 네트워크(Ego-Network), 네트워크 그래프(Network graph),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엣지리스트(Edge List)로 나타내었다.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는 메시지를 가장 호소력 있는 독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인간이 인식하는 것 가운데 거의 75% 정도가 시각을 통한 것이라고 한다.[32] 데이터 시각화 작업은 데이터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하여 데이터의 변화

같은 삽화는 가야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 특히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에 유일하게 수록되어 있다. 鄭善花, 2022,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가야사 인식과 이미지텔링」, 『역사교육』 164.

31 이 글의 작성에 참고가 된 논문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김태식, 1988, 「6세기 전반 加耶南部諸國의 소멸과정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1; 白承忠, 1993, 「任那復興會議」의 전개와 그 성격」, 『역사와세계』 17; 유우창, 2012, 「6세기 전반 가라와 나제동맹의 대립」, 『역사와 세계』 41; 노중국, 2012, 「6세기 전반 대가야의 왕위 교체와 정책의 변화-異腦王에서 嘉悉王으로의 왕위 교체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66; 백승충, 2014, 「안라국의 대외관계사 연구의 제문제」, 『한국민족문화』 51; 이재석, 2014, 「『일본서기』를 통해 본 안라국과 주변제국-특히 왜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51; 洪性和, 2016, 「『日本書紀』 繼體·欽明紀에 보이는 新羅와 倭의 관계」, 『한일관계연구』 54; 남재우, 2018, 「가야의 국가발전단계와 가야사연구」, 『역사와세계』 54; 이영식, 2018, 「가야제국의 발전단계와 초기고대국가론」 『한국고대사연구』 89; 백승옥, 2019, 앞의 글; 이연심, 2020, 「6세기 전반 가야와 신라의 관계」, 『한국고대사연구』 99; 신가영, 2020, 「가야 諸國과 고구려의 관계」, 『한국고대사연구』 98; 정효운, 2021, 앞의 글. 이 외에 『日本書紀』는 가야를 지배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 시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일본인 연구자의 견해도 있다. 田中俊明, 2009, 『古代の日本と加耶』, 東京: 山川出版社, 7쪽.

32 전재근, 2017, 앞의 책, 34~3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추이를 보여주고, 문장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여 스토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33]

연구의 첫 과정으로 한글 자연어 처리를 위해 수집한 데이터의 형태소 분석을 진행하였다. 형태소는 더 이상 분석 불가능한 가장 작은 의미 요소를 말한다.[34] 인터넷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대중의 감성이 표현된 형용사나 형용동사가 많이 등장한다. 체언류를 포함하여 형용사도 함께 형태소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때 동사의 어간이 추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후처리 작업을 통해 불용어를 삭제하는 클리닝 작업을 하였다. 불필요한 외자 '등', '것', '때'와 '있', '없', '많'을 모두 삭제하였다. 최종 정제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업로드한 파일의 크기가 1차 정제데이터와 비교해 용량 차이나 없거나 더 크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자체에서 업로드 파일을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도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가야사'는 형태소 분석에서 '가야사'로 추출되어야 하는데 '가야사를', '가야사의' 등과 같이 조사가 분리되지 않았다. 추출된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하였다.[35]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 텍스트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하는 연구 영역이다. 수집 데이터의 비정형 텍스트를 컴퓨터가 인식하도록 정형화하여 빈도에 따른 키워드를 선별해주는 기능을 한다.[36] 텍스트 마이닝 과정이 끝나면 엔그램

---

33 윤영진·황재진, 2021, 앞의 책, 43쪽.

34 송민, 2017, 『텍스트 마이닝 Text Mining』, 청람, 48쪽.

35 한글은 영어와 달리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통용되는 사전으로는 완벽한 분석이 불가능하다(황치곤 외, 2021, 「코사인 유사도를 기반의 온톨로지를 이용한 문장유사도 분석」, 『한국정보통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5(1). 441쪽). 따라서 후처리 과정에서 반복 수행되는 클리닝 작업의 중요성을 이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36 김유신 외, 2016,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한 연구동향 분석 및 패턴 방법론 개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8쪽; 국립중앙과학관, http://www.science.go.kr/; 김민정 외, 2017, 「텍스트 마이닝과 연관 관계 분석을 이용한 건축역사 용어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5(1), 444쪽; 송민, 2017, 위의 책, 2쪽. 전재근, 2017, 앞의 책, 33쪽; 이상동·박충식, 2020, 앞의 글, 187쪽; 구현주, 2021. 앞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과 바차트, 에고 네트워크로 분석 결과를 추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엔그램 지수가 높을수록 문서 전체에서 위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심 주제라 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중복 출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트릭스 1-mode에서 UTF-8로 인코딩해 업로드하면 n × n 형식의 행렬 구조로 키워드 간 관계가 추출된다. 매트릭스 단어 분석은 키워드와 키워드의 상관관계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출현 빈도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는 수치로 추출되기 때문에 수치가 높다고 반드시 키워드 간 상관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다만 상관성이 높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키워드의 출현 빈도가 변화할 때 짝을 이루는 다른 키워드도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에 주목한다.[37] 매트릭스 단어 분석을 기반으로 추출된 엣지리스트는 수만 자의 단어짝으로 엑셀파일에 생성된다. 따라서 추출된 모든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연구 주제에 맞게 재배열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엣지리스트는 매트릭스 단어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키워드와 키워드의 동시 출현 가중치를 보여준다.[38] 동시 출현 빈도가 수치로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엔그램과 같은 원리이지만 엣지리스트의 단어짝은 전체 문서 중 한 문서를 기준으로 추출된 네트워크 상황을 가중치로 보여준다. 단어 가중치 기법은 출현 빈도만으로 키워드의 중요도를 분석하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제안된 방법이다.[39] 엣지리스트에서 생성된 가중치는 출현 횟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토픽 모델링은 대량의 문서군으로부터 주제를 자동으로 찾아내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유사한 의미의 단어들을 집단화하는 방식으로 토픽을 구성

글, 302~303쪽; 남수태 외, 2021, 「빅데이터 분석 도구 R 언어를 이용한 논문 데이터 시각화」, 『한국정보통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5(1), 326쪽.

37 빅토르 마이어 쇤버거·케네스 쿠키어 지음, 이지연 옮김, 2013, 『빅데이터가 만드는 세상』, 21세기북스, 101~102쪽.

38 TEXTOM, 2021, 『TEXTOM V6.0 매뉴얼』, 43쪽.

39 송민, 2017, 앞의 책, 8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다.[40] SNS의 각 섹션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들이 동시에 활동하는 것을 기반으로 관심사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 추출한다. 이것은 단어의 군집을 통해서 하나의 그룹을 구성하는 단어들이 특정 주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각 토픽별로 30개의 키워드를 구성하고 시기별로 4개의 토픽을 추출하였다. 2시기의 정권별로 가장 큰 토픽을 제시하였다.

3. 수집 데이터

이 글의 수행을 위해 수집한 데이터는 크게 세 부류이다. 첫째는 SNS에 저장되

〈표 1〉 SNS 수집 데이터

검색 키워드	가야사	일본서기	역사인식
수집기간	1시기: 2000.1.1~2010.12.31. 2시기: 2011.1.1~2022.8.31.	박근혜 정부: 2013.3.25~2017.3.10. 문재인 정부: 2017.3.11~2022.5.9.	1시기: 2000.1.1~2010.12.31. 2시기: 2011.1.1~2022.8.31.
채널별 섹션	네이버: 블로그, 카페, 지식iN / 다음: 블로그, 카페		
수집 데이터량[41]	1시기: 네이버 블로그(93), 카페(130), 지식iN(357) 다음 블로그(690), 카페(820) 2시기: 네이버 블로그(469), 카페(280), 지식iN(221) 다음 블로그(688), 카페(957)	박근혜 정부: 네이버 블로그(75), 카페(520), 지식iN(991) 다음 블로그(690), 카페(820) 문재인 정부: 네이버 블로그(87), 카페(510), 지식iN(991) 다음 블로그(454), 카페(846)	1시기: 네이버 블로그(112), 카페(470), 지식iN(991) 다음 블로그(858), 카페(960) 2시기: 네이버 블로그(441), 카페(430), 지식iN(1000) 다음 블로그(999), 카페(878)
분석도구	텍스트 마이닝, 매트릭스 1-mode		
분석방법	바차트, 엔그램, 에고네트워크	토픽 모델링, 엣지리스트, 네트워크 그래프	엔그램

40 송민, 2017, 앞의 책, 120쪽; 김일환, 2019, 「인문학을 위한 신문 빅데이터와 텍스트 마이닝」, 『어문론집』 78, 52쪽; 강진구 외, 2020,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다문화 연구 동향 분석」, 『다문화콘텐츠연구』, 35, 57쪽.

41 수집 단위는 건당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어 있는 23년간의 가야 역사에 관한 인터넷상의 흔적이다. 국내 포털사이트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2000~2022년(데이터 수집 종료시점)까지를 두 시기로 양분하여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42] 검색 키워드를 '가야'로 수집했을 때 '가야지', '가야할텐데', '가야산', '가야대학교' 등 불필요한 용어가 다량으로 수집되었다. 따라서 최종 검색 키워드는 '가야사'로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그 외 수집 데이터의 개요는 〈표 1〉과 같다.

Ⅲ. 네트워크 구조로 본 대중의 역사인식

이 글은 가야사 관련 내용을 분석한 글이기 때문에 '가야'의 출현 빈도가 월등하다. 따라서 '가야'를 제외한 뒤 텍스트 마이닝으로 상위 키워드를 〈그림 1〉, 〈그림 2〉와 같이 추출하였다. 바차트는 최상위 키워드의 출현 빈도율과 출현 횟수를 보여준다. 문서 내에서 출현 빈도가 높다는 것은 대중에 의해 많이 소비되는 만큼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의 1시기에서 대중이 가장 많이 소비한 키워드는 '금관가야'이며 1,483건으로 1위이고 그 다음은 '가야사', '대가야', '고령', '신라', '김해', '백제', '역사'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의 2시기 SNS에서 가장 많이 소비한 키워드는 1시기와 동일한 '금관가야'이며 1,707건이다. 다음은 '가야사', '대가야', '고령', '김해', '역사', '신라', '백제' 순으로 나타났다. 2시기에는 일본과의 관계를 연상하게 하는 '일본서기', '임나일본부'가 출현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복원'이라는 키워드도 2시기에 새롭게 진입하였다.

바차트가 상위 키워드의 문서 내 위상을 개별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상위의 키워드들이 주변의 어떤 키워드와 동시 출현하는지를 엔그램을 통해 확인

42 200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시기'로, 2011년 1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까지는 '2시기'로 칭하였다. 이하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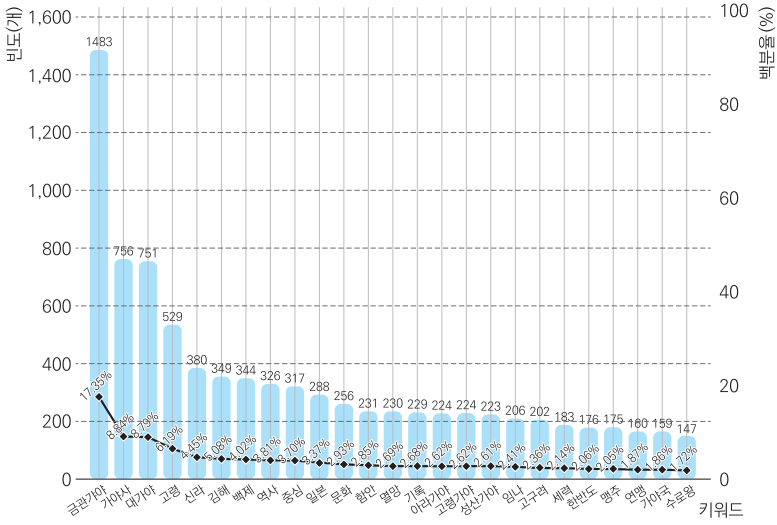


그림 1 바차트 2000~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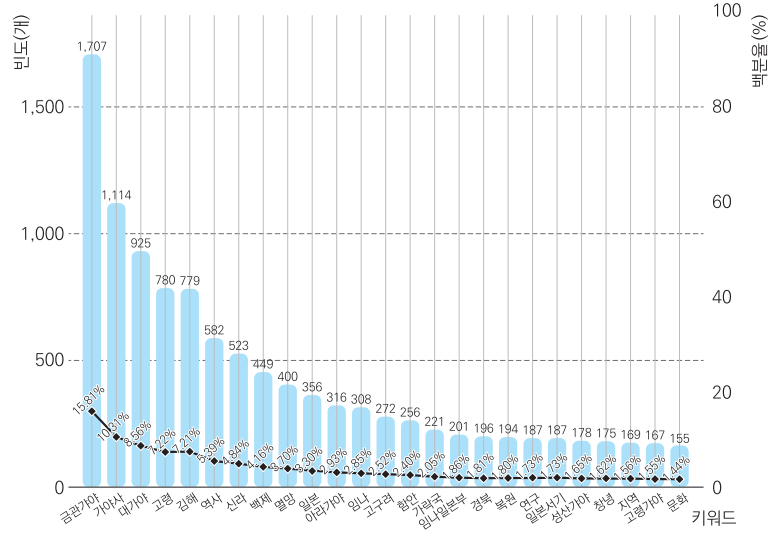


그림 2 바차트 2011~2022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2〉 상위 40위 키워드 앤그램(가야사)

구분	1시기: 2000~2010년			2시기: 2011~2022년		
	단어1	단어2	빈도	단어1	단어2	빈도
1	고령	대가야	293	고령	대가야	338
2	김해	금관가야	249	김해	금관가야	227
3	학술회의	가야사	139	금관가야	대가야	195
4	대가야	성산가야	123	금관가야	김해	151
5	가야	연맹	108	가야	역사	111
6	고구려	백제	107	서산시	운산면	108
7	백제	신라	103	대가야	멸망	107
8	고령가야	대가야	100	대가야	고령	93
9	성산가야	소가야	100	가락국	건국	91
10	가야	역사	99	다양	가야	90
11	보통	금관가야	97	가야사	연구	89
12	금관가야	아라가야	94	건국	김수로왕	88
13	가야사	학술회의	94	김해	가야	88
14	금관가야	대가야	93	김해	역사	87
15	금관가야	중심	90	김수로왕	고령	87
16	합천	대가야	83	학술회의	김해	87
17	대가야	고령	82	삼국	가야	86
18	금관가야	아라국	81	가야사	특집	86
19	가라국	김해	81	백제	가야	84
20	졸마국	진해	81	가야사	복원	79
21	대가야	졸마국	81	경북	고령	78
22	이진아시왕	시작	80	고령	성산가야	77
23	부산	경남역사연구소	80	가야	멸망	76
24	금관가야	이진아시왕	80	금관가야	가야	73
25	가야사	부산	80	함창	대가야	72
26	아라국	함안	79	가야	연맹	7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7	참고서	시민	79	대가야	소가야	66
28	다라국	합천	79	함안	고령가야	64
29	임나십국	가라국	78	임나	일본서기	63
30	함안	다라국	76	복원	어려움	63
31	금관가야	세력	73	가야	대가야	58
32	낙동강	하류	71	함안	아라가야	58
33	수렴	가야사	68	고구려	백제	57
34	대가야	고구려	65	가야	문화	56
35	삼국시대	이전	65	소가야	아라가야	55
36	김해	대성동고분군	64	운산면	가야산	54
37	금관가야	유적	64	가야	문화재	54
38	신라	금관가야	64	일본서기	가야	52
39	중학교	역사교과서	63	임나일본부	허구	50
40	집문당	금관가야	63	금관가야	수로왕	49

할 수 있다. 〈표 2〉는 키워드의 동시 출현 빈도를 나타내는 엔그램 분석 결과이다. 1시기에 동시 출현하는 단어짝은 1만 5,882위까지 추출되었고 2시기에는 2만 5,126위까지 추출되었으며 이 중에서 상위 40위까지를 정리하였다.[43]

1시기와 2시기에 각각 1위에 링크된 단어는 '고령'이며 '대가야'와 동시 출현 빈도가 가장 높다. 다음은 '김해'와 '금관가야'다. '고령'과 '김해'는 과거 '대가야'와 '금관가야'가 자리 잡은 곳이다. '대가야'와 '금관가야'의 흔적이 있는 유적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거론할 때 해당 국가가 존재했던 현재 지명이 언급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두 지역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각 지역의 대표적인 유적지를 배경 화면으로 장식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대가야'와 '금관가야'를 '고령'과 '김해'

43 〈표 2〉 특정 키워드의 음영은 식별을 위해 직접 표시한 것이다. 이하 동일하게 적용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가 대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김해시청의 공식 홈페이지의 심벌은 '가야왕도'이며 '관광포털'의 헤드라인은 '가야'로 시작하고 있다. 대성동 고분군, 김수로 왕릉, 봉황동 유적을 비롯한 가야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기 때문에 고령군에 비해 역사적 소재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 또한 김해국립박물관에서는 2004년부터 가야학 아카데미를 통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강의와 유적지 답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가야사 관련 연구 확대를 위해 가야학술제전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고령'이 '대가야' 외에 주변의 다른 단어들과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는 모습이 2시기에는 '성산가야', '김수로왕', '경북'뿐이지만 '김해'는 1시기에서는 '가라국', '대성동고분군'이 있고, 2시기에는 '가야', '역사', '학술회의'로 다양하다. 가야 역사와 관련해 김해지역이 최근까지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의 엔그램에서 '고령'과 '대가야'가 동시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는 '김해'와 '금관가야'가 대중들에게 더 활발하게 소비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가야 역사에 대한 키워드의 변화는 2시기의 단어짝에서 자세히 나타난다. 〈표 2〉의 진한 부분은 2시기에 새롭게 상위에 진입한 키워드의 단어짝이다. '일본은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는 임나가 가야와 연관이 크다고 보고 있으나 『일본서기』의 임나일본부는 허구다. 따라서 가야사 복원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의 에고 네트워크는 매트릭스 단어 빈도를 통해 추출된 키워드 중 상위 25개의 연결망 구조이다. 동그라미 속 키워드는 자신만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원의 크기는 네트워크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보여준다. 두 시기 모두 가야와 관련하여 '금관가야', '대가야', '가야사', '고령', '신라'가 강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2시기에 접어들어서는 '임나일본부', '일본서기', '복원', '경북', '창녕'이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SNS에 출현한 키워드의 상위 출현 키워드와 텍스트 네트워크 구조에서 드러난 것은 2시기에 고대 일본을 연상하게 하는 '일본서기', '임나일본부'가 출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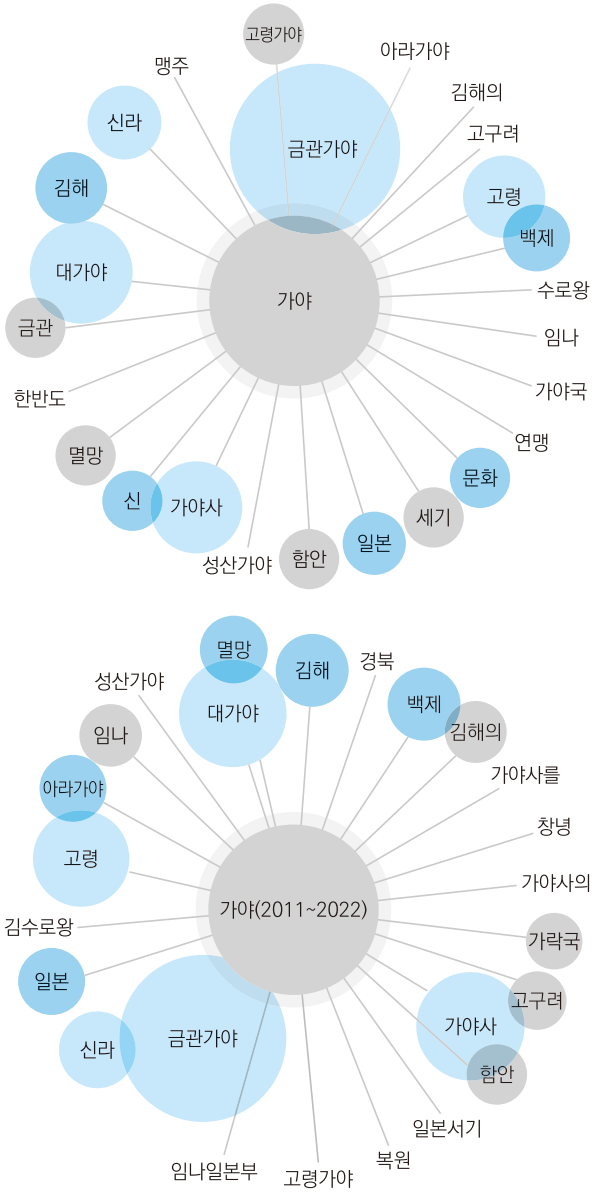


그림 3 매트릭스 1-mode 에고 네트워크 (상: 1시기, 하: 2시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 점이다.[44] 그렇다면 2시기에 특정 키워드의 소비가 증가한 요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검토를 이어가려고 한다.

Ⅳ. 키워드 출현 빈도에 따른 역사인식의 변화

먼저, 2시기에 일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키워드의 경향성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하기 위해 이 기간에 있었던 정권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가야의 역사와 관련성이 큰 '일본서기'와 '임나일본부'가 대중에 의해 소비되는 알고리즘을 살펴보기 위해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림 4〉는 추출된 결과 중 정권기별 가장 큰 토픽을 구성하는 차트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30개의 키워드가 1개의 토픽을 구성한다. 먼저 〈그림 4〉의 'Top-30 Most Relevant Terms for Topic 2'는 전체 용어 빈도[저자 설명: 연한 하늘색 막대 'Overall terms frequency']에서 토픽2와 관련된 용어[진한 하늘색 막대: 'Estimated terms frequency within the selected topic']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기의 토픽2의 키워드들은 '일본서기' 관련 데이터에서 근접거리에 출현한 확률이 29.2%이다. 상위 키워드 1위는 '일본서기'이며, '일본', '백제', '기록' 순으로 등장한다.

다음 문재인 정권기의 토픽2에서 1위 키워드 '일본서기'를 시작으로 '일본', '기록', '백제' 순으로 박근혜 정권기와 비교해 3, 4위의 키워드 순위가 바뀌었다. 주목할 것은 '가야'의 순위가 박근혜 정권기의 토픽2에서 23위인 데 반해 문재인 정권기에는 11위로 격상된 점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기에서 '가야' 관련

44 1시기의 '가야사'의 매트릭스 단어 분석 결과 '일본서기'는 33위에 추출되었으며 119의 출현 빈도수를 나타내었다. 2시기에는 22위, 187회의 출현 빈도가 나타났다. 1시기 엣지리스트에서 '일본서기'의 가중치는 111이고 2시기는 201이다. 1시기에 '임나일본부설'은 추출되었으나 2시기와의 비교 순위에서 뒤쪽에 위치하다 보니 1시기에서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임나일본부'는 엣지리스트에서는 추출되지 않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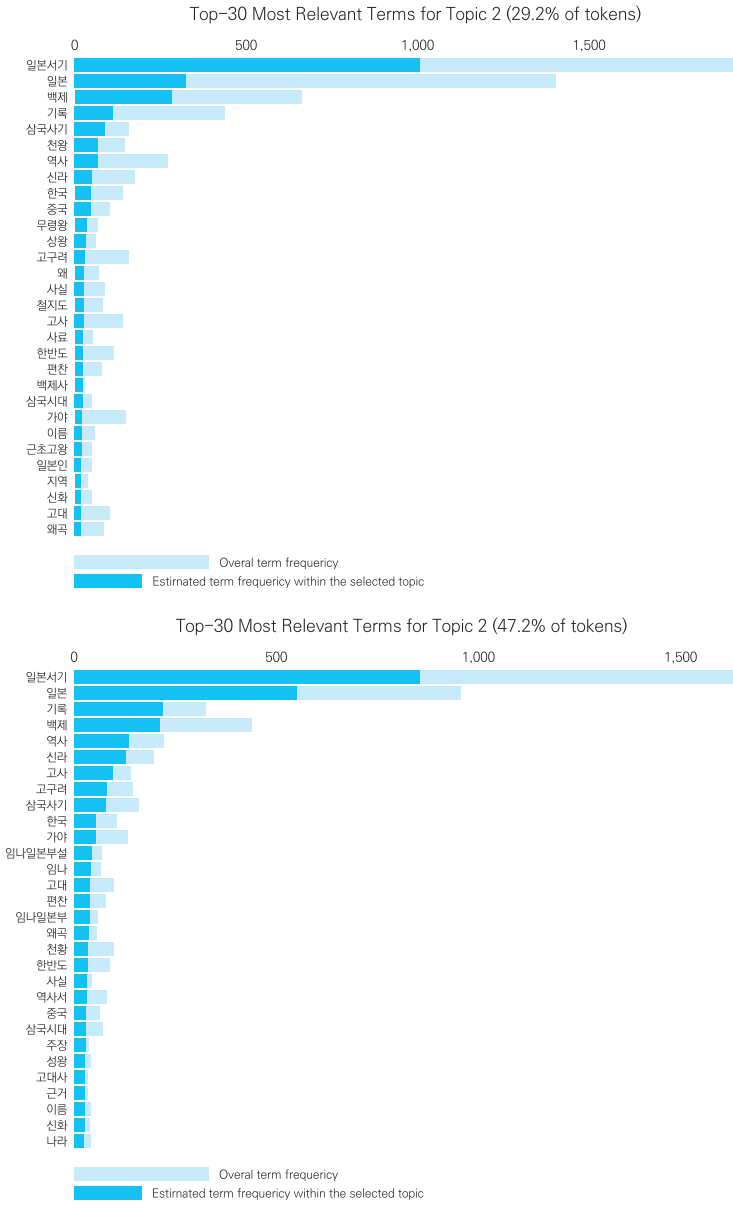


그림 4 2시기 토픽 모델링 Top 2 (상: 박근혜 정권기, 하: 문재인 정권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중의 관심이 '일본서기'와 '임나일본부', '임나일본부설'과 연결되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엣지리스트의 가중치를 통해 각 정권기의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았다. 먼저 매트릭스 단어 빈도 분석에서 자체 의미연결망을 구축하고 있는 상위 키워드는 박근혜 정권기에 282개, 이 키워드들이 이루고 있는 단어짝은 7만 9,242개이다. 문재인 정권기의 상위 키워드는 211개이고 이 키워드들의 단어짝은 4만 4,310개가 추출되었다.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281과 210)를 각각 더한 합이 단어짝으로 추출된다. 각 정권기의 엣지리스트 단어짝 7만 9,242개와 4만 4,310개를 검토하여 가중치가 큰 순서대로 〈표 3〉과 같이 재배열하였다.

〈표 3〉은 두 정권기의 엣지리스트 중에서 '일본서기'와 동시 출현하는 가중치 100 이상인 키워드를 재배열한 것이다. ㉮시기는 20개, ㉯시기는 18개가 추출되었다. ㉮와 ㉯ 시기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키워드는 '일본', '백제', '기록',

〈표 3〉 2시기 '일본서기' 엣지리스트 재배열

㉮ 박근혜 정권기				㉯ 문재인 정권기			
키워드	가중치	키워드	가중치	키워드	가중치	키워드	가중치
일본	1843	고대	171	일본	1298	한국	168
백제	1112	칠지도	170	백제	782	한반도	144
기록	807	중국	167	기록	544	역사서	140
역사	405	임나일본부	163	역사	404	임나일본부설	135
신라	340	편찬	146	신라	322	임나	126
삼국사기	307	왜	142	삼국사기	300	임나일본부	123
고구려	261	임나	124	가야	235	칠지도	118
가야	239	성왕	122	고구려	209	삼국시대	111
한국	194	사료	121	고대	177	·	·
임나일본부설	189	근초고왕	102	·	·	·	·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역사', '신라', '삼국사기', '고구려', '가야', '한국', '임나일본부설', '고대', '칠지도', '임나일본부', '임나'이다. 앞서 살펴본 '가야사'의 매트릭스 분석 단계에서 2시기에만 추출되었던 상위 키워드 중 '일본서기', '임나일본부'는 '임나일본부설'과 함께 ㉮와 ㉯ 시기 구분 없이 2시기 전반에 걸쳐 대중에 의해 이슈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토픽 모델링(Top 2)의 박근혜 정권기에서는 '일본서기'를 중심으로 가장 큰 이슈를 이끌었던 '임나일본부' 또는 '임나일본부설'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토픽 모델링에는 '임나일본부', '임나일본부설'이 모두 출현하며 '가야'의 출현 비중이 증가하였다. 문재인 정권 때 '가야'의 순위 상승은 국정과제로 인해 여러 행사와 프로젝트의 개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일본서기' '임나일본부', '임나일본부설' 등이 2시기에 접어들어 소비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일관계에서 드러나는 역사적 갈등 양상은 2시기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역사인식'을 검색 키워드로 설정하여 SNS에서 추가 분석을 시도하였다. 대중이 SNS에서 '역사인식'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1시기와 2시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일관계 또는 일본과 관련된 키워드는 어떤 네트워크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1시기에는 '중국'이 '부여', '고구려', '발해'가 '동북공정'과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과는 '역사왜곡'과 연결망을 이루며 '역사인식'과 강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2시기에는 1시기와는 다른 키워드들이 확인된다. 2시기 우리나라의 정치 일면을 의미하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정부'가 있고 일본 또는 일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아베', '일본', '일본인', '한일', '독립'이 새롭게 출현한 것이 특징이다. 2시기 박근혜 정부에서 일본의 아베 정권의 극단적인 우경화로 그 어느 때보다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된 것을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2013년 4월 23일 아베 총리가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침략에 정해진 정의가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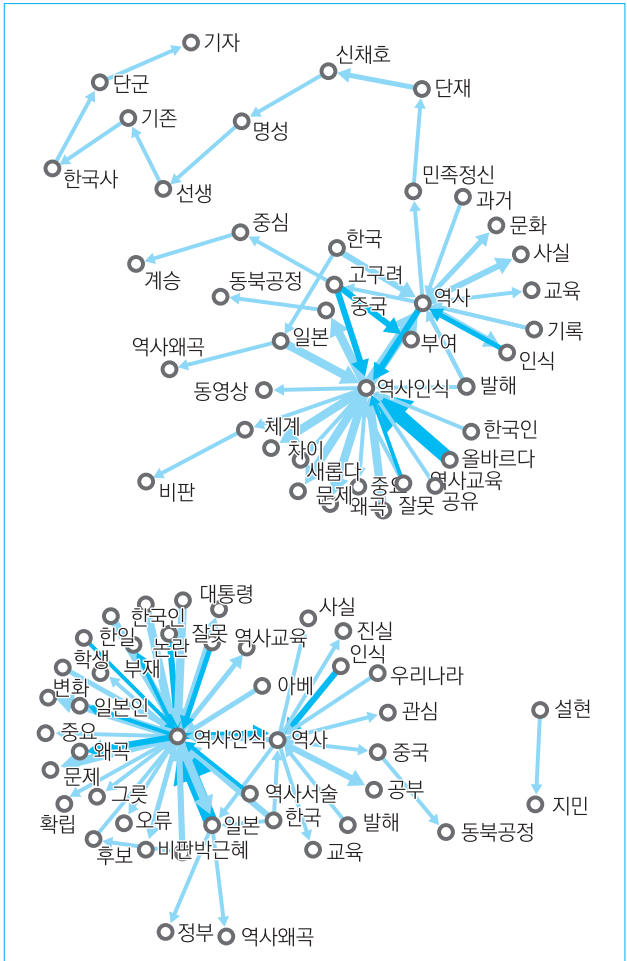


그림 5 '역사인식' 네트워크 그래프 (상: 1시기, 하: 2시기)

대응으로 국회는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45] 일본의 역

45 전재호, 2019, 「2000년대 한국의 '극단적' 민족주의에 관한 비판적 연구: '국수주의 역사학'의 존립 기반을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25(1), 7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왜곡은 대중의 반일 감정을 더욱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역사', '역사서술', '한국', '교육'이 눈에 띈다. '역사서술'이 '일본'과도 연결망을 이루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해 역사서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46] 이는 일본 정부가 2013년 3월 26일에 발표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한 결과 21종의 교과서 중에서 15종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것으로 조사되었던 사건의 영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47] 〈그림 5〉의 네트워크 그래프는 엔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다.

1시기에는 2만 672위까지의 단어짝이 추출되고, 2시기에는 1만 8,771위까지 추출되었는데, 〈표 4〉는 이 중 상위 40위까지를 정리한 것이다. 〈표 4〉의 엔

〈표 4〉 상위 40위 키워드 엔그램(역사인식)

구분	1시기: 2000~2010년			2시기: 2011~2022년		
	단어1	단어2	빈도	단어1	단어2	빈도
1	올바르다	역사인식	152	일본	역사인식	117
2	역사인식	역사	69	역사인식	역사	73
3	잘못	역사인식	69	잘못	역사인식	73
4	왜곡	역사인식	68	역사인식	문제	68
5	일본	역사인식	65	역사인식	역사인식	65
6	역사인식	차이	64	역사	역사	64
7	역사인식	문제	56	청소년	역사인식	60
8	역사	역사인식	50	왜곡	역사인식	50
9	중국	역사인식	49	역사	인식	46
10	인식	역사	47	역사인식	논란	41
11	역사	사실	47	역사인식	일본	41

46 延敏洙, 2005, 앞의 글; 鄭孝雲, 2007, 앞의 글; 김기섭, 2018, 앞의 글.

47 『동아일보』, 2013.3.2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2	고구려	역사	44	박근혜	역사인식	41
13	단재	신채호	40	역사인식	차이	40
14	한국	역사	40	인식	역사	39
15	역사	역사	35	역사인식	비판	38
16	역사	문화	34	역사인식	중요	36
17	역사	인식	34	역사인식	부족	32
18	역사인식	역사인식	31	역사	역사인식	31
19	동영상	역사인식	30	역사인식	부재	28
20	역사	중국	29	역사	공부	28
21	중국	역사	28	한국	역사인식	28
22	역사인식	중요	26	학생	역사인식	27
23	역사교육	역사인식	25	역사	중국	25
24	부여	고구려	25	역사	사실	25
25	일본	역사왜곡	24	아베	역사인식	25
26	고구려	역사인식	24	역사교육	역사인식	24
27	발해	역사	24	발해	역사	24
28	기록	역사	24	중국	역사	24
29	역사인식	체계	24	역사	관심	24
30	역사인식	중국	23	일본인	역사인식	22
31	선생	기존	22	후보	역사인식	21
32	기존	한국사	22	역사인식	확립	21
33	역사	교육	22	역사인식	변화	21
34	중국	동북공정	22	대통령	역사인식	21
35	한국사	단군	22	우리나라	역사	20
36	명성	선생	22	일본	정부	20
37	새롭다	역사인식	22	일본	역사왜곡	20
38	고구려	중심	22	한국	일본	19
39	한국인	역사인식	22	한일	역사인식	18
40	한국	일본	22	박근혜	후보	1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램은 시기별 대중의 '역사인식'과 관련해 핵심 키워드의 변화를 잘 보여 주고 있다. 1시기에는 한국 정부와 직결된 키워드가 3개인 데 반해 2시기에는 9개로 증가하였다. 또한 1시기 일본과 직결된 키워드는 3개인 데 반해 2시기에는 8개로 증가하였다. 이는 전술했듯이 일본의 아베 정권의 우경화로 인해 더욱 증폭된 갈등이 이슈화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48]

SNS의 블로그나 카페에는 유적지를 다녀온 후기, 학술대회 및 뉴스 기사를 퍼오거나 직접 소개하는 글, 어린용 도서부터 가야사 관련 서적을 소개하는 글이 많다. 그리고 지식iN에는 학생들이 학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구로 질문을 남긴 사례가 많다. 이에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기술된 텍스트 분석을 위해 동일한 방법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시도하였다. 데이터 수집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검토 대상 교과서 현황

구분	중학교 『역사』 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시기별 교과서	2009 개정 교육과정(2010 검정본)에 의한 8종 『역사(상)』, 교학사(신) 외	2009 개정 교육과정(2010 검정본)에 의한 6종 『한국사』, 비상교육 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9종 『역사①』, 교학사 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8종 『한국사』, 교학사 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7종 『역사②』, 금성출판사 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7종 『한국사』, 금성출판사 외
수집 데이터	고대사를 담고 있는 단원 중 가야사를 직접 기술한 세부단원과 '가야', '금관가야', '대가야'가 포함된 단원명, 학습목표, 역사자료, 중·대단원의 문단 및 문장	
전사한 데이터량	총 글자 수: 5만 2,664자 총 낱말 수: 1만 2,898자	총 글자 수: 2만 4,058자 총 낱말 수: 5,825자
분석도구	텍스트 마이닝	
분석방법	엔그램	

48 2시기 중 상위 40위 밖에는 논쟁 중인 한일관계를 의미하는 키워드가 있다. '역사서술'(41위, 56위), '역사교과서'(138위, 214위, 276위), '위안부'(64위, 181위), '과거사'(168위), '독도'(187위, 226위) 등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6〉 개정 교육과정별 『역사』 엔그램

구분	A. 2007 『역사(상)』			B. 2009 『역사①』			C. 2015 『역사②』		
	단어1	단어2	빈도	단어1	단어2	빈도	단어1	단어2	빈도
1	백제	신라	20	삼국	가야	55	삼국	가야	48
2	부여	가야	14	백제	신라	26	백제	신라	15
3	후기	연맹	12	후기	연맹	26	연맹	주도	11
4	전기	연맹	12	전기	연맹	21	대외	교류	11
5	고령	대가야	11	가야	문화	21	교류	삼국	10
6	낙동강	유역	11	연맹	주도	20	낙동강	하류	10
7	연맹	주도	10	문화	발전	16	고령	대가야	10
8	삼국	가야	9	연맹	성립	15	가야	일본	9
9	낙동강	하류	9	일본	고대	14	해상	교역	9
10	연맹왕국	단계	9	대외	교류	14	후기	연맹	8
11	중앙집권국가	성장	9	고대	문화	13	신라	가야	8
12	일본	고대	8	세기	후반	13	철기	문화	8
13	대가야	중심	8	문화	일본	12	문화	발전	8
14	중앙집권국가	발전	8	낙동강	하류	12	가야	대외	8
15	고대	문화	7	연맹	형성	12	지산동	고분군	7
16	세기	후반	7	철기	문화	12	중국	남조	7
17	연맹	백제	7	김해	금관가야	12	가야	문화	7
18	대가야	신라	7	대가야	신라	11	고령	지역	7
19	문화	발전	7	대가야	중심	11	김해	금관가야	6
20	신라	법흥왕	7	신라	가야	10	신라	병합	6
21	가야	연맹왕국	6	고령	대가야	10	대가야	연맹	6
22	김해	금관가야	6	멸망	연맹	10	철	생산	6
23	금관가야	신라	6	금관가야	중심	9	세력	약화	6
24	일본	토기	6	중심	연맹	9	문화	일본	6
25	고구려	광개토대왕	6	발전	연맹	9	대가야	토기	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우선 엔그램을 통해 역사교과서에서 상위에 출현하는 키워드와 동시에 출현하는 키워드의 빈도를 살펴보았다.

〈표 6〉의 엔그램은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개정 교육과정별로 나타낸 것이다. 동시 출현 빈도수가 가장 높은 1위는 A시기의 '백제'와 '신라', B시기와 C시기는 '삼국'과 '가야'다. 두 단어의 동시 출현 빈도가 높다는 것은 교과서 서술에서 두 단어가 서술의 흐름을 이끄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삼국'과 '가야'는 대외 교류사에서 주로 나타난다. 삼국과 가야의 대외 교류를 설명할 때 병렬적 서술 구조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이 '삼국과 가야는'으로 시작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학습목표, 중·대단원 마무리에서 '삼국과 가야'의 출현 빈도가 높다. 가야의 역사를 삼국과의 관계 속에서 서술하는 경향은 교육과정의 영향이 크다.[49] 그다음 동시 출현 빈도가 높은 것은 '연맹'과 '주도'이다. '연맹'과 함께 '중앙집권국가'와 '성장' 또는 '중앙집권국가'와 '발전'도 동시 출현 빈도가 높은 편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집필기준에 의하면 '가야가 삼국과 달리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신라에 통합되었음을 … '[50]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삼국이 제도 정비와 영토 확장을 통해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을 서술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51] 교육과정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표 7〉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엔그램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7〉의 엔그램에서 교육과정 시기마다 최상위 그룹에 링크되어 있는 단어는 '백제'와 '신라'이다. 두 단어의 동시 출현 빈도가 높은 이유는 두 나라의 대립과 압박으로 가야가 멸망한 사실을 각 교과서마다 반복적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 출현이 빈번한 단어는 '연맹'으로 다양한 단어와 짝을 이루며 출현하고

49 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7]」, 71쪽.

50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5쪽.

51 교육부, 2018,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별책 7](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의 일부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5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7〉 개정 교육과정별 『한국사』 엔그램

구분	A. 2007 『한국사』			B. 2009 『한국사』			C. 2015 『한국사』		
	단어1	단어2	빈도	단어1	단어2	빈도	단어1	단어2	빈도
1	백제	신라	10	삼국	가야	27	낙동강	하류	7
2	철기	문화	6	백제	신라	15	금관가야	중심	7
3	연맹왕국	발전	5	전기	연맹	14	대가야	정복	7
4	고령	대가야	5	문화	발전	12	백제	신라	7
5	대가야	중심	5	후기	연맹	11	김해	금관가야	6
6	철	생산	5	철기	문화	11	삼국	가야	6
7	낙동강	하류	4	연맹	주도	10	전기	연맹	6
8	낙동강	서쪽	4	세기	후반	9	연맹	형성	5
9	연맹왕국	단계	4	낙동강	하류	8	고령	대가야	5
10	정복	낙동강	4	고령	대가야	8	연맹	주도	5
11	대가야	정복	4	대가야	정복	7	대가야	중심	5
12	낙동강	유역	4	연맹왕국	단계	7	중앙집권	국가	5
13	문화	발전	4	문화	일본	7	후기	연맹	4
14	성장	세기	3	김해	금관가야	6	가야	성장	4
15	소백산맥	서쪽	3	결혼	동맹	6	세기	후반	4
16	대가야	신라	3	중국	남조	6	철기	문화	4
17	고구려	백제	3	금관가야	중심	6	고구려	백제	4
18	해상	교통	3	대가야	신라	6	중심	연맹	4
19	중심	연맹왕국	3	대가야	중심	6	철	생산	4
20	금관가야	중심	3	중앙집권	국가	6	국가	성장	4
21	전기	연맹	3	신라	공격	5	중국	군현	3
22	중심	연맹	3	신라	가야	5	하류	변한	3
23	토기	일본	3	변한	지역	5	부여	가야	3
24	고대국가	성장	3	신라	진흥왕	5	세기	중반	3
25	세기	금관가야	3	호남	동부	5	연맹	결성	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있다. 주로 '발전', '성립', '주도', '형성', '중심', '결성' 등이다. 전술한 대로 '연맹'은 '백제'나 '삼국'과 같이 특정 단어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단어와 연결망을 이루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가야사 관련 서술의 중심에 위치하는 핵심 키워드임을 알 수 있다.

역사교과서는 고대국가의 정치적 상황을 의미하는 키워드, 즉, '성장', '중앙집권국가', '연맹' 등의 출현 빈도가 높다. 연맹국가에서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가야 소국이 신라의 공격으로 멸망한 것에 대해 기술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앞서 분석한 역사교과서는 가야사 관련 단원이 있는 고대사 영역에 한정한 것이다. 검토 대상 외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는 '임나일본부설'에 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52] 이 외에도 고등학교 『세계사』와 『동아시아』 교과서에 '일본서기'가 극히 일부 등장한다. 특히 『동아시아』 교과서의 '동아시아의 갈등과 화해' 단원에는 '동아시아 영토 분쟁', '독도 영토 영유권 문제', 역사 인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53] 당시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범위가 넓은 『한국사』보다 수능에서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률이 높았기 때문에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대중이 학생일 경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교과서를 통해 '일본서기'나 '임나일본부설' 관련 내용을 접하고 있거나 접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또한 역사수업이 학생들의 역사인식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52 김한종 외, 2003,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42쪽["일본의 야마토(大和) 정권이 4세기 후반에 한반도 남부 지역에 진출하여 신라와 백제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특히 가야에는 일본부(日本府)라는 기관을 두어 6세기 중엽까지 직접 지배하였다는 설이다.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임나일본부설을 조선에 대한 침략과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논리로 이용하였다. 임나일본부설은 현재에도 일본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편견과 우월감을 조장하고 있다", "일본 관학자들이 임나일본부설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일본서기"]. 현재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개정 교육과정부터 간행되지 않는다.

53 안병우 외, 2014,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천재교육, 242~24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각주 50)의 어느 교과서 서술처럼 결국 역사교과서는 대중의 역사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SNS에 저장된 대중의 가야사 관련 역사인식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맺음말을 대신하여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가야사'와 관련해 SNS에 출현하는 상위 키워드는 '금관가야', '가야사', '대가야', '고령', '신라', '김해', '백제' 등이었다. 최근 23년간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2시기에 상위권에 진입한 대표 키워드로 '일본서기', '임나일본부', '임나일본부설' 등이 있다.

가야의 인식 변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2시기에 '일본서기'를 분석하였다. 2시기에는 2013년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와 2017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있다. 박근혜 정권기에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강력한 우경화로 한일관계가 유례없이 경직되었다.[54] 이 같은 분위기는 대중 사이에서 일본에 대한 반감이 강하게 표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문재인 정권기에는 가야사 복원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가야사 관련 다양한 작업이 추진되었다. 이 기간 가야 관련 학술대회의 증가,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야 유물전의 무료 전시회 개최, 가야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으로 인해 가야 관련 이슈가 활발하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대중으로 하여금 일본과 연관된 특정 키워드의 소비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 2시기의 역사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역사인식'을 검색 키워드로 하여 SNS에서 2000~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였다. 2시기에 한국 정

54 신경애, 2015, 「한국 대학생의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과 관련 수업에 대한 니즈」, 『일본문화연구』 55, 16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부 관련 키워드와 한일관계를 나타내는 키워드의 출현이 1시기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이는 2시기에 존재했던 두 정부의 정치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대중의 역사인식 형성과 연관이 있는 역사교과서의 텍스트를 분석해 SNS에서 소비되는 대중의 관심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고등학교 역사과 교과서 중에는 '일본서기', '임나일본부'가 기술된 곳이 있다. 대중의 역사인식에 역사수업이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중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전문역사가들처럼 사고하지 않지만 단순한 재미만 추구하지도 않는다.[55] 전문역사가들이 양질의 역사를 전달한다면 비역사적 역사학자들에 의해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또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역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일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56] 대중은 교과서와 이 외의 다양한 매체, 교육현장의 역사교사로부터 일본이 『일본서기』의 기록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왜곡한 사실을 배웠을 것이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은 '가야의 역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 교육으로 만들어진 '국민적 정체성'을 일본이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에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많은 국민은 역사교육을 통해 후진적 일본과 선진적 가야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일본이 '임나일본부설'로 가야를 지배한다는 말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57] 이에 더하여 근대 식민지배의 통증이 되살아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기도 한다.[58]

---

55 백승종, 2010, 「성공적인 대중 역사서, 어떻게 쓸까?-하나의 역사적 성찰」, 『역사와현실』 76, 376쪽.

56 박은봉, 2005, 「[역사의 현재성과 대중성 3] 역사의 대중화와 대중역사서」, 『내일을 여는 역사』 20, 119~128쪽. 이 외에도 서예미술가에 의한 1차 사료의 역사고증이 특정 학회지에 게재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니다. 정선화, 2021,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광개토왕비(廣開土王碑) 관련 서술 변천」, 『동북아역사논총』 73, 104쪽(각주 24 참조).

57 김정인, 2019, 「역사소비시대, 대중역사에서 시민역사로」, 『역사학보』 241, 2쪽.

58 정연태, 1999, 「'식민지근대화론' 논쟁의 비판과 신근대사론의 모색」, 『창작과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학생들은 근대역사학에 기초한 민족 중심적 역사교육으로 인해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역사교과서의 상위 키워드인 '성장', '발전'과 같은 발전사관의 키워드 역시 『일본서기』의 잘못된 해석이 만들어놓은 역사왜곡을 부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역사교과서와 공공적 역사소비는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중심의 역사교육이 2시기의 정치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공개된 SNS에 표출하여 '국민적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한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생각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는 『삼국유사(三國遺事)』, 『삼국사기(三國史記)』, 『고려사(高麗史)』 등 방대한 양의 문헌자료가 저장되어 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당 자료를 검토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으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한다면 문헌자료 내의 사회관계망과 의미관계망에 내재된 역사적 사실을 추출할 수 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양적 데이터와 문헌자료, 기존 연구 성과, 금석문 등의 다양한 자료를 병행 분석하는 혼합연구 방법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설계 유형이다. 이론적 논의 단계에서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분석 단계에서는 양적 연구를 수행하는 결과를 취합하여 활용한다.[59] 이를 이용하면 전통적인 연구 방법으로는 접근하기 힘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불과 몇 시간 안에 고문헌자료의 키워드 간 패턴과 구조적인 네트워크를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국사기』에서 기상 이변과 관련된 기사만 추출할 때, 삼국시대의 인물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관계망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때, 한국의 고대 문헌자료와 일본의 문헌자료의 비교 분석을 통해 고대의 한일관계 파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때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적절히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평』 103, 359~360쪽.

59 이정락 외, 2022, 앞의 책, 52~7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둘째, 한국고대사와 관련한 국내 학술논문은 수만 편에 이른다. 각 시대별로 분류해도 엄청난 양이다. 논문의 요지를 원데이터로 수집하여 연구 동향을 키워드로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정 키워드의 상위 출현과 동시 출현 빈도를 바탕으로 연구 동향을 읽어낼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역사인식을 알기 위해서 문헌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전통적인 연구 방법 중 하나이다. 설문조사나 심층면접으로 수집한 데이터의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통합하여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기반으로 한 혼합 연구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다. 숫자로 입력된 설문 조사의 문항은 데이터 변환하고 심층면접 때 녹음한 데이터를 텍스트화한 후 텍스트 마이닝과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대중의 역사인식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다.

넷째, 한글 자연어 처리 프로그램은 솔루션에 따라 추출되는 자료 형태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한글이라는 동일한 언어의 형태소 분석을 하기 때문에 내용상 큰 차이는 없다. 따라서 같은 자료를 원데이터로 정제/형태소 분석을 할 경우 동일한 데이터가 추출된다. 이는 연구자 간 교류를 통해 최종 정제데이터를 공유하는 것도 연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모든 분석 대상 데이터는 전·후 처리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역사교과서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 변환이 필수적이다. 이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유는 PDF 파일로 제작되어 있는 교과서는 분석 대상의 텍스트만 따로 파일로 만들어야 하는데 실제 교과서 구성은 다양한 학습자료(삽화, 사진, 그림, 도표, 그래프, 역사지도 등)와 텍스트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엑셀파일에 텍스트만 따로 전사해야 한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데이터별로 비교 분석에 용이하므로 교육과정별로 모든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이 의미 있다. 서술 분량이 많은 시대사 분석은 연구자 간 상호 협업을 통해 자료를 공유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섯째, 대중의 역사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은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셜미디어라고 생각한다. 20세기 후반 이래 역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소비되고 있다. 대중이 전문역사가들을 유튜브 공간으로 끌어내는 데 일조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유튜브 채널 중에는 정기적으로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서적을 간행한 연구자들에 의한 역사 관련 다양한 콘텐츠가 업로드되어 있다. 이들에 의해 이슈화되고 있는 역사관은 시청자가 남긴 댓글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대중과 소통하는 것이 역사소비의 목적인지 상대진영의 역사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목적인지 모호한 콘텐츠도 있다. 공공의 역사장에서 소비되고 있는 공공역사에 관해서는 '공공역사와 대중의 역사인식'에 관한 후속 논문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이 글은 SNS에 저장된 대중의 역사인식을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으로 연구한 것이다. 미진하나마 '역사 대중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면 소임을 다한 것이라 생각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자료

국립중앙과학관 http://www.science.go.kr

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7]」, 교육과학기술부.

_____, 2011,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 2018,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별책 7](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의 일부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9, 『현대사와 박물관』 2.

TEXTOM, 2021, 『TEXTOM V6.0 매뉴얼』.

김한종 외, 2003,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안병우 외, 2014,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천재교육.

『동아일보』, 2013.3.27.

단행본

가브리엘 타르드 지음, 이상률 옮김, 2012, 『여론과 군중』, 지도리.

김유신 외, 2016,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한 연구동향 분석 및 패턴 방법론 개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진호, 2016, 『빅데이터가 만드는 제4차 산업혁명』, 북카라반.

김태식, 2004, 「고대 한일 관계사의 민감한 화두, 칠지도」, 『고대로부터의 통신』, 푸른역사.

낸시 두아르테 지음, 권혜정 옮김, 윤영진 감수, 2021, 『데이터 스토리-데이터를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바꾸는 방법』, 한빛미디어.

마르틴 뤼케·이름가르트 췬도르프 지음, 정용숙 옮김, 2020, 『공공역사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매일경제기획팀 · 서울대 빅데이터 센터 지음, 2014, 『빅데이터 세상』, 매일경제신문사.
문용식, 2022, 『2021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빅토르 마이어 쇤버거 · 케네스 쿠키어 지음, 이지연 옮김, 2013, 『빅데이터가 만드는 세상』, 21세기북스.
송민, 2017, 『텍스트 마이닝 Text Mining』, 청람.
윤영진 · 황재진, 2021, 『가볍게 떠먹는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제이펍.
야마사키 마사토시, 2018, 「일본의 가야사 연구-임나일본부설을 중심으로-」, 『가야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I , 주류성.
이성시 지음 · 박경희 옮김, 2001, 『만들어진 고대-근대 국민 국가의 동아시아 이야기』, 삼인.
E. H. Carr 지음, 김택현 옮김, 1997, 『역사란 무엇인가』, 까치.
이정락 외, 2022, 『빅데이터와 텍스트네트워크 분석』, 영남대학교 출판부.
이진한 외, 2019, 『4차 산업혁명과 한국사 연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전재근, 2017, 『통계학, 빅데이터를 잡다』, 한국문학사.
토머스 대븐포트 · 김진호 지음, 김진호 옮김, 2013, 『말로만 말고 숫자를 대봐』, 엠지엠 타북스.
허승일, 2009, 『다시,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田中俊明, 2009, 『古代の日本と加耶』, 東京: 山川出版社.

논문

강주연 외, 2019,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청소년상담1388' 빅데이터 분석:2011~2018 네이버 지식iN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7(2).
강진구 외, 2020,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다문화 연구 동향 분석」, 『다문화콘텐츠연구』 35.
구현주, 2021, 「개념사 연구에서 빅데이터 연구방법의 활용 가능성」, 『개념과소통』 27.
金希敎, 2001, 「인문학의 위기와 대학역사 교양과목 개혁의 필요성」, 『역사교육』 80.
김기섭, 2018, 「일본 중등 역사교과서의 임나일본부설」, 『百濟文化』 58.
김기봉, 2021, 「AI 시대 역사학, 컴퓨터 역사학」, 『사림』 76.
김민정 외, 2017, 「텍스트 마이닝과 연관 관계 분석을 이용한 건축역사 용어 분석」, 『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털융복합연구』 15(1).
김선민, 2015, 「日本古代史硏究의 硏究動向과 課題-共存의 歷史學-」, 『동양사학연구』 133.
김정인, 2019, 「역사소비시대, 대중역사에서 시민역사로」, 『역사학보』 241.
김태식, 1988, 「6세기 전반 加耶南部諸國의 소멸과정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1.
남상구, 2008, 「일본 역사교과서의 일본군'위안부' 기술 변화」, 『한일관계사연구』 30.
남수태 외, 2021, 「빅데이터 분석 도구 R 언어를 이용한 논문 데이터 시각화」, 『한국정보통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5(1).
남재우, 2011, 「식민사관에 의한 가야사연구와 그 극복」, 『한국고대사연구』 61.
_____, 2018, 「가야의 국가발전단계와 가야사연구」, 『역사와세계』 54.
노중국, 2012, 「6세기 전반 대가야의 왕위 교체와 정책의 변화-異腦王에서 嘉悉王으로의 왕위교체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66.
문순창, 2021, 「일본군 '위안부' 수업 실천의 성찰적 진화」, 『역사와 교육』 20.
문주영, 2019, 「SNS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비서'인식 연구」, 『비서·사무경영연구』 28(3).
박순준, 2002,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역사교육-대학에서의 역사교육을 중심으로-」, 『역사와경계』 44.
_____, 2006, 「대학 역사 지식의 생산과 소비 디지털 역사학을 향하여」, 『역사와경계』 59.
백승옥, 2019, 「4~6세기 加耶의 對百濟·新羅 관계」, 『한국고대사연구』 94.
백승종, 2010, 「성공적인 대중 역사서, 어떻게 쓸까?-하나의 역사적 성찰」, 『역사와현실』 76.
박은봉, 2005, 「[역사의 현재성과 대중성 3] 역사의 대중화와 대중역사서」, 『내일을 여는 역사』 20.
박정애, 2021, 「'위안부'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울까.-『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일본 편, 히라이 미쓰코, 생각비행, 2020; 한국 편, 방지원, 생각비행, 2021)」, 『동북아역사논총』 73.
白承忠, 1993, 「任那復興會議」의 전개와 그 성격」, 『역사와세계』 17.
_____, 2014, 「안라국의 대외관계사 연구의 제문제」, 『한국민족문화』 51.
백영서, 2010, 「사회인문학의 지평을 열며-그 출발점인 '공공성의 역사학'-」, 『동방학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 149.
서현주, 2017, 「한·일 중·고교 역사 교과서의 '위안부' 서술 비교」, 『한일관계사연구』 58.
서호준, 2021, 「빅데이터와 한국 고대사 연구경향」, 『대구사학』 144.
신가영, 2020, 「가야 諸國과 고구려의 관계」, 『한국고대사연구』 98.
신경애, 2015, 「한국 대학생의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과 관련 수업에 대한 니즈」, 『일본문화연구』 55.
안병우, 2017, 「역사연구와 기록: 현대 역사학과 기록학의 지향과 과제」, 『역사학보』 234.
엄찬호, 2013, 「일본의 한국사 왜곡과 역사치유」, 『한일관계사연구』 44.
유우창, 2012, 「6세기 전반 가라와 나제동맹의 대립」, 『역사와 세계』 41.
延敏洙, 2005,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古代史 서술과 歷史認識」, 『한국사연구』 129.
이노우에 나오키, 2015, 「일본학계에서의 광개토왕비 연구의 성과와 과제」, 『동북아역사논총』 49.
이동기, 2011, 「현대사박물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역사비평』 96.
_____, 2016, 「공공역사: 개념, 역사, 전망」, 『독일연구』 31.
이상국, 2016, 「'빅데이터' 분석 기반 한국사 연구의 현황과 가능성: 디지털 역사학의 시작」, 『응용통계연구』 29(6).
이상동·박충식, 2020, 「From Data Agents: 한국 디지털 역사학의 현주소와 AI 시대의 역사학」, 『HOMO MIGRANS』 22.
이선관, 1999, 「역사에서의 연속성」, 『현상학과 현대철학』 12.
이연심, 2020, 「6세기 전반 가야와 신라의 관계」, 『한국고대사연구』 99.
이영식, 2001, 「[사실, 이렇게 본다1] 임나일본부에 대한 연구의 역사」, 『내일을 여는 역사』 6.
이윤갑, 2007, 「한국 역사학의 새로운 길 찾기-민족주의 역사학의 전망-」, 『한국학논집』 35.
_____, 2018, 「가야제국의 발전단계와 초기고대국가론」 『한국고대사연구』 89.
이재석, 2014, 「『일본서기』를 통해 본 안라국과 주변제국-특히 왜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51.
전덕재, 2022, 「『삼국사기』 기록을 통해 본 가야 인식의 변천 고찰」, 『역사와경계』 12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전재호, 2019, 「2000년대 한국의 '극단적' 민족주의에 관한 비판적 연구: '국수주의 역사학'의 존립 기반을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25(1).
전진국, 2019, 「「任那興亡史」의 논지와 학술적 영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64.
鄭善花, 2021a,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광개토왕비(廣開土王碑) 관련 서술 변천」, 『동북아역사논총』 73.
_____, 2021b, 「「『日本史B』교과서의 廣開土王碑 관련 서술과 역사인식」, 『역사교육』 159.
_____, 2022,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가야사 인식과 이미지텔링」, 『역사교육』 164.
정연태, 1999, 「'식민지근대화론' 논쟁의 비판과 신근대사론의 모색」, 『창작과비평』 103.
정의룡, 2018,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 2001년~2009년의 정권별 패턴을 중심으로」, 『문화기술의 융합』 4(1).
鄭孝雲, 2007, 「「새역사교과서」와 任那日本府」, 『일어일문학』 35.
_____, 2021, 「가야사의 듀얼리즘과 연구사의 스팩트럼」, 『한일관계사연구』 71
조흡(Heup Cho), 2017, 「[영화이야기] 밀정과 대중역사」, 『대한토목학회지』 65(1).
최광식, 2016, 「한국고대사의 대중화와 대중문화화」, 『한국고대사연구』 84.
_____, 2019, 「나의 한국고대사 연구와 삶」, 『한국고대사연구』 94.
한신 외, 「블록형 코딩프로그램을 활용한 지구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인식 및 과학적 태도 변화 연구」,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12(2).
허수, 2018, 「언어 네트워크 연구를 통해 본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역사인식-내재적 발전론의 의미구조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75(1).
洪性和, 2016, 「『日本書紀』 繼體·欽明紀에 보이는 新羅와 倭의 관계」, 『한일관계연구』 54.
황주성 외, 2010, 「집단지성의 유형에 따른 참여자 특성분석: 위키백과와 지식iN에 대한 한미 비교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4).
황치곤 외, 2021, 「코사인 유사도를 기반의 온톨로지를 이용한 문장유사도 분석」, 『한국정보통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5(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SNS 기록을 통해 본 대중의 가야 인식

–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

정선화

이 글은 SNS에 나타난 대중의 가야 관련 역사인식의 변화 과정을 키워드의 출현 빈도와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파악한 것이다. '가야사'와 관련해 SNS에 출현하는 상위 키워드는 최근 23년간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2시기에 상위권에 진입한 대표 키워드로 '일본서기', '임나일본부', '임나일본부설' 등이 있다. 가야의 인식 변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2시기에 '일본서기'를 분석하였다. 2시기에는 2013년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와 2017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있었다. 박근혜 정권기에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강력한 우경화로 한일관계가 유례없이 경직되었다. 문재인 정권기에는 가야사 복원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가야사 관련 다양한 작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대중으로 하여금 일본과 연관된 특정 키워드의 소비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 2시기의 역사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역사인식'을 검색 키워드로 하여 SNS에서 2000~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였다. 2시기에 한국 정부 관련 키워드와 한일관계를 나타내는 키워드의 출현이 1시기에 비해 3배 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상 많았다. 이는 2시기에 존재했던 두 정부의 정치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대중의 역사인식 형성과 연관 있는 역사교과서의 텍스트를 분석해 SNS에서 소비되는 대중의 관심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대중은 교과서와 다양한 매체, 교육현장의 역사교사로부터 일본이 『일본서기(日本書紀)』의 기록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왜곡하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은 '가야의 역사'에 초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 교육으로 만들어진 국민적 정체성을 일본이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에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많은 국민은 역사교육을 통해 후진적 일본과 선진적 가야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일본이 '임나일본부설'로 가야를 지배한다는 말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근대 식민지배의 통증이 되살아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역사교과서와 공공적 역사소비는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중심의 역사교육이 2시기의 정치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공개된 SNS에 표출하여 국민적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SNS, 텍스트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가야 인식, 역사대중화, 역사인식, 공공역사, 역사교육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e Public's Perception of Gaya through SNS Records: Focusing on Text Network Analysis

Jeong Sunhwa

This article identified the process of changing the public's perception of Gaya-related history on SNS through the frequency of keyword appearance and network structure. Representative keywords that have entered the top ranks of the 2nd period in relation to "Gayasa" over the past 23 years include "Japanese Clerk," "Imnail Headquarters," and "Imnail Headquarters." In order to examine the factors of change in Gaya's perception, the 'Japanese clerk' was analyzed at 2nd period. In the second period, there was the Park Geun Hye government launched in 2013 and the Moon Jae In government launched in 2017. The strong right-wing of the Shinzo Abe regime during the Park Geun Hyen regime has made Japan's relationship more rigid than ever. During the Moon Jae Inn regime, the restoration of Gaya history was included in the national agenda, and various works related to Gaya history were promoted. This political situation is believed to have increased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consumption of certain keywords related to Japan.

In order to track the change in history at 2nd period, 'history recognition' was analyzed. In the second period, keywords related to the Korean government and keywords indicating Korea-Japan relations appeared more than three times more than in the first period. This is believed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political issues of the two governments that existed in the second period. Finally, the text of the history textbook related to the formation of the people's historical perception was analyzed to examine the difference between the public's interest and the public's interest consumed on SNS. However, public attention is not focused on Gaya's history, but it is strongly opposed to the fact that Japan is distorting the national identity created by Korean history education. The reason why Japan cannot accept the word itself that it dominates Gaya with the "Imna-il Headquarters" is that it received education from underdeveloped countries through history education and developed Gaya. History textbooks and public history consumption are not inconsistent, but ethnic-centered history education reacts sensitively to political issues at 2nd period and creates national identity through SNS.

Keywords: SNS, Text Network, History Recognition, History Consumption, History Textbook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2..78.006

무령왕의 '갱위강국(更爲强國)' 표문과 영동대장군

박찬우 |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I. 머리말
II. '갱위강국' 표문 관련 논점의 검토
III. '갱위강국'의 표방과 영동대장군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웅진 천도 후 약화된 백제의 국력은 동성왕대를 거치면서 서서히 회복되었다. 501년 12월 동성왕이 죽고 무령왕이 즉위했다. 무령왕의 치세(502~523)는 동성왕대와 더불어 성왕대의 전제왕권 확립과 중앙집권적 통치체제 정비 등 중흥의 기반을 마련한 시기로 평가된다.[1] 대외적으로는 한성 수복을 위해 고구려와 적극적으로 대결했다.[2] 동성왕대의 소원했던 왜와의 관계가[3] 다시 긴밀해졌으며, 전남 동부 지역과 섬진강 유역으로 진출하여 지배영역을 넓히고, 가야 방면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도 했다.[4]

무령왕이 즉위한 502년 중국에서는 소연(蕭衍)이 남제(南齊)를 무너뜨리고 양(梁)을 세웠다. 그가 바로 양무제(梁武帝, 재위 502~549)이다. 무제의 치세에 양은 남조 전체를 통틀어 최대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반면 북위는 점차 쇠퇴하여 결국 530년대에 동·서로 분할되었다. 이러한 6세기 전반의 국제환경 속에

---

* 투고: 2022년 10월 14일, 심사 완료: 2022년 11월 8일, 게재 확정: 2022년 11월 14일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2022, 「백제의 외교문서와 남북조 외교」,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Ⅵ장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연구임.

1 梁起錫, 1990, 「百濟專制王權成立過程硏究」, 檀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38~149쪽; 盧重國, 1991, 「百濟 武寧王代의 集權力 强化와 經濟基盤의 擴大」, 『百濟文化』 21, 12~28쪽.

2 鄭載潤, 1999, 「熊津時代 百濟 政治史의 展開와 그 特性」, 西江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32~142쪽.

3 김수태, 2011, 「5세기 후반 백제의 대왜 관계와 남조」, 『百濟學報』 170, 188~190쪽; 박민경, 2017, 「5세기 후반 백제의 대왜관계-蓋鹵王·東城王代를 중심으로-」, 『사림』 60, 140~148쪽.

4 정재윤, 2008, 「백제의 섬진강 유역 진출에 대한 고찰」,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256~264쪽; 박현숙, 2008, 「백제의 섬진강유역 영역화와 가야와의 관계」,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284~29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 백제는 양과 관계를 맺으며 각종 문물제도를 수용하고 이를 통치체제 정비에 활용했다.

이처럼 무령왕대는 백제가 중흥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제무대에서 재도약한 시기였다. 양과의 관계는 백제의 중흥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전개되었다. 무령왕대 양과의 관계 연구는 1971년 무령왕릉 발굴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특히 무덤 출토품을 중심으로 하는 문물교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에 비해 문헌을 통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한 인상을 받지 못한다. 비교적 기록이 많은 성왕대와 함께 논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양서(梁書)』와 『삼국사기』에 무령왕대 양과의 관계 기사가 512년과 521년 2건만 전하는 데서 기인한다.

다만 자료가 부족한 가운데 512년의 견사(遣使)를 책봉이 수반된 521년의 견사와 구분하여 비공식적인 교섭으로 추정한 연구가 있다.[5] 521년 견사에 대해서는 표문(表文)과 관련된 '갱위강국(更爲强國)'이라는 어구가 주목을 받았다. 이를 통해 무령왕이 정국의 안정을 이루고 고구려를 격파한 뒤 '갱위강국'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했으며, 무령왕의 책봉호 영동대장군(寧東大將軍)은 그와 관련된 성과로 보았다.[6] 이러한 '갱위강국'의 면모는 「양직공도(梁職貢圖)」의 '방소국(旁小國)' 기사, 즉 9개의 한반도 남부 소국이 백제에 부용한다는 기록과 함께 논의되었다. 한편, 최근에는 영동대장군의 성격을 동아시아적 시야에서 검토하거나[7]

---

5 坂元義種, 1978a, 『百濟史の研究』, 東京: 塙書房, 179~180쪽; 田中俊明, 2008, 「百濟の對梁外交-特に512年の遣使を中心に-」, 『충청학과 충청문화』 7,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107쪽; 田中俊明, 2021, 「百濟武寧王をめぐるいくつかの問題」, 『朝鮮史研究會論文集』 59, 25~26쪽.

6 노중국, 2012, 「무령왕대 백제의 동아시아 상에서의 위상」, 『百濟文化』 46; 2012, 『백제의 대외 교섭과 교류』, 지식산업사, 273~275쪽; 길기태, 2020, 「武寧王의 '更爲强國' 선언과 大通寺」, 『한국고대사탐구』 34, 282~292쪽; 정재윤, 2022, 「무령왕대 대외관-영동대장군 작호를 중심으로-」, 『百濟文化』 66, 42~49쪽.

7 정동준, 2018, 「6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책봉호의 정치적 의미」, 『사림』 66, 15~1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갱위강국'의 표방을 다소 과장된 대외 선전으로 간주한[8] 연구도 제출되었다.

이처럼 무령왕대 백제-양 관계 연구는 주로 521년의 견사, 특히 사신이 지참한 '갱위강국'과 관련된 표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문의 내용은 비록 단편적이지만 '갱위강국'의 실상과 관련하여 이목이 집중되어왔던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상기의 연구성과가 제출되었고, 기록도 단편적이므로 새로운 견해를 제출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기존에는 표문이라는 문서 자체에 착목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표문은 명분상 군신관계와 관련되며, 기본적으로 신하가 군주에게 바치는 문서이다.[9] 물론 고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표문의 사용이 반드시 실제 상하관계의 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백제의 표문 사용은 중국왕조와의 조공·책봉관계와 관련되는데, 주지하듯이 남북조시대의 책봉은 중국왕조의 분열로 인해 실질적 규제력을 갖지 못했다.[10]

다만 문서 형식이 표문인 이상 거기에 반영된 명분, 즉 군신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521년의 표문도 백제와 양의 조공·책봉관계, 군신관계라는 명분과 관련되는 것인 만큼 문서의 특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백제의 '갱위강국' 표방뿐만 아니라 표문이 양을 의식하며 작성된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521년 표문은 영동대장군이라는 책봉호(장군호)의 획득과도 관련된 것이었다. 이러한 책봉호 획득을 위한 외교전략의 측면에서도 표문의 내용과 군신관계와 관련한 수사적 표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하면서도 문서 자체의 성격을 고려하여 '갱위강국'과 관련된 표문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표문의 내용과 영동대장군이라는 성과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종래 간과

---

8 위가야, 2019, 「백제 무령왕대 '更爲强國'설의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 95.

9 표문의 성격과 그것이 국제관계에서 통용된 배경에 대해서는 梁鎭誠, 2017a, 「南北朝時期의 國際關係에 대한 再考-國書의 授受事例를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41, 68~73쪽을 참조하라.

10 金鍾完, 1995, 『中國南北朝史研究』, 一潮閣, 113~17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되었던 표문의 수사적 측면과 영동대장군과의 상관관계가 선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521년의 표문은 편의상 '갱위강국' 표문으로 칭하고자 한다.

Ⅱ. '갱위강국' 표문 관련 논점의 검토

521년 무령왕이 양에 보낸 표문은 이른바 '갱위강국'과 관련하여 그간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대체로 무령왕이 정국의 안정을 이루고 고구려를 격파한 뒤 '갱위강국'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머리말에서 언급했듯이 선행연구에서는 표문이라는 문서의 성격에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갱위강국' 표문은 비록 단편적인 문장만 전하지만, 문서 자체에 주목함으로써 종래 간과되었던 지점들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논지 전개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원문을 제시하여 검토하겠다.

A. 普通二年 王餘隆Ⓐ始復遣使奉表稱 累破句驪 Ⓑ今始與通好 Ⓒ而百濟更爲强國[11]

A사료에는 Ⓐ, Ⓑ, Ⓒ로 표기한 부분에 관한 3개의 논점이 있다. 첫째, '始復'의 의미, 둘째, '今始與通好'의 통호 상대국 문제, 셋째, '而百濟更爲强國', 특히 '更爲强國'이 표문 문장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 Ⓑ, Ⓒ에 대하여 이하 차례로 검토하고자 한다.

'始復'(A-Ⓐ)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보통(普通) 2년(521) 무령왕이 처음 양에 사신을 보낸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始復'는 521년의 견사를 무령왕이 단행한 첫 '국가적 규모'의 교섭으로 추정한 견해의 단서가 되기도

11 『梁書』 卷54, 列傳48 百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했다.[12] '始復'에 나타나는 '처음'이라는 의미에 착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서』 본기에는 512년 백제의 견사 기록이 분명히 실려 있다.[13] 따라서 '始復'는 종래 지적된 것처럼 512년 이후 백제가 오랜만에 사신을 보냈기 때문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14] 이와 관련하여 『구당서』 백제전에는 6년 만에 재개된 의자왕의 견사가 '始復'와 유사한 '始又'로 표기되었다.[15]

다음으로 '今始與通好'(A-Ⓑ)의 통호 상대국 문제를 논하겠다. 여러 차례 고구려를 격파하고 비로소 통호하게 된 것이 어느 나라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고구려로 보거나[16] 양으로 보는[17] 상반된 입장이 존재한다. 이 중 전자의 경우 통호 상대국을 고구려로 보는 뚜렷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후자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전자에 따르면 '累破句驪 今始與通好'는 '여러 차례 고구려를 격파하고 이제 비로소 고구려와 통호하게 되었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 경우 격파한 대상과의 통호가 사리에 맞지 않다거나,[18] 양과 통교하면서 굳이 고구려와의 관계를 언급할 필요성이 없다는[19]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은 분명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잔존한 표문 문장이 단편적이므로 문맥이나 상황적 어색함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12 坂元義種, 1978a, 앞의 책, 179~190쪽; 田中俊明, 2008, 앞의 글, 94~96쪽.

13 『梁書』 卷2, 武帝紀 天監 11年, "百濟 扶南 林邑國竝遣使獻方物."

14 노중국, 2012, 앞의 책, 272쪽.

15 『舊唐書』 卷199上, 列傳149上 百濟, "(貞觀)二十二年 又破其十餘城 數年之中朝貢遂絶 高宗嗣位 永徽二年 始又遣使朝貢."

16 坂元義種, 1978a, 앞의 책, 250쪽; 徐甫京, 2003, 「5세기 말~6세기 초 한반도 諸國과 倭國의 관계」, 『先史와 古代』 18, 223~224쪽; 井上直樹, 2013, 「570年代の高句麗の對倭外交と高句麗·北齊關係」, 『高句麗渤海研究』 45, 115~116쪽. 坂元義種와 井上直樹는 通交 상대국이 梁일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17 田中俊明, 2008, 앞의 글, 95쪽; 노중국, 2012, 앞의 책, 272쪽; 위가야, 2019, 앞의 글, 96쪽 각주 57번; 정재윤, 2022, 앞의 글, 34쪽.

18 노중국, 2012, 앞의 책, 272쪽.

19 田中俊明, 2008, 앞의 글, 9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편, 앞서의 '始復遣使'와 '今始與通好'가 상통한다고 보면서 통호 상대국을 양으로 추정하기도 한다.[20] 이에 따르면 521년 무령왕이 비로소 다시 양에 사신을 보냈고, 표문에는 '누차 고구려를 격파하여 이제 비로소 양과 통호했다'고 언급한 것이 된다. 이는 문맥상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A사료의 문장 구조를 보면 '始復'는 『양서』 찬자가 기입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今始與通好'는 백제 표문의 문장을 옮긴 것이다. 양자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동일선상에서 논하는 것이 타당할지 의문이다.

더구나 위와 같이 표문을 해석하면 512년의 견사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무령왕이 512년 양에 사신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521년 표문에 '이제 비로소 양과 통호했다'고 언급할 개연성을 찾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512년 이래 고구려의 방해로 양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521년경 고구려를 격파하여 비로소 다시 통호했다는 식으로 이해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累破句驪今始與通好'라는 단편적 문장만으로 '고구려의 통호 방해'를 추출할 수 있을지 주저된다.

이처럼 '今始與通好'의 통호 상대국을 단정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표문 문장이 단편적이므로 여러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단편적이나마 남아 있는 문장에 천착해볼 필요는 있다. 이에 표문에 보이는 '通好'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표 1〉은 『송서』, 『남제서』, 『양서』에서 '通好' 및 그와 관련된 표기를 선별 제시한 것이다. ①은 북위 태무제(太武帝, 拓跋燾)가 유송 문제(文帝, 太祖)에게 사신을 보내 국혼을 청한 사실을 전한다. 여기서 북위와 유송의 관계는 '通好'로 표현되었다.

②는 479년 유송이 멸망할 무렵 북위에 파견되었던 은령탄(殷靈誕)에 관한 일화이다. 그는 본국의 멸망 소식을 접하고 북위의 구원이 없는 점을 한탄하면서 유송과 북위의 관계를 '通好'로 표현했다. 또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通好'

20 위가야, 2019, 앞의 글, 96쪽 각주 57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 『송서』, 『남제서』, 『양서』의 '通好' 관련 표기

연번	내용	출전
①	其後燾又遣使**通好** 幷求婚姻 太祖每依違之	『宋書』 卷95 索虜傳
②	昇明中 北使殷靈誕 荀昭先在虜 聞太祖登極 靈誕謂虜典客曰 宋魏**通好** 憂患是同 宋今滅亡 魏不相救 何用**和親**	『南齊書』 卷57 魏虜傳
③	永明九年 魏始**通好** 琛再銜命至桑乾 還爲通直散騎侍郎	『梁書』 卷26 蕭琛傳
④	普通初 魏始**連和** 使劉善明來聘 敕使中書舍人朱异接之 預讌者皆歸化北人 善明負其才氣 酒酣謂异曰 南國辯學如中書者幾人 异對曰 异所以得接賓宴者 乃分職是司 二國**通和** 所敦親好 若以才辯相尙 則不容見使	『梁書』 卷21 孫錫傳

는 '和親'과 통하는 표현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③은 영명(永明) 9년(491) 북위와 남제가 비로소 '通好'했고, 소침(蕭琛)이 사신으로 파견된 사실을 전한다. 여기서도 유송을 이은 남제와 북위의 관계가 '通好'로 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④는 520년 무렵 북위와 양이 비로소 관계를 맺은 사실을 전한다. 여기서 '通好'는 보이지 않지만 양국 관계는 '連和'로 표기되어 있고, 북위 유선명(劉善明)과 양의 주이(朱异)가 주고받은 문답 중에 '二國通和'가 보인다. 양과 북위의 관계는 그 이전 유송·남제-북위 관계의 연장선상에 있다. 따라서 '連和'와 '通和'도 '通好'와 통하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通好'는 남조와 북위가 서로 사신을 보내 관계를 맺는 대목에서 사용되었다. 주지하듯이 남조와 북조는 각각 서로를 '彼此'로 칭하며 대등관계를 맺었다. 양자가 주고받은 문서 형식도 대등관계에서 사용되는 편지 형식의 서장(書狀)이었다.[21] 그러므로 '通好'가 주로 대등관계에 있는 양국의 통교를 표

21 朴漢濟, 1981, 「南北朝時代의 南北關係-交易과 交聘을 中心으로-」, 『한국학논총』 4, 195~197쪽; 梁鎭誠, 2017b, 「남북조시대 남북 간의 교섭과 남북관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현할 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通好'의 용법에 관하여 다음의 사료가 참조된다.

B. (武德)五年 賜建武書曰 … 今二國通和 義無阻異 在此所有高麗人等 已令追括 尋卽遣送 彼處有此國人者 王可放還 務盡撫育之方 共弘仁恕之道[22]

B사료는 622년 당고조(唐高祖)가 고구려 영류왕에게 서장을 보낸 사실, 그리고 그 서장에서 '二國通和'를 운운하고, 아울러 당을 '此所', 고구려를 '彼處'로 언급하였음을 전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서장은 대등관계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군신관계에서 조서와 표문을 주로 주고받는 점과 대비된다. 서장에서 '二國通和'를 운운한 것은 앞서 본 북위-양 관계(〈표 1〉-④)와 동일하며, '通和'는 곧 '通好'와 상통한다. 양국을 彼此로 칭한 것 역시 남북조의 대등관계를 방불케 한다.

당고조가 취한 대외정책은 '無取臣屬', 즉 주변국의 독자적 세력권을 인정하며 무리하게 신속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는 수양제(隋煬帝)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것이었으며, 동돌궐(東突厥)에 사실상 신속하는 등 건국 초 당의 국력이 열악했기 때문이었다.[23] 당고조가 고구려와 대등관계를 맺은 것은 이러한 건국 초기 당의 국세와 관련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결국 B사료의 내용은 무덕(武德) 연간(618~626) 고구려와 당이 대등한 입장에서 우호관계를 맺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24] 이를 통해서도 '通好'(=連和, 通和, 和親)가 대등

대외교섭에 사용된 문서의 수수사례를 중심으로-」, 『中國古中世史硏究』 46, 277~287쪽.

22 『舊唐書』 卷199上, 列傳149上 高麗.

23 李基天, 2016, 「7世紀初 唐의 對外戰爭 名分과 國際秩序」, 『中國古中世史硏究』 39, 219~220쪽.

24 이정빈, 2016, 「고구려-당 관계의 성립과 변경지대(618~624)」, 『高句麗渤海硏究』 54, 72~7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관계와 관련하여 주로 사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검토에 따르면 대체로 '通好'는 대등관계와 관련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 표문은 기본적으로 군신관계에서 사용되는 문서 형식이다. '奉表'라는 행위 자체는 발신자가 수신자를 자신의 군주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25] '通好'와 '奉表'의 위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백제가 군신관계와 관련된 표문을 양에 보내면서 양국 관계를 '通好'로 표기했을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472년 개로왕이 북위에 보낸 표문의 서두를 살펴보고자 한다.

C. 연흥(延興) 2년 그 왕 여경(餘慶)이 처음 사신을 보내 표문을 올리기를, "신은 동쪽 끝에 나라를 세워 승냥이와 이리에게 길이 막히니, 비록 대대로 신령한 교화를 받았으나 **번신(藩臣)**의 예를 다할 길이 없었습니다. **천자의 궁궐(雲闕)**을 우러러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 끝이 없는데 서늘한 바람이 조금이나마 불어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황제 폐하는 하늘의 아름다운 도리에 맞추어 (천하를 다스리니) 공경하고 사모하는 마음 억누를 길 없습니다. 삼가 사서(私署)한 관군장군(冠軍將軍)·부마도위(駙馬都尉)·불사후(弗斯侯)·장사(長史) 여례(餘禮)와 용양장군(龍驤將軍)·대방태수(帶方太守)·사마(司馬) 장무(張茂) 등을 보내 험한 파도에 배를 띄워 망망한 바닷길을 더듬어 찾아가게 했으니, 자연의 운수에 명운을 맡겨 만에 하나 (성공한다면) 정성을 바치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천신지기가 감응을 내리고 황제의 은택이 대지를 덮어 **천자의 조정(天庭)**에 도달하여 신의 뜻이 펴질 수 있다면 비록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처럼 길이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26]

472년 개로왕은 처음 북위에 사신을 보냈다. 그 목적은 고구려 정벌을 위한

25 梁鎭誠, 2017a, 앞의 글, 68~69쪽.

26 『魏書』 卷100, 列傳88 百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청병에 있었다. 그리고 사신은 표문을 지참하여 북위에 갔다. 이 표문 서두에 밑줄 부분처럼 백제가 북위에 사신을 보내는 행위, 즉 양국의 관계가 군신관계 또는 조공과 관련하여 수사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백제를 '藩(臣)', 북위를 '天庭'으로 칭한 데서 극명히 드러난다. 군신관계와 관련되는 표문을 채택·사용한 이상, 청병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 백제를 낮추고 북위를 높이는 외교적 수사를 사용했을 것이다. 실리를 취하기 위한 외교적 방편으로 볼 수 있다.

무령왕 역시 양에 표문을 보냈으므로, 표면적으로 군신관계를 표방한 것이 된다. 따라서 표문 속에 양국의 관계를 대등관계와 관련되는 '通好'로 표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로왕 표문에서 볼 수 있듯이, 군신관계 또는 조공과 관련한 수사적 내용이 표문이라는 문서의 성격에 부합한다. 결국 표문의 성격, 그리고 '通好'의 용법을 고려하면 '今始與通好'의 통호 상대국이 양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今始與通好'의 통호 상대국이 양이 아니라면 남은 것은 고구려밖에 없다. 그렇다면 무령왕은 521년 양에 표문을 보내면서 고구려와의 통호를 언급한 것이 된다. 그런데 이처럼 결론을 내린다면, 앞서 선행연구의 지적처럼 문맥이나 상황적으로 어색한 지점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Ⅲ장에서 논하고자 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而百濟更爲强國'(A-Ⓒ)이 표문 문장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에 관해서는 '갱위강국'을 표문의 문장으로 간주하고 무령왕대 '갱위강국 선언'을 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7] 다만 근래 '累破句驪 今始與通好'만 표문 문장으로 보는 견해도 제기되었다.[28] 지금까지 간행된 중국정사 교감본·역주본 역시 위와 같이 두 갈래로 해석이 나뉘는데, 최근에는 전자의 경향이 강하다.[29] 전자는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반면

27 노중국, 2012, 앞의 책, 270쪽이 대표적이다.

28 위가야, 2019, 앞의 글, 96쪽.

29 국사편찬위원회, 1990, 『中國正史 朝鮮傳 譯註(1)』, 450·479쪽에서는 '累破句驪 今始與通好'만 표문 문장으로 보았고, 최근 간행된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2020, 『譯註 中國 正史 東夷傳3』(晉書~新唐書 百濟), 동북아역사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후자는 「양직공도」 제기(題記)에 '갱위강국'이 없는 점[30]에 착목하여 '而百濟更爲强國'을 『양서』 찬자의 서술로 간주했다. 따라서 후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양직공도」는 양무제의 일곱째 아들 소역[蕭繹, 508~555, 훗날의 원제(元帝)]이 형주자사로 재직하던 시기인 539년 전후에 제작한 것이다. 소역은 직공도의 제작을 위해 형주에 방문한 외국인의 용모·풍속을 관찰·조사하고, 형주에 오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사람을 보내 조사하게 했다. 이를 토대로 조공국 사절의 그림과 그 나라에 관한 기술, 즉 제기를 덧붙여 「양직공도」를 만들었다. 주지하듯이 「양직공도」 제기는 『양서』 제이전(諸夷傳)의 전거자료가 되었다고 여겨진다.[31] 다만 소역 또한 배자야(裴子野, 469~530)의 「방국사도(方國使圖)」를 참조했으며,[32] 「양직공도」 백제국사(百濟國使)조의 내용은 주로 521년 양에 들어간 백제 사신에서 비롯되어 「방국사도」에 먼저 수록된 것으로 여겨진다.[33]

이상과 같은 『양서』 제이전의 성립 과정을 고려하면 「양직공도」에 '갱위강국'이 없는 사실은 분명 유의할 만하다. 그러나 현존 「양직공도」, 즉 북송모본(北宋摹本)의 제기가 원문을 충실히 전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근래 장경(張庚, 1685~1760)이 모사한 이른바 장경모본(張庚摹本)의 존재가 알려지고,[34]

단, 67쪽; [唐]姚思廉 撰, 2020, 『梁書』 第3冊(點校本 二十四史 修訂本), 北京: 中華書局, 889쪽에서는 '更爲强國'까지를 표문 문장으로 간주했다.

30 「梁職貢圖」 百濟國使, "普通二年 其王餘隆遣使奉表云 累破高麗."

31 榎一雄, 1963, 「梁職貢圖について」, 『東方學』 26: 榎一雄, 1992, 『榎一雄著作集』 7, 東京: 汲古書院, 106~126쪽; 李弘稙, 1965, 「梁職貢圖論考」, 『六十周年 紀念論文集』(人文科學篇), 高麗大學校, 296~307쪽.

32 榎一雄, 1992, 위의 책, 122~124쪽.

33 李鎔賢, 1999, 「『梁職貢圖』百濟國使條の「旁小國」」,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7, 176~179쪽.

34 張庚摹本 자체는 현전하지 않는다. 2011년 香港 嶺南大學 교수 趙燦鵬이 葛嗣浈(1867~1935)의 『愛日吟廬書畵續錄』 卷5에 실린 「淸張庚諸番職貢圖卷」을 발견·소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것이 「양직공도」의 또 다른 모본임이 확인되면서[35] 더욱 분명해졌다. 장경모본에 현존 「양직공도」에는 없는 내용이 많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36] 누약(樓鑰, 1137~1213)의 「발부흠보소장직공도(跋傅欽甫所藏職貢圖)」(『공괴집(攻媿集)』 권75)에도 당시 유전(流傳)되던 직공도의 내용이 실려 있다. 여기에도 장경모본처럼 현존 「양직공도」에 없는 내용이 있다. 특히 백제국 부분에는 천감(天監) 11년(512) 백제의 견사 기록이 있다.[37] 이는 현존 「양직공도」에 없는 내용이다.

이처럼 「양직공도」의 유전과 모본의 문제를 고려하면, 제작 당시 「양직공도」에 '갱위강국'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양서』와 「양직공도」의 비교보다는 『양서』 내에서의 비교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양서』 제이전의 '갱위강국' 관련 기록

연번	내용	출전
①	天監元年 進太號征東將軍 尋爲高句驪所破 衰弱者累年 遷居南韓地 普通二年 王餘隆始復遣使奉表稱 累破句驪 今始與通好 而百濟**更爲强國**	『梁書』卷54 百濟傳
②	永明中 爲丁零所破 **更爲小國**而南移其居 天監中 始破丁零 復其舊土	『梁書』卷54 芮芮國傳
③	元魏之居桑乾也 **滑猶爲小國** 屬芮芮 後稍强大 征其旁國波斯 盤盤 闍賓 焉耆 龜茲 疏勒 姑墨 于闐 句盤等國 開地千餘里	『梁書』卷54 滑國傳
④	永平中 其種人都末殺君得 大人休莫霸又殺都末 自立爲王 霸死 兄子廣得立 後擊虜莎車王賢以歸 殺之 **遂爲强國** 西北諸小國皆服從	『梁書』卷54 于闐國傳

35 趙燦鵬, 2011, 「南朝梁元帝《職貢圖》題記佚文的新發見」, 『文史』 2011-1, 111~118쪽.

36 尹龍九, 2012, 「현존 『梁職貢圖』 百濟國記 三例」, 『百濟文化』 46, 245~246쪽.

37 『攻媿集』 卷75 跋傅欽甫所藏職貢圖, "百濟國 東夷三韓 馬韓有五十四國 百濟其一也 天監十一年 遣使朝貢."(張元濟 輯, 1981, 『四部叢刊正編』 55, 臺北: 商務印書館). 樓鑰 抄錄 職貢圖의 의의에 대해서는 尹龍九, 2012, 위의 글, 250~251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2〉에서 보듯이 『양서』 백제전(①)과 예예국전(②)의 맥락은 유사하다. 양국은 각각 고구려·정령의 침공으로 본거지를 남쪽으로 옮겼다. 이후 세력을 키워 고구려·정령을 격파하고 강국이 되거나 옛 땅을 회복했다. 이러한 유사한 맥락 속에 '갱위강국', '갱위소국(更爲小國)'이라는 동일한 필법이 보인다. '갱위소국'이 「양직공도」 내지 『양서』 찬자의 서술이므로, '갱위강국'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 활국전의 '유위소국(猶爲小國)'(③), 우전국전(④)의 '수위강국(遂爲强國)'도 유사한 필법이다. 이 역시 활국·우전국이 약소한 상태에서 점차 강성해졌다는 맥락 속에서 사용되었다. 이상의 사례를 참조하면 '而百濟更爲强國'은 표문의 문장일 가능성은 낮고 「양직공도」 또는 『양서』 찬자가 기술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백제 스스로 표문에 자국을 3인칭(而百濟更爲强國)으로 표기했을 가능성도 낮다. 군신관계를 전제로 하는 표문에서 신하의 자칭은 기본적으로 '臣'으로 한정된다. 5세기 이래 백제는 이러한 원칙을 준수했는데, 표문 속 자칭으로는 '臣' 내지 '臣國'만 보인다.[38] 『삼국사기』 찬자는 『양서』 백제전의 '갱위강국' 표문을 옮겨오면서 '而百濟更爲强國'에서 '百濟'를 삭제했다.[39] 이는 찬자가 '更爲强國'을 표문의 일부로 간주했음을 시사한다. '而百濟更爲强國'을 표문의 문장으로 본다면 '百濟'라는 3인칭은 어색하기 때문이다.[40]

종합해보면 '而百濟更爲强國'이 표문의 문장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표문에 '갱위강국'과 관련된 내용은 있었을 것이다. 즉, 표문에는 무령왕대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되었음을 표방하는 내용이 있었고, 이를 인상

38 『宋書』 卷97, 列傳57 百濟國, "(大明)二年 慶遣使上表曰 臣國累葉 偏受殊恩"; 『魏書』 卷100, 列傳88 百濟, "延興二年 其王餘慶始遣使上表曰 臣建國東極 豺狼隔路 雖世承靈化 莫由奉藩"; 『南齊書』 卷58, 列傳39 百濟國, "建武二年 牟大遣使上表曰 臣自昔受封 世被朝榮 忝荷節鉞 剋攘列辟."

39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武寧王 21年 11月, "先是爲高句麗所破 衰弱累年 至是上表稱 累破高句麗 始與通好 而更爲强國."

40 위가야, 2019, 앞의 글, 79~8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적으로 본 「양직공도」 내지 『양서』 찬자가 '而百濟更爲强國'으로 정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지금까지 A사료를 둘러싼 3개의 논점을 검토해보았다. Ⅲ장에서는 이상의 검토 내용을 토대로 표문에서 표방된 '갱위강국'의 실체, 그리고 표문 내용과 영동대장군의 상관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Ⅲ. '갱위강국'의 표방과 영동대장군

1. '갱위강국' 표문의 내용과 수사(修辭)

Ⅱ장에서는 『양서』 백제전의 이른바 '갱위강국' 표문 문장이 비록 '累破句驪 今始與通好'에 한정되지만, '갱위강국'과 관련된 내용 역시 표문에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는 '갱위강국'도 포함하여 표문에 서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복원해보고자 한다. Ⅱ장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표문과 그 전후 문장을 제시하면 아래의 사료와 같다.

D. ① 천감 원년(502) 태(太, 동성왕; 필자)의 (장군호를) 정동장군(征東將軍)으로 진호(進號)했다. ② 이윽고 고구려(高句驪)에게 격파되어 여러 해 동안 쇠약해지더니, 남한(南韓) 땅으로 본거지를 옮겼다. ③ 보통 2년(521) 왕 여륭(餘隆, 무령왕; 필자)이 비로소 다시 사신을 보내 표문을 올리길 "누차 고구려를 격파하여 이제 비로소 (고구려와) 통호하였다"고 하였으니,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된 것이다.[41]

41 『梁書』 卷54, 列傳48 百濟, "天監元年 進太號征東將軍 尋爲高句驪所破 衰弱者累年 遷居南韓地 普通二年 王餘隆始復遣使奉表稱 累破句驪 今始與通好 而百濟更爲强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D-①은 502년 양 건국 직후 무제가 동성왕의 장군호를 정동장군으로 진호했다는 내용이다. 이때의 장군호는 『양서』 본기에는 정동대장군으로 나온다.[42] 동성왕이 남제로부터 받은 장군호가 진동대장군(鎭東大將軍)이며, 본기에 상세한 날짜(4월 무진)가 기재된 점으로 미루어보면 정동대장군 쪽이 신빙성이 높다. 그런데 당시의 진호는 동성왕 사후의 일이었다. 동성왕은 501년 12월에 죽었다.[43] 주지하듯이 남조 건국 직후의 장군호 진호는 대개 주변국의 사신 파견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사후의 진호는 드문 일이 아니었다.[44]

다음으로 D-②는 실제 연대와 맞지 않아 논란이 되어온 문장이다. D-②가 475년 고구려의 침공으로 인한 한성 함락, 웅진 천도와 관련된다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즉, 여기에는 동성왕대(479~501) 이전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윽고'로 번역한 원문의 시간부사 '尋'이 있으므로, 문맥상 D-②의 시점은 동성왕 이후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양직공도」에도 D-②와 유사한 내용이 전하는데, 무령왕 이전 동성왕 때 고구려에 격파된 듯이 기록되어 있다.[45] 따라서 D-②는 『양서』 찬자의 임의적 서술로 볼 수 없다. 「양직공도」가 제작된 양무제 당시에 위와 같은 사실과 다른 인식이 존재했던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D-②를 양의 백제에 대한 인식으로 간주한 견해가 있다. 고구려가 백제보다 앞서 양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한 인식이 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46]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양직공도」 백제국사조의 내용은

---

42 『梁書』 卷2, 武帝紀 天監元年 4月 戊辰, "鎭東大將軍百濟王餘大進號征東大將軍."

43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東城王 23年, "十二月乃薨 謚曰東城王."

44 坂元義種, 1978a, 앞의 책, 139~140쪽; 金鍾完, 1995, 앞의 책, 117~119쪽.

45 「梁職貢圖」 百濟國使, "梁初以太爲征東將軍 尋爲高句驪所破 普通二年 其王餘隆遣使奉表云 累破高麗." 「양직공도」에는 D-②의 '衰弱者累年 遷居南韓地' 부분이 없다. 따라서 이를 『양서』 찬자의 임의적 서술로 보기도 한다(위가야, 2019, 앞의 글, 94~95쪽).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현존 「양직공도」(北宋摹本) 題記가 梁代의 원문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보장은 없다.

46 李鎔賢, 1999, 앞의 글, 18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방국사도」를 전거로 한 것이며, 그것은 521년 양에 들어간 백제 사신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521년 백제 사신을 통해 D-②와 같은 양의 인식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 즉, 모종의 자료를 「양직공도」(또는 「방국사도」) 제작자가 입수하여 이를 서술에 활용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D-②의 내용은 이를 단독으로 이해하기보다는 D-③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양자를 비교해보면 '尋爲高句驪所破'(D-②)와 '累破句驪'(D-③), 그리고 '衰弱者累年'(D-②)과 '更爲强國'(D-③)이 서로 대응한다. 이러한 양자의 대비는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47] D-②는 고구려의 침공으로 인한 백제의 쇠퇴, D-③은 고구려 격파를 계기로 한 중흥과 관련된다. 고구려와의 관계를 매개로 쇠퇴에서 중흥으로 나아가는 서술 구조가 확인되는 것이다. 나아가 D-①도 포함하여 D사료 전체 문맥 속에서 보면 D-②는 동성왕대, D-③은 무령왕대와 연결된다. D사료 전체의 맥락을 보면 D-①~③이 각각 분절적인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D-②와 D-③의 상호 연관성, D사료의 문맥을 고려하면, 당초 '갱위강국' 표문에는 동성왕대까지 백제의 쇠퇴에서 무령왕 즉위 이후 중흥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아울러 쇠퇴에서 중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고구려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서술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표문에 동성왕대까지의 '衰弱者累年 遷居南韓地'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이것이 「양직공도」, 나아가 『양서』 백제전의 전거가 되었다고 볼 때 D-②의 연대상의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이해된다. 외교문서에 사실과 다른 과장된 내용이 기재되는 일은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48] D-②는 『양서』(또는 「양직공도」) 찬자

47 李鎔賢, 1999, 위의 글, 186쪽; 노중국, 2012, 앞의 글, 21쪽; 近藤浩一, 2014, 「6世紀百濟の思想的基盤と天下觀の形成」, 『京都産業大學日本文化研究所紀要』 19, 248쪽.

48 표문에 사실과 다른 과장된 내용이 서술된 사례로는 472년 개로왕 표문, 478년 왜왕 무 표문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李在碩, 2001, 「『宋書』 倭國傳에 보이는 倭王(武) 上表文에 대한 검토」, 『新羅文化』 24; 서보경, 2006, 「5세기의 高句麗와 倭國-宋書 倭國傳의 倭王武 上表文에 나타난 '고구려 정토' 문제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가 임의로 서술한 것이라기보다는 백제 표문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여겨진다.

'갱위강국' 표문의 방점은 무령왕 즉위 이후의 중흥(Ⅾ-③)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실과 달리 동성왕대가 고구려에 의해 쇠약해진 시기(Ⅾ-②)로 묘사되었다. 이처럼 동성왕대까지가 쇠약기로 서술된 것은 무령왕대의 중흥을 강조하기 위한 과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무령왕이 동성왕을 제거하고 집권한 사실이 새삼 주목된다. 주지하듯이 『삼국사기』에는 501년 12월 백가(苩加)가 동성왕을 시해하고, 이듬해 정월 새롭게 즉위한 무령왕이 백가의 난을 진압한 것으로 나온다.[49] 반면 『일본서기』(『백제신찬(百濟新撰)』)에는 국인(國人)이 무도한 말다왕(末多王, 동성왕)을 제거하고 도왕(嶋王), 즉 무령왕을 옹립했다고 나온다.[50] 이 중 후자를 중시하여 무령왕이 구심점이 된 국인의 정변을 통해 동성왕이 제거되었다고 보는 것이[51] 일반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무령왕이 집권 후 동성왕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무령왕은 동성왕대에 소외된 남래귀족과 왕족들을 규합하여 왕위에 올랐으며, 집권 후 동성왕대와는 달리 적극적인 북방정책을 추구하여 한강 유역을 회복하고자 했다. 이러한 정책은 한성에 기반을 두었던 남래귀족과 왕족들의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왕권의 안정으로 귀결되었다고 한다.[52] 고구려와의 관계를 매개로 쇠퇴(동성왕대)에서 중흥(무령왕대)으로 나아갔다는 표문의 서술 구조는 동성왕대와 차별되는 무령왕대의 대외적 지향과도 부합한다.

『百濟硏究』 43을 참조하라.

49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東城王 23年 11月; 卷26, 百濟本紀4 武寧王 元年 正月.

50 『日本書紀』 卷16, 武烈天皇 4年, "是歲 百濟末多王無道 暴虐百姓 國人遂除而立嶋王 是爲武寧王【百濟新撰云 末多王無道 暴虐百姓 國人共除 武寧王立諱斯麻王 …】".

51 鄭載潤, 1997, 「東城王 23年 政變과 武寧王의 執權」, 『韓國史硏究』 99·100; 김기섭, 2010, 「백제 東城王 암살사건 재검토」, 『한국학논총』 34.

52 鄭載潤, 1999, 앞의 글, 132~14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요컨대 521년 무령왕은 표문을 통해 고구려에 의해 야기된 동성왕대까지 백제의 쇠락을 전제하고, 자신이 즉위한 뒤 고구려를 누차 격파하여 통호관계를 맺고 다시 강국이 되었음을 과시했다고 생각된다. 이 표문의 내용이 「양직공도」, 나아가 『양서』 백제전에 반영되어 무령왕대를 기점으로 '衰弱'에서 '强國'으로 중흥을 이루었다고 기술된 것이다.

이러한 표문의 핵심적 내용, 즉 무령왕대를 기점으로 하는 중흥의 과정에 고구려와의 관계가 개재되어 있다. 고구려의 침공으로 쇠약해졌다가 무령왕 즉위 후 고구려를 격파하고 통호함으로써 중흥이 완료된 것이다. Ⅱ장에서 '今始與通好'의 통호 상대국이 고구려임을 논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 앞서 언급했듯이 격파한 대상과의 통호가 사리에 맞지 않다거나, 고구려와의 통교를 굳이 양에 알릴 필연성이 있는가 하는 지적이 있었다.

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백제와 고구려의 통호를 실제 사실로 간주하거나 또는 외교적 수사로 보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종래 '今始與通好'의 통호 상대국을 고구려로 간주한 연구에서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512년 이후 523년 이전까지 백제와 고구려의 교전 기사가 없다는 점에 착목한 바 있다. 즉, 교전 기사의 공백을 단서로 삼아 당시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진출하려던 백제와 신라의 팽창을 저지하고자 한 고구려가 그 이해관계상 일시적으로 통호했다고 본 것이다.[53]

그러나 백제본기에는 512년부터 516년 사이 3년간, 516년부터 521년 사이 4년간 기사 자체가 없다. 이러한 국내소전(國內所傳)의 부재를 단서로 삼아 512~523년이 소강기이며, 따라서 이때 통호가 성립했다고 추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523년 2월 무령왕은 옛 수도 한성으로 행차하여 쌍현성 수축을 명했다.[54] 이는 고구려의 공격을 대비한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 같은 해 8월에는

53 徐甫京, 2003, 앞의 글, 223~224쪽.

54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武寧王 23年, "春二月 王幸漢城 命佐平因友達率沙烏等 徵漢北州郡民年十五歲已上 築雙峴城."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무령왕이 죽은 지 3달 만에 그 틈을 타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했다.[55]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백제와 고구려의 긴장관계는 무령왕대를 통틀어 지속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외교적 수사의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어떠할까? 앞서 표문은 군신관계라는 명분과 관련되며, 신하가 임금에게 바치는 문서임을 논했다. 따라서 실제 정치적 종속관계와는 무관하게 백제가 군신관계와 관련한 수사적 표현을 활용하여 표문을 작성했을 것이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발신자인 백제의 주장뿐만 아니라 수신자인 양을 고려한 측면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가 백제보다 앞서 양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사실이 주목된다. 양무제는 즉위 직후인 502년 고구려 문자왕의 장군호를 기존의 정동대장군(征東大將軍)에서 거기대장군(車騎大將軍)으로 올려주고, 508년에는 외국용으로 새롭게 제정된 무동대장군(撫東大將軍)을 수여했다. 그리고 520년에는 새로 즉위한 안장왕에게 영동장군(寧東將軍)을 수여했다.[56] 반면 양의 입장에서 보면 521년 이전 단계의 무령왕은 512년에 한 차례 사신을 파견했을 뿐 아직 정식으로 책봉을 받지 않은 외국의 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제가 양의 책봉을 받은 '제후국 고구려'를 격파한 것으로 표문이 끝난다면, 그것은 백제가 표문을 통해 표방한 명분, 즉 군신관계에 비추어 분명 어색하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료를 참조하고자 한다.

E. 다만 고려(高麗)는 선대 조정에 번신(藩臣)을 칭하며 그 (번신의) 책임을 다한 지 오래되었고, 그쪽에서는 비록 예로부터 틈이 있었더라도 국가(북위)에는 아직 명령을 어긴 허물이 없소. 경이 사신을 처음 보내 곧 정벌을 요청하므로 사

55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聖王 元年, "秋八月 高句麗兵至浿水 王命左將志忠 帥步騎一萬 出戰退之."

56 『梁書』 卷54, 列傳48 高句驪. 양무제 天監 7년(508) 새롭게 외국용 장군호가 제정되었다. 이때 종래의 征東將軍은 撫東將軍, 鎭東將軍은 寧東將軍으로 대체되었다. 『隋書』 卷26, 志21 百官上 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정을 살펴보았지만 이치에 합당하지 않았소.[57]

E사료는 북위 헌문제가 개로왕을 대상으로 발급한 조서의 일부이다. 주지하듯이 472년 개로왕의 청병(請兵)에 대해 헌문제는 완곡하게 거절했다. E사료의 내용은 표면적 거절 사유이기는 하지만, 고구려가 이미 북위의 책봉을 받은 번국(藩國)이라는 점이 명분상 중요했음을 보여준다. 당시 상황은 북위의 책봉을 받지 않은 백제가 '제후국 고구려' 정벌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는 밑줄 부분에 분명히 나타난다. 북위가 백제의 요청을 곧바로 들어준다면, 이는 곧 군신관계라는 명분을 스스로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천자를 표방하는 북위 황제의 위신을 스스로 낮추는 일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조서의 명분적 측면은 표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조서와 표문은 군신관계에 있는 양자가 주고받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령왕이 '양의 제후국 고구려'를 격파했다고만 알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갱위강국' 표문 작성의 주된 목적은 무령왕 본인의 책봉 요청에 있었다. 후술하듯이 표문의 전달 결과 곧바로 무령왕의 책봉이 이루어진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표문이 책봉 요청과 관련되는 만큼 군신관계라는 명분에 저촉되는 서술은 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표문은 명분상 군신관계에 입각한 문서이며, '갱위강국' 표문은 수신자인 양무제가 읽을 것을 전제하여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표문 속 군신관계와 관련한 외교적 수사도 고려해야 한다. 백제가 고구려를 격파한 것이 실제라면, 고구려를 격파한 뒤 통호했다는 것은 표문을 받아볼 양을 의식한 수사적 표현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처럼 표문을 이해한다면 명분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백제가 양의 책봉을 받은 고구려를 격파했지만 결국은 통호하여 동방 지역에 안정을 가졌다왔다는 맥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동방은 물론 양을 중심

57 『魏書』 卷100, 列傳88 百濟, "但以高麗稱藩先朝 供職日久 於彼雖有自昔之釁 於國未有犯令之愆 卿使命始通 便求致伐 尋討事會 理亦未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으로 하는 세계 속의 동쪽 방면이다. 무령왕은 양의 동쪽에서 백제가 고구려를 압도하고 평화를 이룩한 강국임을 내세우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외교적 수사는 「양직공도」 백제국사조의 '방소국' 기사와 일맥상통한다. 방소국은 '叛波·卓·多羅·前羅·斯羅·止迷·麻連·上己文·下枕羅'를 가리키며, 이들 9국이 백제에 부용하는 것으로 나온다.[58] 부용은 『예기(禮記)』 왕제편(王制篇)에 따르면 제후에 부속됨을 뜻한다.[59] 곧 부용국은 천자에게 직속되지 않고 대국에 부속된 소국을 의미한다.[60] '방소국' 기사는 백제가 양의 천하질서 속 제후적 존재이면서도 9개의 소국을 거느린 동방의 대국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9개의 방소국 중 중간의 사라(斯羅), 즉 신라를 기준으로 앞의 4국은 지금의 고령·창원·합천·함안 일대에 있었던 가야제국(加耶諸國)이며, 뒤의 4국은 전남 동부 지역과 섬진강 유역에 있었던 소국이다. 그런데 이 중 대가야로 비정되는 반파(叛波)나 신라와 같은 독립국이 있는 등 부용의 내실은 반드시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61]

무령왕이 실제와 괴리가 있는 방소국의 부용을 양에 알린 것은 동방의 강국 백제의 면모를 선전하기 위함이었다. 521년 백제 사신은 신라 사신을 대동하여 양에 들어갔다. 양과 신라 사이에서 통역도 담당했다.[62] 이러한 행위는 곧 백제가 주장한 방소국의 부용에 현실감을 더해주는 것이었다.[63] 특히 9개의 방소국 중 가장 저명한 신라의 사신을 대동한 것은 나머지 소국도 그에 준하는 국가로

58 「梁職貢圖」 百濟國使, "旁小國有叛波 卓 多羅 前羅 斯羅 止迷 麻連 上己文 下枕羅等附之."

59 『禮記』 王制, "不能五十里者 不合於天子 附於諸侯曰附庸."

60 李鎔賢, 1999, 앞의 글, 184쪽; 近藤浩一, 2014, 앞의 글, 248쪽.

61 李鎔賢, 1999, 위의 글, 179~185쪽.

62 『梁書』 卷54, 列傳48 新羅, "普通二年 王姓募名秦 始使使隨百濟奉獻方物 … 語言待百濟而後通焉."

63 李鎔賢, 1999, 앞의 글, 186~18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인식하게 하여 백제의 위상을 높이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다.[64]

'방소국' 기사는 앞서 검토한 '갱위강국' 표문의 내용과 흡사하다. '방소국' 기사에 묘사된 백제는 양의 천하질서에 속하면서도 9개의 소국을 복속시킨 동방의 대국이다. 그리고 표문 속 백제는 고구려를 격파했지만 결국 통호하여 동방에 안정을 가져온 강국이다. 모두 양의 동방에 위치한 백제의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한 것이다. 이러한 양자의 동일한 맥락을 고려하면 '방소국' 기사 또한 '갱위강국' 표문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65] 물론 표문과는 별개로 사신의 구두발언을 통한 전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多羅', '斯羅' 등 일부 국명 표기가 『일본서기』에 인용된 백제계 사료의 그것과 일치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에서 문장화된 형태, 즉 표문을 통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된다.

2. 무령왕의 책봉호, 영동대장군의 의의

앞서의 검토에 따르면 '갱위강국' 표문에 묘사된 백제는 방소국 위에 군림하고, 고구려를 군사적으로 압도하여 양의 동방 지역에 평화를 이룩한 강국이었다. 또한 표문에는 동성왕대까지 쇠약했던 백제가 무령왕 즉위 후 일변하여 중흥을 이룬 사정이 강조되어 있었다. 표문에 나타난 백제의 중흥과 강국으로서의 면모는 곧 무령왕 당대에 달성한 업적이었다.

표문은 521년 11월 양 조정에 전달되었고, 곧이어 12월 무진(5일)에 책봉이 이루어졌다.[66] 이는 표문 작성의 주된 목적이 책봉 요청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표문에 무령왕 즉위 이래의 중흥이 강조된 것도 이러한 목적과 무관하지 않을

64 이도학, 2010, 『백제 한성·웅진성 시대 연구』, 일지사, 465쪽.

65 정재윤, 2022, 앞의 글, 47쪽.

66 『梁書』 卷2, 本紀3 武帝 普通 2年, "冬十一月 百濟新羅國各遣使獻方物 十二月戊辰 以鎭東大將軍百濟王餘隆爲寧東大將軍."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것이다. 당시 발급된 책봉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F. 그해(521) 고조(高祖, 양무제; 필자)가 조서(詔書)를 내려 이르기를, "행도독백제제군사(行都督百濟諸軍事)·진동대장군(鎭東大將軍)·백제왕(百濟王) 여륭(餘隆)은 해외에서 번국(藩國)을 지키며 멀리서 직공(職貢)의 예를 닦아 충성심이 지극하니 짐은 이를 가상히 여기는 바이다. 마땅히 전례에 따라 영예로운 관직을 내리노니, 사지절(使持節)·도독백제제군사(都督百濟諸軍事)·영동대장군(寧東大將軍)·백제왕(百濟王)으로 삼는 것이 가(可)하다"라고 했다.[67]

조서에서 보듯이 무령왕은 행도독백제제군사·진동대장군·백제왕의 신분으로 양에 책봉을 요청했다. 앞에 관칭된 '행(行)'은 그 이하의 책봉호가 임시적인 것임을 뜻한다. 곧 무령왕이 진동대장군을 정식으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 자칭하며 양에 책봉을 요청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68] 개로왕·동성왕대에 국왕이 신하들에게 행모장군(行某將軍) 등을 가수(假授)하고, 이에 대한 제정(除正)을 유송·남제에 요청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제정(除正), 즉 정식 임명이 이루어지면 '행'자가 탈락되었다.[69] 따라서 521년 이전에는 무령왕에 대한 책봉이 없었고, 이때에 이르러 처음 책봉을 요청했음을 알 수 있다.

무령왕은 종래 백제왕들이 받아온 책봉호(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鎭東大將軍·百濟王)를 그대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양무제는 진동대장군 대신 영동대장군을 수여했다. 1년 전인 520년 양무제는 고구려 안장왕에게 영동장군을 수

67 『梁書』 卷54, 列傳48 百濟, "其年 高祖詔曰 行都督百濟諸軍事鎭東大將軍百濟王餘隆 守藩海外 遠脩貢職 廼誠款到 朕有嘉焉 宜率舊章 授茲榮命 可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寧東大將軍百濟王."

68 坂元義種, 1978a, 앞의 책, 179~180쪽; 정재윤, 2022, 앞의 글, 38~39쪽.

69 박찬우, 2015, 「漢城期 백제의 將軍號 활용 배경과 정치적 의미」, 『百濟文化』 52, 99~10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여한 바 있다.[70] 그런데 이듬해 무령왕에게 동일한 장군호를 주면서도 대장군으로 높였다. 영동장군은 양무제 천감 7년(508) 제정 외국용 장군호 24반(班) 중 22반(기존의 3품 진동장군)이다.[71] 동진·남조 시기 3품 장군호에 '대(大)'가 더해질 경우 1품이 승급되었다.[72]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무령왕의 영동대장군은 사실상 23반에 해당한다.[73]

520·521년 양무제의 고구려·백제왕 책봉은 양국의 장군호 위계가 처음 역전된 사례이다. 남북조시대 중국왕조가 수여한 장군호는 이를 받은 국가의 국제적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74] 책봉 주체인 중국왕조의 입장에서 보면 높은 위계의 장군호를 수여한 국가일수록 이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한 것이었다.[75] 이러한 장군호의 특성을 고려하면 무령왕에 대한 영동대장군 수여는 양이 백제의 위상을 고구려보다 높게 평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표문을 통한 강국 선전이 효과를 거두었음을 시사한다.[76] 물론 이 무렵 북위 내부의 분열로 인하여 양에게 고구려의 이용 가치가 전에 비해 감소했다는 측면도 지적할 수 있지만,[77] 521년경 백제의 위상이 새롭게 알려진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장군호의 위계 역전은 '갱위강국' 표문과 무관할 수 없다. 표문에 묘사된 백제는 고구려를 압도한 동방의 최대 강국이었고, 무령왕의 장군호는 고구려왕이

---

70 『梁書』 卷2, 本紀3 武帝 普通 元年, "二月 … 癸丑 以高麗王世子安爲寧東將軍高麗王."; 『梁書』 卷54, 列傳48 高句驪, "普通元年 詔安纂襲封爵 持節督營平二州諸軍事寧東將軍."

71 『隋書』 卷26, 志21 百官上 梁, "四寧【東南西北 擬四鎭】爲二十二班."

72 미야자키 이치사다 지음·임대희 외 옮김, 2002, 『구품관인법의 연구』, 소나무, 307쪽; 李周鉉, 2012, 「魏晉南朝의 將軍制와 '寧東大將軍'」, 『百濟文化』 46, 198쪽.

73 정동준, 2018, 앞의 글, 15~16쪽.

74 坂元義種, 1978b,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東京: 吉川弘文館, 268~270쪽.

75 金鍾完, 1995, 앞의 책, 126쪽.

76 박윤선, 2008, 「백제와 송·제·양 교섭기사에 대한 고찰」, 『역사문화연구』 31, 21~22쪽.

77 박윤선, 2008, 위의 글, 22~25쪽; 정동준, 2018, 앞의 글, 1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년 전에 받은 것보다 한 등급 높았다. 표문의 내용과 이를 통한 성과가 부합하는 것이다. '갱위강국' 표문을 제외하면 양이 무령왕에게 특별히 고구려왕보다 높은 장군호를 수여할 계기는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장군호의 위계 역전은 기존에도 지적된 사실이지만, 이와 더불어 영동장군의 중복 수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복 수여는 남조 건국 직후 진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동진부터 양에 이르기까지 동방 지역(고구려·백제·왜)에 대한 남조의 장군호 수여 현황은 〈표 3〉과 같다.[78]

〈표 3〉에서 보듯이 동진 이래 남제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고구려왕은 정동(대)장군, 백제왕은 진동(대)장군, 왜왕은 안동(대)장군을 수여받았다. 이러한 원칙에 예외가 발생한 것은 진호 때문이다. 그러나 진호된 장군호는 이를 받은 군장 1대에만 유효한 것이고, 그 후계자에게는 계승되지 않았다.[79] 예컨대 420년 정동대장군을 받은 장수왕은 진호를 거듭하여 표기대장군(480년)에 이르렀지만, 494년 그 후계자인 문자왕에게 다시 정동대장군이 수여되었다. 이처럼 남조는 동방 3국의 왕에게 정동, 진동, 안동이라는 각기 다른 장군호를 고정적으로 수여하였다. 장군호가 서로 겹치는 것은 진호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었다.

그런데 508년 양무제의 관제개혁 이후 동방에 한하여 예외가 발생했다. 그것이 520·521년 고구려·백제왕의 장군호이다. 진호의 경우도 아니며, 대장군 여부에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영동장군을 수여한 것이다. 이례적인 것은 백제에 대한 대우였다. 〈표 3〉에서 보듯이 고구려왕에게는 이후에도 영동장군 수여가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양대에는 기본적으로 동방에서는 고구려왕에게 영동장군을 수여했고, 서방에서는 하남왕(河南王)에게 영서장군(寧西將軍)을 수여

78 金鍾完, 1995, 앞의 책, 130~133쪽 참조 일부 수정.

79 金鍾完, 1995, 위의 책, 126~12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3〉 동진~양대 고구려·백제·왜왕의 장군호(음영으로 표시한 부분은 기본 장군호)

국명	연도	高句麗	百濟	倭	비고
東晉	372		鎭東將軍(近肖古王)		
	386		鎭東將軍(辰斯王)		
	413	征東將軍(長壽王)			
	416		鎭東將軍(腆支王)		
劉宋	420	征東大將軍(長壽王)	鎭東大將軍(腆支王)		進號
	421			安東將軍(讚)	
	430		鎭東大將軍(毗有王)		
	438			安東將軍(珍)	
	443			安東將軍(濟)	
	457		鎭東大將軍(蓋鹵王)		
	462			安東將軍(興)	
	463	車騎大將軍(長壽王)			進號
	478			安東大將軍(武)	
南齊	479			鎭東大將軍(武)	進號
	480	驃騎大將軍(長壽王)			進號
			鎭東大將軍(文周王)		
	490		鎭東大將軍(東城王)		
	494	征東大將軍(文咨王)			
	?	車騎將軍(文咨王)			進號
梁	502	車騎大將軍(文咨王)	征東大將軍(東城王)	征東大將軍(武)	進號
	508	撫東大將軍(文咨王)			*관제개혁 征東→撫東
	520	寧東將軍(安臧王)			*관제개혁 鎭東→寧東
	521		寧東大將軍(武寧王)		上同
	524		綏東將軍(聖王)		*관제개혁 平東→綏東
	?	寧東將軍(安原王)			
	?	撫東將軍(安原王)			進號
	548	寧東將軍(陽原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했다.[80]

반면 백제의 경우 무령왕 사후 성왕에게 20반 수동장군(綏東將軍)이 수여되었다. 불과 3년 만에 백제왕의 장군호 등급이 23반에서 20반으로 하락한 것이다. 영동대장군과 수동장군 중 어느 한쪽이 이례적 상승 또는 하락으로 볼 여지가 있다.[81] 불과 3년 만에 양의 백제 인식이 크게 전환될 만한 계기는 찾기 어렵고, 고구려왕의 장군호가 영동장군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전자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영동(대)장군은 508년의 관제개혁에 따라 기존의 진동(대)장군을 대체한 것이었다. 역대 백제왕의 장군호가 진동대장군이었고, 521년 무령왕이 이를 자칭하며 책봉을 요청했으므로 양무제는 그것을 대신한 영동대장군을 수여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만 본다면 무령왕 사후 성왕에게 3반이나 하락된 수동장군이 수여된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관해서는 508년 이후 국제적으로 장군호 등급의 하락 현상이 간취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08년 양무제는 고구려 문자왕에게 무동대장군(24반)을 수여했지만, 520년 안장왕에게 영동장군(22반)을 주었다.[82] 이후 고구려왕은 진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영동장군을 받았다. 또한 510년 임읍왕 범천개(范天凱)는 21반 위남장군(威南將軍)을 받았지만, 526년에 이르러 고식승개(高式勝鎧)에게 20반 수남장군(綏南將軍)이 수여되고, 이후 이 장군호로 고정되었다.[83] 백제와 마찬가지로 장군호 등급의 하락 현상이 나

80 『梁書』 卷3, 武帝下 中大通 元年, "三月丙辰 以河南王阿羅眞爲寧西將軍西秦河沙三州刺史."; 『梁書』 卷3, 中大通 2年, "夏四月 … 壬申 以河南王佛輔爲寧西將軍西秦河二州刺史."; 『梁書』 卷54, 列傳48 河南王國, "大通三年 詔以爲寧西將軍護羌校尉西秦河二州刺史."

81 정동준, 2018, 앞의 글, 16~17쪽에서는 이 시기에 전체적으로 諸國의 장군호가 1~2班 정도 하락되는 추세가 보이며, 寧東大將軍과 綏東將軍 중 하나가 이례적 상승 또는 하락일 것으로 추정했다.

82 『梁書』 卷54, 列傳48 高句驪.

83 『梁書』 卷54, 列傳48 林邑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타나는 것이다.

508년 관제개혁 이후 고구려 문자왕에게 처음 수여된 무동(대)장군은 종래 고구려왕들이 받아온 정동(대)장군을 대신한 것이었다.[84] 임읍왕 범천개에게 수여된 위남장군은 안남장군(安南將軍)을 대신한 것으로,[85] 임읍왕이 과거 남제로부터 받은 장군호가 안남장군이었다.[86] 무령왕 역시 백제왕이 전통적으로 받아온 진동(대)장군을 대신한 영동(대)장군을 받았다. 요컨대 508년 관제개혁 이후 첫 책봉 때는 주변국이 전통적으로 받은 장군호를 대신한 것이 수여되었다. 반면 첫 책봉 이후 그 후계자에게는 공통적으로 그보다 낮은 등급의 장군호가 수여되었다. 이는 양 내부에서 어느 시점에 외국왕에게 수여할 장군호의 등급 조정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때 고구려에 영동장군, 임읍에 수남장군, 백제에 수동장군을 수여할 방침을 정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렇게 보면 무령왕의 사례는 단지 종래의 전통적 장군호를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1년 전 고구려 안장왕에게 동일한 영동장군이 수여되었다는 점이다. 무령왕에게 영동장군을 수여할 경우 동방 지역에 장군호의 중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무제는 이례적으로 백제와 고구려에 동일한 장군호를 수여하면서도 무령왕의 그것을 대장군으로 올려주었다고 생각된다. 고구려에 대한 백제의 우위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백제에 대한 우대는 무령왕 1대에 한정된 것이었다. 양은 무령왕의 후계자인 성왕에게 수동장군을 수여함으로써 고구려왕과의 장군호 중복을 피했다.

이상과 같이 무령왕의 영동대장군은 양이 백제를 고구려보다 높게 평가하고, 이례적으로 우대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곧 '갱위강국' 표문을 통한 강국 선전의 성과이기도 했다고 생각된다. 무령왕은 국제 사회에서 백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양에 접근했고, 영동대장군이라는 높은 위계를 장군호

84 『隋書』 卷26, 志21 百官上 梁, "四撫【東南西北 擬四征】爲二十三班."
85 『隋書』 卷26, 志21 百官上 梁, "四威【東南西北 擬四安】爲二十一班."
86 『南齊書』 卷58, 列傳39 林邑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를 획득했던 것이다.[87] 표문에 따르면 백제는 여러 소국 위에 군림하는 대국이자 고구려를 압도하여 양의 동방지역에 안정을 이룩한 강국이었다. 양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고구려왕에게 영동장군을 수여했지만 백제는 그 고구려를 격파한 동방의 최대 강국이었다. 따라서 이례적으로 동일한 영동장군을 중복 수여하되 대장군으로 올려주었다고 생각된다.

백제 입장에서도 영동대장군은 특별한 장군호였다. 「무령왕 지석」을 통해 이를 엿볼 수 있다. 지석에는 천자의 죽음을 뜻하는 '붕(崩)'이 사용되었지만, 동시에 양의 책봉호인 영동대장군도 표기되어 있다.[88] 전자는 무령왕대의 자존적 주체의식을 보여주는 용어이지만,[89] 후자는 백제를 양의 번국으로 규정하는 칭호이다. 이러한 모순된 용어 사용에 대하여 무령왕이 스스로 영동대장군을 중국 왕조에 속한 관료임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거나,[90] '외왕내제(外王內帝)' 의식의 발현이라고 보기도 한다.[91] 이는 상기의 모순을 설명할 수 있는 타당한 해석이다.

다만 위와 같은 견해만으로는 구태여 무덤 부장품에 영동대장군을 표기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영동대장군 표기를 최종 승인한 것은 후계자인 성왕이다. 성왕이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영동대장군이 당시 백제인들에게 특별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92] 장군호는 백제 내에서 그것을 가진 지배층과 그렇지 못한 자의 위상을 구분 짓는 정치적 효용성을 가졌다. 「무령왕 지석」의 실견자가 일부 지배층, 특히 왕족과 고위관료에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동

87 정재윤, 2022, 앞의 글, 48쪽.

88 「武寧王 誌石」, "寧東大將軍百濟斯麻王 年六十二歲癸卯年五月丙戌朔七日壬辰崩."

89 成周鐸, 2002, 『百濟의 思想과 文化』, 서경문화사, 59쪽; 梁起錫, 2011, 「百濟 武寧王代의 自尊的 天下觀」, 『중원문화연구』 16·17, 316쪽.

90 李周鉉, 2012, 앞의 글, 199쪽.

91 노중국, 2012, 앞의 글, 23쪽.

92 정재윤, 2022, 앞의 글, 4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장군은 성왕에게도 효과적 호칭이었을 것이다.[93] 즉, 영동대장군이라는 특별한 장군호는 무령왕의 적자(嫡子) 성왕의 입장에서도 그 위신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갱위강국' 표문은 무령왕 즉위 이후 백제의 중흥과 강국의 면모를 과시한 것이었다. 표문에서 동성왕대까지를 고구려에 의해 쇠락한 시기로 전제한 반면, 무령왕대를 '累破句驪 今始與通好'를 달성하고 방소국 위에 군림하는 중흥의 시기로 서술했다. 이는 무령왕 즉위 후 백제가 고구려를 격파하고 양의 동방에서 최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질서에 안정을 가져왔음을 주장한 것과 다름없다. 「양직공도」 내지 『양서』 찬자는 표문에 나타난 무령왕대 중흥의 면모를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된 것으로 묘사했다. 당시 표문을 접한 양의 백제 인식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 결과 무령왕은 이례적으로 고구려왕보다 높은 등급의 영동대장군을 받고, 그 위상을 대내외에 선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521년 무령왕이 양에 보낸 '갱위강국' 표문과 그 성과인 영동대장군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특히 군신관계와 관련되는 표문의 특성에 주목하고, 표문의 내용과 영동대장군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하 이 글의 요지를 정리함으로써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양서』 백제전에 수록된 '갱위강국' 표문은 단편적인 문장만 전하지만, 강국으로서의 백제의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간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다만 '累破句驪 今始與通好' 부분의 통호 상대국이 양인지 고구려인지, 그리고 '而百濟更爲强國' 부분을 표문 문장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상반된 입장이

93 한영화, 2012, 「무령왕릉 출토 誌石의 성격과 諡號 문제」, 『역사와 담론』 100, 217~22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기되어왔다. 그런데 기존에는 표문이 군신관계와 관련되는 문서라는 점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 유의하면서 표문을 검토한 결과 통호 상대국은 고구려이며 '而百濟更爲强國'은 표문에 서술된 내용을 「양직공도」 내지 『양서』 찬자가 각색하여 서술했다고 보았다. 다만 표문에 '갱위강국'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표문의 문장, 즉 '累破句驪 今始與通好'는 백제가 고구려를 격파했지만 결국 통호하여 동방 지역에 안정을 가져왔음을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표문은 「양직공도」 '방소국' 기사의 내용도 포함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표문의 내용은 무령왕 즉위 이후 백제의 중흥과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한 것이었다. 동성왕대까지를 고구려에 의해 쇠락한 시기로 전제하고, 무령왕 즉위 이후를 '累破句驪 今始與通好'를 달성하고 방소국 위에 군림하는 중흥의 시기로 서술한 것이다. 표문이 양을 의식한 문서임을 고려한다면, 백제가 양 중심 국제질서 속에서 동방의 최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질서에 안정을 가져왔음을 주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갱위강국' 표문의 내용은 무령왕 즉위 후 백제가 고구려를 압도하고 동방 최대 강국이 되었으며, 양 중심 세계 속 동방 지역질서의 안정을 가져왔음을 서술한 것이었다. 이 표문을 접한 양무제는 무령왕에게 고구려와 동일한 장군호(영동장군)를 중복 수여하되 대장군으로 높여주었다. 이는 백제왕이 역사상 처음 고구려왕보다 높은 등급의 장군호를 받은 사례이다. 특히 양무제가 520년 고구려왕에게 영동장군을 수여했음에도 이듬해 무령왕에게 동일한 장군호를 주고, 나아가 대장군으로 높인 사실은 표문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문 속 고구려를 압도한 동방의 강국 백제의 면모와 이를 통한 성과가 일치하는 것이다. 영동대장군으로 대변되는 성과는 표문을 통한 무령왕의 강국 선전이 효과를 거두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무령왕은 '영동대장군·백제왕'의 위상을 대내외에 선전할 수 있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사료

『宋書』, 『南齊書』, 『梁書』, 『魏書』, 『隋書』, 『舊唐書』,
『三國史記』, 『日本書紀』, 『禮記』, 『攻媿集』, 「梁職貢圖」, 「武寧王誌石」.

단행본

金鍾完, 1995, 『中國南北朝史硏究』, 一潮閣.
노중국, 2012, 『백제의 대외 교섭과 교류』, 지식산업사.
미야자키 이치사다 지음, 임대희 외 옮김, 2002, 『구품관인법의 연구』, 소나무.
成周鐸, 2002, 『百濟의 思想과 文化』, 서경문화사.
이도학, 2010, 『백제 한성·웅진성 시대 연구』, 일지사.

榎一雄, 1992, 『榎一雄著作集』 7, 東京: 汲古書院.
坂元義種, 1978a, 『百濟史の硏究』, 東京: 塙書房.
_____, 1978b,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東京: 吉川弘文館.

논문

길기태, 2020, 「武寧王의 '更爲强國' 선언과 大通寺」, 『한국고대사탐구』 34.
김기섭, 2010, 「백제 東城王 암살사건 재검토」, 『한국학논총』 34.
김수태, 2011, 「5세기 후반 백제의 대왜 관계와 남조」, 『百濟學報』 170.
盧重國, 1991, 「百濟 武寧王代의 集權力 强化와 經濟基盤의 擴大」, 『百濟文化』 21.
_____, 2012, 「무령왕대 백제의 동아시아 상에서의 위상」, 『百濟文化』 46.
박민경, 2017, 「5세기 후반 백제의 대왜관계-蓋鹵王·東城王代를 중심으로-」, 『사림』 60.
박윤선, 2008, 「백제와 송·제·양 교섭기사에 대한 고찰」, 『역사문화연구』 31.
박찬우, 2015, 「漢城期 백제의 將軍號 활용 배경과 정치적 의미」, 『百濟文化』 52.
朴漢濟, 1981, 「南北朝時代의 南北關係-交易과 交聘을 中心으로-」, 『한국학논총』 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박현숙, 2008, 「백제의 섬진강유역 영역화와 가야와의 관계」,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徐甫京, 2003, 「5세기 말~6세기 초 한반도 諸國과 倭國의 관계」, 『先史와 古代』 18.
_____, 2006, 「5세기의 高句麗와 倭國-宋書 倭國傳의 倭王武 上表文에 나타난 '고구려 정토' 문제를 중심으로-」, 『百濟硏究』 43.
梁起錫, 1990, 「百濟專制王權成立過程硏究」, 檀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_____, 2011, 「百濟 武寧王代의 自尊的 天下觀」, 『중원문화연구』 16·17.
梁鎭誠, 2017a, 「南北朝時期의 國際關係에 대한 再考-國書의 授受事例를 중심으로-」, 『東洋史學硏究』 141.
_____, 2017b, 「남북조시대 남북 간의 교섭과 남북관계-대외교섭에 사용된 문서의 수수사례를 중심으로-」, 『中國古中世史硏究』 46.
위가야, 2019, 「백제 무령왕대 '更爲强國'설의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 95.
尹龍九, 2012, 「현존 『梁職貢圖』 百濟國記 三例」, 『百濟文化』 46.
李基天, 2016, 「7世紀初 唐의 對外戰爭 名分과 國際秩序」, 『中國古中世史硏究』 39.
李鎔賢, 1999, 「『梁職貢圖』百濟國使條の「旁小國」」, 『朝鮮史硏究會論文集』 37.
李在碩, 2001, 「『宋書』 倭國傳에 보이는 倭王(武) 上表文에 대한 검토」, 『新羅文化』 24.
이정빈, 2016, 「고구려-당 관계의 성립과 변경지대(618~624)」, 『高句麗渤海硏究』 54.
李周鉉, 2012, 「魏晉南朝의 將軍制와 '寧東大將軍'」, 『百濟文化』 46.
李弘稙, 1965, 「梁職貢圖論考」, 『六十周年 紀念論文集』(人文科學篇), 高麗大學校.
田中俊明, 2008, 「百濟の對梁外交-特に512年の遣使を中心に-」, 『충청학과 충청문화』 7,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정동준, 2018, 「6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책봉호의 정치적 의미」, 『사림』 66.
井上直樹, 2013, 「570年代の高句麗の對倭外交と高句麗·北齊關係」, 『高句麗渤海硏究』 45.
鄭載潤, 1997, 「東城王 23年 政變과 武寧王의 執權」, 『韓國史硏究』 99·100.
_____, 1999, 「熊津時代 百濟 政治史의 展開와 그 特性」, 西江大學校 博士學位論文.
_____, 2008, 「백제의 섬진강 유역 진출에 대한 고찰」,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_____, 2022, 「무령왕대 대외관-영동대장군 작호를 중심으로-」, 『百濟文化』 66.
한영화, 2012, 「무령왕릉 출토 誌石의 성격과 諡號 문제」, 『역사와 담론』 10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榎一雄, 1963,「梁職貢圖について」,『東方學』26.
近藤浩一, 2014,「6世紀百濟の思想的基盤と天下觀の形成」,『京都産業大學日本文化硏究所紀要』19.
田中俊明, 2021,「百濟武寧王をめぐるいくつかの問題」,『朝鮮史硏究會論文集』59.
趙燦鵬, 2011,「南朝梁元帝《職貢圖》題記佚文的新發見」,『文史』2011-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무령왕의 '갱위강국(更爲强國)' 표문과 영동대장군

박찬우

『양서』 백제전에 수록된 '갱위강국(更爲强國)' 표문은 단편적인 문장만 전하지만, 강국으로서의 백제의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간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다만 '累破句驪 今始與通好' 부분의 통호 상대국이 양인지 고구려인지, 그리고 '而百濟更爲强國' 부분을 표문 문장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상반된 입장이 제기되어왔다. 그런데 기존에는 표문이 군신관계와 관련되는 문서라는 점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 유의하면서 표문을 검토한 결과 통호 상대국은 고구려이며, '而百濟更爲强國'은 표문에 서술된 내용을 「양직공도」 내지 『양서』 찬자가 각색하여 서술한 것으로 보았다.

표문의 문장, 즉 '累破句驪 今始與通好'는 백제가 고구려를 격파했지만 결국 통호하여 동방 지역에 안정을 가져왔음을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표문은 「양직공도」 '방소국(旁小國)' 기사의 내용도 포함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표문의 내용은 무령왕 즉위 이후 백제의 중흥과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한 것이었다. 동성왕대까지를 고구려에 의해 쇠락한 시기로 전제하고, 무령왕 즉위 이후를 '累破句驪 今始與通好'를 달성하고 방소국 위에 군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는 중흥의 시기로 서술한 것이다. 표문이 양을 의식한 문서임을 고려한다면, 백제가 양 중심 국제질서 속에서 동방의 최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질서에 안정을 가져왔음을 주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문을 접한 양 무제는 무령왕에게 고구려와 동일한 장군호, 영동장군(寧東將軍)를 중복 수여하되 대장군으로 높여주었다. 이는 백제왕이 역사상 처음 고구려왕보다 높은 등급의 장군호를 받은 사례이다. 특히 양 무제가 520년 고구려왕에게 영동장군을 수여했음에도 이듬해 무령왕에게 동일한 장군호를 주고, 나아가 대장군으로 높인 사실은 표문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문 속 고구려를 압도한 동방의 강국 백제의 면모와 이를 통한 성과가 일치하는 것이다. 영동대장군으로 대변되는 성과는 표문을 통한 무령왕의 강국 선전이 효과를 거두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무령왕은 '영동대장군·백제왕'의 위상을 대내외에 선전할 수 있었다.

주제어: 백제(百濟), 무령왕(武寧王), 갱위강국(更爲强國), 영동대장군(寧東大將軍), 표문(表文)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Biǎowén(表文) Related to "Becoming a Strong Country Again(更爲强國)" in King Muryeong's Period and "Great General Yeongdong(寧東大將軍)"

Park Chanu

In this paper,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Baekje and Liáng(梁) in the reign of King Mu-reyong(武寧王) are examined centering on biǎowén written in 521. In 512, King Mu-reyong asked Liáng for advanced culture and human resources to improve the national system, and in 521 asked Liáng for Chinese novel titles to show off the achievements of various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he had pursued since winning the throne. King Mu-reyong requested Liáng for his Chinese novel titles with the aim of using the authority of Liáng, which was at its peak at the time, to raise Baekje's international status.

The biǎowén sent to Liáng in 521 was a statement of Baekje's prosperity and status as a powerful country during the King Mu-ryong period. The biǎowén stated that the period before King Mu-ryong's accession to the throne was a period of decline due to Goguryeo'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nvasion, and that the period after that was a period of power by defeating Goguryeo. The most important argument in the biǎowén is that Baekje defeated Goguryeo and eventually became the largest eastern power in the world centered on Liáng. These claims were somewhat exaggerated, but based on internal and external achievements actually achieved in the reign of King Mu-reyong. In the end, King Mu-ryong was unusually awarded "Great General Tranquilizing the East(寧東大將軍)" from Liáng, which is a higher grade than the Goguryeo king, and was able to advertise it both inter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his "Great General Tranquilizing the East" was the result of Liáng's recognition of Baekje as the largest eastern power as described in the biǎowén.

Keywords: Baekje, King Muryeong, Becoming a Strong Country Again(更爲强國), Great General Yeongdong(寧東大將軍), Biǎowén(表文)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2..78.007

송대 해상(海商) 관리와 송상(宋商)의 '고려 귀화설'

이진한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I. 머리말
II. 송대 해상 관리제도와 송상의 외국 귀화
III. '송도강의 운선업자설'에 대한 비판
IV. 송상의 고려·일본 귀화 사례와 그 실제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고려시대 송과의 무역에 관한 최초의 연구에서는 11세기 초에 송상이 고려를 왕래하기 시작하고 점차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송과 고려의 무역을 주도하였으므로 고려 해상의 무역 활동은 위축되었다고 하였다.[1] 이후 국내외의 고려시대 무역을 주제로 한 연구가 적지 않았지만, 대체로 그 논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송상의 무역이나 왕래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고찰하는 정도였다.[2]

그러나 최근에 발간된 김영제의 저서에서 송상의 왕래가 활발했지만, 한편으로 송을 다니며 무역을 하던 고려상인에 대해 더욱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먼저 고려에 귀화한 송도강의 사례로서 황흔(黃忻)의 사례를 들고, 중국의 문헌에는 고려강수로 기록된 탁영(卓榮)과 서덕영(徐德榮)은 본래 고려에 귀화한 송도강이었으며, 이들은 선주였고 고려상인들을 그 배에 태우고 송에 갔으므로 송상에 비해 항해술이나 조선술이 크게 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통의 문제도 없이 송에서 무역을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3]

기존의 견해와 달리 고려 해상이 송을 다니며 교역하였다는 새로운 주장을

---

* 투고: 2022년 10월 9일, 심사 완료: 2022년 11월 7일, 게재 확정: 2022년 11월 14일

** 이 글은 2022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1 金庠基, 1937, 「麗宋貿易小考」, 『震檀學報』 7; 金庠基, 1948, 『東方文化交流史論攷』, 乙酉文化社.

2 선행 연구에 이어 송상의 고려 왕래가 활발했다는 것을 서술한 대표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朴玉杰, 1997, 「高麗來航 宋商人과 麗宋의 貿易政策」, 『大東文化硏究』 32; 李鎭漢, 2011, 『高麗時代 宋商往來 硏究』, 경인문화사.

3 김영제, 2019, 『고려상인과 동아시아 무역사』, 푸른역사. 고려 해상의 활동을 강조하고자 하는 저서의 의도를 고려하건대, 이 글의 논의 대상은 「송도강 탁영과 서덕영의 정체」와 「고려 도강을 이용한 해상무역」 2개 장이 해당되며, 서술의 편의상 책의 저자인 김영제를 대신하여 저자로, 책의 제목은 '저서'로, 서평의 필자는 평자로, 이 글의 집필자는 필자로 쓰겠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담은 이 저서에 대해 세 편의 서평이 있었으나, 귀화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은 없었다.[4] 다만 필자가 저자의 핵심 논지의 하나인 '송도강의 고려 귀화설'의 시발점이 되었던 고려강수(高麗綱首) 탁영과 서덕영에 관련된 사료를 정밀하게 재검토하고, 그들은 고려에 귀화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송상 또는 송도강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었다.[5]

송대에는 시박사를 두고 엄격한 해상관리제도를 시행하였음에도[6] 저자는

---

4 김성규, 2019, 「서평-『고려상인과 동아시아 무역사』(서울, 푸른역사, 2019)」, 『歷史學報』 244; 김한신, 2019, 「서평: 중세 동아시아 해상교역의 재구성-김영제 지음, 『고려상인과 동아시아 무역사』, 푸른역사, 2019-」, 『東洋史學研究』 149; 이강한, 2020, 「서평: 김영제 지음, 『고려상인과 동아시아 무역사』, 푸른역사, 2019년, 314쪽」, 『경제사학』 72.

5 이진한, 2021, 「'고려강수(高麗綱首)' 탁영(卓榮)·서덕영(徐德榮) 관련 사료의 재검토」, 『한국문화』 96.

6 송대의 무역관리 제도와 각종 편칙에 대해서는 김상기의 고려와 송의 무역에 관한 선구적인 업적에서 다루어진 이래 많은 연구를 통해 심화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몇 개의 업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金庠基, 1937, 앞의 글; 金庠基, 1948, 앞의 책; 森克己, 1954, 「日宋貿易における中國商人の性格」, 『歷史地理』 84-4; 森克己, 1975a, 『續日宋貿易の研究』, 東京: 國書刊行會; 徐炳國, 1973, 「高麗·宋·遼의 三角貿易考」, 『白山學報』 15; 近藤一成, 2001, 「文人官僚蘇軾의 對高麗政策」, 『史滴』 23; 曹家齊, 2002, 「邊塞與海上交通制度」, 『宋代交通管理制度研究』, 鄭州: 河南大學出版社; 黃純艷, 2003b, 「宋麗兩國的民間貿易」, 『宋代海外貿易』,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原美和子, 2006, 「宋代海商お活動に關する一試論-日本·高麗および日本·遼(契丹)通交をめぐって-」, 『考古學と中世史研究3-中世の對外交流 場·ひと·技術-』, 東京: 高志書院; 葉恩典, 2007, 「古代泉州與新羅·高麗的海上交通及其文物史迹探源」, 金健人 主編, 『中韓古代海上交流』,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蘆敏, 2008, 「宋麗兩國的民間貿易」, 『宋麗海上貿易研究』, 廈門大學 博士學位論文; 石井正敏·村井章介, 2010, 「通交·通商圈の擴大」,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編, 『日本の對外關係 3-通交·通商圈の擴大-』, 東京: 吉川弘文館; 山崎覺士, 2010, 「宋代両浙地域における市舶司行政」, 『東洋史研究』 69-1; 백승호, 2012, 「『고려사』 기록으로 본 호남문화의 정체성」, 『海洋文化研究』 7·8합.
물론 송대 경제사 전공자인 저자도 자신의 논지를 설명하고자 저서에서 여러 차례 송의 무역정책과 海商 관리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무역에 대한 송나라의 태도와 고려상인의 활동」과 「송도강 탁영과 서덕영의 정체」에서 더욱 상세히 다루었다. 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려상인들이 송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선주 강수의 고려 귀화를 상정하였는데, 과연 강수 중에서 직접 배를 운항하며 다니는 선주가 고려에 귀화할 수 있었는지를 고찰해보겠다. 이에 대한 검증은 귀화의 주체로서 넓게는 송의 해상 전체와 좁게는 선주인 송도강으로 나누고, 송상의 교역 대상 국가로서 해외의 모든 국가와 거란(요)의 책봉을 받던 고려에 가는 경우로 구분하여 서술할 것이다. 또한 고려에 귀화하고 국적을 바꾸어 고려 사람으로서 송에 돌아왔을 때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받아줄지를 송대 시박사 행정을 통해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주요 논지가 송상의 고려 귀화 여부가 가능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실제 송상과 송나라 사람으로 고려와 일본에 귀화했던 사례를 검토할 것이다. 송대 해상 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한 송상의 해외 귀화는 매우 어려웠으나 송대의 사서에 '주번(住蕃)'으로 표현되는 바와 같이 송상들의 해외 귀화와 거류-장기거주-가 적지 않았고, 실제로 저자는 송도강의 고려 귀화 사례로 든 '황흔'에 관련된 기록을 자세히 분석하여 송도강의 고려 귀화를 증명하였다. 이에 필자는 송도강 황흔 기사를 정밀하게 고찰하여 귀화 후 자유롭게 송을 다닐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려에 와서 귀국하지 않았던 송나라 사람 '두도제'와 송에서 일본에 가서 귀화하면서 송에는 죽었다고 알린 해상 주량사 등에 관한 사례를 통해 송상의 해외 귀화가 가지는 의미를 찾아보겠다.

이 글을 통해 송나라가 해외를 다니는 해상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규정을 만들어 외국에서의 활동을 일정하게 제약한 것은 무역상의 이익뿐 아니라 무역의 주체인 해상들을 통제하기 위한 고려가 함께 있었음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도 저자가 송대의 해상관리제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Ⅱ. 송대 해상 관리제도와 송상의 외국 귀화

송은 비록 적극적으로 해외무역 발전을 장려하였지만, 엄밀한 시박조법으로 해외무역을 정부의 수중에서 관리하여 최대 한도로 시박의 이익을 얻으려 하였는데, 송대 해외 무역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역의 장려와 공제(控制)였다.[7] 송은 선박이 빨리 돌아와야 세가 늘어나므로 공빙(公憑)을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회박하면 무역품의 일부를 징수하는 추해(抽解)를 우대하고, 만약 1년이 차면 세를 우대하지 않으며, 만 1년 이상은 친족(同根)을 조사하여 처벌하도록 하였다.[8]

그러나 이 조치는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웠다. 송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고려와 일본에 다니는 것은 비교적 빠른 기간에 왕복할 수는 있으나 시박세를 덜 내기 위해 외국에 체류하는 기간을 줄일 경우, 그만큼 교역하는 인원과 화물이 적어져서 무역상의 이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잦은 해상 왕래는 폭풍우에 의한 조난과 파선의 위험을 높이는 일이므로 해상들의 입장에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충분한 사유도 없이 송을 떠난 배가 장기간 해외에 머물면 중국에 남아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연좌되어 처벌받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배는 일정 기간을 두고 송과 외국을 왕래하는 대신에 해상 가운데 일부가 외국에 남아 현지인들과 무역하거나 배가 오기 전에 미리 구입과 판매를 희망하는 물품을 파악하여 교역의 효율성을 높였다.

송대는 해상들이 해외 여러 지역으로 나가면서 해상교통망이 확대되었고, 해외에 나가는 해상들에게 해당 지역의 번상(蕃商)을 데려오도록 장려하였다. 다만, 해상교통이 육로 교통에 비해 관리하기가 더욱 어렵고, 간사한 자(奸細)들이 숨어들기 훨씬 쉬워서 도망 군인이 외국인(外夷)를 데리고 다니며 금지 물품

7 黃純艷, 2003a, 「宋代海外貿易的興盛及其原因」, 『宋代海外貿易』,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73쪽.

8 黃純艷, 2003c, 「海外貿易與宋代商業的發展」, 『宋代海外貿易』,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04, 10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수출하고, 추해를 피하고 밀수 무역 등을 하는 현상이 있었다. 따라서 송대에는 이와 관련된 각종 금령이 내려졌다.[9]

송 조정은 각종 편칙 등을 제정하여 해상들의 활동을 제약하였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송강수가 해외로 출항할 때 시박사에서 받아간 공빙의 내용이다. 송대에 해외로 나가는 상인에게 시박사의 문서 발급 제도는 소식의 「걸금상려과외국장(乞禁商旅過外國狀)」에 있는 편칙 등에 보이며, 원풍 연간(1078~1085)에 시작되어 원우 연간(1086~1094)까지 사이에 국가적 법규로 정해졌다.[10] 공빙은 여행 증명 같은 것으로 여행자 및 그 종자(從者)의 이름, 휴대하는 화폐 및 상품명 등이 기록되었고, 중국 내에서 여행할 때는 주의 자사(刺史)와 현령 등에게 부여받았으며, 해외에 가는 상인(商旅)은 시박사에서 발급받았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은 12세기초 송 명주 시박사가 일본 하카타(博多)에 가는 이충(李充)에게 발행한 공빙이 일본의 사서인 『조야군재(朝野群載)』에 전재되어 있었는데, 일송무역의 연구에서 그것이 소개되면서 동아시아 해상교류사 연구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11]

이충이 송 명주 시박사에서 공빙을 받아 일본으로 떠나는 대략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105년 경에 천주에서 출범을 준비하고, 탑재화물과 목적지 등을 기재한 문서(狀)를 천주에 제출하고 연대보증인 3명-鄭裕, 鄭敦仁, 陳佑-을 세웠다. 천주는 그 문서를 검사(檢實)하고 그것을 명주시박무에 전달하였다. 시박무는 그 문서에 기초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이충의 문서에 이어 칙조(勅條) 8항목을 기입하였다.[12] 이러한 내용을 보건대 해외에 나가 무역하는 이충의 상

9 曹家齊, 2002, 앞의 글, 244쪽.

10 山崎覺士, 2010, 앞의 글, 63~66쪽.

11 森克己, 1975b, 「東洋國際貿易の普遍型」, 『日宋貿易の研究』, 東京: 國書刊行會. 물론 저자의 저서에서 해상의 귀화 문제 등을 서술하면서 공빙에 대한 기본 개념과 李充 공빙의 설명을 비교적 많이 제시하였는데, 기존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김영제, 2019c, 「송·원대 각국 상인에 대한 국적 판별의 근거」, 『고려상인과 동아시아 무역사』, 푸른역사, 68~72쪽.

12 山崎覺士, 2010, 앞의 글, 66~7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단과 배에 대해 출발지인 천주를 거쳐 명주 시박사가 인원과 화물을 검증하고 공빙을 발행하는 과정이 매우 철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공빙의 기록은 전체 선원과 보인(保人), 화물 전부와 선내에서 사용하는 물품, 상선의 수출입 관리에 관한 금령 등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송대 해외로 나가는(出海) 상선의 인원 구성, 선내 설비 및 관리제도 등을 알려주고 있다.[13] 송강수에게 발급한 공빙에 화물의 명세를 기록해둔 것은 귀국 시에 시박세의 근거로 삼기 위한 것이다. 전체 인원의 이름을 모두 적은 것은 해외에 가서 무역을 하고 귀국하여 강수가 공빙을 반납할 때 그 인원이 모두 다시 돌아왔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이다. 그리고 공빙의 가장 뒷부분에는 시박사 관원이 확인 서명하여 자국 상인들의 신원을 보증하고 있다.[14] 그러므로 해외로 나간 송상들이 함부로 외국에 남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강수는 시박사로부터 그 소속원들에 대한 태형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죽은 자가 있으면 그 재산을 적몰할 수도 있을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였다.[15] 강수의 책임과 관련하여 송대의 편칙에 의하면 해외로 나가는 공빙의 수속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을 점검하였다. 첫째, 상박에 실린 사람 및 화물의 이름과 수량을 확인하고, 위탁 보인의 담보와 위금물품(違禁物品)을 협대하지 않고 금지 지역(過所禁地)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규정의 준수 여부를 묻고, 관청이 박상(舶商)의 신청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뒤에 정황이 사실이면 공빙을 발급하는 것이다.[16] 그리고 강수가 강의 감독·감찰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 책임을 져야 했다. 강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관련 법을 어기면 당사자는 강법에 따라 처벌될 뿐 아니라 강의 강수, 부령(部令), 잡사(雜事) 등 관련자

13 曹家齊, 2002, 앞의 글, 254, 255쪽.

14 김영제, 2019c, 앞의 글, 71쪽.

15 藤田豊八 著, 魏重慶 譯, 1936, 「市舶官制」, 『宋代市舶司與市舶條例』, 北京: 商務印書館; 2015, 太原: 山西人民出版社(再刊), 91, 92쪽.

16 曹家齊, 2002, 앞의 글, 250~25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 함께 장 100대의 처분을 받았다.[17] 공빙에는 송나라 사람으로 장사(商販)하는 자는 다른 나라에 가서 망령되이 사신이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표장을 만들거나 칭호를 밝혀서는 안 되고 상인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그것은 송이 자국 해상으로 하여금 무역 상대국(渡航國)에 가서 함부로 사칭하지 말고 공빙에 적힌 대로 상인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뜻이다.[18]

이와 같이 시박사에 제출하는 공빙에 대표로 쓰여진 강수는 그 문서에 있는 인원과 화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귀국했을 때의 인원이 나갈 때보다 적었을(有故) 경우에 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하는 사람은 강수였다. 따라서 저자의 주장처럼 강수 자신이 고려에 가서 국적을 바꾸고 다시 송에 와서 외국인-고려인-으로 무역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저자는 『고려사』에 '고려강수' 탁영과 서덕영이 송에서 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실제로는 고려에 살면서 송을 오가고 있었으며[19] 송도강 탁영과 서덕영이 고려에 귀화한 뒤, 송을 다녔기 때문에 송의 사서에는 고려인 강수를 의미하는 '고려강수'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고려는 송상이 해외에 나가 무역하는 국가 가운데 가장 가까워서 다른 데에 비해 자주 왕래하는 특징이 있었다. 송 시박사의 허가를 받고 고려에 간 송상이 귀화하고 얼마 후 고려인이 되어 시박사를 찾아 입국하고 무역

17 白承鎬, 2006, 「여송무역의 양상」, 『高麗와 宋의 貿易 硏究』, 전남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57쪽.

18 김영제, 2019c, 앞의 글, 80쪽.

19 김영제, 2019b, 「송도강 탁영과 서덕영의 정체」, 『고려상인과 동아시아 무역사』, 푸른역사, 151~154쪽; 김영제, 2019a, 「고려 도강을 이용한 해상무역」, 『고려상인과 동아시아 무역사』, 푸른역사, 169쪽.
이에 대해 송에서는 공빙을 발급받아 해외에 나갔던 상인들은 다시 귀국하여 공빙을 시박사에 반납해야 했는데, 12세기 후반 이후에는 똑같이 고려나 일본에서 온 상인이라도 그 상인이 송에서 발급한 공빙을 반납하면 송상으로, 공빙을 지참하지 않고 고려나 일본에서 왔다고 주장하면 '고려상인'이나 '일본상인'으로 판단하였다는 견해도 있다(高銀美, 2018, 「고려·일본 송간의 무역사이클의 변화」, 『大東文化硏究』 103, 90쪽) 그러나 Ⅳ장의 송상이 고려와 일본에 귀화한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송대의 규정으로는 원칙적으로 송상의 귀화는 허용되지 않으며, 송상의 귀국은 필수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탁영과 서덕영의 고려 귀화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는 절차를 받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는지 검토해보자.

송대에 해상무역이 발달함에 따라 광주(廣州), 명주 등 주요 항구 도시에 시박사를 두고 해외로 나가는 해상과 선박의 관리 및 정세(征稅)를 관할하도록 하였다.[20] 고려의 해상들이 출입하던 명주 시박사의 운영에 관한 최근 성과를 보면 문서 행정은 성내에서, 추해와 박매 등은 성 밖에서 이루어졌다.

즉, 송대에 해상이 명주에 오면 순검사 등의 안내를 받아 삼강(三江) 입구를 거쳐 봉화강(奉化江)을 거슬러 올라 명주성의 동남쪽 시박무(市舶務) 부근으로 나아가며, 성 밖의 내안정(來安亭)에 머물렀다. 이에 해당 관리는 성 밖으로 나와 내안정으로 향하고 추해와 박매를 행하였으며, 이 때에는 짐을 빼내거나 사적 매매 등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큰 길의 작은 문이 폐쇄되었다. 뒤에 한인 해상은 공빙을 시박무에 반환하거나 또는 외국(蕃)이나 중국(漢) 해상이 전매를 위한 추해와 박매를 마쳤다는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삼문을 빠져나가 성안이나 시박무에 들어갔다. 명주 시박사는 행정을 불법 없이 집행하기 위해 시박무와

---

20 시박사의 기능과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들은 藤田豊八과 桑原隲藏에 의해 밝혀졌다.
藤田豊八은 송대 시박 규정에 항주, 천주, 광주 어떤 주에서 출발하더라도 반드시 시박사 소재의 州로 돌아와야 하며, 그곳의 시박사에 公據-공빙-를 내도록 하였다고 하였다. 이처럼 해외 무역 허가 증빙서에 해당하는 공거를 발부하여 떠나게 하는 목적은 첫째 국가에서 해외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물품이 수출되는 것을 막고, 둘째, 금지 지역으로 가는 것을 제한하며, 셋째, 수입 화물을 몰래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었다고 하였다(藤田豊八 著, 魏重慶 譯, 2015, 앞의 책, 106쪽).
桑原隲藏은 송대 시박사가 다음과 같은 일을 하였다고 하였다. 첫째, 외래무역선 및 무역상인의 일체 사무를 관장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외국 무역선이 입항할 때 무역금지품의 유무 확인 및 보관, 관세의 징수, 정부 전매품의 매입, 이국상인의 보호 및 외국선 출항 때의 검사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중국 연해에서 외국을 향하여 출항하는 중국 상인에 관한 일체 사무를 담당하였는데, 송상의 출발 및 귀국 시 적재 검사와 관세의 징수 등이 있었다. 특히 시박의 사항에 관해 상세히 조사할 때 반드시 해외에서 중국으로 온 시박인지, 중국에서 해외로 간 시박인지 구별하였다고 하였다. 桑原隲藏 著, 楊鍊 譯, 1935, 「市舶司及市舶」, 『唐宋貿易港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桑原隲藏 著, 楊鍊 譯, 2015, 「市舶司及市舶」, 『唐宋貿易港研究』, 太原: 山西人民出版社(再刊).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시박정이 기능을 분담하도록 건설되었고, 추해와 박매 등은 성 밖의 내안정에서 하고 사들인(博買) 물화는 폐쇄된 통로를 통하여 성내의 시박무 내 시박고에 운반되어 수장되었다. 공빙 등의 등 문서발급도 성안의 시박무에서 행해졌다.[21]

한편, 해외로 나가는 상박에 대해 반드시 같은 항구로 돌아오도록 했던 것은[22] 상박은 물론 인원과 화물을 철저하게 파악하는데 같은 시박사가 담당해야 정확하고 편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외국에서 돌아온 인원이 누락되거나 송의 공빙을 받고 나갔으나 귀국할 때 외국인으로 바뀌는 것은 시박사가 철저히 조사해야 할 사안이었다.

저자는 탁영과 서덕영 등을 송에서 고려강수로 판단한 근거가 예빈성에서 발급한 첩이었고, 그 선박의 선적과 해상의 국적이 틀림없이 고려라는 것을 보증하고 있다고 하였다.[23] 그러나 설령 고려에 귀화해서 고려 예빈성이 발급한 첩을 가져왔다고 해도 명주 시박사 관원이 그 이전에 송강수로서 공빙을 받아 나갔던 자임을 모를 리 없다. 왜냐하면 고려에 갈 때 신고한 배를 그대로 타고 되돌아왔으며, 저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강수인 탁영과 서덕영은 이름조차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명주 시박사에 고려 예빈성 첩을 근거로 고려에 귀화했다면 송강수가 공빙을 발급받을 때 지키기로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즉

---

21 山崎覺士, 2008,「貿易と都市-宋代市舶司と明州-」,『東方学』116, 97쪽. 그 이전에 중국학자가 조금 소략하지만 명주 시박사에서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입국 신고와 세 징수 과정에 대해 서술한 바 있다. 黃純艷, 2003a,「宋代海外貿易的興盛及其原因」,『宋代海外貿易』, 28쪽.

22 1085년 목적지별로 공빙을 발급하는 시박사를 제한한 규정이 폐지되어 목적지에 상관없이 모든 시박사에서 출항하는 것이 가능해졌고(鄭有國, 2004,『中國市舶制度研究』, 福州: 福建教育出版社, 123쪽), 외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무역 상인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무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12세기 후반부터 송의 사료에 등장하는 고려상인이나 일본상인이 명주로 귀환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高銀美, 2015,「宋代 明州市舶司의 변천과 무역조건」,『大東文化研究』89, 280, 281쪽). 그러나 고려를 다니는 송상들이 굳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송의 도읍과도 가까운 명주 시박사를 경유하지 않고 남하하여 천주로 가는 것은 당시 해상 왕래의 여건과 규정을 감안할 때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23 김영제, 2019c, 앞의 글, 80, 8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시 처벌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송을 출발하여 외국에 무역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시박사가 공빙을 발급한 자에게 제시했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송의 해상관리 체제, 재정 운영, 국방의 측면에서 큰 문제가 일어난다. 물론 운영 과정에서 모든 상인이 시박사가 요구하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도 있고, 바다를 다니면서 해난 사고를 당해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때도 있었으며, 출항한 이후 회귀하는 기간이 길어서 질병이나 사고로 죽는 인원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무역상의 편의를 위해 아예 주로 다니던 국가에 귀화하였다는 것은 저자가 사례로 든 고려에 귀화한 송도강 황흔의 존재를 통해 확인된다.[24]

한편, 저자의 저서에 대한 서평에서 송도강이 고려에 귀화한 것에 대해 송에서 법제적으로 가능했을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고 두 사람은 고려 귀화가 아니라 '다국적자'와 같은 신분으로 활동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25] 평자는 탁영과 서덕영이 송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고려에 귀화하여 양국을 오가며 '이중국적자'로서 행세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송도강이 고려에 귀화했다는 견해보다는 비교적 당시 역사상에 부합하는 점이 있다. 하지만 송도강 황흔의 사례가 알려주듯이 한번 고려에 귀화한 후 다시 송에 가서 살기 위해서

---

24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Ⅳ장에서 더욱 상세히 서술될 것이다.

25 평자는 다음과 같이 매우 조심스럽게 저자의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당시의 법령과 결부해 생각해볼 때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나 용인되었을지 의문이 남는다. 상당한 국익의 유출을 동반할 수밖에 없을 도강의 국적 이동을 송조가 그대로 방관하였을지, 또 그에 관한 법적 장치는 어떠했는지 숙고되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당시 중국 측 사료에서는 탁영과 서덕영을 '고려인 해상'이라고 불렀고, 일본에 건너가 활약한 상인에 대해서도 '일본상인'이라고 불렀다면 저자가 동시에 이들에 대해 고려와 일본 측의 사료에서는 각기 '송도강'이나 '송나라 사람'이라는 지적은 오히려 그들이 여전히 중국인 신분은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은 아닌지 필자는 억측해본다. 이 점에서 그들에게는 '귀화'라기보다 이를테면 '다국적자'와 같은 신분으로서 활동할 수 있던 분위기가 당시 양해되고 존재한 것은 아닌지 억측을 거듭해본다"(김성규, 2019, 앞의 글, 356, 35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국왕의 특별한 허락이 필요할 정도로 엄격히 관리되었다는 점에서 '다국적자'라는 대안도 올바른 것은 아니다.[26]

Ⅲ. '송도강의 운선업자설'에 대한 비판

앞에서 송상이 해외에 가서 장기 거주하는 일이 있었지만, 자국의 상인들이 외국에 귀화하는 것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으며, 특히 강수는 거의 불가능했음을 서술하였다. 그런데 저자는 탁영·서덕영 등의 송도강이 고려에 귀화하였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이 배를 소유한 운선업자였다고 주장하였다.[27] 저자는 고려 왕과 조정이 이들의 선박을 이용해 왕실무역을 하거나 외교사절을

---

26 또 다른 평자는 저자가 주장한 운선업자 송도강의 고려 귀화에 대해 "중국 송대 경제사 연구자인 김영제의 『고려상인과 동아시아 무역사』는 비록 제목은 '고려상인'으로 되어 있지만, 고려라고 하는 일국사적 관점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세 동아시아 海上이라는 국가나 민족을 넘어선 공간의 맥락에서 '고려상인'을 복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고려상인'이라고 불렸던 이들의 활동을 복원하기 위해 고려 측 사료에 기재된 관련 기록들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 중국 측의 기록들과 국제적인 연구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대조함으로써 그 실체적 의미를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저자는 통일 신라기를 이어 활발한 국제 교류를 진행했던 '고려상인'에 대해서 국적과 인종을 초월한 '동아시아인 해상'으로서 진정한 실체를 새롭게 복원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김한신, 2019, 앞의 글, 324쪽.

27 저자는 도강이 선박의 주인이었다는 근거로 남송대 중국 사료에 있는 舶主 都綱廟와 大舶主 季都에 관한 기록을 제시하였다(『分門古今類史』 권4, 昭武販馬). '박주 도강묘'에서 '박주'와 '도강'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계도'가 '대박주'였다고 되어 있지만, 실은 '계도'에서 '강'이라는 글자가 생략된 상태로 '계도강'이 다름 아닌 '대박주'로 봐도 무방하다고 하였다(김영제, 2019a, 앞의 글, 158, 159쪽). 이처럼 저자는 중국의 사례를 들고 도강이 박주라고 하였는데, 대체로 상단(綱)의 우두머리를 송에서는 강수, 고려에서는 도강이라고 적었으므로 중국의 사례를 들고 고려에서 사용하는 송도강의 성격을 밝히는 것은 잘못되었다. 설령 저자의 주장이 맞는다고 해도 이 사례가 탁영과 서덕영, 더 나아가 『고려사』에 기록된 송도강이 배의 소유주라는 것, 운선업자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많은 비판이 있을 것이다(이진한, 2021, 앞의 글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파견하기도 하고, 고려상인들 역시 이들 배를 타고 왕래하고 있었다고 하였다.[28] 저자는 『평주가담』의 기록을 근거로 '12세기에 동서 두 세계를 연결하는 중계항에는 여러 나라의 객상을 상대로 운선업을 전문으로 하는 해상도 출현해 있었으며, 이런 까닭으로 당시 해상무역을 하는 상인들은 굳이 자신의 선박을 소유할 필요가 없었고, 그로 인해 객상과 같은 소자본을 가진 상인도 해상무역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29]

저자의 논지를 고려와 송의 해상무역에 적용하면 송도강이 운선업자가 되고 자본력이 낮은 고려의 상인이 그 배에 편승하여 송을 왕래하며 무역을 하였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송대 중국 사료에 고려 해상이 중국에서 활동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조선술이나 항해술이 부족하여 송에 왕래하기 쉽지 않은 고려인들의 왕래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어야 했으므로 저자는 도강과 배의 주인(舶主)를 연결시켜 송도강이 운선업자였다는 견해를 내놓았던 것이다.

이러한 저자의 독특하고 과감한 주장에 대한 평자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한 평자는 '고려나 일본의 경우에는 송과 원양항해를 위해 선박재료와 기술자를 외국에서 들여오는 데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첨저선을 제작할 필요 없이 중국 운선업자로서 귀화를 희망하는 자들 중에서 필요한 능력을 지닌 경우 이들을 받아들여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었다'고 하였다.[30] 평자는 해운과 조선 기술이 송보다 낮은 고려가 운선업자인 송도강의 귀화를 통해 교역상 비용 절감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저자의 논의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

28 김영제, 2019a, 앞의 글, 169쪽.

29 김영제, 2019a, 위의 글, 161~164쪽. 심지어 저자는 '탁영이나 서덕영 역시 당시 고려에 거주하던 화교해상이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고려 쪽에서 굳이 배를 만들거나 중국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할 필요가 없었으며 가만히 앉아서도 사람이나 첨저선과 같은 배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며(김영제, 2019, 위의 글, 165쪽) 고려와 송 사이에 배가 무역품의 하나로 거래되었던 것처럼 서술하였다.

30 김한신, 2019, 앞의 글, 32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리고 송도강이 귀화한 운선업자였다는 주장에 대해 논지의 실증 여부를 떠나 송도강이 고려에 귀화해야만 고려 사람들을 태우고 송을 왕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송은 무역 진흥 정책의 하나로서 해외로 나간 송상들이 외국 상인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우대하였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송 정부는 번장(蕃長)과 강수에게 외국 상인(蕃商)을 불러 맞이하게 하였다. 번장은 정부를 거쳐 임명한 번상의 담임으로 번방의 사무를 담당하였으며, 번장은 번상에게 일정한 영향력이 있어서 번상을 불러들이는 데 역할을 하였다. 강수는 배를 타고 각국을 장기간 왕래하여 번박(蕃舶)을 불러들이는데 편리하였고, 송은 번박을 초유하는 데 공이 있는 번장과 강수에게 관직을 주어 장려하였다. 이 밖에도 번상이 일정 기간 중국에 머무는 것을 제한하면서 그들이 부단히 왕래하며 무역하도록 하였다.[31] 그러므로 송의 강수-『고려사』 기록의 송도강-가 굳이 고려에 투화하지 않아도 고려 해상을 태우고 송에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다.

고려강수가 귀화한 송나라 상인이고, 고려도강이라고 불렸다는 것을 인정해도 여전히 남는 문제는 송강수가 고려에 무역하러 갔다가 귀화하면서 송에서 타고 간 배의 국적이 고려의 배로 바뀐다고 주장한 점이다. 저자가 이러한 주장을 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 고려의 배가 평저선이어서 고려상인들이 항해술과 조선술이 뛰어난 송의 배와 같이 빠르고 안전하게 서해를 왕래하는 송상과 경쟁할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 고려 해상이 송에 가서 무역했음이 분명해 보이는 기록을 몇 가지 찾아냈다. 두 가지 사실이 모순되는 점이 있으므로 '선주이자 운선업자'인 귀화한 고려 도강의 배를 이용하여 고려 해상들이 송을 다녔다고 이해하였다. 고려 해상의 동아시아 무역을 입증하기 위해서 강수가 고려에 귀화하고 그들의 도움으로 고려 해상이 대상 무역에 종사하였다고 설명한 것이다.[32]

---

31 曹家齊, 2002, 앞의 글, 243쪽.

32 중국 사서에 나오는 고려 해상의 활동이 가능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운선업자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저자는 송 해상이 거란이나 금에 몰래 도항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공연히 법을 어기고 있었기 때문에 소식(蘇軾)이 고려를 오가며 활동하던 송상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것이며, 이 같은 사례는 송나라 해상들이 마음만 먹으면 국적도 넘나들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33] 하였지만, 당대의 실정은 매우 달랐다. 송상이 해외를 왕래하며 계속 무역하기 위해서는 송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했다.

송이 고려에 가는 해상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고려가 송의 적대국인 거란(요)과 접경하였고, 고려가 거란(요)의 책봉국이었기 때문이다. 송은 여러 차례 편칙을 내려 해상의 활동에 대해 규제하면서 중국 상선이 고려와 송의 등주·내주·북계 방면으로 도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 원인은 고려를 통하여 송의 기밀이 거란(요)에 누설되는 것과 국가 방어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34] 그래서 1079년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을 제외하고 송 상인이 고려에 가는 무역을 금지하였으나, 송 지방 관리의 묵인하에 고려를 다녔던 것이다.[35]

송 정부는 정치·군사·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외국과 교역할 수 없는 물품을 규정하였다. 송은 병기, 피혁, 유황, 염초, 죽우각(竹牛角), 수은, 단칠, 혹은 병기 제조에 쓰이는 물품, 구리, 은, 흑칠, 양식, 서적 등 긴밀한 물자 혹은 국가 기밀의 물품은 사적으로 국경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남송 시기에는

송도강의 존재가 저자의 논지에서 반드시 필요했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서술을 통해 확인된다. "당시 고려 선박은 평저선이며 일본의 배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속도나 크기에서 모두 중국 선박에 비해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고려나 일본 상인이 남중국 명주나 천주까지 가서 무역하기 위해서는 그 쪽 바다를 항해하기 알맞은 첨저선과 더불어 저쪽과 소통해줄 사람이 필요하여 송상보다 송도강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였다." 김영제, 2019a, 앞의 글, 164쪽.

33 김영제, 2019a, 앞의 글, 165쪽.

34 森克己, 1954, 앞의 글; 森克己, 1975a, 앞의 책, 354, 355쪽.

35 陳高華·吳泰, 1981, 「宋元時期 海外貿易的活動狀況」, 『宋元時期的海外貿易』,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3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한 범위가 더욱 넓어져 전간(箭杆), 칠화, 수우피, 견마피(犬馬皮), 사어피(沙魚皮) 등과 병기로 이용될 말의 안장식, 도검 등의 물자가 일체 국경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36] 이 조치는 이들 물품이 송과 적대하고 있는 거란(요) 등에 전해져 송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그 물품에는 정작 중요한 배가 빠져 있다. 배는 유사시에 많은 병사와 군사물자를 운반하는 가장 효과적인 운송 수단이다. 당대 최고의 조선 기술로 만든 송상들의 배가 거란(요)·금과 같은 적국의 수중에 들어가고, 뛰어난 항해술을 가진 송상이 항해를 맡게 된다면 송나라에 커다란 군사적 위협이 되었을 것이다. 운송업자인 도강이 고려에 가서 투화를 하고 그와 더불어 상박까지 고려의 배로 전환되는 것은 해상의 출입을 관리하는 시박사는 물론 송 정부가 해상무역 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할 만한 중대 사인이다. 다른 지역을 다니는 해상에 비해 고려에 가는 해상에게 거액의 재본과 보증인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던 것도 고려가 적국과 국경을 접하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37]

실제로 고려는 거란(요)에 사대하면서 송에 사신을 보내는 이중외교를 한 적이 있고, 거란(요)과 금이 전쟁하던 시기에 일시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 적이 있지만, 1126년 이후 다시 금을 사대하였다. 그러므로 정강의 변 이후 고려가 송의 가도 요청을 거절한 뒤에 다시 고려가 사신을 보내고자 했을 때, 송은 고려가 송에 관한 정보를 금에 넘길 것이라는 점을 들며 고려 사신의 입국을 반

---

36 吳曉萍, 2006, 「官方對外貿易及其管理制度」, 『宋代外交制度研究』, 合肥: 安徽人民出版社, 218, 219쪽.

37 한 평자는 고려인들 역시 중국과 무역함에 있어 자신들의 평저선보다 중국의 첨저선이 필요했을 것이므로 중국 운선업자('도강')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을 것이라는 저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향후에는 고려에서도 중국 항해용 선박을 자체 건조하게 되었을 가능성, '중요 정보를 한반도와 공유하고 선박대여도 주선해줄 중국 내 자국인'들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가능성 또한 학계에서 검토되기를 기원해 본다'는 의견을 냈다(이강한, 2020, 앞의 글, 84쪽). 필자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당시 선박 자체가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며, 엄청난 금액이 오가는 큰 거래이므로 그런 일을 생각할 수 없었다. 만약, 그러한 시도가 있다고 하면 송이 그것을 막는 것은 물론, 관련자들을 전원 처벌했을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하였다.

저자가 고려에 귀화한 선주 강수라고 주장하는 탁영과 서덕영이 활동하던 때는 주로 1132년과 1160년대였다. 전자는 송과 금의 전투가 치열할 때였고, 후자는 송과 금의 화의가 이루어진 뒤라고 해도 해릉왕의 공격으로 송과 금의 교전이 있었던 직후여서 양국의 적대 관계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송의 강수가 고려에 무역하러 갔다가 투화를 하고 다시 그 배를 타고 송에 와서 무역할 수는 없었다.

다음으로 송의 해상들이 과연 외국에 귀화를 결정할 만한 동기가 있었는지를 고찰해보자. 이 문제 역시 송대의 해상 관리제도의 운영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송상의 출신 배경에서 그 단서를 구해보겠다. 송나라에서 해외로 나가 무역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박호(舶戶)'였다. 송 정부는 이들에 대한 관리와 세금 거두기(征稅)를 편하게 하고자 호적에 '박호'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1135년(송 소흥 5년)에 제로(諸路) 연해 주현의 해선을 가진 인호는 5가를 1보(保)로 삼고, 마음대로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위반한 자는 그 자산을 적몰하였다.[38] 이 보갑(保甲) 연좌법이 시행됨에 따라 송 정부가 해상의 무역 활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39] 해상은 일방의 패(覇)로 불릴 만큼 지방의 호강이었으므로 지방관이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정도였다.[40] 해외로 나가는 상박의 하급선원들은 육체적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았겠지만, 강수급은 외국에서 팔 물품을 구매하고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자산을 소유하거나 빌릴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은 갖추어야만 했을 것이다.

아울러 한 지역의 토호로 여겨질 정도의 사회적 위상과 경제적 부를 가진 해상들이 외국에 귀화하여 근거지를 바꾸려고 할 경우 해상으로서 출신지 또는 연

38 『建炎以來繫年要錄』 권89, 紹興 5년 5월 임진.

39 黃純艷, 2003c, 앞의 글, 104쪽.

40 黃純艷, 2003a, 앞의 글, 46쪽.
일본을 다니던 해상의 아들인 周良史가 명주의 유명 가문인 시씨와 혼인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사회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지에 쌓아놓은 자산과 사회적 지위를 잃게 될 것이다. 송상이 고려로 가면서 모든 가족과 더불어 전 재산을 가져가고, 고려에서 높은 지위를 보장받는다고 해도 송대의 해상이 고려에 귀화를 결심하는 일은 실현되기 어려웠다.

북송시대에는 해상 가운데 배와 무역품을 소유하고 자신도 강수로서 배를 타고 해외에 나가는 일이 많았으며, 남송시대가 되면 무역에 의해 거만의 부를 쌓은 대자본가가 등장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역업자로서 투자하고 배와 물화를 소유하여도 해외에 나가지 않고 중소상인들을 고용하거나 일족 중의 누군가를 대리로 강수의 지위에 취임시키고 해외에 파견하여 무역을 영위하였다.[41] 탁영과 서덕영이 활동하던 남송 시기에 선박주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해외에 나가지 않고 중소상인이나 대리인을 강수로 삼아 해외무역을 했던 것이다.

사실 송상의 고려 왕래가 활발하던 시기에는 고려 해상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송도강의 배 편에 중국에 가서 무역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고려 초에는 고려 해상이 중국에 가서 무역하였지만, 성종대 최승로가 시무책에서 사신이 송에 가는 때를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해상이 무역하러 외국에 가는 것을 금할 것을 청하였다.[42] 그 이유는 중앙집권화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해상세력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 원칙은 적어도 무신정권기까지 지켜졌다. 그 대신 송상이 고려에 오는 것을 허용하여 송과의 외교 중단과 고려 무역상의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였다는 것은 1058년 문종이 송과 통교하려 하자 내사문하성이 반대하며 내세운 이유 중의 하나로 '하물며 우리나라에는 문물·예악이 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며 상박이 연이어 내왕하여서 값진 보배가 날마다 들어오므로 중국과 교통하여도 실제로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거란과 영구히 절교하지 않을 것이라면 송과 통교함은 마땅하지 못합니다"라는 말을 통해 확인된다.[43]

---

41 森克己, 1956, 「日本·高麗來航の宋商人」「朝鮮學報」 9; 森克己, 1975, 앞의 책, 342쪽.

42 『高麗史』 권93, 崔承老傳.

43 『高麗史節要』 권5, 문종 12년 8월.
이 기록을 보건대 고려가 중국과의 해상무역에 참여할 유인 요인도 없는 것 같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러나 운선업자인 송도강은 귀화하여 고려와 송을 왕래할 수 없었다. 저자와 평자가 송상을 국적과 인종을 초월한 존재로 송도강을 상정한 데는 송대에 많은 해상이 해외로 나가 무역하였다는 사실과 그 가운데 일부가 외국에 귀화하여 무역 활동을 했던 데서 비롯된 오해이다. 송대 해외 무역 행정의 특징은 해상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했던 만큼 철저히 관리했다는 점에 있다. 송대 무역 관리 제도에서 해상교통의 금지는 주로 4가지였다. 첫째, 일정한 지역과 국가에 가서 무역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 둘째, 중국 상선이 함부로 외국인을 태우고 중국에 오는 것, 셋째, 동전 및 군용물자를 싣고 바다로 나가는 것, 넷째, 번객과 더불어 사사로이 상교역을 하는 것 등이 금지 대상이었다. 송대에 해상무역을 발전시킨 목적은 시박세를 받아 재정수입을 늘리려는데 있었으므로 사교역을 엄금하고 해상무역이 관부의 관리하에 들어오도록 했다. 그러므로 무릇 배로 출해 무역하는 자는 모두 모름지기 공빙을 신청하고, 시박사의 검사(檢驗)를 거쳤다. 출항지에서 검사를 거치지 않고 공빙이 없는 자는 담당자가 고하여 잡아내고, 배의 화물은 관에 몰수하도록 하였다.[44]

요컨대, 송 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물자인 배의 소유자가 자국과 적대하는 거란(요)이나 금의 책봉국인 고려에 귀화한다는 것은 배의 소유권이 넘어감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송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송상이 고려와 거란(요) 등에 가는 것을 제한하는 편칙을 반포하고,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었던 것이다. 운선업자인 송도강이 고려에 귀화하는 것은 송대 무역관리 정책을 보건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45]

송상이 선진문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상황에서, 고려상인들이 선박과 해운상의 강점을 지닌 중국과의 무역에 종사할 필요가 없다. 굳이 송도강의 배를 빌려 중국에 갈 이유도 없다. 송도강이 배의 소유자로서 고려에 귀화한 운선업자였다는 주장은 당시 고려와 송의 무역 여건을 종합해보건대 전제부터 잘못되었고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44 曹家齊, 2002, 앞의 글, 245~24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Ⅳ. 송상의 고려·일본 귀화 사례와 그 실제

송상 가운데는 해외에 나가 그해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주번(住蕃)이라 하며, 수십 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46] 특히 일본에서는 송상의 장기 거류 양상이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다. 11세기 후반부터 일본의 하카타에 송상이 거주하고 무역 활동을 하였다. 그들은 하카타의 부둣가 주변에 살며 교역 활동을 영위하는 형태였으며, 송상의 관점에서 보면 '주번'이라는 방식으로 전환을 꾀하였던 것이다.

송상의 체재 기간에 대한 사료가 비교적 풍부한 일본의 사례를 9세기 후반과 11세기 전반에서 비교한다면, 9세기에는 1~2년에서 길어져 3~4년이 되고, 11세기에는 6~8년에 걸쳐 꽤 장기간에 머물게 되었다. 그리고 10세기 말~11세기 초 주문예(周文裔)·장승보(章承輔) 등 해상들은 일본인 처를 데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일본 출생 중국인-토생당인(土生唐人)-주량사(周良史)와 장인창(章仁昶)도 성장하여 일송무역에 종사하였다. 이 무렵에 일본 하카타는 이미 해상을 일반인에서 격리하는 폐쇄성을 불식하고 관민들의 무역 중심지로서 송상이 장기간 머물며 세대를 갖추어 생활도 영위하는 영업 거점이었으므로 일본 내 중국인 거주지인 당방(唐坊)의 조형(祖型)을 이루었다.[47] 그런데 이와 같은 송상의

---

45 더욱이 고려 성종 대 중국에 사신이 가는 편을 제외하고 해상이 개별적으로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로 인해 고려해상의 대송 무역이 쇠퇴한 반면, 송상이 자주 고려를 왕래하게 되었고, 때로는 고려인이 송상에게 필요한 것을 주문하면 다음번을 때 그것을 구해줄 수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저자의 주장처럼 고려상인이 고려에 귀화한 송도강의 배를 빌려 송에 가서 무역할 필요성도 적으며, 송상과 경쟁하며 무역을 한다 해도 이익을 얻기 어려웠을 것이다.

46 『萍洲可談』 권2. "北人過海外 是歲不還者 謂之住蕃 諸國人至廣州 是歲不歸者 謂之住唐. 廣人擧債總一倍 約舶過回償 住蕃數十年不歸 息亦不增."
周運中, 2015, 『中國南洋古代交通史』, 廈門: 廈門大學出版社. 285쪽; 李東潤, 1982, 「宋代海上貿易의 諸問題」, 『東洋史學研究』 17, 27쪽.

47 渡邊誠, 2010, 「鴻臚館の盛衰」, 荒野泰典·石井貞敏·村井章介 編, 『日本の對外關係 3, 通交·通商圈の擴大』, 東京: 吉川弘文館, 360, 36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유형은 일본에 국한되지 않고, 비슷한 시기에 아시아 주요한 항만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였다. 송에서 외국에 나가는 해상이 송나라 사람을 편승시켜 남방제국으로 갔으며, 그들은 그 지역에 수 년 또는 20년간도 체류하여 귀국하지 않고 현지 부인과 결혼하여 아들까지 낳는 사례도 있다.[48]

송의 해상무역 대상 가운데 가장 가깝고 비교적 안전한 항로여서 많은 송상이 왕래했던 고려에도 상주하는 송나라 사람이 있었다. 송상의 고려 무역에 관한 초기 연구 성과에서 고려 왕성에 화인(華人)이 수백 인이며 대부분은 민인(閩人)이었다는 『송사』 고려전의 기록을 들고 고려에는 다수의 귀화인이 있었으며, 그들은 대개 상인이었을 것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49]

더욱이 보통의 송상이 아니라 그 우두머리급에 해당되는 송도강 황흔이 귀화하였던 일이 확인되는데, 저자는 이것을 탁영과 서덕영이 귀화하였다고 보는 주요한 논거의 하나로 삼고 있다.[50] 이는 저자의 논지와 관련한 핵심 사료이므로 자세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관련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1. (문종 9년 9월) 신미일에 예빈성이 송도강 황흔의 글을 상주했다. "신은 포안과 세안 두 아들을 데리고 고려에 '투화'했습니다만, 본국에 82세가 된 모친이 있어 보고 싶어 슬픔을 가눌 길 없습니다. 청컨대, 장남 포안만이라도 돌려보내 공양토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왕이 일컫기를 "남녘에서 날아온 새도 고향에 가까운 남쪽 가지에 둥지를 틀거늘, 하물며 사람이랴!" 하고 이를 허락했다.[51]

---

48 龜田明德, 1992, 「唐代陶磁貿易の展開と商人」,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編,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43, 144쪽.

49 金庠基, 1937, 앞의 글; 金庠基, 1948, 앞의 책, 59쪽.

50 저자는 송도강 탁영과 서덕영이 고려에 귀화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면서도 A1의 사료를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이 사료는 1055년의 것으로 고려가 송과 다시 수교하기 이전의 것이다. 송상들이 자제들과 고려에 찾아왔던 것처럼 이미 이때부터 고려에 투화해 있던 송도강도 있었다. 따라서 탁영이나 서덕영도 이 황흔처럼 고려에 스스로 귀화한 송도강이었다." 김영제, 2019a, 앞의 글, 167쪽.

51 『高麗史』 권7, 「世家」 文宗 9년 9월, "辛未 禮賓省奏 宋都綱黃忻狀 稱臣携兒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1은 귀화한 송도강 황흔이 송에 남아 있는 82세의 모친을 모시기 위해 장남 황포안(黃浦安)을 다시 송에 돌려보내줄 것을 고려 국왕에게 청하자, 허락해 주었다는 내용이다. 저자는 이 사료를 들고 당시 고려 국왕은 귀화를 요청하는 송도강 가운데 재능에 따라 '선별적'으로 허용했으며, 고려에서 운선업을 하며 먹고살도록 하고 때로는 사신과 같은 특별한 일에 활용하였다고 해석하였다. 저자는 더 나아가 1033년부터 1229년까지 송도강의 내항 기록을 표로 만들고, 고려에 귀화한 도강이 한두 명이라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고려사』 세가에는 고려에 귀화한 송도강이 꽤 있었다고 주장하였다.[52]

이러한 견해에 대해 한 평자는 고려의 선박이 남중국에 활발히 진출해 때로 그 수가 '수백 척'에 이르렀다는 상황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저자는 대부분이 고려에 귀화하여 고려인이 된 본래는 '송도강'의 선박이었으며, 고려 해운력이 크게 증강되고 고려상인의 해상 활약 역시 제고되는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당시 동아시아 해역에서 '고려상 주도설'까지는 아닐지라도 고려상이 송상의 역할을 크게 따라잡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53] 이와 같이 고려의 해상들이 송을 다니며 크게 활약했다는 저자의 주장은 1930년대 고려와 송의 무역 연구에서 현종 대 이후 송이 멸망할 때까지 다수의 송상이 출입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낸 이래[54] 고려사 연구자들에게 의해 발전 계승되어 온 송상의 무역 주도설을 뒤집는 것이다.

蒲安·世安來投 而有母年八十二 在本國 悲戀不已 請遣還長男蒲安供養 王曰 越鳥巢南枝 況於人乎 許之."
이 기사에서 이미 오래전에 귀화한 황흔을 송도강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송도강이라는 표현이 배의 소유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아울러 강의 상층부를 이루는 직함은 강수, 부강수나 잡사가 있으므로 황흔은 그 범주 안에 들면서 공빙을 신청해 받은 대표자 지위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송도강은 지위나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송상 전체를 편하게 부르는 美稱일 수도 있다.

52 김영제, 2019a, 앞의 글, 164~170쪽.

53 김성규, 2019, 앞의 글, 358~359쪽.

54 김상기, 2019, 앞의 글, 59~65쪽의 〈표 2〉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러나 황흔이 '송도강'으로 귀화하였기 때문에 '송도강' 탁영과 서덕영을 귀화인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견강부회의 논리이다. 황흔 관련 기사를 꼼꼼히 살펴보면, 고려와 송을 왕래하던 탁영·서덕영과 달리 황흔은 귀화한 이후 고려를 떠나 송에 간 적이 없었던 것 같다. 황흔을 송도강이라고 한 것은 그가 여전히 고려에 살면서 무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모친에 관한 소식은 송상을 통해 전해 들었을 것이다. 황흔이 '본국에 82세가 된 모친이 있어 (마음이 놓이지 않아) 슬픔을 가눌 길 없습니다'라고 한 것이나, 고려 국왕에게 노모의 공양을 위해 장남 황포안을 보내줄 것을 청해서 허락을 받는 것 등이 그러한 사정을 알려준다. 황흔은 고려에 귀화했으나 저자의 주장과 달리 마음대로 중국을 왕래하지 못하였던 것이다.[55]

송상은 아니지만 고려에 귀화한 송나라 사람의 사례는 더 있다. B1은 두도제(杜道濟)와 축연조(祝延祚) 등이 상선에 편승해서 고려에 왔다가 귀국하지 않아 고려와 송 사이에 외교적 문제가 되었던 기록이다.

B1. (인종 2년 5월) 경자일에 송상 유성 등 49인이 왔다. 처음에 명주의 두도제와 축연조 등이 상선을 따라 본국에 왔으나 돌아가지 않았다. 명주가 재차 문서를 이첩하여 찾으니, 국가가 표를 올려 그들이 고려에 머물기를 청하였다. 이에 이르러 유성 등이 와서 명주가 성지를 받들어 전한 첩을 전하여 이르기를 "두도제 등에게 편한 대로 거주할 것을 허락한다"고 하였다.[56]

---

55 이후 장기간 고려에 머물던 황포안이 다른 송상의 배를 타고 송에 귀국하였을 때, 시박사가 공빙을 참고하여 그 배의 인원과 물품을 조사하였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공빙에 없는 인물로 밝혀진다면 당연히 명주 시박사의 조사 대상이 되고 적당한 사유를 대지 못할 경우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송의 海商에 대한 출입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한 송상이 외국에 귀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56 『高麗史』 권15, 「世家」. 인종 2년 5월 "庚子 宋商柳誠等四十九人來 初明州杜道濟·祝延祚 隨商船 到本國 不還 明州再移文取索 國家上表請留 至是 誠等來傳明州奉聖旨牒云 杜道濟等許令任便居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위 내용은 1124년 이전에 고려에 왔다가 돌아가지 않은 두 명의 송나라 사람이 고려의 요청으로 고려에 머물도록 허락받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 기록에서 두도제·축연조가 고려에 왔던 것은 인종 2년 5월보다 훨씬 전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기사가 있기 전에 두 사람은 고려에 왔다가 돌아가지 않았고, 그것을 알게 된 송의 명주에서 두 번에 걸쳐 고려에 공문을 보내 두 사람을 찾아 보내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어 고려가 송 황제에게 그들의 고려 거주를 허락해줄 것을 요청했고, 그것을 받아본 송 황제가 명주에 허락하는 명령-성지-을 보내고 다시 그것을 송상 유성이 가져오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그러므로 두도제 등이 송으로 귀환하지 않은 사건은 고려와 송 사이에서 여러 차례 외교 문서를 주고받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송상 유성이 송 황제의 명령을 가져오면서 비로소 해결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송 명주가 고려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 두 사람을 찾아서 보내달라고 고려에 공문을 보냈다는 점이고, 고려는 송 황제에게 표를 올려 그들이 고려에 머물 수 있도록 요청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이 있게 된 원인은 두 명의 송나라 사람이 고려에 갔다가 돌아가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지만, 그것이 고려와 송 사이에 외교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두 사람을 태우고 고려에 갔던 송상 일행이 송에 귀국하면서 송 명주 시박사가 그 사실을 알아챘을 때부터였을 것이다. 앞에서 검토했듯이 시박사가 해외로 나가는 송상에게 공빙을 발행하였던 것은 시박세를 거두고, 인원의 출입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였다. 따라서 송대 시박사의 기능을 참고하여 사건의 전개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두도제·축연조를 싣고 고려에 가는 배가 출발하기 전에 강수-도강-는 시박사에 신고하고 상단-강-의 이름, 화물의 종류와 수량이 기록된 공빙을 받고 고려로 떠났을 것이다. 이후 그 강수는 두도제 등을 고려에 남겨둔 채 송으로 귀환하여 명주 시박사에서 입국 절차를 밟았는데, 인원을 확인한 결과 두 명이 돌아오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시박사는 강수에게 그 이유를 묻고 책임을 추궁하였으며, 고려에 남아 있다는 답변을 받았을 것이다. 명주 시박사는 이 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실을 고려와 외교문서를 주고받는 지방 관청인 송 명주에 이첩하여 송상이 고려에 가는 편에 두도제 등을 찾아 돌려보낼 것을 고려 국가에 요청하였고, 두 차례에 걸친 송의 송환 요구 공문을 무시할 수 없게 되자, 두도제 등이 고려에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송 황제에게 그들의 고려 거주를 허락해줄 것을 요청하는 표를 보냈고, 결국 1124년 그것을 들어주겠다는 송 황제의 성지를 유성이 가져와 고려 두도제 등의 '미귀환' 사건은 종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실종 사실을 파악하는 근거 자료가 되었던 것이 명주 시박사가 발급한 두도제와 축연조의 이름이 포함된 공빙이었다. 명주 시박사가 해외를 다니는 송나라 인원의 점검에 철저하였으며, 그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이 사건이었다.[57]

이와 같이 송은 해상으로 출입하는 내외국인을 엄격하게 점검하는 관리 제도를 운영하였다. 그 제도의 철저한 시행을 위해 시박사라는 기구를 만들고, 해외에 나가는 강수에게 공빙을 발급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외국에 나간 선원이 귀환하지 않는 일은 시박사가 묵인해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인원의 유고에 대해 책임자인 강수의 충분한 해명이나 증거가 있어야 하며, 그것으로 충분히 납득되지 않을 경우에 송의 시박사는 다음에 고려에 가는 상인 편에 공문을 보내 그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다. 모든 절차를 거쳐 인원이나 화물에 대한 사고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할 경우, 강수에게 책임을 물어 그를 징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고려에 갔던 두도제와 축연조가 귀국하지 않아 발생했던 사건은 고려가 송 황제에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정식으로 고려에 머물 것을 청하여 허락을 받았으므로 관련자들은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받았을 것이다.

한편, 일본을 다니던 송상의 사례이다. 황흔과 같이 송에 귀환하는 것을 포

57 이 사건이 알려주는 것은 송나라 사람이 고려에 왔다가 귀환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송나라 사람이 외국에 머물고자 할 때는 송 황제의 특별한 명령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기하는 대신 고려에 귀화한 경우에 송에는 자신의 행적을 송에 어떻게 보고하였는지를 참고할 만한 연구가 있어 소개해보고자 한다. 북송 시기 1196년 봄에 동향인 영해현(寧海縣)의 왕조(王藻)가 작성하고, 숭정(崇禎) 5년 간행된 『영해현지』에 수록되어 있는 「칙봉위국부인시씨절행비(勅封魏國夫人施氏節行碑)」에 의하면 시씨(1007~1080)는 사명의 망족 출신으로 태주(台州) 영해현의 주량사와 혼인하였다. 일찍이 그의 선조는 큰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嘗總大舶 出海上), 주량사의 효가 지극하여 그 집을 떠나지 않으려 하였다. 하지만 주량사가 부인과 혼인한 다음해 아버지 주문예를 모시고 일본에 갔다. 가고 나서 3월-또는 2월-에 아들이 태어났으며, 그 뒤에 부군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르렀다(府君哀訃至). 시씨는 22세-1028년-에 남편을 잃고(孀) 재가하라는 권유를 물리치고 아들을 길렀으며 그가 진사제에 급제하고 벼슬이 선덕랑(宣德郎)에 이르렀다. 그녀가 1080년(송 원풍 3) 7월 5일에 향년 74세로 졸하였는데, 이후 손자들도 출세하여 절의를 지키고 주씨 집안을 일으킨 인물로 표창을 받았다.

그런데 일본과 중국의 문헌에는 1026년에 주량사가 일본의 관백(關白)에게 명적(名籍)을 바쳤고, 그해 명주 시박사에 와서 조공무역을 하였으며, 1028년에 아버지 주문예와 함께 쓰시마에서 활동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주량사는 자발적으로 송을 떠나 일본의 '주번상인'으로서 전환하여 일본인 처를 두고 하카타에 살며 대재부(大宰府) 관리는 물론 섭관가(攝關家)·황족 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1034년에는 동궁과 교토(京都)에 면회하였다고 한다.[58]

주량사는 1026년경에 이미 처(施氏)를 버릴 마음을 먹고, 2년 후 일본에 와서 시씨에게 부보(訃報)를 보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59] 주량사가 생모의 나라인 일본 하카타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점에서 일본을 다니는 해상 편에 그가

58 이 부분의 내용은 아래의 논문을 정리한 것이다.
山崎覺士, 2011, 「海商とその妻-十一世紀中国の沿海地域と東アジア海域交易-」, 『歷史学部論集』 創刊号, 日本 佛教大學.

59 山崎覺士, 위의 글, 95, 9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생존해 있었다는 사실이 시씨에게 알려졌을 수도 있다.

시씨에게 주량사가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시씨 묘지명에도 혼자 유복자를 훌륭하게 키워낸 것으로 묘사한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앞에서 송상과 함께 고려에 갔던 두도제 등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자, 송의 명주는 두 차례에 걸쳐 고려에 첩을 보내 두 사람을 찾아 보낼 것을 요구하였던 것과 같이, 주량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귀국하지 않을 경우 송 명주에서 일본에 갈 때 명주 시박사가 발행한 공빙에 근거하여 주량사가 되돌아오지 않은 것을 조사하고, 살아 있다면 당연히 명주 지방관은 첩을 보내 일본 대재부(大宰府)에 즉시 귀국시켜 줄 것을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주량사는 이미 1126년 일본에 귀화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1128년에 일본에서 명주로 오는 송상의 배편에 주량사가 죽었다고 보고하였고, 그 사실은 시씨에게도 전해졌을 것이다.

이처럼 일본에서 귀화해 생활하던 주량사가 송에 자신이 죽었다고 전한 것은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즉 송상이 해외에 나갔다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면, 공빙의 대표자와 보증인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하며, 더 나아가 주량사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가족들도 연좌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아들이 묘지명에서 기술된 대로 과거에 급제해 벼슬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고든 병이든 해외에 나가서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명주 시박사에는 죽었다고 보고하였던 것이다. 당시에는 송대 해상들이 해외에 왕래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해상에서도 위험한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인원의 '사고사'와 '병사'와 같은 유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서 명주 시박사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외로 나가 오랜 기간 외국에서 머물며 사실상 귀화인으로 무역 활동에 종사하던 송상을 의미하는 '주번'은 죽었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송의 시박사를 속여서 불법적으로 체류하거나 아니면 송의 시박사가 그들의 생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주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어느 경우이든 해외로 나간 송상이 귀국할 때는 예전에 나갈 때 작성했던 공빙 가운데 무역품뿐 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니라 인원도 정확히 확인했기 때문이다. 어떤 점에서 시박세를 매기기 위한 물품의 내역보다 더 중대한 것이 해외로 갔던 인원이 모두 돌아왔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공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애당초 송 조정은 해상들이 위험한 바다를 다니며 해외 여러 나라와 교역하고 이익을 남겨 송 재정에 적지 않게 기여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국의 해상이 마음대로 바다 건너 외국을 드나들며 무역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았다. 송에서는 자국 상박이 출항할 때에는 공빙-관권(官券)-의 휴대가 절대조건이었고, 출박(出舶)의 화물명과 목적지를 적었으며, 무기 등 '위금물'을 휴대하지 않았다는 것 등의 조건이 있었다. 무단으로 배가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고 반드시 인원이 귀환하도록 하기 위해 송은 시박사 혹은 소재 주에서 공빙의 발급과정부터 엄격하게 관리했다. 송도강 황흔이 고려에 귀화 후 송에 있는 노모를 모시지 못했던 것, 고려에 왔다가 귀국하지 않은 송나라 사람 두도제 등에 대해 송이 송환 요구를 했던 것, 일본을 다니던 송상 주량사가 송에는 죽었다고 알릴 수밖에 없었던 정황 등은 오히려 송상이 외국에 가서 귀화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그런 점에서 송상이 해외에 나가 특정한 나라에서 장기 거주 또는 평생 동안 귀국하지 않고 무역하는 이른바 '주번' 행위는 그 자체로 귀국 의무를 위반한 불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송 정부는 당연히 그러한 일을 한 자들을 파악하고 그들을 대신해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고려에 가려는 해상들에 대해서는 인명, 인원수, 선명, 화물의 품종 및 수량, 행선지 등을 정확히 확인받는 것 이외에도, 해상의 재본을 높이거나 재력 있는 보증인 3명을 붙이는 것과 같이 다른 지역을 다니는 해상보다 가장 엄한 조건이 부과되었다.[60] 송 정부가 고려에 가는 자에게 요구한 재본은 3,000관이었는데, 송 중기 쌀 1석은 600·700문 정도였으므로, 3,000관은 쌀

60 近藤一成, 2001, 앞의 글, 8쪽; 丸龜金作, 1961, 「高麗と宋との通交問題(二)」, 『朝鮮學報』 18, 6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000~5,000석이 된다.[61] 송이 고려에 가는 해상에게 보증인과 보증금을 설정하도록 한 것은 해상이 송이 정한 규정대로 해외무역을 하고 반드시 귀환하도록 하려는 뜻이다. 규정을 잘 지키고 귀환한 송상은 아무 일이 없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재본이 몰수되고 보증인이 책임지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송은 해상들이 결코 자유롭게 외국을 다니며 무역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았으며, 각종 규제를 통해 그들의 행동을 제약하였다. 그러므로 상단의 대표로서 공빙을 발급받은 송의 강수가 외국에 귀화하기는 어려웠고, 전쟁에 이용될 수 있는 상선의 소유자가 송의 적대국의 하나로 간주되던 고려에 귀화하고, 배의 국적을 바꾸어 다시 송으로 되돌아오는 일은 절대 금지 사항이었다.

요컨대 송상이 외국에 귀화하는 것은 여러 지역과 나라에서 실제 일어난 사실이었다. 고려에도 민인이 수백 명이라는 기록이나 송도강 황흔의 사례를 보면, 많은 송나라 사람이나 송도강도 귀화했음이 확인된다. 바다를 항해하며 외국과 무역하는 것은 위험해서, 송상의 배가 귀국한 후에도 공백 없이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무역을 중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송상들의 일부가 귀화를 선택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송의 해상이 귀국하지 않는 것은 규정을 어기는 일이어서 가족이나 보증인이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이에 외국에 귀화한 자가 귀국하는 공빙의 대표자 편에 자신이 죽었다고 송의 시박사에게 보고를 부탁하여 가족 등이 처벌받는 것을 면하려고 했을 것인데, '허위' 보고하는 편법을 사용해도 송의 시박사가 현실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는 송상을 비롯한 많은 송나라 사람이 해외에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송 정부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해상들의 해외 무역상 편의를 위해 '묵인해주는'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61 陳高華 · 吳泰, 1981, 앞의 글, 2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V. 맺음말

김영제 교수는 저서에서 송대의 자료에 나오는 '고려상인'이라는 기록을 찾아내고, 송상의 활동이 활발하던 시기에도 고려 해상이 중국을 다니며 활약했다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저자는 고려 해상들의 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송나라 선주 도강의 귀화를 상정하였다. 당시 고려의 조선술과 항해술이 낮아서 황해를 건너 고려상인이 송에 가서 무역을 할 수 없다는 당시 무역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주인 송도강이 고려에 귀화한 뒤 국적을 바꾸어 고려상인으로서 송에 가서 무역하였다고 한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저자의 '신설'이 송대 해상관리제도와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송대에는 해외로 나가 무역하는 해상은 반드시 돌아오도록 하고, 지키지 않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외국으로 나간 자국의 상인이 하루아침에 배와 함께 외국에 귀화하는 경우, 송은 당장 대형선박, 그 배에 실린 화물, 전문적인 상인 등을 잃게 되었다. 더욱이 장차 그들이 자국의 상인과 무역상의 경쟁자가 되고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예견되는 이상 그러한 일을 허용할 리가 없다. 그런 점에서 외국 무역에 종사하는 송의 해상은 저자의 주장처럼 '초국가적'이어서는 절대 안 되고, 오직 송 조정이 정한 해상 무역 규정에 충실히 따라야만 했으며, 그러한 자가 지속적으로 무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했던 것이다.

송대에 해외에 나가는 송상에게 발행된 공빙에는 인명, 인원수, 선명, 화물의 품종 및 수량 등이 기록되었으며, 상단의 대표자인 강수에게 발급되었다. 공빙에 인명과 인원수를 적은 것은 송상들이 외국에서 무역하고 돌아왔을 때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그것은 해상들이 반드시 귀국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시박사의 행정에서 해외를 출입하는 인원의 관리가 송 왕조의 재정적인 기여를 하는 시박세를 거두는 것 이상으로 중요했다.

상단의 대표자로 공빙을 발급받은 강수-도강-가 다른 나라에 귀화하는 일은 극히 제한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 상단의 우두머리로서 강의 대표자로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공빙을 받은 강수는 안전하게 인원을 인솔하여 무역을 마치고 귀환하여 공빙을 다시 시박사에 내고 확인받을 책임과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송도강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외국에 귀화하는 것은 자신이 고국에 쌓아놓은 경제적 기반을 포기해야 하고, 출항할 때 낸 재본을 잃는 것이며, 보증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것인데, 송도강이 큰 손해를 감수하고 귀화를 선택할 이유는 없다. 더욱이 선주로서 강수가 된 자가 송의 적대국인 거란(요)에 사대하고 있는 고려에 무역하러 갔다가 귀화하고 다시 본국을 다니며 무역하는 것은 송대 해상관리 규정과 운영 체제하에서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송상의 고려 무역이 당장 중단될 중대한 사안이었는데, 몇 명의 선주 도강이 그러한 일을 벌였다고는 상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송에서 해외에 나가는 해상들을 엄격히 관리하고, 그들에게 반드시 귀환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했음에도 외국에 귀화하거나 거류하는 송상이 많았다. 고려에 귀화한 송도강 황흔, 고려 국왕이 황제에게 요청에게 고려에 거주 허락을 받은 두도제, 송에서 일본에 갔다가 귀화해 활동하면서 본국에는 죽었다고 보고한 주량사는 그에 해당하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황흔은 고려에 귀화하고도 송에 다니지 못했고, 두도제는 고려 거주를 허락하는 황제의 특별한 성지를 받았으며, 주량사는 멀쩡히 살아 있는데도 송에는 죽었다고 알린 것 등을 보면 해상을 포함하여 송나라 사람들의 외국 귀화나 거류는 그 자체로 불법이었다.

다만, 송대의 사서에서도 주번이라고 해서 송의 해상이 특정 지역에 가서 오랫동안 머무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장거리 해상 왕래로 인한 조난의 위험을 줄이고 현지 무역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오랫동안 귀국하지 않는 해상들을 처벌하지 않았던 것 같다. 주번은 약간의 규정 위반을 무릅쓰고 무역상의 편의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체 해상 무역 참여자의 일부만 해당되었으며, 송대 해상 관리 규제에 따른 처벌을 면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편법이 동원된 것이었다.

송대의 많은 송상이 고려와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을 왕래하며 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역하였고, 일부 송상은 귀화하며 현지 무역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역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귀화하고 나서 본국에는 유고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는 편법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며, 그 배후에는 재정에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는 해상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눈감아주었던 송 정부가 있었던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사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建炎以來繫年要錄』, 『分門古今類史』, 『萍洲可談』.

단행본

金庠基, 1948, 『東方文化交流史論攷』, 乙酉文化社,

김영제, 2019, 『고려상인과 동아시아 무역사』, 푸른역사.

李鎭漢, 2011, 『高麗時代 宋商往來 硏究』, 경인문화사.

藤田豊八 著, 魏重慶 譯, 1936, 『宋代市舶司與市舶條例』, 北京: 商務印書館.

_____, 2015, 『宋代市舶司與市舶條例』, 太原: 山西人民出版社 (再刊).

桑原隲藏 著, 楊鍊 譯, 1935, 『唐宋貿易港硏究』, 北京: 商務印書館.

_____, 2015, 『唐宋貿易港硏究』, 太原: 山西人民出版社(再刊).

吳曉萍, 2006, 『宋代外交制度硏究』, 合肥: 安徽人民出版社,

鄭有國, 2004, 『中國市舶制度硏究』, 福州: 福建敎育出版社,

曹家齊, 2002, 『宋代交通管理制度硏究』, 鄭州: 河南大學出版社.

周運中, 2015, 『中國南洋古代交通史』, 廈門: 廈門大學出版社.

黃純艷, 2003, 『宋代海外貿易』,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森克己, 1975a, 『續日宋貿易の硏究』, 東京: 國書刊行會.

_____, 1975b, 『日宋貿易の硏究』, 東京: 國書刊行會.

논문과 서평

高銀美, 2015, 「宋代 明州市舶司의 변천과 무역조건」, 『大東文化硏究』 89.

_____, 2018, 「고려·일본 송간의 무역사이클의 변화」, 『大東文化硏究』 10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金庠基, 1937,「麗宋貿易小考」,『震檀學報』7
김성규, 2019,「서평-『고려상인과 동아시아 무역사』(서울, 푸른역사, 2019)」,『歷史學報』244.
김한신, 2019,「서평: 중세 동아시아 해상교역의 재구성-김영제 지음,『고려상인과 동아시아 무역사』, 푸른역사, 2019-」,『東洋史學研究』149.
朴玉杰, 1997,「高麗來航 宋商人과 麗宋의 貿易政策」,『大東文化研究』32.
白承鎬, 2006,「여송무역의 양상」,『高慮와 宋의 貿易 研究』, 전남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_____, 2012,「『고려사』 기록으로 본 호남문화의 정체성」,『海洋文化研究』7·8합.
徐炳國, 1973,「高麗·宋·遼의 三角貿易考」,『白山學報』15.
이강한, 2020,「서평: 김영제 지음,『고려상인과 동아시아 무역사』, 푸른역사, 2019년, 314쪽」,『경제사학』72.
李東潤, 1982,「宋代海上貿易의 諸問題」,『東洋史學研究』17,
이진한, 2021,「'고려강수(高麗綱首)' 탁영(卓榮)·서덕영(徐德榮) 관련 사료의 재검토」,『한국문화』96.

蘆敏, 2008,「宋麗海上貿易研究」, 廈門大學 博士學位論文.
陳高華·吳泰, 1981,「宋元時期 海外貿易的活動狀況」,『宋元時期的海外貿易』,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葉恩典, 2007,「古代泉州與新羅·高麗的海上交通及其文物史迹探源」, 金健人 主編,『中韓古代海上交流』,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龜田明德, 1992,「唐代陶磁貿易の展開と商人」,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編,『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近藤一成, 2001,「文人官僚蘇軾의 對高麗政策」,『史滴』23.
渡邊誠, 2010,「鴻臚館の盛衰」, 荒野泰典·石井貞敏·村井章介 編,『日本の對外關係 3, 通交·通商圈の擴大』, 東京: 吉川弘文館.
山崎覺士, 2008,「貿易と都市-宋代市舶司と明州-」,『東方学』116,
_____, 2010,「宋代両浙地域における市舶司行政」,『東洋史研究』69-1.
_____, 2011,「海商とその妻-十一世紀中国の沿海地域と東アジア海域交易-」,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歷史学部論集』創刊号, 日本 佛教大學.
森克己, 1954,「日宋貿易における中國商人の性格」,『歷史地理』84-4.
_____, 1956,「日本·高麗來航の宋商人」「朝鮮學報」9.
石井正敏·村井章介, 2010,「通交·通商圈の擴大」,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編,『日本の對外關係 3-通交·通商圈の擴大-』, 東京: 吉川弘文館.
原美和子, 2006,「宋代海商お活動に關する一試論-日本·高麗および日本·遼(契丹) 通交をめぐって-」,『考古學と中世史研究3-中世の對外交流 場·ひと·技術-』, 東京: 高志書院.
丸龜金作, 1961,「高麗と宋との通交問題(二)」,『朝鮮學報』1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송대 해상(海商) 관리와 송상(宋商)의 '고려 귀화설'

이진한

최근에 발간된 김영제의 저서에서 송대의 자료에 나오는 '고려상인'이라는 기록을 찾아내고, 송상의 활동이 활발하던 시기에도 고려해상(高麗海商)이 중국을 다니며 활약했다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저자는 고려해상들의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송나라 선주 도강의 귀화를 상정하였다. 당시 고려의 조선술과 항해술이 낮아서 황해를 건너 고려상인이 송에 가서 무역을 할 수 없다는 당시 무역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주인 송도강(都綱; 綱首, 상단의 우두머리)이 고려에 귀화한 뒤 국적을 바꾸어 고려상인으로서 송에 가서 무역하였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저자의 주장이 송대 해상관리 상황과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송대에는 해외로 나가 무역하는 해상은 반드시 돌아오도록 하고, 지키지 않을 때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외국 무역에 종사하는 송상은 국가가 정한 해상 무역 규정에 충실히 따라야만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외국 귀화는 불가능하였다.

더욱이 선주(船主)로서 강수가 된 자가 송의 적대국인 거란(요)에 사대하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있는 고려에 무역하러 갔다가 귀화하고 다시 본국을 다니며 무역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일은 송대 해상관리 규정과 운영 체제하에서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송상의 고려 무역은 당장 중단될 중대한 사안이었다.

송대에 많은 송상이 고려와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을 왕래하며 무역을 하였고, 일부의 송상이 귀화하여 현지 무역에 종사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역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귀화하고 나서 본국에는 유고(有故)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는 편법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다. 그 배후에는 재정에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는 해상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눈감아주었던 송 정부가 있었던 것이다.

주제어: 고려, 송, 송상, 해상(海商) 관리, 도강(都綱)–綱首–, 고려 귀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Maritime Management in the Song Dynasty Period and the 'Theory of Song Merchants Goryeo Naturalization'

Lee Jinhan

In a recent book, a record about 'Goryeo merchants' was found in the material of the Song Dynasty period, and a new view indicating that Goryeo sea merchants (高麗海商) were active while visiting China even when Song merchants were active was presented. In addition, the author assumed the naturalization of the Song dynasty's shipowners termed Dogāng (都綱; 綱首, head of a merchant group) in order to prepare a rationale that enabled the activities of the Goryeo sea merchant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trade situation at the time that Goryeo merchants could not cross the Yellow Sea and trade in Song because the levels of shipbuilding and navigation skills of Goryeo were low at that time, the author argued that Song Dōu gangs, ship owners, became naturalized in Goryeo to change their nationality and go to Song to trade as Goryeo merchant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is paper examined whether the author's argument as such coincides with the maritime management situation in the Song dynasty period. In the Song dynasty period, regulations were stipulated that all sea merchants who would go abroad to carry on trade should come back without fail and those who would not observe the regulations should be punished. Since Song merchants, who were engaged in foreign trade, had to faithfully follow the maritime trade regulations set by the state, their foreign naturalization was impossible in principle. Moreover, a person who became Dogāng as a ship owner could not go to Goryeo, which was paying tributes to the Khitan (Liao Dynasty), a country hostile to the Song Dynasty, to carry on trade, become naturalized, and return home. If such a thing happened even once under the Song Dynasty maritime management regulations and operating system, the Song merchant's trade would be immediately halted.

It is a well-known fact that during the Song dynasty period, many Song merchants traded in Southeast Asia including Goryeo and Japan, and some Song merchants became naturalized and engaged in local trade. However, in reality, it was done through the expedient method of falsely reporting that they had deceased to their home country after naturalization in order to increase trade efficiency. Behind it was the Song government, which did not actively investigate it and turned a blind eye for the convenience of the sea merchants, who were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its finance.

Keywords: Goryeo Dynasty, Song Dynasty, Song Merchant, Dogāng(都綱; 綱首, head of a merchant group), Maritime Management, Goryeo Naturaliz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2..78.008

요금대(遼金代) 등자에 대한 단편적 고찰

김영길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박사수료

I. 머리말
II. 요금대 등자 출토 현황
III. 요금대 등자의 특징과 비교분석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한반도 중남부에서는 고분에 마구를 부장하는 풍습이 삼국시대를 끝으로 사라졌으나, 통일신라와 더불어 남북국시대를 이루었던 발해에서는 소량이지만 여전히 마구 부장 풍습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마구류가 출토된 발해의 고분유적은 함경북도 부거리 연차골고분군, 흑룡강성 영안시(寧安市) 홍준어장 고분군(虹鱒魚場古墳群), 길림성 안도현(安圖縣) 동청고분군(東淸古墳群), 길림성 영길현(永吉縣) 사리파 고분군(査里巴古墳群)과 대해맹유적(大海猛遺址), 요령성 심양시(瀋陽市) 석대자산성 주변고분군(石臺子山城周邊古墳群)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현상은 서아무르 지역의 트로이츠코예 고분군(Троицкий Могильник), 리포비 부고르 고분군(Липовый-Бугор Могильник) 등 발해 문화권[1]이라 할 수 있는 트로이츠코예 문화(Троицкая культура) 유적에서도 나타나 주목된 바 있다.[2]

한편, 발해 멸망 이후 그 고지 대부분을 차지한 요에서도 마구 부장 풍습이 여전히 이루어졌고, 이로써 절대적인 수량은 차이가 있지만 7세기 후반부터 최소 12세기대까지 동북지역에서는 마구 부장 풍습이 존속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

* 투고: 2022년 10월 15일, 심사 완료: 2022년 11월 7일, 게재 확정: 2022년 11월 14일

** 이 글은 고구려발해학회 제74차 국내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1 아직까지는 발해 강역으로의 포함 여부가 확실치 않으나, 선행 연구들에서 송화강 유역의 속말말갈계 발해인의 이주설을 주장하며 서아무르 지역의 고고학 문화와 발해 문화와의 관련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적절한 용어로 대체되기 전까지 이 글에서는 임시적으로 '문화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 김영길, 2021, 「뜨로이쯔꼬예 문화의 마구에 대한 일고찰-재갈과 등자를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70, 12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상기한 시기와 공간적 범위에서 공통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마구류는 등자다.

따라서 등자를 중심으로 한 통·공시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그동안 마구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삼국시대 이후 동북지역 마구의 양상을 단편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요금대 유적에서 출토된 등자 현황을 파악하고 재질, 제작기법, 형식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요금대 등자의 특징을 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통·공시적 관점에서 파악해보기 위해 요금대 이전의 발해, 통일신라, 당 그리고 요금대에 존속했던 고려의 등자를 함께 비교해보았다.

Ⅱ. 요금대 등자 출토 현황

요금대 등자는 상대적으로 요대 거란 고분 출토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요의 경우 등자 외의 마구류가 다양하게 발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금의 경우 대부분 성을 비롯한 관방유적에서 발견되었으며, 고분 출토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등자만 간헐적으로 수습되거나 다른 마구류가 함께 발견된 경우에도 원환비(圓環轡)만 공반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장에서는 등자 도면이 제시된 유적에 한해 그 현황을 간단히 정리해보았다.

1. 요

1) 부신 해력판요묘(阜新海力板遼墓)[3]

요령성(遼寧省) 부신현(阜新縣) 구묘향(舊廟鄕) 해력판촌(海力板村)에 위치하며, 부부합장이 이루어진 전실묘다. 고분의 조성 연대는 요대 조중기(早中期)

3 李宇峰, 1991,「阜新海力板遼墓」,『遼海文物学刊』1991-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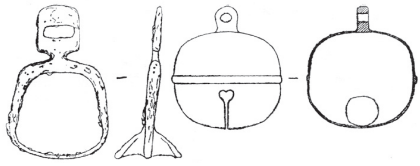


그림 1 부신 해력판요묘 출토 등자와 마령(李宇峰, 1991)

로 보고되었다. 묘실의 평면형태는 한 변 길이가 약 3.4m인 방형이며, 벽체는 천정부까지 돔 형태로 올라가 목조 가옥 구조를 연상시킨다. 연도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묘실의 남벽에 낸 묘문으로부터 묘도가 경사진 비탈길로 형성되어 있다. 묘실의 바닥 역시 전을 깔았으며, 장구로는 목관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분은 이미 도굴되었으나 조사 당시 약 191점의 부장품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중 마구류는 재갈, 등자, 마령, 삼계 고정용 금구, 안장 부품 등 56건이 출토되었다고 보고되었으나, 도면이 제시된 것은 동제 마령 1점과 병부의 형태가 방형인 단병형 철제 등자 1점이다.

2) 객좌 북령요묘(喀左北岭遼墓)[4]

요령성 객좌현(喀左縣) 백탑자향(白塔子鄕) 북령촌(北嶺村)에 위치한다. 석실묘와 전실묘 등 6기의 고분이 발견되었으며, 조성 연대는 요대 중말기로 보고되었다. 마구류는 1호분과 4호분에서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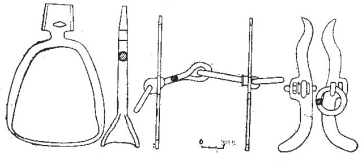


그림 2 객좌 북령요묘 1호분 출토 등자와 재갈(武家昌, 1986)

먼저 1호분은 비교적 둥근 형태의 석재로 축조한 석실분으로, 내부에 목조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묘실의 평면 형태는 원형에 가까운 팔각형이다. 묘실 바닥에는 전을 깔았으며, 목관 사용 흔적이 발견되었다. 묘문의 양

4 武家昌, 1986, 「喀左北岭遼墓」, 『遼海文物学刊』 1986-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쪽에는 나무 기둥을 1개씩 세운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묘문 바깥에는 석재로 짧은 길이의 묘도를 설치했다. 인골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확신할 수는 없으나 단인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부장품으로는 토기가 다수를 차지하며, 이외에 수저, 초두, 가위, 동경, 은제 마스크, 팔찌 등 다양하게 발견되었다. 마구류로는 병부의 형태가 방형인 단병형 철제 등자 1점 외에 표비(鑣轡), 마령, 삼계 고정용 금구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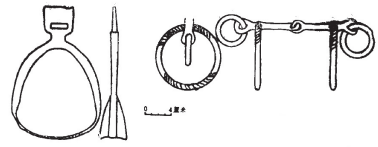


그림 3 객좌 북령요묘 4호분 출토 등자와 재갈(武家昌, 1986)

4호분 또한 원형의 석실분이며, 남벽에 연도와 묘도가 길게 설치되어 있다. 단인장이며, 장구로는 목관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호분의 묘도에서는 말의 머리뼈와 다리뼈가 발견되어 거란의 말 매장 풍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부장품으로는 주전자, 완, 사발 등의 토기류가 다수이며, 마구류로는 병부의 형태가 방형인 단병형 철제 등자 1점 외에 원환비 1점도 발견되었다.

3) 과좌후기 호사뇨거란묘(科左後旗呼斯淖契丹墓)[5]

내몽골 과이심좌익후기(科爾沁左翼後旗) 호사뇨공사(呼斯淖公社)에 위치하며, 1기의 무장구 토광수혈묘가 발견되었다. 고분의 조성 연대는 요 건국 전, 즉 당 말기로 보고되었다. 장경호, 병 등의 토기류와 철모, 철촉, 철부 등의 무기류, 각종 동제 대장식구 등의 장신구류가 발견되었다. 마구류로는 병부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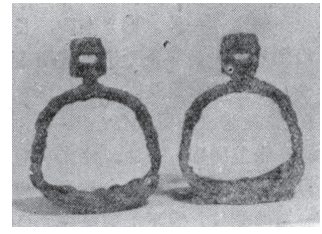


그림 4 과좌후기 호사뇨거란묘 출토 등자(张柏忠, 1983)

5 张柏忠, 1983,「科左后旗呼斯淖契丹墓」,『文物』1983-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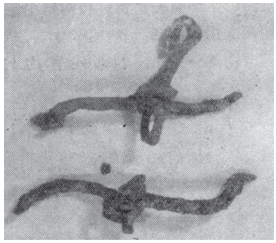


그림 5 과좌후기 호사뇨거란묘 출토 재갈(张柏忠,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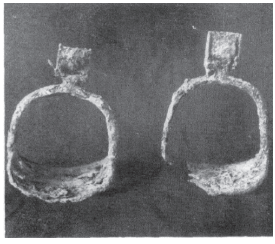


그림 6 적봉 대영자요묘 출토 등자(前热河省博物馆筹备组, 1956)

가 방형인 단병형 철제 등자 한 쌍과 표비가 발견되었다. 이 외의 특이점으로는 양 1개체의 뼈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4) 적봉 대영자요묘(赤峰大營子遼墓)[6]

내몽골 적봉시(赤峰市) 대영자촌(大營子村)에 위치한다. 총 3기의 고분 중 마구류가 발견된 고분은 전실묘인 1호분이며, 묘지명 분석을 통해 고분의 주인이 959년에 피장된 요의 부마증위국왕(駙馬贈衛國王)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실묘이며, 각 실은 모두 평면 형태가 방형이고, 벽체는 돔 형태로 축조했다. 시신을 안치한 중실 내에는 목조의 벽체가 한 번 더 둘러져 있다. 묘문 밖에는 묘도가 경사지게 설치되었고, 묘도의 바닥은 흙과 석회를 섞어 다졌다. 도굴로 인해 묘실 내부가 많이 흐트러졌으나 부부장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동시기에 합장된 것이 아니라 선후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묘실 바닥에는 전돌을 쌓아 조성한 시상이 확인되었으며, 그 주위를 목판으로 둘러싼 흔적이 관찰되었다.

부장품의 종류는 토기류, 각종 장신구류, 무기류 등 매우 다양하며 전실 118점, 남 측실 1,556점, 북 측실 76점, 중실 131점, 후실 281점이 확인되었다. 마구류는 대부분 전실과 남 측실에서 발견되었으며, 병부 형태가 방형인 철제 은상감 단병형 등자와 철제 표비가 다수 출토되었다. 이 외에도 안장

6 前热河省博物馆筹备组, 1956, 「赤峰瓢大营子遗墓盆掘报告」, 『考古學報』 1953-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장식판, 삼계 고정용 금구 및 장식판 등 다양한 종류의 마구류가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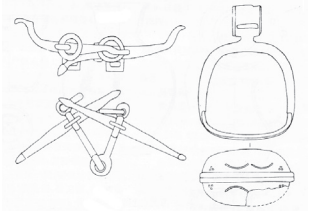


그림 7 부신 남조력영자 1호분 출토 재갈과 등자(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92)

5) 부신 남조력영자 1호 요묘(阜新南皂力營子一號遼墓)[7]

요령성 부신현 남조력영자촌(南皂力營村)에 위치한다. 전실묘와 석실묘로 구성된 10기의 고분이 발견되었으며, 조성 연대는 요대 조기로 보고되었다. 7기가 파손되어 노출되어 있으며, 유구 현황에 대해서는 마구류가 출토된 전실묘인 1호분에 대해서만 보고되었다. 고분 구조는 이실이 한쪽 방향에 1기만 설치된 독특한 구조로, 평면 형태는 묘실은 원형이나 이실은 정방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 묘실과 이실에 설치된 연도는 한 곳으로 합쳐지고, 묘도는 묘문 밖에 긴 비탈길로 조성되었다. 묘실의 바닥에는 전돌을 깔았으며, 벽체는 안쪽으로 기울어지게 쌓아 돔 형태의 천정으로 마무리했다. 피장자는 노인 여성으로 추정되며 단인장 한 것으로 보인다. 다량의 관정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목질 장구를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장품으로는 각종 장경호, 과형토기, 심발 등의 토기류와 철제 등잔, 초두, 자물쇠, 가위, 칼, 각종 마구류 등이 발견되었다. 그중 마구류로는 병부 형태가 방형인 단병형 철제 등자 한 쌍과 표비 외에 동제 마령, 삼계 장식, 고정용 금구 등이 있다.

6) 극보와보묘군(克寶窩堡墓葬)[8]

요령성 사금대향(沙金臺鄕)에 위치하며, 3기의 고분 중 마구류가 발견된 토광목

7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92,「阜新南皂力营子一号遼墓」,『遼海文物学刊』1992-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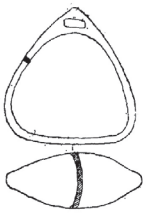


그림 8 극보와보묘군 출토 등자(张少青, 1988)

관묘 1기만 조사 정리되었다. 단인장이고 장구의 흔적은 거의 사라졌으나 다수의 철정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목질 장구를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성 연대는 요대 말기일 것으로 보고되었다. 부장품으로는 동체에 문양이 시문된 장경호, 사발 등의 토기류와 철촉, 금동제 팔찌 등이 있으며, 마구류로는 무병식 철제 등자 1점이 발견되었다.

7) 과우중기 파찰납알요묘(科右中旗巴扎拉嘎遼墓)[9]

내몽골 과우중기(科右中旗) 백음호석진(白音胡碩鎮)으로부터 서북쪽으로 약 43km 떨어진 곳의 곽림하(霍林河) 동안에 위치하고 있다. 전실묘 1기와 석실묘 1기가 발견되었으며, 마구류가 출토된 것은 전실묘이다. 조성 연대는 적봉 대영자요묘와 비슷할 것으로 보고되어, 요대 조중기로 판단된다. 묘실의 평면 형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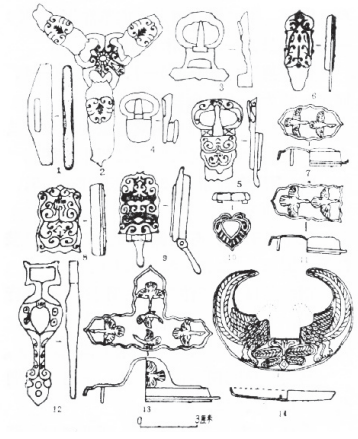


그림 9 과우중기 파찰납알요묘 출토 장식용 마구류(苏日泰,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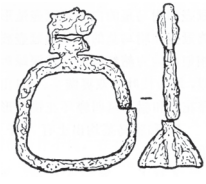


그림 10 과우중기 파찰납알요묘 출토 등자(苏日泰, 1982)

8 张少青, 1988,「辽宁康平发现的契丹, 辽墓概述」,『北方文物』1988-4.

9 苏日泰, 1982,「科右中旗巴扎拉嘎辽墓」,『内蒙古文物考古』1982-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다리꼴에 가까운 장방형이며, 묘문은 동벽에 설치되었다. 묘도와 연도 등은 보이지 않으며, 묘실 내에는 시상이 설치되어 있다.

부장품은 호, 장경병, 계관호, 주자 등의 토기류와 칼, 철촉 등의 무기류 등이 발견되었는데, 특히 삼계 장식구, 마령, 고정용 금구, 철제 등자 등의 마구류가 다수 출토되었다. 이 중 철제 등자는 방형의 병부를 가진 단병형 등자로 동일한 형태의 것이 5점 확인되었다. 당시 조사자는 이 고분에서 출토된 마구들이 적봉 대영자 요묘에서 발견된 마구들과 유사함을 지적했다.

8) 내몽골 오한기 사자구요묘(内蒙古敖漢旗沙子沟遼墓)[10]

내몽골 오한기(敖漢旗) 사자구촌(沙子沟村)에 위치하며, 1기의 전실묘가 발견되었다. 평면 형태 원형의 주실과 방형의 전실 그리고 방형 및 원형의 양 측실로 이루어진 다실묘에 해당된다. 조성 연대는 요대 조기로 보고되었다. 벽체는 곧게 쌓아 올렸으나 전실을 제외하고 모두 둥근 돔 형태로 천정을 마무리했다. 묘도는 경사진 비탈길로 형성하고, 묘문은 목조가옥을 모방하여 장식했다. 묘실 내에서는 목관의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부부 합장묘로 추정된다.

부장품은 토기류와 철기류가 출토되었으며, 동쪽 측실에는 주로 토기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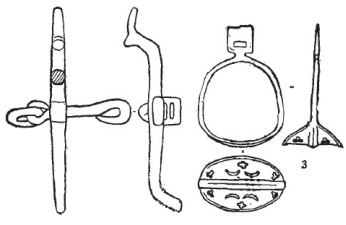


그림 11 내몽골 오한기 사자구요묘 출토 재갈과 등자(邵国田,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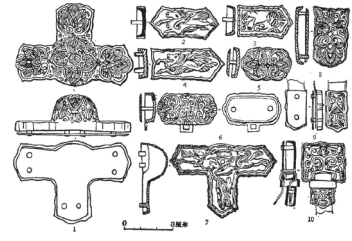


그림 12 내몽골 오한기 사자구요묘 출토 장식용 마구류(邵国田, 1987)

10 邵国田, 1987,「内蒙古敖汉旗沙子沟,大横沟辽墓」,『考古』1987-1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쪽 측실에는 마구류를 안치하고 각종 무기류와 장신구류는 주실과 전실에 안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구류로는 병부의 형태가 방형인 철제 등자 6점과 더불어 표비 3점, 다수의 금 또는 금동제 및 은제의 삼계 장식구가 발견되었다.

9) 강평현 후류동둔 2호 요묘(康平縣後劉東屯二號遼墓)[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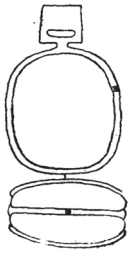


그림 13 강평현 후류동둔 2호분 출토 등자(张少青, 1988)

요령성 강평현(康平縣) 소성자향(小城子鄉)의 후류동둔(後劉東屯)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한쪽 벽의 길이 약 3.1m인 평면형태 방형의 전실묘다. 조성 연대는 요대 조기로 보고되었다. 묘실 바닥에도 전돌을 깔았으나 남벽에 설치된 장방형의 연도에는 깔지 않았다. 목관을 사용한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2인 합장묘로 판단된다. 이 고분에서는 묘실 내 동남쪽 모서리 부분에서 말 뼈가 발견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부장품으로는 주자, 잔, 사발 등의 토기류와 철촉, 철모 등의 무기류, 이 외에 철제 등잔, 각종 대장식구 등이 출토되었으며, 마구류로는 방형의 병부를 가진 단병형 등자 1점이 발견되었다.

10) 건평 장가영자요묘(建平張家营子遼墓)[12]

요령성 건평현(建平縣) 장가영자진(張家营子鎮)에 위치하며, 석회질 판석을 쌓아 축조한 지하식 석실묘다. 조성연대는 요대 초기일 것으로 보고되었다. 묘실은 한 변의 길이가 5m인 방형이며, 묘실의 남벽에 연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 외부에 경사진 비탈길의 묘도가 있다. 연도의 벽면에는 회칠을 하여 벽화를 그린 흔적이 남아 있는데, 훼손이 심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묘실 내부는 벽면

11 张少青, 1988b,「辽宁康平县后刘东屯二号辽墓」,『考古』1988-9.

12 冯永谦, 1960,「辽宁省建平, 新民的三座辽墓」,『考古』1960-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따라 목판을 한 번 더 둘렀다. 묘실의 중앙에는 나무 기둥 1개를 지지대로 세워놓은 것으로 추정되며, 바닥에는 전돌을 깔았다. 묘실 내에서는 북벽 가까이에서 시상으로 추정되는 목판의 흔적과 그 위에서 인골 일부가 발견되었다. 이 고분에서는 묘실 내에서 온전한 형태의 양 두개골이 발견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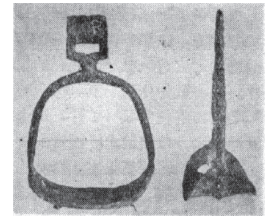


그림 14 건평 장가영자 요묘 출토 등자(冯永谦, 1960)

출토된 부장품은 약 341건으로 각종 토기류와 금제 팔찌 및 이식 등의 장신구류와 더불어 마구류로는 철제 등자, 금동제 삼계 장신구, 금은제 당로, 동령, 철제 재갈멈추개 등이 있다. 특히 등자는 방형의 병부를 가진 철제 등자로 3쌍이 출토되었다.

11) 북경 순의안신장요묘(北京順義安辛庄遼墓)[13]

북경 순의현(順義縣) 목림향(木林鄉) 안신장(安辛庄)에 위치하며, 평면 형태 원형의 전실묘다. 조성 연대는 요대 중기로 보고되었다. 묘실의 남측에 장방형의 연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천정이 무너져내려 동벽만 잔존한 상태이다. 연도의 끝 역시 전을 쌓아 기둥으로 삼았고, 그 위에 주칠을 한 것으로 추정되나 잔존 상태가 좋지 않다. 묘실 내 북쪽 부근에 흙으로 쌓고 그 가장자리를 전돌로 두른 관대가 설치되어 있다. 관대 위에서는 철정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보아 목관을 설치했을 것으로 여겨지며, 인골도 일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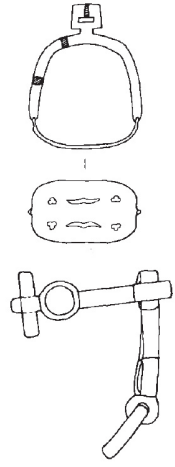


그림 15 북경 순의안신장요묘 출토 등자와 재갈(王武钰, 1992)

13 王武钰, 1992,「北京顺义安辛庄辽墓发掘简报」,『文物』1992-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부장품으로는 병, 호 등의 토기류와 철부, 철삽 등의 공구류, 칼, 명적, 철촉 등의 무기류, 금동제 대식, 대과, 사미 등의 허리띠 부품과 동경, 금동제 마령 및 삼계 장신구, 철제 등자 2쌍, 원환비 2점 등의 마구류가 있다. 이 중 철제 등자는 방형의 병부를 가진 단병형 등자이다.

12) 쌍료시 고력과요묘군(雙遼市高力戈遼墓群)[14]



그림 16 쌍료시 고력과요묘 출토 등자(柳岚, 1986)

길림성 쌍료시 왕분공사(王奔公社) 광명대대(光明大隊) 고력과둔에서 남서쪽으로 약 0.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전체 고분군 중 16기가 이미 파괴된 상태였으며, 남은 15기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졌다.

고분군에서는 전실묘와 토광묘가 확인되었으며, 마구가 발견된 것은 토광묘인 13호분이다. 조성 연대는 요대 말기로 보고되었다. 장구에 대한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남성의 인골 1구가 온전히 남아 있어 단인장으로 확인되었다. 마구류로는 방형의 병부를 가진 철제 등자 1점이 발견되었다.

13) 태래요묘(泰来遼墓)[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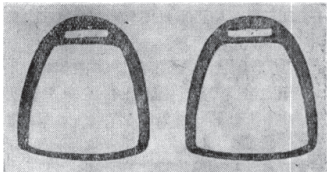


그림 17 태래요묘 출토 등자(黑龙江省博物館, 1960)

흑룡강성 태래현(泰来縣) 탑자성진(塔子城鎭) 서남쪽의 평등촌(平等村)에 위치한 전실묘다. 훼손이 심해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으며, 조성 연대 역시 명확히 보고되지 않았다. 부장품으로는 동제 무병형 등자 1쌍과 철제 원환비

14 柳岚, 1986, 「吉林双辽县高力戈辽墓群」, 『考古』 1986-2.

15 黑龙江省博物館, 1960, 「黑龙江泰来辽墓清理」, 『考古』 1960-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점, 철모 등의 무기류, 삼족 철부, 미상 철기 등이 보고되었다.

14) 진국공주묘(陳國公主墓)[16]

내몽골 통료시(通遼市) 내만기(奈曼旗)에 위치하며, 진국공주(1000~1018)와 그 부마를 합장한 전실묘로 거란의 황실묘 중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하다. 평면 형태 원형의 후실과 장방형의 전실, 동쪽과 서쪽의 이실로 구성된 다실묘로, 장방형의 전실 끝에 경사진 묘도가 설치되어 있다. 시신이 안치된 원형의 후실에는 바닥에도 전돌을 깔았으며, 시상이 확인되었으나 장구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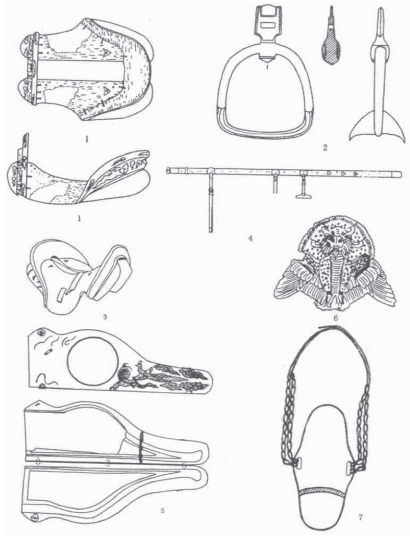


그림 18 진국공주묘 출토 마구류(孙建华, 2001)

출토된 부장품은 약 3,227점이며, 금은기와 마노, 옥석 등을 비롯한 위세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계급의 거란 고분에서는 대부분 재갈과 등자, 삼계 장식구들만 발견되는 반면 진국공주묘에서는 재갈, 등자, 안장, 장니, 삼계 등 완벽하게 갖춰진 기마구가 출토되었다. 특히 도금을 한 철제 재갈이나, 병부와 윤부를 각각 제작하여 연결한 금동제의 단병형 등자 등 일반적이지 않은 마구류의 모습이 특징적이다.

16 孙建华, 2001,「契丹族的马具与围猎-从陈国公主墓出土文物谈起」,『内蒙古文物考古』2001-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5) 영성현 소당토구요묘(寧城縣小塘土溝遼墓)[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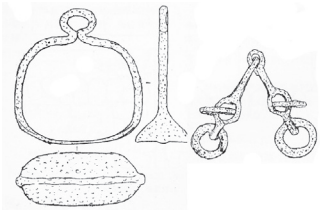


그림 19 영성현 소당토구요묘 출토 등자와 재갈(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1991)

내몽골 적봉시 영성현(寧城縣) 소당토구촌(小塘土溝村)에 위치하며 4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다. 마구류가 출토된 2호분은 평면 형태 원형의 전실묘이며, 단실묘제일 것으로 판단된다. 조성 연대는 요대 조기일 것으로 보고되었다. 묘실 바닥은 다진 생토이며, 장구의 흔적과 인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되어 알 수 없다. 출토된 부장품으로는 철제 원환비 1점과 철제 고리형 등자 1점의 마구류와 철촉 등이 있다.

16) 탕원 신성요묘(湯原新城遼墓)[18]

흑룡강성 탕원현(湯原縣) 진흥향(振興鄉) 신성촌(新城村)에 위치하며, 무장구식 수혈토광묘 1기가 발견되었다. 단인장인 것으로 판단되며, 부장품으로는 토기류와 동제 패식 및 동령 등의 장신구류, 철촉 등의 무기류, 그리고 마구류로는 철제 방형의 병부를 가진 단병형 등자 1점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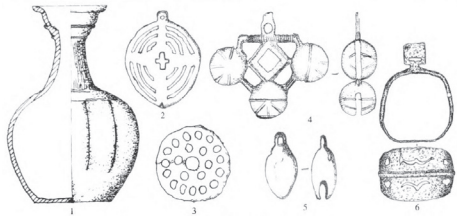


그림 20 탕원 신성요묘 출토 유물(李可鑫, 2013)

다만 유적명 자체는 "요묘"로 보고되었으나,

17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1991, 「宁城县小塘土沟辽墓」, 『內蒙古文物考古』 1991-1.

18 李可鑫, 2013, 「汤原新城辽墓调查简报」, 『文物春秋』 2013-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반구형의 구연을 가진 과형 토기는 요대 오국부 문화에서 많이 보이므로 문화적 계통은 여진으로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식의 토기는 10세기대 이후의 포크로브카 문화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기형이기도 하다.[19] 공반된 동제 패식과 동령 역시 포크로브카 문화의 것과 유사하다.

2. 금(金)

1) 아성시 쌍성촌금묘군(阿城市双城村金墓群)[20]

흑룡강성 아성시(阿城市) 아십하향(阿什河鄉) 쌍성촌(双城村)에 위치하며,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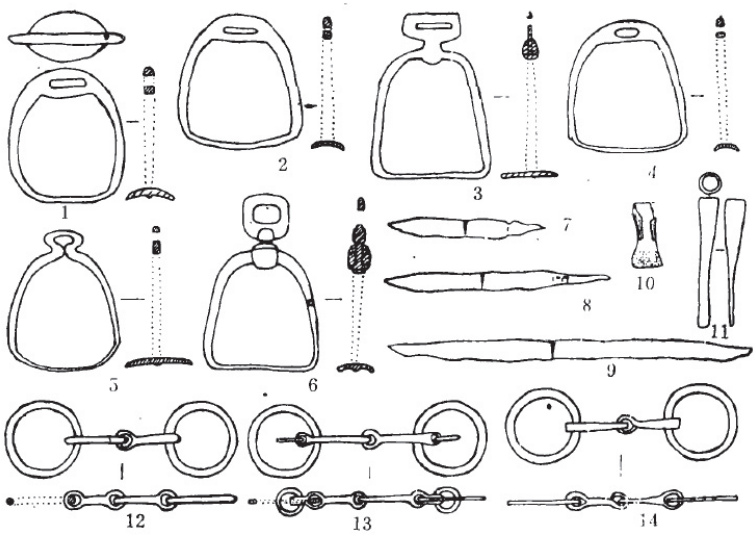


그림 21 아성시 쌍성촌금묘군 출토 유물(阎景全, 1990)

19 정석배, 2016, 「발해의 북방경계에 대한 일고찰」, 『고구려발해연구』 54.

20 阎景全, 1990, 「黑龙江省阿城市双城村金墓群出土文物整理报告」, 『北方文物』 1990-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상경성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1.5km 떨어져 있다. 조성연대는 금대 조기로 보고되었다. 고분군의 묘제는 모두 수혈 토광묘이며, 대부분 묘광의 크기가 비교적 작아 목관 등의 장구를 설치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나 간혹 크기가 큰 묘광의 경우 관고리가 발견되어 장구를 사용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묘광에 안치된 토기 내부에서 인골이 발견된 경우도 더러 확인되며, 그 외의 특이점은 말뼈도 발견된다는 점이다.

각 묘역에서 출토된 부장품으로는 장동호, 장경호, 사발 등의 토기류와 다양한 형태의 철제 삼족기와 솥, 은제 주전자 그리고 칼, 창, 갑편, 단도, 철촉, 명적 등의 무기류, 동제 및 금동제의 각종 금구와 대장식구 등 장신구류, 철제의 등자 및 재갈과 동제 장식용 마구류 등이 있다. 그중 철제 등자는 약 32점이 발견되었으며, 무병형과 고리형, 병부와 윤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연결한 형태 등 다양한 형식이 확인되었다. 철제 재갈은 모두 원환비 형식이며 약 6점이 발견되었다.

조사 당시 고분군의 위치상 금대 여진인의 조흥(肇興)지대에 속하기 때문에 당시 여진인의 장속을 명확히 반영하는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2) 팔리성(八里城)[21]

흑룡강성 조동현(肇東縣) 사참향(四站鄉) 경내에 위치하며, 평면형태 방형에 다수의 치와 옹성이 설치된 전형적인 금대 평지성이다. 성내에서 수습된 유물로는 병, 호 등의 토기류와 철제 칼, 활촉, 창 등의 무기류, 귀면문 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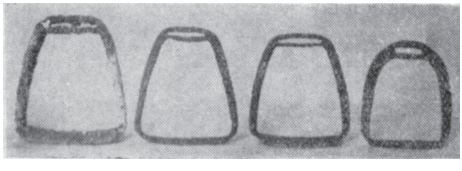


그림 22 팔리성 출토 등자(肇东縣博物缩, 1960)

21 肇东縣博物缩, 1960, 「黑龙江肇东县八里城清理简报」, 『考古』 1960-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당 등의 기와류와 동제 불상 그리고 철제 차관, 재갈, 등자 등 약 50점의 차마구류가 있다. 재갈은 도면이 제시되지 않아 그 형식을 알 수 없으나, 등자는 모두 무병형에 해당된다.

3) 포욕로고성(蒲峪路故城)[22]

흑룡강성 극동현(克東縣) 금성공사(金城公社) 고성대대(古城大隊)에 위치하며, 오유이하(烏裕爾河) 유역의 금대 마을유적과 고성유적 중 규모가 가장 크고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고성의 평면 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총 둘레는 약 2,850m이다. 성벽은 층층이 흙을 다져 쌓았으며 성벽 전체에 일정 간격으로 치를 설치한 모습이 확인된다. 성내에서는 서쪽보다 동쪽 구역에서 건물지가 비교적 많이 발견되었는데, 특히 관아 시설로 추정되는 초석 건물지도 동쪽 구역에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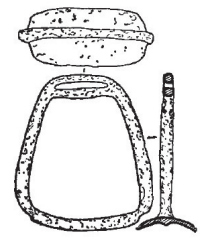


그림 23 포욕로고성 출토 등자(黑龙江省文物考古研究所, 1987)

성내에서는 골제 및 철제 활촉과 갑편, 화문전, 와당편, 동제 띠꾸미개, 병류 토기편, 철제 차관 등과 더불어 철제 무병식 등자 1점이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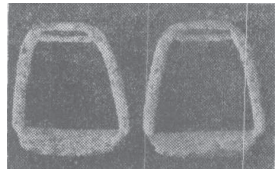


그림 24 집안현 종가촌 출토 등자(吉林省博物结辑安考古队–辑安县文物管理所, 1963)

4) 집안현 종가촌(辑安縣踵家村)[23]

현재의 길림성 집안시(集安市) 청하진(清河鎭) 삼도촌(三道村) 일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

22 黑龙江省文物考古研究所, 1987, 「黑龙江克东县金代蒲峪路故城发掘」, 『考古』 1987-2.

23 吉林省博物结辑安考古队-辑安县文物管理所, 1963, 「吉林輯安县踵家村发现金代文物」, 『考古』 1963-1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유적의 구체적인 성격은 알 수 없으며, 각종 철제 농기구와 솥, 삼족기, 호 등과 더불어 철제 무병식 등자 1쌍이 수습되었다. 당시 조사자는 흑룡강성 조동현 팔리성 출토 철제 무병식 등자와 유사한 점에 주목하여 금대의 유적으로 판단했다.

5) 영길 구참금대묘(永吉舊站金代墓)[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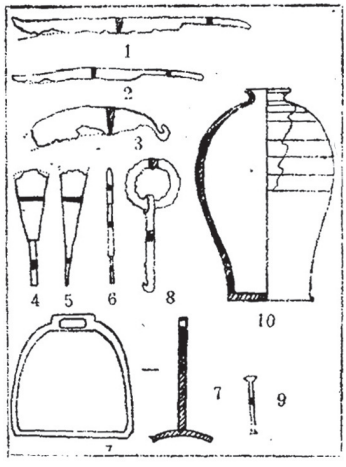


그림 25 영길 구참금대묘 출토 유물(永吉县文管所, 1989)

길림성 영길현 오랍가진(烏拉街鎭) 구참촌(舊站村)에 위치한다. 목관의 흔적과 화장을 한 것으로 확인된 고분이 30여 기 발견되었다고 보고되었는데, 정확한 양상을 알 수 없으나 기술 내용상 묘제는 수혈토광묘일 것으로 판단된다. 조성 연대는 금대 초기일 것으로 보고되었다. 출토 유물로는 장동병 등의 토기류와 철제 칼, 창, 갑편 등의 무기류, 재갈, 등자 등의 마구류, 그 외에 철정 등이 있다. 철제 등자는 무병식 한쌍이, 재갈은 원환비 추정 일부 편이 발견되었다.

6) 북경 문두구구 금대교장(北京門頭溝區金代窖藏)[25]

북경시 문두구구에 위치하며 제가장(齐家庄) 중학교 건설 공사 중 발견된 금대 교장으로, 출토된 유물로는 철제 삽, 차관, 유약도기류, 초두, 등자 등이 있다. 발견된 철제 등자의 형식은 무병식이다.

---

24 永吉县文管所, 1989, 「吉林永吉旧站金代墓调查简报」, 『北方文物』 1989-1.

25 鲁琪, 1983, 「北京门头沟区发现一处金代窖藏」, 『文物资料丛刊』 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런데 이 등자는 답수부가 완전히 평평해져 굴곡도가 거의 사라지고, 답수부의 평면 형태가 원형에 가깝게 변형되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형식은 비교적 늦은 시기인 명·청 대에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금대 교장에 후대의 유물이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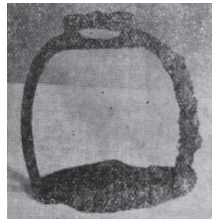


그림 26 북경 문두구구 금대교장 출토 등자(魯琪, 1983)

7) 마반촌산성(磨盤村山城)[26]

본래 명칭은 성자산산성 혹은 성자산성이었으나, 마반촌산성으로 개명되었다. 길림성(吉林省) 도문시(圖門市) 장안진(長安鎭) 마반촌에 위치한다. 산세를 따라 성벽이 석축되었으며, 성의 평면형태는 불규칙한 타원형에 전체 둘레는 약 4.5km이다. 성 내부에서는 중구에서 동하국 시기의 대형 창고 건물지가, 서구에서는 동하국 시기의 궁전 건물지가, 동구에서는 고구려 말~발해 초기로 편년되는 대형 건물지가 조사되었다. 발견된 마구류는 금대의 것으로 보고된 철제 무병식 등자 1점이 있다. 다만 앞서 언급된 무병식 등자와는 다르게 역혁공(力革孔)이 제형으로 넓게 형성된 모습이 보인다.



그림 27 마반촌산성 출토 등자(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89)

26 吉林省文物志编委会, 1984, 『龍井縣 文物志』, 吉林: 吉林省文物志編修委員; 王培新, 2018, 「磨磐村山城爲渤海早期王城假說」, 『新果集(二)-慶祝林澐先生八十華誕論文集』, 北京: 科學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20, 「吉林省圖們市磨盤村山城考古工作的重要收穫」, 『中國文物報』 2020年 12月 4日 第007版; 국립문화재연구소, 2021, 「지린 모판춘산성 유적」, 『중국고고학동향-2021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8) 샤이가성(Шайгинское городище)[27]



그림 28 샤이가성 출토 등자와 재갈(한성백제박물관·부산박물관, 2014)

연해주 파르티잔스크 지구(Партизанский район)에 위치한 금대 동하국 시기의 석축 산성이다. 전체 길이는 3.6km이며 내성과 외성이 결합된 구조로 확인되었다. 성 내부에서는 400여 기의 관청, 일반 주거 유적, 수공업 공방지 등의 건물지가 발견되고 이와 더불어 다량의 철제 무기류, 토기류, 농공구류 등이 출토되어 당시 이 일대의 중심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된 유물 중 마구류는 대부분 등자일 것으로 추정되며, 도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철제 무병형 등자 1점과 원환비 1점이다.

Ⅲ. 요금대 등자의 특징과 비교분석

이 장에서는 재질, 제작기법, 형식적 특징 등에 주목해 요금대 등자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려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파악한 요금대 등자의 특징을 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통·공시적 관점에서 파악해보기 위해 요금대 이전의 발해, 통일신라, 당 그리고 요금대에 존속했던 고려의 등자를 함께 비교해보겠다.

1. 요금대 등자의 특징

요의 등자는 재질상으로는 철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적봉 대영자요묘, 진국공주묘 등 위계가 높은 고분 출토품의 경우 금동제 혹은 철제에 도금한

27 한성백제박물관·부산박물관, 2014, 『러시아연해주문물전 프리모리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것이 보고되어 주목된다.

제작기법상으로 보았을 때는 병부와 윤부를 한 번에 제작하는 일체형이 일반적이나, 진국공주묘 출토 등자의 경우 병부와 윤부를 따로 제작하여 조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등자의 재질과 제작기법에서 위계차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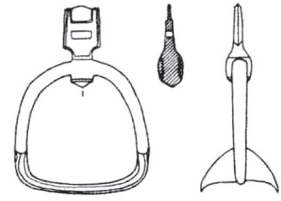


그림 29 진국공주묘 출토 등자(孙建华,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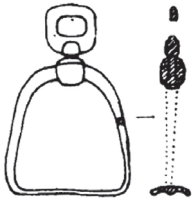


그림 30 쌍성촌금묘군 출토 등자(阎景全,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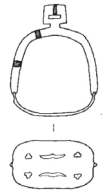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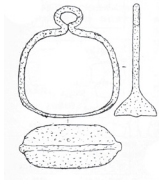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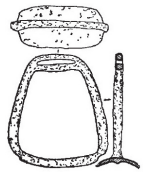
형태상으로는 병부의 유무와 형태, 답수부 문양 투공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형식을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병부가 있는 것의 형태는 모두 방형에 가까우며, 단병형 등자에 해당된다(I형식). 그리고 윤부의 상단에 해당하는 부분을 휘게 만들어 역혁공을 대신한 고리형 등자(Ⅱ형식)와 윤부 상단부에 틈을 내어 역혁공을 낸 무병형 등자(Ⅲ형식)가 있다. 다음으로 답수부에서 문양이 투공된 사례가 확인되는데, 모두 반괄호 문양과 삼엽 문양을 좌우, 상하 대칭적으로 매치한 것으로서 주로 I형식 등자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답수부에 문양을 투공하지 않은 것(I-1형식)과 투공한 것(I-2형식)으로 세분할 수 있다.

금의 등자는 모두 철제이다. 제작기법은 쌍성촌금묘군에서 요 진국공주묘 출토 등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병부와 윤부를 따로 제작해 조립한 것도 확인되지만, 금의 경우에는 재질이 철제이며 외면의 장식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위 세품을 모방한 사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는 모두 일체형이다. 형태는 요의 등자에서 많이 보였던 방형의 병부를 가진 I-1형식과 고리형 등자인 Ⅱ형식, 무병형 등자인 Ⅲ형식이 확인되었다.

한편, 이 글에서 유적 현황을 자세히 정리하지는 못했으나, 중국 길림성 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 요금대 등자 형식 분류표

형식	Ⅰ		Ⅱ	Ⅲ
	Ⅰ-1	Ⅰ-2		
도면				
	객좌북령 1호묘	북경 순의안신장요묘	영성현 소당토구요묘	포욕로고성

물관과 러시아 연해주의 아르세니예프(Арсеньев) 박물관, 달네고르스크(Дальнегорск) 박물관 등에서 관찰한 금대의 등자들이 있다. 이 등자들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글에서 분류한 형식대로라면 Ⅱ형식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답수부에 요대의 Ⅰ-2형식에서 보였던 투공 장식들이 보인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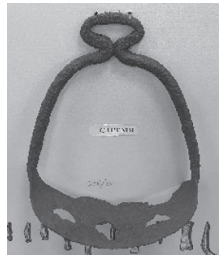
잠시 정리해보면, 요대의 등자 재질은 대부분 철제이나, 위계가 높은 고분 출토품의 경우 금동제 혹은 철제에 도금 장식한 사례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각 형식별 수량은 방형의 병부를 가진 Ⅰ-1형식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방형의



중국 길림성 박물관



러시아 연해주
아르세니예프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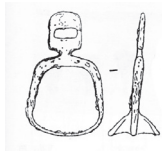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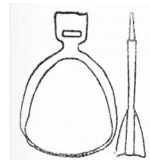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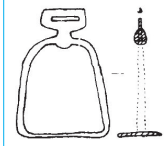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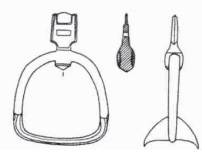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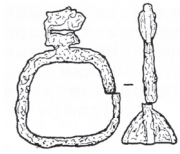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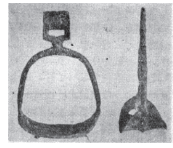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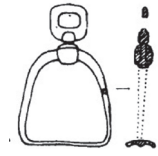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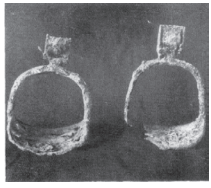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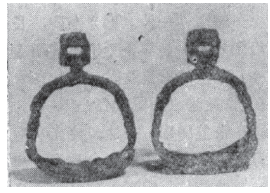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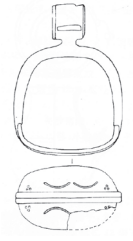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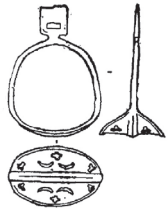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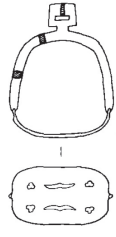


러시아 연해주
달네고르스크 박물관

그림 31 답수부 투공 장식 등자 사례(필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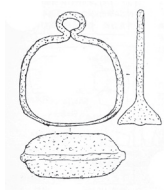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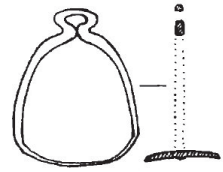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2〉 요금대 등자 I형식 분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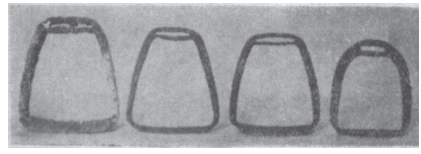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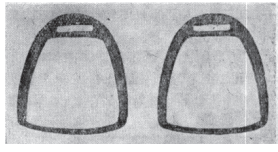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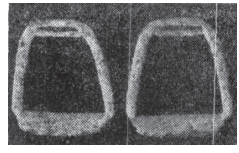
형식	요				금
I-1	 부신 해력판요묘	 객좌북령요묘 1호분	 객좌북령요묘 4호분	 쌍료시 고력과요묘	 아성시 쌍성촌금묘 군 3번 묘역
	 진국공주묘	 과우중기 파찰납알요묘	 강평현 후류동둔 2호 요묘	 건평 장가영자 요묘	 아성시 쌍성촌금묘 군 4번 묘역
	 적봉 대영자요묘	 과좌후기 호사뇨거란묘			
I-2	 부신 남조력영자요묘	 오한기 사자구요묘	 북경 순의안신장요묘	 탕원 신성요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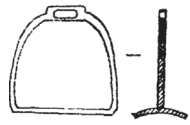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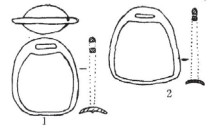
〈표 3〉 요금대 등자 Ⅱ형식 분류표

형식	요	금
Ⅱ	 영성현 소당토구요묘	 아성시 쌍성촌금묘군 4번 묘역

〈표 4〉 요금대 등자 Ⅲ형식 분류표

형식	요	금	
Ⅲ	 극보와보묘군	 팔리성	
	 태래요묘	 집안 종가촌	
		 마반촌산성	 샤이가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영길 구참금대묘	 포욕로고성
		 아성시 쌍성촌금묘군 3번 묘역	 아성시 쌍성촌금묘군 4번 묘역

병부와 답수부의 문양 투공이 특징적인 Ⅰ-2형식이 많다. Ⅱ형식과 Ⅲ형식은 Ⅰ형식 수량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편이다.

금대의 등자의 경우 재질은 모두 철제인 것으로 보이며, 요대의 등자에서 많이 보였던 Ⅰ-1형식이 여전히 확인되긴 하지만 수량이 적어 통상적으로 쓰인 형식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은 Ⅱ형식도 마찬가지다. 반면 Ⅲ형식은 다수 확인되고 있어 이 시기에 가장 일반적으로 쓰인 등자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요대의 Ⅰ-2형식 등자에서 확인되었던 답수부의 투공 장식들이 Ⅱ형식과 Ⅲ형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2. 요금대 이전과 동시기 타 문화 등자와의 비교

1) 발해(698~926)

발해의 등자는 제2 송화강 중류역의 사리파고분군[28]과 대해맹유적,[29] 고동하(古

28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1995,「吉林永吉查里巴殊竭墓地」,『文物』1995-9.

29 吉林市博物館, 1987,「吉林永吉杨屯大海猛渤海遗址」,『考古学集刊』1987-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洞河) 유역의 동청고분군,[30] 요하(遼河) 동쪽의 석대자산성 주변고분군,[31] 함경북도 지역의 연차골고분군[32]에서 발견되었다. 동청고분군을 제외하면 모두 발해의 변경지역에서 출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질상으로는 동청고분군에서 목심의 흔적이 확인된 한 쌍을 제외하고 모두 철제인 것으로 확인된다. 형식상으로는 이 글에서 언급한 Ⅰ-1형식의 단병형, Ⅱ형식의 고리형과 더불어 장병형이 있다. 장병형 등자의 경우 함경북도의 연차골 고분군에서만 발견되었는데, 이는 발해 이전 삼국시대에 유행했던 등자 형식이며 답수부 형태의 다양성과 병부 상단의 턱 유무 등에서 삼국시대 말기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33]

이 외에도 발해 문화요소들이 확인된 서아무르 지역의 트로이츠코예 고분군[34]과 리포비부고르 고분군[35]의 등자들도 주목된다. 재질상으로는 모두 철제이며, 형식상으로는 이 글의 기준에 따른 Ⅰ-1형식의 단병형과 Ⅱ형식의 고리형이 확인되었다.

발해 이전 삼국시대의 마구 부장양상과 양적인 면에서 비교했을 때 수량은 적은 편이지만, 통일신라와는 달리 발해 문화권 내에서는 여전히 마구 부장풍습이 확인된다는 점 자체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

30 연변대학발해사연구소, 1993, 「동청발해무덤발굴보고」, 『발해사연구』 3,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31 沈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06, 「2004年度沈陽石台子山城高句麗墓葬發掘簡報」, 『北方文物』 2006-2.

32 동북아역사재단, 2011, 『부거리 일대의 발해유적』, 동북아역사재단.

33 김영길, 2020, 「발해 마구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69, 동북아역사재단, 136쪽.

34 Деревянко Е.И., 1977, Троицкий могильник. -Новосибирск: наука.

35 Болотин Д.П., Сапунов Б.С., Зайцев Н.Н., Сапунов И.Б., 1997, Новый могильник эпохи средневековья в Приамурье // Проблемы археологии, этнографии, антропологии Сибири и сопредельных территорий. - Новосибирск: Изд-во ИАЭТ СО РА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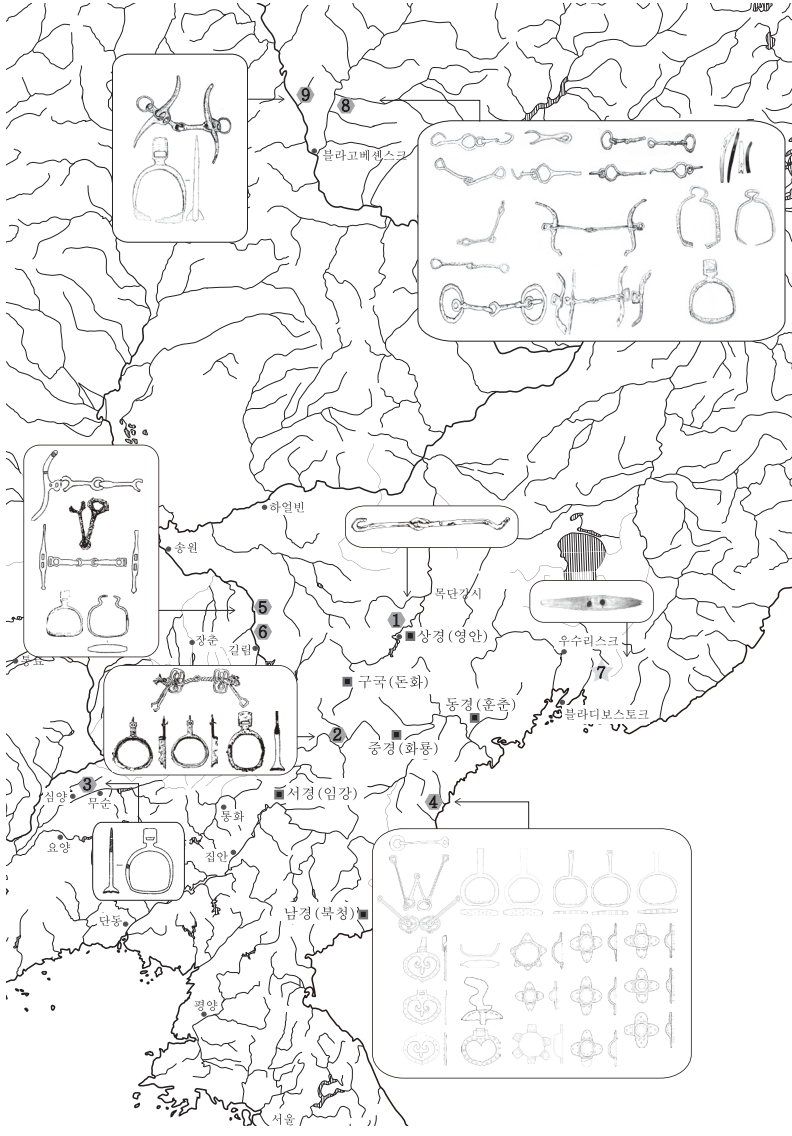


그림 32 트로이츠코예 문화와 발해 마구 출토 유적(김영길, 2021). 1: 홍준어장고분군, 2: 동청고분군, 3: 석대자산성 주변고분군, 4: 연차골고분군, 5: 사리파고분군, 6: 대해맹유적, 7: 니콜라옙카-2 성, 8: 트로이츠코예 고분군, 9: 리포비부고르 고분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형식적 특징에 중점을 두고 정리해보면 요금대와 발해, 그리고 발해 문화권의 등자를 비교해보았을 때 재질상 철제인 것이 많고, Ⅰ-1형식의 단병형과 Ⅱ형식의 고리형이 발견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발해와 발해 문화권의 등자에서는 답수부에 장식 투공을 한 것이 보이지 않으며, 특히 발해의 함경북도 지역에서 요금대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장병형 등자가 확인된다는 점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2) 통일신라(676~935)

삼국을 통일한 신라에서는 발해와는 달리 더 이상 마구류를 고분에 부장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등자가 발견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광양 마로산성,[36] 창녕 화왕산성,[37] 경주 월지,[38] 익산 미륵사지,[39] 황해도 평산면 수습품[40] 등이 있다. 재질은 철제, 청동제 등이 있으며, 형식상으로는 경주 월지 출토품을 제외하고 모두 윤부의 형태가 주머니 모양인 호등(壺鐙)에 해당된다. 이 호등은 삼국시대 한반도 중남부지역에서 처음 등장한 형식이며, 금은 상감기법 등으로 화려한 장식을 가미한 사례도 보인다. 중국 동북지역을 비롯해 연해주, 중앙아시아 지역 등에서의 발견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경주 월지 출토 철제 등자는 병부와 윤부의 길이 비율상 단병형에 해당되긴 하나 병부의 형태 자체가 폭이 좁은 장방형에 가깝고, 병두부에 송곳 형상이 솟아 있어 요금대의 단병형 등자와는 다른 계통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요금대와 통일신라의 등자를 비교해보았을 때 공통점은 찾아볼 수 없으며, 단병형과 고리형, 무병형 등자가 사용되었던 요금대와는 달리 통일신

36 성정용·권도희·諫早直人, 2007, 「고락산성과 마로산성 출토 마구에 대하여」, 『호남고고학보』 27, 호남고고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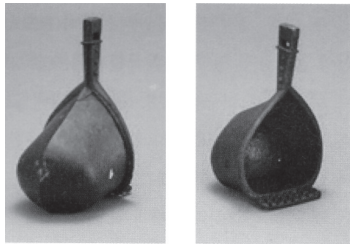
37 경남문화재연구원, 2009, 『昌寧 火旺山城內 蓮池』.

38 국립경주박물관, 1995, 『국립경주박물관』, 통천문화사.

39 이난영·김두철, 1999, 『韓國의 馬具』,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321~324쪽.

40 이난영·김두철, 1999, 위의 책, 321~32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창녕 화왕산성



경주 월지



광양 마로산성



익산 미륵사지

그림 33 통일신라 등자 사례(국립 경주박물관, 1995; 중앙문화재연구원, 2019)

라에서는 호등이 사용되어 형식상 큰 차이가 보인다.

3) 당(618~907)

7~10세기 중원지역의 당에서는 의덕태자묘(懿德太子墓)[41]와 영태공주묘(永泰公主墓)[42]에서 다량 출토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모두 철제이며, 형식상으로는 I-1형식의 단병형에 해당된다. 이 외에도 당대의 황실 고분 출토품과 일반 건축 유적 채집품들이 알려져 있는데,[43] 재질상으로는 철제와 동제, 금동제, 납제

41 陕西省博物馆, 乾县文教局唐墓发掘组, 1972, 「唐懿德太子墓发掘简报」, 『文物』 1972-7.

42 陕西省文物管理委员会, 1964, 「唐永泰公主墓发掘简报」, 『文物』 1964-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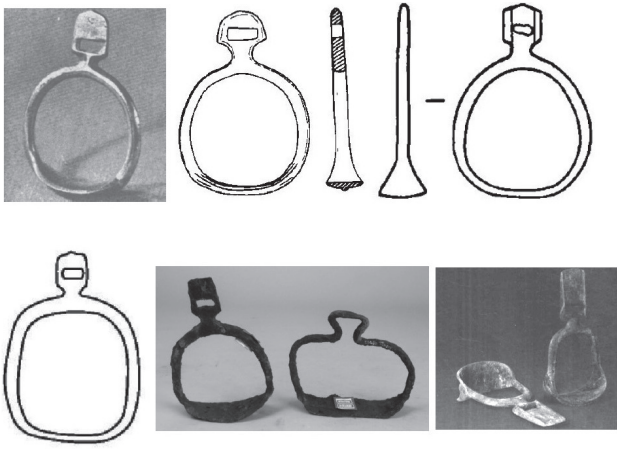


그림 34 요령 조양진 채집 당대 등자(马卉,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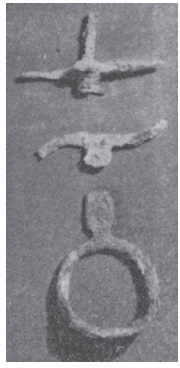


그림 35 당 영태공주 묘 출토 재갈과 등자(陕西省文物管理委员会, 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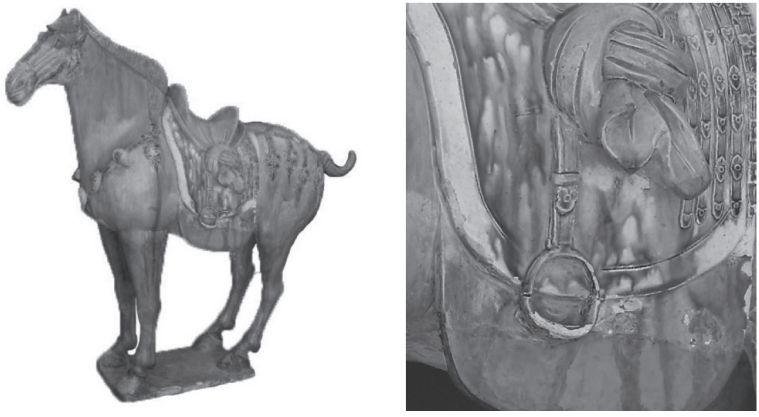


그림 36 당삼채 마용에 표현된 등자(马卉, 2020)

43 马卉, 2020,「唐代马镫」,『文史知识』2020-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등 다양하며, 형식상으로는 대다수 Ⅰ-1형식으로 확인된다. Ⅱ형식의 고리형도 발견되지만 극소량이다.

특히 성당기의 고분에서는 삼채 마용을 부장하는 풍습이 흔히 확인되어 실물자료 외에도 이러한 기물들을 통해 등자의 착장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요금대와 당의 등자를 비교해보았을 때 Ⅰ-1형식이 모두 확인되고 소량이지만 Ⅱ형식도 사용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금대의 유적에서 많이 발견되는 Ⅲ형식은 당의 등자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4) 고려(918~1392)

요금대와 거의 동시기에 존속했던 고려 역시 마구 부장 풍습이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전해지는 등자 자료들은 민속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질상으로는 철제와 동제가 있으며, 형식상으로는 방형의 병부를 가진 Ⅰ-1형식과 Ⅰ-2형식, 그리고 무병형인 Ⅲ형식이 확인된다. Ⅲ형식을 제외하고 모두 은입사 장식기법을 가미하는 등 장식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Ⅰ-2형식의 경우 답수부의 투공 문양이 요, 금의 것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점이 주목된다.[44]

따라서 요금대와 고려의 등자를 비교해보았을 때 Ⅰ-1형식,Ⅰ-2형식, Ⅲ형식이 사용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고려 등자 자료에서는 Ⅱ형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상기한 내용을 종합해 요금대 이전 7세기대부터의 중국 중원지역과 동북지역 그리고 한반도지역에서 사용되었던 등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요금대 이전 중원지역의 당에서는 Ⅰ-1형식의 방형의 병부를 가진 등자가 주류를 이루었고, 소량이지만 Ⅱ형식의 고리형 등자도 사용되었다. 동북지역의

44 고려 등자 자료는 전국 박물관 소장품 검색 사이트(http://www.emuseum.go.kr)에서 참고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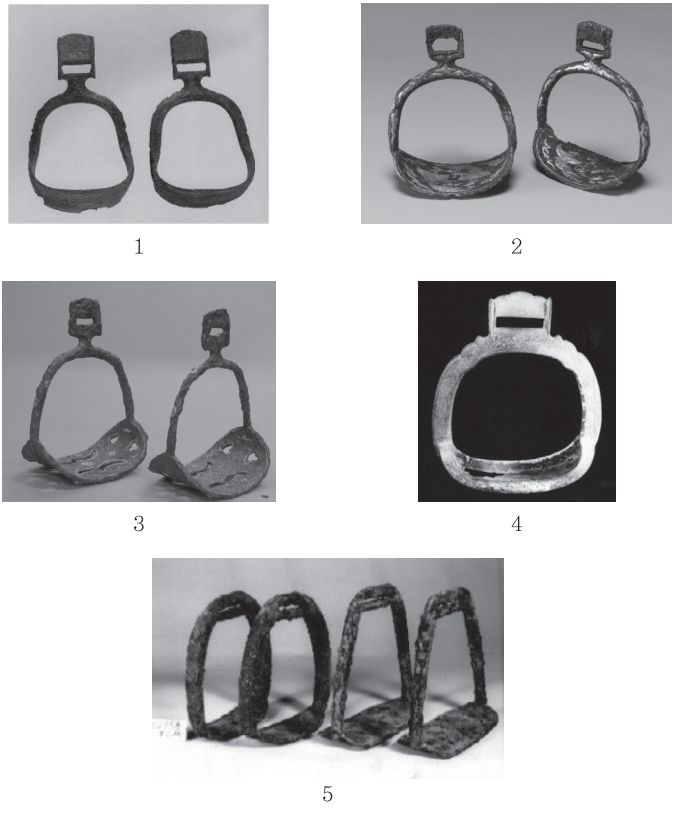


그림 37 고려 등자 사례(1: 리움미술관 소장, 2~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발해와 발해 문화권에서도 Ⅰ-1형식과 Ⅱ형식 등자가 사용되었으나, 발해의 남쪽 변경지역인 함경북도에서는 삼국시대에 유행했던 장병형 등자가 발견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당시 한반도 중남부의 통일신라에서는 전혀 다른 형식인 호등이 유행했다. 요에서는 Ⅰ-1형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답수부의 문양 투공이 특징적인 Ⅰ-2형식도 두루 사용되기 시작했다. Ⅱ형식도 사용되었으나 흔히 사용된 형식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요대 말기에 이르러 무병형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Ⅲ형식 등자가 새로 등장했다. 요 멸망 후 금에서는 이전에 볼 수 있었던 모든 형식의 등자가 계속해서 사용되었으나, Ⅰ-1형식의 수량이 줄어들고 Ⅲ형식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요대에 Ⅰ-2형식 등자의 답수부에서 보이던 투공 장식들이 Ⅱ형식과 Ⅲ형식 등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새로이 확인된다. 그 당시 한반도지역의 고려에서도 Ⅱ형식을 제외하면 요금대와 동일한 형식의 등자들이 사용되었다.

〈표 5〉 요금대 이전과 요금대 등자 속성표

		유적	Ⅰ		Ⅱ	Ⅲ	기타			
			Ⅰ-1	Ⅰ-2			장병형	호등	목심 함유	단병형 (狹)
요금대 이전	발해	대해맹유적			●					
		사리파고분군	●							
		동청고분군	●						●	
		석대자산성 주변고분군	●							
		연차골고분군					●			
	발해 문화권	트로이츠코예고분군	●		●					
		리포비부고르 고분군	●							
	통일 신라	화왕산성						●		
		마로산성						●		
		미륵사지						●		
		안압지								●
	당	조양진	●		●					
		영태공주묘	●							
		의덕태자묘	●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요금대	요	과좌후기 호사뇨거란묘	●							
		적봉 대영자요묘	●							
		강평현 후류동둔 2호 요묘	●							
		건평 장가영자요묘	●							
		과우중기 파찰납알요묘	●							
		부신 남조력영자 1호 요묘		●						
		내몽골 오한기 사자구요묘		●						
		영성현 소당토구요묘			●					
		부신 해력판요묘	●							
		진국공주묘	●							
		쌍료시 고력과요묘	●							
		북경 순의안신장요묘		●						
		탕원 신성요묘		●						
		객좌북령 요묘 1호분	●							
		객좌북령 요묘 4호분	●							
		극보와보묘군				●				
		태래요묘				●				
	금	아성시 쌍성촌금묘군 3번 묘역				●				
		아성시 쌍성촌금묘군 4번 묘역	●		●	●				
		영길 구참금대묘				●				
		팔리성				●				
		마반촌산성				●				
		집안 종가촌				●				
		북경 문두구구 금대교장				●				
		샤이가성				●				
		포욕로고성				●				
	고려	소장품	●	●		●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Ⅳ. 맺음말

이 글에서는 한반도 중남부에서 삼국시대를 끝으로 사라진 마구 부장풍습이 중국 동북지역의 발해시기와 요금대에는 여전히 지속되었다는 점에 주목했고, 비교분석이 가능한 등자를 대상으로 단편적인 고찰을 시도해보았다.

먼저 요금대 마구의 대략적인 출토 현황들을 파악했고, 선별한 요금대 등자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재질과 제작기법 그리고 형태상으로는 병부의 유무와 형태, 답수부 문양 투공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형식을 나누어 분석했다. 출토 현황으로 보았을 때 요대는 고분유적에서, 금대는 관방유적에서 주로 확인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질상으로는 요금대의 등자는 대부분 철제이나, 적봉 대영자요묘와 진국공주묘 출토 사례처럼 요에서는 위세품으로서 재질을 달리한 사례도 확인된다. 형태상으로는 방형의 병부를 가진 단병형 등자, 윤부 상단을 휘어서 제작한 고리형 등자, 윤부 상단부에 틈을 내어 제작한 무병형 등자가 확인되었다. 그중 단병형 등자에서는 답수부에 문양을 투공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었다. 수량 면에서 보면 요대의 자료에서는 단병형 등자가, 금대의 자료에서는 무병형 등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요금대 등자의 특징을 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통·공시적 관점에서 관찰해보기 위해 발해와 발해문화권, 통일신라, 당 그리고 요금대에 존속했던 고려와의 비교를 시도해보았다. 발해와 발해 문화권에서는 재질상 철제인 것이 많고 대부분 고분유적에서 발견되었으며, 형식상으로는 단병형 등자와 고리형 등자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요대 등자와 공통성을 띠고 있다. 다만 발해에서는 단병형 등자에서 답수부의 투공 장식을 찾아볼 수 없으며, 장병형 등자라는 요금대 등자와는 다른 계통의 등자 형식이 사용되었다는 차이점이 확인된다. 한반도 중남부의 통일신라에서는 요금대의 등자 자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호등이 사용되었고, 고분 출토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중원지역의 당에서는 고분유적과 일반 건축유적에서 발견되었으며, 철제 외의 다양한 재질이 사용되었다. 형식상 답수부 투공장식이 없는 단병형 등자와 고리형 등자가 사용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었다는 공통점이 보인다. 고려에서는 고분유적 출토 사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재질상 철제와 동제가 확인되는데 은입사 등 화려한 장식기법을 가미한 점이 주목된다. 형식상 고리형 등자를 제외한 요금대 등자의 형식들이 모두 발견되었으며, 특히 동일한 답수부 투공 문양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요금대에 보이는 단병형 및 고리형 등자는 이전의 당대, 즉 발해시기부터 사용 및 부장되어 왔으며, 요대 말기에 새롭게 무병형 등자가 등장해 공존했다. 당시 한반도의 통일신라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상기한 형식들 중 단병형과 무병형 등자는 인접했던 한반도의 고려에서도 나타났는데, 이전의 통일신라와 마찬가지로 고분에 부장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형식이 동일하고 답수부 투공 장식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등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연구를 진행하며 국내 학계에서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던 요금대 등자의 주요 특징들을 정리하고, 인접 지역들과의 비교를 통해 단편적으로나마 상호 영향 정도를 파악해볼 수 있었다. 다만 등자에 한정한 분석이며 전반적인 마구 사용 양상을 도출해냈다고 볼 수 없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등자 외의 마구류까지 분석 범위를 넓혀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기를 바라며 졸고를 마친다.[45]

45 부족함이 많은 글에 정성 어린 수정 제의를 해주신 심사위원 분들께 지면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자료

국립문화재연구소, 2021,「지린 모판춘산성 유적」,『중국고고학동향-2021春』.

단행본

경남문화재연구원, 2009,『昌寧 火旺山城內 蓮池』.

국립경주박물관, 1995,『국립경주박물관』, 통천문화사.

동북아역사재단, 2011,『부거리 일대의 발해유적』, 동북아역사재단.

연변대학발해사연구소, 1993,『발해사연구』3,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이난영·김두철, 1999,『韓國의 馬具』.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89,『조선유적유물도감』8, 조선유적유물 도감편집부.

중앙문화재연구원 편, 2019,『통일신라고고학개론』, 진인진.

한성백제박물관·부산박물관, 2014,『러시아연해주문물전 프리모리예』.

吉林省文物志编委会, 1984,『龍井縣 文物志』, 吉林: 吉林省文物志編修委員.

王培新, 2018,「磨磐村山城爲渤海早 期王城假說」,『新果集(二)-慶祝林澐先生八十華誕論文集』, 北京: 科學出版社.

Деревянко Е.И., 1977, Троицкий могильник.-Новосибирск: наука.

논문

김영길, 2020,「발해 마구 연구」,『동북아역사논총』69,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21,「뜨로이쯔꼬예 문화의 마구에 대한 일고찰-재갈과 등자를 중심으로-」,『고구려발해연구』70.

성정용·권도희·諫早直人, 2007,「고락산성과 마로산성 출토 마구에 대하여」,『호남고고학보』27, 호남고고학회.

정석배, 2016,「발해의 북방경계에 대한 일고찰」,『고구려발해연구』5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1995,「吉林永吉查里巴殊竭墓地」,『文物』1995-9.
_____, 2020,「吉林省圖們市磨盤村山城考古工作的重要收穫」,『中國文物報』2020年 12月 4日 第007版.
吉林省博物结辑安考古队-辑安县丈物管理所, 1963,「吉林輯安县鍾家村发现金代文物」,『考古』1963-11.
吉林市博物館, 1987,「吉林永吉杨屯大海猛渤海遗址」,『考古学集刊』1987-5.
内蒙古文物考古研究所, 1991,「宁城县小塘土沟辽墓」,『内蒙古文物考古』1991-1.
鲁琪, 1983,「北京门头沟区发现一处金代窖藏」,『文物资料丛刊』7.
马卉, 2020,「唐代马镫」,『文史知识』2020-4.
武家昌, 1986,「喀左北岭遼墓」,『遼海文物学刊』1986-1.
邵国田, 1987,「内蒙古敖汉旗沙子沟,大横沟辽墓」,『考古』1987-10.
苏日泰, 1982,「科右中旗巴扎拉嘎辽墓」,『内蒙古文物考古』1982-2.
孙建华, 2001,「契丹族的马具与围猎-从陈国公主墓出土文物谈起」,『内蒙古文物考古』2001-2.
阎景全, 1990,「黑龙江省阿城市双城村金墓群出土文物整理报告」,『北方文物』1990-2.
永吉县文管所, 1989,「吉林永吉旧站金代墓调查简报」,『北方文物』1989-1.
王武钰, 1992,「北京顺义安辛庄辽墓发掘简报」,『文物』1992-6.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92,「阜新南皂力营子一号遼墓」,『遼海文物学刊』1992-1.
柳岚, 1986,「吉林双辽县高力戈辽墓群」,『考古』1986-2.
李可鑫, 2013,「汤原新城辽墓调查简报」,『文物春秋』2013-2.
李宇峰, 1991,「阜新海力板遼墓」,『遼海文物学刊』1991-1.
张柏忠, 1983,「科左后旗呼斯淖契丹墓」,『文物』1983-9.
张少青, 1988a,「辽宁康平发现的契丹, 辽墓概述」,『北方文物』1988-4.
张少青, 1988b,「辽宁康平县后刘东屯二号辽墓」,『考古』1988-9.
前热河省博物馆筹备组, 1956,「赤峰瓢大营子遗墓盆掘报告」,『考古學報』1953-3.
肇东縣博物缩, 1960,「黑龙江肇东县八里城清理简报」,『考古』1960-2.
沈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06,「2004年度沈陽石台子山城高句麗墓葬發掘簡報」,『北方文物』2006-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冯永谦, 1960,「辽宁省建平, 新民的三座辽墓」,『考古』1960-2.
陕西省文物管理委员会, 1964,「唐永泰公主墓发掘简报」,『文物』1964-1.
陕西省博物馆, 乾县文教局唐墓发掘组, 1972,「唐懿德太子墓发掘简报」,『文物』1972-7.
黑龙江省文物考古研究所, 1987,「黑龙江克东县金代蒲峪路故城发掘」,『考古』1987-2.
黑龙江省博物館, 1960,「黑龙江泰来辽墓清理」,『考古』1960-4.

Болотин Д.П., Сапунов Б.С., Зайцев Н.Н., Сапунов И.Б., 1997, Новый могильник эпохи средневековья в Приамурье // Проблемы археологии, этнографии, антропологии Сибири и сопредельных территорий. - Новосибирск: Изд-во ИАЭТ СО РАН.

기타 자료

http://www.emuseum.go.kr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요금대(遼金代) 등자에 대한 단편적 고찰

김영길

이 글에서는 한반도 중남부에서 삼국시대를 끝으로 사라진 마구 부장풍습이 중국 동북지역의 발해시기와 요금대에는 여전히 지속되었다는 점에 주목했고, 비교분석이 가능한 등자를 대상으로 단편적인 고찰을 시도해보았다.

출토 현황으로 보았을 때 요대는 고분유적에서, 금대는 관방유적에서 주로 확인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질상으로는 요금대의 등자는 대부분 철제이나, 요에서는 위세품으로서 재질을 달리한 사례도 확인된다. 형태상으로는 단병형 등자, 고리형 등자, 무병형 등자가 확인되었다. 그중 단병형 등자에서는 답수부에 문양을 투공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었다. 수량 면에서 보면 요대의 자료에서는 단병형 등자가, 금대의 자료에서는 무병형 등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발해와 발해문화권, 통일신라, 당, 고려와의 비교를 시도해보았다. 발해와 발해 문화권에서는 재질상 철제가 많고 대부분 고분유적에서 발견되었으며, 형식상으로는 단병형 등자와 고리형 등자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요대 등자와 공통성을 띤다. 다만 발해에서는 단병형 등자에서 답수부의 투공 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식을 찾아볼 수 없으며, 요금대 등자와는 다른 계통의 장방형 등자 형식이 사용되었다는 차이점이 확인된다. 통일신라에서는 요금대의 등자 자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호등이 사용되었고, 고분 출토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당에서는 고분유적과 일반 건축유적에서 발견되었으며, 철제 외의 다양한 재질이 사용되었다. 형식상 답수부 투공장식이 없는 단병형 등자와 고리형 등자가 사용되었다는 공통점이 보인다. 고려에서는 고분유적 출토 사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재질상 철제와 동제가 확인되는데 화려한 장식기법을 가미한 점이 주목된다. 형식상 고리형 등자를 제외한 요금대 등자의 형식이 모두 발견되었으며, 특히 동일한 답수부 투공 문양이 나타난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요금대에 보이는 단병형 및 고리형 등자는 발해시기부터 사용 및 부장되어 왔으며, 요대 말기에 새롭게 무병형 등자가 등장해 공존했다. 당시 한반도의 통일신라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상기한 형식들 중 단병형과 무병형 등자는 인접했던 한반도의 고려에서도 나타났는데, 이전의 통일신라와 마찬가지로 고분에 부장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형식이 동일하고 답수부 투공 장식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등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주제어: 요, 금, 발해, 마구, 등자, 재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A Brief Consideration on the Stirrups of Liao and Jin Dynasty

Kim Younggil

This study noted that the culture of burying harnesses in tombs that disappeared after the Three Kingdoms period in the central and southern parts of the Korean Peninsula still persisted in northeastern China. Therefore, we tried a short review of the stirrup that can be compared and analyzed.

There is a difference in that it was mainly found in tomb ruins in Liao and architectural ruins in Jin. The material is mostly iron. However, in Liao, cases made of better materials are also confirmed. In terms of shape, stirrups with short handles, ring-shaped stirrups, and stirrups without handles were identified. Stirrups with short handles can be classified into those with patterns on the floor and those without patterns. In Liao, there are many stirrups with short handles, and in Jin Dynasty, there are many stirrups without handle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Next, it was compared with Balhae, Balhae cultural Area, Unified Silla, Tang, and Goryeo. In Balhae and Balhae cultural areas, there are many iron materials, and most of them were found in tomb ruins. In terms of form, stirrups with short handles and ring-shaped stirrups were found, which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that of the Liao. However, stirrups with short handles in Balhae does not have a perforated decoration on the floor. And the difference is confirmed that a different type of stirrup, called a long-handled stirrup, was used.

In Unified Silla, Hodeung(stirrups seems like pocket), which were not found in the Liao and Jin, were used, and no cases of tomb discovery were confirmed. In the Tang Dynasty, it was found in tomb ruins and general architectural remains, and various materials other than iron were used. In terms of form, there is a common point in that stirrups with short handles without decorations on the floor and ring-shaped stirrups, were used.

There are no cases found in tombs in Goryeo, and iron and copper are identified in terms of material, and it is noteworthy that they have colorful decorations. In terms of form, all forms of the stirrups of Liao and Jin were found, except for the ring-shaped ones, and in particular, the same floor decorative patterns appeared.

Simply put, stirrups with short handles and ring-shaped stirrups used in the Liao and Jin have been used since the Balhae period, and new stirrups without handles appeared during the Liao and Jins were used together. It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Unified Silla of the Korean Peninsula at that time. Among the forms mentioned above, stirrups with short handle and a stirrups without handle appeared in Goryeo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it is not found in tombs lik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e previous Unified Silla. But direct relevance could be found, such as the same form and the same decoration on the floor.

Keywords: Liao, Jin, Balhae, Harness, Stirrups, Bit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2..78.009

근현대 중국에서 민족 담론의 전개

– 다양한 지식 기반과 내적 긴장

김승욱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부교수

I. 문제 제기
II. 신사학과 민족 문제
III. 오족공화(五族共和)의 한계
IV. 신문화와 민족주의의 분기(分岐)
V. 구망과 민족주의의 합류
VI.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문제 제기

인류 역사에서는 시대마다 새로운 형태의 정치체가 출현했다. 근대에 출현해서 현재까지 기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민족국가(nation-state)는 그 가운데 하나다.[1] 민족국가는 그 조직의 형태를 요약하면, "민족(nation)"과 "국가(state)"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국가"는 이 정치체의 외연을 구성하는 정치 단위이며 "민족"은 내포를 채우는 인구 단위다. 근대 이후 민족국가의 형성을 이끈 사조나 운동을 민족주의(nationalism)라고 하는데, 어네스트 겔러(Ernest Gellner)는 그것을 일찍이 "정치적 단위와 민족적 단위가 일치해야 하는 정치적 원리"라고 규정한 바 있다.[2]

민족국가라는 역사 현상에 관해서는 아직 해명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 심지어 민족, 국가 등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조차 확정된 정의가 공유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특히 번역 과정을 통해 이 개념들을 수용한 비유럽 지역에서는 그러하다. 우리를 포함한 한자권에서는 "민(民)", "족(族)", "국(國)", "가(家)" 등 각기 개별적인 의미가 있는 글자를 조합해서 이를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된 단어들은 번역 전의 본래 단어와 다소 편차가 있는 의미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

* 투고: 2022년 10월 13일, 심사 완료: 2022년 11월 6일, 게재 확정: 2022년 11월 14일

** 이 글은 2022학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영역 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a funding for the academic research program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22).

1 이 글에서 "민족"은 민족국가(국민국가)의 인구 단위로서의 의미로 사용한다. nation-state과 nation은 오늘날 국민국가, 국민 등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민족과 국민은 각기 문화적, 정치적으로 의미가 구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논지 전개상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족으로 통일해 사용한다.

2 Ernest Gellner, 1983, *Nations and Nationalism*, Basil Blackwell(어네스트 겔너 지음, 최한우 옮김, 2009, 『민족과 민족주의』,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는 이 개념들이 이미 폭넓게 사용되는 보편성을 가진 개념이지만 동시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특수성을 내포한 개념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민족" 개념에 대해서도, 정리되지 않은 논쟁점이 많다. 중국에서 민족이라는 단어는, 20세기 초 서구의 "nation"에 대한 여러 번역어 가운데 하나로 출현했다.[3] 이 단어의 의미를 둘러싸고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왔다.[4] 그런데 오늘날 중국에서 이 개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학리적 차원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현 중국에서 민족은 2개의 다른 차원에서 혼용되고 있다. 그것은 국민 전체를 포괄하는 "중화민족"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며, 동시에 국가가 공인한 55개 소수민족과 한족을 각기 지칭하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이 가운데 어떤 의미의 민족을 단위로 한 민족주의를 지향하는지에 따라, 이 정치체의 형태는 매우 다른 양상을 띨 수 있다. 이 점에서 이는 정치체로서 중국의 명운이 갈릴 수 있는 민감한 논제가 아닐 수 없다.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민족, 민족주의에 관해 본격적으로 주목하게 된 것은 20세기 후반이었다.[5] 당시 많은 학자가 이를 주목했던 것은 도처에 발생하는

---

3 19세기 중반 이후 일본에서 people, nation 등에 대해 國民, 民族, 族民, 民種, 人民 등 다양한 번역이 등장했다(박양신, 2008, 「근대 일본에서의 '국민' '민족' 개념의 형성과 전개: nation 개념의 수용사」, 『동양사학연구』 104집, 238~244쪽). 梁啓超는 「東籍月旦」에서 처음으로 民族이라는 단어를 수용했다. 金天明 · 王慶仁, 1981, 「"民族"一詞在我國的出現及使用問題」, 中央民族學院研究所 編, 『民族研究論文集』.

4 "nation"은 정치 단위로서 국가로 번역되기도 하고 인구 단위로서 민족, 국민으로 번역되기도 했다. 또한 그것을 인구 단위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번역할 때, 정치적 공동체로서 국민으로 번역해야 할지 문화적 공동체로서 민족으로 번역해야 할지 등, 이를 둘러싼 논의들이 진행되어왔다. 박상수, 2005, 「중국 근대 '네이션' 개념의 수용과 변용」, 『동아시아 근대 '네이션' 개념의 수용과 변용』, 고구려연구재단; 이춘복, 2009, 「청말 중국 근대 "民族" 개념 담론 연구 -문화적 '民族' 개념과 정치적 '國民' 개념을 중심으로」, 『중앙사론』 29.

5 羅志平은 민족주의 연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80년대까지의 시기를 "번성기"로 분류한다. 羅志平, 2005, 『民族主義-理論,類型與學者』, 臺北: 旺文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민족주의적 갈등의 현상이 새삼스럽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세계는 이미 두 차례의 대전을 겪으면서 근대 세계가 처참히 허물어지는 것을 목도한 뒤였고, 이제 근대 이후의, 즉 탈근대의(post-modern)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의 잇따른 붕괴와 대비되며 자본주의가 주도하는 지구화(globalization)의 흐름이 민족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경계의 새로운 질서를 구성해가는 것을 주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와 흐름을 달리하는 현상으로, 동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각 지역에서 민족주의 양상을 띤 국가 간의 분쟁과 갈등이 여전히 이어졌다. 연구자들은 탈근대, 초경계의 시대가 다가오는 가운데도 왜 근대의 산물인 민족주의가 사라지지 않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에릭 홉스봄(E.J. Hobsbawn)은 민족과 민족주의가 18세기 후반 이후 유럽에서 출현해서 전 지구에 확산, 성행했던 특정 사상 조류이며, 그것이 20세기 후반 이후 세계사를 기술할 때 더 이상 적절한 용어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기술했다.[6] 물론 기대와 달리 민족주의는 세계 질서를 구성하는 요소로 온존했다. 자본주의의 확산, 지구화의 전개와 함께 지역적 이해 또는 지역 문화와의 충돌이 동시에 부각되는 현상은 폭넓게 발견되는데, 그 속에서 민족주의는 매우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7] 현재 연구자들은 근대 유럽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지역의 민족주의의 형태와 의미에 대해 폭넓게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일찍이 리아 그린펠드(Liah Greenfeld)는 민족국가로 이행하는 경로를 다섯 가지로 분류함으로써 민족주의를 전형화하는 설명이 한계가 있음을 보인 바 있다.[8] 민족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유럽 지역을 포함해 더 넓

6 E. J. Hobsbawn, 1990,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agramme, Myth, Reality*, Cambridge: The Press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E. J. 홉스봄 지음, 강명세 옮김, 1994,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작과 비평사).

7 민족주의는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기의 두 축에 대해 독자적인 민족국가들의 출현에서 중요한 정치적 변환을 이끈 주요 요소로 주목되었다.

8 Liah Greenfeld, 1992, *Nationalism: Five Roads to Modernit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은 지역에 걸쳐 여러 유형의 민족주의가 전개되는 양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9]

중국의 민족주의는, 한국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다. 민족주의 연구가 활발했던 1990년대는 한·중 간의 교류가 재개된 시점이기도 했다. 양국 간의 관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30여 년 동안 냉전의 장벽에 막혀 단절되어 있었지만,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1992년 한·중 수교를 거치면서 급속히 접근해 갔다. 그 뒤 30~40년 동안 양국은 교류 확대와 이해 심화의 과정을 거쳤고, 지금 그 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확대되어 다시 가를 수 없이 긴밀히 연결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 진전이 이루어지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 양국 간에 민족주의적 양상을 띤 대립 정서가 자라났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과 갈등이 이어졌다. 20년 전 동북공정(2002년 시작)으로 촉발된 고중세사 자국사 귀속 논쟁은 아직도 진정되지 않았다.[10] 근래에는 김치, 한복 등의 원조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긴장, 갈등이 학리적 차원을 넘어서 정서적, 감성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속에서 민족주의는 점점 더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강화되고 맹목적인 '애국주의'로 진행해가는 모습도 발견된다. 이러한 민족주의의 진행은 그동안 쌓아온 양국의 선린 관계를 흔들 수 있는 불안 요소임이 분명하다. 만일 양국이 과거 냉전 시기와 같은 구조적인 갈등 속에 다시 놓이게 된다면,[11] 민족주의는 자칫 더 직접적인 충돌을 발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중국의 경제 성장과 국가 위상의 제고는 자못 '위협적'인

---

9 최갑수, 2003, 「내셔널리즘의 기원과 특성」, 『서양사연구』 31.

10 이개석·이희옥·박장배·임상선·유용태, 2005,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 고구려연구재단; 박장배 외 지음, 2014, 『중국의 변경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11 근래 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권역 질서는 미국-중국의 패권 경쟁을 배경으로 '신냉전(New Cold War)'의 출현을 우려하게 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 "중국위협론"을 이끌고 있고, 그 영향 아래 2022년 6월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NATO 회의는 중국을 "전체에 영향을 주는 위협(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했다. 현재 한국은 이 속에서 선택의 압박을 받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속도로 이루어졌다. 이를 배경으로 중국의 민족주의에 커다란 장면의 전환이 있었다. 중국이 국가 발전을 통해 얻게 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신과 그 문화 전통에 대해 인식하는 태도가 크게 변화한 것이다. 이는 근대 이후 서구에 대한 열세 인식 아래 가졌던 자기비판적 태도와 대비되면서 매우 극적인 전환 양상을 띠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의 관성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문화 전통에 기반을 두고 근대 서구에 대한 대안적 질서를 제시하려는 의지가 나타났다. 근래 중국에서는 전통적 세계관을 재해석해서 서구 주도의 세계 질서에 대해 독자적 맥락으로 진화해온 중국적 보편 질서에 주목하는 논의들이 확대되고 있다.[12] 이런 논의는 한편으로 서구 주도의 근대 질서에 대한 대안 논의라는 측면에서 보편주의적 목표를 상실한 근대 세계가 새로운 보편성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담론으로 주목받고 있지만,[13]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세계 패권을 다투는 중국의 국가적 이해가 배후에 발동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는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은 전통 시기에 경험했던 중국 중심의 지역세계 질서가 회귀하고 있는 듯한 인식을 갖게 하며, 그들의 민족주의가 국가 경계를 넘어 공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민족 담론의 면에서, "중화민족" 범주에 포함된 중국 "변강"의 민족들(동시에 우리의 변경에 있는 민족들)에 대해 '제국'적 서술이 지속

12 자오팅량, 2010, 『천하체계: 21세기 중국의 세계 인식』, 길(趙汀陽, 1995, 『天下體系』, 江蘇教育出版社) 자오팅량은 중국과 서구의 정치 질서를 각기 "家"와 "개인"을 단위로 한 원리로 대비하고, 초월적, 보편적 의미를 내포한 중국적 세계질서가 서구에 대해 대안적 의미를 갖는다고 여겼다.

13 Ban Wang은 칸트의 "공통감각"과 강유위의 "기"를 연결해 인류가 경계를 넘어 공감과 동정을 실현할 초월적인 존재임을 드러내 자오팅량의 천하 합법성 논의과 다른 차원의 대안을 모색한다. Ban Wang, 2017, "The Moral Vision in Kang Youwei's Book of the Great community", Ban Wang ed., *Chinese visions of world order: Tianxia, culture, and world politics*, Duke University Press, pp. 87~105. Prasenjit Duara는 천하 담론을 21세기에 적용해 지속가능성이라는 의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Prasenjit Duara, 2017, "The Chinese Wolrd Order and Planetary Sustainability", Ban Wang ed., *Chinese visions of world order: Tianxia, culture, and world politics*, Duke University Press, pp. 65~8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준다.[14]

민족주의를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것은 포괄적이고 유동적이며 나아가 정서, 감정적인 역사 현상이다. 민족, 민족주의 속에는 다양한 요소와 지향이 섞여 있으며 그것들은 시간적, 공간적 맥락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그것을 동태적 현상으로 관찰하고 그 내부 구조와 동학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그것을 전체론적으로 정의, 규정하는 것에는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변화 난망한 현상이 아니라 가변적인 현상임을 이해하는 것은, 적대, 대결적인 관계 속에서 공존, 협력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데 필요하다.

그런데 중국 민족주의 연구에서는 그동안 객관적인 분석을 방해한 시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서구/중국 또는 보편/특수와 같은 구도로 설정되는 이원론적인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은 근대 서구 중심의 사고가 중국을 대척점에 두면서 시작된 것이며, 이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논의들에서도 반복되는 측면이 많았다. 그런 가운데 대상에 대한 미분화된 분석은 허용되기 어려웠으며 다양한 주체의 역할은 소거되기 쉬웠다.

서구 학계가 중국 민족주의를 보는 시선은, 근대 질서에 직면해 변화의 압박을 받는 구체제의 한계와 특성을 드러내는 쪽으로 향해 있었다. 일찍이 조셉 레벤슨(Joseph Levenson)은 중국이 기본적으로 유교를 중심으로 한 문화주의적 원리에 의해 구성된 세계였으며 19세기 말 서구의 충격하에서 민족국가로 전화해야 하는 운명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15] 당시 미국을 위시한 서구 학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냉전 구도에서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는 중국

14 오병수, 2014, 「중국 근대 역사 교과서의 자국사 구축 과정과 '중화민족'」, 『역사연구』 132(오병수, 2021, 「중국 근대 역사 교과서의 자국사 구축 과정과 '제국'적 서술의 지속: 중화민족론을 중심으로」, 오병수 편, 『한중 역사 교과서 대화: 근대의 서사와 이데올로기』, 동북아역사재단).

15 Joseph R. Levenson, 1968, *Confucian China and Its Modern Fate: A Trilog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주목하면서, 중국을 축으로 형성, 유지되어온 이 지역세계의 독자적인 질서 원리가 가진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다.[16] 레벤슨의 스승인 페어뱅크(John K. Fairbank)는 "충격-대응론"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서구 학자들의 학문 경향을 이끌었다. 레벤슨이 전통 중국의 지배 구조를 유교 중심의 문화주의라고 설명한 것은, 중국을 서구 역사에서 민족국가에 상대되는 제국에 빗대서 관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제국 질서에 대해 민족 자립을 성취했던 서구의 민족국가 수립 역사를 바탕으로, 제국-국민국가의 대비 구도하에 "유교 중국"을 중국 민족국가 수립의 대척 지점에 놓고 분석한 것이다. 이 속에는 그 민족국가 수립의 지체성을 부각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충격-대응론" 자체는 1980년대로 접어들어 점차 조정, 대체되어갔지만,[17] 중국을 근대 서구와 이원론적으로 나누어 보는 시각은 여전히 많은 연구에서 보인다.

중국 학계에서는 중국 근현대사가 서구에 피동적으로 대응해온 역사가 아니라 주체들이 주동적으로 건설해온 역사라는 시각을 부각하는 연구들이 이어졌다. 그 가운데 "혁명사관"으로 지칭되는 부류의 연구들은, 중국 근현대사는 "반제"와 "반봉건"을 주제로 하는 혁명운동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중국 국가의 건립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에 따르면 새로운 국가를 구성한 "민족"은 대내적으로 봉건(청조), 반봉건(군벌) 권력을 대체하는,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투쟁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되었다. 혁명운동은 민족주의운동과 동일시되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혁명사관이 퇴조하는 가운데, 중국의 근현대 역사 속에는 "반제", "반봉건"의 혁명운동으로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흐름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역사주의" 또는 "문화보수주의"로 지칭되는 연구들은, 중국이 근대 이후 문화

16 John K. Fairbank, 1968,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7 Paul A. Cohen, 1984, *Discovering History in China: American Historical Writing on the Recent Chinese Pas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적으로 급진적인 전환을 시도해왔음에도 중국의 국가 체제 속에는 여전히 전근대 시기로부터 이어지는 문화 전통이 긴밀히 결합되어 있음을 지적했다.[18] 앞서 언급한 천하론 또는 천하주의로 지칭되는 논의는 그런 가운데 출현한 것이었다. 이들은 전통 중국의 "천하(天下)", "화이지변(華夷之辨)" 등 개념이 포함하는 문화주의적 원리 자체가 서구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세계관이며 그것이 근대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에도 여전히 작용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중국의 근대국가 수립은 서구적 민족국가의 선례를 그대로 적용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중국의 근대 이행이 근대 서구의 민족국가 모델이 적용되지 않는 예에 속한다는 점을 지적한다는 면에서 "중국 예외주의"로 지칭되곤 한다. 그런데 중국 학계가 이렇게 선후로 상이한 방식으로 민족주의의 형성 과정을 설명해왔지만, 그것이 혁명사관에 의거한 것이든 역사주의에 의거한 것이든 간에, "서구중심주의"에 대응하는 이원론적인 논리 구도를 반복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논의 구도가 서구와 중국 양측을 모두 전체론적으로 파악하게 하여, 개별적 분석을 그 구도에 수렴시키는 속성이 있다는 데 있다. 서구와 중국은 모두 그것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요소를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성격과 지향이 이질적인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분법은 그러한 다양한 요소를 미분화해서 보고 그 속에서 여러 주체가 발휘한 역할들을 구별하기 어렵게 한다. 그리고 그 동태적이고 가변적인 측면을 간과하게 한다. 예컨대 레벤슨의 분석처럼 전통 중국의 "천하" 인식 속에 "화이론"과 같이 문화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인식적 요소가 절대적으로 컸다고 해도, 그것을 근거로 장기에 걸쳐 다변해온 이 정치체의 속성을 "문화주의"로 개괄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 문화는 결코 정치와 분리해서 존재하지 않으며 그 자체가 정치적

18 余英時, 2010,「中國近代思想史上的激進與保守」,『錢穆與中國文化』, 上海: 上海遠東出版社; 許紀霖, 2011b,「近十年中國的歷史主義思潮」,『當代中國的啓蒙與反啓蒙』,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80~21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19] 문화적 선택이 정치적 선택과 연관해서 항상 유동적으로 변화하면서 그 설명 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시기별로 그 동태적인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청말 혁명파가 개혁파와 비교해서 왜 "종족혁명", 즉 문화적 요소를 더 농후하게 포함한 민족주의를 제기했는지 등과 같은 문제를 설명할 수 없다. 말하자면 중국 민족주의의 성격을 규정하기 전에 그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요소와 주체 그리고 그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국의 근대국가 건립이 서구 민족국가의 선례와 정치사상 등 외부로부터 수입된 지적 자원들을 활용해 기획된 부분이 많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그러한 수입 자원들은 중국의 기존 전통 자원과 만나서 그 자리를 대체하거나 새롭게 해석, 소화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서구 대 중국의 구도가 갖는 맹점은 바로 서구가 하나가 아니며, 중국도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그것을 활용해 새로운 국가 건립을 기획한 집단, 세력의 정치적 지향 또한 서로 달랐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중국 민족주의는 그 속에 다양한 지적 자원과 정치적 지향을 가진 집단과 세력이 수시로 경쟁, 협력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청말부터 현대 중국에 이르는 동안 중국 민족주의 내 민족 담론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 그 추이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우선 이어지는 Ⅱ, Ⅲ장에서는 민족국가의 수립을 목표로 한 정치사상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민족 담론에 어떤 구조와 특성이 부여되었는지 살펴본다. Ⅳ, Ⅴ장에서는 그러한 민족 담론의 구조 속에 나타난 변동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시기적으로 Ⅱ, Ⅲ장은 청말민초, Ⅳ, Ⅴ장은 중화민국 전,후기를

19 Zhou Fangyin, Brantl Womack은 게임이론을 적용한 분석을 통해 조종체제의 비대칭(Asymmetry)적 구조가 반복적인 정치적 고려 속에서 평형점을 찾은 결과라는 점을 드러낸 바 있다. 이는 천하 개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Zhou Fangyin, 2011, "Equilibrium Analysis of the Tributary System",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4, pp. 147~178; Brantly Womack, 2012, "Asymmetry and China's Tributary System",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5, pp. 37~5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주로 다룰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추이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중국 민족주의에 어떤 한계와 가능성이 존재하는지를 생각해보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다.

Ⅱ. 신사학과 민족 문제

청말 국체·정체의 변화를 모색하는 논의들이 폭넓게 나타났다. 당시 양계초(梁啓超)는 개혁파를 대표하는 논자로서 큰 영향을 끼쳤다. 그가 민족국가의 수립이라는 과제와 연결해서 역사 서술의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흥미롭다. 그는 1901년 「중국사서론(中國史敍論)」, 1902년 「신사학(新史學)」 등을 잇달아 발표하여 기존의 사학과 구별되는 새로운 치사(治史) 방식으로 "신사학"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그의 주장의 요점은 "정사(正史)"로 대변되는 왕조 중심의 역사에서 국가 중심의 역사, 즉 "국사(國史)"로 역사 서술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기존의 역사가 "조정(朝庭)", "개인"에 집중한 "군주의 역사(君史)"일 뿐이며 그 대신에 "국가", "군체(群體)"가 중심이 되는 "국가의 역사(國史)"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 이는 오늘날까지 기본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근대 역사학 서사의 주요 흐름인 국가 단위의 역사 서술이 시작된 시점으로 주목된다.

"신사학"은 국가 체제와 결합하는 역사학의 사회적 효용이 부상했다는 점에서 근대 역사학의 일반적인 흐름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서구의 근대 역사학이 실증주의라는 학문 내적인 전환으로부터 확립되어갔던 것과 달리, 이는 현실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의도를 처음부터 명확히 드러냈다는 데 특

20 梁啓超, 2015c, 「中國史敍論」, 『飮氷室合集 3』 文集第3冊, 北京: 中華書局, 461~472쪽; 梁啓超, 2015b, 「新史學」, 『飮氷室合集 4』 文集第4冊, 北京: 中華書局, 751~78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징이 있었다. 당시 양은 변법 실패 후 일본에서 『청의보(淸議報)』, 『신민총보(新民叢報)』 등을 간행하면서 청조에 대해 더 격화된 논조로 변혁을 주장하는 여론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또한 중국 상황은 의화단사건이 진압, 신축조약이 체결된 직후로 "과분(瓜分)"의 위기가 팽배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양계초는 역사학이 현실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기여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그는 그동안 역사는 "옛 자취(陳迹)", "사실"에만 관심을 갖고 "오늘의 일(今務)", "이상"은 무시해왔으니 이제 국가, 민족의 단결과 진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점에서 "신사학"은 단순히 역사 서술 방식에서의 변화를 도모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프로젝트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부재는, 청말 지식인들이 서구를 대하면서 첫째로 실감하는 문제였다.[21] 마찬가지로 양계초는 "국사"를 서술하는 데 우선 "국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중국사서론」의 "중국사(中國史)의 명명"이라는 절에서, 제하(諸夏), 한인(漢人), 당인(唐人) 등은 모두 왕조 이름이고 외국인은 진단(震旦), 지나(支那) 등으로 부르지만 "우리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에 국명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부득이하게 중국, 중화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국가로서 이 중국의 역사를 "중국의 중국(中國之中國)", "아시아의 중국(亞洲之中國)", "세계의 중국(世界之中國)"의 시기로 구분하고 중국은 이를 거치면서 민족국가로 발전해가는 길을 걸어왔다고 설명했다.[22] 그는 "중국"으로 지칭한 국가가 민족국가로 발전해 온 과정을 하나의 역사로 구성하려고 했다.

민족국가를 역사 발전의 종극 목표로 설정하는 역사 인식은, 인류 역사를 선

21 일본, 미국에서 외교관으로 복무한 黃遵獻은 "華夏"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구 각국, 예컨대 영국, 프랑스는 모두 全國總名이 있지만 오직 중국만 없다"고 지적했다. 黃遵獻, 2001, 『日本國志』 卷4,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2 梁啓超, 2015c, 앞의 글, 461~472쪽. 또한 그는 1897년 「論軍政民政相嬗之理」에서 중국의 천하 통치는 "여러 군주의 위정 시기(多君爲政的時期)", "한 군주의 위정 시기(一君爲政的時期)", "민의 위정 시기(民爲政的時期)"로 발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梁啓超, 2015a, 「論軍政民政相嬗之理」, 『飮氷室合集 2』 文集第2冊, 中華書局, 139~14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형의 진화 과정으로 파악하는 근대 서구의 역사 인식을 수용한 것이다. 비록 헤겔은 이 진화의 역사에서 중국을 인도 문명과 함께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분류했지만, 양은 중국도 인류 역사의 경로를 따라 세계 속의 "자유"로운 일원으로 진화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23] 이러한 역사 인식의 기반이 된 지식체계는 물론 진화론이다. 그는 일찍부터 엄복(嚴復)과의 교류를 통해서 진화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그는 진화론의 '과학' 원리가 역사학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윈의 종의 기원설이 세상에 나온 뒤에, 전 지구의 사상계에는 갑자기 새로운 천지가 열렸다"고 하면서 역사학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그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4] 심지어 그는 1922년 『중국역사연구법(中國歷史研究法)』을 저술할 때까지만 해도 역사가 자연과학과 같은 인과율을 적용해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25] 그에게 중국의 민족국가로의 진화는 그 역사가 필연적으로 도달해야 할 지점이었으며, 새로운 역사학은 그것을 '과학'적으로서 설명해주는 학문이었다.

민족국가의 형태와 관련해서 양계초의 국가·민족 구상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상으로 많이 주목되는 것은, 일본 학계를 통해 접한 독일 법학자 블룬칠리(Johann Caspar Bluntschli)의 국가학이다.[26] 블룬칠리의 국가론은 "국가유기

---

23 중국이 민족국가로 진화해가는 데 역사학이 그 계몽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그의 역사학은 계몽적 역사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조병한, 2007, 「양계초의 계몽주의 역사관과 국학」, 『한국사학사학보』 16.

24 그는 「신사학」과 같은 해 쓰여진 「進化論革命者詰德之學說」에서 "다윈의 종의 기원설이 세상에 나온 뒤에, 전 지구의 사상계에는 갑자기 새로운 천지가 열렸다. 단지 자연과학이 일변했을 뿐 아니라 역사학, 정치학, 생태학, 사회학, 종요학, 윤리도덕학 모두 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梁啓超, 2015d, 「進化論革命者詰德之學說」, 『飮氷室文集』 12, 79쪽.

25 梁啓超, 1922, 『中國歷史研究法』, 上海: 商務印書館. 그는 이듬해 이 주장을 수정했다.

26 양계초는 1899년 『청의보』에서 일본의 번역본을 참조해 블룬칠리의 『국가론』을 번역, 게재했으며, 1902년에는 廣智書局을 통해 『국가학강령』을 출판했다. 또한 1903에는 『신민총보』를 통해 블룬칠리에 대한 소개 글과 학설을 소개하는 글을 잇따라 게재했다. 김승욱, 2020, 「중국 근대 초기 역사학에서 민족 개념의 수용과 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체론"으로 표현되는데, 그것은 국가를 자기 의지를 갖는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하고 개인보다 우선시하는 특징이 있었다. 이때 종족적·문화적 개념인 '민족'(nation)은 국가 관념과 그것을 실행할 욕구를 가졌을 때 국가와 등치되는 정치적 개념인 '국민(volk)'으로서 민족국가(국민국가)를 세울 자격을 갖는다고 설명되었다.[27] 이 국가론을 기반으로 양계초는 민족국가로서의 '중국'을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국가로 상상하고 그 진화 과정을 역사로 서술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양계초의 국가·민족론은 하나의 일관된 계열이나 체계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에 민족국가의 권력이 모여지는 방향을 두고 "민권"과 "국권"의 두 발상 간에서 고심했다. 그는 블룬칠리의 국가론을 번역, 소개하던 것과 같은 시점인 1901~1902년 루소의 사회계약설에 주목했다. 당시 그는 루소를 "18세기의 인물이지만 19세기 서구의 '민족주의'를 잉태한 어머니이자 프랑스혁명의 원동력이다"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그의 학설이 군주 주권에서 국민 주권으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28] 그런데 직후인 1903년에 루소 학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블룬칠리에 대해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다.[29] 이를 보면 그가 국가 권력의 조직 방향 면에서 "민권" 중시에서 "국권" 중시의 입장으로 선회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렇지만 거의 동시에 수용했던 두 사조가 그렇게 짧은 기간에 간명히 정리되었는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학관-량치차오(梁啓超)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제67호, 131~132쪽. 9번 주 내용 참조.

27 nation, volk에 대한 개념 정의와 구분은 블룬칠리의 시각일 뿐으로 영국, 프랑스 등 당시 서구 국가에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것이 아니었다(최갑수, 2003, 앞의 글). 블룬칠리는 당시 프랑스,영국에서 정치적 의미로 nation 개념을 사용했던 것과 달리 nation 개념을 해석했다. 그에 대해 양계초가 취한 번역어는 "族民"이다. 김승욱, 2020, 앞의 글, 131~138쪽.

28 梁啓超, 1901.11~12, 「盧梭學案」, 『淸議報』 第98~100冊; 梁啓超(中國之新民), 1902.7, 「民約論巨子盧梭之學說」, 『新民叢報』 第11~12號.

29 梁啓超, 1903.10.4, 「政治學大家伯倫知理之學說」, 『新民叢報』 第38,39合期, 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와 관련해서, 하자마 나오키(狹間直樹)는 양계초의 사상이 "국가"의 관점에서는 국권주의, "국민"의 관점에서는 민권주의의 입장을 취했으며 양자는 마치 타원의 두 축과 같은 양상을 띠고 있었다고 설명한다.[30] 그는 양자를 조합해서 민족국가의 상을 그려냈다. 이때 국권과 민권은 서로 상반된 방향성을 갖기 때문에, 그의 민족주의 사고 속에는 내재적인 긴장이 잠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사고는 민국 성립 이후 다시 한번 변화를 보였다. 그는 1912년 「국성론(國性篇)」을 통해 국성론을 제기했다. 그는 사람에게 인성이 있는 것처럼 국가도 국어(國語), 국교(國教), 국속(國俗)으로 표현되는 국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때 그의 민족주의는 정치적 차원에서 문화적 차원으로 그 중심이 옮겨지고 있었다. 이러한 전변은 1918년 유럽 방문 뒤에 저술한 「구유심영록(歐游心影錄)」에서 정형화되어 나타났다.[31]

당시 중국 지식인의 서구 사조에 대한 이해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서학(西學)"으로 묶어서 수용해 중국을 '계몽'하는 사상 자원으로 간주했다.[32] 그 속에 서로 다른 지향성을 갖는 사조가 섞이는 것도 피할 수 없었다. 민족국가라는 정치체는 이미 기존의 정치체와 구별되는 새로운 것이었고, 그것을 구성하는 데 끌어온 상이한 사조들 간의 차이점이 늘 심도 있게 고려되지는 않았다. 이 점에서 양계초의 신사학과 민족국가 구상에 대한 논술 역시 논리적으로 완정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이는 그의 사상이 나중에 중국의 민족주의 사상이 분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각각에 대해 단초를 제공했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33]

---

30 狹間直樹, 1999, 「〈新民說〉略論」, 狹間直樹 編, 『共同研究梁啓超-西洋近代思想受容と明治日本』, 東京: みすず書房, 92~93쪽.

31 許紀霖, 2005, 「政治美德與國民共同體: 梁啓超自由民族主義思想研究」, 『天津社會科學』 2005年 第1期.

32 이는 마치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 중국 지식인들이 서구 사조 속의 다양한 사장 경향을 분리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함께 사회주의 중국을 "계몽"하는 사상 자원으로 삼았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33 許紀霖, 2011a, 「共和愛國主義與文化民族主義-現代中國兩種國家認同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때 이 시기 수입된 서구 사상을 기반으로 구성된 민족국가의 상(像)이, 중국의 국가 전통 속에 있는 국가상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지는 유의해 보아야 할 지점이다. 민족국가(nation-state)의 "state"는 "국가"라는 단어로 번역되었다. 그런데 서구에서 "state"는 개인, 가족 등의 사적 영역과 명확히 분리된 공적 영역에 있는 개념이었던 바, "공(公)", "사(私)"로 분리되는 "국", "가"라는 글자를 조합한 이 "국가"라는 단어는 "state"의 의미와 정확히 등치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에서 "국"은 "가"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은 분봉제(分封制) 아래서 위계적으로 권력을 공향(共享)하던 전통을 반영했으며, 군현제 질서하에서 "천하위가(天下爲家)"의 이상하에서 긴밀히 결합했다.[34] 쉬지린(許紀霖)은 전통 중국에서 "국"은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가", "천하"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서 원리에 의존적으로 결합한 "가-국-천하의 연속체"로 존재해왔다고 파악한다.[35] 중국 역사에 출현해온 "국"은 이 '연속체'에 담겨 이어온 여러 차원의 속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정치적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적 차원(한인), 지리적 차원(중원), 문화적 차원(중화 문화) 등 여러 요소와 결합해 있었다.[36] 이러한 제 요소들은 새로운 "국"(왕조)이 성립할 때 그 정치 합법성을 승인받는

許紀霖·宋宏 編, 『現代中國思想的核心觀念』,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34 『左傳』에는 중심이 권력을 크게 갖고 말단으로 갈수록 권력이 작아지는("本大而末小") 권력 구조에서 "천자가 國을 세우고, 제후가 家을 세우며 …" 등등의 분봉제의 권력 분점 구도를 설명한다. 『左傳』 卷2, 桓公二年, 長沙: 岳麓書社, 1988, 16쪽. 『禮記』 "禮運篇"에서는 "天下爲公"의 大同 이상에 미치지 못하지만 賢者에 의한 차선의 이상이 펼쳐지는 小康의 질서를 "天下爲家"로 표사했다. 家가 공천하를 멀리 지향하면서 국가 개념에 결부되는 형태는 이후 중국 국가 전통 속에서 계승되었다.

35 許紀霖, 2017, 『家國天下 -現代中國的個人,國家與世界認同』,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참조. 때문에 허기림은 "국"보다 "가", "천하"가 더 중요한 공동체의 범주라고 파악한다.

36 이성규, 2014, 「왜 아직도 '중국'인가?」, 김광억·양인모 편저, 『중국 문명의 다원성과 보편성』, 아카넷, 448~44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왕후이(王暉)는 중국 역사에서 왕조의 "자기 전화"는 반드시 특정한 "승인의 정치" 속에서 확인을 받아야 했으며 그 과정을 통해서 왕조 간의 연속성이 자각적으로 구축되어왔다고 지적한다.[37] 민족국가의 상은 비록 수입된 서구 사상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유학을 중심으로 한 정치문화 또는 합법성 이론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러한 "승인의 정치"로부터 완전히 유리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말하자면 민족국가라는 근대적인 정치체를 구성할 때 그것을 국가=중국으로서 '승인'해주는 요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단절/연속되었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양계초뿐 아니라 이 시기 민족국가를 지향했던 많은 중국 지식인들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다.

당시 청 '제국'을 하나의 '국가'로 인식하는 양상이 진행되고 있기는 했다. 우선 대외적으로, 국제 질서 속에서 청은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국가 주체로서 역할을 부여받았던 측면이 있었다. 청조는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에서 Daicing gurun, 곧 대청국(大淸國)이 아니라 중원 외의 만주, 몽골 등 청 제국 전체를 포괄하는 '중국'이라는 의미의 Dulimbai gurun이라는 국호를 사용했다.[38] 청조는 지배 판도에 포함된 제 지역을 포괄해서 하나의 국가로서 권리를 행사했던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 지배 판도 내 각 지역 간의 분절적인 구도가 차츰 약화되면서 결합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한인 관료, 지식인이 기존에 "절역(絶域)"으로 인식했던 '비중국' 지역에 대한 접근이 확대되고 있었다. 가경 이후 "서북사지(西北史地)"에 대해 관심을 갖는 한인 지식인이 적지 않았는데, 양계초는 그것이 도광 시기에 "현학(顯學)"을 이루었다고 평가

37 汪暉, 2008b, 「如何詮釋"中國"及其"現代"?」, 『現代中國思想的興起』 上卷 第1部 "理與物", 北京: 三聯書店.

38 Gang Zhao, 2006, "Reinventing China: Imperial Qing Ideology and the Rise of Modern Chinese National Identity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John Hopkins University, *Modern China*, Volume 32 Number 1, Jan, p. 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했다.[39] 이러한 관심은 청말에 행성(行省) 설치 등 더 적극적인 방식의 건설 제안으로까지 이어졌다.[40] 신강(1884년 건성), 봉천, 길림, 흑룡강의 동삼성(1907년 건성) 지역은 명대 18성 지역에 더해져 22성으로 묶여 지칭되었다.

그렇지만 민족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청을 곧바로 하나의 통합적인 정치 단위, 문화 단위로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양계초는 청 판도와 인구의 통합성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충분치 않았다. 그는 1902년 「중국지리대세론(中國地理大勢論)」에서 중국은 "본부(18행성)"와 "속부(만주, 몽고, 회부, 서장)"로 구성되며, 천연적으로 "대일통(大一統)"이 이루어지는 단일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글에서 대일통의 근거를 "지세(地勢)"에서 찾았다. 그는 "중국은 천연의 대일통의 나라다. 인종이 일통하고 언어가 일통하고 문학이 일통하고 교의가 일통하고 풍속이 일통하니, 그 근원은 지세에 연유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기술했다.[41] 지리결정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설명은 "과학"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지만,[42] 현실의 청은 결코 인종, 언어, 문학, 교의, 풍속이 "일통(一統)"한 국가가 아니었다.

양계초의 민족 인식은 한족 중심의 전통적인 천하관, 화이지변의 연장선 위에 있는 면이 강했다. 그는 1905년 「역사상 중국 민족의 관찰(歷史上中國民族之觀察)」이라는 글에서, 중국의 "대일통"의 판도를 한족이 중심이 된 민족 통합의 기제가 펼쳐진 공간으로 파악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중원의 족(族)은 중원 주변의 여러 족과 "변강(邊疆)"을 형성했으며 변강은 이들이 서로 부단히 교류, 융합하는 동태적 공간으로 존재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변강의 구조는 삼대에

39 梁啓超, 2016, 『中國近三百年學術史』, 北京: 商務印書館, 380쪽. 양계초는 그 주요 인사로 기운사, 장목, 하추도, 심요, 위원, 공자진, 요영, 유정섭, 홍량길 등을 들고 있다.

40 龔自珍, 1975, 「西域治行省議」, 『龔自珍全集』,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05~112쪽.

41 梁啓超, 1902, 「中國地理大勢論」, 『飮冰室文集』 10, 77~78쪽.

42 김승욱, 2020, 「중국 근대 초기 역사학에서 민족 개념의 수용과 과학관-량치차오(梁啓超)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6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 청말까지 지속되었다.[43] 그는 중국의 국가 전통 속에서 이어져온 인구 요소(漢人)가 중심이 되어 민족국가의 민족적 통합을 형성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청의 판도와 인구 집단을 유지하면서 통합적인 국가, 민족을 형성한다는 양계초의 인식은, 당시 만주족 청조에 대해 종족적인 분리 정서를 강하게 드러냈던 혁명파 인사들의 그것과 대비되는 것이었다. 그는 1903년 「정치학 대가 블룬칠리의 학설(政治學大家伯倫知理之學說)」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우리 중국이 민족을 말한다면, 마땅히 소민족주의(小民族主義) 말고 대민족주의(大民族主義)를 제창해야 한다. 소민족주의는 무엇인가? 한족(漢族)이 국내의 다른 족을 대하는 것이다. 대민족주의는 무엇인가? 국내의 본부, 속부 제 족이 합쳐서 국외의 제 족을 대하는 것이다. 중국이 동화력이 강한 것은 동서 역사가 공인하는 바다.[44]

결과적으로 볼 때, 양계초가 제시한 대민족주의는 오늘날 중국 민족주의의 기본 틀이 되었다. 청을 이어 출현한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은 기본적으로 청의 판도와 인구 집단을 분해하지 않은 채로 새로운 국가 체제를 수립했다. 그런데 청말 시점에서 대민족주의는 청 체제의 분절적 구도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가 전통 속에서 그 판도와 인구를 통합해온 요소들이 민족국가 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그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강조된 것이었다. 서구 역사에서 민족국가가 제국 질서 속에 종족, 언어, 종교, 풍속 등에서 분절적인 특성이 각기 독립적인 정체를 만들어내면서 출현했던 것을 감안하면, 청 '제국' 속의 분절적 구도는 제국을 해체하는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43 梁啓超, 1905, 「歷史上中國民族之觀察」, 『飮冰室文集』 41, 4~12쪽.

44 梁啓超, 1903.10.4, 「政治學大家伯倫知理之學說」, 『新民叢報』 第38,39合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청의 판도와 인구 집단의 분절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 통합성이 일방적으로 강조된 것은, 민족주의의 제기 자체가 외압에 대한 위기의식에 의해 강한 자극을 받았던 것과 관련이 있다. 당시 중국 지식인들은 중국이 "과분"되고 중국인과 중국 문화가 도태, 소멸할 것이라는 위기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진화론, 인종론 등은 그 인식 기반이 되었다. 장하오(張灝)는 "합군구국(合群救國)", "보국보종(保國保種)"의 절박함은 중국 민족주의 형성의 선결 조건이라고 말한다.[45] 또한 무라다 유지로(村田雄二郎)는 중국 민족주의에 미친 외압의 자극을 "의화단 콤플렉스"라고 표현하면서, 외압의 자극으로 발원한 민족주의는 그 과정에서 받은 굴욕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팽창주의적으로 발전할 여지가 강하다고 지적한다.[46] 민족주의의 형성에서 외압을 주목하는 시각은 그 동기의 타율성을 부각하는 설명이 되기 쉬우며, "콤플렉스"라는 표현까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중국 민족주의가 시작부터 내부 문제에 대한 고려보다 외부 문제에 대한 대응에 상대적으로 집중했던 특성이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민족주의에는 대내적 측면과 대외적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내적 측면이 "국가" 범주 안에 포함된 요소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측면이라고 한다면, 대외적 측면은 "국가", "민족"으로 결집한 공동체의 외부 집단, 세력과의 관계에 대한 측면이다. 전자의 측면에서 구성원들이 해당 정치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속에서 정치적 권리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며, 또한 그러한 상호 간의 정치적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의 민족(국민)으로서 정체성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후자의 측면에서는 외부 집단, 세력에 대해 해당 정치체가 지향하는 가치 또는 공동체로서 내포한 문화적 특성을 부각함으로써 하나의 민족(국민)으로서의 정체성 인식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청말 중국 민족주의가 제기되었을 때 외압의 자극 아래 그 대외적 측면

45 張灝, 2011, 「關于中國近代史上民族主義的幾点省思」, 許紀霖·宋宏 編, 『現代中國思想的核心觀念』,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75~281쪽.

46 村田雄二郎, 2009, 「中華民族論の系譜」, 飯島渉·久保亨·村田雄二郎 編, 『シリーズ20世紀中国史1 中華世界と近代』, 東京: 東京大学出版社, 207~22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강조된 면이 있었다. 말하자면 대외적으로 국가, 민족의 외연을 그려내는 것이 우선시된 반면 대내적으로 그 분절적 구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깊이 주목되지 않았다.

Ⅲ. 오족공화(五族共和)의 한계

1912년 건립된 중화민국은 "오족공화(五族共和)"의 체제로 구성되었다. 손문은 1912년 1월 1일 「임시대총통선언서(臨時大總統宣言書)」를 통해 임시정부가 담당할 정무의 방침을 "민족, 영토, 군정, 내치, 재정" 5개 부문의 통일로 요약했다. 이 가운데 우선 든 것은 "민족의 통일"이었다. 그는 이에 대해 "국가의 뿌리는 인민에게 있다. 한(漢), 만(滿), 몽(蒙), 회(回), 장(藏) 제 지역을 하나의 나라로 합치는 것, 즉 한, 만, 몽, 회, 장 여러 족을 하나의 사람으로 합치는 것. 이를 민족의 통일이라고 말한다"고 기술했다. 1월 11일 각성대표회의는 「중화민국임시정부조직대강(中華民國臨時政府組織大綱)」을 통과시켰는데, 이때 홍(紅), 황(黃), 남(藍), 백(白), 흑(黑) 오색기를 중화민국의 국기로 결정했다. 오색기는 오족공화의 상징이 되었다. 손문은 대총통직을 원세개(袁世凱)에 넘긴 뒤, 1912년 9월 북경, 장가구, 태원 등지에서 팔기(八旗)를 비롯한 각 족의 조직을 만나 신생 "오족공화" 체제에서 민족의 통합성을 강조했다.[47]

오족공화는 혁명을 '주도'한 혁명파의 민족 구상과는 거리가 있는 결과였다. 1894년 손문이 조직한 혁명파 결사 흥중회(興中會)의 서사(誓詞)는 "달로(韃虜)를 몰아내고 중화를 회복하여 합중정부(合衆政府)를 건립한다"라는 구절로 시작된다. 여기서 "달로"는 만주족 청조를 가리킨 것이고 회복해야 할 "중화"는 명대의 18개 행성을 지칭한 것이다. "중화" 안에 만, 몽, 회, 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1902년 추용(鄒容)이 『혁명군(革命軍)』에서 제시한 "중화공화국(中華共

47 村田雄二郎, 2009, 앞의 글, 218~22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和國)" 25조 강령에는 "중국 안에 거주하는 만주인을 구축"하고 "한종(漢種) 중국인의 중국"을 건립해야 한다고 명확히 표명했다. 1904년 채원배(蔡元培), 도성장(陶成章) 등이 조직한 광복회(光復會)의 서사 역시 "한족을 광복시키고 우리 산천을 돌려준다"를 주요 슬로건으로 제시하여 그들이 추구하는 혁명이 만주족에 대한 한족의 혁명임을 분명히 했다. 당시 옥중에서 광복회에 참여했던 장병린(章炳麟)은 격렬한 배만(排滿) 주장과 함께 국수주의적 입장에서 한족의 새로운 민족국가를 건립하자고 주장했다. 이러한 혁명파의 민족 지향을, 전술했듯이 양계초는 "소민족주의"라고 비판했다.

1905년경부터 『신민총보』와 『민보(民報)』 지면을 무대로 개혁파와 혁명파 간의 논쟁이 전개되었다. 이 논쟁의 주된 초점은 청조를 존속시키고 입헌군주제로 이행할 것인가, 아니면 청조를 폐절시키고 민주공화제의 새로운 국가를 건립할 것인지에 있었다. 양자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지점은, 청조에 대한 폭력적 혁명의 당부(當否), 적부(適否)에 있었다. 양계초는 혁명이 중국의 "과분"과 열강의 간섭을 초래하여 오히려 정치혁명을 저해한다는 "혁명과분론(革命瓜分論)"을 펼쳤고, 혁명파는 그러한 우려가 근거가 없다는 "민기론(民氣論)"으로 대응했다. 민족 문제와 관련해서, 혁명파는 격렬한 "배만" 주장을 제기했고 개혁파는 그 주장이 "종족혁명(種族革命)", "복구주의(復仇主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논쟁은 주지하듯이 혁명파와 개혁파의 대립 구도와 그 추이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전기로 주목되어왔다. 과거 이 논쟁은 주로 혁명파의 우세라는 관점에서 해석되었지만, 그 내용을 검토해보았을 때 개혁파의 비판에 대해 혁명파가 논리적으로 유효한 반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48] 민족 구상에 대해서도, 혁명파는 개혁파가 제기한 문제에 적절히 반박했다고 하기 어려웠다. 혁명파는 반청복명(反淸復明)의 기치를 내걸고 만주족에 대한 종족적 반감을 활용해 제제 폐절의 근거로 삼았지만, 혁명 뒤에 명 18행성 외에 만주, 몽골, 신

48 横山宏章, 1997, 『中華民國-賢人支配の善政主義』, 東京: 中央公論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강, 티베트 등 지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한 그렇게 청조가 건립한 광역의 판도를 포기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양자는 청조의 해체 방식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권력 형태에 대한 구상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많았다.[49] 특히 이들은 국가, 민족 인식과 연결된 지적 기반, 민족 형성의 방식 등의 면에서 상당히 폭넓은 공유 지대가 있었다.

1905년 왕정위(汪精衛)는 『민보』 1, 2호에 「민족적 국민(民族的國民)」이라는 글을 연재해서, 민주공화 체제의 새로운 국가의 기반으로서 "국민" 형성의 의의에 대해 논했다. 그는 여기서 종족적 개념인 "민족"과 정치적 개념인 "국민"을 구별하면서, 민족이 국민으로 진화해 국가와 밀접히 결합해서 국민국가(민족국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0] 그의 주장은 국민국가(민족국가)의 인구 단위인 국민(민족)을 법적 실체로서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이론은 손문과 국민당의 민족주의 이론에 중요한 참조가 되었다.

민족의 국민으로의 진화에 대한 왕정위의 설명은, 블룬칠리의 국가론에 기반을 둔 것이다. 전술했듯이 블룬칠리는 종족적·문화적 개념인 민족(nation)이 국가 관념과 그것을 실행할 욕구를 가졌을 때 국민(volk)으로서 국민국가(민족국가)를 세울 자격을 갖는다고 보았다. 이때 왕은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가 복수의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에 비해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생각에 민족이 동일한 국가가 구성원 간의 평등, 자유를 확보하는 데 유리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한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중국 민족의 진화 역사를 설명하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민족 동화가 진행되어온 유형은 네 가지, 즉 ① 동등한 힘을 가진 종족들이 통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는 것, ② 정복

49 양계초의 "開明專制"론은 군주 권력을 유명무실화하는 "虛君共和"론이었다. 桑兵, 2018, 「辛亥康有爲的虛君共和論」, 『中山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8年第4期.

50 汪精衛, 1907.10.20, 「民族的國民」, 『民報』 第1號; 汪精衛, 1907.11.26, 「民族的國民」, 『民報』 第2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 다수의 종족이 정복당한 소수의 종족을 흡수하는 것, ③ 정복한 소수의 종족이 다수의 종족을 동화하는 것, ④ 정복한 소수의 종족이 정복당한 다수의 종족에 동화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도식 속에 한족은 청조 이전에는 원(元), 위진남북조 시기를 제외하고는 ②와 같이 소수 종족을 동화해왔는데, 만주족 정권이 수립된 뒤 ③으로 전락해 동화될 위험에 처했으나, 이제 국민주의(민족주의)로 나아가 자기 보전의 필요성을 자각했기 때문에 결국 만주족은 흡수되거나 제거될 것이고 결국 ④로 나아갈 것이었다. 왕정위의 논의는 "한 국가 한 민족"이라는 민족국가의 이상형에 맞춰져 있었다. 양계초도 한족 중심의 민족 통합이라는 방향성에서 멀지 않은 지점에 있었지만, 문화 접합(acculturation)의 방식에서 동화(assimilation)의 역할과 정도를 더 결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데 구별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양계초와 왕정위의 경우를 통해 보면 개혁파와 혁명파의 국가론, 민족론은 공통점이 많았다. 민족국가라는 새로운 정치체는 서구의 선례와 개념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민족국가에 대한 이해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양자는 모두 블룬칠리의 국가론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지적 자원을 공유했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한족 중심 인식이다. 양자는 모두 한족을 중심으로 한 동화를 통해 근대국가의 민족으로서의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했다. 비록 양자가 구상한 민족의 구체적인 범주는 "대민족", "소민족"으로 대비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었다고 해도, 그 민족 구조는 한족을 중핵으로 한 중층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이는 이들의 국가 구상이 모두 중국의 기존 국가 전통에서 완전히 떠나서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건국의 정치적 구도에서 혁명파의 반만 구호는 취약했다. 혁명파는 "소민족주의"를 자칭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비판은 근거가 있었다. 혁명파 인사들이 만주족 정권을 붕괴시킨 뒤에 그 영토와 민족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손문이 일본에 혁명 원조를 구하면서 만주 이권을 양여하는 '밀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신빙성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있는 사실로 밝혀져 있다.[51] 혁명파의 민족론은 중국의 분열도 감수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혁명을 수습하고 신정권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견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중화민국이 오족공화로 귀결된 것은, 직접적으로는 임시정부를 성립시킨 남북화의(南北議和)에서의 협의 결과다. 이 과정에서 오족공화를 주로 제창한 것은 남방 측이 아니라 "만·몽·회·장에 대한 우대"를 주장한 북방 측이었다고 지적된다.[52] 그런데 청조의 판도를 그대로 새로운 국가의 판도로 삼는 구상은 남북의화 이전에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예컨대 1911년 11월 15일 양도(楊度), 왕정위 등이 조직해 남, 북 쌍방에 전쟁 중단과 국민회의를 통해 "군주(君主)"인지 "민주(民主)"인지의 정체 결정을 권고했던 국사공제회(國事共濟會)는, 「선언서」에서 22행성과 번속(藩屬)(몽골, 서장, 회부)을 포함한 영역을 신국가의 영토로 상정했다.[53] 이는 남북강화 이전 상해, 북경 등지에 존재했던 "대민족주의"적인 국가 건립의 여론을 반영해주고 있다. 청조로서는 "만·몽·회·장에 대한 우대"가 조건으로 수용된다면 이러한 신국가 구상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청으로부터 독립한 각 성의 입장에서도 신국가에서 권력을 공향(共享)하며 이를 수용했다.

오족공화의 개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사상적 계보 속에 주목되는 인물로 양도가 있다. 양도는 군주입헌을 주장했던 개혁파 인물로, 그가 1907년 1~5월에 걸쳐 『중국신보(中國新報)』에 연재한 「금철주의설(金鐵主義說)」에서 언급한 "오족입국(五族立國)", "오족일가(五族一家)" 등의 개념은 무창기의 이

51 楊天石, 2002, 「孫中山與"租讓滿洲"問題」, 『從帝制走向共和』,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52 片岡一忠, 1984, 「辛亥革命期の五族共和論をぁぐって」, 田中正美先生退官紀念論文集刊行会 編, 『中國近現代史諸問題』, 279~306쪽. 張謇은 '일본처럼 규모가 작고 혈통이 순일한 민족은 입헌군주 정체가 적합하지만 국토가 넓고 종족이 하나가 아니며 풍속이 각기 다른 민족은 "민주공화의 정치"가 적합하다'고 주장해 오족공화가 창의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53 桑兵, 2015, 「辛亥國事共濟會與國民會議」, 『近代史研究』 2015年 第2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후 오족공화 주장이 등장하게 되는 주요한 연원으로 지목된다.[54] 그는 과거 중국은 "중국이 곧 세계"라는 관점에서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제 "세계의 중국"으로서 다른 국가와 우열을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로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때 그는 근대 세계에서 국가의 대내적 측면과 대외적 측면을 명확히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오늘날에 문명국은 있으나 문명세계는 없다. 오늘날 각국은 대내적으로는 모두 문명이지만 대외적으로는 모두 야만으로, 대내적으로는 오직 도리를 말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오직 힘으로만 대한다. 따라서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문명적 국가지만, 세계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야만적 세계다.[55]

그는 "문명적 국가"와 "야만적 세계"를 대비하면서 대외적으로 국가 간 경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경제력("金")과 군사력("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그것을 "금철주의"라고 명명했다. 이런 인식하에서 그는 중국 내 인구의 "국민"으로서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만, 한, 몽, 회, 장의 오종(五種)은 모두 중국의 국민"이며 이 오족이 하나로 합해서 "중국 국민"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오족합일"의 주장은 만한을 준별하는 장병린의 첨예한 비판을 초래했다.[56]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야만적 세계"에서의 국가 경쟁이라는 대외적 측면이 일방적으로 강조되고 "문명적 국가"의 건설이라는 대내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점이다. 이는 인민을 국가에 대해 종속적으로 파악하는 그의 국가주의적인 국가론(입헌군주론)의 논리적인 특징이

54 楊度의 국가, 민족론은 이론적으로 양계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鄭大華·劉平, 2019, 「論楊度的"中華民族"觀及其歷史地位」, 『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 2019年 第2期, 102~109쪽.

55 楊度, 1907.1.20.~5.20, 「金鐵主義說」, 『中國新報』 1~5號(左玉河 編, 2015.1, 『中國近代思想家文庫·楊度卷』,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69~199쪽).

56 章太炎, 1907.7.5, 「中華民國解」, 『民報』 第15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었다.[57] 그에게 "오족"의 통합은 이같이 외부적 경쟁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일방적으로 강조된 가운데 제기된 정치적 구호였다.

정치적 구호로서 오족공화는 그것만으로는 민족 통합이라는 실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중화민국의 성립 과정에서 오족공화는 중국 민족의 통합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지만, 그것은 내용적으로 남방, 북방 권력, 지역주의 등 여러 주체의 정치적 공존과 타협을 담은 그릇이었다. 그 속에서 "오족"으로 대변되는 여러 인구 집단을 실질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한 고려되지 않았다. 요컨대 오족공화의 기치 아래 새로운 국가, 민족의 외연은 만들어냈지만 그 내포를 채우는 민족의 통합이라는 과제는 남겨질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해서 손문은 1920년 11월 4일 상해의 중국국민당 본부 회의에서, 삼민주의 가운데 민족주의에 관해 해설하면서 오족공화의 한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민족주의는 당초 만주 전제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되었다. 이 주의도 새로운 조류로 비로소 생겨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확충해서 우리 중국의 모든 각 족을 융화해서 중화민족으로 만들어야 한다. 단지 만주족의 전제를 무너뜨렸을 뿐이지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 … 어떤 사람은 "청 황실이 무너진 이후 민족주의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이 말은 정말 옳지 않다. … 지금 오족공화를 말하는데 이 오족이라는 명사는 참으로 부적절하다. 우리나라 안에 어찌 오족에 그칠 것인가? 내 뜻은 우리 중국의 모든 각 민족을 하나의 중화민족으로 융화시키고 또 중화민족을 매우 문명적인 민족으로 만든 뒤에야 민족주의가 완료된다는 것이다. 현재 아직 달성하지 못했으니, 우리는 삼민주의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뺄 수 없다.[58]

57 楊度는 『大淸新刑律』의 제정을 둘러싸고 전개된 "禮法之爭"에서 가족주의에 대한 국가주의의 실현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이는 중국 민족주의 내 국가주의의 초기 흐름으로서 주목될 수 있다. 肖艷, 2020, 「淸末"禮法之爭"與楊度的國家主義思想」, 『湘學研究』 2020年 第1輯.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위에서 손문은 중국국민당의 당장(黨章) 개수를 토론하는 자리에 참석해서 삼민주의(三民主義)와 오권헌법(五權憲法)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민족(民族), 민권(民權), 민생(民生)의 세 주의를 계속 진행해야 할 이유에 대해 언급하는 중이었다. 그는 '민족주의'는 처음에 청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기된 것이었지만 이제 중국 내 모든 민족을 하나의 중화민족으로 융화시키고 나아가 문명적인 민족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오족공화는 만주 전제의 붕괴 후 청 판도에 포함되었던 여러 민족 요소가 이탈하지 않고 새로운 국가에 결합하도록 역할을 한 구호 이상의 의미는 아니었다. 이에 그는 오족공화라는 수단적 의미의 구호를 넘어서 민족국가의 민족 형성이라는 근본적인 과제로 돌아가 그 과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한 것이다. 이 무렵 그는 오족공화에 대해 더 직접적인 비판의 언설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1921년 "광복한 뒤 세습적 관료, 완고한 구당(舊黨), 복벽(復辟)의 종사당(宗社黨)이 함께 모여서 오족공화라고 한다"고 했다.[59] 손문이 오족공화의 한계를 지적하기 시작한 이 시점은 중화민국이 수립된 지 이미 10년이 지난 뒤였다.

민족 통합의 과제에 대해서, 그 통합의 기반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추이를 관찰하는 데 한스 콘(Hans Kohn)의 분류를 참조할 수 있다. 콘은 민족주의의 형식을 정치적 민족주의(political nationalism)와 문화적 민족주의(cultureal nationalism)로 구분한 바 있다. 그는 이때 어떤 유형의 민족주의가 주류가 되는지는 해당 공동체의 사회-정치적 발전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정치적 민족주의는 근대 서구의 선진적인 사회-정치적 발전 수준을 반영한다. 근대 서구에서는 언어 등

58 孫文, 2006.11,「修改黨章的說明-在上海中國國民黨本部會議的演說(1920年11月4日)」, 黃彦 編,『孫文選集』(中册), 廣州: 廣東人民出版社.

59 孫文, 1985,「在中國國民黨本部特設駐粵辦事處的演說(1921年3月6日)」,『孫中山全集』第5卷, 北京: 中華書局, 472~481쪽. 村田雄二郎는 위의 인용 글을 손문이 민국 성립 이후로서 혁명파의 "소민족주의" 관점을 유지했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적절한 해석인지는 의문이다. 村田雄二郎, 2004,「孫中山與辛亥革命時期的"五族共和"論」,『廣東社會科學』2004年 5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문화적으로 성숙하고 이미 공동체의 범주를 형성하고 있던 국가 속에서 중산계급을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의 토대 위에 정치적 권리를 공유하는 "인민"의 국가로 체제 전환이 진행되었다. 겔러가 민족주의와 정치의 밀접한 관계를 정의한 것처럼, 정치적 민족주의는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형식으로 간주된다.[60] 한편 동구, 러시아 등 비서구 지역에서 언어, 인종, 역사 등에서의 문화적 성숙 과정을 통하여 민족성, 민족 정신 등으로 결집한 민족주의가 나타났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정치적 민족주의와 구별해서 문화적 민족주의로 지칭되었다. 이 분류 속에서 전자와 후자는 각기 이성적/감성적, 진보적/보수적 특성을 갖는다고 설명된다.[61] 이러한 민족주의의 유형 구분에는 서구 중심주의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분류를 중국 민족주의에 대입해 그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62] 사실 정치적, 문화적이라는 두 측면은 주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민족국가라는 정치체와 연결된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두 측면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민족주의에 대한 설명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더라도 그 통합 과제에 대한 접근 방식들을 관찰하는 데 유용한 참조 틀로 활용될 수 있다.

우선 정치적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신해혁명은 기존 권력인 청조에 대한 반대를 공화의 새로운 정치 체제로 수렴해갔다는 점에서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민족 형성의 측면이 있었다. 또한 민국 성립 이후 반제, 반봉건을 주제로 한

60 Eugene Kamenka, 1976, "Political Nationalism -The Evolution of the Idea", *Nationalism: The Nature and Evolution of an Idea*, London: Edward Arnold.

61 羅志平, 2005, 『民族主義-理論,類型與學者』, 臺北: 旺文社, 397~455쪽. 또한 전자는 개체의 자발적 선택이 반영된다는 면에서 공민 민족주의(civic nationalism), 후자는 집체로서의 유기체적인 결집이 부각된다는 명에서 종족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62 장하호 등 많은 학자는 이런 민족주의의 분류를 적용해서, 중국 민족주의가 문화적 민족주의, 종족 민족주의의 특색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張灝, 2011, 앞의 글, 275~28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혁명운동의 진행으로 연결되었다. 이 점에서 혁명운동은 민족주의운동과 일치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 그런데 서구 역사에서 정치적 민족주의로 분류되는 예들에서 언어 등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는 인구 집단이 정치적 공동체로 전화했던 것과 비교할 때, 중국의 경우 기존 체제 내 인구 집단의 통합성은 상당히 취약했다. 그 가운데 한족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다수의 공동체가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로 조직되기에는 그 내부에 다양한 성격과 이해를 갖는 인구 집단이 있었다. 또한 그것이 비한족 집단을 포괄하는 통합력을 발휘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양계초, 왕정위 등은 한족의 동화력을 중심으로 한 민족으로서의 통합을 전제로 정치혁명을 추진했지만, 그 정치혁명의 전제로서의 공동체적 기반은 취약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적 민족주의라는 관점에서, 중국의 민족주의는 문화적 성숙의 기반의 면에서 매우 취약했다고 할 수 있다. 민족주의는 수입된 서구 사조를 기반으로 구성된 것이었던 반면 전통 사상, 문화의 토대는 점차 약화되고 있었다. 장병린 등 혁명파는 한족에 의해 전승된 "국수"를 기반으로서 근대 민족으로서의 문화적 특성을 형성해갈 수 있다고 인식했지만, 사상, 문화 면에서 중국과 서구 간의 담론적 권위가 서구 쪽으로 편중되어가는 가운데 그것을 중심으로 근대 국가의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또한 그 상태로 비한족 소수민족을 포함해서 중국 경내의 인구 집단이 특정한 민족성, 민족 정신을 공유하는 민족으로 통합되어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와 같이 중화민국이라는 새롭게 출현한 국가 속에서 중국의 민족주의는 그 통합의 실질을 둘러싸고 여러 선택의 가능성을 앞에 놓고 있었으며 또한 그에 부수되는 해결 과제들에 직면해 있었다. 후술하듯이 이 점에서 민국 전기와 후기는 상당히 다른 전개 양상을 보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Ⅳ. 신문화와 민족주의의 분기(分岐)

1912년 3월 11일 공포된 「중화민국임시약법(中華民國臨時約法)」은 중화민국의 영토를 "22행성, 내·외몽골, 서장, 청해"로 설정하고(제3조), 그 인민은 "종족, 계급, 종교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 평등하다"고 규정했다(제5조). 입법기관인 참의원(參議院)은 "각 행성, 내몽골, 외몽골, 서장이 각기 5인을 선발 파견하고 청해는 1인을 선발 파견하고, 그 선발 파견의 방법은 각 지방이 스스로 정한다"고 규정했다(18조). 적어도 외형적으로 청 제국의 판도와 인구의 범위를 통합한, 중화민국이 수립되었다.[63]

그렇지만 민국 전기의 중국은 "중심을 상실한" 국가였다. 중화민국은 국가로서 통합된 면모를 갖추지 못했다. 북경의 '북양정부'는 중앙 권력으로서 국가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 정당성을 부정하는 혁명 세력의 부단한 도전에 직면했다. 또한 지방 권력은 중앙 권력과 거리를 유지하며 각기 독자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중앙 권력에 대해 지방 권력의 역할이 부상했던 형세는 민국의 성립 과정부터 줄곧 이어졌다. 신해혁명은 각 성의 독립 선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 구도는 제2혁명, 제3혁명에서 반복되었다. 또한 원세개 사후 출현한 군벌 할거 국면에서 지방주의적 권력의 역할은 더 강고해졌다. 군벌의 역량에 기대야 했던 것은 남방의 혁명 세력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분산적인 권력 구도는 적어도 국민정부가 북벌을 통해 다시 통일을 완성할 때까지 이어졌다.

역할이 강화된 지방주의적 권력은, 연원으로 볼 때 기존 청 체제로부터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황제 권력은 강력했지만 그 지배 영역의 규모를 감안할 때 의외로 작은 정부로 유지되었다. 중앙 권력의 지배가 전역에 관철

63 무창기의 후 각성이 독립을 선포하는 것을 기화로, 내몽고 지역에서는 1911년 11월 12일, "내몽골 독립제국"의 건립이 선포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여론의 무력 진압 주장이 있었지만, 새로 성립한 북경정부는 러시아와, 1913년 5월 20일 외몽골의 사실상의 자치를 허용하고 단지 형식적으로 종주권의 명의를 보유하는 「中俄協定」을 체결했다. 이어 1915년 6월 7일에는 「中俄蒙協定」이 체결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될 수 있었던 데는 지방 차원에서 협조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권력, 집단이 있었다. 중앙-지방의 협력 구도는 명조에 비해 더 광역의 판도를 지배한 청조에서 더 확대되었다. 이러한 지방 차원의 권력이 청조의 붕괴 과정에서 원심력을 강화하며 독자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64]

이런 가운데 새로운 국체·정체의 건설을 둘러싸고 각기 독자적인 입장을 가진 다양한 권력, 집단 간의 격렬한 대립과 경쟁이 전개되었다. 이 대립, 경쟁의 중심 구도는 중앙집권적 권력의 복원을 둘러싸고 북방의 군벌 정부와 남방의 혁명 "정부" 간에 전개된 정치, 군사적 대치였다. 그리고 이러한 중앙집권적인 국가 통일을 완성하려는 지향과는 다른 움직임으로, 성 단위의 자결주의에 근거한 국체·정체를 지향하는 "연성자치(聯省自治)" 운동과 같은 분권주의적인 흐름도 있었다. 시대의 명분과 후대의 역사 서술에서 전자가 주류를 점했지만, 정치적 혼란 속에서 기존 체제와 생활의 안정성에 밀착한 이해에서 후자와 같은 지향에 호응하는 흐름도 상당히 두터웠다고 할 수 있다.[65]

이같은 민국 전기의 상황은, 국가, 민족의 통합이라는 과제에 대해 그 해결 방향을 찾기 어렵게 하는 환경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술했듯이 손문은 "오족공화"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중화민족"이라는 하나로 융합된 민족을 형성

64 楊念群은 중국사 연구에서 국가 차원의 서사가 중심이 된 반면 국가 하위에 존재하는 지역 차원에 대한 고려가 소홀했다고 지적한다(楊念群, 2020, 「"理論旅行"狀態下的中國史研究」, 『昨日之我與今日之我-當代史學的反思與闡釋』, 四川: 四川人民出版社). 중국의 경우 근대 국가의 통제 능력의 한계라는 점에서, 중국 근현대사 연구에서 국가 하위에 존재하는 이러한 지역 차원의 권력과 분권 구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65 白永瑞는 중국 국민국가의 건설과 민족 문제의 전개 과정을 논하면서, 새로운 정치 구성체의 건설을 둘러싸고 상호 경쟁한 흐름이 있었다고는 점을 주목하면서 연성자치 운동을 주목해야 할 흐름으로 인식한다(白永瑞, 2015, 「中國國民國家與民族問題:形成與轉化」, 『思想東亞 -韓半島視角的歷史與實踐』, 臺北: 臺社論壇, 122~128쪽). 연성자치운동은 제국의 해체로부터 민족국가를 형성했던 서구 역사의 사례와 연결해볼 때 비교적인 관점에서 논의해볼 지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연성자치" 운동에 대한 평가 시각은 군벌 지배에 대한 평가와 연동되어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이들에게 정치적 공동체로서 공유할 가치나 권리, 또는 문화적 공동체로서 공유하는 특성을 부여, 보장해주는 "중심"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1910년대 중반부터 이른바 신문화운동이라고 하는 사상, 문화 차원에서의 변혁 운동이 전개되었다. 신문화운동의 발생은 신해혁명 이후의 정국 전개와 연결되는 인과적 맥락이 있었다. 중국 지식인들은 중화민국이 수립되어 민주공화의 국체·정체의 건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기대했지만, 기대와 달리 실제로는 구세력이 점차 회복하면서 내용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원세개의 제제(帝制) 복원 시도(1915), 장훈(張勳)의 복벽(復辟)(1917) 등의 자극을 받으면서, 민국이라는 명목에 상응하는 사상·문화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자각하는 지식인이 늘어났다. 이들은 중화민국이 명목으로 내건 민주공화에 상응하는 사상·문화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진독수(陳獨秀)는 제제 건립 시도를 지원한 주안회를 겨냥해, 공화 국체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공화에 반대하는 윤리, 문학 등의 구사상을 완전히 씻어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화라는 간판조차 걸 수 없게 된다고 호소했다.[66]

그런데 신문화운동은 일관된 지향을 갖는 하나의 흐름이 아니라 매우 복합적인 문화 현상이다. 그 속에는 "백화문(白話文)", "민주", "과학"과 같은 몇 개의 두드러진 구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복잡한 차원과 함의를 담고 있었다. 왕판썬(王汎森)은 당시의 복합하고 모호한 현상을 "confused period (模糊階段)"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는데, 그에 따르면 이 시기는 특정 지향점을 향한 선형의 이행(transition)이나 변신(transfomation)이 진행되는 두 안정 상태(steady-state) 사이에 위치하는 단순한 과도적 변화가 아니었다. "신문화"는

66 陳獨秀, 1917.5.1, 「舊思想與國體問題」『新青年』 第3卷 第3號; 王汎森, 1999, 「思想與社會條件-新文化運動中的兩個例子」, 余英時 等著, 『五四新論: 旣非文藝復興, 亦非啓蒙運動』, 臺北: 聯經出版, 103~144쪽. 기왕의 연구에서 이 운동은 이 주체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각종 사조가 특정 시기에 꽈배기처럼 하나로 말려 복합체를 이루었지만, 추후 어떤 시점에 다시 풀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67] 이러한 "신문화"의 영향은 민족주의의 진행과 관련해서도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작용했다. 그 안에는 '기성' 국체의 완성이나 내실을 채운다는 측면에서 참조된 사고들뿐 아니라, 인간 질곡의 해방과 사회적 생활의 개조를 지향하는, 요컨대 국가, 민족을 상대화하거나 초월하는 사고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신문화운동은 그 이전 시기의 문화적 충격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특징이 있었다. 그것은 격렬한 반전통과 전반 서구화다. 중국의 사상문화가 서구 사조에 대해 담론 권세를 역전당한 것은 청말에 이미 시작된 것이지만 그 추세는 더욱 가속하며 더 급격해진 흐름을 형성했다.[68] 전통에 대한 비판은 매우 파괴적인 양상을 띠었고 서구 사조의 수입은 더 격렬해졌다.[69] 또한 이 시기에 수입된 서구 사조 가운데는 세계주의, 무정부주의, 사회주의 등의 민족주의 정서의 형성과 거리가 있는 초국가적 사조들도 포함되어 있었다.[70]

그렇지만 신문화운동은 파괴의 측면뿐 아니라 건설의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이 측면은 반전통과 전반서구화의 주장들조차도 민족주의 논의로 수렴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세계주의와 같이 국가·민족을 초월해 보편 질서를 지

67 王汎森, 2020,「五四歷史的兩條線索」,『啓蒙是連續的嗎?』, 香港: 香港城市大學出版社, 55~88쪽.

68 羅志田, 2014,「近代中國民族主義的特色與反思」,『權勢轉移-近代中國的思想與社會』,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22~271쪽.

69 신문화운동에서 나타난 급진성은, 후일에 기존 질서와 체제에 대한 파괴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문화대혁명과 함께 문화적 급진주의로 평가되었다. 문화적 급진주의는 정치적 보수주의와 연결되어 비판되었고, 그에 상대되는 문화적 보수주의, 정치적 급진주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余英時, 2010,「中國近代思想史上的激進與保守」,『錢穆與中國文化』, 上海: 上海遠東出版社; 鄭大華, 鄒小站主編, 2011,『中國近代史上的激進與保守』,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70 근대 서구에서 전통은 민족주의가 형성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이 점에서 신문화운동에서 나타난 반전통과 전반서구화의 문화적 지향이 민족주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면, 그것은 다른 지역의 사례와 구별되는 일반적이지 않은 맥락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향하는 논의에서조차, 신문화 지식인들의 논의는 궁극적으로 국가 건설과 민족 형성의 과제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특징에 대해서 뤄즈톈(羅志田)은 신문화 지식인들이 무정부주의, 세계주의, 사회주의 등과 같은 사조를 선택했던 심리에 대해, 그들이 부득이하게 서구를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서구의 사상 자원 가운데 민족 정체성이 가장 적은 "주의"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 선택의 배후에 감춰진 민족주의적인 관심과 심리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71]

호적, 진독수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문학혁명은, 이 시기의 "신문화"의 복합적 면모와 민족주의의 관계를 보여준다. 1917년 1, 2월 호적과 진독수는 『신청년(新青年)』에 각기 「문학개량추의(文學改良芻議)」, 「문학혁명론(文學革命論)」이라는 제목의 글을 잇달아 발표했다. 문학의 문체를 구어 "백화"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72] 이는 서면 언어("文")와 구술 언어("言", "語", "話")가 분리된 양층언어(diglossia) 구조와 관화(官話)를 포함해 다양한 방언이 병존했던 구술 언어의 분절 등 제국 체제하의 분절된 언어구조를 민족국가 체제하의 통합된 언어구조로 바꾸어가는 큰 자극이 되었다. 이후 "문학혁명"을 주장한 『신청년』 지식인들은, 민국 성립 직후 독음통일회(讀音統一會)에서 제정된 "주음자모(注音字母)"를 바탕으로 언어 개혁을 추진해온 국어연구회(國語研究會) 인사들과 합류해서, 언어의 국가적 통합을 지향하는 국어운동을 전개했다.[73] 언어는 공동체의 정서를 형성하는 데 매우 핵심적인 유대 방식으로, 일상적인 구어를

---

71 羅志田, 2014, 앞의 글, 244~252쪽; 羅志田, 2011, 「理想與現實: 淸季民初世界主義與民族主義的互聯互動」, 許紀霖·宋宏 編, 『現代中國思想的核心觀念』,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335~366쪽.

72 胡適, 1917.1.1, 「文學改良芻議」, 『新青年』 第2卷 第5號, 上海: 上海群益書社; 陳獨秀, 1917.2.1, 「文學革命論」, 『新青年』 第2卷 第6號, 上海: 上海群益書社. 문학혁명은 언어 변혁 외에 사상 변혁을 포함한 언어 형식과 내용 차원을 포괄하는 문화운동으로, 언어 형식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國語運動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었다.

73 김승욱, 2022.1, 「20세기 전기 중국 국어운동의 전개-언어 통합의 과제를 둘러싼 離合」, 『역사와 담론』 제101집, 353~40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민족 언어로 만들어가는 언어 민족주의는 근대 민족주의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이 점에서 이 운동은 민족의 형성이라는 당시의 과제에 구체적으로 조응하는 것이었다.[74] "국어"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국어운동은 전국에 적용되는 표준 언어(standard language)를 민족의 언어로 만들어가려는 운동이었다. 그런데 이에 참여한 지식인들이 모두 국가·민족의 차원에서 언어 문제에 접근한 것은 아니었다. 전현동(錢玄同)의 경우 국가·민족을 초월한 세계주의적 관점에서 더 급진적인 언어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1918년 4월 『신청년』에 발표한 「중국 금후의 문자문제(中國今後之文字問題)」를 통해 한문, 한자의 폐지를 제기했다. 이 글은 진독수에 보내는 형식으로 쓰여졌는데, 그는 진이 '구사상을 완전히 씻어내지 않으면 공화라는 간판조차 걸 수 없게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 현재 중국을 구할 유일한 방법은 "한문"을 폐지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한자뿐 아니라 한어도 폐지하고 Esperanto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과도시기에 잠정적으로 한어를 유지하면서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식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75] 전현동의 이러한 인식에 대해 진독수는 부기를 달아 동조를 표시했는데, 단지 한어(國語)의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오늘날 "국가", "민족", "가족", "혼인" 등 관념은 모두 야만시대의 협애한 편견의 소산이지만 그 뿌리가 깊어 쉽게 폐지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사실 이들에게서는 국가·민족 차원의 사고와 그에 대한 초월적 사고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전현동도 위의 글에서 자신이 한문 폐지라는 근본적 해결책을 제

74 汪暉, 2008a, 「導論」, 『現代中國思想的興起』 上卷 第1部 "理與物", 北京: 三聯書店, 74~81쪽; 王東杰, 2019.4, 『聲入心通: 國語運動與現代中國』,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45쪽.

75 錢玄同, 1918.4.15, 「中國今後之文字問題」, 『新青年』 第4卷 第4號, 352~355쪽. 그는 본래 章太炎으로부터 國學을 사사한 국수주의자로서 10년 전에 吳稚暉의 萬國新語(즉, Esperanto) 채용 주장에 비판적이었는데, 이제 그 주장을 수용해 급진적인 '문자혁명'을 제기한 것이었다. 吳稚暉, 2013, 「編造中國新語凡例」, 『吳稚暉先生全集』 第5卷, 北京: 九州出版社, 35~36쪽; 王東杰, 2019.4, 위의 책, 223~235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시하게 된 동기는 "중국이 망하지 않고 중국 민족이 20세기의 문명적인 민족이 되도록 한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신문화운동의 발단은 "공화라는 간판"조차 걸기 어려워진 국체를 공고하기 위해서 사상, 문화 차원에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살펴보았듯이 신문화의 자극은 단순히 기성 국체를 확립하는 차원에 머문 것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기존 문화 전통에 대한 부정과 국가, 민족이라는 주제를 상대화하는 다양한 사조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점에서 청말부터 시작된 민족주의의 흐름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그것은 중국 민족주의가 기존의 국가 전통과 연결된 맥락에서 더 거리를 두고 다양한 시각에서 국가, 민족의 진행 방향을 탐색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역사학의 민족 담론에도 반영되었다. 이 시기 역사학에는 양계초의 신사학과 다소 다른 맥락의 신사학이 등장했다. 신문화 정서 속에서 역사학에 더욱 다양한 서구 사상이 유입되었다. 카를 람프레히트(Karl Lamprecht)의 "문화사(Kulturgeschichte)", 제임스 하비 로빈슨(James Harvey Robinson)의 "뉴 히스토리(Hew History)" 등의 이론은 특히 큰 영향을 끼쳤다.[76] 이는 중국 역사학 내에 '과학'적 학문으로서 분석 대상과 방법론을 강화한 '신사학'을 출현하게 했다. 이는 국가 하위에 존재하는 개인, 집단과 그 상호관계를 중시하는 역사 인

76 蔡元培, 蔣夢麟, 何炳松 등의 주도로 John Dewey의 실용주의(pragmatism), W. Russel의 사회개량주의, Heinrich Richert의 신칸트주의(neo-Kantianism), Auguste Comte의 실증주의(positivism), Henri Bergson의 생명철학(Lebensphilosophie), G. Herder의 역사철학, Karl Lamprecht의 문화사, James H. Robinson의 신사학 등의 사조가 수입되었다(김지훈, 2013.6, 「근대 중국 신사학의 수용과 변용-20세기 초 신사학의 수용과 『중등역사교과과정』의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학사학보』 제27권, 365~368쪽). 신사학은 19세기 랑케 류의 실증사학이 역사학을 정치사, 대인물, 국가 중심의 역사로 국한시켰음을 비판하고 이제 개별적 사실보다 사회적 사실, 보편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여 사회적 효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했으며, 정치뿐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등으로 연구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과학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의 개념과 방법론을 수용하도록 자극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식이라는 점에서, 당시 국민당이 추진하던 '국가주의'적 역사관과 대비되면서 국가, 민족을 상대화하는 시점을 확보,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었다.

고힐강(顧頡剛)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의고학파(疑古學派)"는 신문화의 영향 아래 역사학의 중요한 변화를 이끌었다.[77] 고힐강은 1920년 북경대학을 졸업하고 학교에 남아 호적, 전현동 등과 교류하면서 고대사 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특히 고대사 가운데 고전설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거짓 역사를 가려내는 데 집중했다. 당시 고대사에 대한 그의 시각은 "고대사는 누층적으로 조성되었다"는 명제로 정리되는데, 요점은 고대사는 후대로 갈수록 과장되기 때문에 그 진상을 알 수 없으며 단지 그것이 전설로 기록된 시점의 상황만 알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78] 그의 "의고(疑古)" 주장은 "신고파(信古派)"의 반론을 받았다. 그는 그에 답하면서 중국 고대사를 믿을 수 있는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타파해야 할 관념을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해 제시했다. 즉, "민족이 일원(一元)에서 나왔다는 관념", "지역이 계속 일통(一統)되었다는 관념", "고대사를 인격화하는 관념", "고대사가 황금세계였다는 관념"이다.[79] 그가 고대사에 대해 진행한

77 施耐德 著, 梅寅生 譯, 1994.1, 『顧頡剛與中國新史學-民族主義與取代中國傳統方案的探索』, 臺北: 華世出版社(Laurence A. Schneider, 1971, *Ku Chieh-kang and China's New History: Nationalism and the Quest for Alternative Traditions*,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78 그는 고문과 관련된 저작을 하나씩 분석해서 전설 속에 실린 고대사의 변천을 『累層地造成的中國古史』라는 책으로 묶으려고 했는데, 계획되고 작업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대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1923년 2월 『讀書雜誌』에 「與錢玄同先生論古史書」라는 글을 통해 발표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이 지난 2년 동안의 고대사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작업이 崔述의 『考信錄』을 계승, 진전시킨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전설 속에 포함된 고대사가 어떤 경로로 본래 면모를 상실해간 것인지에 대해 세 단계로 설명했다. 첫째, 시간이 갈수록 전설 속의 고대사는 점점 더 길어진다. 둘째, 시간이 갈수록 전설 속의 중심 인물은 점점 더 과장된다. 셋째, 어떤 사건의 확실한 상황은 알 수 없으며 단지 그 사건이 전설 속에 포함된 최초의 상황을 알 수 있다. 顧頡剛, 2015b, 「與錢玄同先生論古史書」, 『古史辨自序(上)』, 北京: 商務印書館, 1~9쪽.

79 顧頡剛, 2015a, 「答劉胡兩先生書」, 『古史辨自序(上)』, 北京: 商務印書館, 10~15쪽. 이 글은 1923년 6월 『讀書雜誌』에 게재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고변위(疑古辨僞)"의 작업은 1926년부터 1941년까지 7권으로 간행된 『고사변(古史辨)』 저술에 반영되었다.

고힐강의 역사 인식은 당시 국민정부(국민당)가 지향했던 역사관과 충돌했다. 당시 국민당은 국가의 통합을 강조하면서 중국 역사가 고대로부터 하나의 계통으로 연결되어왔다는 점을 역사적 근거로 제시하려는 의도가 강했다. "민족이 일원에서 나왔다는 관념", "지역이 계속 일통되었다는 관념"을 타파해야 한다는 고힐강의 인식은 그와 대립하는 것이었다. 그는 학문을 정치와 엄격히 분리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1923년 고힐강은 『현대초중교과서·본국사(現代初中教科書·本國史)』를 서술하면서 "전통 속 삼황오제(傳統中的三皇五帝)" 부분에서 반고(盤古)를 언급하지 않고 삼황오제에 대해서도 간략히 서술하면서 그 앞에 "소위(所謂)"라는 단어를 달아 의혹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정부의 대계도(戴季陶)는 "인민이 하나의 조상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인민의 단결을 해친다고 격하게 비판했다.[80] 고힐강은 국가, 민족의 통합이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그 목표를 위해서 학문을 희생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그는 "민족의 통일은 거짓을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속임수를 써서 결합시킨다면 일단 민지(民智)가 크게 열리고 속임수를 쓸 수 없게 될 때, 어찌 이 민족이 해산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민족적 자신감은 마땅히 이성 위에 세워야 한다. 우리는 여러 부자연스러운 연결을 끊어내고 진정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역사에서 민족은 여러 종족이 동태적으로 융화해왔으며, 이렇게 각 민족이 중국 문화에 참여해온 역사적 진상을 드러내야 민족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고힐강은 한족 중심의 문화적 통합력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둔 국민당의 민족관과 달리, 비한족 소수민족의 문화 면에서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서 매

80 王紅霞, 2014, 「《現代初中教科書·本國史》與顧頡剛的史學思想」, 『史學月刊』 2014年 第8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우 높이 평가했다. 그는 『고사변』 제1책 "자서(自序)"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전국 시대 우리나라의 문화는 분명 많은 민족이 새롭게 결합해서 매우 강건했다. 그러나 한대 이후에 군주의 전제와 유교의 농단으로 그것을 생기를 잃게 만들었다. 국민의 신체는 대부분 매우 유약했다. 천루(淺陋)한 지식, 야박한 감정, 비겁한 기개, 어느 하나도 민족의 노쇠(老衰)를 증명하는 데 부족하지 않았다. 만약 오호(五胡), 거란(契丹), 여진(女眞), 몽골이 침입해서 한족 사람이 **새로운 혈액**을 수혈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면, 한족도 지금까지 부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81]

> 만, 몽, 회, 장 제족은 현재 아직 수렵 목축하는 생활을 보내고 있으니, 상고(上古) 시대의 인민으로 간주할 수 있다. 문명이 가장 이르다고 하는 한족이 사는 18성 안에는 묘(苗), 요(猺), 동(獞), 북(狑) 등 개화되지 못한 종족이 여전히 매우 많고, 명청 양대의 "개토귀류(改土歸流)"는 아직 다 도달하지 못했다. 이러한 많은 종족이 아직 장성함(壯盛)을 말할 수 있는 데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더 나아가 어디서 노쇠(老衰)를 말할 수 있겠는가. 한족은 그 문화가 비록 노쇠하지만 전제 시대 "예는 아래로 서인에 적용되지 않는다(禮不下庶人)"는 원리 덕분에 교육이 보급되지 않아, 이 노쇠한 문화는 민중과 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한족 가운데 지식계급만 본다면 우리의 사상과 생활이 분명 노쇠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지만, 전국의 민족을 합쳐 보면 아직 유치하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국세가 이처럼 빈약한 것은 사실 병든 상태이지 노쇠한 상태가 아니다.** 교육자의 수완이 출중하기만 하면 병든 상태를 이용해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요구를 환기시킬 수 있다.[82]

81 顧頡剛, 2015, 『古史辨自序(上)』, 北京: 商務印書館.

82 顧頡剛, 2015, 위의 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힐강은 중국 역사에서 비한족 민족은 중국 문화가 노쇠하는 상황에 도달할 때 늘 "새로운 혈액"을 공급해주었으며, 청대의 노쇠한 문화도 이들을 개화시킴으로써 다시 생기를 되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고힐강은 중국 문화의 재생이 한족이 아닌 비한족 소수민족의 새로운 혈액의 수혈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중국의 "국수"를 보유한 한족만 중국 문화를 재건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격렬한 반만 주장을 제기한 장병린 등의 관점과 명백히 대비되는 것이었다.

부사년(傅斯年)은 이 시기에 중국 역사학의 과학화, 현대화를 주창하여 "과학사학"파로 지칭된다. 그는 1916년 북경대학 본과에 진학해 호적 등의 영향을 받아 신문화운동의 흐름에 합류했다. 그는 1918년 봄 라가륜(羅家倫) 등과 함께 신조사(新潮社)를 조직하고, 1919년 1월 『신조월간(新潮月刊)』을 창간해 국수파와 논쟁했다. 그는 1918년 4월 「중국 역사분기의 연구(中國歷史分期之研究)」라는 글을 발표하여 중국사를 파악하는 기본적인 인식을 제시했다. 그는 오사운동 이후 유럽 유학을 다녀온 뒤 학문과 정치를 엄격히 분리하는 입장을 갖게 되지만, 한창 신문화 '정치'에 참여했던 시기에 제시했던 틀은 이후 그의 중국사 서술에 반영되었다.

그는 시기구분의 목적이 역사의 종적 관계보다 횡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다고 보았으며, 역사에서 시간의 변천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시기별로 역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 그 역시 '신사학'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역사에서는 단순히 "조대(朝代)"의 변천을 파악하는 것에서 나아가 "세기(世期)", 즉 각 시기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그는 당시 중국의 역사 교과서에 많이 수용되고 있던 일본학자 구와바라 지쓰조(桑原隲藏)가 『동양사요(東洋史要)』(『지나사요(支那史要)』)에 제시한 시기구분은 동아시아사("遠東歷史") 차원의 시기구분이므로 그것을 그대로 중국사의 시기구분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그것을 대신해 중화(한족)를 주체로 한 시기구분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구와바라의 시기구분이 두 가지 결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분기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고, 둘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한족이 고금이 일관되어 있다고 오인한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한족의 변화와 부침"을 시기구분의 표준으로 제시하면서 중국 역사를 네 시기, 즉 ① 상세(上世): 주~위진남북조, ② 중세: 수·당~송, ③ 근세: 원~청, ④ 현세: 민국 이후로 구분했다. 그는 종족의 성격 변화가 역사의 면모를 좌우하는 요인이라고 간주했는데, 이 종족성의 측면에서 중국 역사는 동일한 기원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와바라가 진~당까지의 시기를 하나의 시기("中古")로 묶어서 "한족의 극성 시대"라고 파악한 것에 대해서, 한~당은 "일족(一族)"이 아니면 하나의 중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1중국(한대의 중국)"과 "제2중국(당대의 중국)"은 "일계(一系)"로 이어지는 중국이 아니었다.[83] 이러한 시기구분은 이후 그의 역사 연구에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84]

그의 주장은 한족 중심의 민족관에 대한 부인으로 비판받을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자신의 시기구분 방식에 대해서 혹 독자들이 "양(梁), 진(陳)이 쇠미하고 반은 오랑캐인 수, 당이 대신해 이었다는 것은 한족으로서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오늘날 통용되는 분기법은 한, 당을 하나로 합쳐서 이 허물을 감출 수 있다. 이제 그것을 둘로 나누는 것은 역사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의문을 표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자신의 답변은 "학문의 길은 오로지 참된 지식을 구하는 데 있다. 참된 지식은 허물을 말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85] 이는 고힐강이 "민족의 통일은 거짓을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이었다.

---

83 傅斯年, 2000, 「中國歷史分期之研究」, 歐陽哲生 主編, 『傅斯年全集』 第1卷, 長沙: 湖南教育出版社, 29~36쪽.

84 1931년 진인각에게 보낸 서신에서 "중국의 국체는 첫 번째는 진 나라, 두 번째는 수 나라, 세 번째는 원 나라에서 만들어졌다"했다. 그에 따르면 한은 진을 이은 것이고, 당은 수를 이은 것이며 송 또한 당을 이른 것이었던 반면, 명, 청 양대는 민족이 다르지만 그 정체는 모두 원대를 이은 것이었다. 그는 각 시대는 正俗이 크게 바뀌어 "枝分"이 따로 만들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 그 枝分의 표준은 각기 上世는 "정치 변천", 中世는 "풍속 개역", 近世는 "種族 代替"라고 정리했다.

85 傅斯年, 2000, 앞의 글, 35~3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러한 지적들은 당시 국민당과 당파 지식인들이 취하고 있던 한족 중심의 일원론적 역사관과 대립했다. "손문주의철학"의 이론가를 자처한 대계도는 고전설에 대한 조그마한 의혹 표현에도 "인민이 하나의 조상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부정한다고 격렬히 비난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청말 혁명파의 민족관에서부터 이어져온 시각이었다. 청말 장병린은 "반청복명"의 구호 아래 한족이 중국의 "국수"를 보존함으로써 새로운 민족국가를 건립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는 민국 이후 국민당 내에서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한족에 의해 보존된 중국 문화의 통합성에 대한 믿음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었다. 국민당 역시 점차 민족 통합의 과제와 한족 중심의 문화적 통합력의 한계 간의 격차를 직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힐강 등 역사학 내에서 제시된 새로운 민족 서술의 방식은, 국민당의 이러한 민족관이 안고 있던 취약점을 자극하면서 긴장을 야기했던 것이다.

역사학계와 국민당 간의 대립 구조는 중국 민족주의의 흐름 속에, 앞서 참조삼아 분별해본 정치적 민족주의, 문화적 민족주의와 같은 구도의 분기를 일정 반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고힐강은 청조를 명조와 분리해서 인식하지 않았다. 장병린이 "멸청복명"의 구호 아래 명조의 회복을 주장했지만, 고힐강은 명조가 청조와 마찬가지로 인민을 억압한 전제 권력이라고 보았다. 청말 혁명파와 국민당이 한족 중심 인식하에서 청을 명과 분리했지만, 그는 명,청을 불문하고 그 전제 권력에 대한 비억압자의 결합을 중시했다. 이는 중국 내 제족의 정치적 통합성을 중시한다는 면에서 정치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국민당의 민족 인식은 한족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동화에 의한 민족의 통합을 중시한다는 면에서 문화적 민족주의의 특징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신문화의 영향 이후 이러한 민족주의의 분기 속에서, 한족 중심 인식은 상대화되고 제 '민족' 간의 수평적 공존에 대한 고려들이 확대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 무렵 손문은 1924년 1월 중국국민당 제1차전국대표대회에서 당장(黨章)을 통과시키고 삼민주의에 대해 재해석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1월 27일 "민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주의"에 대한 강연에서 민족에 대한 정의와 전망을 제시했다.[86] 이 강연은 위와 같은 민족주의의 분기 속에서 매우 논쟁적인 텍스트가 되었다.

이 강연에서 손문은 우선 "민족주의는 바로 국족주의(國族主義)"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인이 "온통 흩어진 모래(一片散沙)"처럼 단결되지 않는 사람들로 보이는 이유는 가족주의, 종족주의만 있고 국족주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민족"이나 "국민"보다 "국족"이라는 용어가 "nation"에 대한 적절한 번역어라고 생각했다. 그에 따르면 영어에서 민족에 해당하는 단어인 "나손(哪遜, nation)"이 민족 혹은 국가라는 두 가지로 해석되며 "국족"은 그것을 반영하려는 의도였다. 그는 "민족"과 "국족"을 각기 "자연", "인공"으로 구분하면서 전자는 후자를 조직하는 힘이라고 파악했다. 이는 왕정위가 민족과 국민을 문화적, 정치적 개념으로 구분했던 것을 참조한 것으로, 그는 민족국가라는 정치체에 밀접히 연결된 통합적인 인구 집단으로서 의미를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어 그는 몇 가지 "민족"의 정의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민족이 형성되는데 "혈통", "생활", "언어(語言)", "종교", "풍습(風俗習慣)" 다섯 가지의 힘이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가 제시한 민족 형성의 기준은 "한인(漢人)"을 향해 있는 것이었다. 그는 "4억 중국인은 완전히 한인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혈통, 동일한 언어 문자, 동일한 종교, 동일한 관습으로, 완전히 하나의 민족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그는 한족 외의 '민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몽골인, 만주인, 서장인(西藏人), 회교의 돌권인(突厥人)" 등의 "외래 민족"은 그 수가 영향을 끼치지 못할 만큼 미미하다고 언급했다. 그의 강연에는 인종론에 근거한 강한 위기·대결 의식이 엿보인다. 그는 중국이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 민족 강국과의 경쟁에서 소멸될 위기에 처했으며 생존을 위해서 민족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86 孫文, 1984.8, 「民族主義」, 中國國民黨中央黨史委員會 編, 『國父全集』 第1冊, 臺北: 中央文物供應社, 壹-2~壹-5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민족주의」 강연은 국민당과 당파적 지식인들의 민족론에 이론적 권위를 부여해주었다. 한인을 중심으로 한 민족 통합을 통해 강한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그의 "민족입국(民族立國)"의 호소는 한족 중심의 문화적 통합력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두어온 국민당의 국가주의적 민족관에 힘을 보태주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손문의 강연에는 비한족 소수민족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인지와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반영되어 있다. 그가 민족의 기준으로 제시한 지표는, 이들 "약소 민족"에게 한인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민족"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수용되기도 했다.[87] 「민족주의」는 이들이 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법적 지위를 자각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해당 '민족'의 입장에서 이는, 중국 민족의 한 구성 요소로서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자결", "자치"의 방향으로 더 나아가 일본과 같은 외부 세력에 협력 상대를 구하고 이탈해가는 선택의 가능성을 부여했다고도 할 수 있다. 국민당 1전대회에서 통과되어 1924년 4월 12일 손문이 친필로 작성한 「국민정부건국대강(國民政府建國大綱)」에서는 "민족주의"에 대해 "국내의 약소 민족에 대해 정부는 마땅히 그들을 육성해서 그들이 자결(自決), 자치(自治)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88] 이는 정치적 공동체로서 '약소 민족'과 정치적 권리를 공유하는 과제를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V. 구망과 민족주의의 합류

1927년 4월 수립된 남경 국민정부는 제2차 북벌을 진행해 1928년 6월 북경에 입성했고 12월 장학량(張學良)의 "역치(易幟)"를 이끌어내며 전국 통일을 '완성'

87 종교를 민족 구성의 지표로 인식하는("以教論族") 관점은 "回教"의 민족 인식의 근거가 되었다. 金吉堂, 1936, 「回族民族說」, 『禹貢半月刊』 第5卷 第11期.

88 臺灣省黨部, 1947.2, 『國民政府建國大綱』, 臺北: 中央印書局, 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했다.[89] 그렇지만 통일은 형식적이었고 분열 상황은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국민당 내의 파벌 간 분쟁은 치열했고, 광서, 광동, 산서 등지의 군벌과의 군사적인 대결 국면도 이어졌다. 이에 더해 1930년대로 접어들어 1931년 9월 만주사변, 32년 1월 상해사변, 2월 만주국 성립 등, 일본에 의해 중국 영토가 직접 침탈받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국민정부는 당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권력 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국민당은 1931년 5월 12일 국민회의를 통해 「중화민국훈정시기약법(中華民國訓政時期約法)」을 통과시켰다. 이는 「혁명방략」(1906), 「건국대강」(1924) 등에 설정했던 "훈정" 개념을 근거로 국민당을 최고 "훈정자(訓政者)"로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당이 국가를 통치하는["이당치국(以黨治國)"] 이른바 "당-국가 체제"가 시작되었다.[90] 이는 공화 정체를 굴절시키는 독재 체제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므로 당 안팎에서 견제와 반대가 나타났다.[91] 1933년 11월에는 공산당 토벌 작전에 파견된 십구로군(十九路軍)이 "반장항일(反蔣抗日)"을 주장하며 남경정부를 이탈해 별도의 정부["중화공화국인민정부(中華共和國人民政府)"]를 건립한 복주사변(福建事變)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존망 위기에 직면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 역할을 국민당 정부에 기대하는 인식이 늘어났다. 부사년은 1932년 6월 「중국은 현재 정부가 있어야 한다(中國現在要有政府)」라는 글에서, 정부의 좋고 나쁨(好惡)을 떠나서 정부 자체의 존재가 중국의 생존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89 국민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방면에서 중앙집권적인 권력 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또 대외적으로도 국민정부는 조약 개수, 이권 회수 등을 주권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국민정부는 국가 건설(state-building)의 관점에서 연구자가 관심을 많이 갖는 시기다.

90 배경한, 2001, 「중국 국민당의 당국 체제와 "중국적 국민국가"」, 『중국현대사연구』 31.

91 약법 제정을 둘러싸고 장개석과 호한민의 입장 대립이 있었다. 호장합작은 곧 무너졌다. 김명신, 2007, 「훈정시기 약법 제정 논란과 '蔣·胡合作'의 파국」, 『동양학』 4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가장 좋은 정부가 있다고 해도 중국이 반드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법은 없다. (그렇지만) 만약 정부가 근본적으로 없다면 반드시 멸망해버리고 말 것이다"라고 썼다.[92]

국민정부의 권력 집중에 대한 지식인 사회의 비판적 태도는 전반적으로 후퇴했다. 특히 국민당의 국가주의적 지향을 견제해온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인식 전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민주와 독재 논쟁"은 그러한 변화를 반영해주는 전형적인 예였다. 1932년 5월 호적, 장정불(蔣廷黻), 정문강(丁文江), 부사년, 옹문호(翁文灝) 등은 『독립평론(獨立評論)』을 창간했다. "독립평론"이라는 제호는 당파, 편견을 떠나서 "독립적인 정신"을 유지하면서 시사, 정치 사안에 관한 평론을 게재하는 잡지라는 의미였다. 이들을 중심으로 복건사변 직후 민주, 독재를 둘러싼 논쟁이 전개되었다. 이 논쟁에서 적지 않은 인사들이 독재 쪽에 섰다.

호적은 1933년 12월 『독립평론』 79호에 게재한 「복건의 큰 변국(福建的大變局)」이라는 글에서 복건사변이 초래한 국가 분열의 위기에 지적하면서 국가 통합과 단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복건에서 발생한 '변국'이 "항일 구국", "당치 취소", "인권 보장"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는 국민당에 반대하는 군인, 정객들이 벌인 책동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항일구국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항일구국이라는 간판을 내걸지만 사실상 무력한 정부를 더욱 무력하게 만들고 단결되지 않은 국가를 더욱 분열하게 만들고 있으니 그것은 "양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것이다"라고 말했다.[93] 이 글에서 호적은 당시 사람들의 애국 심리를 대변해주는 것이라며, 장정불이 7월(제59호)에 게재한 글을 인용했다. 장정불은 앞서 국가 간 경쟁에서 시급한 것은 "모두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며 그 외의 "다른 일은 장래에 다시 말하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

92 傅斯年, 1932.6.19, 「中國現在要有政府」, 『獨立評論』 製5號.

93 胡適, 1933.12.3, 「福建的大變局」, 『獨立評論』 第79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호적의 글에 대한 호응이었는지, 장정불는 곧 80호에 「혁명과 전제(革命與專制)」라는 글을 게재해 전제 정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중국에서 국가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혁명이 아니라 전제라고 하면서, 그 입론의 근거를 역사 속에서 찾았다. 그에 따르면 서구 각국의 역사는 모두 왕권과 전제를 거쳐 통일적인 민족국가를 형성해왔으며, 아직 "왕조국가(朝代國家)"에 머물러 있는 중국이 민족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튜더, 프랑스의 부르봉, 러시아의 로마노프와 같이 전제 정치의 단계를 거쳐야 했다. 그는 각국의 정치사를 "국가를 세우는 것(建國)"과 "국가를 이용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의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면서 중국은 그 첫 번째 단계의 공작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중국 국민은 그것을 위한 기본적인 정치적 소양을 결여하고 있으며 민주공화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단지 내란만 있을 수 있을 뿐 진정한 혁명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의 생각에 중국의 당면 과제는 "국가가 존재하는가 여부의 문제이지 어떤 국가인가의 문제가 아니었다".[94]

이에 대해 호적은 81호, 82호에 연달아 「건국과 전제(建國與專制), 「건국과 전제를 재론함(再論建國與專制)」이라는 글을 게재해 장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95] 그는 우선 장의 논지에 대해 세 가지 문제, 즉 ① 전제는 건국의 필요 단계인가? ② 중국은 수천년 동안의 전제를 거쳤는데 왜 건국의 역사적 사명을 달성하지 못하고 아직 하나의 민족국가를 조성하지 못했는가? ③ 중국의 구식 전제가 건국의 직무를 해내지 못했는데, 장래의 건국은 또 신식 전제를 거쳐야 하는가?를 추론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 그는 역사를 엄밀히 볼 때 전제는 건국의 필요조건이 아니며 통일적 정권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적 현상일 뿐이라고 인식했다. 따라서 그는 건국은 분명 정권을 통일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권을 통일하는 것이 반드시 독재에 의지할 필요는 없다고

94 蔣廷黻, 1933.12.10, 「革命與專制」, 『獨立評論』 第80號.

95 胡適, 1933.12.17, 「建國與專制」, 『獨立評論』 第81號; 胡適, 1933.12.24, 「再論建國與專制」, 『獨立評論』 第82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말했다. 이어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그는 광의로 볼 때 중국은 이미 일찍이 민족국가를 형성했으며 현재 부족한 것은 근대 민족국가로서의 공고함과 통일성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언어 문자, 역사 문화, 정치제도 등의 면에서 이미 민족국가의 기초를 형성해왔으며 그것이 건국의 자본이 될 수 있었다. 그에게 건국은 이러한 '민족국가'가 현대 세계 속에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그는 청말 이래 축적되어온 민주 정치의 사회화 추세에 주목했다. 그는 장정불의 전제 정치 주장이 기본적으로 20년 전 『신민총보』와 『민보』의 논쟁에서 논의되었던 "개명전제(開明專制)" 주장을 재현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개명전제"는 "훈정"과도 가까운 발상으로 그것을 입헌정치의 과도적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혁명파(民黨), 개혁파(非民黨) 모두에게 승인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미 20년 동안 민주적 변화가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성취를 무시하고 다시 "신식 전제"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전제는 "영수(領袖)의 전제", "당의 전제", "계급의 전제"라는 세 가지 방식이 있으며 이러한 전제는 고도의 기술적 전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신은 그 모든 전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헌정은 "상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전제보다 유치한 정치 제도이고 오히려 정치 경험이 적은 민족을 훈련하는 데 적합하다고 보았다.

논쟁은 상당 기간 이어졌다. 장정불은 83호에 「전제를 논하며, 아울러 호적 선생에게 답함(論專制,幷答胡適之先生)」이라는 반박의 글을 게개했고, 오경초(吳景超)는 84호에 「혁명과 건국(革命與建國)」이라는 글을 통해 장정불을 지지했다. 또한 호적은 85호에 「무력통일론(武力統一論)」을 통해 장정불과 오경초에 대해 다시 반박했다.[96] 후반에 논쟁은 정문강과 호적 간에 전개되었다.[97] 그

96 蔣廷黻, 1933.12.31, 「論專制,幷答胡適之先生」, 『獨立評論』 第83號; 吳景超 1934.1.7, 「革命與建國」, 『獨立評論』 第84號; 胡適, 1934.1.14, 「武力統一論」, 『獨立評論』 第85號.

97 丁文江, 1934.12.30, 「民主政治與獨裁政治」, 『獨立評論』 第133號; 胡適, 1934.12.30, 「答丁在君先生論民治與獨裁」, 『獨立評論』 第133號. 호적은 『大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외 전단승(錢端升), 장홍(張弘), 상연생(常燕生), 수산(壽山) 등 여러 논자도 이 문제를 가지고 격렬히 논쟁했다. 민주, 자유를 신앙하던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이처럼 독재의 입장으로 돌아서고 치열한 논쟁을 전개한 것은 물론 그 배후에 "구망도존(救亡圖存)"의 인식이 작용하고 있었다. 당시 그들이 가진 위기 의식은, 정문강의 비유처럼, 독사맹수를 박멸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걱정할 여유 없이 독약이라도 삼켜야 하는 것이었다. 이는 민족국가 수립에서, 국가주의적 흐름을 상대적으로 부각시켰다.

국가주의적 흐름이 상대적 부각되는 가운데서도, 이 시기 자유주의 지식인들 내부에는 여전히 여러 분기가 있었다. 신문화운동 이래 지식인의 지식 자원은 더욱 풍부해졌고 이들의 서로 다른 지향 간에 내적 긴장이 존재했다. 이들은 구망의 위기에 직면해서 국가, 민족의 통합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내적 긴장은 이들의 민족주의를 각기 나름대로의 방향으로 진행시켰다. 쉬지린은 세 가지 민족주의 사조의 분화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양계초의 사상 속에서 그 분화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양계초의 「신민설」 이전 초기 공화주의 색채의 '국민자주공동체' 구상은 장불천(張佛泉)에 계승되어 민주주의와 내재적으로 결합한 공화애국주의["방국주의(邦國主義)"]로 발전했다. 또한 「신민설」 후기 권위주의 경향의 '국민충성공동체' 구상은 민국 성립 이후 증기(曾琦), 이황(李璜), 좌순생(左舜生)을 중심으로 한 성사파(醒獅派)에 계승되어 "민족국가 지상"을 고취하는 우익 국가주의로 전환했다, 그리고 『국성편』에서 맹아한 중국 고유의 문명적 요소를 강조한 "국성론"은 장군매(張君勱)에 의해 공동체주의 경향의 문화민족주의를 형성했다.[98] 그의 분류를 참조하면, 이 시기 자유주의 지식인 내부에는 "민권" 지향의 정치적 민족주의, "국권" 지향의 정치적 민족주의, 문화적 민족주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민족주의의 분기를 엿볼

公報』에 실린 丁文江의 논설과 그에 대한 반박 글을 『독립평론』에 함께 게재했다.

98 許紀霖, 2011, 「共和愛國主義與文化民族主義-現代中國兩種國家認同觀」, 許紀霖·宋宏 編, 『現代中國思想的核心觀念』,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수 있다.

국가와 국민당의 중심적 지위와 역할이 부각되는 가운데, 국가, 민족 통합을 위한 문화적 중심의 문제가 부각되었다. 1935년 1월 10일 왕신명(王新命), 하병송(何炳松), 도희성(陶希聖), 살맹무(薩孟武) 등 남경 지역의 교수들은 『문화건설(文化建設)』 제1권 제4기에 연명으로 「중국본위의 문화건설선언(中國本位的文化建設宣言」['십교수선언(十教授宣言)']을 발표했다. 이들은 "중국은 문화 영역에서 사라졌다"고 하면서 "중국이 문화 영역에서 고개를 들고, 중국의 정치, 사회 및 사상이 중국적 특징을 갖추도록 하려면, 반드시 중국 본위의 문화 건설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면상 "수구(守舊)도 안 되며 맹종(盲從)도 안 된다"고 하며 중국, 서구 문화에 대한 균형을 취했지만, 중국의 문화적 소멸에 대한 우려는 전통문화에 대한 보수적 입장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99] 장불천, 호적은 이 선언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서양문화를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문화가 소멸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모습을 바꾼 보수주의다"라고 평했다.[100] 이 논의는 중국 통합의 기반으로 삼아야 할 문화는 무엇인지에 대한 근원적 모색이라는 점에서, 신문화운동에서 중,서 문화 간의 선택보다 진전된 면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이 중국 문화의 통합성을 부각해온 국민당의 민족주의 노선이 강화되는 데 기여한 것은 분명했다.

1937년 7월 7일 노구교사건을 전기로 중·일 간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심중해진 국난의 상황에서 중국 지식인의 '전향'은 더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국민정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 민족의 통합을 확보하는 것을 절실한 과제로 인식했다.

고힐강은 1938년 3월 장사(長沙)에서 사념해(史念海)와 함께 『중국강역연

99 鄭大華, 2004, 「30年代的"本位文化"與"全盤西化"的論爭」, 『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 2004年 3期, 84~90쪽.

100 호적은 장불천이 『國聞週報』 12권 12기에 게재한 「西化問題之批判」에서 한 이러한 평가가 자신의 의견과 같다고 평했다. 胡適, 1935.4.7, 「編輯後記」, 『獨立評論』 第145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혁사(中國疆域沿革史)』를 출간했다. 이 책에서 그는 중국 강역이 침범되는 상황에 대해 직접적인 위기감을 표현했다. 그는 「서론(緖論)」에서 "외모(外侮)의 핍박과 국력의 쇠퇴"하에 "한, 당의 성업(盛業)이 재현되길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선민(先民)의 유토(遺土)도 간당간당 지키기 어려워, 충심이 그득하고 근심과 공포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선민이 넓혀놓은 땅을 바꿀 수 없다는 것과 한 뼘의 산하도 가벼이 적에게 내줄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서술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101] 이런 의도에서 그는 이 책의 구성에서 한족이 주변 '민족'과 투쟁을 통해 강역을 확대해 온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그는 "한족이 중원에 모여 살고 이류(異類)가 주위에서 기회를 엿보는" 가운데 "선민이 심혈을 쏟고 정력을 다해 부지런히 경영하여 비로소 오늘날의 상황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했다. 전술했듯이 그는 "민족이 일원(一元)에서 나왔다는 관념"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비한족 소수민족의 역할과 가능성을 중시하는 민족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 점에서 이 책은 초기의 개방적인 민족 인식에서 '후퇴'한 측면이 있었다.[102] 이는 물론 외압에 대한 위기 인식에 자극을 받아 나타난 현상이다.

그의 위기 인식은 이어 발생한 "중화민족은 하나" 논의에서 더 분명히 드러났다.[103] 그는 12월 운남 곤명(昆明)에서 『익세보·변강주간(益世報·邊疆週刊)』을 창간하고, 이듬해 2월 이 잡지에 「중화민족은 하나(中華民族是一個)」라는 글을 발표했다.[104] 그는 현대의 정치 개념으로 볼 때 중국에는 단지 하나의 "민족"만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민족"이라는 두 글자를 절대 신중하

101 顧頡剛·史念海, 1938.3, 「緖論」, 『中國疆域沿革史』, 中國文化史叢書, 長沙: 商務印書館, 1~4쪽.

102 施耐德 著, 梅寅生 譯, 앞의 책 참조.

103 馬戎, 2016.10, 「如何認識"民族"和"中華民族"-回顧1939年關于"中華民族是一個"的討論」, 馬戎 主編, 『"中華民族是一個-圍繞1939年這一議題的大討論』,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04 顧頡剛, 1939.2.13, 「中華民族是一個」, 『益世報·邊疆週刊』 第9期(馬戎 主編, 2016.10, 위의 책, 34~4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게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대내적으로 어떤 민족의 구분이 없으며, 대외적으로 단지 하나의 중화민족만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통상적으로 언급하는 "오대민족"은 "민족"으로 지칭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가 기존의 민족 인식 자체를 번복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중국 민족이 일원적인 집단은 아니었다고 보았다. 그는 중국 문화가 여러 종족이 서로 교류 융합하면서 형성, 공향해온 "혼합적 문화"라고 인식했다. 또한 그것을 한인의 문화라고 할 수 없으며 "중화민족의 문화"라고 지칭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단지 "민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중국 경내에 거주하는 모든 인구 집단을 구분하지 말고 "중화민족"으로 지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우리가 한인으로 지칭되는 것은, 혈통이 동원(同源)이 아니며 문화도 일원적이지 않고, 우리는 단지 하나의 정부 아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일 뿐, 우리는 결코 중화민족 외에 더 다른 호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전에 중화민족이라는 이 명칭이 없었을 때 우리는 도리가 없이 단지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한인으로 지칭하기 때문에 고식적으로 스스로를 한인으로 인식하는 수밖에 없었다. 현재는 이 가장 적당한 중화민족이라는 이름이 있으니, 우리는 마땅히 이전의 불합리한 "한인"이라는 칭호를 버리고, 교통이 불편해서 생활 방식이 다소 다른 변지의 인민들과 함께 중화민족이라는 이 이름 아래 모여서 단결해서 제국주의의 침략에 저항해야 한다. (밑줄: 필자)[105]

그는 "민족"이라는 지칭이 제국주의의 분리 공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그는 중국에서 한, 만, 몽, 회, 장 등을 "민족"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오족공화" 구호의 영향이지만, 그것이 이제 제국주의가 중국을 분화, 와해시키는 개념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족공화"로 각 종족이 자기 집단을 개별 민족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민족으로서의 자기 인식은 이들이 외부의 유인에

105 顧頡剛, 1939.2.13, 위의 글, 3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조응해 "민족자결"을 명분으로 중국에서 이탈하게 하는 기인이 되었다고 인식했다. 그는 당시 일본이 동북에 만주국을 건립하고 내몽골, 신강에 대해 분리 독립을 선동하는 상황에서 이 "민족"이라는 지칭이 이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 신해혁명이 성공한 뒤 정부 속에서 "오족공화"의 구호를 내걸고, 또 홍, 황, 남, 백, 흑의 오색기를 정했다. 이 오색기는 더 명확할 것도 없이 전국의 인민 하나하나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다고 할 수 있으며, "홍, 황, 남, 백, 흑"을 "한, 만, 몽, 회, 장"과 매치해서 국민 각자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색깔에 속하는지 알게 했다. 이러한 국기는 비록 15년 동안만 사용하고 국민정부에 의해 폐지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인민의 머릿속에 심어놓은 인상은 수십 년 동안 다시는 깨끗이 씻을 수 없었다. 이에 오늘날 변강에서의 종종 위기가 조성되었다. … 이 악과(惡果)가 처음으로 파열된 것은 바로 일본인이 "민족자결"의 명목을 빌려 우리의 동삼성을 탈취하여 "만주국"을 억지로 만든 것이다. 이를 이어서 그들은 또 가짜 "대원국(大元國)"과 가짜 "회회국(回回國)"를 만들려고 한다.[106]

같은 맥락에서 그는 민족 개념뿐 아니라 중국본부, 만주, 몽고, 신강, 등 지역 개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분리 공작의 대상에 있는 동삼성, 신강성 등을 분리된 지역으로 인식케하는 "중국본부"라는 개념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본부"라는 단어가 일본의 지리 교과서에서 왔고, 그 뒤 유럽인이 "China proper"라고 번역했으며, 이 개념에는 중국을 분화시키려는 제국주의 국가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107]

> 외인(外人)은 우리의 만주를 Manchuria로 만인을 Manchus라고 칭하고, 몽골

106 顧頡剛, 1939.2.13, 위의 글, 38쪽.

107 顧頡剛, 1939.1.1, 「"中國本部"一名亟應廢棄」, 『益世報·星期論評』(馬戎 主編, 2016, 앞의 책, 29~3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Mongolia라고 몽인을 Mongolian이라고 칭하며, 신강을 East Turkistan으로, 회민을 Mohammadans으로 칭하면서, 우리의 18성은 China Proper로 한인은 Chinese로 지칭한다.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다섯 나라로 갈라지게 하고 만, 몽, 회, 장을 중국의 바깥으로 배제하는 것이다! 우리의 예전 명칭은 서역이고, 현재의 명칭은 신강성이지만, 그들은 모두 쓰지 않고 한사코 "동투르키스탄(東土耳其斯坦)"으로 지칭하는데, 매우 분명하게 그것을 서쪽의 투르크와 연접하고 동쪽의 본국 정부와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108]

고힐강의 주장에 부사년은 동조를 표명했다. 부사년은 1939년 고힐강에게 보낸 서신에서, 자신도 소수민족에 대해 "변강", "민족" 등 개념을 사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민족"이라는 단어가 손문의 「민족주의」의 강연 이후 '법률적' 효력을 갖고 또 정부 기관의 간행물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 점이 소수민족 특히 서남에서 정치적으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식했다. 그리고 "중화민족은 하나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된 것이라고 호응했다.[109]

한편, 영국에서 갓 귀국한 인류학자 비효통(費孝通)은 이견을 표명했다. 그는 민족의 정치적 통합을 위해서 경내에 다양한 민족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국에 한, 만, 몽, 회, 장, 묘, 요 등 서로 다른 혈통, 문화, 언어를 가진 인구 집단이 존재하며 이러한 집단을 당연히 민족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그는 국가, 민족의 통합은 결코 이들을 "민족"으로 지칭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각 집단 간의 정치적 평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108 顧頡剛, 1939.5.8, 「續論"中華民族是一個": 答費孝通先生」, 『益世報·邊疆週刊』 第20期(馬戎 主編, 2016.10, 위의 책, 73~83쪽).

109 傅斯年, 2002, 「致顧頡剛」, 歐陽哲生 編, 『傅斯年全集』 第7卷, 長沙: 湖南教育出版社, 205~206쪽; 周文玖·張錦鵬, 2007, 「關于"中華民族是一個"學術論辯的考察」, 『民族研究』 2007年 第3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만약 우리가 소련의 국내 민족이 공존하는 상황을 비교해보고, 또 식민지를 가진 열강이 한편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한편으로 소민족을 압박하는 상황을 보면, 우리는 한 국가 내부에서 민족 간의 균열이 발생하는 원인이 결코 민족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데 있지 않고 민족 간의 정치 면에서의 불평등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정치상으로 만약 불평등이 있다면, 불평등의 근원이 경제, 문화, 언어, 체질 어느 것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이 불평등의 사실이 늘 균열을 야기한다. 바꿔 말하면 정치상의 통일을 도모하는 것은, 반드시 "각 종족" 및 각 경제집단 간의 경계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제가 야기하는 정치적 불평등을 없애는 데 있다.(밑줄: 필자)[110]

비효통은 "민족"이라는 지칭이 제국주의의 중국 분리 공작에 활용되는 빌미일 수는 있지만 원인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렇지만 고힐강의 주장이 "애국 열정"에서 발원한 것이고 당시 형세가 불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중에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면서, 고힐강이 역사학자로서 자신도 직면하고 있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것은 서구 개념을 수용해 민족국가를 수립한다고 했을 때, "중화민족"이라는 공동체를 승인하면서 동시에 그 내부에 또 다른 공동체의 존재를 승인하고 그것을 또 "민족"으로 지칭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었다.[111]

사실 중국 민족의 구조 자체에 대한 인식에서, 양자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었다. 고힐강의 문제 인식은 단지 민족이라는 개념이 내포하는 법률적 효력이 "중화민족" 하위의 인구 집단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에 있었다. 그는 만주사변 이후 내몽골이 "민족자결"을 명목으로 자치를 선언한 무렵 만몽 지도자를 대면한 경험이 있었다. 그는 당시 "국어(國語, 북경어)"와 "한문서적"에 익숙한 덕왕

110 費孝通, 1939.5.1,「關于民族問題的討論」,『益世報·邊疆周刊』第19期(馬戎 主編, 2016.10, 앞의 책, 79~80쪽).

111 費孝通, 1999,「顧頡剛先生百年祭」,『費孝通文集』第13卷, 北京: 群言出版社, 26~3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德王) 일행이 공식적인 대화가 시작되자 돌연 몽골어를 쓰며 독립적인 "민족"으로 거리를 두는 행동을 취했던 것에 반감을 느꼈으며, 그것이 "민족"이라는 단어에 대해 고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술회했다.[112] 그는 중국 민족 내에 문화적으로 다양한 인구 집단이 존재하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가 경계했던 것은 문화적 차원에서의 다양성이 정치적 차원에서의 분리로 연결되는 것이었다. 그는 "민족"의 호명이 정치적 차원에서 분리가 허용되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에 반대했다. 이는 1924년 손문의 「민족주의」 강연에서 민족을 규정한 이래 직면했던 문제였다. 부사년이 고힐강에게 보낸 서신에서 했던 지적도 바로 이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망국 위기에서 민족주의가 직면해야 했던 근원적인 문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민족국가 건설에서 정치적 지향과 문화적 현실 간의 관계를 둘러싼 문제다. 이들은 "구망도존"을 위해 국가, 민족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분절적으로 존재하는 다원적인 '민족'을 어떻게 이 정치체에 결합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고민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의 민족주의는 정치적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기존 공동체의 결집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또한 문화적 민족주의의 관점에서도 한족을 중심으로 전승되어온 전통 문화의 통합성을 넘어서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은 정치적 지향과 문화적 현실 간의 격차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망국의 위기 아래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통합에 무게를 두고 합류하게 되면서, 문화적 현실에서의 다원적 '민족'의 존재 그리고 그에 연결되는 정치적 평등의 문제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둘러싸고 논쟁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고힐강은 문화적 차원의 다원성이 정치적 차원의 분절로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인식했다. 반면 비효통은 정치적 통합을 위해 문화적으로 다원적인 '민족'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과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112 顧頡剛, 1939.5.8, 「續論"中華民族是一個": 答費孝通先生」, 『益世報·邊疆週刊』 第20期(馬戎 主編, 2016.10, 앞의 책, 76~7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비판한 것이다. 이 점에서 "중화민족은 하나" 논쟁은 이들이 국가, 민족의 통합에서 정치적 차원과 문화적 차원을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직면하게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한 한 해답으로 비효통은 후에 "다원"적인 문화와 "일체"적인 정치를 결합해 "다원일체 구도(多元一體格局)"를 제시했다. 이는 각 '민족'의 문화적 다양성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곧이어 출현한 중화인민공화국의 민족 구조로 자리잡았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진행된 "민족식별(民族識別)" 사업은 문화적으로 구별되는 인구 집단에 법적 지위를 공인한 정책이었다. 민족식별 사업은 비한족 종족 집단의 체제 참여와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작업으로 추진되었다. 사업 이전에 각 '민족'은 언어, 종교, 습속 등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그것이 정치적 함의를 갖지는 않았다. 사실 이들의 정체성 인식이나 이들 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았으며, 식별 사업 과정에서 유도된 경우도 많았다.[113]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인위적인 민족식별 과정을 거치면서 각 민족의 특성이 자각되고 정치적으로 독자적인 신분을 형성해갔던 측면도 있었다.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중국에는 "소수민족"이 공적으로 승인되고, 중화민족과 함께 소수민족이 함께 병존하는 중층적인 민족 구조가 체제화되었다. 이때 문화적 차원의 '민족'이 정치적 차원의 민족으로 법적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 민족 간의 분리 구도와 한족 중심적인 위계 구도도 제도화되었다. 이는 고힐강이 민족을 '호명'함으로써 오히려 민족이 분열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던 것과 같은 문제로, 오늘날 중국 국가,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겨졌다고 할 수 있다.

113 Thomas S. Mullaney, 2011, *Coming to Terms with the Nation: Ethnic Classfication in Modern China*,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Ⅵ. 맺음말

중국에는 근현대를 거치면서 청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체가 출현했다.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은 민족국가를 지향하며 수립된 국가였다. 이 글은 이 국가의 형성을 이끈 사조, 운동으로서 중국 민족주의의 전개를 청말, 청말민초, 민국 전기, 민국 후기 등으로 시기를 나누어 그 추이를 검토했다. 중국 지식인들은 이 국체·정체의 변화를 추진하면서 서구 지식, 사상을 많이 흡수했다. 이는 기존 국가 전통 속에 이어온 지식체계와 함께 이들의 지적 자원을 풍부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속에서 각 집단, 세력은 자신의 지식기반과 정치·문화적 지향에 따라 상호 경쟁, 협력하면서 다양한 선택을 해왔다. 이러한 각 주체들의 선택은 역사적 전환 속에서 단절성 외에 연속성이 구성되는 방식이다. 이 점에서 우리가 중국 민족주의 안에서 다양한 지식 기반과 내적 긴장을 발견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그들의 민족주의가 공존, 협조할 수 있는 친화적인 방향으로 진행해갈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의제는 청말 서구 국가의 압도적인 위세에 대한 진화론적 위기감 아래 서구 국가와 국가론을 적극적으로 참조하며 제기되었다. 양계초는 신사학을 통해 민족국가로의 진화를 모색하면서 그 논리적 근거를 주로 일본을 통해 접한 "서학" 속에서 찾았다. 그렇지만 새로운 국가, 민족에 대한 상상이 기존 국가 전통 속에 이어온 정치 문화 또는 합법성 이론으로부터 완전히 유리될 수는 없었다. 한족, 중원, 중화문화 등 중국을 중국답게 인식하게 하는 요소들에 대한 인식적 관성을 쉽게 벗을 수 없었다. 더 중요하게는 국가(state)에 민족(nation)이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된 민족국가의 이상에서 볼 때, 청 국가(또는 제국) 속에 포함된 인구 집단 간의 분절적인 구조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정치, 문화적인 통합의 이상과 인구 집단 간의 분절 현실 사이에 편차가 존재했다. 따라서 청을 대체한 중화민국은 "오족공화"라는 민족 결집의 외연적 구조를 완성했음에도 여전히 통합적인 민족 형성의 과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민족국가로서 민족 통합은 그 통합의 방식을 둘러싸고 여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전망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정치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할 때 그 결집의 전제로서의 기존 체제 내 인구 집단의 통합성은 상당히 취약했다. 또한 문화적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문화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할 때 서구에 대해 전통 사상, 문화의 담론적 권위가 취약해가는 가운데 이들을 민족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문화적 성숙의 기반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어떤 경우라고 해도, 민족의 통합 지향과 분절 현실 간의 편차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는 중국 민족주의가 근본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과제였다.

그런데 민족국가를 지향하는 가운데 수입된 외래의 지식, 사상은 "서구"라는 단어로 간단히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청말에 이는 "서학"으로 지칭되었지만 그 안에 서로 다른 지향성을 갖는 사고가 섞여 있었다. 양계초의 국가론 속에도 이후 민족주의 사상의 분화에 단초를 제공했다고 평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가 혼재했다. 민국 성립 이후 신문화운동 과정에서 수입된 사상, 문화도 그 안의 다양한 사조가 엄밀히 구분되어 수용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꽈배기처럼 하나로 말려 복합체를 이루었지만 추후 어떤 시점에 다시 풀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새로운 지식, 사상은 기존의 지식체계 속에 더해져서 지적 자원을 크게 확충해주었다. 이 속에서 중국 지식인들은 국가, 민족의 진행 방향에 관해 더 다양한 참조점을 가질 수 있었다. 이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지식인 사회의 내적 긴장을 형성했다. 특히 "신문화"의 자극은 국가, 민족 자체에 대해 상대화하는 시각을 갖도록 했는데, 그것은 민족주의 속의 경로의존적인 진행에 대해 비판적인 논의가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역사학에서 고힐강 등은 한족 중심의 일원론적 역사관을 해체하는 새로운 민족 서사를 제시했다. 이런 상황들은 중국 지식인 사회의 지적 자원, 내적 긴장성이 민족주의 내에 더 다양한 방향으로의 모색이 나타나게 했으며 보편성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망의 위기 아래 민족주의가 합류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지식인 사회 내부의 내적 긴장은 제한적이지만 유지되면서 각기 다른 지적 기반과 정치적, 문화적 지향에 기반을 둔 민족주의 논의들이 이어졌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구망의 위기 아래 국가 권력과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통합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 시기 "독재와 민주", "본위문화" 등의 논쟁에서 지식인들이 국가, 민족의 통합의 과제에 집중하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전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의 통합 지향과 분절 현실 간의 편차를 봉합하는 과제가 정면에 제기되었다. 고힐강이 "중화민족은 하나"라는 명제를 던지면서 야기된 논쟁은 이를 반영해준다. 그는 "민족"이라는 개념을 "중화민족"을 지칭하는 것 외에 한, 만, 몽, 회, 장 등의 각 족을 지칭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족을 국가 경내의 인구 집단을 포괄하는 정치적 개념으로 국한하고 각 '민족'의 문화적 다양성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 것을 경계했다. 이에 대해 비효통은 중국에는 혈통, 문화, 언어 등이 이질적인 인구 집단들이 존재하며 이들을 당연히 민족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논의들은 중국 국가, 사회의 통합 과제, 특히 정치적 차원의 통합과 문화적 차원의 통합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둘러싼 중국 지식인들의 고민을 반영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민족식별"을 통해서 각 '민족'에서 공식적인 민족의 신분을 부여했다. 소수민족에 공식적인 신분을 부여한 것은 이들에게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는 문화적으로 구별되는 집단 간의 분절, 위계 구도를 정치적 차원으로 연결시킨 측면도 있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문화적 위상은 정치적 권리로 환원될 수밖에 없으며, 한족의 중심성이 제도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민족이 문화적 차원의 의미를 넘어서 정치적 차원의 의미를 담게 되면서, 민족 문제는 정치 체제의 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속에서 민족 담론은 체제 안정의 문제와 연결되는 민감한 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오늘날 중국 민족주의가 대외적으로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양상을 드러내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 시기 중국 지식인 사회는 사상, 문화적으로 매우 적극적인 변혁을 겪었다. 이 시기에는 신문화운동 시기와 마찬가지로 "계몽"의 구호가 크게 제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되었다. 당시 사상, 문화계에는 “서학”, “신문화”와 마찬가지로 “태도의 동일성” 속에 다양한 사조가 미분화된 채로 쏟아져 나왔다. 1990년대에 여러 논쟁을 거치면서, 사조 간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이들 간의 내적 긴장이 형성되었다. 그렇지만 1990년대 이후 역사주의 등 반계몽 사조들이 등장하면서 사상, 문화계의 판도는 다시 크게 변화했다. 오늘날 중국 지식인 사회의 지적 자원은 매우 풍부하며 그들 속에 내적 긴장도 꾸준히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속에서 중국의 정치 체제가 더 개방, 민주적인 구조를 형성해가는 역량이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려워 보이지만 여전히 존재한다. 그것을 통해 중국 민족주의가 양국 간의 공존, 협력의 질서를 찾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자료

『禮記』“禮運篇”.

『左傳』卷2, 桓公二年.

顧頡剛, 1939.1.1, 「“中國本部”一名亟應廢棄」, 『益世報·星期論評』(馬戎 主編, 2016.10, 『“中華民族是一個-圍繞1939年這一議題的大討論』,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_____, 1939.2.13, 「中華民族是一個」, 『益世報·邊疆週刊』 第9期(馬戎 主編, 2016.10, 『“中華民族是一個-圍繞1939年這一議題的大討論』,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_____, 1939.5.8, 「續論“中華民族是一個”: 答費孝通先生」, 『益世報·邊疆週刊』 第20期(馬戎 主編, 2016.10, 『“中華民族是一個-圍繞1939年這一議題的大討論』,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_____, 2015a, 「答劉胡兩先生書」, 『古史辨自序(上)』, 上海: 商務印書館.

_____, 2015b, 「與錢玄同先生論古史書」, 『古史辨自序(上)』, 上海: 商務印書館.

龔自珍, 1975, 「西域治行省議」, 『龔自珍全集』,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金吉堂, 1936, 「回族民族說」, 『禹貢半月刊』 第5卷 第11期.

傅斯年, 1932.6.19, 「中國現在要有政府」, 『獨立評論』 製5號.

_____, 2000, 「中國歷史分期之研究」, 歐陽哲生 主編, 『傅斯年全集』 第1卷, 長沙: 湖南教育出版社.

_____, 2002, 「致顧頡剛」, 歐陽哲生 編, 『傅斯年全集』 第7卷, 長沙: 湖南教育出版社.

費孝通, 1939.5.1, 「關于民族問題的討論」, 『益世報·邊疆周刊』 第19期(馬戎 主編, 2016.10, 『“中華民族是一個-圍繞1939年這一議題的大討論』,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_____, 1999, 「顧頡剛先生百年祭」, 『費孝通文集』 第13卷, 北京: 群言出版社.

孫文, 1984.8, 「民族主義」, 中國國民黨中央黨史委員會 編, 『國父全集』 第1冊, 臺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北: 中央文物供應社, 壹-2~壹-50.
____, 1985,「在中國國民黨本部特設駐粵辦事處的演說(1921年3月6日)」,『孫中山全集』第5卷, 北京: 中華書局.
____, 2006.11,「修改黨章的說明-在上海中國國民黨本部會議的演說(1920年11月4日」, 黃彦 編,『孫文選集』(中册), 廣州: 廣東人民出版社.
梁啓超, 1901.11~12,「盧梭學案」,『淸議報』第98~100冊.
_____, 1902,「中國地理大勢論」,『飮冰室文集』10.
_____(中國之新民), 1902.7,「民約論巨子盧梭之學說」,『新民叢報』第11~12號.
_____, 1903.10.4,「政治學大家伯倫知理之學說」,『新民叢報』第38,39合期.
_____, 1905,「歷史上中國民族之觀察」,『飮冰室文集』41.
_____, 2015a,「論軍政民政相嬗之理」,『飮氷室合集 2』文集第2冊, 北京: 中華書局.
_____, 2015b,「新史學」,『飮氷室合集 4』文集第4冊, 北京: 中華書局.
_____, 2015c,「中國史敍論」,『飮氷室合集 3』文集第3冊, 北京: 中華書局.
_____, 2015d,「進化論革命者詰德之學說」,『飮氷室文集』12.
楊度, 1907.1.20.~5.20,「金鐵主義說」,『中國新報』1-5號(左玉河 編, 2015.1,『中國近代思想家文庫·楊度卷』,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吳景超, 1934.1.7,「革命與建國」,『獨立評論』第84號.
吳稚暉, 2013,「編造中國新語凡例」,『吳稚暉先生全集』第5卷, 北京: 九州出版社.
汪精衛, 1905.11.26,「民族的國民」,『民報』第1號.
_____, 1907.10.20,「民族的國民」,『民報』第2號.
蔣廷黻, 1933.12.10,「革命與專制」,『獨立評論』第80號.
_____, 1933.12.31,「論專制,幷答胡適之先生」,『獨立評論』第83號.
章太炎, 1907.7.5,「中華民國解」,『民報』第15號.
錢玄同, 1918.4.15,「中國今後之文字問題」,『新靑年』第4卷 第4號.
丁文江, 1934.12.30,「民主政治與獨裁政治」,『獨立評論』第133號.
陳獨秀, 1917.2.1,「文學革命論」,『新靑年』第2卷 第6號, 上海: 上海群益書社.
_____, 1917.5.1,「舊思想與國體問題」『新靑年』第3卷 第3號.
胡適, 1917.1.1,「文學改良芻議」,『新靑年』第2卷 第5號, 上海: 上海群益書社.
____, 1933.12.3,「福建的大變局」,『獨立評論』第79號.
____, 1933.12.17,「建國與專制」,『獨立評論』第81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____, 1933.12.24,「再論建國與專制」,『獨立評論』第82號.
____, 1934.1.14,「武力統一論」,『獨立評論』第85號.
____, 1934.12.30,「答丁在君先生論民治與獨裁」,『獨立評論』第133號.
____, 1935.4.7,「編輯後記」,『獨立評論』第145號.

顧頡剛, 2015,『古史辨自序(上)』, 北京: 商務印書館.
顧頡剛·史念海, 1938.3,『中國疆域沿革史』, 中國文化史叢書, 長沙: 商務印書館.
臺灣省黨部, 1947.2,『國民政府建國大綱』, 中央印書局.
梁啓超, 1922,『中國歷史研究法』, 上海: 上海商務印書館.
_____, 2016,『中國近三百年學術史』, 長沙: 商務印書館.
黃遵獻, 2001,『日本國志』卷4,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단행본

박장배 외 지음, 2014,『중국의 변경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이개석·이희옥·박장배·임상선·유용태, 2005,『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 고구려연구재단.

羅志平, 2005,『民族主義-理論,類型與學者』, 臺北: 旺文社.
王東杰, 2019.4,『聲入心通: 國語運動與現代中國』,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鄭大華·鄒小站 主編, 2011,『中國近代史上的激進與保守』,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趙汀陽, 1995,『天下體系』, 南京: 江蘇教育出版社(자오팅량, 2010,『천하체계: 21세기 중국의 세계 인식』, 길).
許紀霖, 2017,『家國天下-現代中國的個人,國家與世界認同』,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橫山宏章, 1997,『中華民國-賢人支配の善政主義』, 東京: 中央公論社.

Cohen, Paul A., 1984, *Discovering History in China: American Historical Writing on the Recent Chinese Pas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Fairbank, John K., 1968,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Gellner, Ernest, 1983, *Nations and Nationalism*, Basil Blackwell(어네스트 겔너 지음, 최한우 옮김, 2009, 『민족과 민족주의』,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Greenfeld, 1Liah, 1992, *Nationalism: Five Roads to Modernit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Hobsbawn, E. J., 1990,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agramme, Myth, Reality*, New York: The Press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E. J. 홉스봄 지음, 강명세 옮김, 1994,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작과 비평사).

Levenson, Joseph R., 1968, *Confucian China and Its Modern Fate: A Trilog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Mullaney, Thomas S., 2011, *Coming to Terms with the Nation: Ethnic Classfication in Modern China*,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chneider, Laurence A., 1971, *Ku Chieh-kang and China's New History: Nationalism and the Quest for Alternative Tradition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施耐德 著, 梅寅生 譯, 1994.1, 『顧頡剛與中國新史學-民族主義與取代中國傳統方案的探索』, 臺北: 華世出版社).

논문

김명신, 2007, 「훈정시기 약법 제정 논란과 '蔣·胡合作'의 파국」, 『동양학』 42.

김승욱, 2020.3, 「중국 근대 초기 역사학에서 민족 개념의 수용과 과학관-량치차오(梁啓超)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제67호.

_____, 2022.1, 「20세기 전기 중국 국어운동의 전개-언어 통합의 과제를 둘러싼 離合」, 『역사와 담론』 제101집.

김지훈, 2013.6, 「근대 중국 신사학의 수용과 변용 -20세기 초 신사학의 수용과 『중등역사교과과정』의 인식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학사학보』 제27권.

박상수, 2005, 「중국 근대 '네이션' 개념의 수용과 변용」, 『동아시아 근대 '네이션' 개념의 수용과 변용』, 고구려연구재단.

박양신, 2008.9, 「근대 일본에서의 '국민' '민족' 개념의 형성과 전개: nation 개념의 수용사」, 『동양사학연구』 104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배경한, 2001,「중국 국민당의 당국 체제와 "중국적 국민국가"」,『중국현대사연구』31.
白永瑞, 2015,「中國國民國家與民族問題:形成與轉化」,『思想東亞-韓半島視角的歷史與實踐』, 臺社論壇.
오병수, 2014,「중국 근대 역사 교과서의 자국사 구축 과정과 '중화민족'」,『역사연구』132.
_____, 2021,「중국 근대 역사 교과서의 자국사 구축 과정과 '제국'적 서술의 지속: 중화민족론을 중심으로」, 오병수 편,『한중 역사 교과서 대화: 근대의 서사와 이데올로기』, 동북아역사재단.
이성규, 2014,「왜 아직도 '중국'인가?」, 김광억·양인모 편저,『중국 문명의 다원성과 보편성』, 아카넷.
이춘복, 2009,「청말 중국 근대 "民族" 개념 담론 연구 -문화적 '民族' 개념과 정치적 '國民' 개념을 중심으로」,『중앙사론』29.
조병한, 2007,「양계초의 계몽주의 역사관과 국학」,『한국사학사학보』16.
최갑수, 2003,「내셔널리즘의 기원과 특성」,『서양사연구』31.

金天明·王慶仁, 1981,「"民族"一詞在我國的出現及使用問題」, 中央民族學院研究所 編,『民族研究論文集』.
羅志田, 2011,「理想與現實: 淸季民初世界主義與民族主義的互聯互動」, 許紀霖, 宋宏 編,『現代中國思想的核心觀念』,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_____, 2014,「近代中國民族主義的特色與反思」,『權勢轉移-近代中國的思想與社會』,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馬戎, 2016.10,「如何認識"民族"和"中華民族"-回顧1939年關于"中華民族是一個"的討論」, 馬戎 主編,『"中華民族是一個-圍繞1939年這一議題的大討論』,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桑兵, 2015,「辛亥國事共濟會與國民會議」,『近代史研究』2015年 第2期.
____, 2018,「辛亥康有爲的虛君共和論」,『中山大學學報·社會科學版』2018年 第4期.
楊念群, 2020,「"理論旅行"狀態下的中國史研究」,『昨日之我與今日之我-當代史學的反思與闡釋』, 四川: 四川人民出版社.
楊天石, 2002,「孫中山與"租讓滿洲"問題」,『從帝制走向共和』, 北京: 社會科學文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獻出版社.
余英時, 2010,「中國近代思想史上的激進與保守」,『錢穆與中國文化』, 上海: 上海遠東出版社.
王汎森, 1999,「思想與社會條件-新文化運動中的兩個例子」, 余英時 等著,『五四新論: 既非文藝復興, 亦非啓蒙運動』, 臺北: 聯經出版.
_____, 2020,「五四歷史的兩條線索」,『啓蒙是連續的嗎?』, 香港: 香港城市大學出版社.
王紅霞, 2014,「《現代初中教科書·本國史》與顧頡剛的史學思想」,『史學月刊』 2014年 第8期.
汪暉, 2008a,「導論」,『現代中國思想的興起』上卷 第1部 "理與物", 北京: 三聯書店.
____, 2008b,「如何詮釋"中國"及其"現代"?」,『現代中國思想的興起』 上卷 第1部 "理與物", 北京: 三聯書店.
張灝, 2011,「關于中國近代史上民族主義的幾点省思」, 許紀霖, 宋宏 編,『現代中國思想的核心觀念』,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鄭大華, 2004,「30年代的"本位文化"與"全盤西化"的論爭」,『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 2004年 3期.
鄭大華·劉平, 2019,「論楊度的"中華民族"觀及其歷史地位」.『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 2019年 第2期.
周文玖·張錦鵬, 2007,「關于"中華民族是一個"學術論辯的考察」,『民族研究』 2007年 第3期.
肖艷, 2020,「清末"禮法之爭"與楊度的國家主義思想」,『湘學研究』 2020年 第1輯.
許紀霖, 2005,「政治美德與國民共同體: 梁啓超自由民族主義思想研究」,『天津社會科學』 2005年 第1期.
_____, 2011a,「共和愛國主義與文化民族主義-現代中國兩種國家認同觀」, 許紀霖, 宋宏 編,『現代中國思想的核心觀念』,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_____, 2011b,「近十年中國的歷史主義思潮」,『當代中國的啓蒙與反啓蒙』,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村田雄二郎, 2004,「孫中山與辛亥革命時期的"五族共和"論」,『廣東社會科學』 2004年 5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_____, 2009,「中華民族論の系譜」, 飯島渉, 久保亨, 村田雄二郎 編,『シリーズ20世紀中国史1 中華世界と近代』, 東京: 東京大学出版社.
片岡一忠, 1984,「辛亥革命期の五族共和論をぁぐって」, 田中正美先生退官紀念論文集刊行会 編,『中国近現代史の諸問題』, 東京: 国書刊行会,
狭間直樹, 1999,「〈新民說〉略論」, 狭間直樹 編,『共同研究梁啓超-西洋近代思想受容と明治日本』, 東京: みすず書房.

Duara, Prasenjit, 2017, "The Chinese World Order and Planetary Sustainability", Ban Wang ed., *Chinese visions of world order: Tianxia, culture, and world politic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Fangyin, Zhou 2011, "Equilibrium Analysis of the Tributary System",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4, 147-178.
Kamenka, Eugene 1976, "Political Nationalism-The Evolution of the Idea", *Nationalism: The Nature and Evolution of an Idea*, London: Edward Arnold.
Wang, Ban 2017, "The Moral Vision in Kang Youwei's Book of the Great community", Ban Wang ed., *Chinese visions of world order: Tianxia, culture, and world politic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Womack, Brantly, 2012, "Asymmetry and China's Tributary System",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5.
Zhao, Gang 2006, "Reinventing China: Imperial Qing Ideology and the Rise of Modern Chinese National Identity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John Hopkins University, *Modern China*, Volume 32 Number 1, Ja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근현대 중국에서 민족 담론의 전개

– 다양한 지식 기반과 내적 긴장 –

김승욱

중국에는 근현대를 거치면서 청조를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체가 출현했다.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은 민족국가를 지향하며 수립된 국가들이었다. 이 글은 이 국가의 형성을 이끈 사조, 운동으로서 중국 민족주의의 전개 추이와 양상을 청말, 청말민초, 민국 전기, 민국 후기 등으로 시기를 나누어 검토한다. 근현대 중국의 지식인들은 서구 모델을 주로 참조하면서 중국의 국체 변화를 추진하면서 서구로부터 많은 지식, 사상을 흡수했다. 이는 기존 국가 전통 속에 이어온 지식 체계에 더해지면서, 이들의 지적 자원을 풍부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각 집단, 세력은 이렇게 갱신된 지식 자원을 바탕으로 각 시기별로 자신의 지식 기반과 정치적, 문화적 지향에 따라서 상호 경쟁, 협력하면서 다양한 선택을 해왔다. 주체들의 선택은 역사적 전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절성과 함께 연속성이 구성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민족주의에 대한 기왕의 연구에서는 서구/중국, 보편/특수의 이분법적 시각이 전반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개별 주체들에 대한 미분화된 분석은 허용되기 어려웠으며 그들의 개별적 역할 간의 차이점이 소거되기 쉬운 측면이 있었다. 이 점에서 중국 민족주의 안에서 다양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식 기반과 내적 긴장을 발견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중국 민족주의가 향후 이웃 나라와 공존, 협조하는 친화적인 방향으로 진행해갈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중국, 민족, 민족주의, 국가, 역사학, 신사학, 한인중심주의, 종족, 정치민족주의, 문화민족주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e Development of Nation Discourse in Modern Chinese History: Various Knowledge Bases and Inner Tensions

Kim Seungwook

Throughout modern times, new types of polital systems have emerged in China to replace Qing Empire. The Republic of Chin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ere established with the aim of building a nation-state. This paper examines the development of Chinese nationalism as a series of trends and movements that led to the formation of these states by dividing the period into the late Qing, the transition stage from Qing to the Republic, the early Republic, and the late Republic. Chinese intellectuals have absorbed a lot of Western knowledge and thoughts while promoting changes in this system of the states and governments. It can be said that it has enriched their intellectual resources along with the knowledge system that has continued in the existing state traditions. Among them, each group and power has made various choices by competing and cooperating with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each other according to their knowledge bases and political and cultural orientations. The choices of subjects are ways in which continuity is constructed while discontinuity showed in history. It is important that we find various knowledge bases and inner tensions within Chinese nationalism. It helps to gauge whether Chinese nationalism will proceed in a friendly direction that can coexist and cooperate with its neighbouring countries.

Keywords: China, nation, nationalism, state, history, national history, ethnic group, political nationalism, cultural nationalism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2..78.010

2002년 제1차 북일 정상회담에서의 협상전략 및 정치비용에 관한 연구

윤경민 | 경기대학교 박사과정

I. 머리말
II. 북일 정상회담에서의 정치 비용
III. 제1차 북일 정상회담
IV. 국내적 정치비용과 윈셋 전략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 국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는 전 세계에서 북한과 일본이 유일하다. 양국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지금까지 77년 동안이나 미수교 상태에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두 나라는 여러 차례 공식 국교정상화 교섭을 했으나 결렬을 거듭해왔다. ① 두 차례의 정상회담[1]과 20차례 가까운 정부 간 협상[2]을 벌였음에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 ② 국교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 ③ 양국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가? ④ 양국은 제1차 정상회담을 통한 합의 전후로 얼마만큼의 협상비용과 국내적 정치비용을 치렀는가? 이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제1차 북일 정상회담과 이

* 투고: 2022년 7월 2일, 심사 완료: 2022년 8월 9일, 재심사 완료: 2022년 8월 31일, 게재 확정: 2022년 9월 1일

1 제1차 북일정상회담은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열렸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회담에서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과거 청산, 국교정상화 교섭재개, 납치문제 재발 방지, 미사일 발사 보류 등의 내용을 담은 평양선언을 채택했다. 제2차 정상회담은 2004년 5월 22일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납치 피해자 재조사를 약속했고 납치피해자 가족 5명이 고이즈미 총리와 함께 일본으로 귀국했다.

2 북한과 일본은 1991년 1월부터 1992년 11월까지 제1~8회 국교정상화교섭을 가졌으나 결렬되었다. 이듬해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으며, 국교정상화 교섭은 한동안 열리지 못했다. 이후 클린턴 미국 행정부의 페리보고서 채택 이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개선되자 2000년 4월, 8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제9~11회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열었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어 2002년 9월 북일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개최된 직후인 10월 제12회 교섭이 재개되었다. 이후 2006년 2월 제13회 교섭과 6자회담 내에서의 북일 작업부회(working group), 별도의 양자 실무협의 등을 거쳐 2014년 스톡홀름 합의를 도출했으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일본의 대북제재로 사실상 파기되었으며 이후 지금까지 교섭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를 앞두고 벌인 국교정상화 교섭의 핵심 쟁점과 결과를 살펴보고, 자국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투입한 '국제 협상비용'[3]과 그 결과에 따른 '국내적 정치비용'[4]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 글에서는 제1차 북일 정상회담에서 노출된 양국의 협상 전략을 투레벨게임(Two-Level Games)[5]이론의 관점에서도 살펴본다. 즉, 일본과 북한이 각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의 윈셋(win-set)[6]을 축소하고 상대의 윈셋을

---

3 **국제 협상비용**이란, 국가와 국가 간의 협상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 글에서는 이 용어를 '자국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개념 정의한다. 예를 들어 일본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한 전후 처리 완성을 위해 과거 식민지배로 북한 인민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명한 것과 국교정상화 후 무상자금협력 등 대북 경제지원을 하기로 약속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의 협상비용은 납치 사실 인정과 사과, 식민지배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이 아닌 청구권 상호 포기 원칙 합의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이 합의를 위한 협상에 투여하는 비용 외에 합의 후 치러야 하는 비용도 포함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이 글에서 기술한다.

4 **국내적 정치비용**이란,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 글에서는 '타국과의 합의를 도출하거나 이행하는 데 국내의 야당, 이익집단, 협상 쟁점과 관련된 행위자가 발생시키는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가 간 합의에 따른 정권 지지율과 선거 결과로 그 비용을 측정하기로 한다. 다시 말해 타국과의 협상 타결로 정권의 지지율이 오르거나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국내적 정치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며,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은 국내적 정치비용이 크게 드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는 국가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천명한 약속을 번복하거나 지키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정치적 처벌을 받는다는 제임스 피어론의 '청중비용'과 일부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다른 개념이다. 국내적 정치비용 역시 합의를 위해 사전에 치르는 사전적 비용과 합의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사후적 비용까지 포함한다.

5 **투레벨게임(Two-Level Games)이론**은 국제협상이라는 1게임과 국제협상의 결과물을 놓고 국내 비준을 얻기 위한 2게임을 이르는 말로, 1988년 로버트 퍼트남이 학술지 *International Organization*에 게재한 「외교와 국내정치: 투레벨게임의 논리」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양면게임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6 **'윈셋(win-set)'**이란, 타국과의 협상과 관련해 국내적 합의를 얻을 수 있는 모든 합의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Robert D. Putnam, 1988, "Diplomacy and Domestic Polo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3(Summer), p. 43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확대하기 위해 어떤 전술을 사용했는지,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는지 분석한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에 즈음해 나타난 북미 관계 등 국제 정세가 북일 정상회담과 국교정상화 교섭에 미친 영향도 살펴본다.

Ⅱ. 북일 정상회담에서의 정치비용

1.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지금까지 이루어진 북일 협상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협상의 쟁점과 과정만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양국의 협상 전략을 분석하는 것에 그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간혹 투레벨게임 이론을 분석의 틀로 사용한 연구물도 있으나[7] 이를 협상비용과 국내적 정치비용 측면에서 분석하거나 청중비용이론(Audience cost theory)[8]을 적용한 연구 사례는 없다. 문헌 연구를 통한 회담의 평가와 분석, 즉 역사적 맥락에서의 회담 배경 및 성과 분석, 향후 과제 등을 조명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는 것이 현실이다. 선행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 양기웅, 1996, 「일본의 투레벨 협상전략: 북·일수교협상」, 『통일연구논총』 v. 5 no. 1, 141~188, 337~338쪽. 양기웅은 일본이 '수교'라는 북일 양국 간 이슈를 '핵'이라는 다국간 이슈와 연계지음으로써 협상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라는 제3국의 외압을 전략적으로 유도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협상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처럼 양국 간 협상의 이슈를 제3국이 관심 가진 이슈와 전략적으로 연계지음으로써 제3국의 외압을 유도하여 협상 상대방의 윈셋을 확대하거나 자신의 윈셋을 스스로 제약하는 전략을 '다자간 이슈연계전략'으로 정의했다.

8 **청중비용**이란 말과 행동의 불일치로 인해 지도자가 감수해야 하는 정치적 비용(여당 지지층 이탈, 야당 지지층의 정치공세, 정권재창출 실패, 재선 실패, 숙청, 사형 등)을 의미하며, 청중은 민주국가의 경우 시민 유권자, 독재국가의 경우 소수의 지배집단을 의미한다. James D. Fearon, 1994, "Domestic Political Audience and the Escalation of International Dispu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3(September), pp. 577~59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오일환(2003)[9]은 북일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의 양국관계의 진전 과정과 회담 성사 배경, 회담 의제 등을 문헌 분석을 통해 평가했다. 특히 정상회담의 목적은 북한의 경우 ① 경제난 극복과 ② 미국의 대북강경책 견제를 통한 정권 및 체제 생존에 있었으며, 일본은 ① 일본기업들의 북한진출 등 경제적 이유, ②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의 지지율 향상을 위한 정치적 목적, ③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안보 위협 완화, ④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질서에 대한 영향력 강화에 있었다고 분석했다.

김태운(2004)[10]은 북한 대일정책의 변천과정과 특징을 역사적 맥락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북일 정상회담의 배경과 쟁점, 평가를 북한의 관점에서 기술했다. 강태훈(2004)[11]은 북한과 일본이 각각 정상회담에 나서게 된 국내 정치 경제적 배경을 분석하고 회담 결과를 평가하면서 향후 회담 전망에 대해 기술했다. 권태환(2003)[12]은 양측의 협상전략과 더불어 딜레마에 관해 언급했는데, 북한의 딜레마로 ① 개방과 체제붕괴에 대한 우려, ② 경제난 극복을 위한 여건은 미국에 의해 조성되지만 자금원은 일본에 있고 한미일의 지원은 한국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 일본의 딜레마로는 납치, 미사일 문제 등에 따른 국민 영향력 증대를 꼽았다.

신정화(2015)[13]는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국가발전 목표를 강성대국으로 보고 목표 달성을 위한 노선으로 국방 경제 병진노선을 택했다고 지적하면서 대규모

9 오일환, 2003, 「북·일 평양 정상회담의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동북아논총』 26, 33~53쪽.

10 김태운, 2004, 「북한의 대일정책 변천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7(2), 108~134쪽.

11 강태훈, 2004,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에 관한 연구」, 『분쟁해결연구』 2(1), 125쪽.

12 권태환, 2003, 「북·일 정상회담과 수교협상 동향」, 『한일군사문화연구』 1(0), 1, 5~28쪽.

13 신정화, 2015, 「북한의 국가 발전 목표와 대일정책-김정일·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9(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경제발전 자금을 얻어내기 위해 정상회담을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회담의 목적과 쟁점, 평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정치학 이론을 분석의 틀로 삼지는 않았다.

북일 관계에 관한 연구를 통틀어서 이론적 틀을 갖고 분석한 연구결과는 손에 꼽을 정도인데, 대표적인 것이 김찬훈(2014)[14]의 연구이다. 김찬훈은 다(多)이슈, 다국가 간 중층적 상호행위를 분석하는 새로운 분석으로 '3개의 교섭공간 어프로치'를 시도했다. 즉, 일본 국내 교섭공간과 상대국 교섭공간 그리고 국제 교섭공간에서 각각 일본이 어떻게 외교적 자원을 배분했는가를 연구했다. 로버트 퍼트남[15]의 '투레벨게임' 이론을 토대로 자신만의 분석 틀을 보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글이 갖는 연구의 독창성과 가치는 북일 협상 전후로 소요된 국제 협상비용과 국내적 정치비용 산출에 초점을 맞추는 데 있다. 이 글에서는 양국이 협상 시 사용한 전략과 전술을 파악하기 위해 투레벨게임 이론을 분석 틀로 활용한다. 즉, 일본과 북한이 각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의 윈셋을 축소하고 상대의 윈셋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전략 전술을 사용했는지, 이런 전략 전술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는지를 협상비용과 국내적 정치비용 측면에서 분석한다. 또 국제 정세가 북일 정상회담과 국교정상화 교섭에 미친 영향도 살펴본다.

연구대상은 북한과 일본 간에 실시한 정상회담과 공식, 비공식 회담으로 한다.[16] 연구 범위는 2002년 9월 제1차 북일 정상회담과 이를 앞두고 2000년

---

14 金燦熏, 2014,「日本の対北朝鮮交渉パターンに関する研究-3つの交渉空間論による日朝国交正常化交渉の分析-」, 東京大学 博士学位論文.

15 퍼트남은 국가 차원에서는 여러 국내 집단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들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정치가들은 이들 집단과 연합하여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며, 국제 차원에서는 국가정부가 국외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초래하는 불리한 결과를 극소화하는 가운데 국내적 압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Robert D. Putnam, 1988, 앞의 글.

16 공식회담은 사전 사후에 개최 장소와 일시, 결과 등이 발표된 회담을 가리킨다. 제9차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등이 그것이다. 비공식회담은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당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 개최된 9~11회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으로 설정한다. 북한의 외교정책과 전술,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료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노동신문』에 게재된 기사와 논평, 북한 당국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하며 명확하게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2. 정상회담에서 발생하는 협상비용 및 국내적 정치비용

최고지도자가 전면에 등장하는 중요 협상에서는 협상비용 및 국내적 정치비용이 소요된다.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하며, 이때 양보에 따르는 비용이 바로 협상비용이다. 또 협상 결과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협상비용에 해당된다. 북한과 일본 간 협상의 주요 쟁점은 크게 ① 과거청산, ② 북한의 핵, 미사일 등 안전보장 문제, ③ 일본인 납치문제 등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북한과 일본은 특히 양국 최고지도자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국교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해결의 밑그림을 그렸음에도 국교 수립이라는 최종 목표는 이루지 못했다. 특히 납치문제가 일본 국내 여론을 움직이는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걸림돌로 작용했다.

2002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이즈미 총리와의 제1차 정상회담에서 북한 당국이 일관되게 부인해왔던 일본인 납치문제를 전격 시인하고 사과했다. 나아가 책임자를 처벌했으며, 재발 방지와 피랍이 의심되는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를 약속했다. 북한이 이처럼 태도를 바꾼 것은 납치문제를 매듭짓고 과거청산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결단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패착이

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북한 국방위원회 소속 '김철'이라고 이름을 밝힌 이른바 '미스터 X'가 가졌던 20여 차례의 비밀접촉 등을 말한다. 공식회담은 일본 정부의 발표, 일본 언론의 보도, 북한 『노동신문』 기사 등의 자료를 분석했으며 비공식 회담의 경우는 비밀 접촉 당사자인 다나카 국장의 2009년 저서 『外交の力』 및 일본의 저널리스트인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가 쓰고 오영환이 번역한 2007년 『김정일 최후의 도박』 등의 자료를 참조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었다. '5명 생존, 8명 사망'이라는 북한 측 발표는 일본 내에서 불신과 추가 의혹, 분노를 자아냈고 반북(反北) 여론의 고조를 초래했다. 이 때문에 납치문제는 정상회담 이전보다 더 큰 정치적·외교적 이슈로 부상하게 되었다. 북한으로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막대한 협상비용을 사후에 치르게 된 것이다.

반면 정상회담 직후 고이즈미 내각 지지율은 크게 올랐다.[17] 일본의 국내적 정치비용은 크게 줄어든 것이다. 국내적 정치비용은 국가 간 협상 결과인 합의가 도출되기 전후에 협상자, 즉 정권이 국내에서 치러야 하는 비용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야당이나 이해관계자, 관련 이익집단, 나아가 넓은 의미로는 일반 대중들을 설득해 국가 간 합의를 이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는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정권 지지율, 혹은 선거 결과로 표출된다.

제1차 정상회담 이후 일본 정부와 권력자들은 "납치문제 해결 없이는 국교정상화 없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론에 편승하며 정치적 입지를 확대해나갔다. 이 같은 공개적 약속은 제임스 피어론의 '청중비용'처럼 작동하기 시작했다. 대국민 약속을 철회할 수 없게 되면서 북일 협상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 최고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천명한 약속, 특히 강경책을 철회할 경우 국내 야당이나 국민의 실망에 따른 정치적 타격, 즉 선거에서의 패배와 같은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협상에 임하는 정상은 한번 공개적으로 약속한 강경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려 한다.[18] 그러나 북한에서는 청중비용이 발생

17 NHK의 내각지지율 조사 결과 정상회담 직전인 8월에는 45%였던 내각 지지율이 정상회담 직후인 9월에는 55%, 10월에는 64%, 11월에는 68%로 상승했다.

18 대표적인 사례로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이 꼽힌다.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영국 야당들이 대처 수상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면서 강경한 군사적 조치를 촉구하자 대처 수상은 아르헨티나가 도발할 경우 군사적으로 강력히 응징할 것임을 공개 천명하고 해군 함대 파견을 약속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섬을 기습 점령하자 야당들은 물론 여당인 보수당도 포클랜드섬을 탈환하지 못할 경우 대처 수상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자 대처 수상은 해군을 급파했다. 75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영국은 아르헨티나의 항복을 받고 섬을 탈환했다. 만일 대처 수상이 함대를 파견하지 않았다면 국내의 정치적 압력으로 인한 사임 또는 선거를 통한 처벌 등 국내 정치적 비용을 부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지 않았다.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위원장이 부인으로 일관하던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고 사과하고도 과거청산을 포함한 국교정상화를 통한 일본의 경제지원을 얻어내지 못했지만 김정일 위원장은 그 어떤 정치적 처벌도 받지 않았다. 여론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1인 독재국가의 특성상 청중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19]

3. 국제협상 비용 및 국내적 정치비용 절감 전략

국가 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내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국내 비준은 의회의 비준만이 아니다. 해당 합의 사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나 집단의 동의, 국민의 폭넓은 지지와 같은 여론도 포함된다. 국가 간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한 국가가 국내 비준을 받지 못할 경우 합의는 이행될 수 없다. '비자발적 배신', 즉 협상 대표자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국가 간의 합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되는 것이다.[20] 따라서 한 국가를 대표하는 협상자는 상대의 양보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비자발적 배신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것을 협상 전략으로 삼을 수 있다. 협상 비용과 국내적 정치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퍼트남은 국가 간의 협상이 두 가지 게임, 즉 국제 게임과 국내 게임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국제게임에서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치러야 하는 비

바로 그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공개적으로 천명했던 강경 대응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김지용, 2014, 「위기 시 청중비용의 효과에 관한 이론 논쟁 및 방법론 논쟁의 전개과정 고찰, 1994-2014」, 『국제정치논총』 54(4), 218쪽.

19 제임스 피어론은 민주국가의 청중비용이 독재국가의 청중비용보다 훨씬 더 크다고 주장했다. James D. Fearon, 1994, 앞의 글, pp. 577~592.

20 **'자발적 배신'**은 국가가 합의해놓고 국내 비준과 관계없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고, **'비자발적 배신'**은 국가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내 여론의 반대 등으로 비준을 얻지 못해 합의를 준수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퍼트남이 제시한 새로운 개념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용, 즉, 협상비용이 소요된다. 이 비용은 합의가 도출되기 전 협상 과정에서 치러야 하는 비용이지만 때로는 합의 후 상대국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국내게임에서는 국내적 정치비용이 발생한다. 국내적 압력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협상에 나서는 대표자는 상대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비자발적 배신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즉 자국의 윈셋을 축소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상대 국가가 비자발적 배신의 가능성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국내의 강경파 집단에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는 '발목잡히기' 전술이다. 둘째, 협상 사안을 정치쟁점화해서 국내 여론을 강경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사안의 정치쟁점화' 전술이다. 두 가지 모두 자국의 윈셋 사이즈를 줄임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협상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꼽을 수 있다.

국제 협상비용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으로 상대국의 윈셋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 두 가지 사안을 연계해 이해집단 간 영향력의 균형에 변화를 초래하는 것, 즉 여론을 온건한 쪽으로 돌아서게 하는 '사안 연계' 전술이다. 또 상대국 내 집단에 호소해 사안의 이미지를 바꾸는 '메아리' 전술이 여기에 포함된다.[21]

국내적 정치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법, 즉 자국의 윈셋을 확대해 상대국과의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첫째, 협상 결과에 따른 이득을 재분배하는 이른바 '이면보상'과 둘째, 사안의 성격을 국가안보에 중대한 것으로 정의하는 '사안의 재정의'가 있다.[22] 이를 '고삐늦추기'라고 한다.

이러한 전략과 전술은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과 정상회담에서도 발견된다. 일본은 특히 "납치문제 해결 없이 국교정상화 없다"라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자국의 윈셋을 축소했다. 이는 비자발적 배신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려 한 것으로, 이를 전형적인 '발목잡히기' 전술이라고 평가할

21 김달중, 1998, 『외교정책의 이론과 이해』, 도서출판 오름, 383쪽.

22 김달중, 1998, 위의 책, 38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수 있다. 일본은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안보상의 위기로 정치쟁점화 하는 데 주력했다. 북한에 대한 국내 여론을 강경하게 유도함으로써 자국의 윈셋 사이즈를 대폭 줄이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북한 역시 협상 대표가 일본 측의 사과와 관련해 "그 정도 선에서 반성하는 것은 인민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사실상 비자발적 배신의 가능성으로 엄포를 놓음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려는 발목잡히기 전술을 구사한 사실도 발견된다. 물론 일인독재체제인 북한의 경우 중요한 외교 협상에서 최고 지도자의 지시가 절대적이며 비자발적 배신의 가능성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북한 측 협상 대표는 상대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국 윈셋 줄이기'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북일 외교협상을 협상비용과 국내적 정치비용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물은 드물다. 이 같은 분석 틀을 이용해 북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협상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기존 연구들이 해내지 못한 구조적 분석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Ⅲ. 제1차 북일 정상회담

1. 제1차 북일 정상회담 개최 배경

1) 결정적 사건 세 가지

(1) 납치문제

일본의 대북 협상 원칙에는 세 가지 결정적 사건이 영향을 끼쳤다. 첫 번째 사건은 납치문제였다. 일본에서 이은혜[23] 이외의 일본인 납치문제가 공식 제기된 것

23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범 김현희가 공작원 교육을 받을 때 이은혜라는 이름을 쓰는 일본인 여성에게서 일본어를 배웠고 그녀는 일본에서 납치되어 왔다고 진술했다. 일본 경찰 당국은 이은혜가 실종된 다구치 야에코(田口八重子)라고 특정했으며, 일본은 1991년 5월 제3회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때부터 북한 측에 이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은 1997년이었다. 한 일본 언론매체가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공작원의 진술을 토대로 요코타 메구미(横田めぐみ) 납치 의혹을 보도한 것이 최초였다.[24] 그러자 국회에서도 질의가 이루어졌다. 신진당 소속인 니시무라 신고(西村真悟) 중의원 의원이 2월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1977년 11월 니가타시(新潟市)에서 실종된 여중생 요코타 메구미(당시 13세)가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질의한 것이 첫 공식 문제 제기였다. 이에 대해 다테 오키하루(伊達興治) 일본 경찰청 경비국장은 5월 1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1977년 니가타 시내에서 실종된 요코타 메구미는 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납치 의심이 있다"는 견해를 처음으로 밝혔다.[25] 이로 인해 일본 내에서 납치문제가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2) 대포동 미사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두 번째 결정적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떨어진 것이었다. 일본 열도를 충격에 몰아넣은 사건이었다. 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26]는 일본의 안전보장 관점에서 북한이 얼마나

를 제기했다.

24 TV아사히 프로듀서인 이시다카 겐지(石高健次)가 『現代コリア(현대코리아)』 1996년 10월호에 한국 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로부터 들은 망명 북한공작원의 이야기를 토대로 소녀납치 이야기를 썼고 그 소녀가 1977년에 행방불명된 니가타의 여중생 요코타 메구미라는 주장이 1997년 1월 現代コリア研究所(현대코리아연구소) 홈페이지와 『現代コリア』 1997년 1·2월호에 보도되었다. 高崎宗司(다카사키 소지), 2004, 『検証 日朝交渉』, 東京: 平凡社, 116쪽.

25 「北朝鮮が横田めぐみさん拉致の疑い 警察庁が初の見解示す」, 『아사히신문』, 1997.5.1.

26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사정거리 1,800~2,500km, 무게 25t으로 추정되는 3단식 미사일을 발사했다. 1단계 로켓은 블라디보스토크 남쪽 동해의 공해상에 떨어졌고, 2단계 로켓은 65km의 고도로 일본열도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졌다. 북한은 발사 나흘 후인 9월 4일 이를 인공위성 '광명성 1호'의 발사용 로켓이라고 발표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일대 사건이었다.[27]

일본 정부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에 대해 즉각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를 보류하고 대북 식량 지원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 중단, 북일 직항 항공편 운항 중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지원 동결 등 제재에 돌입했다. 그러자 북한은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맹비난하면서[28] 강경 대응을 예고함으로써 북일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3) 괴선박

세 번째 결정적 사건은 괴선박 출현이다. 1999년 3월 23일 일본 영해에 북한 소속으로 추정되는 괴선박 출현 사건[29]이 벌어지면서 양국 관계는 한층 더 악화되었다. 북한 공작선 문제는 이로부터 2년여가 지난 2001년 12월 22일 또다시 발생했다.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시마 앞바다에 나타난 괴선박에 해상보안청 순

27 『요미우리신문』은 1998년 9월 1일자 사설을 통해 북한이 발사한 것은 북한이 개발 중인, 일본 전체가 사정거리에 들어가는 신형 미사일 대포동으로 보인다면서 주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도 새로운 긴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수방위를 기본으로 하는 일본은 공격과 위협에 대비해 빈틈없는 방어태세를 갖춰야 하며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전역미사일방어(TMD) 구상의 조사연구를 미국과 공동으로 진행해온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TMD 연구에 대해 중국을 비롯한 주변 각국에 정정당당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 북한은 1998년 9월 5일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외교부 대변인 담화에서 "인공지구위성 발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일본 당국자들은 내막도 모르는 주제에 우리가 탄도미싸일 발사시험을 했다는 남의 말만 듣고 이 문제를 유엔안보리사회에 끌고 간다느니, 그 무슨 대응조치를 취한다느니 하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 국교정상화교섭의 보류를 운운하기 전에 먼저 일본은 과거 죄행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는 것은 그 어떤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29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앞바다에 나타난 괴선박 2척을 해상보안청, 자위대 함선과 항공기가 15시간 이상 추적해 자위함이 경고 사격한 사건이다. 일본은 경고 사격을 받은 괴선박 두 척이 공해상으로 도주한 후 북한 수역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북한 측에 선박 인도를 요구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시선이 정선 명령을 내렸지만 선박은 응하지 않았고 총격전이 벌어져 괴선박이 침몰한 사건이다. 북한은 문제의 선박이 북한 선박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일본 정보기관인 내각정보조사실은 마약 밀매 등을 목적으로 한 북한 공작선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실제 이듬해 인양한 선박에서는 14.5mm 기관총과 지대공 유도탄, AK 계열 개인 화기와 로켓포 등 무기와 함께 김일성 배지 등 북한 선박임을 말해주는 증거들이 대거 발견되었다.

앞에서 열거한 세 가지 결정적 사건은 북한을 범죄 국가이자, 일본 안보상의 위협적 국가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주었다. 이로 인해 반북 여론이 고조되었으며 일본의 대북 협상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했다. 납치문제와 안보문제를 정치쟁점화함으로써 강경한 국내 여론을 유도하는 윈셋 축소 전략을 구사하게 된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만큼 협상비용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결과를 자초한 셈이다.

2) 페리보고서의 영향

납치 사건과 대포동 미사일 발사, 괴선박 출현 사건 등 세 가지 결정적 사건은 분명 북일 관계의 악재였지만 일본으로서는 되레 북한과의 협상 필요성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하는 과제로 부상한 것이다. 양국 간 대화 분위기는 주변국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면서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다시 시동이 걸린 것이다. 1999년 5월 25일 페리 미국 대북정책조정관의 방북을 시작으로 다음 달인 6월 23~24일 베이징 제1회 북미 고위급 회담과 9월 7~12일 베를린 제2회 북미 고위급 회담이 잇따라 개최되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거나 완화하였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북미관계의 급속한 개선 움직임 속에 일본 정부도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1999년 11월 2일 일본은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내렸던 북일 전세기 운항금지 제재 조치를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히 페리보고서[30]를 통해 미국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위협 제거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전제로 북미 국교정상화 용의가 있음을 밝히며 북일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북한과 일본에 각각 촉구한 것은 일본에 큰 자극이 되었다.[31] 나아가 국방위 제1부위원장 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명록 차수가 2000년 10월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 김정일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평양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했다. 그뿐만 아니라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미 코뮤니케'를 발표했다.[32] 이처럼 북미관계 개선 움직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자 일본은 고립감이 심화되었으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북한은 일본의 고립감 심화를 이용하는 전략을 취했다. 일본이 핵 문제와 납치문제를 이유로 회담을 결렬시켰다고 비난하며 과거청산을 강하게 촉구하는 성명[33]을 발표한 것이다. 북한은 성명에서는 거친 표현을 동원해 강온 양면 전

---

30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이 1999년 10월 12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서 증언하면서 일부 공개된 것으로,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의 위협을 제거하면 미국은 국교를 정상화하며 한국과 일본도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1 페리보고서는 특히 일본의 납치 의혹과 한국의 이산가족문제 등에 대해서도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가운데 진지하게 대처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32 조명록 차수가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코언 국방장관과 개최한 회담 후 발표한 양국간 합의사항으로, 북미 상호 적대관계 포기 및 관계 개선, 정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한 4자회담 등 검토, 경제 협력 교류 발전, 미사일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예,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준비를 위한 올브라이트 장관의 북한 방문 등이 주요 내용이다.

33 1999년 8월 11일자 『노동신문』에 게재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의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일제는 조선 강점기간 중세기 노예 매매주들을 방불케 하는 가장 야만적인 방법으로 당시 조선민족 청장년 로력의 거의 전부인 600여만 명을 랍치, 강제련행하여 아시아 및 태평양전쟁에 소모되는 병력과 로동력을 충당하고 인간 이하의 노예로동을 강요하였으며 백수십만 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살륙하고 근 20만 명의 조선 녀성들을 《종군위안부》로 끌어다가 일본군대의 성노예로 만드는 등 우리 민족에게 막대한 인적피해를 주었다. … 그러나 일본은 과거의 죄행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고질적인 대미추종, 대조선적대시 정책의 연장선에 서서 조일회담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핵의혹》문제요, 《랍치문제》요 하는 전제조건들을 들고 나옴으로써 모처럼 마련되었던 회담을 인위적으로 파탄시켰다. 조일회담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략을 사용하였으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를 평양으로 초청하면서[34] 다시 정당 초청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이는 상대국의 윈셋을 넓히기 위한 메아리 전술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 부당성의 부각과 친북 성향의 무라야마 전 총리 초청을 통해 일본 내 이해집단 간 균형의 변화를 초래하려 한 것이다. 즉, 납치문제와 안보문제로 대북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여론을 온건한 쪽으로 돌리려는 전술의 일환이었다. 이는 '고난의 행군'으로 일컬어지는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의 식량 지원과 국교정상화를 통한 경제지원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에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총리는 무라야마 전 총리와 노나카 히로무(野中広務) 전 자민당 간사장을 북한에 보냈다. 초당파 방북단은 북한과의 협의에서 ① 국교정상화 교섭 전제조건 없이 연내 재개, ② 식량지원, 납치의혹, 일본인 배우자 일시 귀국 등 인도적 문제는 북일 적십자연락협의회를 연내에 열도록 정부에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납치피해자'라는 용어 대신 '행방불명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타협함으로써 북한에 명분을 제공해주었다.

이어 양국은 1999년 말부터 적십자회담과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를 위한 정부 간 예비회담 등을 잇따라 개최, 일본의 대북 쌀 지원과 일본인 행방불명자 조사 재개, 일본인 배우자 일시귀국 등의 합의라는 사전 정지작업을 거쳐 2000년 4월 제9회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개최했다. 이는 1992년 11월 제8회 국교정상화 교섭 이후 7년 5개월 만의 교섭이었다.

결렬된 때로부터 7년이 되어오는 오늘까지도 일본은 여전히 과거청산을 위한 회담을 외면하고 있으며 마치도 관계정상화가 그 무슨 《선사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오히려 제편에서 우리에게 주제넘는 요구를 하면서 파렴치하게 행동하고 있다. …."

34 김용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이 1999년 9월 방북 중이던 시미즈 스미코(清水澄子) 사민당 부대표에게 무라야마 전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초당파 방북단을 환영할 의향을 나타냈고 11월 공식 초청장이 조총련을 통해 무라야마 전 총리에게 전달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국교정상화 교섭

1) 제9회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2000.4.4~7, 평양)

교섭에서 북한은 과거청산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제시하며 4가지를 주장했다. 첫째, 사죄, 둘째, 인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 셋째, 문화재 반환 및 보상, 넷째,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 개선이었다. 특히 사죄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의 최고책임자에 의한 것으로, 관계정상화와 관련된 최종문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식문서에 명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다고 강조했으나 북한은 무라야마 담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맞섰다.[35]

식민지배에 따른 보상문제도 쟁점이었다. 북한은 과거에 발생한 인적·물적 손실에 대해 피해자가 충분히 납득하도록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일본은 일방적 보상이 아니라 서로 남겨져 왔던 재산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청구권 문제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앞서 1965년 한국과 체결한 한일조약에서도 상호 청구권 포기와 경제협력 방식으로 타결한 만큼 북한과도 같은 방식을 취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이다.

제9회 북일 교섭은 페리보고서에 따른 북미 관계개선 분위기에다 남북 정상회담이 예고된 상황에서 북한이 주도하는 회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탈출구로 일본보다 한국에 기대를 걸고 있었고 핵문제는 미국과 우호적 분위기 속에 협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가 냉각되어 있을 때는 일본에 접근해 관계개선을 적극 시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호전되었을 경우에는 일본에 공세적 입장을 취해 더 큰 양보를 끌어내려

35 『아사히신문』 2000년 4월 6일자 보도에 따르면 북한 측은 "무라야마 총리 담화는 일반적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가혹한 약탈과 유린을 받은 나라다. 무라야마 담화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특징을 보였다.

2) 제10회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2000.8.22~24, 도쿄)

남북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통해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내용의 6.15 선언을 발표하며 급속히 관계개선의 길로 나아가는 분위기 속에 일본은 북한과의 대화에 더욱 적극 나서게 되었다.

7월 2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지역포럼(ARF)을 무대로 사상 첫 북일 외교장관회담을 거쳐 제10회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이 8월 22일부터 도쿄에서 열렸다. 하지만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북한은 과거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과거에 대한 사죄, 보상, 문화재 반환,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 개선 등 4가지를 요구했다.[36] 일본 측은 "교섭 결과 양측이 만족할 만한 형태가 된다면 조약 형태로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광범위한 여론의 지지가 없으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은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고 국회에서 비준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회적 경고였던 셈이다. 자국의 윈셋 크기를 좁혀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형적 발목잡히기 전술을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인하면서도 강한 반발은 하지 않은 채 미묘한 변화의 모습을 보였지만 과거 청산에 대해서는 강경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북한 측 대표인 정태화 대사는 회담 종료 후인 8월 24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이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서 이미 사죄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무라야마 담화에 들어 있는 '오와비(お詫び)'라는 말, 즉 실수나 부주의로 남에게 부상을 입혔을 때 쓰는 표현으로 된 사죄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특히 "아시아 나라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가장 오랜 세월에 걸쳐 일제의 군사적 강점통치를 받았을 뿐 아니라 가장 참혹하고 엄청난 고통과

36 「北朝鮮, 過去の清算優先 日朝交渉開始で日本, 拉致疑惑対応求める」, 『아사히신문』 2000.8.2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피해를 강요당했던 것만큼 그런 정도의 선에서 반성하는 것은 불충분하며 우리 인민이 받아들이기도 힘들다"고 강조했다.[37] 이 대목에서 북한 역시 자국의 윈셋 사이즈를 축소해 협상력을 높이는 발목잡히기 전술을 사용하려 했음이 드러난다.

정 대사는 보상문제와 관련한 일본 측의 재산청구권 주장에 대해 "수백만 명의 생명과 피, 인민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 울분을 절대로 재산청구권 방식으로 정리할 수 없다는 데 대하여 다시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다.[38] 인민의 생명과 피, 울분 등을 거론하며 일본이 주장하는 재산청구권 형식의 청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 역시 윈셋 좁히기, 즉 발목잡히기 전술 구사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 이처럼 재산청구권에 거칠게 반발하며 법적 구속력 있는 사죄를 강하게 요구한 것은 법적 배상, 혹은 적어도 충분한 경제적 지원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제10회 교섭은 결국 별 성과 없이 3개 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39] 과거청산과 납치문제는 양측의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문

---

37 「조일정부간 제10차 본회담 우리측 대표단 단장이 기자들과 회견」, 『노동신문』, 2000.8.25.

38 「조일정부간 제10차 본회담 우리측 대표단 단장이 기자들과 회견」, 『노동신문』, 2000.8.25.

39 『노동신문』에 게재된 '조일정부간 제10차 본회담과 관련한 공동보도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일정부간 제10차 본회담이 8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도쿄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외무성 순회 대사 정태화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과 외무성 일조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 다까노 고지로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정부대표단이 참가하였다.
1. 쌍방은 조일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공통된 립장과 조일간의 호상 신뢰를 증진해나가려는 정신에 기초하여 선린우호관계의 조기수립을 위한 진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2. 쌍방은 7월 말에 방코크에서 진행된 사상 처음으로 되는 조일외무상회담의 성과에 기초하여 과거 청산을 비롯한 조일사이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솔직한 의견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라는 것을 거듭 확인한 자리였다. 특히 이 두 가지 사안은 외무 관료인 교섭자가 아니라 정치지도자밖에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40]

3) 제11회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2000.10.30.~31, 베이징)

베이징에서 이틀간 열린 제11회 교섭 역시 과거청산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만 거듭 확인한 채 막을 내렸다. 공동언론발표문도 없이 차기 회담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끝남으로써 향후 협상 전망도 매우 어두움을 시사했다.

과거청산에 대한 북한의 강경 태도는 예고된 것이었다. 『노동신문』은 교섭을 엿새 앞두고 "과거청산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는 제목의 기명 논평을 통해 일제의 과거 조선 침략을 매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사죄와 보상을 촉구했다. 북일 관계 개선문제가 해결되려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역사적 미결문제부터 풀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과거 청산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또 일본이 중점적으로 제기하는 납치문제와 미사일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들어 정면 비판함으로써 협상에 앞서 기선 제압에 나섰다.

> 일제에 의해 600여만 명의 조선 청장년들이 랍치, 강제련행되여 죽음의 고역장들에서 중세기적인 노예로동을 강요당했으며 근 20만 명의 조선 녀성들이 백주에 랍치, 강제련행되여 일제침략군의 성욕을 채워주는 희생물로 되었다. … 일본이

을 교환하였다. 또한 조일사이의 호상 리해를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왕래를 구체화하기 위한 론의를 진행하였다. 그 일환으로 쌍방 외교당국사이의 교류를 추진시켜 나가기로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리고 민간급 경제인들의 교류가 바람직하다는 인식에서 일치를 보았다.

3. 쌍방은 앞으로도 조일정부간 본회담을 촉진시켜 나갈데 대하여 확인하고 제11차 본회담을 10월에 쌍방이 합의결정하는 제3국에서 진행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2000년 8월 24일 도꾜)

40 김찬훈, 2016, 『북일외교의 교섭패턴과 역사-3개 교섭공간과 북일국교정상화교섭-』, 한림대학교 출판부, 29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과거청산을 외면하고《랍치》,《미싸일문제》들을 걸고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계속 추구한다면 조일관계문제는 언제가도 해결될 수 없다.(『노동신문』, 2000.10.24.)[41]

북한은 협상을 앞두고 일본의 식민지배 피해를 강조함으로써 과거청산이 우선 해결 과제라는 메시지를 국내외에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는 자국의 윈셋 사이즈를 축소하는 동시에 상대국의 온건파를 설득하기 위한 상대국 윈셋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읽혀진다. 일본 역시 납치 문제 우선 해결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자국 윈셋 축소 전략을 취함에 따라 양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이처럼 2000년 4월과 8월, 10월 세 차례나 국교정상화교섭을 벌였음에도 핵심 쟁점인 과거청산과 납치문제에 봉착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자 양측 모두 관료 간 협상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 이런 상황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 최고지도자 간의 회담, 즉 정상회담 필요성의 인식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3. 제1차 북일 정상회담(2002.9.17.)

1) 평양선언[42]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위원장은 사상 최초의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 국교정상화를 향한 로드맵에 가까운 합의라고 할 수 있는 '평양선언'을 도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김정일 위원장의 일본인 납치 인정과 사과라는 통 큰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회담에서 "1970~1980년대 초까지 특수기

41 「과거청산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 『노동신문』, 2000.10.24.

42 북한이 발표한 평양선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노동신문』 2002년 9월 18일자에서 발췌한 것으로, 맞춤법 등 표기를 그대로 옮긴 것임, 밑줄은 필자)
조일평양선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국방위원장과 일본국 고이즈미 쥰이찌로총리대신은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상봉하고 회담을 진행하였다.
두 수뇌들은 조일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하며 결실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쌍방의 기본리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화와 안정에 큰 기여로 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였다.

1. 쌍방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정신과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빠른 시일안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2002년 10월중에 조일국교정상화회담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호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 과정에도 조일사이에 존재하는 제반 문제들에 성의 있게 림하려는 강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2. 일본측은 과거 식민지지배로 인하여 조선인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력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일본측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에 대하여 국교정상화후 쌍방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간에 걸쳐 무상자금협력, 저리자장기차관제공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지원 등의 경제협력을 실시하며 또한 민간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견지에서 일본국제협력은행 등에 의한 융자, 신용대부 등이 실시되는것이 이 선언의 정신에 부합된다는 기본인식밑에 국교정상화회담에서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성실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1945년 8월 15일이전에 발생한 리유에 기초한 두 나라 및 두 나라 인민의 모든 재산 및 청구권을 호상 포기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회담에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재일조선인들의 지위문제와 문화재문제에 대하여 국교정상화회담에서 성실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본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조일 두 나라의 비정상적인 관계속에서 발생한 이러한 유감스러운 문제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을 확인하였다.
4. 쌍방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해 나갈것을 확인하였다. 쌍방은 이 지역의 유관국들 사이에 호상 신뢰에 기초하는 협력관계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이 지역의 유관국들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되는데 따라 지역의 신뢰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틀거리를 정비해 나가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였다.
   쌍방은 조선반도핵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하여 해당한 모든 국제적 합의들을 준수할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쌍방은 핵 및 미싸일문제를 포함한 안전보장상의 제반 문제와 관련하여 유관국들사이의 대화를 촉진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이 선언의 정신에 따라 미싸일발사의 보류를 2003년 이후 더 연장할 의향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2년 9월 17일 평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관 일부가 망동주의, 영웅주의에 날뛰어 이런 일을 저질렀다. 특수기관에서 일본어 학습을 위해, 또 일본인 신분을 이용해 남한에 들어가기 위해서였다고 생각된다. 납치에 관련된 책임자를 모두 처벌했다"고 납치 사실을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뿐만 아니라 납치에 대해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솔직히 사과하고 싶다"며 사과했다.[43] 이는 평양선언 제3조에서 "일본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은 조일 두 나라의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한 이러한 유감스러운 문제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확인했다"로 에둘러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어쨌든 정상회담에서의 김 위원장의 전격적인 납치 사실 인정과 사과는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다. 그동안 납치는 있을 수 없으며 날조라고 강력히 부인해 왔던 북한 측의 태도를 180도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북한 측은 특히 ① 생존자의 가족, 친족 면회에 편의 제공, ② 생존자가 희망할 경우 귀국이나 일시귀국을 실현하도록 편의 보증, ③ 사망자 가족에게 경위를 설명할 것을 약속했다.[44] 김정일 위원장은 납치뿐 아니라 괴선박의 일본 영해 침범 사건과 관련해 "군부 일부가 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공작선이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했다.[45]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과거청산과 관련해 북한이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택했던 경제협력 방식을 수용했다는 점이다. 두 정상은 국교정상화 후 무상자금협력, 저금리 장기차관공여, 국제기관을 통한 인도적 지원의 형태로 경

---

43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실과 관련한 김정일 위원장의 언급은 일본 측이 회담 내용을 공개하면서 밝혀져 일본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북한은 『노동신문』 등 국내 매체를 통해서는 그 같은 구체적 언급을 보도하지 않았다. 때문에 북한 측 1차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북한 측은 김정일 위원장의 납치 시인, 사과 등 구체적 언급과 관련한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을 부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拉致, 8人死亡5人生存 金総書記, 認めて謝罪 日朝首脳会談」, 『아사히신문』, 2002.9.18.

44 「拉致, 8人死亡5人生存 金総書記, 認めて謝罪 日朝首脳会談」, 『아사히신문』, 2002.9.18.

45 「拉致, 8人死亡5人生存 金総書記, 認めて謝罪 日朝首脳会談」, 『아사히신문』, 2002.9.1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협력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평양선언 제2조 2항에서 “쌍방은 일본 측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에 대하여 국교정상화 후 쌍방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간에 걸쳐 무상자금협력, 저리자 장기차관 제공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경제협력을 실시하며 또한 민간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견지에서 일본국제협력은행 등에 의한 융자, 신용대부 등이 실시되는 것이 이 선언의 정신에 부합된다는 기본인식 밑에 국교정상화회담에서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성실히 협의하기로 하였다”와 같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발생한 이유에 기초한 양국 국가와 국민의 모든 재산 및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도 북한의 획기적 태도 변화였다. 이는 평양선언 제2조 3항에 “쌍방은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리유에 기초한 두 나라 및 두 나라 인민의 모든 재산 및 청구권을 호상 포기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회담에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라는 구체적인 문장으로 담겼다. 북한이 앞서 협상과 매체 보도를 통해 한일 방식인 경제협력 방식에 반대하며 식민지배에 대한 철저한 보상을 촉구해온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파격적 태도 전환이다. 사실상 일본의 집요한 요구에 북한이 양보한 것이다.

일본은 또 북한의 핵 문제를 관련국들과 대화로 해결한다는 것과 미사일 발사 동결 연장이라는 성과도 거두었다.

북한이 평양선언을 통해 얻은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고이즈미 총리의 직접 사죄를 받아냈다. 둘째, 국교정상화의 길을 앞당겼다. 셋째, 가장 궁극적인 것으로, 국교정상화 후 일본으로부터 받을 경제협력, 즉 자금 확보의 길을 마련했다.

2) 김정일과 고이즈미의 협상 전략

(1) 김정일의 전략

그동안 북한 당국이 부인으로 일관해 왔던 일본인 납치 사실을 김정일 위원장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시인하고 사과까지 한 것은 매우 파격적인 조치였다. 이는 납치문제만 해결되면 국교정상화로 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일본의 대규모 경제지원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에 기초한 것이었다. 일본 측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물밑 접촉을 통해 그런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냈고 김정일 위원장은 그 신호를 북한이 처한 정세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북한이 돌연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물러나 대일 협상 태도를 바꾼 요인 중 하나로 부시 정부의 등장을 꼽을 수 있다.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월 29일 연두교서 연설에서 북한을 가리켜 "국민을 굶겨가면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는 정권"이라고 비난하고 '악의 축(an axis of evil)'으로 규정했다. 이에 맞서 북한은 외무성 성명[46]을 통해 "부시의 악의 축 연설은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클린턴 행정부 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미국 우선 전략을 채택했었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 안보적 이익을 얻는 것이 훨씬 크며 이는 동시에 일본에 고립감을 줌으로써 일본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지렛대로 활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시작되자 다시 일본으로 눈을 돌려 북일 국교정상화를 통한 경제 지원을 얻어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결국 김정일 위원장은 납치 시인과 사과라는 파격적 양보로 납치문제를 종식시키고 과거청산을 통한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려 한 것이다.

실제로 나중에 밝혀진 사전 협의 내용은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2001년 9월 26일 평양에서 북일 국장급 협의가 끝나고 강석주 제1외무차관은 다나카 히토시(田中均)[47]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과거청산 관련 보상 금액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다나카 국장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강 차관은 스스로 요구 금액을 밝혔다. 북한 측이 거론한 금액은 100억 달러 이

46 「미국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할 것이다」, 『노동신문』, 2002.2.1.

47 당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던 다나카 히토시는 북한 국방위 소속 김철이라고 이름을 밝힌 이른바 미스터X와 1년간에 걸친 비밀 접촉을 통해 북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인물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상인 것으로 알려졌다.[48] 일본으로부터 과거청산 명목으로 10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자금을 얻어 무너진 경제를 일으켜 세움으로써 정권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자 하는 것이 국교정상화 교섭과 정상회담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이에 따라 상대국의 윈셋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 즉 일본 국내에서의 비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납치 시인 및 사과, 미사일 발사 유예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2) 고이즈미의 전략

2001년 4월 집권한 고이즈미 총리는 자신의 정치적 돌파구 마련을 위해 납치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측근[49]을 통해 20여 차례에 걸쳐 북한 측과 비밀접촉[50]을 가진 끝에 평양행이라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관료 간의 협상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납치문제를 정상 간의 담판에 의한 해결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작동한 것이었다. 그만큼 경제정책 실패로 급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요하게 북측을 압박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납치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의회의 비준이 필요한 과거청산과 국교정상화는 어렵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향후에 발생할 국내적 정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고의로 청중비용을 높이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와 동시에 주변국들을 이용하는 전략도 구사했다. 고노 요헤이

48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 저, 오영환 외 옮김, 2007, 『김정일 최후의 도박』, 중앙일보시사미디어, 43쪽.

49 다나카 히토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고이즈미 총리의 지시를 받고 1년여 간 20여 차례에 걸쳐 북한 국방위원회 소속 미스터X와 중국 등지에서 비밀 협상을 벌였다, 田中均, 2009, 『外交の力』, 東京: 日本経済新聞出版社, 103쪽.

50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북일 간 비밀접촉 과정에 대해서는 후나바시 요이치, 2007, 앞의 책과 田中均, 2009, 위의 책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河野洋平) 외상은 부시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01년 1월 26일 백악관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에는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가 있다. 미국이 부디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지지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라이스 보좌관으로부터 "미국도 (납치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북한과의 협의에서 적절하게 제기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특히 악화된 북미관계가 고이즈미에게는 좋은 타이밍이었다. 북한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는 판단이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북한이 집요하게 주장했던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서도 과거 1965년 한일방식[51]으로 유도하려 했고 결국 이 계산대로 평양선언 합의문이 탄생했다.

Ⅳ. 국내적 정치비용과 윈셋 전략

1. 일본의 국내적 정치비용: 고이즈미 지지율 급등

제1차 북일 정상회담 직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상회담을 긍정 평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아사히신문』[52]과 『요미우리신문』[53]의 여론조사에서

51 1965년 6월 22일 체결되고 12월 18일 발효된 한일협정은 한일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한일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가리킨다.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은 제1조 양국 간에 외교 및 영사관계를 수립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 제195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구권협정은 제1조 일본은 대한민국에 대해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제공. 제2조 양국 국가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2 「日朝会談「評価」81%, 拉致「納得できぬ」朝日新聞社世論調査」, 『아사히신문』, 2002.9.1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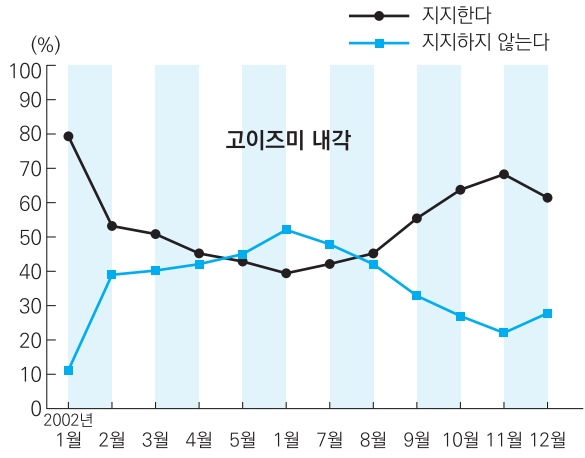


그림 1 내각지지율(NHK 2002년 여론조사)

긍정 평가는 각각 81%, 81.2%로 나타났다. 회담의 성과를 긍정 평가하는 여론이 높은 만큼 고이즈미 내각 지지율도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직전보다 10%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NHK의 여론조사[54]에서도 내각지지율은 10%p 상승했고 이후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그림 1 참조).

북일 국교정상화를 찬성하는 의견도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서 58%로 나타나 반대 28%를 압도했으며, 내각부 관방장관 정부홍보실이 실시한 여론조사[55]에서도 찬성이 66.1%로, 반대 26.0%의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북한과의

53 「日朝国交交渉, 世論が圧力厳しく 正常化実現, 慎重姿勢強まる/読売新聞社調査」, 『요미우리신문』, 2002.9.20.

54 2002년 NHK 내각지지율 조사, https://www.nhk.or.jp/bunken/yoron/political/2002.html(검색일:2022.4.30.)

55 관방장관 정부홍보실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2002.10(50~55쪽), http://www.8.cao.go.jp/survey/h14/h14-gaikou/2-1.htm(검색일: 2022.4.3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합의에 대한 국내적 정치비용이 적게 든 것이다.

2. 북한의 협상 비용: 일본 내 대북 여론 악화

북일 정상회담 직전 북한 측이 일본 측에 통보한 '5명 생존, 8명 사망'이라는 납치문제 조사 결과는 일본 여론을 들끓게 했다.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서 76%가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납치 피해자들이 각각 언제 어떤 수단으로 납치되었고 북한에 끌려간 이후의 생활은 어땠으며 왜 사망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북한에 납치 진상을 규명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56] 『요미우리신문』도 사설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없다고 했던 납치사건을 인정한 것은 북한의 변화를 나타내는 징후라고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진상규명 외에도 생존자 가족의 면회, 시신 반환, 보상을 비롯한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57]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58]에서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납치문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90.6%에 달했다. 같은 조사에서 가급적 조속히 국교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0.5%인 데 반해 정상화해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답한 사람이 68.4%나 되었다.

납치피해자 가족들의 반발은 더욱 거셌다. 총리관저에서 고이즈미 총리를 면담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은 "김정일이 납치를 명령한 것 아니냐, 국가범죄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것인가, 생존자들이 돌아오기 전에 지원은 절대 안 된다"고

56 「悲しい拉致の結末, 変化促す正常化交渉を 日朝首脳会談(社説)」, 『아사히신문』, 2002.9.18.

57 「[社説]日朝首脳会談「北」は平壌宣言を誠実に守るか」, 『요미우리신문』, 2002.9.18.

58 「日朝国交交渉, 世論が圧力厳しく 正常化実現, 慎重姿勢強まる/読売新聞社調査」, 『요미우리신문』, 2002.9.2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일본 내 여론은 예상과 다르게 돌아갔고 급물살을 탈 것 같았던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은 더욱 꼬이게 되었다. 북한은 평양선언이라는 역사적 합의 도출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협상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후 납치 피해자 가족의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망자와 미확인자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지면서 고이즈미 정권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결국 이듬해인 2003년 11월 9일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기존보다 10석을 잃는 결과를 맞았다.[59] 물론 자민당의 성적 부진에는 다양한 국내 정치적 요인이 작용했다. 제1차 북일 정상회담이 14개월 후에 치른 선거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평양선언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에 머문 납치문제가 정권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결국 북한 김정일 정권이 부담하게 된 협상비용의 증가가 시간이 흐르면서 고이즈미 총리의 국내적 정치비용의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윈셋 전략

1) 일본의 윈셋 전략

2000년 8월 제10회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때 일본 측 대표인 다카노(高野幸二郎) 대사는 북한 측에 "교섭 결과 양측이 만족할 만한 형태가 된다면 조약의 형태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광범위한 여론의 지지가 없으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은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다나카-미스터X 채

59 제43회 중의원선거 결과 자민당 의석은 기존 247석에서 237석으로 줄어들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3석 늘어난 34석을 확보했다. 연립여당이 271석을 얻어 안정다수를 유지해 고이즈미가 총리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40석이 늘어난 177석을 차지해 제1야당으로 약진함으로써 자민당에서는 위기감이 생겨나기도 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널의 비밀 협상[60]에서도 다나카는 "납치를 인정하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61] "납치에 대한 명쾌한 설명 없이는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62] 사실상 북일 간 합의를 국회가 비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납치문제에 대해서 일본 여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비자발적 배신 가능성을 예고한 것으로, 자국의 윈셋 크기를 축소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형적 발목잡히기 전술이었다. 일본의 이 같은 발목잡히기 전술은 총리를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의 공개적인 납치문제 해결 약속 등으로 일관되게 구사되었다. 일본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 미국 등 제3국의 외압을 전략적으로 유도해서 자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다자간 이슈연계전략도 동시에 구사했다.[63]

2) 북한의 윈셋 전략

2000년 8월 제10회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때 북한 협상대표인 정태화 대사는 "무랴아마 담화에 들어 있는 '오와비'라는 말, 즉 실수나 부주의로 남에게 부상을 입혔을 때 쓰는 표현으로 된 사죄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아시아 나라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가장 오랜 세월에 걸쳐 일제의 군사적 강점통치를 받았을 뿐 아니라 가장 참혹하고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강요당했던 것만큼 그런 정도의

60 다나카 히토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2001년 가을 중국 다롄에서 북한 국방위원회 소속 '김철'이라고 이름을 밝힌 이른바 미스터X(이는 일본 측이 붙인 이름이다)와 1년간 중국 다롄 등지에서 20여 차례의 비밀 접촉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결국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방문과 제1차 북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자세한 내용은 田中均, 2009, 앞의 책 참조.

61 田中均, 2009, 위의 책, 105쪽.

62 후나바시 요이치 저, 오영환 외 옮김, 2007, 앞의 책, 36쪽.

63 다자간 이슈연계전략의 효과는 협상상대방의 윈셋을 확대시킴으로써 상대가 온건한 제안을 하도록 하거나 혹은 제3국의 압력을 일종의 대항협박카드로 이용해 상대방의 협박카드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것이라고 양기웅은 설명한다. 양기웅 1996, 앞의 글, 17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선에서 반성하는 것은 불충분하며 우리 인민이 받아들이기도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국의 윈셋을 좁히는 발목잡히기 전술로 분석된다.[64]

북한은 그러나 자국의 윈셋을 축소하는 전략보다는 상대국의 윈셋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더 중점적으로 구사했다. 일본 내 친 북한 노동당 성향을 가진 사회당과의 교류 확대 노력도 그 일환이다. 사회당 인사를 통한 일본 여당 또는 정부 인사와의 접촉을 시도한 것은 대일 정책의 특징이다. 이른바 정당 초청 외교를 통해 국교정상화 교섭의 발판을 마련하는 전술을 택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김용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1999년 9월 방북 중이던 시미즈 스미코(清水澄子) 사민당 부대표에게 무라야마 전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초당파 방북단을 환영할 의향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조총련을 통해 11월 공식 초청장을 자민당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1995년 3월 일본의 연립 여당이 북한을 방문해 국교정상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도 북한의 정당 초청 외교의 결과였다. 북한은 이처럼 조총련을 일본 정당, 정부와의 연락사무소와 같이 활용하면서 정당 인사들을 초청하여 협상을 촉진하려고 했다. 북측과 비밀협상을 했던 다나카는 북한이 많은 협상 루트를 경쟁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져오는 루트와 협상하려 한다고 말했다.[65]

이 밖에 북한에 거주하는 일본인 처 고향방문 사업을 하나의 당근책으로 구사하며 일본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유인했다. 남한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일종의 보상 카드로 활용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 북한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 문제 등 식민지 피해를 언론매체의 보도나 일본과의 협상의 장을 이용해 강하게 제기한 것 역시 상대국의 윈셋을 확대하기 위한 '사안 연계' 전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납치문제를 희석시키고 도덕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과거의 식민지 피해라는 사안과 연계해 일본 내 온건파의 힘을

64 그러나 결국 북한은 일본의 사죄 표현과 관련해 '오와비'를 받아들였다. 다만 국내 발표용으로는 사죄로 표현했다. 일본에서 발표한 평양선언에는 오와비(おわび)라고 담겼으나 북한이 발표한 평양선언에서는 사죄라고 명기한 것이다.

65 田中均, 2009, 앞의 책, 10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키우려는 메아리 전술로 분석된다. 토마스 셸링의 주장처럼 독재국가인 북한은 민주국가인 일본에 비해 자국 윈셋 축소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적 환경을 가진 만큼 상대국 윈셋 확대 전략에 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66]

이상의 시기별 주요 사건 및 쟁점과 양국의 협상 전술 그리고 협상비용 및 국내적 정치비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시기별 주요 사건 및 양국의 대응과 협상전술

시기	주요 사건 및 쟁점	대응(협상 전술)
1997년	메구미 납치의혹 부상	일본: 국내 여론 관찰 북한: 강력 부인 및 무시
19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일본: 식량지원 중단 등 대북 제재 북한: 일본 비난
1999년 3월 및 2001년 12월	괴선박 출현 (북한 공작선의 일본 영해 침범)	1999년 총격전 후 괴선박 도주 2001년 교전 끝에 괴선박 침몰 일본: 북한 비난 북한: 관련성 부인
1999년 후반~2000년대	페리보고서 (북미 데탕트)	일본: 북일 전세기 운항금지 해제 등 유화정책 북한: 대미협상 우선을 통한 일본 고립시키기 + 무라야마 전 총리 초청
제9~11회 국교정상화교섭(2000년 4~10월)	과거청산 납치 핵 미사일	일본: 납치문제 우선 해결 촉구 (발목잡히기 등 자국 윈셋 축소 전략) 북한: 과거 청산 우선 촉구(자국 윈셋 축소+메아리전술 등 상대국 윈셋 확대 전략)
제1차 북일정상회담 (2002.9.17)	과거청산 납치 핵 미사일	일본: 식민지배 사죄, 조기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 재개, 국교정상화 후 경제지원 합의 북한: 납치 및 공작선 문제 사과, 생존 피해자 5명 일시 귀국, 미사일 발사 보류 연장, 핵 관련 국제합의 준수 합의

66 셸링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국가가 국내적 압력으로부터의 자율성이라는 의미에서 강하면 강할수록 국제 협상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면서 독재국가의 외교관은 민주국가의 외교관에 비해 국내적 이유로 불리한 흥정을 수락할 수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적은 점을 예로 들었다. Thomas C. Schelling, 1960, *The Strategy of Conflic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p. 2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2〉 일본과 북한의 협상비용 및 국내적 정치비용

	협상비용	국내적 정치비용
일본	• 투입 – 과거 식민지배 사죄 – 국교정상화 후 경제지원 약속 • 산출 – 김정일의 납치 시인 및 사과 – 납치피해자 5명 귀국 – 미사일 발사 보류 연장	고이즈미 내각 지지율 급등 자민당 지지율 급등 14개월 후 중의원 선거 결과 자민당 부진 (평양선언 이후 납치 피해자 5명 귀국 외 진전되지 않은 것도 일부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북한	• 투입 – 납치 시인 및 사과 – 납치피해자 5명 일시 귀국 – 미사일 발사 보류 연장 • 산출 – 식민지배 공식 사죄 – 일본 내 대북 여론 악화 – 국교정상화 교섭 부진	일인독재국가인 북한은 별도의 사후 국내적 정치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V.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머리말에서 제기한 첫 번째 질문, 즉 ①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납치문제를 일본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납치 피해자 8명 사망' 발표는 일본 내 여론을 크게 악화시킴으로써 수교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다.

따라서 두 번째 질문, 즉 ②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건은 납치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다. 제1차 정상회담 이후로도 납치문제는 '명확한 진상규명과 납치 실행범 인도'를 요구하는 일본 내 여론의 압력으로 발전하였고 납치문제 해결은 국교정상화를 위한 필수조건이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세 번째 연구 질문인 ③ 일본과 북한이 각각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구사한 전략은 일본의 경우 '자국 윈셋 축소 전략', 북한의 경우 상대국 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셋 확대 전략이다. 일본은 제1차 북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협상과정에서 "납치문제 해결 없이 국교정상화 없다"라는 메시지를 국내외에 공개 천명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려는 '발목잡히기' 전술을 일관되게 구사했다. 이와 더불어 미국 등 제3국의 외압을 유도해 협상력을 제고하는 다자간 이슈연계전략도 사용했다.

북한 역시 협상력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정도 반성으로는 인민이 받아들이기도 힘들다"는 표현으로 발목잡히기 전술을 일부 사용하였으나 그보다는 상대국의 윈셋을 확대하기 위한 메아리 전술 구사에 힘을 쏟은 것으로 분석된다. 즉, 상대국 윈셋을 확대하기 위해 최고지도자의 납치 시인 및 사과라는 파격적인 태도 전환, 그리고 일제의 조선침략 등 과거사 부각, 정당 인사 초청 등의 전술을 선택했던 것이다.

네 번째 연구 질문인 ④ 투입한 협상비용과 산출, 그리고 국내적 정치비용을 살펴보면 일본은 식민지배 사죄와 경제협력 약속이라는 비교적 적은 협상비용으로 북한의 납치문제 시인, 사과, 납북자 귀국이라는 성과, 즉 투입 대비 큰 산출을 얻었다. 또한 고이즈미 정권은 정상회담 직후 지지율이 크게 오르는 등 국내적 정치비용도 절감했다.

반면 북한은 납북자 8명 사망 발표가 준 일본 내 충격의 여파로 결국 예기치 못한 역풍을 맞음으로써 협상비용을 혹독하게 치른 점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납치 시인과 사과, 청구권 포기, 미사일 발사 보류 등의 투입한 협상비용 대비 산출은 매우 적었던 셈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고이즈미 정권이 적은 협상비용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당장은 국내 정치적 비용도 크게 줄였지만 납치문제 해결과 관련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내 정치적 비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김정일 위원장의 전격적인 시인과 사과를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 납치피해자들의 일시귀국[67]을 얻어낸 후 돌려보내지 않고 추가적인 윈셋 축소

67 지무라 야스시(地村保志), 하마모토 후키에(浜本富貴恵), 하스이케 가오루(蓮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전략으로 결국 납치피해자 가족의 귀국[68]이라는 성과까지 얻고 국내적 정치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가짜 유골 파문[69]을 거치며 일본 내 대북여론은 다시 악화되었으며 더 이상 북한의 양보를 끌어내지 못한 채 납치문제는 양국관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일본 일각에서는 "일본은 납치문제에 납치되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마저 나왔다. 납치문제 미해결은 북한에 대한 여론 악화에 그치지 않고 일본 정권 무능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제1차 정상회담 이후 1년 2개월 만에 치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은 10석을 잃었다. 북한의 협상비용 증가가 일본의 국내적 정치비용 증가를 초래한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수교협상 타결을 위한 궁극적 전제조건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은 그동안 구사하지 않았던 윈셋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국 내 윈셋을 확대하는 전략, 즉 사안의 재정의와 이면 보상이라는 고삐늦추기가 그것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로 인한 안보 위협이 더 심각하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북한 이슈의 무게중심을 납치에서 안보로 이동시키는 사안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납치문제에서는 납득할 만한 북한의 재조사와 더불어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면 보상도 검토할 만한 해법으로 평가된다. 다시 말해 북한과 협상할 때 일본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薫), 오쿠도 유키코(奥土祐木子), 소가 히토미(曽我ひとみ) 등 생존납북자 5명이 2002년 10월 15일 일본으로 일시 귀국했다. 일본 정부는 10월 24일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면서 생존자들의 가족을 일본으로 보낼 것을 요구했다.

68 2004년 5월 22일 평양을 방문한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위원장의 제2차 정상회담 후 지무라 야스시, 후키에 부부의 자녀 3명과 하스이케 가오루, 유키에 부부의 자녀 2명은 당일 고이즈미 총리와 함께 일본으로 입국했다. 소가 히토미의 남편 젠킨스와 자녀 2명은 2004년 7월 자카르타를 거쳐 일본에 입국했다. 젠킨스는 자진 월북한 주한미군 출신으로 처벌이 두려워 일본행을 꺼려하였으나 결국 일본행을 결심했으며 일본 도착 후 미군 기지에 출두해 군법회의에서 탈주와 이적행위 죄로 금고 30일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69 2004년 12월 일본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요코타 메구미의 것이라며 전달받은 유골을 검사한 결과 다른 사람의 DNA로 판명되었다고 발표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북한 핵 및 미사일 등 안전보장 문제를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납치문제는 후순위로 조정하되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북한을 대신하여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정체된 북일 수교협상을 진전시켜야 할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자료

『노동신문』.

『朝日新聞』.

『読売新聞』.

단행본

김달중 1988, 『외교정책의 이론과 이해』, 도서출판 오름.

김찬훈 2016, 『북일외교의 교섭패턴과 역사-3개 교섭공간과 북일국교정상화교섭-』, 한림대학교 출판부.

후나바시 요이치 저·오영환 외 역, 2007, 『김정일 최후의 도박』, 중앙일보시사미디어.

高崎宗司, 2004, 『検証 日朝交渉』, 東京: 平凡社.

田中均, 2009, 『外交の力』, 東京: 日本経済新聞出版社.

논문

강태훈, 2004,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에 관한 연구」, 『분쟁해결연구』.

권태환, 2003, 「북·일 정상회담과 수교협상 동향」, 『한일군사문화연구』.

김지용, 2014, 「위기 시 청중비용의 효과에 관한 이론 논쟁 및 방법론 논쟁의 전개과정 고찰」, 『국제정치논총』.

김태운, 2004, 「북한의 대일정책 변천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신정화, 2015, 「북한의 국가 발전 목표와 대일정책-김정일·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양기웅 1996, 「일본의 투레벨 협상전략: 북·일수교협상」, 『통일연구논총』.

오일환, 2003, 「북·일 평양 정상회담의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동북아논총』.

金燦熏, 2014, 「日本の対北朝鮮交渉パターンに関する研究-3つの交渉空間論に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る日朝国交正常化交渉の分析-」, 東京大学 博士学位論文.
Fearon, James D., 1994, "Domestic Political Audience and the Escalation of International Dispu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Putnam, Robert D., 1988, "Diplomacy and Domestic Polo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Schelling, Thomas C., 1960, "The Strategy of Conflic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기타 자료

관방장관 정부홍보실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2002.10(50~55쪽), http://www.8.cao.go.jp/survey/h14/h14-gaikou/2-1.htm(검색일: 2022.4.30.)
2002년 NHK 내각지지율 조사, https://www.nhk.or.jp/bunken/yoron/political/2002.html(검색일: 2022.4.3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2002년 제1차 북일 정상회담에서의 협상전략 및 정치비용에 관한 연구

윤경민

북한과 일본은 2002년 9월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평양선언'을 통해 국교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부시 정권의 압박 속에 경제난 극복을 위한 출구를 찾던 김정일 위원장은 부인으로 일관하던 납치문제를 전격 시인하고 사과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하고 경제협력 방식의 지원을 전제로 한 조기 국교정상화 교섭에 합의했다. 정상회담 직후 고이즈미 총리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얻어낸 것을 높이 평가받은 것이다. 투입한 협상비용 대비 산출이 높았던 셈이며, 국내적 정치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 북한은 사후에 혹독한 협상비용을 치렀다. 납치피해자 8명 사망 발표에 일본 국민의 분노가 격화되어 역풍을 맞은 것이다.

일본은 정상회담 이전부터 대북 경제 지원이라는 예산안이 통과되려면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윈셋 축소 전략'이었다. "납치문제 해결 없이 국교정상화 없다"라는 국내외 공개 천명을 통해 상대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발목잡히기' 전술을 일관되게 구사했다. 북한 역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부 자국 윈셋 축소 전략을 활용했으나 그보다는 '메아리전술'과 같은 상대국 윈셋 확대 전략에 치중했다. 지난한 협상 과정 끝에 최고지도자들의 결단에 따라 양국은 관계개선의 이정표를 마련했다. 그러나 납치문제의 정체가 장기화되면서 수교협상이 진전하지 못하는 구조적 상황에 봉착했다. 결국 평양선언 1년 2개월 후 치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은 10석을 잃는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야 했다. 물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납치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정상회담 이후 국내적 정치비용이 증대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현 상황에서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타결의 최대 전제조건은 납치문제 해결이다. 그러나 이를 고집할 경우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한 협상은 영원히 타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북일 수교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일본은 자국 윈셋 축소 전략에서 벗어나 '사안의 재정의'와 '이면보상'을 통한 '고삐늦추기', 즉 자국 윈셋 확대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핵·미사일 등 안보 위협을 협상의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납치문제는 후순위로 미루되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해 북한을 대신하여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키워드: 북일, 수교협상, 국교정상화, 협상비용, 정치비용, 윈셋, 투레벨게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A Study on the Negotiation Strategy at the First North Korea-Japan Summit in 2002 and Political Costs

Yoon Kyeongmin

North Korea and Japan laid the foundation for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through the Pyongyang Declaration, the outcome of the September 2002 summit. Chairman Kim Jong-il, who was looking for a way out of the economic crisis under the pressure of the Bush administration, suddenly admitted and apologized for the abduction issue, which DPRK had been consistently denying. Prime Minister Koizui apologized for the colonial rule in the past and agreed to early normalization negotiations on the premise of supporting economic cooperation. Immediately after the summit, Prime Minister Koizumi's approval ratings rose sharply. He was highly commended for obtaining an apology from North Korea's top leader and a promise to prevent a recurrence. It means that the output was higher than the input negotiation cost, and there was no domestic political cost. On th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other hand, North Korea paid a heavy negotiating cost after the summit. The announcement of the death of eight abductees caused the Japanese public's anger to intensify and face a headwind.

Prior to the summit, Japan emphasized the need for parliamentary ratification in order to pass the budget for economic aid to North Korea. It was a so-called "win-set reduction strategy" to increase negotiating power. Through the public declaration at home and abroad that "there is no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out resolving the abduction problem," the tactic of "Tying-Hands" was consistently used to induce concessions from the other party. North Korea also used some strategies to reduce its own win-sets, but rather focused on strategies to expand the win-sets of other countries such as 'reverberation tactics'. After a long negotiating process, the two countries set a milestone for improving relations according to the decisions of the top leaders. However, as the abduction issue persisted for a long time, the two nations were faced with a structural situation in which negotiations on diplomatic ties did not progress. In the end, the ruling LDP lost 10 seat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elections held a year and two months after the Pyongyang Declaration. Of course, there are various factors that affect the election, but it can be inferred that the domestic political costs will increase after the summit as the abduction issue is not resolved.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the greatest prerequisite for the conclusion of negotiations on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is the resolution of the abduction issue. However, if they insist on this, the negotiations will not be concluded forever unless North Korea responds. Therefore, in order to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chieve the goal of establishing diplomatic ties with North Korea, Japan needs to move away from its strategy to reduce its winset and use strategies to expand its winset, such as “redefining issues” and “cutting slack”.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pu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security threats on the top of the negotiations and put the abduction issue to a later priority, but actively consider ways to compensate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on behalf of North Korea.

Keywords: North Korea-Japan, diplomatic negotiations,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negotiation costs, political costs, winset, two-level gam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자료소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2..78.011

‘제731부대 유적’의 고고학적 조사 성과와 그 의미

김동일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

I. 글을 시작하며
II.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 설명
III. 보고서의 내용 소개
IV. 보고서에 대한 분석
V. 글을 마무리하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글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서술에 앞서, 이 글의 가독성을 위해 요약된 내용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글은 논문이 아니라 자료 소개가 핵심이고, 후반부에 필자가 논의한 내용이 일부 존재한다. 이 때문에 굳이 일반적인 논문 형식으로 글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국문초록을 갈음하여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글은 제731부대에 대한 물질적 증거를 제시하여 제731부대 관련 연구를 입체화하기 위해 노력한 글이다. 다만, 기존에 알려진 제731부대의 만행을 재차 강조하지는 않았다. 그보다 고고학자로서 고고학 보고서의 내용을 해제하여 새로운 증거와 관점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였다.

근현대 고고학적 조사는 건축학적 해석으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학제간 연구가 가능해졌다. 제731부대 세균실험실의 경우, 독일식 화양절충형 2분할 구조로 제작되었고, 그 등급은 당시 조선총독부나 대만총독부 등 고위 관공서의 청사급으로 건축되었다. 이를 고려하면 관련 분야의 지휘부 역할을 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특수감옥은 급수와 난방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권무시를 증명하는 물질적 증거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특수감옥의 1층과 2층의 한가운데는 인체실험을 위해 '마루타'가 갇혀 있었던 수감실일 가능성이 높다.

출토 유물에서 여러 주목할 점이 있다. 6호 소각 구덩이에서는 이질 예방접종액이 적힌 병이 발견되었고, 이를 통해 백신 실험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아쉬운 점은 출토유물을 통해 보다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연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당시 제731부대가 결성된 직후, 일본은 국가 전시총동원 상태로 진입하였지만, 제731부대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사치품(찻주전자)과 주류(맥주, 와인), 음료 등이 보급되었다. 이 중에는 군수품도 포함되어 있다. 당시 일본의 군대 다수가 풍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731부대 출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유물은 제731부대에 대한 풍족한 지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물질적 증거이다.

또한 전기의 절연을 위해 사용하는 애자도 중요하다. 애자는 특수감옥 제7동과 세균실험실 제3동 등에서 출토되었다. 특수감옥은 급수와 난방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자는 특수감옥을 이용하는 제731부대 부대원의 사용 목적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추정한다.

무엇보다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폭발지점과 매몰된 소각 구덩이가 확인된 점을 강조하고 싶다. 폭발지점과 매몰된 소각 구덩이는 당시 일본군의 증거 인멸에 대해 새로운 물질적 증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당시 일본군의 여러 인체실험에 대한 은폐 시도를 물질적으로 증명한다.

이 보고서의 물질적 증거를 통해 사진과 증언으로 확인되어온 일본군의 인권무시와 윤리의식 부재가 단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여러 학문 분야와 함께 학제간 연구가 진행되어 근현대의 사건과 시대상을 보다 깊이 있고,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Ⅱ.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 설명

대부분의 책은 나름의 목적이 있다. 논문 등 연구 성과가 집성된 학술총서와 대중을 위한 교양도서 등, 책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서술된다. 이 글의 주요 분석 대상은 『侵華日軍第七三一部隊舊址細菌實驗室及特設監獄考古發掘報告』이다. 이 책은 고고학의 발굴보고서이고, 고고학 발굴보고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우 생소한 분야의 책이다. 이 때문에 책의 내용과 서술 방식, 목적, 의미 등을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이에 고고학의 발굴보고서의 목적과 발굴 자체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고학의 발굴보고서는 정부기관의 승인 아래 정해진 시점에 따라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조사 결과를 보고 및 고찰한 책이다. 즉, 해당 국가의 승

인 아래 전문 고고학 조사자가 고고학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발굴보고서에서는 발굴 인력과 조사 시점, 조사 목적, 조사 내용(글·도면·사진)이 우선적으로 기록되고, 발굴자는 해당 지점을 '○○유적'이라는 개념으로 공간적인 범주를 설정한다. 해당 유적의 이해를 위해 주변 지역의 역사와 이전 발굴조사를 소개하고,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분석도 이루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유적의 시간성을 파악하고, 사회 혹은 문화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고찰한다.

고고학의 발굴조사 자체는 주로 구제발굴로 진행된다. 구제발굴은 개발로 인해 특정 지점의 드러난 문화유산이 파괴될 위기에 처하거나, 대규모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지점에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문화유산이 파괴될 수 있는 상황 등일 때 이루어지는 조사이다.[1] 이 외에 학술발굴도 존재한다. 학술발굴은 문화유산이 파괴될 위기에 처하지는 않았지만, 학술적인 목적에 따라 조사가 진행된다. 학술발굴은 후대와 이후의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현재는 최소한의 조사만 이루어지므로 실제로는 구제발굴에 비해 극히 일부만 조사가 계획된다. 그럼에도 학술적인 목적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조사가 진행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글의 대상인 '제731부대 유적'이다.

고고학의 조사와 발굴보고서는 과거의 문화와 사회를 밝혀주는 열쇠가 된다. 실물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그 자료를 대상으로 과거 사회를 밝히려 노력하기 때문에 다른 학문분야와는 접근방식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최근 근현대 고고학에 대한 관심이 고고학계에서도 증가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근현대 고고학의 역할이다. 근현대 고고학의 학문적인 역할에 대해 필자의 이전 연구에 의하면 역사시대와 현재를 이어주는 것과 근현대의 사건들에 대해 물질적 증거(물증)을 제공하여, 근현대의 사회와 문화를 새

1 물론, 일정 규모의 이상의 개발에는 반드시 구제발굴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롭게 복원하는 것이다.[2] 물론, 서구학계에서는 산업고고학의 역할로 알려져 있지만,[3] 근현대 고고학 분야 모두에 적용되는 특징임을 지적하였다.[4]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현대 사건의 입체적인 실체화가 가능해진다.

정리하면, 이 글의 소개 및 분석 대상인 『侵華日軍第七三一部隊舊址細菌實驗室及特設監獄考古發掘報告』는 근현대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 제731부대가 중국에서 행한 일의 물질적 증거를 제시한 보고서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제731부대 유적지를 불편문화유산의 개념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중국에서는 근대 일본의 침략 등에 대해 제731부대 유적지를 물질적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보고서를 소개하고, 고고학적 조사에 대해 이해를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와 분석, 보고서의 집필 등은 매장문화재의 고고학적 조사를 담당해온 '흑룡강성 문물고고연구소(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가 주도하고, 전시 중심의 '침화 일본군 제731부대 죄증 전시관(侵華日軍第七三一部隊罪證陳列館)'과 건축학 중심의 '하얼빈 공업대학교 토목건축 공과대학(哈爾濱工業大學土木建築工程學院)', 역사학 중심의 '동북사범대학교 역사문화대학(東北師範大學歷史文化學院)'이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였다.[5]

덧붙여, 보고문에는 중국의 건축학적 용어가 다수 사용되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의 건축학적 용어로 표기한 후, 괄호를 사용하여 중국의 건축

2 김동일, 2022, 「근현대 고고학의 필요성과 연구 방향성 제언」, 『한국에서의 근현대 고고학 연구』,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자유패널 발표자료집, 411~412쪽.

3 국내의 산업고고학에 대한 개념 정립은 필자에 의해 이루어졌다(김동일, 2020, 「한국의 산업고고학 연구」, 『영남고고학』 88, 영남고고학회). 이러한 특징이 서구학계에서는 산업고고학의 특징으로 알려졌지만,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이는 산업고고학만의 특징으로 정의할 수 없고, 산업고고학을 비롯하여 근현대 고고학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동일, 2022, 위의 글.

4 김동일, 2022, 위의 글, 411~412쪽.

5 '○○대학(○○學院)'은 중국에서 단과대학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문과대학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학적 용어를 병기하였으며, 각주를 통해 영문명 표기 혹은 간략하게 개념을 소개하였다. 또한 자료에 대한 고찰에서 '보고자'가 주장한 내용은 '보고자'로 문장을 시작하고, 이 글[6]을 쓴 '필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필자'로 문장을 시작하였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인식해주기를 부탁한다.

Ⅲ. 보고서의 내용 소개

소위 731부대로 불리는 '관동군 검역급수부'를 부대장인 이시이 시로(石井四郎)의 이름을 따서 '이시이부대'라고도 한다. 731부대의 정식 명칭은 관동군 검역급수부이지만, 이 글의 대상은 '제731부대 유적'이므로, 이 글에서는 '제731부대' 및 '제731부대 유적'으로 표기하고자 한다(그림 1).

제731부대의 형성 과정은 이미 학계와 대중에게 상당히 알려져 있다. 주지하다시피, 수질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각 군부대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되었지만, 실제로는 민간인에 대한 생체 실험이 자행된 곳이다. 초대 부대장은 의사였던 이시이 시로가 임명되었고, 그의 지휘 아래 한국인과 중국인, 몽골인, 러시아인 등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었다.

제731부대 유적 조사는 1987년부터 시작된다. 1차 조사는 1987년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조사는 안휘성(安徽省) 저현지구(滁縣地區) 문물보호과연소(文物保護科研所)에서 파견된 조사원에 의해 기초적인 탐사가 이루어졌다. 당시 탐사된 지점은 현재 제3동과 제6동, 그리고 제8동의 위치에 해당된다.

2차 조사는 2000년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였고, 흑룡강성(黑龍江省) 탄전지질물측대(煤田地質物測隊)[7]가 하얼빈시에 있는 평방구(平房區) 인민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조사를 진행하였다. 주로 세균실험실과 특수감옥 일대를 조사

6 「'제731부대 유적'의 고고학적 조사 성과와 그 의미」를 지칭한다.

7 煤田은 탄전으로 번역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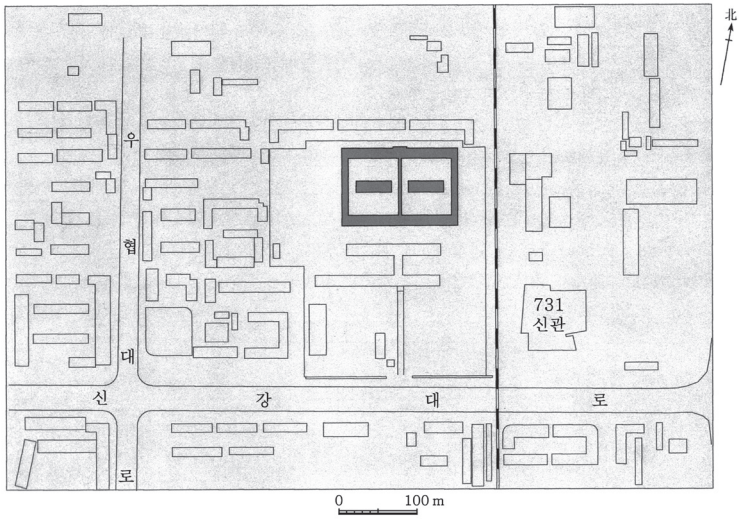


그림 1 제731부대 유적의 세균실험실과 특수감옥 위치도(李陳奇, 2018, 수정 후 인용)

하였다.

3차 조사는 2008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였고, 흑룡강성 문물고고연구소(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와 침화 일본군 제731부대 죄증 전시관(侵華日軍第七三一部隊罪證陳列館)이 합동으로 진행하였다. 세균실험실과 특수감옥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시설까지 함께 조사가 이루어졌다. 다만, 보고서에서는 세균실험실과 특수감옥을 중심으로 보고가 이루어졌고, 이 보고가 본문에서 다루는 주된 내용이다.

보고서는 상편과 하편으로 구성된다. 상편은 '세균실험실(細菌實驗室)'과 '특수감옥(特設監獄)', '중심복도(中心走廊)', '정원(庭院)', '기타시설(其他遺迹)', '출토유물(出土遺物)'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와 보고 내용이다. 하편은 '건축 구조 기술 연구(建築結構技術研究)'와 '건축 시공 공법 연구(建築施工工法研究)', '건축 재료 성능 연구(建築材料性能研究)', '건축 정보 모델(BIM) 간략 소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建築信息模型 BIM 簡介)' 등 건축 기술에 대한 각종 연구 내용이 수록되었고, 이 외에 부표(附表)와 부록(附錄), 맺음말(結語) 등이 제공된다. 부록에는 '건축 재료 에너지 스펙트럼 원시 데이터(建築材料能譜原始數据)'가 수록되어 있다.

각 장을 상편과 하편으로 나누어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편의 1(壹)장은 세균실험실에 대한 보고이다. 세균실험실은 4개의 동(棟)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3동부터 제6동까지가 해당된다. 보고서에서는 4개의 절(節)로 나누어 각 동을 설명하고 있으며, 지표 아래에 묻혀 있던 각 동의 구조와 건축 공법 등이 보고되었다. 전반적인 건축 구조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줄기초 및 벽체, 복도, 지하수로 등에 대한 설명이 핵심이다.

세균실험실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고고학적 조사로 시작된다. 국내에서는 근현대 건물에 대해 건축학적인 조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근현대 고고학이 활성화되어, 고고학과 건축학의 합동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 지표 아래 묻혀 있거나, 일부만 잔존한 건물을 조사 및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남아 있는 건물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었고, 건축학적인 조사를 통해 건물의 구조와 건축 과정이 복원되었다.



그림 2 제8동 분류식 하수관거의 맨홀(李陳奇, 201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貳)장은 특수감옥에 대한 보고이다. 특수감옥은 2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7동과 제8동이 해당된다. 보고서에서는 2개의 절로 나누어 각 동을 설명하고 있으며, 지표 아래에 묻혀 있었던 각 동의 구조와 건축 공법 등이 보고되었다. 전반적인 건축 구조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줄기초 및 벽체, 지하수로, 특수 장비실(特殊設備間), 분류식 하수관거의 맨홀(分流井)(그림 2) 등에 대한 설명이 핵심이다. 1장과 마찬가지로 2장 역시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 건물의 기본 형태를 파악하고, 건축학을 통해 건축 기술의 해석과 건축 과정에 대한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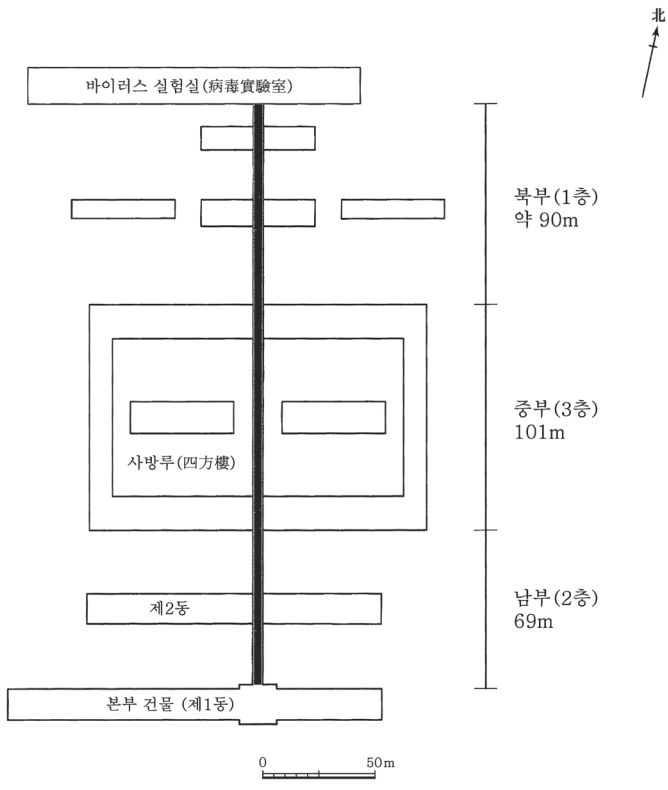


그림 3 중심복도의 배치(李晉基, 2018 수정 후 인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가 이루어졌다.

3(參)장은 중심복도에 대한 보고이다. 중심복도는 지상통로(地上通道)와 지하통로(地下通道)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 전반적인 건축 구조에 대한 설명이 핵심이다. 고고학과 건축학적인 조사를 통해 지상통로의 구조와 형태를 파악한 후, 지하통로의 구조와 형태, 기능 등을 복원하였다.

여기서는 지하통로의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하통로의 기능은 본부 건물(本部大樓)과 세균실험실, 바이러스 실험실(病毒實驗室)로 할당되는 급수(供水)와 난방(供暖),[8] 전기 케이블(電纜) 파이프(管線) 등의 주요 통로인데, 특수감옥과 페스트실험실(鼠疫菌實驗室) 등과도 파이프가 네크워크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중심복도는 구조적으로 세균실험실과 특수감옥에 인접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급수와 난방 시설의 연결이 용이하고, 세균실험실로는 급수와 난방 등이 제공된다. 그러나 필자가 판단하기에 특수감옥으로는 급수와 난방 시설이 연결되지 않았고, 이를 통해 당시 특수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한다.

4(肆)장은 정원에 대한 보고이다. 보고서에서는 4개의 절로 나누어 구조와 층위(그림 4-1), 각종 시설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다. 전체적인 보고 자체가 소략하다. 그럼에도 특수감옥이 정원 내에 위치한다는 점이나, 분류식 하수관거의 맨홀과 일부 매몰된 소각 구덩이 등이 정원에서 확인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특수감옥과 매몰된 소각 구덩이는 인권에 대한 무시와 인체 실험에 대한 증거를 감추기 위해서라도 외부 공개에 주의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정원의 전반적인 퇴적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의 ①은 지표면이고, 두께는 약 0.2m이다. ②는 건물이 파괴되면서 퇴적된 쓰레기이고, 두께는 약 0.5m이다(그림 4-3). ③은 제731부대 활동 당시의 지면이고, 두께는

8 중국 등지에서는 아직도 도시의 특정 회사에서 관리하는 라디에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를 供暖으로 표기한다. 이로 보아 보고서상의 난방(供暖)은 라디에이터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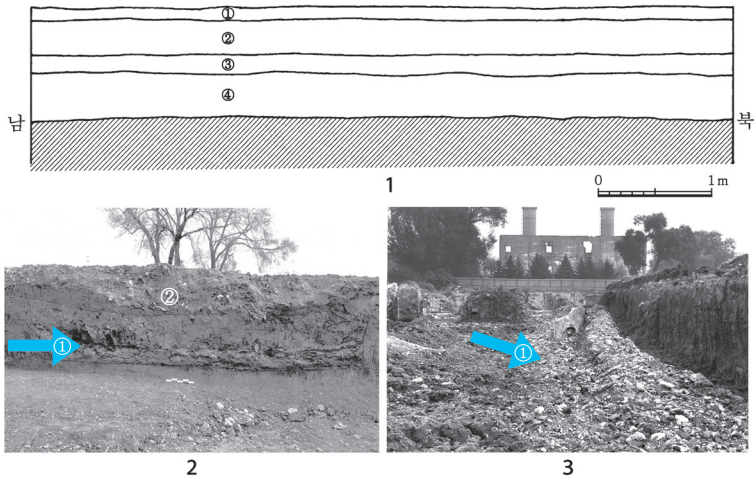


그림 4 정원과 매몰된 소각 구덩이(1. 정원 퇴적 양상 2. 2호 소각 구덩이(H2) 단면도 3. 건물의 쓰레기 퇴적 양상)(李陳奇, 2018 수정 후 인용)

약 0.25~0.3m이다. ④는 그보다 아래층으로 두께는 약 0.6~0.7m이다. 정원 내에서도 지점마다 각 층위 두께가 다르지만, 대체로 이러한 양상으로 퇴적이 일어났다.

필자는 〈그림 4〉가 제731부대의 증거 은폐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고 판단한다. 〈그림 4〉는 고고학적 조사 자료이고, 이를 필자가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정원 한편에서 제731부대가 퇴각하기 위해 자료를 폐기하려고 구덩이(H2)를 판 후, 여러 물품을 넣고 소각하였으며, 그 잔해가 쌓인 것은 〈그림 4-2〉의 ①이다.[9]

일반적인 선사시대 유구와 달리 오랜 시간 흙이 퇴적될 시간이 없었다. 제731부대 퇴각 당시 건물이 폭발되었으며, 그 흔적이 폭발지점들(B1~B4)이다.

9 5호 소각 구덩이(H5) 등 여러 매몰된 소각 구덩이에서 실험 도구와 약품 등 다양한 물품이 확인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또한, 〈그림 4-2〉의 ②는 건물의 쓰레기이고, 제731부대가 퇴각할 때 건물을 폭발시키면서 1차적으로 퇴적되었으며,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퇴적된 것으로 판단한다. 즉, 필자는 〈그림 4-2〉의 ②가 제731부대가 퇴각하면서 퇴적되기 시작하였고, 이 퇴적된 건물 쓰레기 자체가 제731부대의 건물 파괴에 대한 증거라 판단한다.

4장의 자료는 많지 않다. 그러나 재차 강조하자면, 〈그림 4〉처럼 정원의 퇴적양상을 고고학적으로 조사하고 고고학적으로 해석하면, 제731부대의 퇴각 당시 실험 자료의 은폐와 폐기 과정을 밝혀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

5(伍)장은 기타시설에 대한 보고이다. 기타시설은 매몰된 소각 구덩이(掩埋焚燒坑)(그림 4-2)와 폭발지점(爆炸點)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고서에서는 2개의 절로 나누어 설명된다. 전반적인 구조와 흔적에 대한 설명이 핵심이다. 매몰된 소각 구덩이는 여러 형태의 자료 소각이나 쓰레기 폐기를 짐작할 수 있지만, 폭발지점이 발견되면서 두 종류의 유구 모두 그 의미가 더 중요해졌다. 폭발지점은 제731부대의 폐기를 위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그림 5), 실제로 세균실험실(그림 5-1)과 특수감옥(그림 5-2)의 폭발지점이 확인되었다.

동시에 매몰된 소각 구덩이 역시 제731부대 폐기 당시의 주요 자료 폐기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는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자료이고, 이 조사를 통해 고고학적으로 제731부대의 은폐 과정이 명확하



그림 5 폭발지점(1. 세균실험실 제3동 B1 지점 2. 특수감옥 제8동 B2 지점)(李陳喬, 2018 수정 후 인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게 실체를 가지게 되었다.

6(陸)장은 출토유물에 대한 보고이다. 보고서에서는 11개의 절로 나누어 각 동 및 각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 채집된 유물을 설명하였다. 이 장에서는 각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을 구분하여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각 시설에서 어떠한 물품이 사용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졌다. 특히, 실험실에서 주류(酒類)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당시 실험을 진행한 의사와 군인들의 윤리 의식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자료이다.

고고학적인 해석을 추가하면, 유구(시설)가 폐기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전쟁 등에 의해 급작스럽게 건물이 전소(全燒)되어 폐기되지 않는 이상 실제 사용 물품의 일부만 남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과거에는 출토유물보다 훨씬 더 많은 물건이 사용 및 보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나아가 제731부대는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시설이기 때문에 출토유물은 폐기 직전의 마지막 시점의 물품 중 미처 처리하지 못한 일부 물품만 해당된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제731부대가 폐기되기 전에는 더 많은 주류와 실험도구가 존재하였고, 이를 통해 당시에 발생하였던 여러 실험에 대한 존재 자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특히, 실험실에서 주류가 존재하는 등 윤리의식의 다양한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다.

하편의 1장은 건축 구조 기술 연구에 대한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논문은 세부적으로 4개의 절로 구성되고, 각 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절은 '철근콘크리트 기둥 구조 기술 연구(鋼筋混凝土柱結構技術研究)', 2절은 '지반 기초 구조 기술 연구(地基基礎結構技術研究)', 3절은 '벽체 구조 기술 연구(墻體結構技術研究)', 4절은 '건축 구조 기술 전체 연구(建築結構技術整體研究)'이다. 각 절에서는 해당 연구의 수치적인 부분과 잔존 상황을 토대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2장은 건축 시공 공법 연구에 대한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논문은 세부적으로 4개의 절로 구성되고, 각 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절은 '철근콘크리트 시공 공법 연구(鋼筋混凝土施工工法研究)', 2절은 '점토벽돌 시공 공법 연구(粘土塼施工工法研究)', 3절은 '건축 방습 및 방수 공예 연구(建築防潮·防水工藝研究)', 4절은 '건축 동결 방지 및 보온 단열 공예 연구(建築防凍·保溫隔熱工藝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究)'이다. 이 연구에서는 목제 거푸집과 기둥 아래 줄기초, 콘크리트 자체의 상태, 전반적인 구조와 시공 공법 등을 밝히는 데 집중하였다.

3장은 건축 재료 성능 연구에 대한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논문은 세부적으로 9개의 절로 구성되고, 각 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절은 '콘크리트 재료 성능 연구(混凝土材料性能研究)', 2절은 '철근 재료 성능 연구(鋼筋材料性能研究)', 3절은 '점토벽돌 재료 성능 연구(粘土塼材料性能研究)'이다. 4절은 '모르타르 재료 성능 연구(沙漿材料性能研究)', 5절은 '조립식 부품 재료 성능 연구(預制部品材料性能研究)', 6절은 '목재 재료 성능 연구(木材材料性能研究)'이다. 7절은 '심토 연구(地基土研究)', 8절은 '건축 재료 SEM 주사전자현미경 분석(建築材料SEM掃描電鏡分析)', 9절은 '건축 재료 EDX 에너지 스펙트럼 분석(建築材料EDX能譜分析)'이다. 각 개체별 실험이나, 규격, 강도 등 다양한 실험 결과가 제공된다.

4장은 건축 정보 모델(BIM)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글로 논의된 내용은 극히 적으며, 대신 3차원 모델 자료를 다수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제731부대 건물의 형태를 복원하였다.

맺음말은 3개의 절로 구성되고, 각 절은 다음과 같다. 1절은 '제731부대 역사 연구의 현재 상황 및 고고학의 필요성(七三一部隊歷史研究現狀及考古的必要性)', 2절은 '세균실험실 및 특수감옥 고고학 발굴의 주요 성과(細菌實驗室及特設監獄考古發掘的主要收獲)', 3절은 '세균실험실 및 특수감옥 유적 디지털 복원 전시의 사회적 의의(細菌實驗室及特設監獄遺址數字化復原展示的社會意義)'이다.

맺음말에서 보고자가 특히 강조한 내용은 일본 정부와 군 상층, 관동군 및 일본 의학계가 제731부대의 창설과 확장에 전폭적으로 지지한 흔적을 발견하였다는 점이다.[10] 또한 보고자는 제731부대 유적이 제731부대가 세균무기를 개

10 李陳奇, 2018, 『侵華日軍第七三一部隊舊址細菌實驗室及特設監獄考古發掘報告』, 北京: 科學出版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발한 실제 사례이고, 민간인 학살과 증거 인멸 행위 등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11]

Ⅳ. 보고서에 대한 분석

보고자는 제731부대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대해 물질적 증거를 제시하여 실존성을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부정확하거나 감추려고 하였던 증거들이 실체를 가지고 드러나게 되었다. 특히, 세균실험실과 특수감옥에 대한 증언은 부정확하거나 결실된 부분이 다수인데,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보다 온전한 형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1. 유적 및 유구 조사의 성과와 한계

1) 고고학적 조사에서 건축학적 해석으로: 새로운 학제간 연구

유적은 제731부대의 세균실험실과 특수감옥이 있었던 터이다. 건물터의 구조는 장방형이고, 지상의 동서 길이는 150.14m, 남북 길이 100.02m이며, 바닥 면적은 15,017km^{2}이다. 세부적으로는 세균실험실과 특수감옥, 중심복도, 정원 등 4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세균실험실(細菌實驗室)은 제3동부터 제6동까지 해당된다. 특수감옥(特設監獄)은 제7동과 제8동이 해당된다. 중심복도(中心走廊)는 지상통로(地上通道)와 지하통로(地下通道)로 구성되고, 다시 3개 구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총 길이는 약 260m이다. 이 외에 정원(庭院)과 기타시설(其他遺迹)이 있다. 기타시설은 매몰된 소각 구덩이 6기(H1~H6)와 폭발지점 4기(B1~B4)가 해당된다(그림 6).

11 李陳奇, 2018, 위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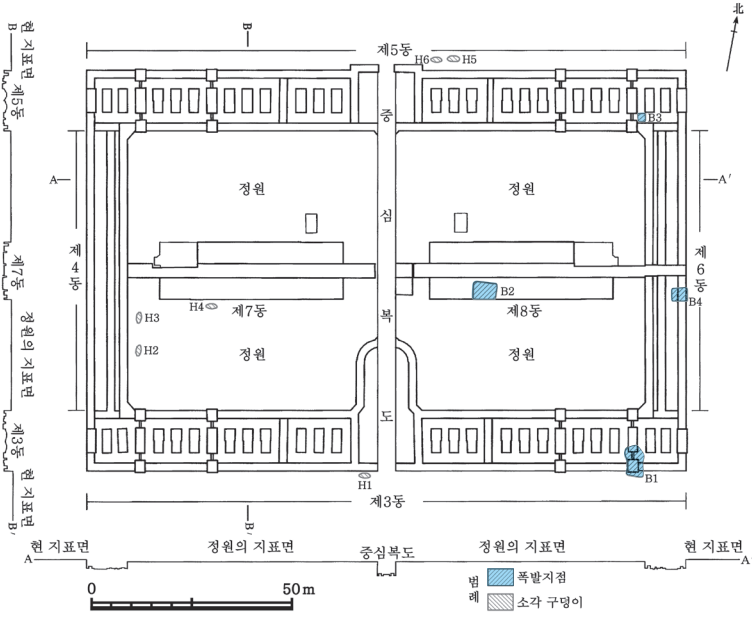


그림 6 유적의 평단면도(李陳喬, 2018 수정 후 인용)

이상의 제731부대 건물터를 속칭 '사방루(四方樓)'라고도 한다. 1945년 8월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 중 마지막으로 항복하게 된다. 이때 일본에서는 공병단을 통해 사방루를 폭파하고, 이후 제731부대의 철수가 시작된다.[12]

기본적인 건축 방식의 조사는 세균실험실의 조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세균실험실은 3층 건물이고, 4개 동(제3동~제6동)으로 구성된다. 건물은 평면 장방형의 구조이고, 남쪽에 제3동, 서쪽에 제4동, 북쪽에 제5동, 동쪽에 제6동이 위치한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1층 복도 주변으로 실험 장비를 운

12 필자는 일본에 의해 조선총독부와 만주총독부가 폭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731부대 건물만 폭파된 것 자체가 은폐를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반하는 레일이 존재하였다. 제3동과 제5동의 중심건물 꼭대기에서 세균실험실과 특수감옥을 감시할 수 있으며, 이는 사진과 기록으로 확인되었다.

발굴 조사를 통해 제3동의 구조를 복원할 수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동은 동서 길이 151.29m, 남북 길이 15.3m이다. 건물은 남북 방향이고, 남쪽은 정방형이며, 북쪽은 타원형으로 돌출되어 있다.

제3동의 줄기초(條形基礎)[13] 건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동서 방향으로 줄기초가 있으며, 기둥은 총 4개이고, 남북 양측에 각각 2개씩 배열되어 있다. 줄기초의 건축은 먼저 너비 약 1m, 깊이 2.1m의 홈을 파내고, 그 바닥에 0.15~0.2m 두께로 플레인 콘크리트(Plain Concrete)를 깔았다. 그 위에 목제 거푸집(木模版)을 두고, 안쪽 토대에는 철근이 없으며, 바깥쪽 토대에는 철근이 있다. 철근은 직경 10mm의 환강(光圓鋼筋)[14]을 사용하고, 가로 배열 간격은 0.15m이며, 세로 배열 간격은 0.1m이고, 양쪽 끝은 180°로 구부러져 있다. 마지막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다만, 목제 거푸집은 제거하지 않는다.

본 건물의 벽돌-콘크리트(塼混)[15] 혼합 기초와 벽체의 벽돌 쌓기 공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줄기초 위에는 벽체와 벽돌이 존재한다. 벽돌은 붉은색 벽돌을 사용하고, 길이 230mm, 너비 110mm, 두께 60mm의 규격이다. 필자는 이러한 규격이 50년 이상 오래된 적고벽돌[16]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로 보아, 근대에는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흔히 사용하였던 벽돌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외측 줄기초는 1.2m 너비로 벽돌을 교대로 깔고, 다시 그 위에 벽돌을 교대

13 영어로는 strip foundation로 번역할 수 있다.

14 영어로는 plain round bars로 번역할 수 있다.

15 영어로는 Brick and Concrete로 번역할 수 있다.

16 적고벽돌은 50년 이상으로 오래된 중고 벽돌을 지칭하고, 그중 붉은색 벽돌을 적고벽돌이라 한다. 적고벽돌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어 국내에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적고벽돌의 규격은 제731부대의 건축에 사용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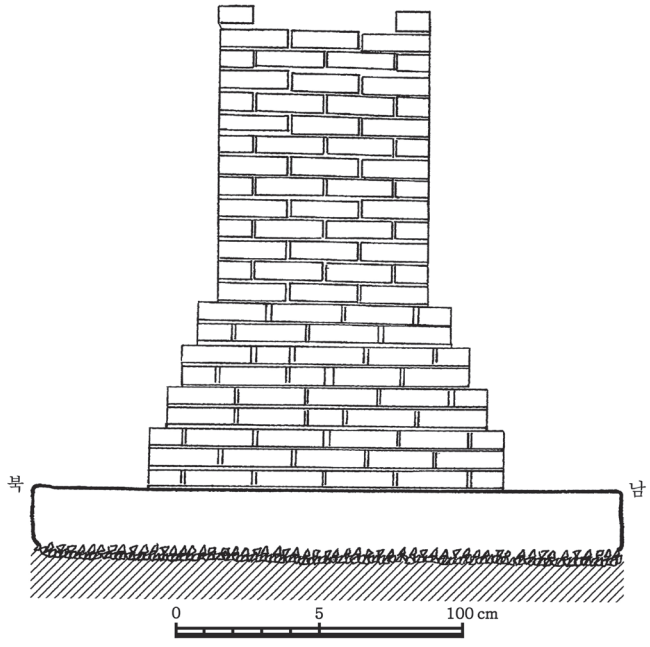


그림 7 제3동 외측 줄기초 및 벽체 단면도(李陳奇, 2018)

로 쌓으며, 계단 형식으로 올라가다가 위쪽 벽체에서는 0.72m의 너비까지 줄어든다(그림 7). 그 사이에는 콘크리트를 바르는 벽돌-콘크리트 혼합 기초가 사용된다. 내측 줄기초는 벽돌-콘크리트 혼합 기초가 사용되지만 너비가 0.48m로 비교적 좁게 만들어진다. 이러한 작업은 현대 건축 개념으로 조적 작업에 해당된다. 이러한 구조에 대해 중국에서는 추형 기초(錐形基礎, Cone-shaped Foundation)로 지칭하지만, 국내에서는 '기둥 쌓기' 혹은 '벽돌 기둥' 등 기본적인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

본 건물의 추형 기초는 대체로 잘 보존되어 있고(그림 8), 건축 과정은 앞서 살펴본 줄기초의 건축 과정과 유사하다. 먼저 종방향으로 방형의 땅을 파내고, 그 바닥에 0.15~0.2m 두께의 자갈을 깐 후, 콘크리트로 굳힌다. 그다음 목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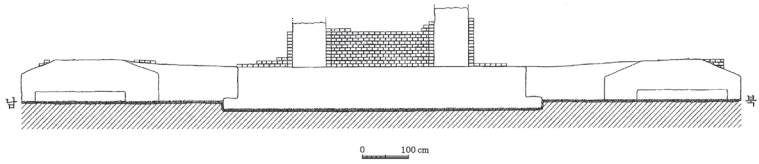


그림 8 제3동 추형 기초(李陳奇, 2018)

거푸집을 두고 철근을 배합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철근 콘크리트 기둥은 모두 방형이고, 추형 기초 위에 있다. 추형 기초를 구축할 때 그 성형을 충분히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추형 기초의 철근을 구성할 때 기둥 철근도 설계하였다. 추형 기초가 완성된 후, 다시 콘크리트를 부어 기둥을 만든다.

기둥은 환강의 철근과 띠 철근(tie hoop)을 조합하여 제작된다. 수직 기둥에는 세로로 철골 프레임이 일정한 거리마다 있고, 이는 띠 철근을 사용하여 가로로 감싸며, 가는 철사로 묶어서 고정한다.

이러한 건축 공법은 현대 사회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근대 벽돌-콘크리트 건물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건축학적인 측면으로 일본의 건축 기술 발전도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고고학적으로 조사된 자료를 건축학적으로 정리하면, 세균실험실은 폐쇄적인 장방형 평지붕의 3층 건물(제3동~제6동)이고, 제3동과 제5동은 쌍기둥의 구조(Double column frame)이다. 제4동과 제6동은 단회랑 브릭 콘크리트 구조(Brick and Concrete Structure)로, 중심복도는 브릭 콘크리트 구조(Brick and Concrete Structure)로 정리할 수 있다. 특수감옥(제7동과 제8동)은 2층이고, 장방형의 뾰족한 지붕이 있으며, 브릭 콘크리트 구조(Brick and Concrete Structure)로 정리할 수 있다.

보고자는 특수감옥에 대해서 발굴 자료를 토대로 새롭게 해석하였다. 그간 특수감옥의 구조에 대해 한쪽이 복도이고, 다른 한쪽이 감방으로 추정되거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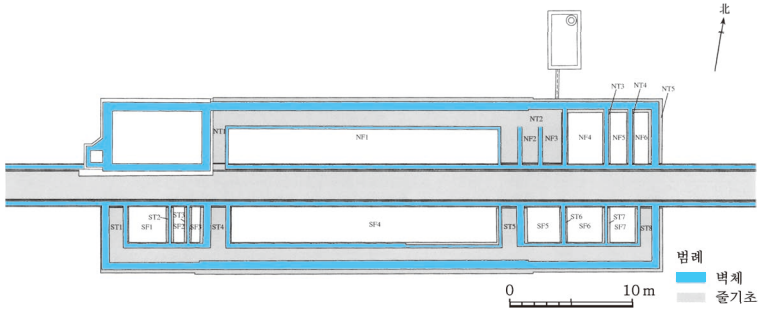


그림 9 특수감옥 제7동의 평면도와 수감실 배치(李陳奇, 2018 수정 후 인용)

중간복도와 그 양쪽으로 감방이 존재한다고 추정되어왔다. 특히, 후자는 균일한 감방이 2층까지 존재하여, 총 48개의 수감실로 인식되어왔다. 발굴 결과, 수감실의 수가 다르고, 수감실마다 크기도 일치하지 않았다(그림 9). 그러나 필자는 단일 건물이 아니라 주변 건물을 함께 고려하면 건물 자체는 일정한 규격으로 대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한다. 즉, 수감실의 크기 차이는 의도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고자 역시 의도적인 차이로 이해하였고, 그 이유를 수감 대상에 따른 사용 기능의 차이라 주장하였다.[17] 또한 인체 실험으로 인해 개별 관찰이 필요한 피해자는 다른 수감 대상자와 함께 관리할 수 없다고도 추론하였다.[18] 헌병이었던 오기하라 히데오(荻原英夫)의 증언에 의하면, 특수감옥의 1층과 2층에서 한가운데는 아무 설비가 없는 빈방이고, 인체실험을 위한 이른바 '마루타(馬路大)'가 갇혀 있는 수감실이라 주장하였다.

보고자는 이 중앙의 빈방을 개별 관찰이 필요한 인체 실험 대상자의 수감실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와 견해가 다르다. 세균실험실과 특수감옥

17 李陳奇, 2018, 앞의 책, 241~242쪽.

18 李陳奇, 2018, 위의 책, 24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특수감옥의 수감자 중 누구나 인체 실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실제로도 다양한 대상에게 인체실험이 이루어졌다. 여성과 어린이도 수감 대상이었고, 여성의 경우 일본의 제731부대 부대원에 의해 강간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수감실을 다양하게 배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그중 중앙의 큰방은 오기하라 히데오의 증언처럼 인체실험이 시작되어 관찰이 필요한 대상을 집중 관찰하는 용도였다고 판단한다.

2) 분석의 한계와 재해석: 제731부대 건물의 재인식

벽돌-콘크리트 구조는 근대 적산가옥의 건축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이로 인해 당시 일본의 건축 공법이 주택뿐만 아니라 고위 군부대 실험실 등 다양한 건물에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공법이 일본의 전통적인 공법이 아니라, 서양의 건축 공법이 유입된 이후에 유행한 공법이라는 점이다. 일본인이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목조 건축이 아니라, 벽돌과 철근, 콘크리트 등을 사용한 건물이 외면을 둘러싸며, 그 중앙은 비어 있는 구조이다.

건물 중앙의 빈 공간은 정원을 의미하며, 이러한 공간을 중정(中庭)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구조는 당시 일본 건축학계가 서양의 건축 방식을 융합한 건축 개념이고, 이것이 화양절충(和洋折衷)이라는 개념이다. 제731부대 세균실험실에도 중정이 존재한다. 중정은 일본만의 특징적인 구조가 아니고, 중세 이전부터 여러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건물 구조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중정은 일본의 근대 건물에서 사용되는 형태의 중정을 의미한다.

이시이 시로(石井四郎)는 제731부대 비밀감옥(祕密監獄)이 독일식 '비밀건축법(祕密建築法)'으로 건축되었다고 주장하였고,[19] 벽돌-콘크리트를 사용한 공법 등을 종합할 때 독일의 근대 건축법과 일치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보고자는 이 지점까지 해석하였다.

필자는 여기서 진전된 해석을 시도하고자 하며, 제731부대 건물의 구조 자

19 李陳奇, 2018, 위의 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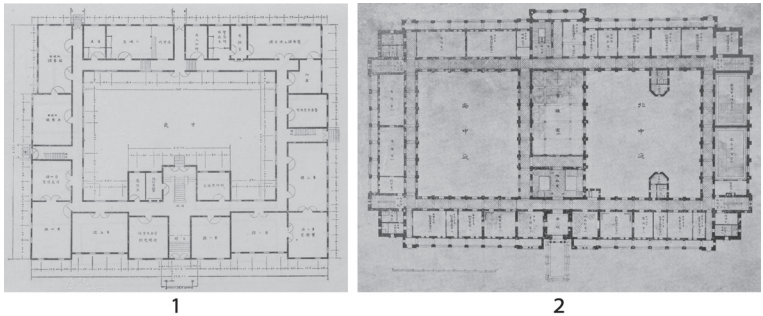


그림 10 정원(중정)이 있는 일본 청사급 건물(1. 일본 나라현 구 청사 2. 대만총독부 청사) (建築世界社, 1928)

체에 대해 집중하고자 한다. 제731부대 세균실험실과 특수감옥은 기본적으로 독일식 건축 공법이 적용된 일본의 화양절충형 건물인데, 일본이 건축한 청사급의 건물에서 유사한 형태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본 나라현(奈良縣)의 구(舊) 청사는 중앙에 정원(중정)이 있고, 건물이 정원을 둘러싸는 구조이다(그림 10-1). 대만총독부(臺灣總督府)의 청사와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의 청사 역시 같은 구조이고, 유사한 건축 공법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0-2). 이 외에 한반도의 공소원 등 일부 고위 재판소에서 유사한 구조가 확인된다. 즉, 일본인이 선호하는 정원(중정)이 존재하며, 건물이 정원을 둘러싸고 외벽처럼 존재하는 구조이고, 동시에 벽돌-콘크리트와 철근 등을 사용하여 독일식 건축 공법으로 건축된 건물은 일본의 정부 고위층을 위한 화양절충형의 건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청사로 건축된 건물에서 유사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여기서 필자가 주목한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당시 일본군의 감옥 구조 및 군부대 건물과 제731부대 건물의 차이점이다. 당시 중국 동북지역의 관동군 사령부와 한반도 내 일본군의 사령부는 중정이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또한 당시 일본인이 한반도에 건설한 감옥은 대체로 수감실만 존재하는 구조이거나 일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앙에 활동 구역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731부대의 특수감옥은 일반적인 감옥 구조로 볼 수 없다. 다른 세균실험실로 제100부대의 건물 구조나 화학무기를 연구하는 제516부대의 건물 모두 제731부대 세균실험실과는 다른 구조이다. 즉, 제731부대의 세균실험실과 특수감옥은 일반적인 군부대나 감옥의 건물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이다.

그나마 유사한 형태가 상해의 일본 해군특별육전대(海軍特別陸戰隊)의 사령부가 장방형으로 중앙이 빈 구조지만, 전반적인 구조에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를 무시하더라도 사령부라는 점에서 건물의 사용자와 용도 자체가 군부의 매우 높은 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재차 강조하자면, 제731부대의 건물 구조가 총독부 청사 및 재판소 등과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독일식 건축 공법과 화양절충의 의도가 섞여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물 자체가 특별히 높은 등급의 대상에게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청사로 다수 사용되었다는 점 역시 참고할 수 있다. 이를 참고하여 필자는 제731부대 세균실험실은 애초에 건물의 사용 역할이 청사 등 지휘부에 가깝다고 추정한다. 동시에 세균실험실의 존재 자체가 당시 일본 정부에서 최상급의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반영한다.

둘째, 제731부대 세균실험실과 특수감옥의 분할 구조이다. 제731부대 세균실험실과 특수감옥은 중앙이 '十'자처럼 분할되는 듯이 보여 중국에서는 사방루로 불린다. 이는 중정이 4개라는 의미이고, 다른 관점으로는 4분할 구조로도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총독부와 도시의 청사들은 대부분 2분할 구조이다.

이 문제는 건물의 용도와 하부 구조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731부대의 고위층을 위한 건물은 세균실험실이다. 반면, 인체실험 등 비윤리적인 행위의 대상자가 강제로 수감되는 곳이 특수감옥이다. 즉, 두 건물이 하나의 장소에 존재하지만, 사용자와 목적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세균실험실만 살펴보면, 그 구조는 총독부 등의 청사(그림 10-2)와 같은 2분할 구조이다(그림 11-1). 반면, 특수감옥은 세균실험실과 온전히 연결된 구조가 아니고(그림 11-2·3), 층수도 다르며, 2분할 구조의 중정 안에 전혀 다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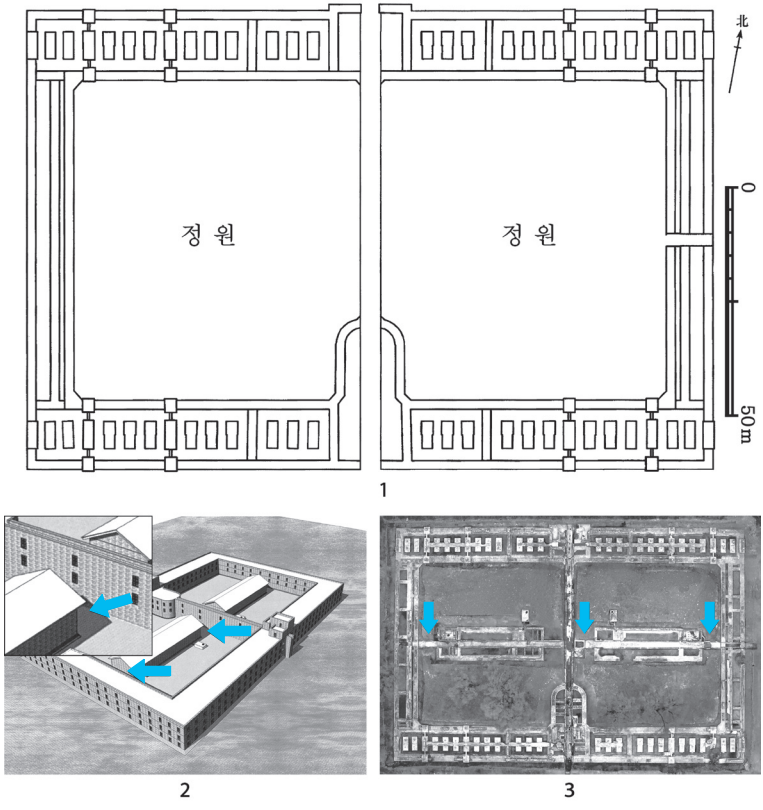


그림 11 세균실험실의 도면 복원(1. 세균실험실의 도면 복원 2. BIM 지상복원 전경 3. 세균실험실과 특수감옥의 항공 촬영 사진)(李陳喆, 2018 수정 후 인용)

형태의 지붕이 건축되어 있다(그림 11-2). 즉, 총독부의 청사와 같은 세균실험실을 건축하고, 세균실험실 사이에 추가로 특수감옥이 건축되었다고 판단한다.

이 문제는 특수감옥의 시설도 고려할 수 있다. 세균실험실과 달리 특수감옥은 급수와 난방 등의 시설이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필자는 인권을 무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결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초기 건축 설계 당시 급수와 난방 제공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추정한다. 이를 정리하면, 특수감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은 처음부터 인권을 무시하기 위한 것이었고, 세균실험실과는 별개로 감옥이라는 의도하에 지어진 건물임을 추정할 수 있다.

재차 강조하면, 건물에 대한 일본 정부 지원 자체가 총독부 청사급이다(그림 11-3). 조선총독부는 5층 건물이고, 제731부대 세균실험실은 3층 건물이지만 평면상에서의 면적이 더 넓다. 현재 총독부 건물들이 대부분 해체되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조선총독부 청사는 길이 약 131m, 너비 약 70m로 추정되며, 제731부대 세균실험실은 지상 길이 약 150m, 너비 약 100m이다. 즉, 제731부대 세균실험실은 조선총독부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제공되었다.

제731부대 건물을 재인식하면, 필자는 제731부대 세균실험실은 청사급의 건물로 제공되었으며, 동일한 등급 및 구조의 건물을 참고할 때 관련 분야의 지휘부 역할을 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다. 특수감옥은 처음부터 감옥의 목적으로 건설되었고, 건물은 구조부터 인권을 무시한 채 건축되었다. 제731부대는 청사급의 독일식 화양절충형 2분할 구조이지만, 특수감옥으로 인해 4분할 구조처럼 보일 뿐이며, 건물의 주요 지휘부는 2분할 구조의 건물을 사용하였다.

2. 유물 조사의 성과와 한계

출토 유물 및 그 폐기 흔적을 통해 인체실험과 의도적인 실험 자료의 폐기 흔적을 파악할 수 있다. 매몰된 소각 구덩이에서는 다수의 유리 시험관과 플라스크, 약병 등의 각종 용기가 발견되었다. 특히, 5호 소각 구덩이(H5)에서는 다량의 유리제 실험용기가 출토되었고, 6호 소각 구덩이(H6)에서도 200개 이상의 유리제 용기가 출토되었다. 더욱이 6호 소각 구덩이의 용기에서는 원래 용액이 함유되거나, 약품명이 표기된 채 발견된 사례가 다수이다. 예를 들면, 이질 예방접종액(赤痢預防接種液)이 적힌 병이 발견되었고(그림 12), 이를 통해 백신 실험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아쉬운 점은 출토유물을 통해 보다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연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제731부대가 결성된 직후, 일본은 국가 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12 6호 소각 구덩이(H6) 출토 이질 예방접종액(李陳喬, 2018)

시총동원 상태로 진입하였지만, 제731부대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사치품과 주류, 음료 등이 보급되었다(그림 13). 이 중에는 군수품도 포함되어 있다. 당시 일본의 군대 다수가 풍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731부대 출토 유물은 제731부대에 대한 풍족한 지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물질적 증거이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면, 5호 소각 구덩이(SH5:4·8)에서는 일본의 찻주전자(急須)가 출토되었다(그림 13-3). 이러한 형태는 근대 일본에서 생산된 일본의 찻주전자이다. 같은 형태로는 야마나시현(山梨縣) 출토품[20]과 오키나와(沖繩) 우시오바라 고묘군(潮原古墓群) 출토품[21]이 있다(그림 14). 물론, 문양은

20 山梨縣教育委員會·國土交通省關東地區整備局, 2007, 『鰍澤河岸跡 V』.

21 沖繩縣立地下文化財産中心, 2007, 『潮原古墓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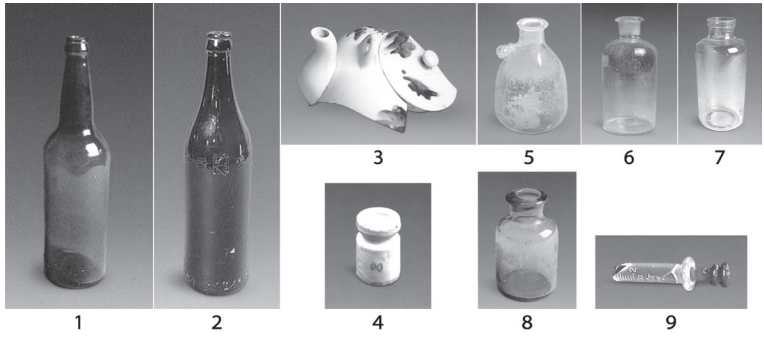


그림 13 출토 유물 모음(李陳奇,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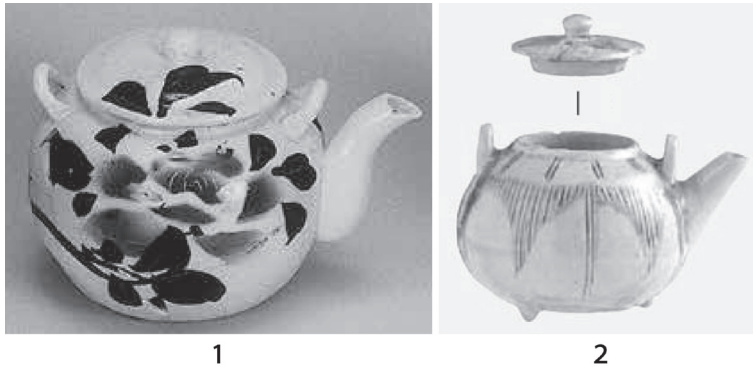


그림 14 일본산 찻주전자(1. 山梨縣教育委員會·國土交通省關東地區整備局, 2007 2. 沖繩縣立地下文化財產中心, 2007)

다르지만, 선사고고학과 달리 근현대에는 다종다양한 문양이 자유롭게 생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형의 일치함이 더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생산 찻주전자임을 추정할 수 있다.

다른 예로, 애자(碍子)를 주목할 수 있다. 애자는 절연체이고, 전선로나 전기기기의 나선 부분을 절연하며, 기계적으로 유지 및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통해 전기 사용을 추정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 유물이 출토된 지점이다.

애자는 특수감옥 제7동(SF7:15)과 세균실험실 제3동(SF3:49) 등에서 출토되었다(그림 13-4). 세균실험실은 제731부대의 부대원들을 위해 전기가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특수감옥에서의 전기 사용은 의아한 점이 있다. 앞서, 특수감옥은 급수와 난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가 보급되는 것은 실험을 위한 전기 시설이 존재하였다는 증거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기본적인 인권을 위해 제공되어야 할 난방이나 급수시설조차 없는 상황에서 전기가 유입되는 것은 특수감옥을 이용하는 제731부대 부대원의 사용 목적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외에도 필자는 세 가지에 대해 향후의 주목 과제로 제안하고 싶다. 첫째, 5호 소각 구덩이(SH5:1)에서 여과 플라스크가 출토되었다는 점이다(그림 13-5). 이처럼 추후 연구를 통해 실험도구의 종류를 더 추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둘째, 각종 용기 자체에 대한 의문점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금택대학(金澤大學) 병원 유적에서 출토된 근대 병원 용기에는 반드시 병 자체에 눈금이 새겨져 있다[22](그림 15). 그러나 제731부대 유적에서 발견된 용기에서는 이러한 눈금이 확인되지 않는다(그림 13-6~8). 아무리 비윤리적인 인체실험이라도 약품 등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하는 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약품 관리 등을 위해 잔존양 역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스포이트와 주사기에서만 눈금이 확인되고(그림 13-9), 용기에는 눈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문제는 근대 의학사 분야와의 협업이 필요한 분야이다.

셋째, 출토된 긴 유리병을 왜 전부 주류로만 인식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물론, 다수가 주류는 맞지만, 맥주병처럼 생겼을 뿐 다양한 주류와 음료가 발견되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현재의 맥주병과 같은 형태의 병에 음료와 맥주, 와인 등을 넣어서 판매하였다. 그중에는 군수품으로 지정된 것들도 있다. 이를 통해

22 金澤大學埋藏文化財調査センター, 2021, 『金澤大學構內遺跡 寶町遺跡』.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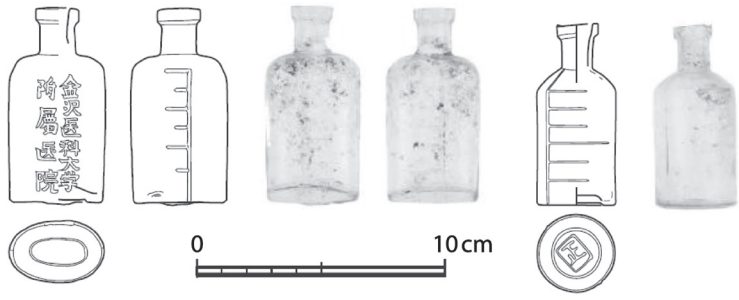


그림 15 금택대학 병원 유적 출토 병원 용기(金澤大學埋藏文化財調査センター, 2021)

군수품의 확산과 유통에 대해서도 연구가 가능하다. 추후에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제731부대 출토 유물에 대한 깊이 있는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필자 역시 이에 동참할 예정이다.

V. 글을 마무리하며

필자는 본문을 작성하면서 고고학자의 역할에 집중하였다. 첫 번째는 중국어로 된 고고학 발굴 보고서를 국내 건축 용어 등으로 해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두 번째는 고고학적 해석과 그 한계, 향후 과제 제안 등 고고학자로서 가능한 서술에 매진하였다. 세 번째는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주변 학문과의 연계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 발굴 보고서는 고고학적 조사가 그 기본이지만, 건축학적으로 해석이 이루어졌고, 나아가 의학사 및 근대사, 인류학 등 여러 학문의 학제간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폭발지점과 매몰된 소각 구덩이가 확인된 점을 강조하고 싶다. 폭발지점과 매몰된 소각 구덩이는 당시 일본군의 증거 인멸에 대한 새로운 물질적 증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당시 일본군의 여러 인체실험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한 은폐 시도를 물질적으로 증명한다. 이는 근현대 고고학의 순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중국학계의 근현대 고고학이 기술사와 문화유산 보호 및 활용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개별 유물에 대한 연구 등이 미진하고, 이러한 한계가 제731부대 발굴 보고서에서도 잘 드러난다는 점이다. 물론, 한국의 근현대 고고학 연구 역시 현재 태동단계이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을 간과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23]

어쨌든 간에 제731부대 유적에서는 일본 내지의 실험용 유리병(일본군용)과 유명하지 않은 일본 내지 음료와 술도 발견되고, 이러한 발견이 대부분은 일본군의 보급에 의한 결과라 생각한다. 혹자는 발견된 수량이 적다는 점을 강조할지 모른다. 그러나 유적의 사용기간과 당시 상황, 폐기과정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수량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유적이 폐기될 때, 전쟁이나 화산 폭발 등에 의해 한순간에 폐기된 경우에만 폐기 직전에 사용한 그대로의 수량과 종류가 남아 있게 된다. 비슷한 예로 폼페이 유적이 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제731부대는 최고의 음식과 보급품이 제공되었다는 기록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복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쓰레기 등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정리되었을 것이다. 제731부대의 모든 물품은 사용된 후 쓰레기더미처럼 쌓아놓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마지막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러한 해석은 고고학에서 당연한 해석이고, 물품이 적은 수량으로 출토된 정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제731부대의 사용기간을 고려하면, 1~2년이 아니라 장기간 사용하다가 패망 이후 부대를 폐기하고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남아 있는 물품이 적더라도 실제로는 오랫동안 여러 물품을 다수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3 필자는 2022년 한국고고학 전국대회에서 『한국에서의 근현대 고고학 연구』라는 테마로 자유패널을 개최하였고, 현재 근현대 고고학과 관련된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당시 발표에서도 근현대 유물의 중요성과 근현대 고고학이 물질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강조하였다. 김동일, 2022,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마지막으로 고고학자료를 통해 본 제731부대의 인권무시와 윤리의식 부재에 대해 강조하고 싶다. 특수감옥만 급수와 난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당시 군인과 의사들이 행한 인권 무시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인체실험 자체가 윤리의식에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대의 일부 일본인은 이 실험이 의학 등 여러 방면으로 좋은 의도도 있었다고 억지를 펼치기도 하지만, 세균실험실에서 발견된 주류를 통해 이들이 인체실험 이외의 방면에서도 윤리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특수감옥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면, 이들은 본질적으로 좋은 의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고, 물질적 증거를 통해 당시 사진과 증언으로 확인되어온 일본군의 인권무시와 윤리의식 부재가 단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필자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여러 학문 분야와 함께 학제간 연구가 진행되어 근현대의 사건과 시대상을 보다 깊이 있고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후기] 이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신 동북아역사재단 측에 감사를 드린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단행본

李陳奇, 2018, 『侵華日軍第七三一部隊舊址細菌實驗室及特設監獄考古發掘報告』, 北京: 科學出版社.

建築世界社, 1928, 『工学博士長野宇平治作品集』, 東京: 建築世界社.

金澤大學埋藏文化財調査センター, 2021, 『金澤大學構內遺跡 寶町遺跡』.

山梨縣教育委員會·國土交通省關東地區整備局, 2007, 『鰍澤河岸跡 Ⅴ』.

沖繩縣立地下文化財產中心, 2007, 『潮原古墓群』.

논문

김동일, 2020, 「한국의 산업고고학 연구」, 『영남고고학』 88, 영남고고학회.

_____, 2022, 「근현대 고고학의 필요성과 연구 방향성 제언」, 『한국에서의 근현대 고고학 연구』,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자유패널 발표자료집.

* 이 글의 그림과 사진 다수는 필자에 의해 수정되었으므로, 인용 시 출처 표기를 부탁드린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2..78.012

『녹둔도 공동조사 보고서』

– 미지의 섬, 녹둔도를 향한 첫걸음

(서울특별시·남북역사학자협의회, 문예원, 2021)

이상훈 |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I. 머리말
II. 주요 내용과 특징
III.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1969년 7월 20일, 인류는 달에 첫걸음을 내딛었다.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에 무사히 착륙하자, 닐 암스트롱(1930~2012)이 달 표면에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밤하늘에 밝게 떠 있는 달은 오랫동안 인류에게 동경의 대상이자 미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닐 암스트롱의 첫걸음으로 달은 미지의 대상이 아니라 탐구의 대상이 되었다.

녹둔도(鹿屯島)는 두만강 하구의 섬으로 조선시대 두만강 이북의 여진족 침입을 막기 위한 주요 군사 요충지였다.[1] 이순신이 여진족의 침략을 방어한 녹둔도 전투로 잘 알려져 있다.[2] 하지만 조선 후기 연해주 쪽으로 연륙(連陸)하게 되면서 더 이상 섬이 아니었고, 결국 러시아 영토로 편입되고 말았다.[3]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져갔다.

최근 잊혀진 미지의 섬 녹둔도를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2018년 통일부의 연구과제로 「나선-녹둔도 이순신 유적 남·북·러 공동조사 추진 방안 연구」가 추진되면서 시작된 것이다.[4] 2018년 첫 조사 이후, 서울시의 지원으로 2019년 2차 조사, 2020년 3차 조사, 2021년 4차 조사까지 이루어졌다.[5]

---

1 이왕무, 2011, 「조선시대 녹둔도의 역사와 영역 변화」, 『정신문화연구』 34-1, 120쪽.

2 이순신이 수행한 녹둔도 전투에 관해서는 김진수, 2015 , 「선조대(1587) 녹둔도 전투에 대한 고찰」, 『군사연구』 140 참조.

3 노영돈, 2005, 「녹둔도의 노령화 과정과 그 현재적 음미」, 『백산학보』 73.

4 남북역사학자협의회, 2018, 「나선-녹둔도 이순신 유적 남·북·러 공동조사 추진 방안 연구」.

5 백종오, 2019, 「남·북·러의 나선-녹둔도 이순신유적 발굴조사」, 『내일을 여는 역사』 75; 백종오, 2020, 「이순신 북방유적 남·북·러 공동조사의 의와 전망」, 『백산학보』 116; 백종오, 2021, 「충무공 이순신 북방유적 남·북·러 공동조사 방안 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21년 12월 23일, 남북역사학자협의회·러시아군사역사학회 연해주지부·고려사학회·백산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는 「두만강 하구 이순신 유적 한러 조사 결과 학술 심포지엄 -녹둔도의 고고학적 성과와 역사적 가치-」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되었다.[6] 여기에서 발표된 한국 측 연구성과는 『백산학보』 121호(백산학회, 2021. 12)에 '한러 녹둔도 조사의 고고학적 역사적 가치' 특집으로 수록되었다.[7]

2018~2021년에 이루어진 녹둔도 연구와 발굴조사 성과는 2021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녹둔도 공동조사 보고서』[8]를 발행함으로써 일단락을 맺었다.[9] 『녹둔도 공동조사 보고서』의 일러두기에는 "이 책은 서울시의 지원으로 한국측의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러시아 측의 러시아군사역사학회, 극동연방대학 박물관이 공동조사단을 꾸려 진행한 '두만강 하구 녹둔도 이순신유적'에 대한 고고학 조사의 결과물이다"[10]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녹둔도 공동조사 보고서』 발행 이후에도 녹둔도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11] 앞으로 녹둔도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하며, 『녹둔도 공동조사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구」, 『동양학』 82.

6 백종오, 2022, 「백산학회 창립 55주년의 회고와 향후 과제」, 『백산학보』 122, 21쪽.

7 『백산학보』에 특집으로 수록된 5편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백종오, 2021, 「두만강 하구 녹둔도 이순신 유적의 공동조사 성과와 전망」, 『백산학보』 121; 오대양, 2021; 「두만강 하류지역 고고학 문화·유적의 최근 연구 동향과 쟁점」, 『백산학보』 121 이준성, 2021, 「두만강 하류 지역의 역사 전개와 특징」, 『백산학보』 121; 정호섭·김경태, 2021, 「녹둔도에 대한 문헌 기록의 검토와 녹둔도농보의 위치」, 『백산학보』 121; 김귀한, 2021, 「조선시대 고지도 속의 녹둔도」, 『백산학보』 121.

8 서울특별시·남북역사학자협의회, 2021, 『녹둔도 공동조사 보고서』, 문예원.

9 박준형, 2021, 「충무공 이순신의 녹둔도전투 현장을 해부하다」, 『백산학보』 123.

10 서울특별시·남북역사학자협의회, 2021, 앞의 책, 25쪽.

11 최권호·박경진·박준형, 2022, 「근대 일본에서 발행된 조선지도 속의 녹둔도」, 『백산학보』 12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Ⅱ. 주요 내용과 특징

녹둔도 보고서는 『녹둔도 공동조사 보고서』와 『녹둔도 공동조사 보고서 부록』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녹둔도 공동조사 보고서』

발간사

1부 머리말

- 1장 조사 경위
- 특별전: 이순신과 녹둔도 문물
- 2장 조사 경과 및 소개

2부 녹둔도의 환경과 역사

- 1장 두만강 하류의 자연 및 고고 환경
- 2장 두만강 하류의 역사 전개와 특징

3부 녹둔도와 이순신

- 1장 고지도 속의 녹둔도
- 2장 이순신의 북방활동

4부 녹둔도 이순신 유적의 고고조사

- 1장 고고 조사 현황
- 2장 고고 조사 검토

5부 녹둔도 이순신 유적의 고고 문화와 문헌 검토

- 1장 두만강 하류 고고 문화의 연구사적 검토
- 2장 녹둔도의 문헌 검토와 녹둔도농보의 위치 비정

6부 녹둔도 이순신 유적 공동조사의 성과 및 의의

7부 맺는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녹둔도 공동조사 보고서 부록』

Ⅰ. 러문보고서
- 러문 보고서 2020
- 러문 보고서 2021

Ⅱ. 참고문헌

Ⅲ. 초록
- 국문초록
- Краткое изложение
- ABSTRACT

『녹둔도 공동조사 보고서』는 총 495쪽으로 발간사, 1부 머리말, 2부 녹둔도의 환경과 역사, 3부 녹둔도와 이순신, 4부 녹둔도 이순신 유적의 고고조사, 5부 녹둔도 이순신 유적의 고고 문화와 문헌 검토, 6부 녹둔도 이순신 유적 공동조사의 성과 및 의의, 7부 맺는말로 편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1부 머리말 내에는 이순신과 녹둔도 문물에 대한 「특별전」이 1장과 2장 사이에 추가되어 있다. 『녹둔도 공동조사 보고서 부록』은 총 176쪽으로 Ⅰ. 러문 보고서, Ⅱ. 참고문헌, Ⅲ. 초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공동조사단 전체 구성

남북역사학자 협의회	홍순권, 정태헌, 정병욱, 권내현, 백종오, 정호섭, 이준성, 정회일, 신준영, 김경순, 예대열, 남창근, 최동석, 하영미, 금보운, 정미영, 정영지, 이은희, 조윤영, 이현주
학술 자문	이기석, 이옥희, 심정보, 지현병, 김창진, 하문식, 고용규, 이상준, 김진수, 홍주희
한국측 공동조사단	백종오, 김호준, 황정욱, 현남주, 강진주, 김병희, 김진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러시아 측 공동조사단	E. Y. 스미로노프, A. N. 포포프, Y. G. 니키틴, B. V. 라진, E. Y. 니키틴, M. K. 루덴코, E. I. 듀코프, M. K. 루덴코, V. V. 셈첸코, Y. 루덴코, V. G. 브도빈, D. M. 쉐블라코프, K. L. 만코프스키, D. A. 블라굴랴, C. B. 구제에브
실무진	유수, 이영훈, 최원호, 이영준, 에기다레브 유진, 홍서연, 안소영, 유수경, 박재성, 이동명
집필 및 편집진	백종오, 정호섭, 김경태, 오대양, 이준성, 박준범, 현남주, 김호준, 김귀한, 김진형, 최원호, 최홍조, 이동휘, 박종욱, 이효진
자료제공 및 협조	고려대학교 박물관, 경기도 박물관, 현충사관리사무소, 수원박물관, 목포대학교 박물관, 민족문화유산연구원, 한울문화재연구원, 고용규·김세종, 국원문화재연구원, 강원고고문화연구원, 한국문화유산연구원, 한성문화재연구원

『녹둔도 공동조사 보고서 부록』은 『녹둔도 공동조사 보고서』를 요약 및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녹둔도 공동조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내용을 소개한다.

1. 1부 머리말(특별전)

1부 머리말은 1장 「조사 경위」, 「특별전」, 2장 「조사 경과 및 소개」로 구성되어 있다. 1장과 2장은 4부 녹둔도 이순신 유적의 고고조사와 내용이 연결되므로 4부에서 합쳐서 다루고자 한다. 1부에서는 서술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는 「특별전」의 내용을 소개한다.

「특별전」은 일러두기, 연표, 십경도(十景圖), 이순신 관련 문서 및 유적, 기록화, 조선시대 녹둔도 관련 고지도, 연해주 문물, 화보, 유구, 유물, 현장조사, 실록 속의 녹둔도, 녹둔도를 찾는 사람들, 어느 한인의 삶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러두기에는 보고서 전반의 표기방식을 제시하였고, 연표는 임진왜란과 이순신의 연표를 정리하였다. 십경도는 이순신의 일생 중 중요한 장면 10개를 선정하고 화폭에 담은 그림이다. 이순신 관련 급제 방목·홍패 교지 등 고문서와 『임진일기』·『임진장초』 등 고서를 사진으로 수록하였으며, 발포진·전라좌수영·명량·고금도진 등의 사진을 수록하였다. 기록화는 「수책거적도」와 「정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공정토시전부호도」이다. 조선시대 녹둔도 관련 고지도는 「동람도」, 「천하여지도」, 「조선팔도고금총람도」, 「동여비고」 등 18점을 수록하였다. 연해주 문물은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 초기 철기시대 유물을 정리하고, 이어 옥저·읍루, 고구려·말갈, 발해, 여진의 유물을 차례로 수록하였다. 화보는 시부치야만과 골라산 일대의 전경을 담았고, 유구는 사구지대·성장·골라산·대소달리 일대를 수록하였다. 유물은 토기류, 도기류, 흑자류, 백자류, 금속류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현장조사는 실제 현장에서 공동조사한 장면을 수록하였다. 실록 속의 녹둔도는 『조선왕조실록』 기록 가운데 녹둔도를 기록하고 있는 『세종실록』, 『성종실록』, 『중종실록』, 『선조(수정)실록』, 『효종실록』의 일부분을 반영하였다. 녹둔도를 찾는 사람들은 공동조사를 나서는 여정과 공동조사의 결과를 정리하는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느 한인의 삶은 안중근, 이상설, 최재형 관련 유적들을 촬영한 것이다.

2. 2부 녹둔도의 환경과 역사

2부 녹둔도의 환경과 역사는 1장 「두만강 하류의 자연 및 고고 환경(이동휘·박준범)」과 2장 「두만강 하류의 역사 전개와 특징(이준성)」[12]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두만강 하류의 자연 및 고고 환경」의 주요 내용이다. 두만강은 백두산 동남쪽의 무두봉 동북쪽에서 발원하여 중국·북한과의 국경선을 따라 북동방향으로 흐르다가 온성 부근에서 유로를 남동방향으로 바꾸어 동해로 흘러든다. 녹둔도는 두만강 하구에서 하중도의 형태로 존재하였다. 현재 녹둔도 주변에는 두만강의 여러 지류에 의해 형성된 하중도가 다수 존재하며, 일부 유로는 여전히 구하도로 남아 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두만강이 범람할 때마다 하류 쪽에 토사가 퇴적되거나 침식작용이 번갈아 일어나면서 유로가 변경되기를 반복하였다. 두만강 상류의 토사가 섬 주변으로 밀려들면서 퇴적되어 지류들의 수심이 낮아

12 이준성, 2021, 「두만강 하류 지역의 역사 전개와 특징」, 『백산학보』 12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졌다. 그 결과 섬과 섬들이 연도되거나 일부 섬은 연해주 일대의 육지와 연륙되기에 이르렀다.

두만강 하류지역은 후기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의 거주가 활발해졌다. 신석기 유적은 주로 산록 주변이나 바닷가와 강가 등 물가에 위치하며, 토기의 특징은 평저에 다양한 시문이 있다는 점이다.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움집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며, 어로와 수렵, 동물채집경제 활동을 하였다. 청동기시대에는 농경이 조금씩 자리 잡아가면서 사회 변화가 진행되며, 동물사육이 이루어진 증거도 발견된다. 초기 철기시대는 국가발생의 여명기로서 역사서 속의 옥저와 읍루 등의 기층문화로 여겨지는 단결-크로우노브카 문화와 폴체 문화 등이 번영하였다.

이후 고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두만강 하류지역에는 고구려와 관련된 성곽들이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말갈의 기층문화인 모헤 문화가 송화강 유역에서 아무르강 유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다가 기원후 4~5세기 무렵 연해주와 두만강유역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발해유적은 마을, 성곽, 보루, 무덤, 불교사찰 등이 확인되었으며, 중요 지점에 위치한 평지성은 지역의 정치, 군사,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마을 내에는 토기, 철 등을 생산하는 수공업 생산시설이 갖추어졌으며, 마을에서 일정거리 떨어진 평지 또는 얕은 구릉일대에 무덤이 만들어졌다. 성곽, 마을, 사찰, 무덤 등에서는 고구려계 토기와 기와와 함께 말갈계 토기도 출토되어 발해의 문화와 주민구성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발해 멸망 이후 이 지역은 거란과 여진의 생활무대가 되었다. 이들은 고려-조선을 거치면서 우리 역사 속 다양한 장면에 영향력 있는 객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2장 「두만강 하류의 역사 전개와 특징」의 주요 내용이다. 두만강 하류 지역에는 이른 시기부터 예맥 계통의 주민집단들이 성장하고 있었고, 그들이 남긴 문화 유형은 주변세력과는 구분되는 것이었다. 다만 이들은 주변에 중국 군현을 비롯하여 고조선, 고구려 등 강한 외부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늦은 사회 발전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 사료상 처음 등장하는 두만강 유역의 정치체는 북옥저이다. 이들은 문화적으로 함흥 일대에 존재하던 (동)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저 세력과 문화적으로 구별되는 집단이었다. 부여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읍루 세력이 계절에 따라 북옥저 쪽으로 내려와 생활하면서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3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 이 지역이 동부여의 관할 지역이 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285년 부여가 선비(鮮卑) 모용씨의 공격으로 수도를 함락당하자, 그 일부 세력이 동쪽으로 이동한 이후 잔여세력이 독자적인 국가를 건설했다는 것이다. 다만 동부여의 역사적 실체를 증명해 줄 구체적인 고고학적 증거나 문헌 자료는 확인하기 어렵다.

고구려의 경우 1세기경부터 훈춘 지역에 책성(柵城)을 구축하고 이를 거점으로 삼아 두만강 일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이후 멸망기까지도 이 지역에 관리를 파견하는 형태로 점차 지배를 강화해나갔다. 고구려 멸망 이후 세워진 발해는 훈춘 지역을 중심으로 동경용원부를 세워 10년 동안 수도로 삼았다. 일본, 신라 및 연해주 방면으로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이 지역을 거점으로 삼았다. 발해 멸망 이후 이 지역에는 여진 세력이 자리 잡았다. 이들은 요, 금, 원대에 걸쳐 계속 견제를 받으며 정벌과 강압의 대상이 되었지만, 동시에 일정하게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여진 세력은 조선과 명나라 건국 이후에도 양국에 조공과 이반을 되풀이하였고, 양국도 회유책과 강경책을 적절히 구사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3. 3부 녹둔도와 이순신

3부 녹둔도와 이순신은 1장 「고지도 속의 녹둔도(김귀한)」[13]와 2장 「이순신의 북방활동(김경태)」[14]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고지도 속의 녹둔도」의 주요 내용이다. 조선시대 고지도에 그려진 녹둔도는 해도(海島)·하중도(河中島)·삼각주(三角洲) 등으로 일관성이 없다. 동시

13 김귀한, 2021, 「조선시대 고지도 속의 녹둔도」, 『백산학보』 121.

14 김경태, 2019, 「이순신의 북방 지역 활동에 대한 사료적 고찰」, 『역사와 담론』 9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기에 제작된 지도에서도 각자 다르게 표기되어 그러한 차이가 시기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기도 어렵다. 녹둔도가 두만강 좌안에 연륙된 이후에도 고지도에 표현된 녹둔도는 통일성이 없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 성과와 문헌 그리고 현재의 지형적 여건을 바탕으로 고지도를 통해 조선시대 녹둔도의 시기별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녹둔도는 15~16세기 고지도에 해도로 표기되었으나 이는 오류이다. 『동여비고』에 따르면 녹둔도는 두만강 하구에서도 동해와 인접한 곳에 있는 하중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초 녹둔도는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해도'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동람도」를 통해 전승된 것으로 짐작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두만강 하구의 범위는 1680년대에 제작된 『동여비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두만강 하구는 현재 하산과 흐타라야 프로토타 호수 그리고 페르바 프로토카 호수를 연결하는 선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녹둔도는 15세기 이후 17세기까지는 큰 변화가 없이 하중도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두만강 하구에 퇴적 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삼각주가 되었고, 1760년경 두만강 좌안에 연륙되었다. 녹둔도는 하중도(15~17세기 후반) → 삼각주(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 연륙(1760년경)의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18세기 중반 녹둔도 내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달라지는 것은 이러한 자연환경의 변화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녹둔도는 실제 영역 범위는 하중도였으나, 조선 조정은 이를 두만강 하구의 퇴적지(경작지)로 인식하였다. 녹둔도는 두만강 하구의 요충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녹둔도의 면적이 늘어나고 러시아 연해주와 연륙되었음에도 '녹둔도'라는 지명이 그대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2장「이순신의 북방활동」의 주요 내용이다. 이순신의 북방 활동에 대한 기록은 임진왜란 당시의 활동에 대한 사료와 비교할 때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현존하는 사료가 이순신의 활동을 재구성하는 것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순신 관련 기록과 관찬 사료로서의 『실록』 그리고 사찬 사료로서 『징비록』, 『재조번방지』, 『제승방략』 등과 이일 관련 사료를 비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해보았다. 이순신의 「행록」, 「행장」, 「시장」은 공통적으로 '이순신의 활약과 이일과의 갈등', '백의종군 후 공로를 세워 사면'이라는 구도를 취하고 있다. 『징비록』, 『재조번방지』는 이순신의 활약을 부각하고 있는 점에서 「행록」류와 공통되지만, 이일과의 갈등과 백의종군 및 사면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선조수정실록』은 이러한 이순신 관계 사료와 『선조실록』의 관련 기록 그리고 『제승방략』을 참고하여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으로 여겨진다. 녹둔도를 침략한 자로 추도(秋島)의 마니응개라는 이름을 명시한 것, 그를 사살한 이로 이순신이 아닌 이몽서를 꼽은 점, 아군의 피해 규모, 추격전의 성과는 『제승방략』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일과 이순신의 갈등에 대한 기술은 이순신의 「행록」과 「행장」, 백의종군 처분이 내려지는 장면은 「행장」과 유사하다. 우을기내 생포를 백의종군 사면의 이유로 서술한 것은 「시장」을 참고하여 변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녹둔도 둔전이 이순신 부임 후 풍년이 들었다는 내용은 『선조수정실록』에서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일의 「행장」류에서는 위의 사료들과 구분되는 서술이 보인다. 이일이 녹둔도 전투 이후 조정으로부터 엄한 처벌을 받게 된 이순신을 구제하여 백의종군에 그치게 하였고, 이후 사면을 받는 과정에서도 역할을 했다는 기술이 있다. 또한 이일의 판단 덕분에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 활약할 수 있었다는 서술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러한 이일의 「행장」 사이에서도 시대에 따른 변화가 확인된다.

4. 4부 녹둔도 이순신 유적의 고고조사

4부 녹둔도 이순신 유적의 고고조사는 1장 「고고 조사 현황(백종오·김호준·현남주·김진형)」과 2장 「고고 조사 검토」(백종오·김호준·현남주·김진형)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1부 1장 「조사 경위」와 2장 「조사 경과 및 소개」를 포함하여, 고고 조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한다.

2018년 통일부의 연구 과제인 「나선-녹둔도 이순신 유적 남·북·러 공동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조사 추진 방안 연구」가 시작되면서 녹둔도 전투의 현장을 찾기 위한 작업이 추진되었다. 이때 녹둔강 주변 사구 지대와 남쪽의 학수평 마을터에 대한 조사가 처음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2019년 2차 조사, 2020년 3차 조사, 2021년 4차 조사는 서울시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조사단은 한국 측의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러시아 측의 러시아군사역사학회, 극동연방대학교 박물관을 중심으로 하는 한·러 공동 조사단으로 구성되었다.

녹둔도 조사지는 총 9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원래 연차별 조사 가능지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다보니 8지역으로 나누었었다. 그러나 이를 녹둔도 중심지로 추정되는 녹둔강 유역과 북동쪽의 골라산 일대로 나눈 후, 녹둔강 유역은 1~5지역으로, 골라산 일대는 6~9지역으로 재편하였다. 또 골라산 일대의 8지역(대소달리)은 다시 8-1~6지역으로 세분하였다. 1지역은 페르바 프로토카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두만강의 오래된 지류 가운데 위치한 사구지대에 해당하고, 2지역은 1926년 지도에 '城場'이라고 표기된 지역이며, 3지역은 1지역에서 남쪽으로 약 3.5km 떨어진 학수평 일대이다. 4지역은 하산자연공원의 보호지역에 해당하고, 5지역은 페르바 프로토카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지류의 오른쪽 기슭이며, 6지역은 7지역의 남서쪽에 위치한다. 7지역은 골라산 인근의 남서쪽이고, 8지역은 골라산의 북쪽 기슭이며, 9지역은 골라산의 남쪽 기슭에 위치한 습지이다. 이러한 9개 지역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차에 걸쳐 공동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1차 조사는 2018년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녹둔강 북안의 사구 지대인 1지역과 학수평 일대를 중심으로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근대 주거지와 초석, 연자방아 등의 석조물과 무쇠솥, 요강, 백자류, 도기편 등을 확인하였다. 2차 조사는 2019년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골라산과 그 일대인 8지역과 남, 서, 북쪽 기슭의 주거지로 용이한 단구지역을 대상으로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지역은 녹둔도 전투를 묘사한 『북관유적도첩』 중 「수책거적도」의 배경 지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선정된 지형이다. 3차 조사는 2020년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총 10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간 녹둔도 내 8개 지역에 대하여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병행하였다. 녹둔도 중심지와 그 전역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놓고 광범위하게 시굴 트렌치를 설치하여 지하 유구를 탐사하였다. 4차 조사는 2021년 5월 24일부터 29일까지 총 6일간 녹둔도 내 2·4·8지역을 대상으로 고고학 조사를 실시하였다. 성장(城場)인 2지역과 중소(中所)인 4지역에 대해서는 현지 상황을 감안해서 정밀 지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8지역(대소달리)은 2차 조사 시 시굴이 진행된 곳으로 당시 러시아 측의 의견을 존중해서 재조사를 수행한 것이다.

〈표 2〉 녹둔도 1~4차 조사 결과표[15]

구분	위치	트렌치	내용
1차 조사 2018	1지역	Tr.1	깊이 40cm까지 하강. 두만강 곡류 연관지역. 표토층 패각과 토기편 수습
		Tr.2	깊이 60~110cm까지 하강. 두만강 지류의 영향권 해당. 풍화작용으로 모래 퇴적지형. 유구 및 유물 없음.
		Tr.3	깊이 60cm까지 하강. 두만강 지류의 영향권 해당. 유구 및 유물 없음.
		1호 건물지	석구조물. 건물지 크기 약 7×5m. 지표에서 백자편 2점 채집
		2호 건물지	초석 노출, 건물지 크기 약 6×9m. 유물은 무쇠솥, 요강, 도기편, 자기편, 철제편 수습
		3호 건물지	직사각형 석구조물. 건물지 크기 약 4×6m. 도기편, 자기편 수습.
	3지역	Tr.4	깊이 60cm까지 하강. 사구 형성 및 풍화작용 퇴적 지형. 유구 및 유물 없음.
		Tr.5	깊이 100cm까지 하강. 두만강 지류의 퇴적과 풍화작용. 유구 및 유물 없음.
	동쪽	4호 건물지	석구조물. 건물지 크기 약 4×5m. 연자방아 3점. 근대 농가

15 서울특별시·남북역사학자협의회, 2021, 앞의 책, 153~157쪽의 표 4개를 하나로 합쳐서 정리한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구분	위치	트렌치	내용
2차 조사 2019	8-1지역	Tr.1	직사각형(크기 미상)의 시굴Tr. 조사(유구 없음). 주변에 시기 미상의 건축물 잔해 확인
	8-2지역	Tr.2	1개소의 시굴Tr. 조사(유구 없음)
	8-3지역	Tr.3	40~50cm의 깊이 얀콥스키 문화기의 토기편 30여 점 출토
		·	2개소 단구 주변 조사. 유구 없음. 투석용 석환 1점 확인
	8-4지역	·	조선인 마을 확인. 도기편과 연자방아 등 확인
	8-5지역	Tr.4	1개소 시굴Tr. 조사(자기편과 깨진 벽돌 조각 수습). 주변에 도기편, 철제 낫 등 수습
3차 조사 2020	1지역	Tr.1	깊이 260cm까지 하강. 두만강의 곡류와 연관된 자연 퇴적층. 유구 및 유물 없음.
	2지역	·	하산자연공원 보호구역. 한 변 200m 규모의 낮은 사구. 연자방아 2점과 백자편 수습
	4지역	·	하산자연공원의 보호구역. 저지대. 한인마을유적 관련 유물 수습
	5지역	Tr.2	깊이 110cm까지 하강. 풍화작용으로 모래가 퇴적된 지역. 유구 및 유물 없음.
	6지역	Tr.3	깊이 120cm까지 하강. 하천의 퇴적과 풍화작용 반복지역. 유구 및 유물 없음.
		Tr.4	하천의 퇴적과 풍화작용 반복 지역. 유구 및 유물 없음.
	7지역	Tr.5	하강과 동시에 지하수 유출. 유구 및 유물 없음.
		Tr.6	깊이 150cm까지 하강. 하천의 퇴적과 풍화작용 반복 지역. 유구 및 유물 없음.
	8지역	Tr.7	깊이 90cm까지 하강. 사면붕적토와 안정된 토층. 신석기~초기철기시대 유적 가능지역. 지형상 중세 요새 가능성 언급(러시아 조사단 견해)
	9지역	Tr.8	깊이 60cm까지 하강. 풍화작용으로 모래 퇴적 지역. 유구 및 유물 없음.
4차 조사 2021	2지역	·	하산자연공원의 보호구역. 성장(城場) 지역에 해당. 길이 200m, 너비 3m, 높이 0.5~0.8m의 방형 구조물 발견. 북쪽과 서쪽에서 건물지 발견. 연자방아, 보습, 워낭, 도기, 자기 등 한인마을 관련 19~20세기 유물 확인
	4지역	·	하산자연공원의 보호구역. 중소(中所) 지역에 해당. 진입도로에서 19~20세기 도기 및 자기 등 확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구분	위치	트렌치	내용
	8-4지역	Tr.1	깊이 160cm까지 하강. 유구 및 유물 없음.
	8-4지역	Tr.2	깊이 130cm까지 하강. 재퇴적 자연층위 확인. 유구 및 유물 없음.
	8-4지역	Tr.3	깊이 110cm까지 하강. 구지표층 삭평. 유구 및 유물 없음.
	8-6지역	Tr.4	깊이 250cm까지 하강. 자연퇴적층 확인. 유구 및 유물 없음.
	8-6지역	Tr.5	깊이 250cm까지 하강. 풍화작용에 의한 다량의 현대 유물 퇴적. 많은 부분 교란. 유구 및 유물 없음.
	8-6지역	Tr.6	깊이 130cm까지 하강. 유구 및 유물 없음.

4차에 걸친 공동조사에서 수집된 유물은 현장에 존치한 석환 1점을 제외하고 총 173점이다. 유물은 재질별로 구분해보면 토도류 150점, 금속류 19점, 옥석유리 4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비율상으로 볼 때 토도류가 86.7%, 금속류가 11%, 옥석유리가 2.3%의 비중을 차지한다. 토도류 가운데 토기류 24점, 도기류 61점, 조선시대 백자 13점, 근현대 자기류 49점이 수습되었다. 금속류 가운데 철제 15점, 놋쇠 4점이 수습되었다. 옥석유리는 부석 1점, 유리병편 1점, 조개껍데기 2점이 수습되었다.

녹둔도 바닷가 주변의 퇴적층 연구에 따르면 이 일대의 퇴적양상을 구분 지을 수 있다. 지표면에서 아래로 298~401cm 깊이에 회청색의 모래가 섞여 있는 양상은 바람에 의한 퇴적보다는 두만강의 활발한 운반작용으로 퇴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성된 시기는 1,000~1,200년 전으로 판단된다. 지표면에서 아래로 158~298cm 깊이에 황갈색을 띠며 모래와 회색·회흑색의 사질 및 점질토가 퇴적된 양상은 두만강 연안을 따라 형성된 충적지에 홍수 등으로 늪지대의 침전물이 풍화작용으로 퇴적된 모래와 섞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조성된 시기는 400~1,000년 전으로 보인다. 지표면에서 아래로 104~158cm 깊이에 회갈색과 회흑색의 부식질층이 퇴적된 양상은 두만강 고대 강줄기의 퇴적더미에서 평야의 둔덕지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성된 시기는 200~400년 전으로 추정된다. 지표면에서 아래로 0~104cm 깊이에 황회색의 모래와 회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갈색 부식질 모래가 퇴적된 양상은 초원에 관목들로 인해 바닷바람에 의한 풍화 작용이 부분적으로 발생하면서 둔덕지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성된 시기는 220년 전으로 보인다.

1~4차 조사에서 확인된 토층 양상은 지금으로부터 150~400년 정도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임을 알 수 있다. 두만강 연안의 충적지와 지류의 변화에 따라 퇴적된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5. 5부 녹둔도 이순신 유적의 고고 문화와 문헌 검토

5부 녹둔도 이순신 유적의 고고 문화와 문헌 검토는 1장 「두만강 하류 고고 문화의 연구사적 검토(오대양)」[16]와 2장 「녹둔도의 문헌 검토와 녹둔도농보의 위치 비정(정호섭·김경태)」[17]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두만강 하류 고고 문화의 연구사적 검토」의 주요 내용이다. 두만강 유역은 선사시대 이래 다양한 물질문화와 종족, 정치체 그리고 여러 국가가 공생과 번영을 모색한 다문화 복합지대였다. 현재는 북한, 중국, 러시아 3국의 국경이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동해연안을 따라 한국과 일본까지 포함하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개발 중심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두만강 하류지역에서 확인된 구석기시대 유적은 동북한의 굴포리 서포항과 덕산유적, 동관진유적 그리고 길림 연변지역의 화룡 석인구와 대동유적, 왕청 신흥촌유적, 무송 백산 노동유적, 러시아 연해주의 오시노브카, 우스티노브카, 수보로보유적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우리 학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 지역 청동기시대의 자료는 대부분 1960년대를 전후한 시점에서 조사된 것이다. 당시의 주요 연구 자료는 해방 후 북한학자들의 성과를 참고할 수 있다. 함경북도의 라선 서포항 유적, 초도유적, 회령 오동 유적, 무산 범의구석(호곡) 유적 등이 대

16 오대양, 2021, 앞의 글.
17 정호섭·김경태, 2021,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적이다. 연해주 남부지역의 초기 철기시대문화로는 얀콥스키문화와 크로우노프카문화 등이 알려져 있다. 이 중에 크로우노프카문화는 연변지구의 단결문화 및 한반도 중부지역의 중도식무문토기와 상관성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학계에서는 각각 단결문화와 크로우노프카문화로 구분 짓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를 통칭하여 단결-크로우노브카문화로 부르기도 한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연변지구 내 성곽유적의 조사 자료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고구려와 발해 시기 이 일대의 지배방식을 검토한 연구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사료분석 등을 통해 고구려의 동북강역과 이민족 지배에 대한 검토가 주류를 이루었다. 최근 급증하는 성곽유적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 지역 지방통치의 방식이나 책성의 관할 범위, 나아가 이 방면에 대한 교통로를 새롭게 비정하는 견해들이 꾸진히 개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두만강 하류지역의 고고학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그중에서도 신석기시대 후기에서 청동기시대 문화로의 전환기적 현상, 고·중세 사회로의 이행기 이 지역 주요 정치체(종족)들의 역사성과 문화적 성격, 나아가 이들의 계보나 그 강역 문제를 밝히는 부분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2장「녹둔도의 문헌 검토와 녹둔도농보의 위치 비정」의 주요 내용이다. 녹둔도는 조선시대 이래 국경의 주요 군사 요충지로서 관리되고 있었다. 이후 북방의 정세 및 자연의 변화에 따라 변천을 겪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초기부터 녹둔도에서는 농토 개간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즉, 군사와 농민이 농사철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며 방어도 겸하는 둔전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진족의 침입이 잦았기에 둔전이 중지되기도 하였다. 16세기 후반 조선은 두만강 유역의 군사 작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환으로 녹둔도에 둔전을 다시 설치하였다. 이순신이 이를 담당하여 성과를 내기도 하였으나, 여진족과의 전투 이후 다시 둔전은 폐지되고 말았다. 이후 녹둔도 주위를 흐르는 수류의 변화에 따라 섬이 청 측에 접근하게 되었다. 조선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개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이전과 같은 둔전 설치 등은 시행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 않았다. 베이징 조약 이후 러시아가 이곳을 실효지배하기 시작하였는데, 조선은 고종대 이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다양한 자료 및 시굴 성과를 토대로 현 시점에서 녹둔도의 위치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곳의 명칭은 그 기능적인 면에 주목하여, '녹둔도농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또한 녹둔도농보는 자연사구가 아니라 인공적인 구조물을 상정해야 한다는 전제를 두었다. 일련의 추적을 통해 녹둔도농보의 위치는 촌락이 존재했던 위치이며, 인공적 구조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장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접근하였다. 또한 나루터와 물길을 검토하여 녹둔도에서 수확한 식량을 작포도에서 배에 실어 토리동으로 보낸 후 조산보로 옮겼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6. 6부 녹둔도 이순신 유적 공동조사의 성과 및 의의

「녹둔도 이순신 유적 공동조사의 성과 및 의의」(백종오)[18]는 다음과 같다.

① **두만강 유역 충무공 이순신 유적에 대한 최초의 공동 학술조사.** 두만강 하류 일대는 북한, 러시아, 중국 3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접경지역에 해당한다. 녹둔도는 이렇게 군사적으로 긴장감이 감도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단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차례에 걸쳐 공동조사를 추진하여 결실을 맺었다.

② **두만강 하구 녹둔도 이순신 유적의 문헌 사료와 고고 자료의 집대성.** 이순신과 관련된 기본사료인 『조선왕조실록』을 필두로, 『비변사등록』·『신증동국여지승람』·『징비록』·『제승방략』 등 편년사료와 개인문집류, 「녹보파호비」·「전승대비」 등 금석문, 「수책거적도」·「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 등 기록화, 「동람도」·「동여비고」·「북관지도」 등 고지도를 집대성하였다.

③ **녹둔도 이순신 유적의 중심지인 녹둔도농보의 위치 비정.** 문헌 자료와 일

18 백종오, 2021,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강점기 전후의 근·현대 지형도를 분석하여, 녹둔도의 중심지를 비정하였다. 1907년 일본육군참모부가 측도한 「만주십만분일도」 지형도와 1917년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에서 측도한 「조선교통도」 지형도를 활용해, '城場'이라고 표기된 지점을 녹둔도농보의 위치로 추정하였다.

④ **군사통제구역 내 녹둔도농보 비정지에 대한 첫 발굴조사.** 이곳은 국경지역 중 철책선 안쪽의 군사통제지역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엄격히 제한되는 특수지역에 해당한다. 이에 국경수비대와 협의 없이 출입 및 현상 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2020년 2월부터 자연보호구역으로 신규지정되면서 더욱 조사가 제한되었지만, 러시아 조사단의 노력으로 해결되었다.

⑤ **녹둔도농보 추정지 발굴조사에서 조선시대 문화층 확인.** 녹둔도농보 추정지인 성장(城場)지역은 기존 두 차례의 지표조사와 항공촬영을 통해 토축의 방형 구조물이 2중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차 조사에서 방형 구조물을 중심으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조선시대 유물이 포함된 문화층을 발견하였다. 이는 녹둔도 공동조사에서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⑥ **조선시대의 백자류, 도기류, 금속류 등 고고 유물의 확보.** 녹둔도 공동조사에서 수습된 유물은 모두 173점으로 재질별로 토도류 150점, 금속류 19점, 옥석유리 4점 등이다. 이 가운데 녹둔도 이순신 유적과 가장 밀접한 조선시대 백자류는 모두 13점이 수습되었는데, 접시, 잔, 대접, 병 등이다. 중심연대는 18세기를 전후로 한 시기로 여겨진다.

⑦ **녹둔도의 지형과 환경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인식.** 녹둔도 지역은 대체적으로 서쪽과 녹둔강 주변이 미고지 정도이고, 남쪽과 동쪽은 낮은 습지와 소택지, 늪 등이 대부분이다. 지형도를 통해 막연히 생각하였던 현지 지형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중소(中所)지역 트렌치에서는 표토 모래층을 제거하면 그 아래 양질의 점질토가 존재하는 층위를 확인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Ⅲ. 맺음말

『녹둔도 공동조사 보고서』에는 사료 조사와 고고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관련 학술논문도 여러 편 수록되어 일반 보고서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보고서임을 방증하고 있다.[19] 다만 보고서의 특성상 지면의 한계와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해 수록할 수는 없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고서의 구성이다. 보고서는 『녹둔도 공동조사 보고서』와 『녹둔도 공동조사 보고서 부록』 두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녹둔도 공동조사 보고서』는 총 495쪽이며, 『녹둔도 공동조사 보고서 부록』은 총 176쪽이다. 이 보고서와 부록의 분량 차이가 319쪽으로, 부록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인다. 『녹둔도 공동조사 보고서』 1부 머리말에는 이순신과 녹둔도 문물에 관한 「특별전」이 들어가 있어, 보고서를 읽는 과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편이다.

전체 보고서가 495쪽인데, 「특별전」이 128쪽으로 25%를 차지한다. 물론 「특별전」 자체의 완성도가 높고 이순신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머리말 1장 조사 경위와 2장 조사 경과 및 소개 사이에 「특별전」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 보고서의 머리말이 무겁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별전」과 부록을 하나로 묶어 한 권으로 구성했다면 보다 균형 잡힌 보고서와 부록이 되었을 것 같다.

둘째, 조사구역에 대한 안내 부분이다. 보고서 속 「특별전」의 경우 다양한 사진과 지도가 페이지 전체 면을 차지하고 있어 이해도를 높여준다. 그런데 정작 보고서의 조사 경과나 현황에서는 사진과 지도가 전체 면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작게 배치되어 있다.[20] 특히 조사구역을 표시하는 지도에는 다양한 정보가 표기되어 있는데, 크기가 작다보니 지형 정보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

19 박준형, 2021, 앞의 글, 225쪽.

20 이에 관해서는 박준형, 2021, 위의 글, 226쪽에 이미 언급된 바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례로 〈삽도 8. 녹둔도 연차별 조사 현황〉[21]의 경우, 녹둔도 보고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도라고 할 수 있다. 조사구역을 9개 지역으로 나누고 1~4차 조사한 현황을 모두 담고 있는데, 크기가 작아서 쉽게 식별되지 않는다. 먼저 전체 현황도를 페이지 전체 면에 제시하고, 지역별 혹은 연차별 조사 상황들을 하나씩 제시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셋째, 이순신 중심의 서술이다. 보고서의 목차에서 보이듯이 이순신 중심의 보고서임은 분명하다. 우리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인지도가 높은 이순신을 중심으로 서술함으로써,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다. 다만 조선시대 이순신 중심의 서술을 지향하더라도 녹둔도의 다양한 의미를 담기 위해, 근대 항일근거지와 관련해 '한인마을'에 대한 정보[22]도 일부 수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이순신 관련 유물·유적은 기본이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이순신이 수행한 '녹둔도 전투' 자체에 관한 주제[23]도 포함시켰다면 보다 역동적이고 충실한 종합보고서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향후 성과 확대이다. 현재 종합보고서로서 충분한 자료와 함의를 지니고 있지만, 대중 접근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인 전달매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종합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쉽게 정리하여 콤팩트한 교양서로 발간하거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온라인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녹둔도 공동조사 보고서』의

---

21 서울특별시·남북역사학자협의회, 2021, 앞의 책, 150쪽.

22 보고서 속에 한인마을터와 관련한 유적·유물에 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만(4부 2장 고고 조사 검토), 한인마을과 항일유적을 전론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한인마을과 관련된 연구 성과는 반병률, 2010, 「러시아 연해주 두만강 하구의 한인마을 크라스노예 셀로(녹둔도)의 형성과 변화」, 『한국근현대사연구』 54 참조.

23 보고서 속에 녹둔도 전투와 관련하여 일부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만(3부 2장 이순신의 북방활동), 전투 자체를 전론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녹둔도 전투와 관련된 연구 성과는 김진수, 2015, 「선조대(1587년) 녹둔도 전투에 대한 고찰」, 『군사연구』 140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학술적 가치는 희석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녹둔도에 대한 특별전, 문헌조사, 고고조사가 조화롭게 잘 버무려진 최초이자 최고의 종합보고서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의 기본 목적은 '공동조사'이다. 남한·북한·러시아뿐만 아니라 인접한 중국과 일본의 학계와도 연대하여 진정한 '동북아 공동조사'가 실현되는 날을 기대해본다. 이를 통해 '녹둔도 공동조사'는 동북아 평화공존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녹둔도 공동조사 보고서』의 완성은 미지의 섬 녹둔도에 내딛은 첫걸음이지만, 우리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큰 걸음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제정 2019. 11. 11. 규칙 제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재단 직원이 재직 중에 수행한 모든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물에 적용한다.

② 재단의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 훈령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검증되지 않을 때는 본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4조(연구부정행위 범위와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벌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에서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연구자 단독 명의로 게재 · 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인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확정된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결과물"은 재단 자체 연구사업 또는 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연구결과 보고서 · 논문 · 간행물 · 단행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방의무) 재단은 연구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첨 1】) 요구, 연구윤리 관련 규칙 제공, 연구사업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 · 본조사 착수와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와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 처리, 후속조치, 재심의 또는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재단의 사무총장, 연구정책실장,『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 과『영토해양연구』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은『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이 맡는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은 재단 연구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이사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검증 원칙) ① 재단 직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피조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접수한 제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당 사안을 검증 완료할 때까지 심의 · 의결 · 조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때,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는 자
3. 제보된 연구결과물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제9조(검증시효) ①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기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보 사안의 조사 · 심의 · 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소 3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건과 함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심의 · 의결에 따라 해당 회의록 전체 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와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 · 서면 · 전화 ·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에 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사업 기록, 연구결과물 등의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제보자는 제보 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 완료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사를 포함하여 재단 연구윤리위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3. 예비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4. 본조사 실시 여부

④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본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비조사 승인 후 2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위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재단 연구윤리위원 중 1인을 본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조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본조사위원으로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되, 재단이 아닌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킬 수 없다.

제16조(제척 · 기피 · 회피)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에 대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회의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본조사 착수와 조사기간) 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대 30일까지 한 차례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진술 기회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인지를 고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해당 행위 당시 '교육부 훈령'과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과 승인)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내용
4.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본조사위원 명단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심의 · 의결한다.

제2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 의결한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범위 내에서 제재조치를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제재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 수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3. 일정 기간 재단 연구 사업 참여 배제

4. 주의 또는 경고, 재단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② 외부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사장은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단에서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2. 3년 이상 5년 이내 재단 연구사업 참여 배제

3. 소속 연구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본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동 규칙 제15조와 제21조에 따르되, 재조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심의 · 의결한 결과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결과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제24조(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개시 여부를 포함하여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동일 제보 건에 관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여 재심의 · 의결하고 최종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제보 건에 관한 재단의 조치는 이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예비 · 본조사 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은 심의 · 의결 · 조사 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6조(경비)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기록과 정보 공개) 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음성, 영상,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은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제정,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규칙」은 폐기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조에 따라 폐기된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된 위원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위원직을 면한 것으로 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별첨 1】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소 속 기관 :
(소속부서)

위 연구(책임)자는 학문적 양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과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연구(책임)자 : (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 관련 고대 · 중세 · 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소(한 · 중관계연구소, 한 · 일관계연구소, 독도연구소) 소장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동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연구자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여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하고, 재단소속 직원 중에서 논총의 편집과 간행 실무를 수행하는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논총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편집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다.
   4) 사무간사는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 등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 만료 전 유고 시, [편집위원회 규정] 제1항의 편집위원 위촉 방법에 의해,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림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6.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논총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나 논총 기획연구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2017년 5월 19일, 2018년 2월 23일, 2020년 2월 14일, 2021년 12월 10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림,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 · 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3) 논리성 및 독창성
   4) 학술적 가치
   5) 인용자료의 적절성
   6) 분량의 적절성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처리한다.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A, A, A)
   2)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 :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이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A, B, C) (B, B, C)
   3) 수정 후 재심사 : 1인이 A 또는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C, C) (B, C, C)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고 C를 포함한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B, D, D) (C,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판정과 "검토 또는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 등의 심사 결과 내용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통보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재투고하더라도 논총 게재대상 논문으로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편파 또는 불공정 심사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위원 교체에 의한 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림, 서평, 자료소개 등을 게재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투고자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접속하여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 내의 논문 투고 절차에 따라 저작권 활용 동의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회원 가입 후 투고 원고를 제출하고 사진 등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첨부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초록도 국문 800자, 영문 400자 내외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Ⅰ〉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돈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鵠擁,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2018년 2월 23일, 2018년 8월 19일, 2020년 8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편집위원장

김현숙 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

편집위원

김영숙 동북아역사재단 초빙연구위원

김재홍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교수

박정민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백종오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이유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정선 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정병준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순일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조영광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홍성화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편집간사

허 란 동북아역사재단 출판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78호(2022. 12)

초판 1쇄 인쇄 2022년 12월 25일
초판 1쇄 발행 2022년 12월 30일

펴낸이 이영호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6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